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시편 말씀 묵상]

제임스 김 목사

목차

서론	9
매우 복 되도다 그 사람 (1편)	11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므로 (1편)	17
악인의 길 vs. 의인의 길 (2편)	21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3편)	29
인생들아 (4편)	37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4:4)	44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5편)	48
눈물의 기도 (6편)	54
의인을 세우소서! (7편)	56
분노하시는 하나님 (7:11)	62
"사람이 무엇이 관대" (8편)	65
주님을 의지하라! (9편)	70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 (10편)	75
교만한 생각입니다. (10:4)	81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11편)	86
경건한 자가 원하는 안전지대 (12편)	91
경건하고 충실한 자 (12:1-4)	95
기도의 과정 (13편)	97
포워된 하나님의 백성 (14편)	103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라! (15편)	109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16편)	117
내 기도예 귀를 기울이소서 (17편)	123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8:1-19)	128
내 의를 따라 상주시는 하나님 (18:20-27)	134
승리의 비결 (18:28-42)	140
나를 세상의 으뜸으로 삼으시는 주님 (18:43-50)	145
하나님의 말씀 (19편)	151
더 사모하라! (19:10)	157
"이제 내가 아노니" (20편)	162

내 마음의 소원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4; 21:2)	168
“주의 힘” (21편)	172
도울 자가 없을 때 (22:1-11)	178
“속히 나를 도우소서” (22:12-21)	184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22:22-31)	190
만족한 삶 (23편)	197
철저히 부족함을 느껴야 합니다. (23:1)	207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 (24편)	209
“주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25:1-7)	215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소서. (25:7)	222
내가 선택해야 할 길 (25:8-15)	225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25:16-22)	231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라! (1) (26편)	237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라! (2) (26편)	242
두려운 상황 (27:1-6)	249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27:4)	257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27:7-14)	259
확실히 믿습니까? (27:13)	266
주님이 건설치 아니하시는 교회 (28편)	273
주님이 세우시지 않는 교회 (28:5)	278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29편)	282
하나님이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30편)	288
하나님을 의지하라! (31:1-8)	295
“그러하여도” 신앙 (31:9-14)	301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31:15-24)	308
복 있는 사람 (32편)	315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 (33편)	321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33:11)	327
광채를 입으라! (34:1-7)	330
“여호와를 경외하라” (34:8-14)	337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34:15-22)	343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소서! (35:1-8)	349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35:9-16)	355
나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35:17-18)	362

“주의 광명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36편)	368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37편)	375
불평하지 말라! (37:1, 7, 8)	382
참고 기다리라! (37:7)	385
악인 Vs. 의인 (37:17-22)	388
우리의 길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37:23-30)	394
우리를 실족케 하는 요소들 (37:31)	402
“나의 죄로 인하여” (38:1-12)	405
인간관계 (38:11)	412
“주 나의 구원이시여” (38:12-20)	415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38:21-22)	423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39편)	431
우리를 향하신 셀 수도 없는 주님의 생각 (40:1-10)	439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40:11-17)	447
빈약한 자를 권고하십시오. (41편)	452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42편)	460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42:5)	467
“나의 극락의 하나님” (43편)	470
낙망과 불안 (43:5)	476
주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 (44:1-8)	478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44:9-12)	485
필객의 붓과 같은 혀 (45편)	492
필객의 붓과 같은 혀 (45:1)	499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46편)	503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47편)	511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48편)	516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49편)	525
재물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49:6-8)	531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 (49:12, 20)	534
외식 (50편)	537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51편)	545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52편)	553
어리석은 자들 (53편)	561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54편)	567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55편)	573

하나님을 의지하라! (56편)	579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십니다. (56:4, 10)	586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56:8)	590
마음을 확정하라! (57편)	593
내 영혼이 억울할 때 (시57:6)	600
판단하시는 하나님 (1) (58편)	607
판단하시는 하나님 (2) (58편)	613
주님의 힘을 노래하십시오. (59편)	618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60편)	626
“내 마음이 놀랄 때에” (61편)	632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62편)	639
내 마음이 흔들릴 때 (62:8)	645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63편)	649
제임스의 노래: 광야에서 부르는 찬양 (63:3)	658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라! (64편)	665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65편)	673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66편)	681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67편)	688
의인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68:1-18)	694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1) (68:19-35)	701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2) (68:19-35)	706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 (69편)	712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69:30-31)	720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70편)	727
긴급한 기도 (70:1, 5)	732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 (71:1-14)	734
아름다운 늙은이 (71:9)	740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소서’ (71:15-24)	744
이상적 왕 (72편)	748
마음이 정결한 자 (1) (73편)	755
마음이 정결한 자 (2) (73편)	760
주님여, 기억하옵소서! (74편)	764
재판장이신 하나님 (75편)	772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76편)	777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77편)	784
나의 연약함 (77:10)	790
내가 연약할 때 (77:10-12)	795
“자손에게 알게 하라” (78:1-22)	798
정함이 없는 마음 (78:23-41)	804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78:42-72)	811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79편)	817
“우리를 구원하소서” (80편)	823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81편)	830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82편)	837
“주 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83편)	843
축복의 사람 (84편)	849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85편)	856
주의 종에게 힘을 주소서! (86편)	862
참된 교회 (87편)	869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88편)	876
유복한 자 (89:1-18)	884
나를 힘 있게 하시는 하나님 (89:19-52)	891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90편)	896
“나의 피난처” (91편)	904
심히 깊으신 주님의 생각 (92편)	910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찬양하십시오. (92:1)	917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92:7)	920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93편)	923
보수하시는 하나님 (94편)	927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 (95편)	934
진정한 경배 자 (96편)	939
“여호와께서 통치 하시나니” (97편)	945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98편)	949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 (99편)	954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100편)	960
이상적인 왕과 이상적인 그의 백성 (101편)	964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 (101:2)	971
빈궁한 자의 기도 (102편)	976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십시오. (103편)	982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104편)	990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십시오. (105편)	993
은혜로 나를 기어가소서. (106편)	999
큰 죄 가운데서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106:6-12)	1006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세요. (107편)	101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있나요? (107:43)	1017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108편)	1026
“나는 기도할 뿐이라” (109편)	1032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110편)	1036
“좋은 지각” (111편)	1043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분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111:1, 10)	1049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 (112편)	1054
“여호와와 종들아 찬양하라” (113편)	1059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 (114편)	1064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115편)	1069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116편)	1076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116:1-12)	1083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117편)	1089
“여호와께 감사하라” (118편)	1095
도(말씀)를 행하는 자 (119:1-8)	1099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119:9-16)	1102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하여” (119:11)	1109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하여” (119:11)	1114
영적 연료 (119:11, 56)	1117
인생의 목적 (119:17-24)	1120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119:25-32)	1124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119:33-40)	1131
자유롭게 행보하라! (119:41-48)	1136
스스로 위로하라! (119:49-56)	1140
나로 소망이 있게 하신 주님 (119:49-50)	1146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119:49-56)	1148
나의 소유 (119:56)	1153
네 발을 돌이키라! (119:57-64)	1157
마음의 지방을 제거하라! (119:70)	1160

고난의 유익 (119:71-72)	1163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라! (119:73-80)	1170
‘주님, 언제나 저를 위로하시겠습니까?’ (119:81-88)	1175
“나의 즐거움” (119:89-96)	1179
명철한 자 (119:97-104)	1183
끝까지 행하십시오! (119:105-112)	1189
사랑과 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합시다! (119:113-120)	1193
“지금은 여호와와 일하실 때입니다” (119:121-128)	1197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 (119:129-136)	1200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을 때 (119:137-144)	1205
주님께 부르짖으라! (119:145-152)	1208
‘오 주여, 나를 소성케 하소서!’ (119:153-160)	1212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라! (119:161-168)	1215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119:169-176)	1218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 (120편)	1221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121편)	1225
누가 내 영혼을 지키시는가? (121:7)	1232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합니다. (122편)	1234
주만 바라볼지라 (123편)	1238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124편)	1244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125편)	1248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126편)	1253
주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시면 헛됩니다. (127편)	1257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128편)	1262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129편)	1267
기다림 (130편)	1272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케 하는 방법 (131편)	1277
젖 떤 아이와 같은 중심 (131편)	1280
젖 떤 아이와 같은 영혼 (131:2)	1285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132편)	1288
교회의 연합 (133편)	1294
“여호와를 송축하라” (134편)	1299
여호와를 찬송하라! (135편)	1304
“여호와께 감사하라” (136편)	1310
하나님께 감사하라! (136:1)	1316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137편)	1319
최고의 기쁨 (137:6)	1326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유 (138편)	1329
내 영혼을 강하게 하소서! (138:3)	1336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139편)	1340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는 하나님 (140편)	1346
그러나 주님, 내 눈은 주님께 향합니다. (141편)	1351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142편)	1358
참담한 마음 (143편)	1364
우리 삶 속에 재현되는 상황들 (143:5)	1372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143:8)	1376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144편)	1379
주님, 인간이 무엇인데 그를 생각하십니까? (144:3-4)	1386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145편)	1389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145:3)	1394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146편)	1398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147편)	1404
하나님께 찬양하라! (147:1)	1410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합니다. (147:1)	1415
하늘과 땅 위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148편)	1419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149편)	1423
하나님, 아름답게 해주세요. (149:4)	1427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150편)	1430
결론	1435

서론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제 자신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부족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른 성경 65권 책도 있는데 왜 그 많은 책들 중에 제가 시편 책을 묵상하기로 결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교회에서 하루에 시편 5편씩(그리고 잠언 1장씩) 읽으라는 권면을 받아들여 읽었던 것이 제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Spiritual Depression)이란 책을 읽으면서 시편 42편 5, 11절과 43편 5절 말씀에 근거한 저자의 글에 제가 큰 영향을 받아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으로 인하여 낙망하고 이런 저런 힘들게 여겨지는 일들로 인하여 불안해 할 때에 시편 기자처럼 저 또한 제 자신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갔을 때에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121편)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케 하시는 경험을 하였습니다(42:5, 11; 43:5). 이러한 경험을 풍성히 하고 싶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에서 이런 저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결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이 시편 말씀 묵상 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제가 매주 수요기도회 때마다 설교한 후 다시금 묵상 실에 들어가서 설교 한 시편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글을 정리한 것을 모아 편집한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라고 정한 이유는 시편의 제일 첫 편 첫 구절인 1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과 시편 제일 마지막 편 마지막 절인 150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를 생각할 때에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

든 세계” 후렴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연관해서 시편 전체를 생각할 때 제 마음에 든 결론적인 생각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였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5년 10월,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길 기원하면서)

제 1편: 매우 복되도다 그 사람

[시편 1편]

교회 유머 중 사탄의 팔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8복중에 제 주목을 끈 3 가지 복을 적습니다:

첫 번째 복 -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임이요",

두 번째 복 -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임이요",

일곱 번째 복 -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요"(인터넷).

저는 사탄의 이 3가지 복을 생각할 때 이 유머가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사탄의 일곱 번째 복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인격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머리만 커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지식(information)은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는 변화(transformation)가 너무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 다시 기본(basic)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시편 1편에서 "매우 복되도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 순종함으로 말씀 인격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삶의 변화를 추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복된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복된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한 2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매우 복되도다 그 사람은 죄를 멀리 합니다.

성경 시편 1편 1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매우 복된 사람은 작은 죄부터에서 큰 죄까지 다 멀리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죄란 악인의 꾀를 좇는 것(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을 말합니다. 매우 복 있는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쳐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놓인 의인의 길(6절)과 죄인의 길(1절)의 갈림길에서 결코 죄인의 길에 발조차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인의 꾀에 자주 넘어가 그 악인에게 우리의 눈과 귀를 내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내주고 있습니다. 아예 그 악인의 길에

발도 내려놓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악인의 길에 우리의 발을 들여놓고 '주님이여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상황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는 그 작은 죄의 길을 걷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작은 죄의 길을 걷다가 보면 나중에는 더 큰 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큰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stand in the path of sinners). 처음엔 우리가 악인의 꾀를 좇다가(walk) 나중에는 아예 죄인의 길에 서있게 된다(stand)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우 복 있는 그 사람은 작은 죄의 길인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였기에 죄인의 길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습니다(6절). 더 나아가 매우 복 있는 그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sit) 않습니다(1절). 여기서 오만한 자리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악인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죄를 가까이하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다가 어느덧 죄인의 길에 서서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오만한 자리에까지 앉게 됩니다. 그러나 매우 복 있는 그 사람은 이 모든 죄(작은 죄에서 큰 죄까지)를 멀리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피함에 있어서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점진성을 무시할 수 없다"(박윤선). 우리는 이 죄의 점진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예 작은 죄의 뿌리부터 싹둑 잘라 버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만일 우리가 작은 죄라고 가볍게 여기어 한번 호기심 가운데 악인의 꾀를 좇다가 보면 결국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알고 우리는 작은 죄라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둘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죄를 멀리하든지 아니면 죄를 가까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든지.

마지막 둘째로, 매우 복되도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성경 시편 1편 2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매우 복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므로 죄를 멀리합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2절).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라고 찬양합니다(찬송가 500장 1절). 매우 복된 그 사람의 영혼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기뻐하며 만족하기에 그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한 3가지가 있습니다:

(1) 매우 복되도다 그 사람이 받는 복은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성경 시편 1편 3절을 보십시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 이 축복은 1절에 나오는 악인과는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악인은 도덕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열매가 없는데(박윤선) 매우 복된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열매 맺습니다. 또한 매우 복된 그 사람은 점진적으로 말씀 인격화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인격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기에 그는 매우 복 받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매우 복되도다 그 사람이 받는 복은 생명력 있는 신앙입니다.

성경 시편 1편 3절을 보십시오: "...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 이 축복 또한 1절에 나오는 죄인과 대조가 됩니다. 죄인은 목표를 미치지

못하는데(박윤선) 매우 복 있는 그 사람은 신앙의 목표인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기에 그는 매우 복 받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매우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은 형통의 복입니다.

성경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매우 복 있는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 얼마나 매우 복된 삶입니까? 그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십시오. 그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인내하며 견디는 가운데 죄를 멀리하였습니다(욥1:22, 2:10). 그러므로 그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42:5). 또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처음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12절). 이와 같이 매우 복된 그 사람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립니다(롬8:28). 그러나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시1:4) 매우 복 있는 의인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5절)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6절).

매우 복되도다 그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매우 복되도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우 복되도다 그 사람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복된 사람이 된,

제임스 목사 나눔

("매우 복되도다 그 사람 제임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제 1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므로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다”(시편 1편 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성경 시편 1편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2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묵상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훈련을 게을리 하면 우리는 세상의 음성들이나 사단의 음성들이나 우리 자신의 음성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의 시간은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천천히 그리고 철저하게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광부가 금을 캐듯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므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므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His Story)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Promise)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약속을 성취하러(Fulfillment)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신약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신약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와 더불어 그가 부활 승천하신 후 교회 이야기(The story of church),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읽고, 듣고, 공부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는 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마16:15, 16).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일뿐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분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젠가 새벽기도회 때 저는 성경 시편 103편 13절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3절). 성경은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흠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풀과 같은 인생인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항상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저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의 죄과를 저에게서 멀리 옮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0-15절).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 깨닫게 될 때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길 원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식구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케 하신 기억이 납니다. 저는 껍데기 목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 받아 제 마음을 실어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가정생활, 직장 생활, 교회 생활, 즉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그 분의 마음을 본받는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므로 믿음에 견고히 서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장차 받을 환난을 예상해야 합니다.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져 예수님을 배도하게 만들고자 더욱더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딤후4:7).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오직 말씀!)

제 2편: 악인의 길 vs. 의인의 길

[시편 2편]

언젠가 기독교 서점에 갔었을 때 일입니다. 그 서점에서 노회 한 어르신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분이 저에게 '한국에서 계속 사역을 했으면 인기도 있고 했을텐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2001-2003년도에 한국에서 공부 및 사역을 하였음). 그 때는 저는 좀 장난끼로 돈 계산을 하려고 들고 있었던 "광야의 은혜"라는 책을 그 어르신 목사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도시 목회보다 미국 Los Angeles에서 광야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의 은혜"란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네가 변하지 않았다면 너는 배운 것이 아니다. ... 네가 변하기 전까지는 지식은 네 것이 아니다." 참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말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조금씩이나마 맛보고 있는 저는 특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 선포한 후 이렇게 다시 한 번 상고하면 정돈하여 글을 적어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볼 때에 저는 "아니다"라는 대답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배움에는 "변화"(transformation)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Hendricks).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 봅니다: "과연 나는 말씀의 능력으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여러 변화 중에 주님께서 저를 말씀을 통하여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우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세우시는 역사입니다(마16:18). 특히 저는 사역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몸 된 승리장로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게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저를 꼭 붙잡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또 다른 변화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제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제가 오래 전에 읽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Spiritual Depression)란 책을 읽은 후부터 주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책을 읽다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 (시42:5, 11; 43:5)고 선포하면서 나아갔다고 지적했을 때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제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사역함에 있어서 힘들 때 제 자신의 영혼에게 주님의 약속인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16:18)라는 말씀으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므로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다시금 견고히 서서 힘 있게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저는 성경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한 후 교회 몇몇 성도님들에게 각자 자신에게 '매우 복되도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야!'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할 것을 도전하였습니다. 그 때 저는 "매우 복되도다 제임스야!"라고 제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의인의 길을 걷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케 하셨기 때문입니다(시1:1-2).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신앙의 열매를 맛보며("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그 앞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든 행사가 주님 안에서 다 형통하는 축복("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을 누리게 하고 계시기에 저는 제 자신의 영혼에게 "매우 복되도다 제임스야!"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2편 말씀 중심으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연이어 묵상하고자 합니다. 연이어라 함은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복 있는 사람은”(How blessed is the man ...)이라는 말로 시작한 후 시편 2편 마지막 절인 12절 하반부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How blessed are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시편 1편과 2편의 연관성을 짓고 있기에 우리는 시편 2편도 1편에 연이어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 묵상의 내용은 "악인의 길"(1:6)과 "의인의 길"(1:6)입니다.

먼저 악인의 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악인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한 3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악인의 길은 분노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풍선과 같습니다. 마치 풍선이 폭발하기 일보직전인 것처럼 이 세상 사람의 분노가 터질 것만 같습니다. 힘들고 바쁜 세상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분노를 쏟아낼 대상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움과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아 절제되지 않고 있는 마음의 분노에 더욱더 기름을 붙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대적하는 악인들의 분노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비록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피부로는 느낄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종교의 자유가 없는 선교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자기 민족에서 선포하는 자를 감옥에 가두며 핍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2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없애고자 "이를 갈며 떠들며 덤비는 태도"를 말합니다(박윤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미움을 품고 덤비는 것을 예언한 이 구약 말씀의 성취를 신약 공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빵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리며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 그들은 분노로 가득차서 예수님을 어떻게 서든 죽이려고 이를 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분노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오신 유대인들이였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배후 조종 인물 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마다하고 의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독사의 자식들의 길)을 걸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이 예수님에게 분노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우리와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악인의 첫 번째 길인 분노의 길을 걸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쟁과리 치듯 떠드는 '기도'와 '찬양', 예수님을 삶에 없애고자 노력하는 이중인격적인 삶의 태도 등을 생각할 때 혹시 지금 우리는 이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 봐야 합니다.

둘째로, 악인의 길은 허사를 경영하는 길입니다.

"광야의 은혜"란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연필로 쓴 다음 하나님께 지우개를 드려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의 목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목회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영적 완전 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목회를 하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양보(yielding)를 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므로 지금 나는 헛된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은 저의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적용되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계획대로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가정의 삶, 또한 우리 직장과 사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자아 성찰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사업과 교회를 세우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양보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성경 시편 2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허사를 경영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없애고자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은 허사뿐이라는 말입니다(박윤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삼일 만에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 무덤에 넣었지만 그것이 허사였던 이유는 예수님은 삼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7절 -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인간의 계획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계획은 허사를 경영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출33:15).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계획은 헛된 계획일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인의 길은 함께 꾀하는 길이요 대적하는 길입니다.

성경 시편 2편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세상 지도자들이 함께 꾀하여 대적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고자 하였습니다(3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한 악인들은 진리를 무거운 멍에를 여기므로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자 진리를 거부하고 벗어버리고자 한 것입니다(박윤선).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다윗 왕을 죽이고자 했던 압살롬의 모사인 아히도벨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사를 들었다면 그는 그의 아버지인 다윗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사인 후새를 압살롬에게 보내사 후새의 꾀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삼하17:14).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 왕은 살고 압살롬이 죽습니다(18:14-15). 이 성경 이야기를 생각할 때 결국 세상의 군왕들이던 관원들이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여 함께 꾀하여 보았자 하나님 보시기엔 웃기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시2:4).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름 받은 자"(2절)는 물론 메시아 이신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지금 현세에 목회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꾀하여 목회자를 대적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웃으시고 비웃고 계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 기름 받은 자를 함부로 대적하며 함께 꾀하여 '목회자 밀어내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을 발하며 진노하실 것(5절)을 왜 그들은 생각지 못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의인의 길은 회개의 길입니다.

성경 시편 2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말씀에서 “...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 교훈을 받을지어다”하신 말씀은 회개를 권면하는 말입니다(박윤선). 즉, 참된 지혜와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분노의 길과 허사를 경영하는 길과 함께 꾀하며 대적하는 길에서 급속히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인의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성경 시편 2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성경은 어떻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후에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섬기는 자가 되어 합시다(눅17:10).

마지막 셋째로, 의인의 길은 예배의 길입니다.

성경 시편 2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는 뜻입니다(박윤선). 그런데 왠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롯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 맞춘 장면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악인 가롯 유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뻔 했던 그가 예수님을 입 맞춘 모습이 생각납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은 의인의 길을 걷는 자의 행동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가롯 유다의 행동은 악인의 길을 걷는 자의 행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가롯 유다처럼 거짓된 입술로 예배하는 거짓된 예배자의 악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짓된 예배를 하나님께 매 주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혹시 마음을 주님에게서 먼 것은 아닌지요? 혹시 우리의 입술은 가롯 유다처럼 거짓된 입술은 아닌지요? 의인의 길을 걷는 자는 진실한 입술로 주님을 예배합니다(12절). 우리는 이 의인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 합시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 의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드려야 합니까? 만일 지금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진실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며 함께 꾀하여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 걸어가신 의인의 길을 신실하게 묵묵히 걸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매우 복된 사람입니다.

의인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는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회개와 섬김과 예배를 추구하면서)

제 3편: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시편 3편]

여러분, “고개 숙인 남자”란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이사를 갔는데 남편은 트럭에 어디에 앉아갈까?”라는 질문에 두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1) “운전수 옆에 조수석”과 (2) “뒤쪽의 짐칸.” “뒤쪽의 짐칸”이란 대답의 이유는 (1) “짐을 보호하기 위해”, (2) “가족을 태우느라 자리가 없어서”, (3) “돈을 아끼려고”, 그리고 (4) 재미삼아”가 있습니다. 무엇인줄 아십니까? 위에 1~4번엔 대답이 없고 정답은 “제발 버리지 말고 데려가 달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하. 한 쪽으로는 웃기는 대답이지만 다른 한쪽으로 보면 안타까운 한국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조기퇴직으로 고개 숙인 한국 남자들, “실직 증후군”이라고 해서 “나는 인생의 낙오자가 됐다”는 생각 및 “나’ 하나만을 믿고 살아온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대할 수 없다”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상실감, 배신감, 패배감 그리고 좌절감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저는 이 “고개 숙인 남자”들에 대하여 한국 한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기사를 읽고 ‘고개 숙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고개 숙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충분히 ‘상실감,’ ‘배신감,’ ‘패배감’ 및 ‘좌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고개 숙이게 만드는 ‘감’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이렇게 되었구나,” “나의 죄 때문에 내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등등. 우리 자신의 마음에 들리는 이러한 음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상실감과 패배감, 좌절감, 특히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3편 말씀에 나오는 시편 기자인 다윗도 충분히 고개를 숙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자기의 충실한 군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도망 다니는 신세로 전락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가장으로서 내가 책임을 다 못하여 우리 집이 이렇게 되었구나’ 등등 다윗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볼 때 그는 충분히 고개를 숙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 시편 3편 3절 하 반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하나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다윗의 고백입니까? 저는 오늘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아래 오늘 성경 시편 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겸손히 받길 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 많아지는 ‘나의 대적’”(Increase of my adversaries) 입니다.

성경 시편 3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치는 자가” 많고(1절) 또한 “많은 사람이 있어” 자기에게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2절). 여기 시편 3편 1-2절 말씀에서 ‘많다’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적들은 점점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1:1-2) “의인의 길”(6절)을 걸을 때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우리를 대적할 것이며 그들의 세력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3:1-2).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편2절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함께) 꾀”한다고 말한 것입니다(2:2).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가하면 “기름 받은 자”(2절)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흥미로운 사실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눅23:12). 예수님을 대적함에 있어서 원수지간이었던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를 대적함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은 친구가 되어 함께 우리를 넘어트리려고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대적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1) 다윗처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가 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이던지, 아니면 (2) 의인의 길을 신실하게 걷고 있다는 증거. 믿는 자라도 넘어트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우리의 대적들(참고: 뵤전5:8), 이들이 우리에게 주고자하는 치명타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에게 많은 대적들이 한말인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음성입니다(시3:2). 많은 대적들이 다윗의 영혼에게 한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지 않을 것이다, 그가 너를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트리는데 아주 치명적인 사탄의 음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음성은 우리가 역경과 위기 가운데 지치고 쓰러질 때 아주 잘 들리는 음성입니다. ‘봐라, 너가 지금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도와주시지 않고 있잖냐’라는 식으로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에게 들릴 때 약화된 영력 속에서 너무나 잘 들리는 이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낙망케 하며 불안케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찬송가 397장 후렴).

마지막 둘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성장하는 믿음”(Increase of my faith) 입니다.

많아지는 나의 대적(Increase of my adversaries)은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Increase of my

faith)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성장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한 3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성장하는 믿음은 “'그러나' 믿음” 또는 “역행하는 믿음”입니다.

성경 시편 3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한국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지만 원어 히브리어 성경이나 또한 영어 성경을 보면 “But”(그러나)이란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 다윗은 많아지는 대적들이 자기를 치려고 하고 그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 말들에 동요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신앙고백인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담대히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역행하는 믿음’입니다(박윤선). “신앙은 역경과 역리를 오히려 즐깁니다(박윤선). 우리는 세상의 죄악 된 물결을 역류해야 합니다. 마치 폭포수를 역류해서 올라간다는 한 물고기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죄악의 폭포수를 역류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이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그런데 시편기자 다윗은 지금 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대적들이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음성을 역리하여 ‘하나님은 나의 보호해 주시고(“나의 방패시요”),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며(“나의 영광이시요”) 더 나아가서 나에게 소망과 위로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박윤선).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고백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그러나” 믿음 또는 “역행하는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영혼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아니 우리 자신이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가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 거짓말에 속지 말고 대항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저런

하나님이시다고 진리의 말씀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또는 우리 안에 침투해 있는 대적들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2) 성장하는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성경 시편 3편 4, 7,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 (셀라) …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봅니다(예: 4절 -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 그는 대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는 과거의 기도 응답에 근거하여(7절)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당면한 역경과 위기에서의 하나님의 구원(건져주심)을 간구하였습니다. 비록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계속 말하였지만 다윗은 그 음성에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자기 영혼에게 그 사실을 선포해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간구하면서 자기의 일어나 많은 대적들을 어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7절).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귀한 교훈이란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에 비춰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무한함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결코 성장하는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인간의 한계를 모르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 대적들과 싸우려고 하는 신앙인은 그 싸움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패배감과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피곤하고 졸립지, 기도하지 말고 자라. 기도하지 않고도 너는 목회를 할 수 있다. 너 자신을 의지하고 마음껏 목회를 해라. 그러다가 안 되면 기도해도 늦지 않다.’ 과연 사탄의 계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의 계략은 ‘너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 너 자신을 의지하라. 너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3) 성장하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성경 시편 3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 이다.” 이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 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두려움도 더 많아지기 마련인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믿음의 소유자의 반응입니다. 진정으로 성장 하는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대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적어집니다. 두려움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역행하는 믿음을 지지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을 향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앞과 뒤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많은 대적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자기에게 나타내실 하나님, 그리고 좌절감과 낙망과 패배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위로와 승리를 주시는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기에 그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는 누워 잠을 잤습니다(5절). 위기 속에 잠을 잘 수 있는 담대한 성도,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아 우리 바다 표면에 파도가 크게 칠지라도 바다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깊은 바다 밑에는 잔잔함이 있듯이 우리의 대적들이 아무리 날뛰고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깊이가 있다면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잠잠함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사 30:15) “...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어늘...”(in quietness and trust is your strength)].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머리를 고개 숙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상실감과 배신감, 패배감과 좌절감 또한 죄책감을 맛보게 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고개 숙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별의 별 시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많은 대적들을 보내고 있으며 또한 많은 고통과 역경으로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귀에 ‘하나님은 너를 건져주시지 않을꺼야’라고 말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역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함을 깊이 인식하여 성장하는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성장하는 믿음은 역행하는 믿음이요, 기도하는 믿음이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찬송가 397장 후렴)라고 찬양하면서 승리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은총으로 함께 해 주신 임마누엘 주님께 감사하면서)

제 4편: 인생들아

[시편 4편]

세상 여기저기에서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뉴스를 거의 매일 접할 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사랑하는 분들이 질병과 노환으로 죽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찬송가 474장 3절 가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 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 저는 여기저기에서 죽은 사람들의 뉴스를 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김우진씨의 “사의 찬미”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마디를 여기에 옮긴다면 이렇습니다: “눈물로 된 이 세상이/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 허영에 빠져 날뛰는 인생아/ 너 속였음을 네가 아느냐/ 세상에 것은 너에게 허무니/ 너 죽은 후는 모두 다 없도다.” 참으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젊은 나이에 자문을 해 볼 때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그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 시편 4편 말씀 중심으로 “인생들아!”(2절)란 제목아래 한 세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들이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한 3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4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궤행을 구하겠는고 (셀라).” 이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왕적 영광으로서 그의 대적들이 그것을 욕되게 하는 대적 행위를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에 기름부음 받은 자인 주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세상에서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자아 반성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어느 때까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할 것이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내면 살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 우리는 허사를 사랑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4편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궤행을 구하겠는고 (셀라).” 이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 허사를 좋아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사”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다윗을 대적하는 허사를 사랑(“좋아하고”)한 죄를 회개할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전1:2). 우리는 이 헛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허사”(worthless), 곧 무가치한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즉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로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순간적인 가치이던 아니면 전혀 가치도 없는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타협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허사를 사랑하는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시4:2).

(3) 우리는 꾀술을 구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4편 2절 말씀을 또 다시 보십시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꾀술을 구하겠는고 (셀라).” 이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 꾀술을 구하겠는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꾀술”이란 ‘속임수’(deception)를 말합니다. 이미 다윗의 많은 대적들은 다윗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라고 거짓말로 대적하였습니다(3:2).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4편에 와서도 다윗의 대적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속임수를 써서라도 다윗을 계속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속임수는 결국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자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속임수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러한 속임수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아버지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무척이나 애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탄의 속임수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속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22절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비춰보십시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말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는 너무나 수없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이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인생들이 깨달아야 할 것 한 2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4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과 및 기타 성도들을 택하여 세우셨으니 만큼,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끊지 못한다는 뜻”입니다(박윤선). 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러한 사실은 저로 하여금 성경 로마서 8장 35-39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본문 시편 4편 3절에서 “경건한 자”란 “총애를 받는 자”, 즉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변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적의 허사와 궤행로도 결코 이 사실을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2)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4편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다윗이나 우리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1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결코 우리의 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의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로, 인생들이 행해야 할 것 한 3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우리는 떨며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4편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여기서 “떨며”란 말씀은 70인 역에서 “분 내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박윤선). 즉, 분 내어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지은 것을 분히 여겨서 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박윤선).

우리는 분 내어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허사를 사랑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쾌락을 구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과거에 범한 것을 분 내어 우리는 더 이상 범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우리는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4편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 지어다.” 보통 자리에 눕는 시간을 밤이라고 말한다면 시편 기자는 지금 밤중에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행하지 말고 밤중에 고요히 자아 반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심중에 말씀하시도록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심중에 세상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이 너무나 잘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심중에 말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범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중에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허락하는 묵상의 훈련을 함으로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이 묵상 훈련에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훈련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러 있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도록 잠잠해야 합니다. 이러한 잠잠함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사30:15).

(3)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4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 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의의 제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한 심령’, 곧 회개하는 마음입니다(51:16, 17).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회개하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회개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범한 죄들을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생들이 마땅히 회개할 것과 깨달아야 할 것과 또한 행해야 할 것을 행한다면 그 결과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시편 4편 말씀은 한 4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1절).
2.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6절).
3.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실 것입니다(7절).
4.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평안함 속에서 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8절).

이러한 축복은 인생들이 회개할 것들과 깨달아야 할 것들 또한 행해야 할 것들을 알고 행하는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임스 목사 나눔

(회개의 눈물을 사모하면서)

제 4편: "너희는 떨어져 범죄치 말지어다"

"너희는 떨어져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시편 4편 4절).

성경은 "너희는 떨어져 범죄치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시4:4).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떨어져"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8:13).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을 접했을 때에 이 말씀대로 그 유혹을 물리쳐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줄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죄악 된 본능은 유혹을 접했을 때 그 유혹으로 조금씩 가까이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 안에 떨림이란 것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까? 바로 "곤란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시4:1). 시편기자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시 3편)과 "나의 대적"(1절) 혹은 "나의 모든 원수"(7절)들로 말미암아 곤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곤란보다 더 다윗을 힘들게 했던 곤란은 바로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2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들을 한다면 곤란 중에 있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음성들로 말미암아 충분히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게 만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곤란 중에 우리는 어떠한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4:2).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한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우리가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추구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시편 4편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 허사를 좋아하고 꾀함을 구하겠는고." 우리는 곤란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헛된 것과 거짓에 눈을 돌려 그것들에게 이끌림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2) 우리는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시편 4편 5절을 보십시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우리는 곤란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지 못하므로 자신을 의지하다가 불의를 행할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곤란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떨며 범죄치 말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4편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26절 말씀인 "분을 내어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분을 내어도 떨면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심중에 말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4편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는 조용한(Quiet) 시간에 조용한(Quiet) 장소에서 조용한(Quiet)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시도록 양보(yielding)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4편 4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 지어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됴를 알"아가야 합니다(46:10).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알아야 합니다(사30:15). 그러므로 우리는 곤란 중에 떨며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시4:4).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은혜에 잠기길 원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 5편: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시편 5편]

언젠가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저희 집 아이들과 함께 조카의 생일 축하 식사를 하는 식당으로 운전하고 간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저는 그 식당으로 가는 지리를 잘 몰라서 컴퓨터 인터넷으로 방향(direction)을 받아서 운전해서 약속한 식당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을 함께 보내 후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길을 잃은 이유는 왔었던 길로 다시 거꾸로 가면 되었을 텐데 저는 그러지 않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 제가 다른 길로 간 이유는 제 생각엔 다른 길로 가도 분명히 저희 집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나올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 길을 잃고 헤매는 저를 보시면서 장인 어르신은 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 때 저는 장인 어르신에게 '저를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저를 믿으세요, 아버님. 이 길로 가도 분명히 집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나옵니다'라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선택한 다른 길로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집에서 반대 방향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마음 속으로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근처 주유소에 내려서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하여 우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얻은 교훈은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확신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 추측에 근거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를 비행기 안에서 내려 보면 바둑판과 같습니다.

길들이 거의 다 똑바로 된 길들이 잘 나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부러진(curve) 길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길을 찾기가 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택했던 그 다른 길이 분명히 똑바로 돼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길은 좀 구부러진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보기에는 그 길이 똑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아마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길 또한 항상 똑바른 길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길에도 구부러진 길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똑바른 길을 걸어야 하는데 구부러진 길이 똑바른 길인 줄 확신하고 그냥 무턱대고 그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여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택해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좋지 않은 선택의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똑바른 길을 선택하여 똑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똑바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성경 시편 5편 8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길도 많이 보이고 유혹하는 길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께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걸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걸었습니다. 저는 성경 시편 5편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걷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한 3 가지로 목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걷는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성경 시편 5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측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요즘 저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걷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춰내 주시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제 자신을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우왕좌왕하는 목회 사역, 그 이유는 제 기도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기도케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면서 더 이상 우왕좌왕하면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걷게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걷는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자기의 “심사”[“하나님께 집중된 생각 혹은 바친 마음”(박윤선)]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1절).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간구합니다. 시편 기자는 특히 자기 마음을 “아침에”(3절) 쏟아 기도한 후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3절). 스펀전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그날의 생활을 여는 열쇠이고, 그 날의 생활을 닫는 자물쇠여야 한다”(박윤선). 즉, 우리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주님, 주님의 길을 오늘도 똑바로 걷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후 그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걷다가 밤에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잠에 들기 전에 우리는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걷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유익한 하루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로 인하여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생활의 열쇠와 자물쇠가 되어야 할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죄악에 노출이 되어 주님과 함께 유하기보다(dwelling) 악이 우리와 함께 유할 위험이 클 것입니다(4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걷는 삶은 “경배의 삶”입니다.

성경 시편 5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시편 기자 다윗은 경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그의 주위에 셀 수 없는 “오만한 자”들(5절), 주님이 미워하시는 “행악 자”들(5절), 주님이 멸하실 “거짓말 하는 자”들 (6절),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들(6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들 구부러진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걸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위에도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걷기보다 구부러진 길을 걸던지 아니면 주님의 길을 뺄뺄뺄 걷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자기가 맞이한 상황을 초월하여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걸을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은 ‘주님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으므로’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7절).

그는 이 모든 극악한 자들의 행동을 보고 자기 자신이 가고자 하는 선한 길을 가기 위해선 “자기의 힘을 믿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박윤선). 많은 극악한 자들, 많은 핍박과 역경들,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2)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은 주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어려운 상황을 초월하여 온전히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2절) 경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자이기에 구부러진 길을 택하기보다 주님의 길을 택하여 똑바로 걸습니다.

많고 많은 극악한 자들의 대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다윗, 그는 기도하는 자였기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많은 역경과 어려움, 아픔과 상처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환경에 치우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지도 못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기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월요일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 “주의 집에 들어가”(7절)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걷는 삶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걷는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성경 시편 5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과연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고 경험해야 할 기쁨인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성경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더라’라는 말씀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짧은 지식으로는 그러한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생각난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이 그에게 강림하셨을 때 하늘로서 난 소리, 즉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눅3:22). 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기뻐하셨는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베들레헴에서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인 베들레헴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과연 그는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는가 또 다시 질문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비참한 삶, 불쌍한 삶, 슬픔의 삶 …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엔 예수님의 기쁨의 삶을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야 할 진정한

기쁨이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또한 성자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똑바로 걷는 기도의 삶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바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쁨은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걷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요(“다 기뻐하며”) 또한 영원한 기쁨(“영영히 기뻐 외치며”)입니다(11절). 이 기쁨의 대상은 오직 “주님” 한분이십니다(“주를 즐거워하리로다”)(11절). 주님 한분으로만 기쁨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느 누가 자기들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자신들을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 한분으로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의 길을 똑바로, 신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언젠가 수요기도회 때 저는 저희 구역 특송을 하려고 분당 앞으로 나아갔을 때 저희 집 막내 딸 예은이가 좀 늦게 앞으로 뛰어 나와 제 아내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걷길 원하면 주님의 손을 꼭 잡아야 하겠다. 아니 주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셔야 주님의 길을 똑 바로 걸을 수 있겠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셔서 많은 풍파와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길이요, 경배의 길이요 기쁨의 길인 주님의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외로운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손을 들고 찬송가 470장을 부른 후 하나님께 간절히 참석한 성도님들과 부르짖은 후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면서)

제 6편: 눈물의 기도

[시편 6편]

저희 교회 말씀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눈물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이번 저희 교회 말씀 집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오셔서 첫째 날 집회를 인도하시기 전에 다른 교회 두 분 목사님들과 함께 세 분이서 라디오 복음 방송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저희 교회 말씀 집회에 관해서도 강사 목사님이 한마디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무 말씀도 없어서 좀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갑자기 전혀 모르는 중앙일보 기자 분이 교회로 전화 와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자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은 후 제 책상에 고개를 숙여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작은 소원(desire)도 아시고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성경 시편 6편 6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내(자기) 침상" 적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눈물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볼 때 저는 다윗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말씀 집회 준비 과정에서 제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의 눈물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강사 목사님이 그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집회를 참석하는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회개의 눈물이 이미 많이 메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로써

오는 징계가 아닌 사랑의 징계를 받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의 뼈와 영혼이 떨리는 가운데서(2, 3절)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에 죄를 통회할 수 있음은 성령의 선물"입니다(박윤선). 다윗은 자신에게 임한 육신의 고통으로 성령의 선물인 죄를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죄값으로 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임을 알았기에 당연한 줄로 알고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심리입니다(박윤선).

저는 이러한 회개의 심리조차도 결핍되어 있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민감함도 상실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길 수 있는 능력도 상실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사랑의 징계조차도 거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기보다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할 눈물이 많습니다. 물론 감사의 눈물과 헌신의 눈물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눈물도 흘려야겠지만 지금 저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회개의 눈물이 없이는 깨끗하지 못한 영혼으로 감사와 헌신과 사랑을 정직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메마른,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제 7편: 의인을 세우소서!

[시편 7편]

이번 주 제 자동차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 차를 몰고 햄버거를 사 먹으러 햄버거 집에 갔다 가 저희 교회 교인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그 교인은 저에게 ‘여기에서 조금 전에 싸움 난 것 보았냐?’고 묻더군요. 알고 보았더니 그 교인과 다른 사람과 말다툼 속에서 아마 그 교인인 상대방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었나 봅니다. 그랬으니 그 상대방 사람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대방 사람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서 다시금 우리 교인과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대방 사람에게 ‘미안합니다’(I am sorry)라고 사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한 사람이 제가 타고 있던 교회차를 보더니 교회 이름을 보고 말하면서 ‘어떻게 교회 나가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는 식으로 저희 교회 교인에게 말하더군요. 저는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의 말다툼과 상대방 얼굴에 침 뱉는 덕스럽지 못한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고 또한 우리 교회 이름에도 먹칠을 한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책임을 느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목회를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 시편 7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9절 말씀의 “의인을 세우소서”라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인을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번 말씀 집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 롯을 구하고자 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이

있으면 멀하지 않으시겠냐고 겸손히 여쭙본 성경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영혼, 영혼을 의인으로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 해야겠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숫자의 욕심도 생길 수 있겠지만 저는 주님이 믿는 자를 더하실 줄 믿고 우선은 한 영혼, 영혼을 말씀으로 먹이면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며 권면하며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강사 목사님과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값싼 은혜”(cheap grace)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또한 주님으로 영접하여 의롭다 함을 얻었지만 의로운 삶을 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동전의 앞면이라 말한다면 동전의 뒷면은 의로운 삶을 살어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진정 값싼 은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목사님들도 이러한 “값싼 은혜”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에 간격이 멀어지면서 강단에서의 말씀 선포와 삶 가운데서 그 선포한 말씀 순종이 결핍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샅군과 같은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기독교로 전락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의인을 세우소서!”라고 합심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세우실까요? 저는 오늘 성경 시편 7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배움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상황을 통하여(through unrighteous situation) 의인을 세우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상황(unjust situation)을 통해서도 의인을 세우십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당면한 상황은 참으로 억울한 상황 이었습니다. 그가 잘못된 죄(?) 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긴 것 밖에 없는데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람들의 말에 시기하여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서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의 이러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결백성 혹은 순결성(purity)을 입증하고 계셨습니다. 성경 시편 7편 3-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다윗은 ‘만일 내가 죄악이 있거나 친구나 대적에게까지도 죄악을 범했다면 죽어도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상황에서도 다윗의 “의”(righteousness)와 “성실함”(integrity)은 빛나고 있었습니다(8절).

이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기도 당할 수 있고 누명을 쓸 수도 있고 괴로운 일들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그러한 불의한 상황 또는 억울한 상황을 통하여 “나의 의”와 ‘나의 정직함’(8절)을 들어내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결백성 또는 순결성을 들어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을 원망하며 불평하기보다 의와 정직함을 들어내는 기회를 삼을 줄 아는 자는 진정한 의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through prayer) 의인을 세우십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는가 하면 바로 ‘정직한’(upright) 기도였습니다. 불의한(unrighteous)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정직한(upright) 기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의인을 세우심에 있어서 불의한 상황에서 의인으로 하여금 정직한 기도를 드리게 만드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상황을 통하여서도 정직한 기도 자를 세우십니다. 의로운 다윗의 정직한 기도 내용을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신뢰심입니다.

다윗은 환난 때에 억울한 상황에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의지에 자기를 맡기고 기도하였습니다(박윤선; 1절 - “주께 피하오니”).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알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박윤선). 억울한 상황에서 오히려 다윗은 주님만 바라보며 또한 주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삼았습니다[(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2) 순결한 생활입니다.

성경 시편 7편 3-5절을 보면 다윗은 굴에서 자기 원수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구원해 준일 같은 것(삼상24:1-15)을 염두해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무죄하였음을 밝히면서 기도하였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순결한 생활을 이유로 또는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해야함을 배웁니다. 왜 우리는 순결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시7:9).

(3)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경 시편 7편 6-16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특히 6, 8, 11절).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소망의 기도”입니다(박윤선).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11절)께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서 건져 주심을 간구하였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불의한 상황 혹은 억울한 상황을 통하여 의로운 자들로 하여금 정직한 기도를 드리게 만드십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불의한 상황이나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정직한 기도를 드리기보다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말과 행동이 앞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정직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서 들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상황에서 더욱더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through judgment) 의인을 세우십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는(11절) 회개하지 않고(12절) 죄악이 관영한 죄인을 갑자기 멸망시키시므로[“화전”(13절): 벼락 치는 것을 의미함(박윤선)] 말미암아 악인 멸망, 의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이유는 악인이 잔해 중 잉태하여(남을 해하려는 비밀공작) 죄악을 해산하기 때문입니다(14절). 자꾸만 죄악을 해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로우심을 들어내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죄악인 관영한 죄인을 벼락 치듯이 심판하시므로 말미암아 의인을 세우십니다. 그의 판단은 의인의 “의와 그에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판단하시므로”(8절)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십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므로 그의 의를 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하고 불의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의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불의한 사람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시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악인을 심판하심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기대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와 성실함을 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정직하게 또한 신실하게 살어드리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목사 나눔

(의롭지 못한 생각과 입술의 죄로 고민하면서)

제 7편: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
다”(시편 7편 11절).**

어제 오후 저희 집 아들 딜런을 데리고 두 딸인 예리와 예은이와 함께 딜런 학교에 갔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예은이가 놀다가 다른 한국 아이를 때리는 모습을 제가 보고 예은이 보로 "I am sorry"(미안해)라고 상대방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은이는 저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예은이는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은이가 아무리 놀다가 무슨 합리적인 자기의 이유가 있을지라도 때린 것은 때린 것이기 때문에 예은이의 잘못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예은이가 아빠의 권면을 받아드려 그 맞은 아이에게 "I am sorry"(미안해)라고 말했다면 용서를 했겠지만 고집을 피우면서 이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예은이를 할 수 없이 데리고 사람들이 안보는 대로 가서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은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저는 예은이를 데리고 그 맞은 아이에게 가려고 할 때에 학교 수업이 끝나 딜런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딜런을 만난 후 예은이를 제가 앉고 그 맞은 아이 쪽으로 걸어가서 예은이 보러 다시 한 번 용서를 빌 기회를 주었지만 예은이는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은이 대신 그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이 예은이의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새벽기도회 때 저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치 예은이가 아빠인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때 제가 예은이를 징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제가 죄를 범한 후 회개하지 않을 때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시편 7편 11절에서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기보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의아하게 여길 수 있는 성경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써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12절)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제가 예은이에게 작은 '분노'를 내면서 사랑의 징계를 가한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정보다 저는 제 앞에서 있었던 예은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가 예은이처럼 행동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분명히 죄를 범했으면서도(마치 예은이가 상대방 아이를 때린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울면서(예은이가 아빠인 제 앞에서 울었던 것처럼) 그 눈물로 아이가 아버지를 조정(manipulation)하려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조정'(?),하려는 더 큰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가 자아성찰하게 됩니다. 또한 예은이가 제 앞에서 말을 듣기를 거부하면서 고집을 피웠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집을 피우면서 죄를 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아성찰 가운데서 보이는 것은 제 안에 예은이의 어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별 수 없는 자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기도회 때 성경 시편 7절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한 제 이미지가 좀 균형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있을 때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은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무 흠이 없는 깨끗한 자녀로 삼으시고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분노하실 정도로 저의 죄를 깨끗케 해주시고자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의 분노하심 가운데서 자녀인

저를 향한 그의 사랑을 느낍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목사 나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세 자녀에게와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감을 느끼면서)

제 8편: "사람이 무엇이 관대"

[시편 8편]

2005년 11월 15일 주일, 두 분이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분 다 여기 미국 나이로 79세셨습니다. 한 분은 친구의 아버님이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제 아버님의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한분의 불교 예식으로 입관식 후 화장을 하였고 또 다른 한분은 기독교 예식으로 장례식 후 묘지에 묻히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사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은 '풀과 같다'(사40:6)고 말하였고 바울은 '질그릇'(고후4:7), 그리고 야고보는 사람은 '안개'(약4:14)와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풀과 같은 인생,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생,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에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길고 멋진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사람은 별 불이 없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많고 많은 사람들 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선택함을 받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인 다윗은 오늘 성경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래서 저는 "사람이 무엇이 관대"란 주제로 한 4가지 은혜의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어린아이와 짐승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나이까?'입니다.

성경 시편 8편 2절을 보십시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 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겨우 말하기 시작한 어린아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박윤선). 그리고 "젖먹이"란 유대교 풍속을 보면 히브리 여인은 아기들을 몇 년간 젖을 먹이는 풍속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나는 아기를 생각해 만듭니다. 결국,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는 말씀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 신뢰하기를, 편견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하여 하나님을 알게 됨을 말"합니다 (박윤선).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또한 젖먹이처럼 겸손히 신령한 것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 계시(revelation)하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사람이 무엇이 관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또한 젖먹이 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하십니다(2절).

사람인 저 제임스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1-15절 소명의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18절 승리장로교회로 돌아오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계시하였는지... 또한 그 약속의 말씀들로 하여금 연약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실 때 주님께서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의 능력을 나타내시사 제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부흥케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둘째 질문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사랑하시며 돌아보시나이까?'입니다.

성경 시편 8편 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각하시며"란 단어는 원어 히브리어 의미로 "기억함"인데 그 의미는 사랑함을 말합니다. 또한 4절에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권고"란 단어는 "감시 혹은 돌아봄"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시편 기자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3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사랑하시며 돌아보시는지 그 은혜에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늘과 달과 별들과 비교할 때 참으로 지극히 작고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질그릇 인생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돌아보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중에 우리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아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까?

사람인 저 제임스가 무엇이 관대 많고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돌아보심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셋째 질문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입니다.

성경 시편 8편 5절을 보십시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이 말씀에는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1)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표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사 천사보다 낮아지셨다가 부활, 승천하시어 높아지실 사실을 예언함(히12:6-9)과 그리고 (2)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들을 가리킬 때에는,

그들이 완전히 구속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것을 의미"합니다(박윤선). 메시아에 적용되는 예언적 의미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완전히 구속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것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실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이러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인 저 제임스가 무엇이 관대 이러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움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넷째 질문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나이까?'입니다.

성경 시편 8편 6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으니.” 인간은 범죄 전에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축복으로 받아 누렸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므로 그 권한을 잃어버려 진정한 의미에서 만물을 이상적으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에는 만물 통치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박윤선). 사람이 무엇이 관대 만물 통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찬송가 410장 1절이 생각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참으로 아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아보심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만물통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과연 풀과 같고

질그릇과 같으면 안개와 같은 존재인 사람이 무엇이 관대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인 제임스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가운데서,

제임스 목사 나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더욱더 수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 9편: 주님을 의지하라!

[시편 9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낙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하게 합니다. 결국 낙망은 갈망으로, 또한 갈망은 하나님을 소망케 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의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런 저런 일로 낙망을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낙망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변화시켜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시편 9편 10절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늘 성경 시편 9편 말씀 중심으로 한 3가지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경 시편 9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기자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과 그들의 나라들을 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은 자기의 원수들이 패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위대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과연 나는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가 자문해 봅니다. 과연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므로 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보다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할 때 저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의지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기보다 그의 행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제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근거하여 주님을 의지한다면 제 명철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죄를 범할 때가 수 없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므로 전심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4절)을 깨닫고 경험하였기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통하여 그의 공의가 들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사"(4절) 악인을 책망하시고, 멸하시고, "영영히 도말"(5, 6절)하신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현재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며 그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도 현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상하므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그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세로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접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산성"으로 삼습니다.

성경 시편 8편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기자 다윗은 "사망의 문"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을 때, 미워하는 자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13절)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그의 공의로우심을 회상하면서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죽음에 가까운 상황에서 주님을 자기의 산성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주님이 "환난 때에 산성이시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환난"이란 단어는 "빠체로"라는 어원에서 왔으며 그 의미는 "끊어졌다"입니다(박윤선). 즉, 다윗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 주님을 자기의 산성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죽음의 문에 이르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므로 그를 자기의 산성으로 삼아 피하는 다윗의 모습, 참으로 귀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주님을 우리의 산성으로 삼고 그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10절). 또한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요(12절), 우리의 곤고를 보시는 긍휼이 풍성한 주님이시기에(13절)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산성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아니 잊을 수도 없으시고, 우리를 영영히 실망치 않게 하시는 주님이시기에(18절) 우리는 그 주님을 꼭 우리의 산성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난 때에 그에게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시편 9편 2, 11,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찌어다 ...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기자 다윗은 자기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께서 자기를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사망의 문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 드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문(13절)에서 시온의 문(14절)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었던 다윗은 그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다윗의 찬양은 저로 하여금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한 말씀을 기억케 하였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했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구원(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 합니다"(찬송가 342장 1절과 후렴).

주님의 이름을 아는 성도는 주님의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일을 묵상하는 가운데 현재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여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주님을 자기의 산성으로 삼고 그에게 피합니다. 특히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찬송가 539장)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리할 때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의 영광과 능력을 들어내실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분이 오직 주님 한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제 10편: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

[시편 10편]

어제 수요일 새벽기도회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두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셨습니다. 마음에 작은 아픔 중에 그 소원을 아뢰는 때에 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절함의 눈물 이었습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앉기길 간절히 기도케 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성경 시편 10편 17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소원기도를 아뢰는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한 자'는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겸손한 자란 "가련한 자"를 말씀합니다.

성경 시편 10편 2, 9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풀 꾀에 빠지게 하소서 … 사자가 그 굴혈에 엎드림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진실한 성도는 가련한 자입니다. 여기서 "가련한 자"란 "괴로움을 받는 자"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이 죄악 된 세상에 살면서 진실한 성도는 "악인"(3, 4, 14, 15절)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받습니다. 악인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괴로울 때마다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겸손한 자란 "외로운 자"를 말씀합니다.

성경 시편 10편 8, 10, 14절을 보십시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 저가 구푸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나이다.” 진실한 성도는 외로운 자입니다. 주님의 의를 위하여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의가 가득 찬 악인들의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의를 위하여 스스로 고독해지는 자입니다. 악인의 불의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는 이 죄악 된 세상에서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겸손한 자란 "가난한 자"를 말씀합니다.

성경 시편 10편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며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진실한 성도는 가난한 자입니다. 물질에 가난한 자라고 하기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고난과 압박 속에서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마5:3). 마치 모세가 출애굽 할 당시에 광야에서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저 천성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로, 겸손한 자란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성경 시편 10편 18절을 보십시오: “고아와 압박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진실한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18절)들에게 압박당하는 자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는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들의 아버지인 사탄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는 고아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겸손한 자의 소원은 '악하고 교만한 자로 자기의 베풀 꾀에 빠지게 하소서'입니다.

성경 시편 10편 2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풀 꾀에 빠지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듬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7:15). 즉, 악하고 교만한 자가 판 "웅덩이"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상입니다(10:4).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의 웅덩이를 팠고 그 웅덩이 안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잊으셨다,' '그 얼굴을 가리우셨다'(11절)는 사상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자기의 꾀에 빠지게 됩니다(2절). 이것을 위해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소원기도를 드렸습니다.

둘째로, 겸손한 자의 소원은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입니다.

성경 시편 10편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며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악인의 사상에는 하나님도 없고 없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기억할리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진실한 성도인 시편 기자는 가난한 자를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겸손한 자의 소원은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입니다.

성경 시편 10편 15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시편 기자는 극도의 악한 자의 세력을 무너트려 주시되 악이 없기까지 철저히 멸망시켜 달라는 소원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였던 시편 기자는 악을 이 정도로 미워했기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악을 철저히 멸망시켜 달라고 소원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겸손한 자의 소원은 악인을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자기를 위협치 못하게 하소서'입니다.

성경 시편 10편 18절을 보십시오: “고아와 압박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치 못하게 하시리이다.” 시편 기자는 겸손한 자를 더 이상 위협치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속한 자를 심판해 주시길 하나님께 소원기도 드렸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시편기자의 소원기도를 응답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첫째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10편 1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주님께서는 땅 위의 악도들의 하는 잔인한 행동과, 성도들의 억울한 사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악인의 말은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 하신다'(4절) 또는 '하나님은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11절)였지만 이 말을 듣는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13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탄식하였습니다(박윤선). 하나님은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14절). 그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손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10편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고 아예 그들의 사상엔 하나님이 없기에(4절)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스스로 말하지만(6절)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사"(18절) 악인의 세력을 철저히 파괴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15절).

마지막 셋째로,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진실한 성도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10편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9:10)하므로 주님께 겸손히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소원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시편기자에게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괴롭고 외롭고 심령이 가난하며 고아와 압박당하는 성도들의 겸손히 아뢰는 소원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압박하는 악하고 교만한 자들과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사 철저히 멸망시키시므로 더 이상 가난한 자를 위협치 못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잊지 않으시고 그의 소원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므로 악인을 의로 심판하시며 또한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겸손히 주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면서)

시편 10편: 교만한 생각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시편 10편 4절).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마9:4).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막8:33). 또한 주님은 우리의 생각이 허무함도 알고 계십니다(시94:11). 특히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교만한 생각도 밝히 알고 계십니다(눅1:51). 그러면 우리 마음의 교만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마음의 교만한 생각은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성경 시편 10편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로서 악인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의 본능대로 종종 악인들처럼 교만한 생각을 합니다. 그 교만한 생각이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할 때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습니다(4절). 그리고 우리는 교만할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4절).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성공할 때(5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마음에는 더욱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립니다(3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합니다(3절). 이렇게 교만한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4절). 이것은 교만한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성경 시편 14편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 교만한 자들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욕심과 탐욕을 부린다면 우리는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마음의 교만한 생각은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성경 시편 10편 6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현대인의 성경). 만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일을 할 때 그 일이 성공하면(4-5절) 우리는 더욱더 교만해 질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고 생각합니다(5절). 이러한 교만함 가운데서 우리는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합니다(6절). 우리는 “일평생 아무런 고통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으로

고생하는 일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73:4-5,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우리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릅니다(6, 7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길이 언제든지 견고하리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말합니다(10:6). 이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만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항상 견고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할 위험이 많습니다. 더 큰 착각의 위험은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되고 헛된 믿음의 근거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서 견고함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참으로 헛되고 헛된 생각이요 참으로 교만하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또 버려야 합니다. 우리 견고함의 근거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견고함의 반석이 되십니다(고전10:4).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시55:22).

셋째로, 우리 마음의 교만한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고 자신의 얼굴을 가려 보지 않는다’입니다.

성경 시편 10편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어버리고 그 얼굴을 가려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현대인의 성경). 교만한 악인들은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합니다(2절).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립니다(3절).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들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습니다(7절). 그들은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들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봅니다(8절). 그리고

그 가련한 자를 은밀한 곳에 얹드려 있다가 잡습니다(9절). 그리고는 그들은 포악으로 가련한 자들을 넘어뜨립니다(10절).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어버리고 그 얼굴을 가려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11절, 현대인의 성경). 이것이 바로 교만한 생각입니다. 은밀하게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을 보셨습니다”(14절, 현대인의 성경).

만일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히 범하는 죄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십니다(욘34:21).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양심도 감찰하십니다(잠16:2, 21:2; 시7:9). 이 진리를 믿어 아는 자들은 마음과 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됨을 알고 겸손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스스로 자신을 낮출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마음의 교만한 생각은 ‘하나님은 나를 벌하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성경 시편 10편 13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는 나를 벌하지 않을 것이다’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만한 악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교만한 악인은 하나님을 배반하며 멸시합니다(3절). 그들은 교만하여 가련한 자들을 심히 압박하며(2절) 심지어 그들을 잡아(9절) 포악으로 넘어트리면서도(10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13절). 그들이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즉시 벌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전8:11,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데 담대합니다(11절).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담대하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시 징벌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즉시 징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롬2:4).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습니다(4절).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우리)를 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밀히 범하는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을 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고 자신의 얼굴을 가려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고 자신의 얼굴을 가려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교만한 생각을 십자가 앞에서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교만한 생각을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생각해야 합니다(참고: 빌2:5).

교만한 생각을 끊임없이 버리고 겸손한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견고하신 반석이심을 고백하면서)

제 11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시편 11편]

금년 2005년을 뒤돌아 볼 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 뉴올리언스에 몰아닥쳤던 허리케인 카트리나입니다.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 약 100만 명의 뉴올리언스 사람들이 타주로 이주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Black Exodus"(흑인들의 출애굽)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큰 재앙이 뉴올리언스에 임하였는가하면 많은 여론은 제방을 제대로 든든하게 쌓아놓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좀 놀라운 사실은 첫째로, 2005년 초에 미 육군이 뉴올리언스 제방 보수비를 3,700만 달러를 요청했는데 정부에서는 390만 달러로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뉴올리언스 제방위원회는 제방 관리할 돈으로 카지노를 사들이는 등 방만한 경영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투자해야 할 때 투자를 못했고 또한 투자한 돈도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허리케인으로 인해 폰파트레인이라는 호수의 제방 두 군데가 붕괴되면서 뉴올리언스 도시의 대부분의 지역에 물난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터를 잘 쌓아놓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터를 견고히 쌓아 놓은 마음과 가정과 교회는 어떠한 카트리나 허리케인과 같은 최악의 물결이 폭풍처럼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터를 제대로 쌓는데 투자하지 않고 또한 투자한다 해도 나 자신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의 터를 쌓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데 사용한다면 최악의 물결이 몰아칠 때에 무너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터와 가정의 터와 교회의 터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1편 3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터"란 단어는 원어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 터들"입니다. 이것은 "공의와 진실"을 의미합니다(J. Ridderbos). 즉,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을 당시에 공의와 진실의 터는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의와 진실의 터가 무너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한 2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의와 진실의 터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 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찜인고." 이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사울과 그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공의와 진실을 발견할 수 없는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므로 말미암아 그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박운선).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다윗의 친구들의 제안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새 같이 ... 산으로 도망하라"고 충고했습니다(1절). 그 이유는 "악인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데서 쏘려하"(2절)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설득력 있게 들리는 충고입니다. 악인이 의인인 다윗을 해하려고 하였기 다윗의 친구들은 다윗에게 마치 참새가 산 수풀 속으로 도망가듯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친구들의 설득력 있게 들리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윗처럼 위험해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께 피하여 그에게서 안전감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산으로 도망가라는 친구들의 충고를 듣고 주님 외에 다른 사람이던 것을 의지하여 거기서 안전감을 누릴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대답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사람이던 혹은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진정한 안전감은 없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사람/것을 의지하면 순간적인 안전감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안전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요 피할 분이십니다. 특히 공의와 진실의 터가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말미암아 참된 보호와 안전감을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공의와 진실의 터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11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뵈오리로다.”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도 의로운 일을 좋아하므로 신실하게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특히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의의 길을 사수해야 합니다(박윤선).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왔습니다. 어두움이 극심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들은 "마음이 바른 자"(2절)를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의의 길에서 떠나 죄악 된 길을 걷게 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직한 자"(7절)로서 의의 길을 신실하게 끝까지 걷는다는 것은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공의와 진실의 터가 무너진 시대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외로운 길을 좋아하며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우리는 동서남북을 보아도 넓은 악의 길들이 너무나 잘 보이고 잘 들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좁고 힘든 의의 길을 홀로 걷는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이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다윗이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지하였던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 모두를 다 보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4-7절). 특히 악인을 깊이 찌르듯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4절 - "통촉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5절)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주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 또한 알았습니다(6절).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5절)하신다는 사실 또한 믿었습니다. 여기서 "감찰"이란 단어는 "시험"(test)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도와주시기 전에 먼저 그를 시험하신다는 말입니다. 과연 마음이 바른지(2절), 정직한 자인지(7절)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지 그를 시험을 하신 후 통과하면 그를 도와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마음이 바른 자였으면 또한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공의와 진실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자신을 보아도 우리 마음의 공의와 진실의 터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터도 무너져 가고 우리 교회의 터도 무너져 가는 듯 해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공의와 진실의 터를 더욱더 굳세게 세워야 합니다. 참으로 그 터가 굳세게 세워져 그 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또한 우리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어떠한 최악의 허리케인과 같은 물결이 몰아친다고 하여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악의 넓은 길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보이고 들릴지라도 우리는 좁은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 터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목사 나눔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길 기원하면서)

제 12편: 경건한 자가 원하는 안전지대

[시편 12편]

Andy Stanley 목사님이 쓴 책 "The Next Generation Leader"을 보면 5 C's가 나옵니다. 그 중에 마지막 C가 바로 "Character"(인격)입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 지도자는 인격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자 몇몇 설문조사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들의 요점은 회사에서 사람들이 좇고 싶어 하는 지도자는 정직해야 하며 솔직해야 하고 진실하며 신뢰할 만한 사람 등등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못해 좇아야 하는 지도자들은 셀 수 없이 많지만(그 이유는 너 나 없이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기에) 과연 내가 좇고 싶어 하는 지도자는 내 주위에 몇 명이 되는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2편 1절을 보면 다윗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주위에도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the godly man)란 총애를 받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경건한 자"란 "충실한 자"입니다. 즉, "인격이 견실하여 신뢰할 만 한 자"를 가리킵니다(박윤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경건한 자는, 그 사랑 받는 결과로 방종해지는 것이 아니라 견실해 집니다(박윤선). 그럼 던지는 질문은 '과연 나는 경건한 자인가?'입니다. 과연 나의 인격은 견실하여 신뢰할 만한 자인가 자문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좀 의아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거의

던져보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보다 오히려 익숙한 질문은 '과연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견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려고 힘쓰고 노력하기보다 상대방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는 '과연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거의 던져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아니 자주)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신뢰할 만한 자인가?'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니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또한 성도님들도 아무 목사님이나 전처럼(?) 신뢰하지는 않는 세상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하고 오늘 성경 시편 12편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원인은 바로 "경건한 자"가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1절). 그 만큼 이 세상은 경건한 자를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경건한 목사님, 경건한 성도님... 과연 내가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 좇고 싶은 지도자 목사님이 몇 명이 내 주위에 있는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몇 가지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1) 첫째로, 담임 목사인 내가 견실한 인격과 신뢰할만한 사람이 되어겠다는 다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격의 성숙을, 즉 주님을 닮아가는 목회자가 되도록 힘써야겠다는 결심입니다. (2)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지도자들끼리 서로 나누며 견실한 인격자와 신뢰할 만한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초점을 더욱더 맞추어야겠다는 결심입니다. (3) 마지막 셋째로, 온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기도하면서 힘써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시편 12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한 자의 "안전지대"(the safety)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란 경건한 자와 "가련한 자" 및 "궁핍한 자"(5절)가 갈급히 사모하는 구원"을

가리킵니다(박윤선). 그러기에 시편 기자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즉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거짓말과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2절)이 가득하고 악인을 처처에 횡행하는 때(8절)에 경건한 자는 가련하게 놀림을 당하고 궁핍한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5절). 왜 경건한 자는 놀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가 하면 그 이유는 그가 진실하였기 때문입니다(6절).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소유한 자로서 거짓말하는 자들과 아첨하는 자들, 두 마음으로 말하며 혀로 자기 자랑하기 바쁜 사람들은 다윗을 핍박하였습니다. 이 악인들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4절)라고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입술로 범죄를 일삼은 자들 이었습니다. 이들이 진실한 다윗, 경건한 자를 가만 놓아두겠습니까?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지대를 구하였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 (5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고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의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그의 경건한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다가 깨어 일어나듯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지키시고 영영토록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7절).

이 세상에는 거짓된 혀와 아첨하는 혀, 두 마음으로 말하는 혀, 악인들의 혀가 하늘을 찌르듯이 무서운 줄 모르고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 혀에 넘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기에 점점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경건한 자, 즉 인격이 견실하여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해 지면 질수록 강해지는 악인들의 놀림과 핍박 가운데서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목표를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의 구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안전지대"로 두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안전지대로 두실 것입니다. 승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 12편: 경건하고 충실한 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 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어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찌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시편 12편 1-4절).

경건하고 충실한 자가 없어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합니까? 우리는 경건하고 충실한 자가 되어 합니다. 과연 경건하고 충실한 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성경 시편12편1-4절 말씀에서 한 3 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로, 경건하고 충실한 자는 진실 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자는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2절).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케 해야 합니다(벧1:22).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 함을 누리는 마음이 되어 합니다(요8:32). 그러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와야 합니다.

둘째로, 경건하고 충실한 자는 한 마음을 품습니다.

경건하고 충실한 자는 결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약1:8). 경건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자는 두 마음을 품어 마음으로는 칼을 갈아도 입술로는 아첨합니다(시12:2). 이러한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킵니다(잠26:28). 그러나 경건하고 충실한 자는 그 입술로 아첨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속마음과 겉 입술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기에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실 된 마음에서 진솔한 말을 합니다. 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마지막 셋째로, 경건하고 충실한 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충실한 자는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자는 아첨하는 입술로 자랑합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시12:4). 그들은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기에 입술도 자기 것으로 여겨 그 입술로 자신들을 자랑합니다. 경건하고 충실한 자는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자신의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입술도 주님께 받쳐서 그 입술로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경건하고 충실한 자가 되길 원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교회 리 모델링 가운데서 마음과 입술도 리 모델링 되길 기원하면서)

시편 13편: 기도의 과정

[시편 13편]

A. W. 토저 목사님의 "이것이 성공이다"란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존경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린양의 보혈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가고 있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변화되길 바라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자신이 변화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접한 상황이 변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변화 받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기 전에는 평화가 없었고 미움이 가득 찼었고 불안과 근심에 쌓여있었을지 모르지만 기도 후에는 마음에 평화와 사랑과 확신으로 가득 차는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3편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는 중과 기도한 후가 어떠하였는지 그의 기도의 과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기도하기 전은 "어느 때까지니이까?"(How long?)였습니다.

성경 시편 13편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셔서 “어느 때까지니이까?”라고 네 번이나 말하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원수"(4절)로 말미암아 지치고 지칠 정도로 역경에 처하여 심령이 심히 우울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니이까"라고 호소하였습니다(박윤선). 이러한 탄식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끔 안타까움 속에서 '주님, 어느 때까지니이까?'라고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습니까? 오랜 역경 앞에서 인내의 한계와 나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어느 때까지니이까?"하고 탄식의 기도를 드려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다윗처럼 심령이 우울해 질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우울해서 죽기를 구했었습니다. 우리도 우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에 낙망하기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낮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체험하는 때로 있지만, 밤과 같이 영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음이 역시 은혜이다.” 맞습니다. 영적으로 갑갑하고 안타까움을 느끼기에 "어느 때까지니이까"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갑갑하고 안타까움을 느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영영히 잊으셨다는 느낌과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자신에게서 숨기고 계시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1절). 그가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었다고

말하였는데(2절) 여기서 "경영하고"란 말은 "고통으로 인하여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염려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즉, 다윗의 영혼은 고통으로 인하여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염려가운데 있었으므로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으로 인하여 이 생각 저 생각... 염려하는 가운데 불안해하고 근심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마음 고통을 신앙으로 당하면, 바로 깨달는 것도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을 떠난 염려, 곧, 불신앙적인 마음고생은 해롭다." 우리는 더 이상 불신앙적인 마음고생, 해롭고 유익하지 못한 이러한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께 "어느 때까지니이까"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신앙의 탄식이 아닌 신앙의 탄식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다윗의 기도하는 중은 그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13편 3-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하오며 두렵건 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니이다." 여기서 "사망의 잠"은,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영적 죽음"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원수로 말미암아 역경 속에서 심령이 지치고 우울함이 깊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도우심을 못 받으면 점점 영안이 어두워질 위험이 있고 그러다보면 영적 사망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박윤선). 다윗은 이런 영적 죽음을 경계하는 세상 근심이 아닌 신령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수가 승리할까 두려워했기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기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하였기에 그 원수를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원수가 이기므로 자기가 요동되어 그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려워하므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3절). 여기서 "생각하사"란 단어의 직역은 "보아 주소서"입니다(박윤선). 다윗은 자기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기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아 주시길 더욱더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안을 열어주시므로 하나님을 보길 원했습니다.

토저 목사님의 친구는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더 낫다." 귀한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보고 느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 중에 크신 하나님을 보고 느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눈에는 다른 것들(역경, 어려움, 문제 등등)이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다른 것들이 자꾸 크게 보이는 불 신앙적 탄식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크신 하나님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에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기도 후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기도한 후에 다윗에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다윗에게서 한 3가지 변화를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1)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13편 5절을 보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다윗은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은 것 같이 느끼고

그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 같았지만 기도 중에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도 후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2) 다윗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13편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기도하기 전 지치고 심령이 우울했던 다윗은 기도 후에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온 기쁨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3)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13편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후대하심을 기도 중에 믿음으로 경험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역경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행16:25).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큰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지속되는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지치고 우리의 심령이 우울해 질 때에라도 오히려 우리는 신앙적 탄식으로 '주님여, 어느 때까지리이까'라고 호소하면서 영적으로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의 구원을 확신하며 기뻐하므로 그의 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 150:6).

기도의 사람 야고보(James)가 되고 싶은,

제임스 목사 나눔

(말씀과 기도에 힘쓰길 원하면서)

제 14편: 포위된 하나님의 백성

[시편 14편]

2005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마지막 수요일인 12월28일 시편 14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2005년 한해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는 주제를 걸고 여러 달 동안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한 후 시편 1편부터 이렇게 시편 14편까지 매주 수요일 묵상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지막 수요일 시편 14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하였습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시편 말씀을 묵상케 하신 주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물론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후회할 수 있는 것도 수 없이 많겠지만 후회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회할 것들이 있을지라도 저는 관점(perspective)을 좀 달리하여 믿음으로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2005년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점만 믿음으로 좀 달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14장3절을 보면 출애굽 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갈헨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애굽 왕 바로였고 바로 왕은 그 생각으로 자신의 군대를 끌고 와서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하여 거의 다 쫓아 왔습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도 불신자인 바로 왕과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갈헨바 되었다는 생각에 그들이 있는 광야를 가리켜 "매장지"라고 말했습니다(11절). 그러나 모세의 관점을 달랐습니다. 그는 결코 그곳을 매장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곳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구원의 장소로 보았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 너희는 두려워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13-14절). 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관점이 다릅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보는 관점과 불신앙으로 보는 관점을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4편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도 갇힌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로'(7절)가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포로가 되었는가 하면 다윗은 "어리석은 자"(the fool)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1절).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히브리어는 "나발"입니다. 다윗 이야기에 나오는 아비가일(나중엔 다윗의 아내가 됨)의 남편 이름이 "나발"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본문 14편에서 다윗은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윗은 14편을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 지금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어리석은 자들에게 포위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실제적인 무신론자"입니다(박윤선).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아닌 실제적인 무신론자는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딤후1:16). 그렇다면 다윗을 포위했던 어리석은 자들을 어떠한 자들인지 오늘 본문에서 한 다섯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자들은 선을 행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시편 14편 1절과 3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기자 다윗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God is so Good)라고 찬양할지는 모르겠지만 삶 속에서는 선을 행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을지라도(34:8), 이미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들이기에 악행 하는 자입니다. 이들의 악행은 "부패"와 "가증한 소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4:1). 여기서 부패란 '도덕적 부패', 즉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극악한 죄성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이들은 "더러운 자"(3절)들입니다.

둘째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지도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시편 14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알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굽어서 살피심'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중에 하나님을 알려고 찾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셋째로, 어리석은 자들은 다 치우친 자들입니다.

성경 시편 14편 3절을 보십시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길에서 탈선된 자들을 가리킵니다(박윤선). 하나님을 찾을 마음조차도 없고, 하나님만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도 경하며, 하나님 보다 먼저 세상 것을 찾으며, 하나님을 찾느라고 하나 열심 없이 찾으며, 계속하여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지 않고(이단) 그리고 적시 적으로 찾습니다(회개해야 할 때에 회개하지 않는 것)(박윤선).

넷째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시편 14편 4절을 보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기를 기탄없이 하면서, 그것을 예사로 알기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합니다(4절).

마지막 다섯째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시편 14편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포위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 시편 14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3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 시편 14편 5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어리석은 자들의 박해 가운데 포위된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함께 계시지 않는 듯해 보이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포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듯 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속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실을 깨닫고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시편 14편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영호와와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여 그들의 경영을 부끄럽게, 실패케 하려고 하고 또한 실지 실패케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기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 즉 "가난한 자"들(6절)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시편 14편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때 악인들을 파멸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박윤선). 하나님의 구원은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7절). 그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입니다(7절). 우리의 슬픔은 잠깐이요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약속의 땅인 천국을 향하여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모세가 되시는 예수님의 바라보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갇힌바 될 수도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보아도 해결책을 안보이고 꼭 갇혀있다는 위기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불신자 바로 왕을 닮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을 보면서 낙심과 불안 속에서 그 위기 상황을 매장지로 생각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해서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처럼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위된 상태, 갇힌 상태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길
기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포위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힘쓰면서)

제 15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라!

[시편 15편]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동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신앙 고백한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CNN 뉴스를 통해서 West Virginia 탄광에서 폭발로 13명중 12명이 사망하고 한명이 지금도 위독한 상태에 있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41시간 동안이나 그 깊은 탄광에 갇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13명이 다 살아있다는 잘못된 소식을 듣고 어느 한 교회에서 모여 있었던 가족, 친지, 친구들은 교회 종을 울리면서 기뻐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 같은 죄인” (Amazing Grace)이란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3시간 후에야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였음을 알고 12명이 죽고 1명만 구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있었던 한 사람은 첫 잘못된 정보 때는 “They were praising God”(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라고 말하면서 3시간 후 두 번째 바른 정보 때는 “They were cursing”(그들은 저주했어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때에 그 탄광을 소유한 회사의 회장 Hatified란 사람은 말하기를 “We prayed for 13 miracles. We want to celebrate the one miracle that was delivered”(우리는 13명의 이적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건짐을 받은 한 명의 이적을 축제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Amazing Grace”를 찬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두 번째 바른 소식을 듣고 저주를 했었는지 우리는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웬지 신앙의 흔들림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흔들림은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쁠 때는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사랑하는 이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그 때에도 일관성 있게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까지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관성이

결핍된 흔들리는 신앙의 원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5편 말씀으로 말하자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5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라는 뜻입니다. 그 질문 가운데 다윗은 열개의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열개의 대답을 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십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십계명을 잘 지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5절).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은, 정직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시편 15편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 여기서 “정직”이란 ‘순수함’ 혹은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중생활과 반대되며 변덕 없는 성품을 의미합니다(박윤선). 그 예로 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욥기 2장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옴을 자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옴은 사단의 공격으로 극심한 고통 중에서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던 옴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었을 지라도, 심지어 자기의 자식들이 다 죽었을 지라도 그는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품이 정직하였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정직한 자는 환경과 사람과 심지어 사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어리석은 자”들이 그를 포위하여 박해할지라도 순정(정직)을 지켰습니다(시14편).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대상29:17).

두 번째 계명은, 공의를 일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시편 15편 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 공의를 일삼으며 ...” 여기서 “공의”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박윤선).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옳은 것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계략인지 모릅니다. 그 예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여자”(하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뱀이 그 여자에게 와서 그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 먹게 할 때에 그 선악과를 따 먹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결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녀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보암직도”하게 만들었습니다(창3:6). 지금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은 사람이 보기에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을 사람이 보기에 옳게 보이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사탄의 유혹이 있었을지라도 의롭다 함을 받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보기에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시편 15편 2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다윗은 주님께서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51:6).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진실함을 말해야 할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중생활을 하는 변덕 있는 성품을 가진 자들은 마음에 진실을 말하기보다 마음에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미워하면서 말로는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와 사람들에게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혀로 참소치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시편 15편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 여기서 “참소”란 단어는 “발”을 의미합니다. 즉, 발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로서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박윤선). 한 마디로, 혀로 참소한다는 말은 남을 넘어지게 하는 말(stumbling speech)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말 중에는 헛소문을 퍼트리던지 이웃에 대해 수군수군 하던지 결국은 이웃을 해롭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돼야지 결코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을 퍼트리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말이란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만남 속에서 한 마디의 따뜻한 말이나 칭찬, 격려 또는 남을 유쾌하게 하는 말을 듣고 시작하면 참으로 좋지만 하루를 시작하면서 남을 헐뜯는 말이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혹은 들으면서 시작하면 참 어둡고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서 주목하게 된 단어는 “고르게”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해야 하는데 참으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고 더 나아가서 고르게 하는 것은 참으로 은혜와 더불어 지혜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벗에게 행악치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시편 15편 3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 이 명령은 위에서 나눈 세 번째 계명인 “공의를 일삼으라”는 말씀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해야지 그 벗에게 행악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 이웃을 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벗에게 어떠한 행악을 범할 수 있습니까? 한 예로, 우리 벗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것을 책임지고 자복할 때에, 공의를 일삼는 사람은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회개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고 자기와의 교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눅18:13, 14) (박윤선). 그러나 그 벗에게 행악하는 자는 이미 회개한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게 보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기는 옳게 보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벗에게 행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벗에게 행악치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그 이웃을 훼방치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시편 15편 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 그 이웃을 훼방치 아니하며.” 성경 야고보서 3장 9-11절을 보면 혀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해하면 혀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도 야고보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4절). 그는 이러한 지혜는 세상 적이요 정욕 적이요 마귀 적이다(15절)라로 말하면서 그 결과는 요란과 악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6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을 훼방치 않고

오히려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시편 15편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 여기서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서 우리는 그런 악한 자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존경할 필요가 없습니다(박윤선, 칼빈).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우리가 존대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25편 14절을 보면 “여호와와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로써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103:13, 17).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서원한 것을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은 그의 앞에서 작정한 것을 실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박윤선). 여기서 “서원한 것이란 하나님의 진리와 선에 대하여 서원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 전도서 5장 4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원을 함부로 해서 는 아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서원을 했다면 우리는 그 서원을 기필코 갚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계명은, 변리로 대금치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시편 15편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변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 옛날 유대 율법에, 농부들에게 변리로 대금함을 금한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일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레25:35-38). 그래서 히브리법에서는 동료 히브리인들에게는 변리 대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은 가난한 자의 고통을 줄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율법을 무시하는 자는 돈만 아는 자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이웃 사랑 함에 있어서 변리로 대금치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시편 15편 5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출23:8).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면 아니 됩니다.

성경 시편 15편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한 십계명을 충실히 잘 행하는 자는 영영히 요동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위에 십계명을 충실히 지켜 행하므로 우리의 신앙 삶이 요동함이 없이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요동치 아니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 있길 기원하면서)

제16편: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시편 16편]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란 시편 73편 25절과 28절 상반절 말씀을 고백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생활은 참 복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분에게로서 부터 모든 복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해 주시는 복, 유쾌하게 해주시는 복 그리고 만유의 회복도 예수님에게로 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입니다(행3:17-26).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그의 축복을 셀 수 있는 지혜 가운데서 그 복을 누리는 신앙인의 마음과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오늘 본문 시편 16편 2절 말씀입니다: “…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 다윗이 누렸던 복은 무엇이었는지 한 5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복은, 주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성경 시편 16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편 기자 다윗은 위험한 일을 당하여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그 위험한 일이란 한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죽음의 위험(10절)이요 둘째로는 혼합주의

신앙의 위험(4절)이었습니다(박윤선). 하나는 자기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었고 또 다른 위험은 자기의 신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두 종류의 위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 위험과 영적 위험.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위험 속에서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주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73:28). 오늘 본문 시편 16편 1절에서 다윗이 주님께 ‘피하였 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심한 신앙의 태도를 말합니다(박윤선). 그는 영육간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둘째 복은, 주님의 산업 지키심입니다.

성경 시편 16편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기업)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산업을 지켜주시기까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신자가 비록 그 기업을 소유했는지라도 그 기업을 지키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을 지켜 주시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박윤선). 하나님은 실로 아름다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다윗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었습니다(6절). 그 말씀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 측량함을 말하는 것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산업을 주심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산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재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주신 산업을 또한 지켜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계십니다.

셋째 복은, 주님의 훈계하심입니다.

성경 시편 16편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참으로 복된 심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므로 그 계시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예로

사도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란 고백하였는데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한”(reveal) 것이었습니다(마16:16-17).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17절). 오늘 본문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주님의 계시 따라 인도함을 받고 아름다운 기업을 받으므로 주님을 송축하였습니다(7절).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 한다”(7절). 그는 고요한 밤중에 주님의 교훈을 받고 좋아하였던 것입니다(박윤선). 밤에 마음에 쓰인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심령은 참으로 복된 심령입니다.

넷째 복은,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십니다.

성경 시편 16편 8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주님께서 다윗의 우편에 계신다 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데 있어서 가장 힘 있게 하심을 말합니다(박윤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피하여 보호를 받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힘주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참으로 힘없고 낙심하여 지쳐 쓰러졌을 때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가장 힘 있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의 마음과 입술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18:1).

다섯째 복은,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성경 시편 16편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이것은, 다윗이 영원한 내세에 들어갈 축복을 바라보고 하는 말입니다(박윤선). 오늘 본문 10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으로 사도행전2장27-28절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메시아의 부활을 믿음으로 자기의 부활을 믿고 소망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자기에게 보여주신 주님, 다윗에게는 “나의 복”이시요 우리에게도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시16:2).

그러면 이렇게 나의 복이 되시는 주님에게 이러한 복들을 받는 자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복이 되신 주님을 모시는 삶을 한 4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즐거워합니다.

성경 시편 16편 3절을 보십시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어떻게 성도가 다른 성도를 즐거워합니까? 그 이유는 저희의 “존귀”에게 끌리는 까닭입니다(박윤선). 여기서 “존귀”란 영광 혹은 장엄을 의미합니다. 내세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 격으로서 받을 기업의 영광을 가리켜 말합니다(박윤선). 그 영광의 광채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히 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를 볼 때에, “아!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받을 자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흥모하게 됩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성도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상에 대한 증오심이 있습니다.

성경 시편 16편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 다윗은 우상에게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으며 입술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아무 연락도

안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진정한 복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가 어떻게 거짓 복을 떠드는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이중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복이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우상에 대한 증오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를 미워해야 합니다.

셋째로, 주님을 항상 모십니다.

성경 시편 16편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힘써 기도하며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박윤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므로 요동치 말아야 합니다(8절). 주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요 그 복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은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갑니다.

넷째로,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성경 시편 16편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므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도 기쁘고 영혼도 기쁘고 육체도 안전하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11절을 보면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천국에서 총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경험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기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고백을 마음 깊은 속에서 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았습니다(2절). 특히

오늘 본문 중심으로 나의 복이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다섯 가지 복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 삶 속에서 이 다섯 가지 복을 받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수요일 새벽기도회 나오다가 차바퀴가 바람이 다 나가서 바퀴가 다 찢어져서 차바퀴를 바꾸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피부로 느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같은 바퀴가 너무나 오래되어서 부분적으로 바퀴 꺾데기가 버껴진데도 있었는데 친구가 발견해 주어서 감사하였었는데 새로 갈아 낀 새 바퀴가 또 이렇게 바람이 나아가서 고속도로에서 위험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그는 나의 복이 되십니다. 주님 밖에는 다른 복을 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고의 복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할 때 다른 복들은 부차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고 싶습니다.

복종의 복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으로,

복 받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복된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가운데서)

제 17편: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17편]

“사실 마음의 기도란 일상의 많은 파도 밑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시냇물 같은 것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세상 안에 살아가며, 고독의 한 복판에서 우리 하나님께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서 열린다.” (헨리 나우웬, “기도의 삶”)

“일상의 많은 파도”... 우리는 매일 매일 삶 속에서 다양한 파도를 많이 접합니다. 파도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한 각각 파도의 크기도 다양합니다. 그러한 파도 가운데서 우리는 파도타기 기술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 파도타기 기술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마음의 기도”라 생각합니다. 헨리 나우웬은 그 마음의 기도를 “일상의 많은 파도 밑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시냇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파도 밑에서의 끊임없는 속삭임, 마치 파도 밑 깊은 곳에 흐르는 잔잔한 물결 같습니다. 그러한 잔잔함은 “고독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발돋움을 한 심령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고독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영적 별거벗음으로 하나님께 그 모습 그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쏟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삼상1:10). 그러한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고독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갈망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갈망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원하시는 갈망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시편 17편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였습니다(1절).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정직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정직함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을까요? 한 3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로, “나의 판단”(my judgment)입니다.

성경 시편 17편 2절을 보십시오: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 다윗의 판단은 주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판단입니다. 다윗은 극히 교만하며(10절), 간교한 흥계를 품고 사자와 같이 세력이 강하며 야수적인 잔인성을 지닌 “극한 원수”(my deadly enemies)에게 포위당한 상태(9, 11절)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바른 판단은 극한 원수들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7절). 다윗의 판단은 불공평한 상황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2절). 다윗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자기와 그의 극한 원수들 사이에서 공평한 판단을 내리실 줄 믿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6절).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8절). 이러한 판단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결심’(my determination)입니다.

성경 시편 17편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 번역은 “내 마음에 악이 생각날지라도 누르고 내 입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나이다”입니다(박윤선).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입으로 범죄치 않으려는 특별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결심대로 살아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을 에워싼 압제자들이나 극한 원수들은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하”(10절)였지만 다윗은 자기의 입술로 죄를 범치 않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다윗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그에게서 “흠을 찾지 못하셨”을 정도였습니다(3절). 주로 생각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면 입으로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은데 다윗은 입술로도 범죄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흠을 찾지 못할 정도의 정직한 마음과 입술로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결심이 다윗과 같이 극한 상황에서도 견고히 설 수가 있었는지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주위에는 그의 극한 원수들이 교만히 말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들의 교만한 말을 들으면서도 입술로 죄를 범치 않기로 결심하고 또한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충분히 그는 생각으로 죄를 범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는 생각 싸움에서도 악한 생각을 물리치고 입술로 범죄치 않았을까요? 그는 악한 생각을 억누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열매 중 하나가 절제임을 생각할 때에(갈5:23)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생각을 절제케 하시사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롬12:21).

셋째로, “나의 걸음”(my steps)입니다.

성경 시편 17편 5절을 보십시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사람이 고난과 역경, 위기를 맞이하면 걸음이 빼돌어질 위험이 많습니다. 결국 자기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밀히 따라야 합니다(박윤선). 다윗은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좇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지 아니하였”습니다(4절). 그는 스스로 삼가서 최악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말씀에 입각한 의롭고 정직한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의 정직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의 구원’(my salvation)입니다.

성경 시편 17편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우리의 극한 원수를 대항하셔서 넘어뜨리십니다. 아무리 악인과 압제자들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십니다(9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십니다(8절).

둘째로, ‘나의 소망’(my hope)입니다.

성경 시편 17편 15절을 보십시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신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박윤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내세에 들어가 하나님을 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든지 혹은 주님의 재림 때 우리는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판단”, ‘나의 결심’, 그리고 ‘나의 걸음’으로 말미암은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또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상의 많은 파도가 우리 삶 속에 몰아쳐 올지라도 마음의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벅차오르는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므로 기도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께 정직한 기도를 드리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의 축복을 더욱더 누리길
기원하면서)

제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19절]

왜 우리는 낙망합니까? 왜 우리는 좌절하며 절망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인생 여정에 힘이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자포자기할 위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일을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충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한 세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현실", "생각" 그리고 "감정". 즉,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려움과 역경이 몰아칠 때에 부인하고 싶은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생각"입니다.

예기치 않은 힘든 일이나 역경이란 현실이 닥칠 때에 우리 생각에서 한 네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왜?"(Why?)라는 질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왜 나인가?' 등등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며 습관입니다. 결국 이 왜 라는 질문은 당연한 현실을 우리가 부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부인은 결국 불만과 불평으로 나의 피해의식을 표출하게 됩니다. "왜?"라는 질문 외에 우리가 자주 던지는 질문은 "어떻게?"(How?)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가?'라고 문제 해결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지만 결국 해답을 찾기보다 못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게 우리 삶 속에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은

“무엇?”(What?)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질문을 수 없이 던지면서 우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대답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접한 현실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누구?”(Who?)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한 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므로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굴곡이 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관적인 생각 속에서 일관적인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8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 다윗의 현실은 4-5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엮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과거에 그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표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 깊은 속에서 진심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1절).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사랑”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으로써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쏟으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속이 다 녹아내릴 만큼 아픈 사랑.” 박윤선 박사님도 이 사랑을 “사람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박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야말로 녹아진 사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고백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숱한 위기 때마다 그는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였기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 구원의 체험 회상 속에서 다윗은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3절).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과 사울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 시편 18편 1-19절에서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신격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18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의 성품상 구원자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박윤선). 그 하나님의 성품상이 오늘 본문 2절에 여러 명칭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반석”(험한 암벽으로 둘러싸인 땅들 의미함), “나의 요새”(높은 언덕 혹은 산꼭대기를 의미함), “나를 건지시는 자”(위급에 직면했을 때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석산의 험봉을 가리킴), “나의 방패”(원수의 화살을 막는 것), “나의 구원의 뿔”(승리의 능력을 비유), “나의 산성”(험하고 높은 산꼭대기에 시설도니 피란처).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윗의 보호자이시기에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를 보호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때문에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 시편 18편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특히 내가 극도의 위험한 환난에서 (4-5절: “사망,” “창수,” 음부”) 부르짖을 때에 또한 그 환난에 급히 임함 가운데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오늘 성경 시편 18편 7-15절을 보면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7-15절에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하나님의 위엄이 들어나기 때문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고(7절),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왔고(8절), 또 “하늘을 드리우시고 강림하”였고(9절), “그름을 타고 날으”셨으며(10절),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심으”셨으며(11절),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백백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렸으며(12절), “뇌성”과 “번개”를 발하셨으며(13, 14절), 그리할 때에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15절).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실 때에 천지를 진동할 듯이 위엄차게 임하신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박윤선). 천지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위엄, 그 위엄 가운데 다윗을 구원하시고자 찾아 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상스럽게 생각된다. 하나님의 나타내신 위엄은 저렇게 큰데, 그 구원하시려는 목적물은 극히 무의미한 듯한 한 개인이다.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지를 진동시키셨는가!” 이렇게 한 개인의 기도가 위대한 것인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한 개인의 기도가 천지가 진동하는 가운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개인의 기도에 대하여 한 4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하늘 문을 연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시편 18편 16절을 보십시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심이어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여기서 다윗은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고 말하였는데 그 말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재앙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동서남북 사방의 문이 막혀 살 수 없게 된 때에 다윗이 기도하였더니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문이 열렸으니 그 문은 바로 하늘

문 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뤄진 것입니다. 동서남북 갇혔을 때 땅을 바라보면서 “왜?”라는 질문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모세,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늘 문을 여시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시편 18편 17절을 보십시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어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여기서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보다 강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게 기도입니다. 다윗보다 힘센 이 강한 원수들, 그러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경험케 합니다.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8편 18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비록 다윗에게 “재앙의 날”(18절)이 이르렀지만 기도할 때 그 재앙의 날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넷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 시편 18편 19절을 보십시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현실을 접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여 기도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구원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할 듯이 위엄차게 임하시사 큰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체험하므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제임스 목사 나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제 18편: 내 의를 따라 상주시는 하나님

[시편 18편 20-27절]

요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의 셋째 아이인 예은이의 모습 속에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란 욕심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불공평합니다!’(God, It’s not fair!)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제가 한번은 아이들에게 초콜렛 알을 열개씩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첫째 아이 딜런과 둘째 딸 예리는 한 알씩 조금씩 아껴서 먹는 것 같은데 막내 딸 예은이는 그냥 먹고 싶은 데로 열 알을 다 먹고 나서 저에게 와서 또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빠, 언니와 예은이 너에게 열 알을 공평하게 줬는데 왜 와서 또 달라고 하냐고 물으면서 안 된다고 말했더니 예은이가 하는 말 “It’s not fair!”(불공평하다)이었습니다. 그 때만 아니라 예은이는 요즘 자주 특히 언니와 비교하면서 왜 자기를 불공평하게 대하느냐는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가 아빠, 엄마로서 세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은이에게는 불공평하게 보였나 봅니다. 제가 세 아이들에게 똑같이 초콜렛 열 알씩 공평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은이가 저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한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치 예은이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더 먹고 싶어 하였지만 제가 주지 않으므로 불공평하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해주시지만 우리는 욕심 가운데 더 달라고 하나님께 뺨장 부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요구한 것을 안 주시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자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8편 20절과 24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의”를 따라 상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상선벌악”에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박윤선). 그는 자비한 자에게는 그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그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며(25절), 깨끗한 자에게는 그의 깨끗하심을 보이시지만 사특한 자(패역한 자)에게는 벌하심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26절). 그는 곤고한 자, 즉 겸손한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27절, 박윤선).

그런데 우리는 좀 착각 속에서 균형 잃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격 중에서 그의 사랑하심, 은혜로우심, 자비하심, 선하심 등은 믿고 의지하면서 누리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에는 초점을 맞추고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계명을 좀 순종치 않고 살아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식의 말로서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이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웨퍼가 말한 “싸구려 은혜”(cheap grace)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망각하면서 불순종의 죄를 거듭 범하면서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사랑하심과 신실하심 등만을 우리 사육 되로 해석하면서 그래도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누구보다 더 주님의 일에 수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고전15:10).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더욱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계명을 순종하고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데 헌신하였습니다(21절). 그는 그저 싸구려 은혜를 외치며 신앙생활 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계시하는 계명을 순종하고자 전심전력한 자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책임인 의로운 삶을 살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His righteousness)가 동전 앞면이라면 동전 뒷면인 ‘나의 의’(my righteousness)를 추구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심각한 죄를 하나님께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로서 의로운 삶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하는데 은혜로 칭함만 받았다는 것만을 강조하면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열매를 맺으려고 전심전력하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했다고 자부심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의의 열매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말입니다. ‘무화가’이긴 한데 열매는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 잃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칭의(의롭다하심)만에 초점을 맞추고 이어서 의로운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은 균형 잃은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의 균형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도를 지켜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21절).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 교훈을 한 3가지로 나눈다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사모해야 하며 둘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바른 신앙고백’을 해야 하며,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바른 신앙고백에 따르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하는데 그 것을 차단하고자 사탄은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노력은 한 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말씀 가뭄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아모스 8장 11절 예언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찌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는 영적 가뭄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속에서 매 주일 마다 예배당 안에는 수 없이 많은 영적 귀머거리들과 영적 장님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것조차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홍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 주일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마치 귀머거리들끼리 서로 대화하듯 매 주일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이없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1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그가 싫어하시는 일들이 예배당 안에서 매 주일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성공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교훈, 즉 진리를 떠나게 하고자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게 하였고 또한 “허탄한 이야기를 좇”게하고 있습니다(딤후4:3-4). 사탄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 지키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계명 순종의 책임을 합리화시키는데 성공하고 있으면 불순종의 죄를 아주 솜털처럼 가볍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로 하여금 ‘값싼 은혜’를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멀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 주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탄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말씀 가뭄 속에서 산 것이 아니라 ‘말씀 풍작’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모든 규례”가

자기 앞에 있으며 결코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시18:22).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데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21절) 자기 자신을 죄악에서 스스로 지키는데 헌신했습니다(23절).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므로 자기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습니다(박윤선, Delitzsch). 참으로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 이었습니다. 성경 잠언 16장6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에서 떠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 이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 그가 자기의 패역성을 늘 위험시하여 자신을 쳐 복종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지혜 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위험시하여 경계한다”(박윤선).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일 먼저 위험시하므로 경계하고 있습니까? 위험대상 제1호가 내 자신인 것을 아는 신앙인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패역 성을 알고 경계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우리는 스스로 괜찮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패역 성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죄를 범할 것을 뻔히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질까봐 두렵고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에게 조그마한 틈만 보여줘도 사자처럼 다가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줄 알기에 항상 경계상태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과 함께 양로원에 방문했었습니다. 처음 뵙는 집사님이시지만 제가 함께 간 성도님의 친척 되시는 분이시기에 그저 기도한 다음에 찾아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지금 당뇨로 심장 수술과 더불어 다리 한쪽 무릎까지 절단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사님 고백은 하나님의 징계로 다리까지 그렇게 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밖에는 없다’는 고백을 하실 때에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리까지 절단되시면 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의 징계를 인정하시면서 주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시니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따라 상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므로 자신을 죄악에서 스스로 지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주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박윤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므로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데 전심전력해야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배워나아 가면서)

제 18편: 승리의 비결

[시편 18편 28-42절]

어제 저녁 8시에 한국 국가대표팀과 L.A. 갤럭시와의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논란의 초점 중 하나는 “스리백”이나 “포백” 수비 시스템을 사용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스리백 수비 시스템은 전형적인 것으로 한국 선수들에게 익숙해져 있고 포백 수비 시스템은 신형 수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전 감독도 사용하려다가 적응이 안돼서 스리백으로 돌아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술위원장 말았던 이용수 세종대 교수님은 “사실 스리백이나 포백이나는 이분법을 적절치 않은 분류다. 히딩크 감독이 스리백을 쓰기는 했지만 핵심은 전체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러기 위해 높은 전술이해도가 필요했고 강철체력이 요구됐다”고 말했습니다(인터넷). 이 교수님의 말을 통해서 느낀 점은 “전체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입니다. 교회 또한 “조직”(organization)이면서 동시에 “유기체”(organism)이기에 우리 교회 지체들의 유기적인 섬김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유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축구에서 “높은 전술이해도”와 “강철체력”이 요구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또한 영적인 몸의 강철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8편 28-42절을 보면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케 하려고 능력(힘)으로 시편 기자 다윗에게 띠를 띠우셨습니다(32, 39절).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

다섯 가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능력은 “지식의 능력”(The power of knowledge)입니다.

성경 시편 18편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참 하나님이시며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없애므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호4:6).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야 합니다(6:3).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렘9:24).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의 등불을 켜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시18:28). 여기서 ‘등불을 켜다’라는 말씀은 번영한다는 의미로서 군인인 다윗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즉, 우리가 알아가기를 힘써야 할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또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알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The power of the Word)입니다.

성경 시편 18편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입니다. 그 말씀을 먹으므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딤후3:16-17). 과연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함을 받으며 의로 교육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죄악 된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유혹들이 수시로 공격할 때마다 그 때 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삶의 고침을 받고(바르게 함) 의로 교육을 받아가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의 싸움과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죄악에서 지켜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였고(시18:23) 또한 원수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30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그를 그의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33절).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안전지대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의지의 능력”(The power of dependence)입니다.

성경 시편 18편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기가 부모님을 의지하다가 커가면서 서서히 독립해 나아가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거꾸로 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독립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서서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분은 주님 밖에 없음을 깨닫고 실천으로 옮기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아 갈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예로 우리는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적군에 달리”듯이 골리앗에게 달려갔습니다(삼하22:30).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또한 용기 있게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시18:36).

넷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기술의 능력”(The power of skills)입니다.

성경 시편 18편 34절을 보십시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다윗의 팔이
놋 활을 당기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군인인 다윗으로 하여금 합당한 기술을 주신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천직에 합당한 기술을 주신다. 곧, 상인이면 상업에, 문인이면 문필에 재능을
주신다.” 성경 전도서 10장10절을 보면 지혜 자는 “오직 지혜(skill)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술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 출애굽기 36장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소를 지으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지혜로운 사람들(every skilled
person)에게 주셔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일꾼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세우신 일꾼에게 지혜(기술)도 주십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수함도 있어야겠지만 뱀처럼 지혜로움도 필요합니다(마10:16).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싸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방패’(시18:35)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며 성령의 검도 어떻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엡6:17). 다룰 줄 모르는
성령의 검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술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인격의 능력”(The power of

character)입니다.

성경 시편 18편 3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였나이다.” “주의 온유함”이란 “주님께 서 자기를 낮추시어 부족한 인간인 다윗을 너그럽게 도와주신 결과 그가 위대해졌다는 말”입니다(박윤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입니다. 특히 그 인격 중에 예수님의 온유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이 다섯 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 죽음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승리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의 군기를 들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십시오. 승리!

승리장로교회 담임 목사,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 안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제 18편: 나를 세상의 으뜸으로 삼으시는 주님

[시편 18편 43-50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종류의 시련이 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가 힘들고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괴로운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자포자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시련이란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요?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란 사람은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련이란 진리로 통하는 으뜸가는 길이다”(인터넷). 진리로 통하는 이 시련이라는 으뜸가는 길 … 그러나 우리는 이 “으뜸가는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큰 바다 물결”보고 노를 지어 바다 깊은 데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밑 모르는 바다 속을” 헤아려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찬송가 408장).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도 결코 시련 없는 잔잔한 세상에서 성숙한 제자로 만들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련이라는 으뜸가는 길을 기피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 길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8편 43-50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으뜸으로 삼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43절과 48절을 보면 “주께서 …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와 “…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으뜸으로 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상의 으뜸으로 삼으시는지 오늘 본문 46절 상반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 .”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존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므로 우리를 세상의 으뜸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의 생존하심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지 한 3가지로 목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므로’ 나를 세상의 으뜸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 43절과 4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룸에서 건지시고 …” (43절),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48절). 어디서 주님은 시편 기자 다윗을 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백성의 다룸에서”(43절), “내 원수들에게서”(48절), 그리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48절) 건지시므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뿔이 되시는 주님께서(2절) 다윗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심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습니다(43절).

마치 출애굽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동서남북 갇혔던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무능력함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건져낼 수 없다는 철저한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때에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침묵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의 결전에서 엘리야는 주위에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말도 대답지 아니”한 것처럼(왕상18:21) 우리는 너무나 많은 때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좃지 않고 비겁하게 침묵 속에서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은 오직 구원자 주님 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나타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지만(시18:41)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그의 위엄을 들어내시며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므로 그가 참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으뜸임을 들어내십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나를 풍성하게 하시므로’ 나를 세상의 으뜸으로 삼으십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다윗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풍성한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므로 그를 열방의 으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가 궁핍할 때에도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많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느끼기보다 우리 자신의 궁핍함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자기충족”(self-sufficiency)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궁핍한 가운데서 주님께 간구하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후12:9)라는 음성을 영의 귀로 듣습니다. 이러한 자는 자기 충족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충족(God-sufficiency)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충족하는 사람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서 났느니라”(Our adequacy is from God)라고 고백합니다(3:5).

마지막 셋째로, 주님께서는 ‘나를 강하게(능력 있게) 하시므로’ 나를 세상의 으뜸으로 삼으십니다.

성경 시편 18편 45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어 나오리다.”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할 당시에는 강하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다윗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32, 39절) 다윗의 원수들을 약하게 하시고 또한 원수들로 하여금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종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띠 띠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32, 39절).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그의 능력을 들어내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들의 견고함을 무너트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십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방 중에 우리를 으뜸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세상의 으뜸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를 높여야 합니다.

성경 시편 18편 4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은 자기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그의 성호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견고함을 무너트리시는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우뚝 세우시사 자신의 영광을 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여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8편 4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풍성케 해주시므로 자기를 열방 중에서 으뜸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후(혹은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궁핍함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또한 그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십시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구원과 승리의 확신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 시편 18편 5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기서 “그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구원자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초림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초림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신 예수님, 그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시련이란 진리로 통하는 으뜸가는 길이다”라는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의 이 말을 다시 한 번 상고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으뜸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의 풍성한 은혜 또한 그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으뜸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의 으뜸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에게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또한 그를 우리 삶 가운데서 높여드리며 구원과 승리의 확신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미련하고 궁핍하고 무능력한 사람을 세상의 으뜸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를 건지시고, 풍성케 하시며 또한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제 19편: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세상과 짝지어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세상과 짝지어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하나님께 죄를 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고범 죄를 더욱더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인 죄 가운데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기보다 죄에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무서운 것은 이러한 신앙의 퇴보가 너무나도 급속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빨리 추락하는 신앙, 결국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남에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17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9편 말씀 중 특히 7절부터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와 의 율법”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아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한 4가지로 다윗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성경 시편 19편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자연 성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목적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죽은 영혼을 소성케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불완전한 신자들의 낙심된 영혼을 일으키고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낙망한 영혼이 소성케 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 시편 19편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여호와와 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함은 ‘참되다’는 의미로서(박윤선)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여기서 “우둔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열어 놓은 자”를 가리킵니다. 즉,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열어 놓은 자 안에 역사하여 그를 지혜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옥토의 밭과 같이 열린 마음에 뿌려질 때에 지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성경 시편 19편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라는 말은 ‘바르다’ 혹은 ‘곧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곧은 말씀은 죄인의 마음을 찢어 회개시킵니다. 사람은 회개해야 마음이 기쁩니다(박윤선). 바르지 못한 마음, 구부러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찢림 속에서 회개케 되므로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우리 마음도 정직해 질 때 마음이 진정으로 기쁠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바른 마음에 있습니다. 빼놓어진 마음에는 참된 기쁨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성경 시편 19편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여호와와 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서 ‘순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합니다. 그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씻겨 질 때에 우리의 영안이 밝아집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마5:8).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욥입니다. 욥은 고난의 통로를 다 걸은 후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42:5). 이 고백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우리가 고난의 통로를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견뎌 나아가므로 결국 영혼의 순결함 속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을 밝은 영안으로 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므로 영혼을 깨끗케 해야 합니다(벧전1:22).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고통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 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9편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되 기록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여호와와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확실하고 의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케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정결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결한 마음속에서 죄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순결한 자(8절)는 기록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영안으로 보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9편 10절을 보십시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금은 세상의 부를 가져올 수 있으나 영혼의 부유는 가져 올 수 없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게 합니다(박윤선). 금은 세상의 부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때에 우리 영혼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부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영혼의 부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단 맛을 맛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직한 자(8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는 마음의 기쁨을 맛보며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 시편 19편 11절을 보십시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죄를 범치 않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말씀을 지키는 자의 그 뒤가 크기[“상이 크니이다”의 히브리어 원문 뜻은 “그 뒤가 크다”(박윤선)]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경계를 무시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므로 그 상급인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마음을 열어 놓은 자(7절 - “우둔한 자”)는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9편 12-13절을 보십시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허물”을 깨닫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특히 그는 “고범죄”(presumptuous sins)를 깨달아 더 이상 그 고범죄를 짓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기도 제목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12절)와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였습니다(13절). 우리가 고범죄를 거듭 거듭 지으면, 그 죄과 지배력을 갖게 됩니다(박윤선). 곧 죄가 나를 주장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13절). 성경은 완전한 자, 성숙한 자는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길 원합니다(7절).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다윗은 반석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했습니다(14절). 그는 기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말씀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그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말씀, 정직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영혼을 소성케 되며 지혜롭게 되며 마음에 기쁨을 누리며 영안이 밝아지는 체험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직 말씀!(Sola de Scriptura!)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약속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축복을 누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19편: 더 사모하라!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시편 19편 10절).

요즘 저는 저희 교회 본당 보수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현장체험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물론 일은 전문가 분들이 하시지만 그 분들의 일하시는 모습도 보고 그 분들과 대화도 하면서 예배당이 무슨 문제점들이 있고 어떻게 보수해 나아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도전과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와서 보고 공사가 다 끝난 후 와서 본다면 달라진 점들은 좀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 과정 내용은 거의 모를 것입니다. 알아도 누군가 아는 사람에게 들어 알겠지 직접 제가 공사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직접적인 체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 교회 본당 천장이 많이 주저앉아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분들도 천장을 뜯어내기 전에는 그 정도로 천장이 주저앉아 있으리라고는 예상을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천장을 뜯어보니까 많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분들이 보수 공사를 아주 철저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저 그 분들께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보수 공사를 통하여 받은 영적 교훈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직접 성경책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재 우리 삶 속에 순종하고 적용하므로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시119:56).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한 분을 통하여 듣고 배우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간접적인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케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런 저런 성경공부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하고 배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19:10).

오늘 성경 시편 19편 10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윗의 말씀 경험을 한 4가지 과정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계를 줍니다.

성경 시편 19편 11절을 보십시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계선을 그어 줍니다. 그 경계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요8:32).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허물을 능히 깨닫게 해 줍니다.

성경 시편 19편 12절을 보십시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 줍니다(엡5:11, 13).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숨은 허물까지도 들춰내 줍니다. 경계선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 우리의 양심으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양심이 너무나 굳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정도로 굳어진 이유는 우리가 경계선을 넘었다 말았다 하는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처음엔 양심에 찔림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그 경계선을 넘어서 죄악 된 삶을 살수록 그러한 삶이 익숙해져서 결국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게 됩니다. 즉,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계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을 깨닫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주의 종으로 고범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시19:13). 경계선을 넘어서 살다 보면 죄를 의도적으로 지으며 또한 좋아서 범하게 됩니다. 죄책감도 별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면서 죄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죄에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아니 됩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 우리는 그 어겼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들춰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성경 시편 19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와 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하여 억눌려 무겁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범한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까지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죄를 자백하며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낙망하는 영혼을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하여금 다시 소성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repentance)를 통한 화목(reconciliation)과 회복 (restoration)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성경 시편 19편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회개한 심령은 사죄의 확신 가운데 그 마음에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안을 밝게 하여 주므로 선악의 분별력이 더욱더 생기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더욱더 뚜렷하게 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금 죄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주장케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주장케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우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지혜롭게 되어(7절)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며 또한 진리를 선택하여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그는 기뻐하여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허물을 능히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찬송가235장 1절 가사와 후렴이 생각났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길 원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면 살아가십시다. 우리 모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된 삶을 살아가고자 헌신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Sola Scriptura!)

제 20편: "이제 내가 아노니"

[시편 20편]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구한 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심을 깨달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언제 마지막으로 그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경험을 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요즘 저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라고 코너로 몰아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 이모저모로 부족한 가운데서 기도하고자 작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함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므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계심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듭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된 이유는 오늘 성경 시편 20편을 묵상하다가 “이제 내가 아노니”(Now I know)(시20:6)란 말씀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내가 아노니”란 제목을 걸고 시편 20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과연 시편 기자 다윗이 이제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심입니다(1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기도”(5절)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환난 날”이란 ‘전쟁’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5절). 여기서 “승리” 그리고 “기”(banner)라는 단어들을 보면 오늘 본문 배경이 전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시편 20편 1절 하반 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 함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압복 강에서 처자식들과 모든 육축 등을 다 압복 강 건너편으로 보낸 후 천사와 씨름할 때에 ‘당신이 축복하시기 전에는 보내지 않겠습니다’(Unless you bless me, I will let you go)라고 결심하고 기도했던 야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창32:22-26)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드신”다 함은, 모든 전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국위를 선양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시20:1; 박윤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이란 국가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른 나라(들)와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한 개인의 위기를 넘어선 국가적 위기입니다. 이때에 다윗 왕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또한 개개인의 위기가 있고 가정의 위기가 있고 직장/사업의 위기, 교회의 위기와 나라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의 기도 외에도 우리는 협력기도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위기에 왕인 다윗의 기도 외에도 민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던 것처럼 가정의 위기에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께 협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위기가 있을 때에 목회자부터 해서 온 교회가 협력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한 5면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 시편 20편 2절을 보십시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보기엔

늦는 것 같을지라도 그의 도우심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21장 1-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로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경 시편 20편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시편 121장 3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73편을 쓴 아삽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거의 실족할 뻔 하였고” 그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하였”(2절) 결국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삽이 실족할 뻔 했었는가 하면 그 이유는 악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악인은 형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헌물)을 받으십니다.

성경 시편 20편 3절을 보십시오: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소제”란 “헌물들”을 말합니다. “번제”는 올라감을 의미하며 이것은 희생을 제단 위에서 전적으로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레1:3-9). 지금 말로 하면 예배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의아한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도 보면 그녀 또한 다윗처럼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삼상1:10). 그것을 보면 우리 또한 환난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십니다.

성경 시편 20편 4절을 보십시오: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네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소원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성취해 주십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성경 시편 20편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를 세우리니 ….”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므로 개가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기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렸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20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므로 그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환난 날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간구해야 합니다. 참된 기도는 확신으로 끝맺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만큼 그 기도 성취의 전주곡입니다(박윤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20편 7절을 보십시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싸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사2:22).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무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등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 모든 것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20편 8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굶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다윗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우리 또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고린도전서10장13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20편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락하소서.” 우리는 다윗처럼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되 마음의 괴로움을 갖고 통곡하기를 기원하였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고 계심을 오늘 새벽기도회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내가 아노니”라고 말한 것처럼 저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사 이제 알게 되니까 무겁게 느껴졌던 저의 십자가도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 힘이 났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꼽을 수 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꼽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승리!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해 주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깨달음 속에서 힘을 얻은 후)

제 20편: 내 마음의 소원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시편 20편4절),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21편2절).**

어제 목요일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 4명을 다 함께 만났습니다. 그 중 3명은 제가 12살 때 미국에 이민 와서 중학교 때부터 안 친구들입니다. 또 한 친구도 이미 안지 오래된 친구로서 저 보다 한살 많은데도 제가 처음으로 주례를 섰던 친구입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서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사구 당구도 치고 저녁도 함께 먹고 그리고 볼링 같이 쳤습니다. 아마 이렇게 함께 다섯 명이 볼링까지 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된 이유는 이 네 친구들 중 한명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한 친구에게 우리 친구들이 좀 서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를 돕자고 전화 통화 했었는데 그 전화 통화했던 친구가 어제 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어제 저녁 식사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용기를 내어 제 친구들에게 제 마음을 나눴습니다. 친구들도 제가 너무 진지하게 말을 하니까 그리 술을 많이 못 마시고 제 이야기를 귀 담아 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하는 4명의 친구들에게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나눴습니다. 그 소원은 그 친구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제 아내도 이러한 친구들을 향한 제 마음의 소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이 친구들을 만난 후 새벽 3시에

집에 들어가 보니 아내가 잠을 안자고 있길래 새벽 6시까지 3시간 동안 제 마음의 소원인 친구들의 영혼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것까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하여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으므로 마음이 부서지고자 친구들을 의도적으로 만났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헤어진 후 차 타고 집에 가면서 혼자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까지 친구들에게 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식사하면서 술 먹는 자리에게 이러한 저의 이야기는 충분히 분위기를 깨는 이야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저의 마음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주었습니다. 전 같으면 이런 저런 말과 행동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제는 진지하게 친구들은 저희 마음의 소원 이야기를 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말했고 또한 그러한 영원한 친구가 되고 싶다는 제 마음을 그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음의 관점으로 볼 때 그리 시간은 많은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저 저는 속히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의 소원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후 저는 이 친구들에게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는 전도 집회 “새 생명 축제”에 초청을 했습니다. 꼭 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부탁할 것입니다.

어제 저는 친구들을 다 한 친구의 집 앞에 데려다 주고(그 친구 집 안에 차들을 다 세워놓고 제 차로 다녔기에)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 쯤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잠이 들었고 아내는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친구들과 늦게까지 있으면서 저는 아내에게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향한 제 마음의 소원을 알기에 그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아내는 저를 위해서 일부러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 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응답하고 계심을 느낀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한 친구는 예수님을 믿는 후배를 하나님께서 붙여 주셔서 당연한 큰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를 나아가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 직장에 사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렇게 자기에게 계속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3살짜리 딸아이를 교회 유치원에 보내는데 동요를 배워오지 않고 찬송인지 복음성가를 계속 배워온다고 하면서 교회를 보내야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가족 식구가 성당에 열심이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 20년 넘도록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오면서 ‘어느 때까지리이까’(How long?)(시13:1-2)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 마음의 소원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아침 새벽기도회 때 성경 시편 20편 4절과 21편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의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마음의 소원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느낄 때에 제 마음이 몽클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때 제 마음에 감사와 위로가 있었습니다. 사람인 제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저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제 마음의 소원기도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은 칼빈이 제네바를 기독교화 했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학교 때 룸메이트들이나 또한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친구들이나 또한 허락해 주신 귀한 만남들을 통하여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도시를 기독교화 하는 꿈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기독교 학교들, 기독교 병원, 기독교 변호사 사무실, 등등 주님 중심된 커뮤니티를 세워 나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워주시사 세상 곳곳에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을 1995년 한국에 처음 나아갔었을 때 갖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저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대학교 때 룸메이트들을 저희 교회 초청해서 함께 모여서 그

꿈을 그들에게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록 우리들 마음에는 한 꿈을 꾸지 못하고 있기에 저는 포기한 듯 아니면 체념한 듯 기도도 잘하지 않고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새벽기도회 시간에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 저는 이 꿈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분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소극적인 자세의 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의 기도로 변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전 제 자신과 대학교 때 룸메이트들이나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계시기에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큰 꿈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으시기에 저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되 내 마음의 소원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기에 저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들어나길 기도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와 아끼잖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찬송가 505장 1절과 후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길 간절히 소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한 영혼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 생명 축제에 임하기를 기원하면서)

제21편: “주의 힘”

[시편 21편]

요즘 저는 복음서가 “힘들고 지쳐”(너는 내 아들이라)란 찬양이 가끔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속으로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라고 부르곤 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제 삶 속에 붙여 주시는 지체들을 보면 이런 저런 일들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 곡처럼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는 자녀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21편 1절 말씀을 보면 “주의 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며 지치게 하는 역경들로 말미암아 약해져 있을 때에 주님의 힘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주님의 힘이 어떠한 힘인지 한 네 가지로 목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힘이란 ‘기도 응답의 힘’(The Power of Answered Prayer)입니다.

성경 시편 21편 2절을 보십시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셀라).” 여기서 시편 기자 다윗이 누구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왕”(1절)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참으로 “귀한 왕”이 아닐 수 없습니다(박윤선). 이 귀한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그 마음의 소원”과 “그 입술의 구함”입니다(2절). 그 마음의 소원과 그 입술의 구함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첫째 기도 제목은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성경 시편 21편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정금 면류관”이란 이방인 족속(암몬족속?)을 정복하고 승리한 후 전리품으로 취한 면류관을 가리킵니다(박윤선). 곧 다윗이 이 시편 21편을 지은 동기는 승전을 감사하려는데 있습니다(박윤선). 이미 다윗은 시편 20편5절에서도 기도 응답으로 승리를 경험한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기를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2) 둘째 기도 제목은 승리로 인하여 “생명” 또는 “영영한 장수”였습니다.

성경 시편 21편 4절을 보십시오: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과연 기도 응답의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성경 시편 21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 이다.” 기도 응답의 확신 구절인 성경 요한복음 16장 24절도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 우리의 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힘은 ‘구원의 힘’(The Power of Salvation)입니다.

성경 시편 21편 5절을 보십시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임하시나이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주의 구원으로” 된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임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힘으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또한 그에게 존귀와 위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지극한 복 있는 자가 되었으므로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6절).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힘을 경험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한 복을 누리며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역경과 위기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구함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광을 크게 하시며 존귀와 위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힘은 ‘인자함의 힘’(The Power of Lovingkindness)입니다.

성경 시편 21편 7절을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 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세력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세력이 다윗 왕처럼 있는 상황에서는 교만할 위험이 많기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박윤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요동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요동할 때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 건지심(구원)을 받지만 그 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결과로 역경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범한 것처럼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후 기도 응답으로 건지심(구원)을 받지만 그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의 인자하심을 느끼지 못하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시 강퍽케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자기의 선택 가운데 죄를 범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울부짖으므로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 자녀를 자기의 품에 앉으므로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응답과 구원을 경험한 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그의 인자하심을 경험해야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자녀는 견고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견고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견고히 서게하시사 어느 누구도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견고함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셔서 어느 누구도, 어떠한 세력도 해하지 못하게

하시기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주님의 힘은 ‘진노의 힘’(The Power of Wrath)입니다.

성경 시편 21편 9절을 보십시오: “네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를 구원해 주시고자 그의 원수들에게 당신의 진노를 쏟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를 다윗의 원수들에게 쏟으셨습니까?

(1)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발견하셨습니다.

성경 시편 21편 8절을 보십시오: “네 손이 네 모든 원수를 발견함이며 네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2)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소멸시키셨습니다.

성경 시편 21편 9절을 보십시오: “네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찾아낸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진노로 삼키시고 소멸시키셨습니다.

(3)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의 모든 원수들의 후손까지도 멸하셨습니다.

성경 시편 21편 10절을 보십시오: “네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함이어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대적하고 핍박하며 죽이려는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조차 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4)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의 모든 원수들로 하여금 성공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시편 21편 11절을 보십시오: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계획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대적하려고 계교를 품은 자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주님의 기도 응답의 힘과 구원의 힘과 인자하심의 힘 그리고 진노의 힘을 경험한 후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13절). 맞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므로 기도 응답의 힘과 구원의 힘,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힘과 우리 원수들을 향한 진노하심의 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힘(권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오직 주님의 힘으로 목회하기로 다짐하면서)

제 22편: 도움 자가 없을 때

[시편 22편 1-11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일 극심한 고통을 느낀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드는 생각들 중에 하나는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일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해못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복음성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를 새벽기도회 때 자주 부르곤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에 저는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라는 가사 부분에서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자녀가 부모님의 얼굴을 볼 때에 마음에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오직 우리를 도우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소망과 그리움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성경 시편 22편 11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움 자 없나이다.” 환난에 처해있는 다윗은 아무도 자신을 도와 줄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시편

22편1-11절 말씀 중심으로 “도울 자가 없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22편 4절을 보십시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성경 시편 22편 1-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여 내 하나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기도의 환경은 어떠했었습니까? 그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박윤선). 그리고 그의 기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밤에도 잠잠치 않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박윤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듯 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1절) 다윗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고 자신을 멀리하셔서 돕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을지라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자에게 멀리 떠나신 듯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도를 멀리 떠나시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더욱 간절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열른 응답하시지 않는 것뿐입니다(박윤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느낌이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심한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우리가 지쳐있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외면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꼭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22편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왜 다윗은 1-2절 말씀 후 이러한 3절의 말씀을 적었을까요? 즉, 그는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멀리하시고 버리셨다는 느낌 속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다고 말한 후 3절에 와서는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가 거룩하시다고 고백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찬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거룩하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시절에도 낙심치 않고 용기 있게 기도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어 필경은 성도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의 성호를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과거의 구원의 은총을 되새깁니다.

성경 시편 22편 4-5절을 보십시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분주하게 산다고 하면서 잠시 멈추어 과거를 뒤돌아 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지하는 자는 잠시 멈추어 과거를 뒤돌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과거를 뒤돌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아무 유익도 없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기억하면서 낙심과

원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의 열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갖았습니다. 특히 다윗은 이스라엘 열조가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회고하였습니다(5절). 그러므로 다윗 또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의 열조가 주님을 의지하므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음을 기억하였습니다(5절).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는 실망치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혜롭게 뒤돌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과 역경, 위기를 당면했을 때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누군가를 원망하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통과 역경,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위기의 환경에 지배를 받기보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앞서 간 성도들의 신앙 행적을 생각하므로 신앙에 용기를 얻는 것은 확실하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그에게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열조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회고)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과거 자기의 열조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실망치 않았음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자기가 당면한 심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자기 또한 실망치 않고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된 신앙을 지킵니다.

성경 시편 22편 6절을 보십시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훼손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윗이 당면하고 있었던 상황은 자기를 “벌레”같이 천하게 여기는 악인들에게 핍박 받고 있었습니다(박윤선). 곧 다윗은 그의 신앙이 원수들에게서 조롱을 받고 있었고 또한 그는 그들에게 훼손거리가 되었기에 그는 원통히 여기고 있었습니다(6-8절)(박윤선). 원수들이 다 다윗을 비웃었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7-8절). 웬지 다윗이 받았던 이 조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의 조롱을 기억케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 9-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지하게 하셨나이다”란 말과 “맡긴바 되었고”란 말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 무엇임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앙은 의지하는 것이며, 또 겸하여 헌신함(맡긴바 됨)이다”라는 것입니다(박윤선). “헌신이 없는 신앙은 아직 확실한 신앙이 아니다”(박윤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헌신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확실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그를 의지하면서 그 주님께 헌신하면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10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출생 시부터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었기에 지금 자기가 당면한 고통이 심할지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주님께 헌신한 것이 확실한 줄 알진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을 줄 확신하고 기도할 만하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의사에게 몸을 맡기지 않고 수술 받아 병을 고치려는 자와 같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헌신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22편 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묵상해 봅시다: “내 하나님이어 내 하나님이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 엘리 엘리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 15:34). 하나님 아버지께 크게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자 죽기까지 헌신하셨던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무도 우리는 도울 수가 없어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길 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주시길 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수요기도회 때 이 말씀을 선포 한 후)

제 22편: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22편 12-21절]

환난은 가깝고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시22:11) 우리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 우리를 이해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 만큼 우리는 외로움을 잘 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나는 누구에게 에워싸 있는가? 어떠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둘러있는가?’를 적어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한 사람도 전화할 사람이나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환난 가운데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22편 12-21절 말씀에 나오는 시편 기자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서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누구에게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과 환난 중에서 그를 둘러싸고 에워싼 사람들이 다 그의 원수였습니다(12절).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속이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19절). 저는 오늘 시편 22편 19절 말씀 중심으로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제목 아래 다윗의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은 무엇이었으며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긴급한 기도는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당면한 긴급한 상황은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환경적 관점에서 볼 때에 다윗은 그의 원수들에게 에워싸여 있었
었습니다.

성경 시편 22편 12절을 보십시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돌렸으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황소”나 “힘센 소들”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다윗의 원수들은 황소처럼 바산의 소들처럼 힘이 강하며 사람을 해함에 있어서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박윤선). “바산의 힘센 소들”은 아주 살찌고 제일 큰 소들입니다(WBC). 황소나 바산의 소들은 힘이 세고 크고 위험한 동물들로서 다윗의 원수들은 황소처럼 또한 바산의 힘센 소들처럼 다윗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었습니다(12절). 또한 다윗은 자기의 원수들을 가리켜 “개들” 그리고 “악한 무리”라고 말하면서(16절) 그 악한 무리들이 자신을 “에워쌌으며” “둘러”서 자신의 “수족을 찢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들”이란 “염치없고 불결하고 남을 해하는 악인들을 가리”키는 말로서(박윤선) 이 악인들이 다윗을 포위한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손 발을 못 박은 것처럼 다윗에게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17편 9절에서도 다윗은 원수들에게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에워싸고 포위하므로 천천히 숨통을 끊어 놓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4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결국 사탄은 우리를 포위하여 가둡니다. 그는 우리를 사방으로 벽을 세우듯이 토성을 쌓고 우리를 가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우리를 가두고 나서 그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시22:13).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포위한 후 우는 사자처럼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벘전5:8).

둘째로, 다윗이 당면한 긴급한 상황을 개인 내적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시편 22편 14-15절을 보십시오: “나는 물 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잇몸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다윗은 고난 받는 자로서 물 같이 다 쏟아지는 것처럼, 힘이 다 없어지고 뼈가 어그러져서 못쓰게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이 못 쓰게 된 뼈들처럼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WBC). 그는 수난 중에 몸이 파리해지고 심기가 쇠약해진 것이 분명합니다(박윤선). 어느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는가하면 다윗은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17절). 즉, 다윗은 너무 고난을 받는 중 파리해져서 뼈들이 두드러져 셀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박윤선). 그리고 이러한 파리한 모습을 다윗의 원수들은 동정하지도 않고 도리어 주목하여 구경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17절, 박윤선).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았습니다(18절). 우리는 원수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몸도 약해지고 심기도 쇠약해 질수가 있지만 하나님께 범죄 한 후에 회개하지 않을 때에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을 성경 시편 32편 3-4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결국 다윗을 두 가지 관점이 환경적인 관점과 개인 내적 관점으로 볼 때에 그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원수들에게 포위를 당하여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긴급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긴급한 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까이 오시길 간구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22편 1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 메튜 헨리 목사님의 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문제의 가까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급하고 힘든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간구하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므로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위급하고 극심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오심을 바라는 행동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황소처럼 또한 사자처럼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매우 가까이 있는 가운데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다윗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간구한 것이요? 다윗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듭니다.

둘째로, 다윗은 그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속히 도와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22편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 “힘”이란 히브리어 원어로 “에알”로서 “힘의 본질”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즉, 다윗은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보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속히 도와주시길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성경 시편18편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원수들의 핍박가운데서 힘이 빠질 정도로 빠져있는 다윗, 그는 그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성경 시편

22편 14절 하반절과 15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은 초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잇몸에 붙었나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힘이 좀 빠지는 것도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속히 도와주길 간구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마디로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22편 20-21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동물들인 “소”, “개”, “사자”들은 다윗과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소”는 무지하며 육체의 힘만 강하고, “개”는 불결하며 물고, “사자”는 육식하는 짐승으로서 잔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수들의 성격입니다(박윤선). 다윗은 자기의 원수들에게서부터 건져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20-21절).

우리가 급한 상황에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21절). 우리가 다윗처럼 원수들에게 에워싸버 되었어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를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께서는 에우십니다(32:7).

오늘 성경 시편 22편 12-21절에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난 중에 계셨던 예수님, 그의 원수들이 그를 둘러 그의 수족을 찔렀고 고통 중에 있는 그를 그저 쳐다만 보면서 구경거리로 삼았고 또한 그의 겔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지 않았습니까?(요19:24)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수난 중에 있는 그의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크게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속히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마27:46).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 못 박혀 죽게 잠잠히 계셨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그를 속히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속히 도와주시기를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속히 구원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속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 22편: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시편 22편 22-31절]

어제 화요일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딸 막내 예은이하고의 흥미로운 대화를 했습니다. 예은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여서 도와주었더니 그 아이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반응 가운데서 저에게 등을 돌리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은이에게 'welcome'(천만에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그리 말한 이유는 예은이에게 "Thank you"(감사합니다)라는 대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은이는 오히려 저에게 "welcome"이라고 말한 후 다시 가던 길을 가더군요. 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반응 하든지 아니면 그에게 등을 돌리고 아마 감사 표현 없이 그저 우리의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저는 그 원인을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 그의 책 "은혜의 각성"(The Grace Awakening)에서 하신 말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위험한 이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강조를 두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에 강조를 두는 것입니다'(The one I consider the most dangerous heresy on earth is the emphasis on what we do for God, instead of what God does for us)(스윈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 또는 무엇을 행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는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에게 간구하며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그저 우리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행하셨고 또한 지금도 무엇을 하시는지 잘 묵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행했는지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염려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보다 율법주의 ‘신앙’(종교 생활?)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므로 교회 안에도 계급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22편 31절 하반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주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박윤선). 다윗은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였기에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한 3가지로 묵상해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경 시편 22편 22-2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구절 초두에, “왜 그런고 하면”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앞 절 23절에 말씀한 모든 성도들이 찬송할 이유를 말씀한 것입니다(박윤선). 그 찬송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 즉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는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24절). 그 기도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한다면 “구원”(deliverance)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20-21절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의 원수들인 “소”, “개”, “사자”와 같은 자들에게서 건져 주시길 간구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다윗을 그의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윗이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계신다는 느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 “내 하나님이어 내 하나님이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 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에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기도의 비유에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되 낙망하지 말아야 합니다(1절).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야곱이 압박 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복주시기 전까지는 놓지 않겠다는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느낌일 들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시편 22편 2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 즉,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리게 되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만족함을 누리는 자의 마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26절). 다시 말하면, 영원히 복된 영적 생명의 풍족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박윤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29절). 다윗은 궁핍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므로 그의 마음을 만족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25절).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서 받은 구원이 순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자기의 찬송이 주님께로 온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의 이름은 ‘구원자’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격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맛본 심령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
다.**

다윗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1)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27, 29절).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데 회중에서 주님을 찬송하였고(22절) 또한 하나님의

공의(31절)를 찬양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박윤선).

(2)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 30절을 보십시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 여기서 “후손”이란 앞 절에서 언급된 신자들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즉, 우리들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주님을 섬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3) 우리는 주님을 전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 22, 30, 3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22절), “…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30절),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함이어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31절).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대대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고 전해야 합니다(3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
다.**

성경 시편 22편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후 우리는 교만해 지기가 싫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전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1)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22편 2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 구원자는 오직 주님 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삿8:34-35). 시편 기자 아삽은 시편 77편 11-12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2)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 시편 22편 27절을 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신30:10).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는 자는 구원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다른데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자 하나님께 돌아와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3)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22편 25절 하반 절을 보십시오: “...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값어리이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것을 이제 구원받은 후 이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한 후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께서 이 구원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더욱더 경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제임스 김 목사 고백

(구원의 감격으로 총만해 지기를 기원하는 가운데)

제 23편: 만족한 삶

[시편 23편]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99가지 희망공식”의 이진호씨는 말하기를 현대인들은 만족 결핍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미국의 작가 게일 셰히(Gail Sheehy)는 그의 베스트셀러인 “통로를 찾는 사람들”(Path Finders)이란 책에서 참 만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1) 자기가 사는 의미와 가야할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 (2) 자기의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왔다고 실망하지 않는 사람, (3) 자기 나름대로의 확실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조금씩 성취해 가고 있는 사람, (4)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사람, (5) 깊은 속까지 털어 놓을 만한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 (6) 명랑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궁극적으로 해석하며 처리하는 사람, (7) 남의 비평이나 욕까지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너그럽게 들을 수 있는 사람, (8) 두려움이나 근심을 뚫고 갈 정신적 힘을 가진 사람(인터넷).

오늘 성경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삶을 만족하게 살았던 시편 기자 다윗이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1절). 즉, 다윗은 주님이 목자이시기에 만족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만족함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혹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여섯 가지로 목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에게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23편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진정한 목자는 양들이 필요한 먹을 풀과 마실 물을 공급해 줍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는 이유는 푸른 초장에 양들이 먹기 좋아하는 연한 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꼴을 먹여 줍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설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여기서 “설만한 물”이란 “천천히 흐르는 물이니 양들이 마시기에 편하고, 또 그 건강에도 유익한 것”입니다(칼빈).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양들인 우리들에게 육신의 양식만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먹여 주시되 주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먹여 주십니다. 주님은 “여호와 이레”(The Lord Will Provide) 즉,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창22:14).

그러나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목자들은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겔34:2). 이스라엘 목자들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였습니다(3절). 이렇게 목자가 양들이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지 않을 때에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양들은 방황하며 흩어져서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멧부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므로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5-6절).

많은 성도님들이 방황하여 흩어져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2 가지로 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목사의 문제입니다.

왜 목사가 문제입니까? 그 이유는 마치 에스겔 시대 때 이스라엘 목자들처럼 성도들은 먹이지 않으면서 자기만 먹이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목사의 문제는 양들을 먹여도 건강한 음식을 먹이지 않으므로 양들이 영양실조 걸리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며 가르치기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2) 성도의 문제입니다.

즉,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려고 ‘밥상’을 열심히 준비해 놓고 기다려도 성도들은 와서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양들이 배가 불러서 그러던지 아니면 ‘영적소화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먹기를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하루에 세끼씩 밥을 먹이려고 열심히 잘 준비해서 밥상을 차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 밥을 먹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식사 전에 과자나 캔디나 간식을 먹기 때문일 때도 있고 또 다른 때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아 식사 때에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날 밤 늦게 먹은 것이 아직도 소화가 잘 안되어서 배가 부르기 때문에 아침을 건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한번 먹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또 먹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배가 불러서 입니다. 즉,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주일

받아먹은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해 가면서 영적으로 소화를 제대로 그 때 그 때 시키지 못하기에 또 말씀을 받아먹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니아에 영적 소화기능이 망가져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소화 기능이 잘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먹은 후 일상생활에서 그 말씀을 순종(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시119:32).

둘째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셔야 합니다.

성경 시편 23편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 여기서 “‘영혼을 소생시키심’은, 죄를 범하였던 영혼을 회개케 하여 진정한 생명을 받게 하심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우리는 죄를 범한 후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은 짓눌림을 받습니다. 다투어 그랬습니다. 성경 시편 32편 3-4절을 보십시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영혼은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영혼의 짓눌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죄에 매여 있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회개치 않은 마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메말라 있는 영혼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영혼은 죄 때문에만 죽는 법이니, 다시 살기는 죄를 회개함으로만 되어진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의 짓눌렸던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의 거룩하신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들춰내어 주셔야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길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 죄를 인정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목자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심에 있어서 그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9편을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25절), “나의 영혼이 놀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28절), “...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37절) 그리고 “...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50절)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되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성케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므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치 않은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짓눌려 참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참된 만족함이 결핍돼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삶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므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짓눌려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 공급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비춰보면서 성령님의 깨닫게 해 주시는 죄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케 됨을 받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23편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은 곧은 길, 즉 평탄한 길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최악 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의의 길을 택하기보다 악의 길을 택하여 그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의로운 롯처럼 악의 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벧후2:8). 우리의 상한 의로운 심령을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시금 소성케 해주셔야만 이 우리는 일어나 다시금 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 편의 어떤 좋은 조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입니다(박윤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이시요 또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평탄한 길은 사람 보기에 험하고 좁은 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첩경이다.”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쫓아야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26-2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결코 우리는 삿군 목자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삿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헤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삿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기 때문입니다(12-13절).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잡고 흙탕물을 비켜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려고 인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결국 흙탕물로 뛰어 들므로 신발과 바지가 젖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우리 멋대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 곧은길과 평탄한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23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위험의 극단을 가리킵니다(박윤선). 다윗은 주님을 목자로 삼았기에 어떠한 위험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므로 형통의 복을 누렸던 요셉은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서 종노릇할 때에든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든지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 하셨습니다. 마치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맹수에게서 보호하며 양들을 푸른 초장과 설만할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목자 되신 주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인 우리를 맹수 같은 사탄과 그의 종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주님께 대하여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에우시리이다”(32:7).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는 주님, 그분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주님이십니다(시17:8). 성경 룻기 2장 1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았던 룻처럼 우리 또한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아래 있기에 어떠한 극심한 위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호를 받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가 고백한 말에 동의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121:5-6).

다섯째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높이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23편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목자이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멸망시키려는 원수들 앞에서 연회를 베풀듯이 기쁜 승리를 주셨습니다(박윤선). 또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씀은 연회에서 귀빈에게 기름 붓는 풍속을 영두해 두고 한 말입니다(박윤선).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 핍박 받는 다윗을 연회에 청함 받은 귀빈처럼 대우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이 받은 대접과 분깃은 풍성하고

넘쳤습니다(박윤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우리 원수 앞에서 높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시요 또한 우리에게 연회를 베푸시되 크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소망에 가득차야 합니다.

성경 시편 23편 6절을 보십시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과거의 은혜 받은 체험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앞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받았기에(1-5절) 자신의 앞날이 영원토록 평탄할 줄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 의 집, 곧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삶, 즉, 주님의 공급하심과 소생케 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높이심을 받는 삶은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한다는 확실한 미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는 만족한 삶을 삽니다.

인생의 종착점이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다윗처럼 “여호와 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1절)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그분의 소생케 하시는 역사를

체엄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면 참으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만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1절)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 한분으로만 만족하기를 기원하면서)

제 23편: 철저히 부족함을 느껴야 합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편 23편 1절).

새해 2006년 1월2일 가족 친척 모임 예배 가운데 저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에 이미 가계신 저의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성경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란 철저히 부족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너 제임스는 철저히 너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라!'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좇는 양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면(이사야 53:6)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이시지만 나는 내 갈 길로 갔으므로 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적합한 예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제 갈 길로 가서 그릇행하여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 허비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흥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14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족함을 철저히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17절). 만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탄의 음성이나 세상의 음성, 환경의 음성이나 우리 자신의 감정 음성 등을 듣고 주님께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부족함을 느끼면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느끼되 우리는 좀 철저히 부족함을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히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께 스스로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궁핍해져야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철저히 부족해져야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풍부함을 찾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새해 2006년 1월1일 신년예배 때부터, 아니 그전 크리스마스 때 부터 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므로 좀 괴로웠습니다. 2005년 신년예배 때는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새해 2006년은 제 자신의 성품과 내적 사람의 부족함이 더 들춰지면서 시작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복음(말씀)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철저히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저는 철저히 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자 되신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므로 부족함이 없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철저히 부족함을 느끼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목사 나눔

(목자 되신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길 기원하면서)

제 24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

[시편 24편]

헤어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헤어지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물론 헤어짐이란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도 말할 수 있지만 고향을 떠나는 헤어짐도 있고 연애하다가 헤어짐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헤어짐 속에서 우리는 슬퍼할 수도 있고 마음도 아파하면서 낙심할 수도 있고 또한 자포자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헤어짐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만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 모든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 친구들 등등과 헤어지면서 한국에 약 3년간 있으면서 또 다른 만남의 축복을 누렸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둘째는 제 자신과의 만남이요 셋 번째로 동역자와의 만남과 형제, 자매들과의 귀한 만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헨리 나우웬의 말처럼 우리는 헤어짐 속에서 또 다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24편 3절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와 함께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위대하신 하나님(1-2절)과 누가 교제할 수 있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한 4가지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그러한 자격을 가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는 정결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24편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제하는 자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하며”라는 말씀은 외부적으로 행실이 정결해야 할 것을 가리키고 “마음이 청결하며”라는 말씀은 내부적으로 정결해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행실과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깨끗하다 함은 전연 무죄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 제일주의에 속하여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 그를 ‘찾으며’, 또한 그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6절, 박윤선).

우리는 깨끗케 함에 있어서 외부적 청결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부적 청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행실의 깨끗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깨끗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듯이 우리 마음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 샤워를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므로 가능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벧전1:22). 그러나 이 죄악 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실과 깨끗함을 잘 지켜 나아가기가 참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아삽은 시편 73편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히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왜 아삽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하였기 때문입니다(3절). 아삽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그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2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고난 중에 아삽처럼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실족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결함(깨끗함)을 포기하는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제일주의에 속하여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을 경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6:24). 우리는 마음에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주님만을 섬기는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행실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는 뜻을 허탄하데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24편 4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여기서 “허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지 않는 모든 이 세상 영광과 재리에 대한 허욕”을 가리킵니다(박윤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행실과 마음이 정결한 자는 자기의 뜻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두고 다른 허탄한 데 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마음에 진리를 사랑하며 행실로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므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벧전1:22). “영혼을 깨끗하게”하는 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거짓된 것에 속임을 당하여 이 세상에 헛된 영광과 재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헛된 욕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자는 진리 안에 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진리에 말씀에 순종합니다(벧전1:22).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 볼 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시떨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경 누가복음8장에 나오는 씨뿌리는 비유를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14절). 여기서 우리는 “나의 신앙 성숙(maturity)을 막는 것들은 3가지를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1) 이생의 염려(life's worries), (2) 재리(riches) 그리고 (3)

일락(pleasures). 걱정, 근심하며 돈(물질)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을 정도로 우상화 하여 좇고 또한 섬기며 세상 쾌락으로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가리켜 "가시떨기"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우리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탄한 욕심만 만족하게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도록 그냥 방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데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는 거짓 맹세치 말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24편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행실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뜻을 허탄한데 두므로 거짓된 삶을 삽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는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는 거짓 맹세치 아니한다는 말씀은 한 2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1)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뜻을 허탄한데 두는 자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뜻을 하나님에게 둔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즉, 그는 거짓증거를 하지 않습니다(박윤선).

(2)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헛되이 하지 않고 실행해야 합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을 실행한다는 말입니다. 서원을 것을 실행하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15:4).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진 자들로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3-4절 상반절과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어가고 있는 자는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가지와 같은 자로서 그 안에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증거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또한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을 성의껏 영접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24편 7-10절을 보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찌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찌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찌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찌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기 위하여 성전 문을 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7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모시지

않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문을 활짝 열듯이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사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럽고 허탄한 것과 거짓이 가득 찬 세상과 헤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헤어짐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뜻을 허탄한데 두지
말고 또한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성의껏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교회를 꿈꾸면서)

제 25편: “주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시편 25편 1-7절]

저에게는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란 저희 부부의 첫째 아기 주영(Charis)이에 대한 기억입니다. 1998년 4월 29일 주일, 저는 예배를 다 마친 후 주영이가 입원해 있는 엘에이 어린이 병원(Los Angeles Children)에 가서 담당 의사를 만났었습니다. 그 때 저는 그 의사 선생님에게 받았던 질문을 잊지 못합니다: ‘당신의 아기를 빨리 죽겠하겠는가 아니면 천천히 죽게 하겠는가?’ 의사 선생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기에 저에게 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때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아기를 천천히 죽게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 때 왜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아기를 천천히 죽게 해달라고 부탁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빠인 저의 욕심이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기는 매우 고통스러웠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그 다음 날인 4월 30일 월요일 아침, 아내와 함께 성경 시편 63편 3절 말씀을 묵상한 후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주영이를 빨리 죽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날 저희 부모님과 형 부부와 여동생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영이를 제 품에 앉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영이는 제 품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오늘 따가 그 기억이 유난히도 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만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기억들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안 좋은 기억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처 입은 기억들, 고통당한 기억들, 아픈 기억들 등등. 우리 모두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일들, 그렇게도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상처 입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꼭꼭 마음 깊은 속에 숨겨두고

고집어내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기억들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보이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이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자신에게서도 잊어진 듯 하겠지만 결국은 또 다른 고통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각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다시금 그 기억들을 눌러서라도 잊으려고 애씁니다. 만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헨리 나우웬이 그의 책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에서 한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스런 기억들과 직면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는 가운데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상처와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직면하는 용기 있는 자만이 자기의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는 가운데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다면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 마음 깊은 속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들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기억들을 직면하는 가운데 마음을 바꾸어 회개하지 않으므로 우리 자신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닫힌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만 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지 못하면서는 하나님께도 마음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악 된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함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치유의 과정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다시금 기억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끊임없이 연결하는 것입니다.’ 연결할 때에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25편 6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 본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기도가 좀 의아한 기도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신 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을까요? 왜 그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길

간구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 자신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였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죄(용서)해 주심을 사모하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 한 4가지로 목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자는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성경 시편 25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은 원수들과 속이는 자들(2, 3절)의 핍박을 받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 주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여기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내 영혼을 당신께로 쳐들었나이다”입니다(박윤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영혼을 쳐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영혼은, 그 속에 깊이 들어있는 죄악 때문에, 땅에 낮게 붙은 듯이 침체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영혼, 땅에 낮게 붙은 듯이 침체 상태에 있는 영혼,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해 볼 때에 역시 ‘나의 죄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쳐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쳐들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임을 고백한 후 바닷가에 던져집니다(욘1:12). 그리고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욘2장). 그 기도 가운데 요나서 2장4절을 보면 요나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영혼은 이렇게 요나처럼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한 영혼은 주님을 우러러 보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께 쳐들었다는 말은 다윗이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였음을 의미합니다(시25:2). 존 칼빈은 기도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에 가장 큰 방해는, 하나님 밖에 다른 것들로 도움 받을 줄 알고 마음이 이리저리 동요됨이다”(칼빈). 마음에 동요가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주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것들이 생각나가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 의심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의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약1:6).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주님을 바랍니다(시25:3). 여기서 주님을 바란다는 말씀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가운데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참아 기다렸습니다(박윤선).

둘째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자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원합니다.

성경 시편 25편 2-3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다윗은

원수들과 속이는 자들(2, 3절)의 핍박을 받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사 한 것은 “곧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심이니, 이는 보호하여 주심”입니다(박윤선). 다윗은 그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극도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길 다윗은 간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억울하게 한 자들을 자기 힘으로 이겨 보려고 어떤 복수 행동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도다운 태도입니다(박윤선). 이러한 성도다운 태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원수를 내 힘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자세, 이러한 자는 원수에게 수치를 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수들 또는 “무고히 속이는 자”, 즉 “헛되이 속이는 자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3절, 박윤선).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이 거짓말로 속이면서 우리를 곤고에 빠지게 할 때에 이런 저런 실패 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감이란 우리 마음 안에 의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므로 마음의 동요가 되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보호해주시사 원수들의 거짓말(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자는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성경 시편 25편 4-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다윗의 원수들(2절), 즉 “무고히 속이는 자”(3절)인 비양심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 속이는 자들이 진실 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거짓말을 만들어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 때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도(진리)를 가르쳐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4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도”, “주의 길”, 그리고 “주의 진리”란 다 같은 뜻입니다. 한 마디로, ‘주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거짓말, 속임수를 사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혼동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혼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혼동하여 우리 뜻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4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 “하늘에 계신 내(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기에(reveal)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시25:4-5).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86:11).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25:5).

마지막 넷째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자는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시편 25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가운데 자신의 젊었을 때의 죄들까지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통회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핍박이나 곤란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의 우리가 젊었을 때 죄까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그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 주시길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뤼귀롱의 《한걸음 밖에서 바라보기》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마운 일만 기억“이상하게도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원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합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기억하고, 타인에 대한 원망은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고마운 일만 기억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주님만을 우러러 보며 사십시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진리를 가르쳐 주심과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9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25편: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치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시편 25편 7절).

인생은 ‘추억 만들기’입니다. 태어나서 부모님과 삶의 속에서 우리 각자 마음에 심겨지는 추억들, 그리고 자라나면서 형제들과 및 친구들과의 삶속에서 만들어지는 추억들 등등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런 저런 추억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억들을 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좋은 추억들과 나쁜 추억들. 물론 이 두 종류의 추억들 외에도 고통스러운 추억들과 아픈 추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억들은 좋은 추억들도 될 수 있고 또는 나쁜 추억들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마음에 좋은 추억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나쁜 추억들이 많으십니까? 종종 우리는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추억들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좋은 추억들을 더욱더 많이 만드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추억들로 나쁜 추억들을 덮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참된 마음의 부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25편 7절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때 죄와 허물을 기억치 마시고 주님의 인자하심 따라 자기를 기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을 따라 다윗을 기억하신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들춰지는 다윗의 모든 죄와 허물들, 과연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또한 기억하고 계신다면 과연 다윗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의 거룩하심을 따라 기억하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독생자 예수님께 다 걸머지게 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므로 그의 거룩하신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실 뿐만 아니라(forgive) 또한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forget). 다윗은 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소서’(7절).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인자하심 따라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요3:16).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생각은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시139:17-18). 그 사랑의 생각으로 총만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의 선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향한 좋은 추억(선한 생각)만 가지고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사랑을 따라 기억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않 좋은 추억들을

좋은 추억으로 덮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추억으로 악한 추억을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사랑의 추억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추억 만들기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사랑의 추억 만들기에 헌신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25편: 내가 선택해야 할 길

[시편 25편 8-15편]

여러분은 지나온 길을 되돌아 볼 때 아쉬움을 느끼니까? “만약 다른 길로 걸어왔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더라면, 내 인생은 더 낫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 볼 때 ‘만일 사춘기 때 방향의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떠한 목회자가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과거의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래도 과거의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면서 그 과거에서 교훈을 받아 현재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생각해 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25편 12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택한 길은 무슨 길이였을까 생각해 볼 때에 시편 1편 말씀에서 나오는 ‘의인의 길’이라 생각합니다(1:1).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인생의 길에는 오직 두 갈래 길만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 여기서 의인의 길이란 ‘말씀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갑니다(2절). 의인의 길을 걸었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므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늘 생명수를 공급받았습니다(3절). 그러면 악인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악인의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악인의 꾀를 좇는 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양심을 판단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제 멋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알찬 과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가 맺는 것이라고는 오직 바람에 나는 쪽정이 밖에 없습니다. 쪽정이는 결국 땅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도,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땅에 뿌리를 전혀 내릴 수 없습니다. 바람에 또 날립니다. 이처럼 악인의 인생은 언제나 가볍고, 번덕스럽고,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발이 두 개가 있지만 아무리 발이 두 개가 있는 사람이라도 동시에 두 길을 걸어 갈 수는 없습니다. 의인의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악인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항상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에는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선명하게 갈립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 시편 25편 8-15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한 3가지로 묵상해 보면서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선택하여 신실하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죄인이 선택해야 할 길은 선한 길이요 정직한 길입니다.

성경 시편 25편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여기서 우리 죄인들이 선택해서 걸어가야 할 길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길은 바로 선한 길입니다.

선한 길이란 ‘도덕적으로 선한 길’(moral goodness)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 죄인들이 걸어야 할 선한 길이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길입니다(34:14). 다시 말하면,

선한 길을 걷는다는 말씀은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워짐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채우심을 숨김없이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 된 생각들을 마음에서 비워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비워야 하며 미워하는 마음도 비워야 하며 악한 생각 등 다 비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의 말씀으로, 그의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또한 선한 길이란 자비의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25:8)라는 말씀 속에서 “선하시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돌아보시는 자비를 가리킵니다(칼빈). 우리가 자비의 길을 선택하여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셔서(자비로우셔서)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버리지 않고 돌아보아야 함을 말합니다. 결국 선한 길이란 죄를 버리되 죄인은 버리지 않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향하여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11절).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주위엔 그의 원수들이 속임수를 써 가면서(3-4절) 핍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의 죄를 들춰내고 있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고백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큰 죄를 용서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2) 두 번째 길은 바로 정직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5편 8절에서 다윗이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훈은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정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대상29:17)이심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정직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 누가복음 1장6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삽니다. 또한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죄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즉, 그는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 온유한 자가 선택해야 할 길은 공의로운 길입니다.

성경 시편 25편 9절을 보십시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기서 “온유한 자”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령이 겸손해진 자들을 의미합니다(칼빈).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범죄 할 때에는 공의로 그들을 징계하여 온유 겸비하게 만드십니다(박윤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죄를 사하여주십사 하나님께 회개 기도한 다윗의 마음은 온유해진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유(겸손)해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 가운데 우리 죄인들이 범죄 한 후 회개치 아니할 때에 사랑의 매로 우리를 징계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유(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러신 후 하나님께서는 겸손해진 마음 밭에 공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처럼 불법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겔9:9).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 가운데 그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겸손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온유해져서 그의 공의로우신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선택해야 할 길은 언약의 길입니다.

성경 시편 25편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여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다윗은 그의 원수들의 속임수들이 난무한 불법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2, 3절). 그랬기에 그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12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지 못한 상황에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보다 “실상은 자기 육체의 언약에 싸여 잠자는”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택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칼빈, 박윤선). 그 길은 선하신 길, 자비로운 길과 정직한 길 또한 공의로우신 길이었습니다. 이 길들을 신실하게 걸었던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언약의 길입니다. 즉,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약속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은 주님의 길이요 인자와 진리의 길입니다(10절). 박윤선 박사님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성도의 구원과 축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언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밖에는 알자가 없다. 그것이, 외식 자들과 불택자들에게는 이해되지 못한다.” 맞습니다. 외식 자들과 불택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약속(언약)의 축복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길을 알고 그 길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걷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언약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14절).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의인의 길이요, 선한 길이요, 정직한 길이요, 공의로운 길이요, 그리고 언약의 길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여 신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15절).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특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앞으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기를 소망하면서)

제 25편: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25편 16-22편]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노리는 대적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죄악의 씨를 무작위로 뿌려댑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로 듣는 것으로, 생각으로 죄악 된 씨들을 마음에 착상시키려고 정말 집요하게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때 악하고 불결한 생각들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사탄의 죄악 된 생각에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거룩에서 멀어지고 행위로 죄를 짓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말은 오랫동안 죄에 방치하여 그 마음이 굳어져 강박하게 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도무지 신경한 것들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마음 지키기를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25편 20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편 25편 16-22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내 영혼을 지켜야 하는지 묵상해보면서 귀한 교훈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외롭고 괴로울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성경 시편25편 16절을 보십시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외롭고 괴로울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여 죄악의 씨를 뿌릴 수 있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 우리는 외롭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다윗이 외롭고 괴로움을 겪은 원인은 그가 이 세상 모든 비 진리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면 우리는 들 외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로 지도를 받는 성도의 길은 외롭고 괴로운 것입니다. 다윗은 “무고히 속이는 자”, 즉 헛되이 속임수를 써가면서 자기를 괴롭혔던 원수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3절).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5절). 그는 속임수가 난무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진리로 지도받으며 교훈받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고 괴로울 때 한적한 곳에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눅5:16). 여기서 “한적한 곳”이란 외로운 곳(lonely place) 또는 헬라어 문자적 번역은 ‘광야’(desert)입니다. 외롭고 괴로운 가운데 다윗의 기도 제목은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였습니다(16절). 여기서 “내게 돌이키사”라는 기도는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다윗 자신에게로 돌이켜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은 외로운 광야에서 고독의 동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던 것(6절)을 다윗은 알았기에 그는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다윗처럼 외롭고 괴로울 때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면서 그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외롭고 괴로울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사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마음의 근심이 많을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성경 시편 25편 17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난에서 끌어 내소서.” 왜 다윗의 마음은 근심스러웠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육신의 고통을 당함과 자기의 지은 죄를 통감하는 까닭이었습니다(박윤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라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11절). 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심은 유익한 근심이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후에 결국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욘2:2). 죄를 지면 우리의 마음은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곤고함 속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곤난에서 끌어 내서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고 또한 곤난에서 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곤고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성경 시편 25편 18절을 보십시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여기서 2 가지 뜻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어떤 고난은 죄악 때문에 온다는 것과 둘째로, 누구든지 죄악 때문에 받는 고난을 겸손히 회개함으로 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로 인하여 해제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박윤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종대 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라고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11절). 다윗은 그의 원수의 속임수와 같은 죄를 들춰내면서 비판하기보다 원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죄가 큼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곤고”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시119:67),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71절). 고난의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곤고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그 곤로와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큰 죄가 들춰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므로 씻겨지는 우리 영혼은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형제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자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벧전1:22).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십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 원수가 우리를 심히 미워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성경 시편 25편 19절을 보십시오: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성도는 원수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만큼, 하나님의 원수만이 그의 원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원수입니다(박윤선). 우리 성도의 원수는 바로 사탄이요 또한 그의 악한 종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대적하며 속이며 핍박합니다. 그들은 우리 성도를 심히

미워합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심히 많았고 또한 그들은 다윗은 심히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 후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20-21절). 여기서 “성실”이란 “외식하지 않고 전심으로 행함이고” “정직”은 “치우치지 않고 진리대로 직행함”을 말합니다(박윤선). 다윗은 원수들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역경에 처했을지라도 진리의 길에서 떠나 생을 도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전심으로 진리로 직행케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박윤선). 영혼 그 자체는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고 스스로 구원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만 지키실 수 있고 또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박윤선). 원수들이 우리를 심히 미워할 때 우리는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피하여 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원수의 미워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외롭게 하고 괴롭게 하며 마음의 근심을 주고 곤고와 환난 가운데 거하게 만들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피하여야 하며 또한 그 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내 영혼을 지켜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16절), “나를 곤난에서 끌어내소서”(17절),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18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20절)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사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22절)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길 기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원하면서)

제 26편: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라! (1)

[시편 26편]

토미 테니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공 예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 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임재 하셨는가에 문제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웬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토미 테니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전자레인지식 초간편 부흥”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전자레인지에다가 팝콘 봉지를 넣어서 팝콘 알맹이들이 부풀어오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간단하고 빠르고 힘도 별로 안 들여도 되고 쉬운 방법입니다. 이러한 “전자레인지식 초간편 부흥”을 원하는 원인은 우리의 영적 입맛이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패스트푸드,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간단하게 빨리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고, 성경공부도 숙제 내주는 것을 싫어하고,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왜 빨리 안 되는지 불평하며 원망하고 등등 우리의 영적 입맛이 많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바로 “영적인 동맥경화”입니다(테니). “패스트푸드나 짧은 예배 또는 간단한 예식을 좋아하는 우리의 입맛이 결국에는 영적인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동맥경화는 왜 걸립니까? 그 원인은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 담배, 고혈압, 비만증, 운동부족 등입니다. 이 원인 중에 비만증과 운동부족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영적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져서 배부르게 먹는 것 같은데 그 받아먹은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비만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적 운동 부족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것도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받아먹은 후 영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결국 영적인 동맥경화는 마치 뇌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생각을 빼돌려 놓고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동맥경화는 마치 심장혈관이 막혀 협심증, 심근경색증이나 급사라는 결과까지 가지고 오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막으므로 말미암아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전자레인지식 초간편 부흥”, “영적인 동맥경화”는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선과 같은 예배를 막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는 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사탄은 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옴에게서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고자 옴의 소유였던 소와 양을 포함한 가축들에게 제일 먼저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며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26편 8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행하는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26편 1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는 자는 완전함에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11절). 여기서 완전함에 행한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처럼 완전하여 무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때에 어떤 일에 있어서 다윗이 아무런 과오를 범치 않고 여호와를 신앙하였다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그 시대에, 어떤 죄악을 범하는 우리들과 같이, 동화한 적이 없다는 것뿐입니다(4, 5절, 박윤선). 한 마디로, 다윗은 성실히 전심으로 행하였습니다 [“‘완전함’(1, 11절)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똥’이니 성실함, 전심함 등의 의미를 가진다”(박윤선)]. 즉,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했던 다윗은 성실히 전심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성실히 전심으로 행하는 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우선 한 가지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실히 전심으로 행하는 자는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경 시편 26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므로 성실히(완전히) 행하였던 상황은 악인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 악인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4절), “간사한 자”(4절), “행악 자”(5절), “악한 자”(5절), “죄인”(9절), “살인자”(9절). 이러한 악인들이 가득찬 상황에서 다윗은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요동치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 또한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전혀 의심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참고: 약1:6).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다윗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시26:1). 다윗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결백한 자신과 자기를 대적하는 악인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2절). 여기서 “살피시고”란 말씀은 “마음을 깊이 들여다 봄”을 의미하고 “단련하소서”란 말씀은 “금속을 정제하기 위하여 불의 연단을 가함”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이 말은, 여기서 신앙 인격에 불순물이 있는가 하여 환난 같은 것으로 흔들여 봄을 가리킨 듯합니다(박윤선). 다윗은 그가 당면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연단의 기회로도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요동함이 없이 견고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견고함이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둘러 쌓여 있는 힘들고 괴로운 현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뜻과 마음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신앙, 다윗은 이러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다윗의 믿음처럼 견고합니까?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위기와 역경을 우리 자신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두 가지 교훈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위기와 역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 하며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의 뜻과 마음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와 역경 속에서 우리 마음을 깊이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죄의 많음과 큼을 깨달아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25:11). 더 나아가서, 우리는 위기와 역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단련을 다윗은 어두운 세력들이 주위에 그를 포위하여 그를 핍박하는 위기 가운데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위기와 역경을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위기와 역경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는 자가 되므로 오히려 위기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욱더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마음의 단련이 필요함을 더욱더 느끼면서)

제 26편: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라! (2)

[시편 26편]

언젠가 저희 교회 역사를 슬라이드로나마 소개하고자 교회 앨범들에 있는 오래 전 사진들을 다 스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오래된 사진들을 스캔하면서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오래 전부터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옛 사진들을 보면서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실함이란 영적 자세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교회를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한 교회에서 수년 동안 오랫동안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26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 다윗은 참으로 성실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므로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1, 11절). 여기서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완전하여 무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그 시대에, 어떤 죄악을 범하는 무리들과 같이, 동화한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4, 5절) (박윤선). 한 마디로, 다윗은 성실히 행하였다는 말씀입니다[“‘완전함’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틈’이니 성실함, 전심함 등의 의미를 가진다”(박윤선)]. 과연 성실히 행하였던 다윗에게 배우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 3가지로 목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성실히 행하는 자는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경 시편 26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자기가 처해있었던 힘든 상황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라고 기도하였는데(2절) 여기서 “살피시고”란 말씀은 “마음을 깊이 들여다 봄”을 의미하고 “단련하소서”란 말씀은 “금속을 정제하기 위하여 불의 연단을 가함”입니다(박윤선). 이 말은, 여기서 신앙 인격에 불순물이 있는가 하여 환난 같은 것으로 흔들여 불을 가리킨 듯합니다(박윤선). 우리는 좀 역경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흔들여 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통과 역경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깊이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야 좀 멈춰 서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면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는 그의 힘든 상황을 연단의 기회로도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요동함이 없이 견고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성실히 행하되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실히 행하는 자는 주님의 진리 중에 행합니다.

성경 시편26편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 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다윗은 역경 속에서도 죄악 된 세상과 또한 악인들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중에 행하였습니다. 그는 충분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앓을 수도 있었고 간사한 자와 동행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한 상황을 초월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다윗은 거짓된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진리 중에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을 살펴보며 자신의 뜻과 마음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기의 목전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진리 중에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의 눈으로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주 워렌 위어스비(Warren Wiersbe) 목사님이 쓰신 “Be Decisive”라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의 종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을 이루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호해 주신다고 적용해 보았을 때에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기의 목전에서 보았기 때문에 허망한 자들과 간사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진리 중에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역경 속에서 왜 진리 중에 행하지 않고 타협할 때가 있는가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목전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을 직접 영의 눈으로 보는 이러한 영적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육신의 눈만이 우리가 당면한 역경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진리 중에 행하지 못하고 타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리 중에 행하였던 다윗의 삶을 한 우리는 한 3가지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1) 다윗은 진리대로 행치 않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행악 자들의 집회도

미워하였습니다(4-5절). 여기서 “허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치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진리 중에 행하였던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치 않는 사람들의 주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박윤선). “간사한 자”란 “가리움이 된 자들”을 의미하는 바, 내용은 가장 악하면서도 외모로는 가장 선한 체하는 자들입니다(박윤선). 진리 중에 행하는 자는 이러한 간사한 자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체하면서 내용은 거짓되고 악한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악을 행하기 위하여 모인 단체, 즉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였고 또한 악한 자, 즉 “문문한 자”인 “도덕 실행해 견고성이 없고 방종히 가는 자요, 되는대로 행하는 자”와도 친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2) 다윗은 정결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26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하므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이것은 제사장이 제단 봉사에 착수하기 전에 손을 씻고 시작하는 사실을 염두해 두고 하는 말입니다(출40장; 신21:6, 7, 30-33). 다윗은 제단에 이르러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에 평소의 생활을 정결히 하고서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박윤선). 마치 주중에 정결한 생활을 하다가 주일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3)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26편 7절을 보십시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함은, 그 당사자가 마땅히 해야 할 개인적 책임입니다(박윤선). 그러나 다윗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속에 하신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남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전도자의 책임을 감당하였습니다(박윤선).

마지막 셋째로,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경 시편 26편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를 사랑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1) 그는 거짓을 미워합니다.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거짓을 좋아하겠습니까? 거짓과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교회 안에 거짓된 죄악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죄를 심히 미워해야 합니다. 특히 고통 중에 우리 마음 깊은 속까지 주님의 눈으로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2) 교회를 사랑하는 성실한 자는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진리 중에 행하는 자가 거짓된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 하”기 때문입니다(10절).

(3) 교회를 사랑하는 성실한 자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집회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장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사1:13-14).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 찰 그 날을 생각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이 그립습니다. 죄악 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세상,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날이 반듯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이 죄악 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곳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걸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므로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며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 중에 거할 것이며 또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기원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찬송가 246장)

찬송가 246장을 부르면서 승리장로교회를 생각해 하시며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 사랑,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27편: 두려운 상황

[시편 27편 1-6절]

요즘 혹시 여러분 중에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신지요? 만일 계시다면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걱정, 근심, 불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려움”하면 이사야 41장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 .” 또한 요한일서 4장18절 말씀도 생각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온전한 사랑이 결핍돼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편지”(제 64호)를 보면 우리 안에 잠재된 무의식적인 두려움은 크게 4 가지로 삶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두려움은 당신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고 주저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2) 두려움은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거절당하기를 두려워해서 가면을 쓰고 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가장하고 실제 감정을 부정합니다. 결국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3) 두려움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방해합니다. 행복과 두려움은

동시에 공전할 수가 없습니다. (4) 두려움은 우리의 성공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일어날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두려워하는 일이 발생할 것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실패를 준비합니다.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게 합니다(인터넷).

과연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 시편 27편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편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한 3 가지로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안연(담대)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27편 3절을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오히려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잠잠히 바라보았습니다.

(1)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서도 안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빛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참으로 어두웠었습니다. 다윗의 대적, 그의 원수 된 행악 자들이 “나의 살을 먹으려고” 다윗에게로 왔고(2-3절) 또한 “군대”가 그를 대적하여 진을 쳤습니다(3절).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5절). 그는 이러한 어두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두려운 상황에서 담대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직접 두려운 생황을 접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걱정도 하고 근심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성경에 나는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이 배 안에서 자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파도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최악 된 파도와 물결이 몰아칠 때에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태연한 척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솔직히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서 “빛”은 어두움을 자동적으로 쫓아버리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두움”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의 대적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그의 대적들, 특히 전쟁 상황에서의 그의 대적 군대들을 가리켜 “어두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어두움을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내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환하게 발하는 것처럼 두려운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므로 어두움을 다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구원이신 하나님, 승리” 혹은 구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곧 다윗의 “피난처”이시며 다윗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다윗은 어떠한 군대 정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상황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더욱더 환하게 발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두려운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 전 인격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을 것입니다.

(2)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담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승리(구원)의 체험을 되새겨야 합니다.

다윗은 그가 당면한 어두운 상황에서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대적들을 실족케 하여 넘어뜨리신 일을 기억하였습니다(2절). 그러므로 그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담대하였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두운 상황 속에서 캄캄하게 보이기만 하는 미래를 생각하기에 앞서 과거의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총들을 생각하므로 말미암아 현재의 당면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 빛 되신 주님에 대한 구원(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3) 우리가 어두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므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은 미래에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서 그의 대적 군대가 진 치며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신앙 고백하였습니다(3절). 그가 그리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빛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그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두려운 상황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인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16:18)란 말씀을 신실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어떠한 두려운 상황을 접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담대하게 견고히 서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27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 구하였습니다.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 볼 때에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함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기 일생 모든 날에 묵상하였습니다. 은혜 충만한 하나님 계시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자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체험합니다.

(2)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였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했던 이유는(4절)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귀어, 그 모든 위험에서 구원 받는 방도이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첫째 아기 주영이 때 자주 듣고 목상했던 미국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Under the Shadow of Your Wings”(주 날개 그늘 아래)이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나의 하나님 주를 기다리네 이곳 주의 처소에서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니 주 알기 위해 나를 드립니다 주 사랑으로 덮으소서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소서 주 알기 원합니다.” 저는 밤마다 주영이와 함께 있다가 차를 타고 병원 주차장을 나설 때마다 창공을 바라보면 들으면서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내와 제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 거룩한 비밀스러운 곳에 아기를 품어주시고 숨겨주시길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듣고 불렀습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에 말기는 기원의 찬양이었습니다.

(3)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원수를 물리치시므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 청할 수 있었습니다(6절).

이 말씀은, 그가 많은 원수 앞에서 몰락되지 않고 도리어 소망 중에 태연자약하게 살 것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우리는 소망 없이 어두운 환경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고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특히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간절함은 죄악 된 물결의 파도가 더 치면 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송가 543장 2절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괴롭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였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27편 6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그의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실 것을 소망하였습니다(5절). 또한 그는 믿음으로 장래의 소원 성취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서원하였습니다(6절). 이것은 승리자로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입니다(박윤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직도 다윗은 그의 대적, 그의 원수 된 행악 자들로 말미암아 어두운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그는 승리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다고 서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과거에 자기로 하여금 승리케(구원)하신 하나님께서도 지금 자기가 당면한 원수들이 대적하는 어두운 상황에서도 또 앞으로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능히 건시지고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상황은 변치 않았는데 다윗의 마음은 변한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두려움 대신

확신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당면한 환경 아래 눌리지 않았고, 그 환경을 발아래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복되어 처신하게 된 원인은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닳은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닳은에게는 그 환경을 지배하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닳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그가 당면한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오히려 믿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 자가 찬양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닳은 처럼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사41:10)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두려운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을지라도 또한 앞으로 처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닳은 처럼 오히려 담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담대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움 받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두려운 상황의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제 27편: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시편 27편 4절).

대학교 이 후로 "One Think I Ask"란 복음성가를 혼자서 기타 치면서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적이 기억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결심한 후부터 다가오는 제 나름대로의 어려움들과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들이나 괴로움들이 저로 하여금 한 가지를 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은 바로 저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27편 5절을 보면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의 집을 구합니다. 왜 그는 여호와의 집을 구하였을까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환난과 고통과 슬픔입니다. 비록 순각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착각하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환난과 고통과 눈물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난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추한 모습을 보고 낙심, 실망, 상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 간절함을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집"이 아닌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불타오르는 때는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겪을 때입니다. 그 고통이 점점 더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한 가지 일을 더욱더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다윗은 말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길 원했기 때문입니다(5절). 마치 병아리가 독수리의 위협을 느낄 때에 어미의 날개 아래 혹은 품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온갖 유혹과 핍박과 고통을 퍼 부을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길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환난"이란 것은 기도케 하는 축복입니다. 기도하되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일을 구하게 만듭니다. 그 한 가지 일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사모하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환난 가운데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기도하는 자들이되 한 가지 일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영의 눈으로 보았기에 "바위 위에 높이" 세움을 받은 후 기도를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가서 그리워하던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 뵙길 바라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드린 후)

제 27편: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시편 27편 7-14절]

스토미 오마산이란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란 글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행동하기 원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그를 바라며 기다리기보다 행동으로 먼저 옮기기를 더 속히 합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더 이상 참고 견디며 기다릴 수 없을 때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곤 합니다. 이에 대해 스토티 오마산이란 사람은 ‘기다림의 때’를 하나님을 섬기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참고 견딘다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견디기 쉽습니다”(인터넷).

오늘 성경 시편 27편 14절을 보면 다윗은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랄지어다”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아 기다릴지어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바랄지어다”란 단어는 “기다릴지어다”라는 말씀임).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성도가 역경을 당면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당면한 역경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2)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신기하여 인간으로서는 알기 어려우니 공손히 그의 발밑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3)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해결해 주실 터이니 기도하는 태도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4) 어떤 때에 성도는 일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에 유리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기다림이 좋습니다. 저는 오늘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랄찌어다!’(Wait for the Lord, O My Soul!)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무엇을 바라는지 한 세 가지로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주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성경 시편 27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왜 다윗은 주님의 긍휼을 바랬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므로 그의 대적과 원수 된 행악자들(2절)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길 간구할 텐데 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은 주님께서 노하사 자기를 버리실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9절). 이것은 다윗이 사울처럼 버림당함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그럼 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삼상15:23). 사울 왕은 아말렉을 쳐서 전멸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을 통하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3절).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사울 왕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겼지만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12절).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16:7) 사울 왕의 중심은 교만하였기에 그 교만함 가운데서 나온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사울처럼 교만하여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윗은 충분히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처해 있었던 상황은 그의 대적과 원수 된 행악자들(2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환난”(5절)가운데 있었고 또한 군대가 그를 대적하여 진치는 전쟁 상황에 처해있었음에도 불구하고(3절) 다윗은 그들을 두려워하기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여 버림 받을까봐 두려웠던 다윗, 그는 마음 중심에 교만의 싹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 자신의 마음 중심에 교만의 싹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교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리 내어 부르짖어야 합니다(7절).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주님의 얼굴을 바랍니다.

성경 시편 27절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주님의 얼굴을 바란다는 말씀은 주님의 은혜로운 모습(얼굴)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림을 의미합니다(박윤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봐 두려워했던 다윗이 주님의 은혜로운 모습(얼굴)을 바랐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마음으로 범죄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식사한 후 아내에게 제 마음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란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조그만 잘못된 습관조차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잘못된 습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고칠 수가 없다면 하물며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교만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생각되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성경 시편 27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랬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10절). 그는 마음 중심으로 교만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봐 두려워했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에게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볼 수 없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아기가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길 위하여 간구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내가 … 여호와와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13절). 이 얼마나 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는 하나님, 그의 은혜로운 모습을 사모하였던 다윗은 주님의 은혜 볼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마음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할까봐 두려워했던 다윗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오히려 더욱더 사모하므로 말미암아(8절)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채우고자 기도하며 또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면서 오히려 다윗처럼 우리 마음은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마음 중심으로 사모하여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내릴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주님의 길을 바랍니다.

성경 시편 27절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다윗은 주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 볼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길을 배워 그 길을 걷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길”은 ‘의로운 길’을 가리킵니다(박윤선). 다윗은 불의를 행하는 악한 대적 자들의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의 힘입어 사울 왕처럼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의로운 길을 걷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간구하였는데 이 기도는 다윗이 옳은 길을 가는 중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청구하는 기도입니다(박윤선). 다윗의 대적들과 원수 된 행악 자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옳은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있었기에 다윗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옳은 길을 신실하게 걷을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우리는 다윗이 처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 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다윗의 원수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며 그에게 대하여 위증과 악담을 토하는, 즉 다윗을 해하려고 독심을 품고 독설을 가지고 악독한 언사를 일삼는 상황에서(박윤선) 다윗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의 길, 의로운 길을 걷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걷기를 원했던 주님의 길이 평탄한 길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생각이 든 이유는 다윗의 환경과 처해있는 상황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과 행악 자들, 위증 자들을 악을 토하는 자들의 핍박 가운데 있는 다윗이 걷고 있었고 또한 바라던 주님의 길이 어떻게 평탄한 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되면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닐지라도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 주님의 길을 걸을 때에는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탄을 길을 내십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 바다에서 길이 다 막혀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절하는 원망의 죄를 범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탄의 길을 내시므로 말미암아 결국 홍해 바다 또한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걸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저런 역경과 환난 같은 상황에 처해서 전혀 우리 인간의 눈으로 평탄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의 긍휼과 얼굴과 길을 찾는 자에게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내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그러신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도 홍해 바다가 갈라져 길을 내시듯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평탄의 길을 내시사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어떠한 역경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모습과 주님의 길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으신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길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신실하게 걷고 있는지요? 찬송가 470장 1절에서 나오는 가사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게 하시어 우리 주님께서 현재와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길을 순탄하게 하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은혜를 사모하므로 그의 도우심을 받아 신실하게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사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훈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내 마음의 주님의 평탄한 길을 내시는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 27편: 확실히 믿습니까?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와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시편 27편 13절).

어제 수요기도회 때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기쁜 소식인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본문: 롬1:16-17). 저는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한 2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바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지만 주님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주는 눈물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요기도회를 마친 후 목양실에서 오늘 목요일 새벽기도회 읽을 성경 시편 26-31편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시편 27편 3절과 11절을 영문으로 읽다가 잠시 멈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두 구절을 묵상하게 된 이유는 그 구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confident”입니다. 한국어 성경을 보면 3절에서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even then will I be confident)고 말씀하고 있고 13절에서는 “확실히 믿었도다”(I am still confident of this)라고 번역돼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을 묵상하면서 받은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는 자는 위기 가운데서도 태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27편 말씀의 문맥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위기란 “악인들”(2절), “대적들” 또는 “원수들”(2, 6, 11절) “군대”가 다윗을 대적하는 상황이었습니다(3절). 특히 그 대적들은 마치 전쟁에서 사방에 진을 치듯이(3절) 다윗을 둘러쌌습니다(6절). 그들은 위증 자들이요 악을 토하는 자들이었습니다(12절).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 다윗을 치려 하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12절).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다윗은 확실히 믿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산 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13절).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1절). 그는 마음이 두렵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태연하였습니다(3절).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을 구하였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4절).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또한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6절). 그는 하나님께 소리 내어 부르짖었습니다(7절). 그는 주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8절). 그리고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14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기란 기회입니다(A crisis is an opportunity). 무슨 기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귀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보게 될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한 6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보게 될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성경 시편 27편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5절). 지켜주시되 비밀히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다윗을 숨겨주셨습니다(5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저로 하여금 즐겨 듣게 하신 미국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그 복음성가는 바로 “주 날개 그늘 아래”(Hide me in the shelter)이란 노래입니다. 그 곡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Under the shadow of your wings Here in the secret place of your holiness ... And keep me in the shadow of your wings Safe in the secret place of holiness ...”(주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매일 밤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었던 첫째 아기 주영이를 두고 병원에서 나와서 운전하며 집으로 갈 때마다 그 복음성가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영이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비밀 처소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위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보게 될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바로 하나님의 높이심입니다.

성경 시편 27편 5절 하반절에서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위기 가운데서도 높은 바위 위에 두셨습니다(5절하).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를 둘러싼 그의 원수들 위에 높이 드셨습니다(6절상).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힘든 시기 가운데서 가르쳐 주셨던 교훈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보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참고: 빌 2:5-11). 위기가 기회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좋은 기회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보게 될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성경 시편 27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은 그의 대적 자들의 군대가 그를 치려고 진을 쳐서(3절) 그를 둘러쌀 때(6절) 다윗은 소리 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7절). 그의 부르짖음은 한 가지였습니다(4절). 그 한 가지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4절). 이렇게 다윗의 간구는 많은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한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극심한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간구는 오히려 더 단순화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은 소망으로 우리의 힘든 마음이 부풀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위기로 인한 절망 중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소망케 하시고 또한 주님을 갈망케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위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위기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추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위기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요 또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좋은 기회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보게 될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경 시편 27편 9절을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그가 접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또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상하였습니다(9절). 그 이유는 그는 과거에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는 현재에도 도와주실 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도움”(my helper)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God my Savior)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도와주시사 구원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9절).

위기란 우리 마음에 불확신을 심어줍니다. 불확실한 위기의 상황은 우리 마음을 흔들려 놓되 뿌리째 흔들려 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 놓으시는 주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 마음에 큰 확신을 주십니다. 그 큰 확신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사 나를 건져(구원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통하여 나의 돕는 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시 위기란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보게 될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접하심입니다.

성경 시편 27편 10절을 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사방에 그의 원수들과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었을 때 주님께서 자기를 영접하실 줄 확신했습니다. 비록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주님께서만은 자기를 영접하실 줄 확실히 믿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옅처럼 “나의 형제들”이던(욥19:13) “내 친척”(“가까운 친지들”)들이던(14절) 또는 “내 종”들이던(16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던(19절), 심지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길지라도(17절)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은 나를 영접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시27:10). 결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떠나실 수도 없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위기를 통하여 확실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기란 하나님의 영접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보게 될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경 시편 27편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영접하여주시고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평탄한 길”(a straight path)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11절). 곧, 다윗은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정도로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주의 도”(your way)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11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정도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한 것 말입니다. 주로 우리 같으면 탈출구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던지 어떻게 하면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 길을 보여 달라고 기도할 텐데 다윗은 주님의 도와 정도로 인도해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위기는 주님의 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동서남북 사방의 문제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사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여정에 위기란 생명의 길이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설만한 물가로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입니다(23:2-3).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는 위기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높이심, 하나님의 기도응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대하면서 또한 기다립니다. 충분히 두려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기다립니다. 기다리되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서 태연하게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는 자는 위기 가운데서도 태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 (46:10).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34:8)]

제 28편: 주님이 건설치 아니하시는 교회

[시편 28편]

주님께서는 제가 섬기고 있는 승리장로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인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란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심을 영의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28편 5절 하반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건설치 아니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를 오늘 본문 시편 28편 말씀 중심으로 한 3가지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책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출판되면서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성장 학에 관심이 많은 때에 저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지 않는지 대조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시는 승리장로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3가지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건설치 아니하시는 교회는 주님을 반석으로 삼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경 시편 28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반석으로 삼지 않는 교회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반석으로 삼았기에 극악한 원수들로 말미암아 극도의 비참한데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박윤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 다윗은 그가 처한 극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8, 9절)이 없으면 자기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였기 때문입니다(1절). 그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지 못함을 사망과 같이 여긴 것입니다. 즉, 다윗은 기도 응답을 생명과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박윤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주님을 반석으로 삼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서 기도를 생명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2절). 다윗은 주님의 성소를 향하여 간구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함이여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주님이 세우시지 않는 교회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기에 기도 응답 또한 없을 것이기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즉, 주님이 세우시지 않는 교회는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고 주님께 부르짖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을 의지하여 그에게 간구하므로 주님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건설치 아니하시는 교회는 말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경 시편 28편 3절을 보십시오: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끝지 마음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과 행악하는 자”는, 보통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써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극악 자들을 말합니다(박윤선). 이러한 극악 자들로 말미암아 수난을 당하고 있었던 다윗은 그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다윗은 자기의 종말이 악인들의 종말과 같아지지 않기를 간구하였습니다(3-5절)(박윤선). 이 악인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악인과 행악하는 자들은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화평을 부르짖지만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악인과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행위와 악한 대로 갚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길 간구하였습니다(4절). 이 악인들, 즉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합니다(5절).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않기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도 않고 또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마음에 일치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윗처럼 주위에 위선자들로 가득하여 말로는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면서 마음에는 악독을 품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7절).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악인과 행악하는 자들처럼 마음에 악독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은 거짓말로 “화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6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처럼 크게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7절). 우리 교회는 언행이 일치 되어 하며 또한 마음도 사랑으로 계속 채워져야 합니다. 결코 마음은 악독이 가득하면서 말로는 ‘평화로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에 성령의 열매 사랑이 더욱더 맺어져서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이 건설치 아니하시는 교회는 주님을 목자로 삼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경 시편 28편 9절을 보십시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다윗은 악인과 행악하는 자들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은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9절). 이 기도 내용 중에 하나는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였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시사 마치 목자가 양을 앓아 들고 나르려 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나르려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인과 행악하는 자들은 주님을 목자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지도 아니하기에 목자의 인도하심이나 보호하심 등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지 않는 성도는 주님께 세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지 않는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마치 집을 지려고 하면서 건축자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퉁이 돌이 되시는 주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자 되심을 거부하는 악인들과 행악 자들은 그의 인도하심 또한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목자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도자 일꾼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경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대로 또한 신앙생활 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지 의심 가운데 흔들리는 제 마음을 보면서 주님을 닮았처럼 “나의 반석”으로 삼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을 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기보다 의심하는 가운데 기도응답의 확신조차 없어 마음의 찬양조차도 없을 때가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언행일치 하지 않으며 말과 달리 마음은 온갖 죄악 된 생각 속에서 생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모습을 봅니다. 또한 주님을 목자로 삼는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음성조차도 분간을 못하고 들어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미쁘시사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마태복음 16장18절 말씀대로 신실하게 세우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하면 우리 교회 지도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확신이 드는 것은 사탄은 교회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지도부를 더욱더 견고히 세우고 계심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사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주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앎고 나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반석으로 삼고 의지하여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를 찬송케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는 교회가 되어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마음과 말과 일치하는 교회가 되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님을 목자로 삼는 교회가 되어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건설하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건설하시는 승리장로교회 담임 목사,

제임스 김 나눔(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제 28편: 주님이 세우시지 않는 교회

“저희는 여호와와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시편 28편 5절).

우리는 너무나 자주 교회 안에 문제가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귀한 헌금들이 세상 법정에서 싸우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나 신문 광고비로 등등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 낭용되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피로사신 교회의 이러한 큰 문제점들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러한 교회들을 주님께서 세우실까 하는 생각도 두려운 마음으로 듭니다.

오늘 성경 시편 28편 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건설치(세우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시편 28편 3절과 5절 중심으로 한 2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교회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경 시편 28편 3절 하반 절을 보십시오: “...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주님이 세우시지 않는 교회는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교회입니다. 입술로는 ‘화평’을 말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주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파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잠10:18).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입술로만 사랑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좁게는 한글 사역 식구들 가운데서 입술로만 화평을 말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화평을 깨는 자의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넓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한글 사역 식구들이 히스패닉 사역 식구들을 입술로는 한 교회 한 식구라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을 무시하며 차별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지 않을 것입니다(참고: 저희 승리장로교회 안에는 한국어 사역, 영어 사역, 히스패닉 사역이 있습니다). 입술은 달콤한데 마음은 쓰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참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된 사랑은 상대방을 세울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대방을 무너트립니다. 잠언 기자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잠26:23). 우리는 요한일서 3장18절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한글 사역이 ‘어머니 사역’(mother ministry)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어사역과 히스패닉 사역 식구들을 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치 자식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무조건 품고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우리 한글 사역 식구들은 영어사역과 히스패닉 사역 식구들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말로만 “화평”(peace)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peacemakers)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벽들을 허물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세상에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생각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경 시편 28편 5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여호와와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본다면 만일 우리 교회 식구들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18절 말씀처럼 지금도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서는 우리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서는 우리 교회를
“파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릴 때 우리는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느6:16) 진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실 때에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역사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서는 이루어 나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부터 “틈”을
보여주시면서 무너트릴 것은 무너트리시면서 다시 견고하게 세워 가시는 주님의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지도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세워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마16:18).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며 또한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웃을 입술로만 사랑하며 화평케 하는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심을 보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훈을 겸손히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에 다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승리!

주님이 세우시는 승리장로교회,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제 29편: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시편 29편]

구약 성경에는 중요한 여호와와 성호 7가지가 나옵니다: (1) 여호와 이레(창22:14)는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 하셨을 때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이고, (2) 여호와 사파(출15:26)는 출애굽 때 라마에서 쓴 물을 단물로 고쳐주셨을 때의 이름으로 "치료하시는 여호와"(시103:3)란 뜻이며, (3) 여호와 닛시(출17:15)는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이름으로 "여호와와 나의 기"란 뜻이며, (4) 여호와 살롬(삿6:24)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단을 쌓았을 때의 이름으로 "여호와와 나의 평강"이란 뜻이며, (5) 여호와 레아(시23:1)는 "여호와와 나의 목자"(요10:19)란 뜻이며, (6) 여호와 찰기누(렘23:6)는 "여호와와 나의 의"(고전1:30)란 뜻이며, (7) 여호와 삼마(겔48:35)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계21:3)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레18:21).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흠을 잡힌다면 그들은 사람의 잘못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까지 욕합니다. 성경 레위기 21장 6절은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29편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한 2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성경 시편 29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고”란 말씀은, 거룩한 인격을 가져야 될 것을 가리킵니다(박윤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합당한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인격은 바로 ‘거룩한 인격’입니다. 거룩한 인격을 가진 예배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닌 자로서 정결한 생활을 합니다(박윤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짝지어 살지 않고 분리된 삶을 살면서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거룩케 하심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찬송가 332장 4절).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의 피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를 경배해야 합니다(히4:16).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길 위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실인”이란 말의 뜻은 “성결하다,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인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나자르란 단어의 뜻은 성별되었다, 구별되었다, 헌신된 자, 구분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나실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실인 예배자가 되어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헌신한 나실인처럼 우리는 이 죄악 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구별하여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신앙의 표준을 목표로 삼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실인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를 돌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성경 시편 29편 3-9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와 소리”라는 말을 일곱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 나타난 우렛소리를 영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하는데 호응한 것입니다(박윤선). 하나님의 소리를 폭풍의 뇌성으로 표현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엄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위엄스러운 말씀을 듣습니다. 그 위엄스러운 말씀은 힘이 있어(4절) 백양목까지도 꺾습니다(5절). 이러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다윗은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9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찬송을 가리키고 있습니다(칼빈). 하나님의 영광을 천연 계에서 인식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박윤선).

우리는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러길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엄스러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엄스러운 말씀은 심판의 문맥에서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과연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스러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대로 추가하고 빼고 하는 등 말씀에 불경건한 행동을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2) 우리는 하나님의 힘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백향목같이 우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부서지고 꺾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스러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 부서지고 우리의 고집이 꺾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목은 땅을 주님의 힘 있는 말씀으로 하여금 기경해야 합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광야와 같이 메마른 마음이 진동해야

합니다(8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메마른 마음이 흥분 되어
합니다(학1:14).

(4)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벌거 벗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29편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그의 소리가 ... 삼림을 말갈게
벗기시니...” 우리는 포장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우리 자신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들어내어 보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의 우리의 모습 그대로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 벌거벗음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는 예배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듣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엄한 소리를 듣는
자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는 어떠한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평강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9편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는 참된 예배자요 또한 듣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힘”과 “평강”의 복입니다. 과연 성도들이 필요한 힘은 어떠한
힘입니까? 한 2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1) 예배 가운데 주시는 힘, 그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느8:10). (2)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 가운데서 주시는 힘은

말씀의 힘입니다. 이 힘은 결국 공의 편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용기와 위안을 줍니다(박윤선). 예배의 삶과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축복은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겔36:21). 하나님께서는 그의 큰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로 인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일 더럽혀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아끼시기에 우리로 인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23절).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존귀하신 그 이름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더럽혀질지라도 하나님의 그의 거룩하신 큰 이름을 아끼시기에 우리로 인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자라면 우리는 그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위엄스러운 소리를 겸손히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강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강을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제 30편: 하나님이어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시편 30편]

이번에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허리를 다치셔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허리를 심하게 다쳐보았기에 장로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양말 신기도 힘들 정도로 허리를 다치신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생도 태어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양육 받다가 나중 노년에도 몸을 자유자제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또 다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다.’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시편 22장 11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환난에 처해있는 다윗은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을 때에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1-2절).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되새겨야 합니다(4-5절). 마지막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합니다(9-10절).

오늘 성경 시편 30편 10절을 보면 “...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도울 자가 오직 주님 밖에 없음을 인정하므로 그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한 5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성경 시편 30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주님을 높이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찬송함과 봉사함과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함으로입니다(박윤선). 그러면 왜 다윗은 이렇게 주님을 높이려고 결심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대적의 손에서 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3절). 여기서 “끌어내사”란 말은 아라비아어는 “떨라”로서 이 아라비아어는 “두레박줄을 쳐들어 올림에 대하여 쓰는 말”입니다. 이 어귀는 두레박으로 물을 끌어 올리듯 사지에 빠진 인생을 끌어 올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말합니다(박윤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마치 우물 안에 점점 깊이 빠져서 더 이상 우리 인간으로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한 상태에 있어서 구원자이신 주님께 베드로처럼 손을 내밀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 오셔서 마치 두레박으로 물을 끌어 올리듯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디에서 끌어내어 건지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다윗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살리셨습니다(3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거의 죽을 뻔한 상황, 즉 사망하여 매장되는 듯한 극난한 처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출해 주셨습니다(박윤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대적으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사탄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대적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죄를 짓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 된 기쁨을 누리길 원하고 있습니다(1절). 그러나 다윗은 경험과 더불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다윗을 그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사 그의 원수들로 하여금 기뻐할 일이 생기지 못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대적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지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마치 두레박으로 물을 끌어 올리듯이 우리를 그 사지에서 끌어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들은 다윗처럼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를 섬기며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 카다린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의지를 없는 것과 같이 하여 순종하므로 주님을 높이는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박윤선). 우리도 성 카다린처럼 주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성경 시편 30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어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은 대적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그를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고치셨다’는 말씀은 일시 실패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됨을 말합니다(박윤선). 만일 그렇다면 다윗이 범한 이 “일시 실패”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형통할 때에” 스스로 자신에게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말할 정도의 교만함입니다(6-7절). 결국 이 범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얼굴을 다윗에게 가리우셨고 그로 인하여 다윗은 근심하였습니다(7절). 이 얼마나 귀한 근심입니까? 이 근심은 세상적 근심이 아니라 바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경건한 근심입니다. 이러한 근심 가운데서 다윗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2, 8절). 그의 기도 제목은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였습니다(10절). 여기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란 기도 제목은 범죄 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도움을 받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아니 다윗보다 더 실패를 많이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또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진정한 회개(repentance)가 없이는 진정한 회복(reconciliation)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의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의 매를 맞고 회개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성경 시편 30편 5절을 보십시오: “그 노염은 잠간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건지심(구원)을 받고 치유함을 받은 후 깨달은 진리는 슬픈 일보다 기쁜 일이 사실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난처한 자리에 빠져 고생한 것보다, 거기서 건짐이 되어 누리게 된 기쁨의 분량은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박윤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슬픈 일보다 기쁜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능은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을 더 잘 기억합니다. 마치 장미의 냄새는 기억치 못하나 그 가시에 찔린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박윤선). 그러나 하나님의 노염은 잠간이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은 잠간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5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받는 고통 중에서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새 하루 새 아침에는 그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월요일 J.I. Packer의 “하나님의 계획”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빌1:18). 어떠한 상황에 제 자신이 처해있을 찌라도 성령님께서서는 제가 제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면서 결심하게 만드셨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자!’ 우리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잠깐의 눈물과 슬픔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물과 슬픔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을 달게 받을 때에, 그것 자체도 맛을 변하여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고통의 맛은 한약처럼 입술에 달 때는 쓸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우리 또한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시30:11).

넷째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십니다.

성경 시편 30편 6-7절을 보십시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자 그를 도와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을 굳게 세우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박윤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견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개개인을, 우리의 가정을 또한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견고케 세우시사 요동치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자만심과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을 견고케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만심이 생겨서 자기는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6절, 박윤선).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진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신고로, 다윗은 회개하면서 근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을 때에 회개하는 자는 쉽지 못합니다(박윤선). 그러나 다윗은 그런 때에 귀하게 회개하였습니다(시51:4 참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주의 은혜로”라는

사실입니다(30:7).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세우시므로 요동치 않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해서, 선한 일을 해서 등등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케 하십니다.

성경 시편 30편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어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결국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케 하십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끌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도록 견고케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는 그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한 그 기도 응답을 받으므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어찌 죽은 자가 찬송할 수가 있으며 복음(진리)을 전파할 수가 있겠는지 하나님 앞에서 말하였던 다윗(9절),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대적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그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을 경험하였습니다(5절). 그러므로 그는 영영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서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는 그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놀라운 사실은 나의 돕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의 기도 소리인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들으시고도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사 예수님을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시는 것을 보시고서도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셨습니까? 그 이유는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고쳐)주시고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버려두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적 기쁨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견고케 세우시고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를 찬양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돕는 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의 도움을 받은 후)

제 31편: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편 31편 1-8절]

우리 각자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헛된 신이나 헛된 것들을 혹시나 의지하고는 있지 않는가?” 이 질문을 대답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글을 보면 영국 교회의 복음적인 교역자인 케논 배터스비(Canon Battersby) 목사님이 한 번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한 왕의 신하 이야기를 본문으로 한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교훈이 나옵니다. 그 교훈은 다름 아닌 왕의 신하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요4:50), 그 아들은 완쾌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의지함입니다(인터넷). 저는 제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인 마태복음 16장18절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한가?’ 아니면 ‘나는 이 약속의 말씀 외에 혹시나 자주 내 자신이나 그리고/혹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일 제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목회를 감당케 하심을 경험한다면 분명히 저는 아무도 또한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아무 무엇으로 인해 불안해하며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만 충분하다고 믿고 확신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찬송가 342장(“어려운 일 당할 때”) 가사에 쓰여 있듯이 우리는 세월 지나

갈수록 아무 일을 만나도 의지할 것 주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31편 6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라고 결심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무엇을 하는지 한 2가지로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께 피합니다.

성경 시편 31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 다윗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였다는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그에게 간구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였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럼 주님께 피한 영혼인 다윗의 간구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다윗의 첫 번째 간구는 “나를 건지소서”였습니다.

성경 시편 31편 1절 후반 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그가 처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위기는 힘이 강하고 간교한 다윗의 원수들이 그물을 쳐서 동물을 잡듯이 다윗을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4절).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므로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원수들이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어내 주시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4절). 흥미로운 것은 다윗은 자기의 의를 근거하여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근거로 하여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1절). 다윗은 주님께서 택한 자를 신실히 보호하시는 의의 행위로써 구원하여 주심을 바랬던 것입니다(칼빈).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교훈은 우리는 우리의 의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견져(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드려서는 아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견져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다윗의 두 번째 간구는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였습니다.

성경 시편 31편 2절을 보십시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의 견고하심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견고한 바위”는 “은신할 수 있는 반석 위의 간성을 의미하고, “보장”은 산꼭대기에 세운 피신 건물을 가리킵니다. 이 명칭들은 보호하시는데 능하신 하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박윤선). 다윗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피하여 예수님의 의를 근거로 하나님께 견져달라는 기도를 드린 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청하였습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만이 우리를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보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3) 다윗의 세 번째 간구는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였습니다.

성경 시편 31편 3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다윗은 반석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주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까? 그는 “주의 이름을 인하여”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사 그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셔야 하기에 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3절).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갈 길을 잃은 양들처럼 헤매므로 말미암아 결국 원수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찬송가82장)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에게 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면서 자기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길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였습니다(1절). 즉, 다윗은 실패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박윤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피할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를 주목하던 자들이 비웃을 것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께 자신의 영을 맡깁니다.

성경 시편 31편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생사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왜 다윗은 주님께 자신의 영을 맡겼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주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현재 극심한 고난 중에서 과거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생사 문제)을 맡긴 이유는 주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생사의 문제를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참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며, 그의 언약하신 바를 언제든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였던 다윗은 그의 현재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이 진리의 하나님께 자기의 생사 문제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과거의 진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였던 그는 현재의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이러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6절). 다윗은 우상숭배 자들의 죄악 행위를 미워하였습니다.

(2) 다윗이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 이유는 그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31편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다윗은 현재 고난 중에서 과거의 진리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현재 극심한 고난 중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바로 신앙(믿음)입니다. 특히 그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이유는 주님께서 다윗의 곤난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자신을 아시고(7절하) 그를 그의 대적의 수중에 놓아두지 않으시고 그를 넓은 땅, 즉 자유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8절).

성경 시편 31편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성경 누가복음 23장4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두 구절 말씀을 비교하여 생각해 볼 때에 놀라운 사실은 독생자 예수님께서 생사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건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생사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사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를 건져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는 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길 기원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제 31편: “그러하여도” 신앙

[시편 31편 9-14절]

성경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분노에 찬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그들을 던져 넣게 하고 위협했을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3:16-18). 저는 이 대답을 생각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과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입니다(3:28). (2)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십계명의 제 1계명과 2 계명을 순종하였습니다. (3)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아닐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이 구원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생명을 내놓은 결심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31편 14절을 보면 우리는 “그러하여도”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 다윗은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그러하여도” 신앙을 묵상하면서 그의 “그러하여도” 신앙을 본받길 원합니다. 과연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였는지 한 5가지 상황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그러하여도” 신앙은 우리가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경 시편 31편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은 여기 9절부터 자기가 당면한 극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진술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진술이 바로 “내 고통”과 “근심”입니다. 즉, 다윗이 자기만이 격고 느끼고 있는 “내 고통”과 이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 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모든 대적” 때문입니다(11절). 그러나 이것은 외적 원인입니다. 좀 더 깊은 내면적 원인은 다윗은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10절). 마치 죄를 범한 후 회개치 아니하므로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징계하시듯이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근심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로 대적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근심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인지 깨달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지한 가운데서 다른 이와 또한 환경을 원망하므로 더 큰 죄를 하나님께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근심하였고 근심으로 말미암아 눈과 혼과 몸이 다 쇠하여져 있었습니다(9절). 즉, 그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근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통과 근심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찾았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9절).

우리는 우리 각자만이 느끼며 경험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고통”이지 “우리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 “내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심하며 결국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육 간에 쇠하여지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까? 성경 이사야 38장 17절인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 말씀이 우리에게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일관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의 유익은 히스기야 왕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즉,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건지심)의 은총과 그의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38:17). “근심”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고린도후서 7장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근심된 일이 많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돼야지 세상 근심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즉, 근심 가운데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육 간에 연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러하여도” 신앙은 우리가 슬픔과 탄식 속에 있어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경 시편 31편 10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이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냄이여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슬픔”과 “탄식”은 유익한 슬픔이요 탄식 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고통스러운 일(대적 자들의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슬퍼하였기에 그에게는 유익한 슬픔 이었습니다(10절). 이 슬픔은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탄식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토설케 되는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32:3).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치 않을 때에 그의 손으로 우리를 주야로 누르십니다(4절).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과 근심 가운데서도 슬퍼하면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므로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슬픔”에 대하여 이미 묵상한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 우리는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기쁨)이 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노염은 잠간이요 그 은총을 평생”이기 때문입니다(5절). 분명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5절).

셋째로, “그러하여도” 신앙은 우리가 욕을 당해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경 시편 31편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다윗은 그 대적들보다 의로움으로 그들이 그를 미워하고 대적하였습니다(박윤선).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이웃과 친구들에게까지도 소외를 당하였습니다. 대적들뿐만 아니라 이웃들, 더 나아가서 친구들까지도 다윗을 외면하였습니다. 길에서 다윗을 만나 자들도 그를 피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무도 주위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주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마치 사회에서 매장을 당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주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시25:16).

우리의 본능은 홀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주위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철저히 소외를 당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소외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소외당하는 상황에서 다윗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시험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윤선 박사님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나 훼방을 중대시할 필요가 없다. 성도는 하나님의 칭찬과 판단만을 중대시하고 그 표준에서 살아야 한다.”

넷째로, “그러하여도” 신앙은 우리가 잊어버린바 되어도 주님을 의지 합니다.

성경 시편 31편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잊어버린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 이다.” 다윗은 인간 사회에서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파기와 같이”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여기서 “파기”란 깨진 그릇을 가리킵니다. 즉, 다윗은 깨진 그릇처럼 쓸모없는 사람이 된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전혀 무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오늘 성경 시편 31편 12절에서 ‘잊어버린바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다윗은 주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다들 그를 소외시키므로 그가 잊어버린바 된 사람이 되었을 때에도 다윗은 주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나는 가정에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등등 쓸모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는 ‘사람들이 이전 나를 잊어버렸어. 나의 전성기는 이미 지나갔으니 빨리 죽어야 해’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말을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잠드신 박 권사님을 바라볼 때 아무 기억도 없으시고 어느 면으로 보면 사회로부터 또한 우리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을 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권사님을 잊지 않으시고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소외시키며 우리가 사회로부터 잊어버린바 되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 이사야 49장15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참조: 시27:10).

**마지막 다섯째로, “그러하여도” 신앙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경 시편 31편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우리의 비방을 들으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이 당하고
있었던 핍박은 그의 원수들이 첫째로, 언론으로 다윗을 매장하려 하였고, 둘째로는, 헐박으로
그를 질겁하게 하려하였으며, 셋째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박윤선). 이러한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다윗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사방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모두 성경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하여도” 신앙,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다윗은 결국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You are my God)(시31:14). 비록
고통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슬픔과 탄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욕을 당해도, 우리가
잊어버린바 되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하여도”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러한 “그러하여도”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러하여도” 주님만을 의지하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연약한 가운데서)

제 31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시편 31편 15-24절]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브레넌 매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길이란, 다 계획되고 정해져 명확히 기술된 미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호하고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음 걸음은 현 순간의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별함으로써만 밝혀진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안전한 세계를 떠나 내 결정을 정당화하거나 미래를 보장할 어떤 합리적 설명도 없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례자의 삶, 그것이 적나라한 신뢰의 실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동 신호를 보내셨고, 그분의 임재와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다”(인터넷). 물론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례자의 삶에는 불안과 불확실함이 지배하던 나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선가 잔잔한 목소리가 우리를 안심시켰을 때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사41:10). 하나님의 함께하심보다 더 신뢰를 줄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이란 인물은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신뢰)하리니”(욥 13:15, KJV)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뢰입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욥같이 신뢰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욥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브레넌 매닝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보다 더 신뢰를 줄 만한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 시편 31편 15-2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란

제목 아래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일평생 당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31편 15절을 보십시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 “내 시대”란 말은 “나의 시사들” 곧, 일평생 당할 모든 사건들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시편 기자 다윗에게 일생 평생에 있을 모든 사건들과 환경과 변천들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하여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만사가 주님의 수중에 있다는 신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다윗은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31편 16절을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취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원수의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15절). 그의 원수들은 악인으로서(17절) 교만하여 완악한 말로 무례히 다윗을 치고 또한 거짓말도 내 뱉었습니다(18절).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다윗은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을 당할 때에는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워진 듯한 생각과 느낌을 들 수가 있기에 다윗은 지금 고통의 때에 주님의 얼굴을 자기에게 비취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16절). 그러면서 그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들의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의 손과 “내 원수가 핍박하는 자의 손”과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주님께서 분명히 건시지고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15절).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기도를 드렸던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부끄럽게 아니하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실 줄 또한 확신하였습니다(17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는 성도를 부끄럽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시되 그들이 기대하던 대로 되지 않게 하시사 그들로 하여금 실망케 하시며 또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박윤선). 다윗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확신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확신입니까? 우리 일평생 당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가 삶 속 순간순간에 당면하는 역경과 어려움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당시에는 주님의 뜻을 모르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한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지 알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31편 19절을 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지요.” 다윗은 교만한 악인 원수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큰 은혜를 묵상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 곧 그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주실 은혜를 저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다윗은 현재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과거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다시 기억하여 묵상하면서 그 베푸신 큰 은혜 또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쌓아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쌓아놓으신 큰 은혜가 있음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현재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이 순간 나를 위하여 이미 쌓아(준비해)

놓으신 큰 은혜가 있을꺼야'라고 확신하며 기대합니까?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다? 과연 다윗은 과거의 어떠한 하나님의 베푸신 큰 은혜를 묵상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였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31편 20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그의 원수들이 함께 꾀하여 자기를 해하려고 “구설의 다툼”, 즉 입술로(도) 다윗을 음해하려 핍박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보호해 주셨던 일을 기억하였습니다(20절). 다윗은 그 일을 “숨기사”와 “감추사”라는 동사와 함께 “주의 은밀한 곳” 그리고 “비밀히 장막”이라는 단어들로 묘사하였습니다(20절). 이미 다윗은 시편 27편 5절에서도 이러한 확신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가 위험할 때마다 보호해주시되 그를 숨기시고 감추사 어느 누구도 자기를 해하지 않도록 하신 과거의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만사가 주님의 수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 확신하였던 다윗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과거의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주님께서 그를 다시 보호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다윗처럼 과거의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의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현재 고난 중에서라도 큰 은혜를 베푸시고자 그 은혜를 미리 쌓아두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31편 21-24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의 3

가지 명령을 순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첫째 명령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라”(21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만사가 주님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과거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묵상하면서 현재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특히 다윗은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21절).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위험한 중에 있었을 때 건져내어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도 현재 고통 중에서라도 과거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2) 둘째 명령은,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성경 시편 31편 23절을 보십시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 중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16절). 그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보호하심을 받는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기이한 인자”입니다(21절). 이 사랑을 경험하였던 다윗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23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성실한

자”입니다(23절). 하나님을 성실하게 신뢰하며 신앙생활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3) 셋째 명령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성경 시편 31편 24절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저는 요즘 여호수아 1장6-9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6, 7, 9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자는 도전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겠다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순례의 여정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하여 신뢰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손안에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당면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과거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분이 현재 당명한 우리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쌓아두신 큰 은혜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의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로서 강하고 담대히 저 천성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세움을 받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기원하면서)

제 32편: 복 있는 사람

[시편 32편]

성경 예레미야 17장 7-8절을 보면 시편 1편 말씀과 유사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사한 점이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렘17:8). 시편 1편 말씀과 예레미야 17장 7-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볼 때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어느 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32편 1-2절을 보면 “복이 있도다”란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한 3가지로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겸손히 받길 원합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사죄 받은 자입니다(1-5절).

성경 시편 32편 1절을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사함을 얻고”란 말씀은 ‘치워버린 바 되다’는 의미고 ‘가리움을 받음’이란 말씀은 ‘하나님의 눈에도 보이지 않도록 되다’는 의미입니다(박윤선).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다 치워버린바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이나 있다 보니 지저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장모님과 처제가 와서 집을 깨끗이 치워주셨는데 얼마나 깨끗해 졌는지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 치워지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집 밖에 있는 쓰레기통 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월요일 오전에 쓰레기차가 와서 쓰레기를 가지고 간 후 물로 다 깨끗이 씻고 업어놓고 좀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냄새도 안 나는 것 같고 그 정도면 참 깨끗해 졌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쓰레기통 냄새처럼 썩어져 가는 것들, 참으로 냄새나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들어내야 하는 것도 알지만 회개치 아니한 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들어내지 못하므로 고민하는 각자의 죄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울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도 알면서 회개가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 할 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를 죄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정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종일 신음 할 필요가 있습니다(3절). 죄를 고백하지 아니했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다윗은 종일 신음하므로 뼈까지 쇠하였겠습니까? 우리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의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이러한 말하였습니다: “죄는 이렇게 독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의 속에 가두어 두면, 그것은, 거기서 우리 속에 생명을 소멸시킨다.”

(2) 우리는 ‘나를 누르시는 주님의 손’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32편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셀라).” 여기서 ‘누른다’는 말의 히브리어 직역은 ‘무겁다’는 뜻입니다(박윤선). 이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있지 아니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한 후 마음이 무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볼 때에 너무나 죄를 가볍게 여기다 보니 마음에 무거움도 별로 없고 심리적 고통도 덜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다윗처럼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때 저는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는 은혜를 사모할 필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의 손이 그를 눌렀을 때 자기의 죄를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셀라)”(5절).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결국은 들춰내셔서 자복하며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러면 죄를 자복함이란 무엇입니까? 한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박윤선):

(1)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비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 앞에 체면이나 세우려고 사람의 눈가림이니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그만큼 자기 죄를 진실히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2) 그 자복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실패케 하지 않으시며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기록하신 하나님께 자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간사가 없어야 합니다(2절).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는 죄를 가리우지 않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입니다. 즉, 죄를 죄로 간주되지 않음을 받는 자입니다(박윤선). 그리고 죄를 죄로 간주되지 않는 사죄함을 받은 자는 복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행복한 자입니다(롬4:6).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경건한 자입니다(시32:6-9).

성경 시편 32편 6절을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 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한 자는 누구입니까? 경건한 자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경건한 자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므로 사죄함을 받는 자입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곧 “의인”을 가리킵니다. 이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기회를 포착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6절). 주님을 만날 기도의 기회란 다윗에게 있어서는 회개치 아니하고 있을 때를 가리킵니다(3-4절). 즉, 회개치 아니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의 손이 그를 누르고 있었을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 첫째 기도 응답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1-2절).

(2) 둘째로, 다윗이 받은 기도 응답은 환난 중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6절하).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 중에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박윤선).

(3) 셋째로, 다윗은 기도응답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7절).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4절) 이전 하나님께서 그의 은신처가 되셔서 환난 날에 도움을 받을 것이기에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7절, 박윤선).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토설치 아니하므로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실 바로 그 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 받고 우리가 처한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으므로 은신처가 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10-11절).

성경 시편 32편 10절을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즉, 회개치 아니하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다윗은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8절). 그는 무엇을 가르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로 회개입니다. 다윗은 친히 자기의 회개를 통하여 사죄의 행복을 체험한 후로 남에게 회개를 권면할 용기를 가진 것입니다(51:13)(박윤선). 다윗이 회개를 권면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 시편

32편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 강제로 지배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박윤선). 우리는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죄가 있을 때에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강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11절). 여기서 “의인들”과 “정직한 너희”는 회개 자들을 가리킵니다(박윤선). 다윗은 회개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므로 죄 사함을 받고 또한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여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신 장모님을 생각하면서,

제임스 목사 나눔

(죄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장모님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제 33편: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

[시편 33편]

언제가 저는 성경 예레미야 1장 4-10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교훈을 잘 요약한 구절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기서 저는 3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1) 나는 아이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도 젊어서...’ 등등 이러한 변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면 우리가 가기 싫던 싫던 그것을 떠나서 가라는 말입니다. (3) 주님이 명하시면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또한 무너트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10절). 과연 이 일을 우리 말씀을 맡은 자들이 지금 정직하게 또한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마땅히 할 바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나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과연 우리가 마땅히 할 바는 무엇인가를 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33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바로다.”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들로서 또는 정직한 자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할 바는 과연 무엇인지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는 찬송입니다.

성경 시편 33편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한 자라야 찬송을 바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오늘 성경에서 정직한 자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6-7절).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창조주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6절).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사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우리는 악기를 동원하여 감사하므로 하나님을 찬송해야하며(2절) 또한 새 노래로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3절). 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신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에서 새로운 희열과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이러한 새로운 희열과 감격이 우리 정직한 의인에게는 매일 있어야 합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고 있음을 경험하고 깨닫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로운 희열과 감격이 매일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노래로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악기를 동원하여 감사하므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둘째로,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는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33편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여기서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란 무슨 뜻입니까?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2가지는 동전에 앞과 뒤와 같습니다.

(1)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라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8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그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9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뜻을 견고히 세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모를 폐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계획을 무효케 하십니다(10절). 불신앙은 불순종의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는 도모하는 것이 폐하게 되고 사상(계획)은 무효케 됩니다.

(2)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시편 33편 5절을 보십시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총만하도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결 속성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둘이 하나님에게 겸전하시는데 그 중에도 사랑의 분량이 의의 분량보다는 더 풍성하여 세상의 총만하다는 것입니다(5절)(박윤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은 재앙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그의 인자하심을 바랍니다(18절).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느도다”(18-19절).

마지막 셋째로,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33편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정직한 자는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박윤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인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21절). 의심은 슬픔을 가져오고, 신앙은 기쁨을 생산합니다(스필전). 그러면 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의지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20절). 이러한 정직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정직한 자,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13-14절).

우리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절대적 주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심사를 통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박윤선). 정직한 자는 그의 섭리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있기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정직한 자,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성경 시편 33편 18-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정직한 자는 생사의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살피 주시고 위기 때에 구해주시며 궁핍할 때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복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찬송하며 진실하게 행하시는 사랑하는 장모님을 병원에 가서 찾아뵙고 왔습니다. 차 사고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계셨던 장모님을 살려 주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셔서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계심을 보면서 장인어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셨습니다. 그런 후 장인 어른은 장모님에게 사랑의 눈길로 대화하시며 장모님의 이마에도 뽀뽀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정직한 자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엿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차 사고로 머리를 다치셨지만 놀랍도록 빨리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엿보았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으신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중환자실에서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찬송가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1.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2. 괴론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3. 세상 살아 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후렴}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주소서.
아멘.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한 후,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생각하면서)

제 33편: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시편 33편 11절).

요즘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제 입술로 부르시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제가 가사를 다 외우지 못하지만 저는 찬양의 시작인 “날 구원하신 주 감사”만 생각하며 불러도 즐겁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되 이 찬양 가사처럼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와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기도 응답해 주시면 거절하신 것보다 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가시가 없는 장미꽃만 있으면 더 감사할 것 같을지라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사 제 기도를 응답 안 해주셔도 감사케 하시며 신앙의 여정에 허락하시는 가시와 같은 고난도 감사케 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성령님께서서는 제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시사 제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된 현실도 받아들이게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기도케 하시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계획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하옵소서.’

성경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도 내포돼 있습니다. 무작정 아무 계획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뤄지면 된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균형을 잃은 생각이요 무책임한 신앙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합니다(16:9).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것을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계획을 통해서든 아니던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33편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의 목적이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5절),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4절),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시는 계획은 대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은 진실하셔서(4절)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 또한 진실합니다(4절). 그러므로 그 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9절).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그 말씀하신 바를 꼭 실행하십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11절도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결코 헛되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형통케 하십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셔서(시33:4)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에(9절)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묵묵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도 마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참고: 갈6:17).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이뤄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참고: 시33:10).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장차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욥기 4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진실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이 맞춰지길 기원하면서)

제 34편: 광채를 입으라!

[시편 34편 1-7절]

성경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 목적은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교회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가리킵니다(27절).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그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를 영광스러운 아내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에베소서 5장25-26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즉,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케 하여 영광스러운 아내로 세워야 하는 것이 남편들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34편 5절을 보면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채를 입었다’는 말씀은 ‘광채를 입다’라는 뜻으로 ‘빛이 되다’ 또는 ‘등불처럼 밝히다’라는 의미입니다(박윤선). 이 본문 5절 말씀의 의미는 아미엘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난 다윗이나 그와 같이 “곤고한 자”들(2절)은 주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그들의 곤고한 상황에서 영적 은혜를 받고 또한 미래의 복된 소망을 확실히 내다봄을 말합니다(박윤선). 저는 오늘 본문 시편 34편 1-7절 말씀 중심으로 “광채를 입으라!”는 제목 아래 광채를 입은 자는 무엇을 하는지 한 2가지로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아 그 교훈대로 순종하여 우리 또한 광채 나는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광채를 입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시 34:1-3).

성경 시편 34편 1-3절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면을 한 세
가지 단어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므로 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송축”하라

오늘 본문 시편 34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어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여기서 “송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무릅을 꿇다’입니다. 이것은 예배나 혹은 겸손함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겸손한 자세로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어떠한 신격을
찬양하는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31:21).
그러므로 하나님을 송축함이란 그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예배 가운데서 찬양 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삶 가운데 그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들어내야 함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2) “자랑”하라

오늘 본문 시편 34편 2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로 자랑”하였다는 말씀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줄 알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랑을 말합니다(박윤선). 이런 자랑이야 말로 고난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낮아진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는 것입니다(박윤선).

(3) “높이라”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여기서 ‘높이다’라는 단어는 “광대하시다”라는 말과 유사한 말입니다. 그 의미는 ‘크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더 크게 우리 인간이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크심이, 그의 위대하심이 나의 연약함과 낮아짐을 통해서 들어나기를 우리는 기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한 3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해야 합니다(시34:1).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시편 34편1절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역사를 묵도하며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의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송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 “항상” 찬송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한 가지 영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변치 않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단 한 번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2) 우리는 하나님을 “내 영혼”으로 찬양해야 합니다(시34:2).

다윗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영혼으로 찬송하였습니다. 여기서 “영혼”으로 찬송하였다는 말씀은 인격 전부를 들여 바쳐 찬송함을 의미합니다(박윤선). 그저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들여,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야 합니다(시34:3).

이것은 “공동적 찬송”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는 자기처럼 곤고한 상황에 놓여있는 곤고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그 자신의 심령도 남들이 협력을 받아야, 더욱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을 힘입게 되는 까닭이며, 둘째로, 그가 받은 은혜는 너무 감사하니 만큼, 남들의 감사도 첨가되기를 열원한 까닭이며, 셋째로, 그의 받은 은혜는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한 까닭이며, 넷째로, 다른 성도들도 그와 같이 은혜 받을 소망이 있는 까닭입니다(박윤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만 생각해도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뤄질 줄을 확신하면서(롬8:28) 크신 주님께 찬양으로 큰 영광을 돌

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광채 입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둘째로, 광채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시 34:4-6).

성경 시편 34편 4-6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도 한 3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 “구하매”

오늘 본문 시편 34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힘들여 찾음’을 의미합니다(박윤선). 그것은, 간절하게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박윤선).

(2) “앙망하고”

오늘 본문 시편 34편 5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을 ‘앙망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열렬히 찾으며 쳐다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복잡하고 미혹하는 세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다가는, 별 수 없이 그 모든 미혹 건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박윤선). 주님을 앙망하는 자, 곧 그의 구원을 열렬히 찾으며 그를 쳐다보는 자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3) “부르짖으매”

오늘 본문 시편 34편 6절을 보십시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씀은 “강력히 소리 질러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기도는, 소리의 높이보다도 중심의 간절성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박윤선).

이렇게 하나님을 힘들여 찾고 그분의 구원을 열렬히 찾으며 주님을 쳐다보는 가운데 강력히 소리 질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다윗이 받은 기도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모든 두려움”(4절)과 “모든 환난”(6절)에서 다윗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만능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적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원수와 환경 등을 두려워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십니다(7절).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외적으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채를 입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동안 광채를 입은 자들로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며 우리의 영혼으로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여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구원을 갈망하는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의 간구를 들어주시사 모든 두려움과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므로 광채 입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을 받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찬양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제 34편: “여호와를 경외하라”

[시편 34편 8-14절]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성경 신명기 10장 12-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 중 하나가 아모서 5장 14-15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미워하기보다 좋아하는 자신의 최악 된 본능을 만족케 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8:13).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책을 읽고 쓴 글을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게 만드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도 동일하게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범함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자로 서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아파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글 중에 한 두 문장을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후 즉시 내게 든 마음은 정말 죄가 밉고 싫다는 것이다. 죄를 범함으로써 인해 받을 징계가 두려워서 이기보다도 그 죄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내게 생겨나게 되었다”(인터넷). 우리는 이러한 죄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러한

마음이 든 동기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라기보다 우리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므로 생기는 마음인지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시편 34편8-14절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제목 아래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한 4가지로 묵상하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성경 시편 34편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에게만 소망을 걸고 순종함’을 말합니다(박윤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에게만 소망을 걸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봅니다. 즉,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합니다. 이미 다윗은 시편 31편19절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므로 그에게 피하는 자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지요.”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그의 보호하심 외에도(5:11) 그의 구원을 경험하므로 주님의 “기이한 인자”를 경험하게 됩니다(17:7).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외에도 그의 선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결혼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결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오늘 본문 시편 34편 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합니다(롬8:28).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인자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에게만 소망을 걸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 시편 34편 9-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우선 피한 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9절). “사자”는 잔인하여 남을 해하고 탈취하므로 궁핍해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면 “청령하여 남을 해하지 않는 성도는 쉬이 굶어 죽을 듯이 보입니다(박윤선). 그러나 성경은 사자는 굶어 주릴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주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37:25). 젊은 사자는 육체적 필요의 양식(저장품)에 대하여 ‘자기 충족’(self-sufficiency)을 상징합니다.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일상의 기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주님이 함께하십니까?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할 때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사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23:1).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께 피하여 목자 되신 주님을 찾으므로 말미암아 그의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경험하기에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풍성한 은혜를 쌓아두셨다가 그를 찾는 자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31:19).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성경 시편 34편 12절을 보십시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 복은 다름 아닌 생명을 사모하는 것, 곧 장수의 복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란 말과 “장수”란 말을 신약이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영생”과 같은 뜻을 가집니다(J. Ridderbos, 박윤선). 다윗은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여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 그의 제자들(“소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11절). 다윗이 교사로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교훈은 모든 일에 제일 근본적인 것으로 곧 삶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사모하는 것,’ ‘장수하는 것’ 곧 ‘복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12절). 그것을 만족히 누리고 있었던 다윗은 그의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우리 인생 삶 존재의 만족함을 누리길 위하여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에 있어서 인생의 삶의 의미인 복 받기를 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하여 그 목적대로 적당하게 또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적당하게 또한 바르게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를 경외하므로 그를 찬양하며 그에게 간구하는 삶입니다(1-7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적당하게 또한 바르게 살기 위해서 2가지 교훈을 다윗은 주고 있습니다(13-14절): (1) 우리의 혀를 금하며 우리의 입술을 꾀사한 말을 금해야 합니다(13절), (2)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좇아야 합니다(14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에게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합니다.

성경 시편 34편 14절을 보십시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말씀은 12절의 질문인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의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즉,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8장13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14:16).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소극적으로는 악을 떠나고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시34:14).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씀은 ‘화평을 찾아 좇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화평을 찾아 좇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을 오늘 본문 시편 34편 13절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꾀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이것은 입술로써 남을 해하는 죄, 곧, 악담, 저주, 아첨, 훼방, 누설, 황언 등을 멀리 하라는 뜻입니다(박윤선).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찾아 좇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야 합니다. 잘 절제하지 못하면 교회의 화평이 깨집니다. 그 이유는 혀라는 것을 잘못사용하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약3:8).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피하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도 경험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므로 힘을 얻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릅니다. 그러기에 그는 혀를 악에서 금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고 있는,

제임스 목사 나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면서)

제 34편: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시편 34편 15-22절]

여러분은 고난이라 가벼울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남중 목사님의 밑에 글을 읽으면서 고난이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는지 그 해답을 좀 얻습니다:

“세상의 죄의 깊이는 의인의 고난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세상의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가 있다.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벌이 있다는 것이 인간의 느낌이요, 직관이요, 신념이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은 악에 물들어 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멸망해야 하지 않는가? 세상이 악한데도 멸망하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죄 값을 대신 치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의인들의 고난의 의미다. 의인의 고난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그 값을 치르는 것이다. 의인이 그런 것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는 속죄 제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의인은 세상을 살린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그런데 그가 원치 않는 고난이 세상을 살린다”(김남중).

우리의 고난이 가벼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난 중에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시고자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죄 값을 대신 치를 때에 우리의 고난은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고난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이고 둘째 고난은

나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입니다. 이 주님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빌1:29). 이러한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는 자에게는 고난이란 가벼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고난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은혜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34편 15-22절을 보면 우리는 이 고난의 은혜를 누리는 시편 기자 다윗을 봅니다. 그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9절).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라는 제목 아래 의인이 고난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의인이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34편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도다.” 시편 기자 다윗이 고난 중에 만났던 하나님은 바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이였습니다. 왜 다윗은 마음이 상했었습니까? 왜 그는 중심에 통회하였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고난 받는 중에 “미친 체”한 것이 죄인지, 즉 거짓말을 하였기에 아니면 고난 중에 악을 버리지 못하고 입술로 죄를 범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13-14절).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인 다윗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였다는 사실입니다(18절). 그는 많은 고난 중에 중심이 통회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입니다. 성경 시편 51편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마음은 좀 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좀 부서져야 합니다. 마치 목을 땅을 기경하듯이 강박하고 단단한 우리 마음은 좀 부서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이던지 아니면 그의 징계를 통해서이던지(예를 들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좀 상할 (부서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혹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숨기고 자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양심에 찔림과 마음에 부서짐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면 통회하는 자의 마음과 겸손한 자의 영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즉, 겸손한 자는 통회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 즉 마음이 상한 자 또는 중심에 통회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시사 그 마음을 소성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을 소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시147:3). 복음성가 “마음이 상한 자에게”란 곡을 보면 오늘 고난 중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사와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적용해야 할 교훈을 줍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는 가까이 하시고 진실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심령이 가난한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위로가 그를 감싸 주리라 사랑의 주님은 교만을 물리치고 애통하는 자를 찾나니 누가 주님을 위해 누가 이웃을 위해 그 고난의 잔을 나눌건가요 무엇이 그렇게 좋아 웃고 있나요 주님은 잃은 자 위해 울고 있는데.”

둘째로, 의인이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시편 34편 15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의인은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 의인이 외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성경 출애굽기 3장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 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분명히 이스라엘 하나님 또는 우리의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보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다윗은 시편 34편4절과 6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곧 우리가 곤고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34편에서 기도에 대하여 4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4, 6, 15, 17절)을 보면 그에게 있어서 많은 고난 가운데 많은 혹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기도 또는 더욱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시34:15).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기도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와 의인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사59:1-2).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기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우리의 죄를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므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것입니다.

셋째로, 의인이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은 의인을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시편 34편 17절, 19절, 22절을 보십시오: “의인이 외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후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여 건져 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며 또한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4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6절).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17절), 비록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19절). 한 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 즉 그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10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마음이 상한 자를 구하시되 그를 구함에 있어서 악인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악인을 멸망시키시므로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16절).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그의 거룩하심 앞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악자의 자취를 이 세상에서 끊으십니다. 결국 악인들은 그들의 악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21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확실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20절). 우리를 환난 중에 돌아보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고난 가운데서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요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또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의인은 그 고난이 가볍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대신 걸머지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셨던 예수님을 멀리하셨던 하나님, 더 나아가서 마음이 상하셨던 예수님을 버리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음이 상하셨던 예수님을 버리셨고 그의 십자가상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므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므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시34:10; 엡1: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시34:1-3).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제 35편: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소서!

[시편 35편 1-8절]

어제 저희 교회가 소속해 있는 노회 모임 때 강도사 인허를 받고자 하는 두 전도사님 중 한분의 설교 내용에 대해서 저를 포함하여 여러 목사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설교 내용 중 영적 싸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도사님이 인용한 성경 구절인 에베소서 6장12절 말씀이 저로 하여금 생각해 만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다름 아닌 나의 싸움(“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인가 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저의 싸움은 육에 대한 싸움인가 아니면 영적 싸움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웬지 저는 영적 싸움보다는 육에 대한 싸움에 더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제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남준 목사님 “그리스도인의 삶 영적 전투”란 제목 아래 쓴 글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영적으로 야맹증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야맹증은 다른 말로 밤소경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캄캄한 곳에서 사물을 볼 수 없는 병입니다. ... 영적 싸움에 참전한 그리스도의 용사들 중에서도 야맹증 증세를 보이는 자가 있다는 것이 제 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둠의 포로가 되어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야맹증 환자와 같이 그저 어둠 안에 갇혀, 세상 풍조와 더불어 살고 있다면 싸움의 승산은 없습니다. 적군이 누구이고, 아군이 누구인지 분별조차 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인터넷).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산 없는 싸움을 무모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는 쓰러지고 자빠지며 패배의식 속에서 소극적이 되며 낙심 속에서 포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시편 35편 1-8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영적 싸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한 2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영적 싸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35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시편 기자 다윗은 극악한 원수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박윤선). 그럼 다윗의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4절), “노략하는 자”(10절), “불의한 증인”(11절), “조롱하는 자”(16절), “나의 원수”(19절), “나를 미워하는 자”(19절),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26절). 다윗 자신이 이러한 극악한 원수들과 스스로 싸운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의존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자기의 원수들과 싸워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명령하였습니다(롬12:19). 그 이유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달라고 간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두 가지로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이 다윗에게 확실한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5편 2절을 보십시오: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 “방패”란 전신을 보호하기 위한 큰 방패를 가리키고 “손 방패”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작은 방패를 가리킵니다(박윤선). 하나님께서는 무적의 장수로서 그의 사랑하는 종 다윗을 보호하심에 있어서 확실하게 방어하시고 보호하시기에 다윗은 안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대신 우리의 원수들과 싸워달라고 간구할 때에 우리는 안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달라고 간구한 이유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다주실 수 있는 공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5편 3절을 보십시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다윗은 2절에서는 방어 때 사용하는 “방패”와 “손 방패”를 다윗은 말한 후 3절에 와서는 전쟁터에서 싸울 때 쓰는 공격형 무기인 “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심에 있어서 이 공격형 무기인 창을 빼사 다윗을 쫓는 자들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묘사된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마치 완전 무장한 군사처럼 방패와 창 다 준비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대신 싸우심에 있어서 확실하게 무장하고 싸우시기에 실수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박윤선).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시므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에게 확실한 방패가 되시며 또한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를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1절)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영적 싸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원수를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35편 8절을 보십시오: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면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구원해)주십니다. 그 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 원수들의 멸망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때에 동시에 그는 그의 공의로우심(거룩하심)도 들어내십니다. 우리 구원, 원수 멸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거룩하심)은 어떻게 우리 원수들에게 나타납니까? 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로 하여금 실패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35편 4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의 생명을 찾는 자요 또한 우리를 상해하려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원수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찾는 자들, 우리를 상해하려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하시며 또한 물러가 낭패케 하십니다.

(2)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로 하여금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35편 5절을 보십시오: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와 사자로 몰아내소서.” 바람 앞에 겨는 어떠합니까? 가볍기에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시편 1편4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심판과 환난에 견디지 못합니다(5절)(박윤선).

(3)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원수들로 하여금 미끄럽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35편 6절을 보십시오: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와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시편73편을 보면 시편 기자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3절). 그래서 그는 실족할 뻔하였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2절).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17절) 깨달은 진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18절).

(4) 결국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원수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35편 8절을 보십시오: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로 하여금 미끄러지게 하시사 졸지에 그들을 전멸시키십니다(73:19).

영적으로 야맹증 증세를 보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여 대신 싸워주시길 간구하기보다 자신의 혈기로 혹은 자신의 감정과 힘으로 너무나 무모하게 영적 싸움에 임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악인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둠의 포로가 되어 승산 없는 싸움에 메달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영안이 열려 있는 다윗과 같은 신앙인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기에 주님께 대신 싸워달라고 간구합니다. 방패가 되어주시사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들은 그분을 의지하므로 안전감을 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멸망시키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의 원수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하시는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세위 나아가시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제 35편: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시편 35편 9-16절]

스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쇠망치를 들고 때릴 때 크리스천들은 그 철퇴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쇠망치”는 다양합니다. 모욕도 될 수 있고 핍박과 환난, 비방과 악담 등등, 사탄은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여러 종류의 “쇠망치”로 우리를 내리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시편 35편 9-16절에 사탄의 자녀들에게 여러 종류의 ‘쇠망치’로 맞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함이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9절).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고백은 다윗이 이미 구원을 받은 후에 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의 원수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받은 상황에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믿음 가운데 이러한 확신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고백하면서 구원의 하나님, 즉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편 35편 9-16절 말씀 중심으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아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부터 건져주시는지 한 4가지로 목상해 보며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다윗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함이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9절).

첫째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힐문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35편 11절을 보십시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불의한 증인”이란 “무죄한 다윗에게 죄를 씌우는 거짓 증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거짓 증인들은 무죄한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알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죄를 씌우려고 힐난하였습니다(박윤선). 왜 불의한 증인들은 다윗에게 죄를 씌우려고 힐난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불의한 증인들은 “무고히”(2x)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7절).

사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무고히 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씌우려고 힐난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죄 중심적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이끌림을 받게 만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증인들의 힐문에 휘말려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들 중 불의한 증인들의 힐문과 같은 생각들에 지배를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불의한 증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자꾸만 우리 인간의 공로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자꾸만 우리의 행함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죄책감에 시달려 참된 믿음의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힐문”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저는 사도행전 4장 14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병 나은 사람과 함께 썼을 때에 그것을 보고 그들의 대적들은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는 성경 말씀이

생각합니다. 왜 힐난할 말이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앉은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걷게 된 기적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있었기에 그들의 대적들은 힐난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탄의 불의한 증인들에게 힐문할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어떻게 불의한 증인들이 힐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다윗처럼 불의한 증인들에게 힐문할 것들을 제공할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책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무고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므로 구원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없다함을 받은 진리(사실)로 하여금 우리를 죄책감이라는 감정에서 건지십니다.

둘째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외롭게 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35편 12절을 보십시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놀라운 사실은 시편 기자 다윗은 그의 원수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들은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 때에 다윗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다윗이 그의 원수들에게 행하였던 선은 무엇이었습니까?

(1) 다윗은 그의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5편 13절을 보십시오: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굶은 배움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은 그의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를 하였지만 그의 원수들은 너무 악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슬퍼하는 은인인 다윗을 배척하였습니다(박윤선).

(2) 다윗은 그의 원수들을 염려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5편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굶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 같이 하였도다.” 여기서 ‘굶히고 슬퍼함’이란 무거운 비애를 가리킵니다. 즉, 다윗은 그의 원수들의 질병 때문에 염려했습니다(박윤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엡2:10). 즉, 우리 성도의 책임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대상이 다윗처럼 우리들의 원수들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는 그의 원수들은 보통 종류의 악이 아닙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좋게 하는 자를 해하는 자야 말로 양심과 인도가 없는 자니, 무가내하한 자요 하나님의 원수요 성도의 원수이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우리의 원수들에게까지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그들의 질병이나 환난을 당할 때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선을 베푸는데 상대방에서는 오히려 악으로 갚는 경우가 있을 때에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낙심 속에서 ‘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고 견디면서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인지 충분히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알아주시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외로움에 빠질 때에 주님의 건지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25:16).

셋째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환난을 기뻐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35편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아니하도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의 고난을 볼 때에 기뻐서 모여 축하하며 더욱 그를 해롭게 하려고 회의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극도로 악한 증거입니다(박윤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는 자들, 우리를 위로하고 돕기보다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여 모여서 서로 수군수군하여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다윗은 그러한 자들의 모임을 알았고 그 모임에 “비류”, 즉 “백성들 중에도 가장 낮은 자들”까지도 그 모임에 합류하여 다윗의 환난을 기뻐하였습니다(욘19:18, 30:1 참조)(박윤선).

참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사탄의 자녀들은 서로간의 원수지간 이였다 가도 친구가 되고 (예: 헤롯과 빌라도) 또한 지위를 막론하고 낮은 자들이건 높은 자들이건 하나로 뭉칩니다. 오늘 성경 시편 35편 15절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윗도 모르는 비류, 즉 백성들 중에 가장 낮은 자들까지도 연락되어 다윗의 원수들과 합류하여 다윗의 환난을 기뻐하여 축하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미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라는 문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웬지 다윗의 원수들이나 우리 성도의 원수들은 우리도 모르는 일로

힐문하고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로도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도 모르는 일로도 우리를 힐문하여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함께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얻는 교훈은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지만(9절)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의 환난을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15절). 서로의 기쁨의 이유(근거)가 이렇게도 다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다들 모여서 기뻐하여 비방과 악담으로 우리의 인격을 찢는 듯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그의 구원을 기뻐해야 합니다(9절).

마지막 넷째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하여 이를 가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35편 16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이를 갈도다.”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의 원수들은 연회 석상에서도 자기들의 은인인 다윗을 한 개의 조롱거리로 관철하며, 언제든지 해하려고 이를 갈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연회는 원수 되었던 것도 풀어버리는 좌석인데, 거기서도 그 은인을 질시하고 해하려 함은, 극히 굳어진 불의한 심령입니다(박윤선).

이러한 심령들이 우리 주위에서 항상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한 팀을 이루어 충분히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해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성령 충만 한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스테반을 대적하던 자들은 마음에 찢려서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스테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59-60절). 다윗은 그의 원수들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 건져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울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과거의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면서 지금 현재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쇠망치”로 때리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그의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결심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기도, 기대, 기다리면서,

제임스 목사 나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35편: 나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시편 35편 17-28절]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형통”이란 히브리어로 흔히 '싸칼'과 '짜라흐'로 표현합니다. '싸칼'은, 번창하고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짜라흐'는 번성하고 풍부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라'라는 말도 많이 쓰이는데, 그 뜻은 “안전하다,” “번창하다,”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살롬', 즉 안녕, 평안, 행복이라는 말이 나왔고, 히브리인들은 이 말로 인사를 나눕니다. 따라서 형통이란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면을 말할 뿐만 아니라, 내적이며, 심적이며, 영적인 면까지 포함하여 말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인터넷). 근데 웬지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형통”이란 고생과 역경도 없는 그저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이 번창하고 성공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만사형통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만사형통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자세도 틀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사형통이란 이 땅에서는 있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웹 사이트에서 이러한 글을 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직선보다는 굴곡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인터넷). 맞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마치 디즈니랜드에서 롤로코스터 타는 것처럼 굴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타는 롤로코스터도 없는 기차 같은 것을 타면 재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인생의 여정에 굴곡이 있어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므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굴곡을 경험한 두 사람을 예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는,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참된 성경적 형통 관을 배우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형통관은 고난이 없이 무조건 모든 게 잘되는 것이 형통이라기보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형통이한 사실입니다(창39:2, 3, 23). 진정한 형통이란 고난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또한 풍족하고 궁핍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둘째 예는, 신약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안식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갔다가(13절) 루디아란 여자를 만나 결국에는 그녀와 그녀의 집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15절).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16절)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 받은 후 핍박 속에서 결국에는 감옥에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25절). 그리고 그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감옥 문을 열렸고 간수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34절). 바울의 삶 속에는 이렇게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예를 통하여 저는 “형통”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에 형통이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35편 27절을 보면 성경은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나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아래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지 한 2가지 단계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심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관망 단계”입니다.

성경 시편 35편 17절을 보십시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시편 기자 다윗은 지금 원수들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서 주님께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도 고통이 너무나 오래가면 인내의 한계를 느끼면서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여야 하는가’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한탄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께서 어느 때까지 그냥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라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시편 13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궁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니이까”(How long?)라는 한탄의 기도는 고통 가운데서 다윗은 인내의 한계를 느끼면서 왜 하나님께서 관망만하고 계신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망 단계”를 다른 말로 한다면 “잠잠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5편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지, 주님께서 왜 자기를 멀리하시는지 분명히 주님께서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심을 알고 있는데 왜 잠잠히 계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저 관망하시는 것 같고 잠잠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 유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의 단련’과 “인내와 연단입니다(박윤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므로 그를 의지케 하십니다(시28:1, 7). 성경 이사야 30장 15절을 보면 “...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어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5편에서 다윗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35편 19-21절을 보십시오: “우리하게 나의 원수 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다윗의 기도제목은 그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자기가 잘못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고 계심에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길 간구하였습니다. 또 다른 영적 유익은 우리는 고통의 터널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한 인내를 통해서 연단, 즉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빛어집니다. 성경 시편 119편 71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므로 말미암아 그 계명 순종함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인격이 빛어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송원준이란 분의 “잠잠하신 하나님”이란 글을 보면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궁정에서 끌어내시고, 미디안 광야에 그를 살게 하신 사십년 동안 침묵하셨다. 하나님은 십칠 세의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신 후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침묵하셨다. 하나님은 세계를 교구삼아 선교했던 바울의 눈물의 기도, 즉 몸의 가시가 된 병을 고쳐달라는 애원의 기도에 대해 침묵하셨다. 끝내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거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잔을 옮겨 주소서’라는 한 인간의 간절한 기도에 잠잠하셨다. … 헨리 나우옌은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활발한 임재와 같다고 선언했다. … 시편기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잠잠하신 하나님이 지금 야속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열심히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 속에서 나의 마음을 단련시키신다.

…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 속에서 기도하게 하신다”(인터넷).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동적이 되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동적인 마르다보다 수동적이 마리아가 되어겠다는 다시 한 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수동적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욱더 큰 능동적인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심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는 “떨치고 깨시는 단계”입니다.

성경 시편 35편 23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나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곤고한 처지를 다 보고 계시면서도 잠잠히 계실 때에(22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떨치고 깨셔서” 심판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23절). 여기서 “떨치고”란 말은 “용기를 분발하시라는 뜻이고,” “깨셔서”란 말은, “자는 듯한 상태에서 일어나셔서 심판해 주시기를 원하는 말”입니다(박윤선). 과연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깨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성경 시편 121편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는 듯한 상태에서 일어나셔서 자기의 원수들을 주님의 공의로 심판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로 심판하시므로 말미암아 그의 원수들이 자기가 패망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소원 성취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24-25절). 더 나아가서, 그는 원수들이 실패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망하지 마시고 떨치고 깨셔서 자신의 원수들을 낭패케 하시길 간구하였습니다: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26절). 또한 다윗의 기도는 자기와 같은 성도들이 찬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27절). 이 간구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다윗은 그와 같은 성도들, 즉 다윗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27절)]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직선보다 굴곡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그 곳에서 주님은 자신의 깊은 뜻을 보여주십니다. 왜 “나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그냥 관망만하시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 그가 침묵 속에서 열심히 또한 능동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기도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인내 훈련 및 인격 빚어짐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떨치고 깨셔서 공의로 심판하시사 우리의 원수들을 실패케 하시며 멸망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십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18절).

“나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역사를 수동적인 기도 자세로 경험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목사 나눔

(굴곡의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움을 받는 과정에서)

제 36편: “주의 광명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과연 우리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민영이란 분이 쓴 “교회가 잠든 사이”라는 글을 보면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든지 계속 잠들어 망하든지, 선택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그런데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잠든 세상을 깨워야 할 교회가 한밤중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잠든 요나 때문에 죽게 된 이방 선원들이 도리어 요나를 깨웠듯, 오늘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깨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종교인과 매스컴이 교회를 노골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36편을 보면 우리는 악인의 패역을 탄식하다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바라보고 위안을 얻는 시편 기자 다윗을 보게 됩니다(박윤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악인의 어두움”과 “의인의 광명(빛)”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악인의 패역을 듣고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바라보므로 위안을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악인의 어두움을 묵상해 보십시오.

D. L. 무디 목사님은, 오늘 성경 시편 36편 1-4절에서 죄악에 깊이 들어가는 일곱 걸음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즉, 오늘 본문 1-4절에서 성경은 일곱 가지 악인의 어두움을 들춰내 주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6편 1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죄악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하니.” 다윗은 악인의 죄악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죄악으로 달음질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악인은 방심하고 죄악으로 달음질하나,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가 악인의 마음에 말을 하고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호2:14).

(2) 지은 죄를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제 마음에 아첨하면서 관찮게 생각하며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시편 36편 2절을 보십시오: “저가 스스로 자궁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 하리라 함이로다.” 여기서 “자궁”한다는 말은 “미끈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곧, 아첨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악을 행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괜찮다 괜찮다’하니 그것은 스스로 자기에게 아첨함이고, 동시에 스스로 속음이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직행함입니다(박윤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가 죄를 범하고도 죄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 미움 받을 일에 대하여는, 그가 스스로 자기 마음에 아첨하여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악인은 스스로 제 마음에 대하여 아첨하나, 성도는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며 견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악을 미워하되 철저히 미워하지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에 죄를 가볍게 여기므로 죄악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3) 그 입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6편 3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궤휼이라 ….” 악인은 죄를 행함에 있어서 가볍게 여기기에 입술을 함부로 놀려 죄를 범합니다. 우리 입술은,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진리를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와 반대로 혀로써 남을 해하고 또 비 진리를 말하기 위업합니다(박윤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롬3:13-14). 악인의 입은 거짓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4) 지혜와 선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6편 3절 하반 절을 보십시오: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악인은 전적으로 악화되어서 지혜도 없고 그러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였습니다. 악인에게는 지혜가 불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혜가 불필요해 졌으니 결국 악인은 지혜와 선을 떠나 악행을 일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은 지혜가 없기에 옳다 함을 얻을 만한 선행이 따라오지 못합니다(마11:19).

(5) 침대에서 악을 계획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6편 4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 성도에게 있어서 “침상”은 자기반성과 회개하기에 적합한 곳이지만(4:4) 악인은 오히려 그곳에서 악의 계획을 꾸밉니다(박윤선). 그것을 보면 그는 심령의 깊은 부분에까지 악이 가득한 자요, 선한 기회도 악행에 이용하는 자요, 돌연히 악에 끌려서 악을 행하게 되는 자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6)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6편 4절 중반 절을 보십시오: “...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 곧, 그 악인이 외래의 강요나 유혹에 끌려서 마지못하여 죄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또는 기탄없이 죄악을 즐거워하여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저는 죄악을 즐거워하기까지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시편 1편1절에서 찾아봅시다: 첫째로, 악인의 꾀를 좇음, 둘째로, 죄인에 길에 섬 그리고 셋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7) 악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6편 4절 하반 절을 보십시오: “...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 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지만 그러한 두려움이 없는 악인은 악을 싫어하지 않고 좋아합니다.

이러한 악인의 어두움 가운데서도 의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

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9절).

두 번째로, 의인의 광명(빛)을 묵상하십시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 그의 광명, 즉 그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의 어두움 가운데서 다윗은 주님의 광명(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격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의 신격을 한 2가지로 본문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36편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광명인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하늘에 있고” 공중에 사무쳤다는 말씀은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높은데서 환하게 비추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님의 보호를 받으므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7절).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만족을 누렸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주의 집의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여기서 “복락의 강수”란 “당신의 기쁨의 강수”를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이것은, 영적으로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은혜의 풍부함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성경 요한복음1장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빛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악인의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라도 주님의 광명 (빛), 즉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빛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의 판단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36편 6절을 보십시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태산처럼 변하지 않으시면서 자기가 택한 백성의 모든 억울한 사정을 보시면서 그의 공의를 들어내신다는 말입니다. 그의 공의가운데서 판단하심은 “큰 바다”같습니다. 즉, “큰 깊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묘막측한 처사나 심판이 인간에게 신비로운 사실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저는 오늘 본문 시편 36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볼 때에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왜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인의 어두움에 둘러싸인 예수님, 그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그의 의로우심과 판단하심을 우리는 잊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판단하심을 만족케 하셨으며 그 결과 우리에게 주님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인자하심을 계속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므로 말미암아(10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기쁨의 강수로 마시우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만족케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며 또한 우리를 공격해 오는 악인들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십니다(11절). 결국 주님께서 그의 지혜로운 판단하심 가운데 악인들을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하실 것입니다(12절).

주님의 빛을 바라보므로 어두움을 이겨 나아가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을 고백하면서)

제 37편: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시편 37편]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함께 승리하는 신뢰의 법칙”이란 책을 보면 존스빌 식품 회사 (Johnsonville Foods)의 소유주이자 최고경영자인 랄프 스테이어(Ralph Stayer)의 인상적인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일찍이 깨달아서 종종 되새겨 보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대부분의 문제는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정신상태, 나의 기대라는 것을 알았다”(인터넷). “나의 기대”가 오히려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자신에게 더 실망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인정하기 싫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부딪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좀 자신에게 철저하게 실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무능력함을 좀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전적 무능력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아 그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37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9절). 여기서, “여호와를 기대”한다 함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진정한 축복인줄 알고 대망하는 신앙을

말합니다(박윤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진정한 축복임을 알았던 다윗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원조 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을 더 큰 축복(행복)으로 생각하였습니다(박윤선).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다윗을 목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 네 가지로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경 시편 37편 1절과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1절),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7절하). 이것은, 악을 행하면서도 잘되는 듯이 보이는 자들로 인하여 성도는 마음에 불평을 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박윤선). 1절 하반절에 “투기하지 말지어다”라는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즉, “투기”란 남의 왕성함을 보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합당치 않습니다(박윤선). 불평하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존 맥스웰의 “함께 승리하는 신뢰의 법칙”이란 책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할아버지가 낮잠을 잘 때에 장난꾸러기 손자들이 썩은 치즈를 찢라다가 할아버지 코 밑에 수영같이 붙여 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에서 깰 때에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엌에서 나는가 하고 가 보았더니 진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쑥 들어 마셔보니 또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썩은 냄새로 진동... 그것이 아니라 코 밑에 썩은 치즈 때문이었습니다(인터넷). 이 한 예를 통하여 얻는 교훈은 마음이 썩었으면 모든 것이 썩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모든 것이 불평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할 꺼리 없나 찾고 다닙니다. 왜 이러한 성도에게 합당치 않은 불평과 투기를 하게 됩니까? 그 원인은 “분노”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그래서 성경 잠언 24장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37편 8절에서 행악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는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1) 그 첫 번째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2절). 행악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풀”이나 “채소”가 얼른 없어지고 마는 것처럼, 악인의 번영은 수명이 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박윤선)(참고: 사40:6-8). (2) 그 두 번째 이유는 시편 37편 8절 하반절에 나와있습니다: “...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분노는 혈기에 속한 것인 만큼, 그것은 외계의 불공정한 사태를 귀경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의 심령 속에 무질서를 발생시킨다. 그것은 악을 증가시킨다. 성도는 언제나 화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남이 잘되기를 기원할지언정 시기와 질투를 품지 않는다”(박윤선). 그러면 우리가 악인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혜자의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1)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잠23:17). (2) 악인과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24:1).

둘째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성경 시편 37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우리 신자들은 육체적 번영은 얻지 못했을지라도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적 번영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함이 더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과연 우리는 육체적 번영보다 하나님을 의뢰함이 더 큰 축복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악인의 행동은 결국 그 자신에게 저주가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 나서 행동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인은 결국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므로 이웃에게 선을

행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할 줄을 모르는 인생은 결코 축복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박윤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누가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으랴. 신자가 선을 행하는 소망이 하나님의 보상에 있고, 또 선을 행하는 능력도 하나님을 의뢰함에서 받는다”(박윤선).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뢰해야 합니까?

(1)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여 그들을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뢰하는 가운데 그의 “성실된 보상”을 기대해야 합니다.

(2)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5절을 보십시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기서 “길”이란 신자의 모든 염려되는 일들과 알 수 없는 전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맡기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꼴”이란 말로 “굴리라”란 말입니다(박윤선). “큰 돌을 들고 등산하기는 어려우나, 그것을 산꼭대기에서 밑으로 굴리기는 쉽고 또 유쾌하다. 근심의 짐과 죄 짐을 가지고 승천하기는 불가능하되, 내 짐을 지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땅 위에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내 모든 짐을 맡기기는 쉽고 유쾌하다. 이것이 곧, 신앙으로 얻어지는 안식이다”(박윤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 결과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6절 보십시오: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억울한 일을 주님께 맡길 때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이하게 신원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빛 같이

높여 주십니다.

셋째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성경 시편 37편 4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3절)보다 한층 더 자라난 믿음입니다(박윤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과 같이 여기는 생활 단계에 나아간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와 소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1)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신앙입니다.

성경 시편 1편 2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2)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입니다.

성경 시편 43편 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어 나의 하나님이어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3)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고 있는 신앙입니다.

성경 스바냐 3장 17절을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마지막 넷째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립니다.

성경 시편 37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행악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분노하게 되면 내적 마음(심령) 속의 무질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요동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 아삽이 그랬습니다. 성경 시편 73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3절). 그래서 그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그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2절). 그러하던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17절) 악인의 결국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악인의 결국은 졸지에 파멸입니다(18-20절). 그 깨달음이 있었을 때에 아삽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찢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로나”(21-22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동요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그의 구원과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며 우리를 (우리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37편 9-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분명히 악인은 없어질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형통의 시간은 잠시입니다. 또한 그들의 형통은 자신들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11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자기의 길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11절). 그리고 그는 내세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박윤선). 더 나아가서 겸손한 자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됩니다. 온유한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기에, 그의 심령은 늘 즐겁고 평화롭습니다(박윤선).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 37편: 불평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편 37편 1, 7, 8절).

어제 금요 새벽기도회 때 시편 33편 11절 말씀 중심으로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란 제목 아래 말씀 묵상을 다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불만족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서이다.’ 제 계획대로 안 되고 또 안 될 때에 왜 나는 좌절하고 분노하며 또한 낙심하는가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제가 믿고 의지한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기도회 때 읽은 말씀인 시편 37편에서 41편까지 읽기 시작하다가 오늘 본문 37편 1절과 7절과 8절에서 ‘불평하지 말며’(1절), ‘불평하지 말지어다’(7절), ‘불평하지 말라’(8절)는 문구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세 번이나 ‘불평하지 말라’고 자기 영혼에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오늘 토요 새벽기도회 때 시편 37편 1-11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 이렇게 묵상 실에 앉아 다시금 묵상하면서 글로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제목을 “불평하지 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37편 1, 7-8절을 보면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을 보고(7절) 불의를 행하는 악인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시편 73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수년 전에 어느 장로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은 형통하는지…?’라는 질문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시편 73편을 묵상케 하시사 그 질문의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악인의 형통”이란 주제를 묵상할 때마다 시편 73편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아삽도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입니다(시73:1).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4절) 고난과 재앙도 없는 악인들(5절), 그들은 살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은 것(7절)을 보았을 때 아삽은 그 악인들을 보고 시기하여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2절). 특히 그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12절) 아삽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13절)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은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아삽이나 다윗처럼 그 악인들을 시기할 수 있습니다. 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는 형통하는 악인들을 보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37:8). 그리고 우리는 불만족 속에서 충분히 불평하고 또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1, 7, 8절).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37편 1, 7, 8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그리고 세 번이나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불평하는 것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8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기하므로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게 되면 죄악을 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악인들은 속히(37:2, 36) 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9, 22, 28, 34, 38절). 어느 정도로 속히 끊어질 것인가 하면 마치 푸른 채소가 속히 쇠잔하는 것처럼(2절) 악인들은 속히 끊어질 것입니다. 성경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 아삽은 그 사실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17절).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바로 악인의 종말입니다(17절). 악인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파멸입니다(18절). 파멸이되

악인의 종말은 “갑자기” 황폐됩니다(19절).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님께서 깨신 후에는 악인들을 멸시할 것입니다(20절).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끊어질 것입니다(시37:9).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분명히 끊어질 뿐만 아니라(22절) 그들의 자손들도 끊어질 것입니다(28절). 그리고 그 범죄자들의 미래도 끊어질 것입니다(38절). 우리는 악인들이 끊어질 것을 똑똑히 볼 것입니다(34절). 그러기에 우리는 악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시기하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3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고 삼아야 합니다(3절).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4절).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4절).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5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5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7절).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9절). 그리고 우리는 온유하며(11절) 온전해야 합니다(37절).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11절, 참고 37절).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오히려 주님만을 의뢰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싶어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금 기원하면서)

제 37편: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시편 37편 7절).

기독교인으로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 중심으로 하던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하는 사업 인이나 직장인은 한 2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편 37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합니다.

시편 37편 1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사람 중심으로 하는 사업인이나 직장인이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악인의 길이 형통하기 때문입니다(7절). 그들은 "악한 꾀"를 써서 세상 적으로 성공하기 때문에 의인은 불평하며 시기하는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7절). 경쟁 사회에서 비교의식을 물리치지 못하고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평하며 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합니다(8절). 악인의 형통에 대한 불평과 시기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데 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그것은 결국 "행악에 치우칠 뿐"입니다(8절). 행악 자를 향하였던 불평과 시기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로 발전되기 쉽습니다. 기독교 사업가들이나 직장인들의 분노를 깊이 살펴보면 과연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분노라 얼마나 말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 사업가들이나 직장인들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한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을 기대하며 잠잠히 참아 기다립니다(7, 9절).

악인의 형통의 결말이 멸망임을 알기에(시 74편) 그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잠잠히 참고 기다립니다. 악인의 악한 꾀를 물리치시고 그들의 잠시 "형통"은 순간적으로 물리치실 것이기에 그는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형통"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며(4절), 그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5절), 의와 공의를 행합니다(6절).

(2) 성실히 선을 행합니다(시37:3).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성실히 행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중심된 사업가 혹은 직장인이라 말씀입니다. "성실로 식물을 삼"(3절)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하기에(4절)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기독교인 사업가 혹은 직장인으로서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 시기 그리고 분노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의뢰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길을 맡기지 않는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의뢰하며 길을 맡긴
자는 참고 기다리는 자, 그는 선을 성실하게 행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제임스 목사 나눔

(교회 성도님 사업체를 방문하여 예배를 인도 한 후)

제 37편: 악인 Vs. 의인

[시편 37편 12-22절]

어떤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에게에는 6가지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감옥은 자기도취의 감옥입니다. 공주병, 왕자 병에 걸리면 정말 못 말립니다. 둘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셋째 감옥은 절망의 감옥입니다.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불평하며 절망합니다. 넷째 감옥은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하면서 현재를 낭비합니다. 다섯째 감옥은 선망의 감옥입니다. 내 떡의 소중함은 모르고 남의 떡만 크게 봅니다. 여섯째 감옥은 질투의 감옥입니다. 남이 잘되는 것을 보면 괜히 배가 아프고 자꾸 혈뜰고 싶어집니다. 이 여섯 가지 감옥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여섯 번째 감옥인 “질투의 감옥” 생활을 종종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편 기자 아삽이 시편 73편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 많은 성도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질투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3절). 그러기에 오늘 본문 시편 37편의 저자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악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envious)하지 말지어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질투의 감옥에 넣으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 믿는 자들을 잡아먹으려고 그의 종들인 악인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며 죄에 빠지게 하며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 37편 12-22절에도 사탄은 그의 종들인 악인들을 통하여 의인인 다윗을 해하려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악인 Vs. 의인”이라는 제목 아래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악인은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성경 시편 37편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주님의 저주를 받은 악인은 의인을 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악인은 의인을 해하려고 합니까?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악인은 분노 중에 의인을 치기를 꾀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12절을 보십시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이를 가는도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이 악인들을 “악한 꾀를 이루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7절). 악인들의 꾀 중에 하나는 “꾸고 갚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1절). 항상 많은 재산도 부족하게 여겨 탐심과 욕심 가운데서 남의 것을 꾸고도 돌려주지 않는 가운데 악인들은 풍성할 수가 있습니다(16절). 의인(성도)을 쳐서라도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는 악인들입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악인들의 이를 가는 모습을(7, 12절)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테반을 향한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행7:54). 악인이 의인의 설교를 듣고 마음(양심)에 찔려서 의인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는 결국 행악에 치우칩니다(시37:8).

(2) 악인은 의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14절을 보십시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악인은 의인을 치기를 꾀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칼”이나 “활”같은 자기의 무기들로 의인을 죽이려고 최후 발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살기가

등등한 악인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의인의 모습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4절). 이러한 의인의 모습은 인간 중에서도 도움을 받을 데 없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이 얼마나 악인들의 모습과 대조적입니까? 연약하게 보이고 힘이 없고 도움 받을 데 없는 의인의 모습 … 살기등등한 악인들에게는 좋은 먹이입니다. 이러한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모습은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한 사울(1절)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좇는 의인들을 만나면 무론남녀하고 결박하여 다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하였습니다(2절).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행악하는 악인들을 접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슬퍼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웃으시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주님께서 웃으시는 모습은 시편 2편 4절에도 나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메시아를 대적할 때에(2절) 하나님은 웃으시며 저희를 비웃으십니다(4절). 그러기에 우리도 악인들이 우리를 치려고 꾀할지라도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악인들을 향한 주님의 심판(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시는데 성도가 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사실 앞에서 성도가 우는 일은 종종 있으니, 그것은 성도 자신이 어두워진 까닭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웃으심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비애 중에서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칼빈). 왜 우리가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기쁨의 참여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37:15). 악인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최후의 발악을 할 때에 바로 그 때가 그들의 멸망하는 때입니다(박윤선). 오늘 본문 시편 37편 2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 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기름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것처럼 악인의 멸망은 확실한 전멸이요 순식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저주를 받은 악인들은 끊어집니다(22절, 참고: 9-10절).

의인은 주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 37편 22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

의인이 받는 주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한 2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의인이 받는 주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17절 보십시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이 구절은 16절 말씀인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의 이유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박윤선). 즉, “악인의 팔”, 악인이 믿던 힘, 즉 물질의 풍부함은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소유는 작을 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계시니 의인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됩니까? 그 이유를 두 가지입니다(박윤선): (a) 첫째로, 의인의 사소한 소유라도,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인 만큼, 그것이 부족해지면 그가 또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의인에게 복인 것입니다. (b) 둘째로, 의인의 적은 소유는 불의하게 얻는 것이 아닌 고로, 유쾌하고 행복 된 생활을 가져오기 때문에 의인에게 복입니다. 이 외에 또 다른 복은 적은 소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큰 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작은 영적의 복이 될 수 있는데 물질의 작은 소유는 우리에게 큰 영적의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박윤선 박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정한 생명은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않고(눅12:15) 의를 소유함에 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의를 소유함이 물질의 풍부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2) 의인이 받는 주님의 축복은 우리의 기업이 영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기서 “완전한 자”란 전혀 무죄한 자를 가리키지 않고, 순전한 자, 곧,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순전한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쓰는 자의 “날”, 곧, 그의 평생을 알고 계십니다(박윤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시는 대상된 자의 기업, 곧, 그가 살며 즐기게 하는 소유물은 영원히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자시며 보호자시니, 그의 기업이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박윤선). 곧 의인의 기업은 환난 때에도 실패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19절). 그러므로 의인은 기근 때에도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21절하). 의인은 적은 소유를 가지고 검소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남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하면서도 넉넉한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결국 악인은 것처럼 부하여도 멸망으로 향하여 가고, 의인은 흠어 구제하여도 땅을 차지하며 그 자손들도 형통합니다(박윤선).

주님의 저주를 받은 악인들은 우리를 치려고 꾀하고 최후의 발악으로 죽이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웃으시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악인은 분명히 순식간에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슬픔 중에라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에게 외치십시오. ‘나는 주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에 비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믿는 힘인 물질의 풍부함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소유가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 때에든 기근 때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족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복 받은 자,

제임스 목사 나눔

(하나님의 웃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기원하면서)

제 37편: 우리의 길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시편 37편 23-40절]

여러분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 감사 계절에 감사 편지를 쓰면서 접한 소식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었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위암 말기라는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저는 함께 아파하고자, 그리고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의도적으로 천국에 이미 간 저의 첫째 아기 주영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영이도 감사의 달인 11월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병원에서 발견하여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김 목사님 부부도 어떻게 감사의 달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접하게 되었는지 조금 그 아픔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김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이번 주일 각자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간증을 하는 것 같은데 김 목사님은 월요일 병원에 가시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수술케 하시겠지라고 감사 제목을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님은 장례 준비도 생각하시면서 오늘부터 금식기도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나누는 성경구절 중 하나는 성경 욥기 23장1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로 하반절인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를 많이 묵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라는 말씀은 깊이 묵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늘 성경 시편 37편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미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하신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23절).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길)을 미리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편 37편 23-40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길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길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37편 24절을 보십시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서 “저는 넘어지나”라는 말씀은 다윗이나 우리나라 참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습니까? 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연관된 이유를 찾아봅시다:

(1) 첫째 이유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엿보아 쓰러트리고자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32절). 언젠가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먹이를 보고 잡아먹으려고 자세를 낮추고 먹이를 향하여 아주 조용히 살금살금 가다가 어느 순간에 확 일어나서 달려가 먹이를 잡아먹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사탄도 그리하는 것 같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먹으려고

옛보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살해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틈”만 보여주면 사탄은 우리를 쉴 새 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 다윗이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베기겠습니까?

(2)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종들인 악인의 세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35절을 보십시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여기서 다윗은 악인의 큰 세력을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0인 역에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왕성한 나무를 생각해 합니다. 방대한 나무와 왕성한 가지들처럼 악인의 세력은 크다는 말입니다(박윤선).

(3)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환난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39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결국 사탄의 종들인 악인들은 큰 세력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옛보아 공격하여 쓰러트리려고 하기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넘어져도 우리가 걸어가는 진로에서는 아주 떨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24절). 우리는 사탄의 공격과 유혹, 그리고 악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잠시 넘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 책임은 바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27절). 주위가 온통 악인들인데, 그들의 큰 세력으로 우리들이 엿보고 있다고 한꺼번에 공격하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 우리는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던지 선에서 떠나 악을 행하던지. 우리가 선에서 떠나 악을 행하면 처음에 양심에 찔림도 있고 마음에 죄책감도 들고 하지만 악을 조금씩 행하다보면 그런 것이 다 없어지기에 세상 적으로 보기에는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소위가 풍부해 질수도 있습니다(16절). 그러나 이것도 잠시 뿐, 우리가 악인과 타협하여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26절). 오늘 본문 시편 37편 25-26절 말씀은 다윗의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란 다름 아닌 다윗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함(25절)과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26절). 그러기에 그 의인의 자손은 분명히 복을 받는다는 것이 다윗의 확신 이였습니다.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장래 자기 자손의 생계를 위하여 많이 염려한다. 그것은 헛된 염려이다. 그들은 그런 염려를 하지 말고 의롭게 살기를 힘쓸 뿐이다. 곧, 물질 관계에 있어서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

둘째로, 우리의 길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37편 2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성도는 어떠한 자입니까? 바로 공의를 사랑하는 자와 신실한 자입니다(28절).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기에 공의를 사랑하여 행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은 공의를 신실하게 행하는 성도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를 신실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31절). 이것이 바로 공의를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입은 지혜와 공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30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를 신실하게 행할 때에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1)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실족치 않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31절 하반 절을 보십시오: “... 그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로 하여금 미끄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고히 서서 가던 길을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2) 하나님은 우리를 악인들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3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이다.” 악인들은 의인을 죽이려고 재판까지 끌고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로 하여금 의인을 정죄하도록 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악인의 손이 힘이 있고 세력이 클지라도 하나님께의 손을 전능하시기에 악인들의 손에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길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37편 37절을 보십시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십니까?

(1) 우리를 구원해 주시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39절).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도와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40절).

(2) 하나님은 환난 때에 우리의 산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39절).

우리 하나님은 환난 때에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피할 때에
그는 우리를 보호하시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환난 때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어디서 평안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성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한 2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리는 “완전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37절을 보십시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여기서 “완전한 사람”은 “순전하여 간사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움이 없이 바르게”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우리가 환난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순전하여 간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가리움이 없이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2)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4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는데로 걷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이미 다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다시 일으켜 주시어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길을 이미 다 정하시고 과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기뻐하셨는가 묵상해 봅니다. 어느 부모님이 주님께서 정하신 사랑하는 자식의 걸어가는 길이 만일 순교의 길이라면 기뻐하겠습니까? 주님의 종의 길을 걷는다고 해도 기뻐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다가 만일 주님께서 정하신 길이 순교라면 그 순교의 길을 걸은 사랑하는 자식을 보면서 어떻게 그 길을 기뻐할 수가 있겠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의 길을 정하시사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갈보리 산 십자가까지의 길을 기뻐하셨다면 과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은 어때야 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좇아 이미 하나님께 정하신 우리 각자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비록 사탄과 세력이 큰 악인들의 유혹과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다시 일으켜 주시사 이미 정해진 우리 각자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신실하게 걷게 하시고자 환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되 영영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더욱더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목사 나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찌라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제 37편: 우리를 실족케 하는 요소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31절).**

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 운전하다가 충돌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제가 아내 차를 뒤쫓아 가다가 아내 앞에 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므로 아내 차도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었고 저 또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된 것입니다. 아내 차와 제 차 사이가 1 meter도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차 뒤에 있던 큰 SUV 차도 아예 옆으로 핸들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빗길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차가 많이 미끄러지지 않은 이유는 차 브레이크에 독특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도 빗길처럼 미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길엔 실족한 위험이 많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 3가지로 시편 37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실족케 하는 요소는 "투기"(질시)입니다.

성경 시편 37편 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마음에 질투나 시기가 있으면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는 큰 교회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질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는 부자 성도를 시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 아삽은 의인의 고난 가운데 악인의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질시하여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투기가 있는지 자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실족케 하는 요소는 "불평"입니다.

성경 시편 37편 1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 다윗은 자기 길이 험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7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행악에 치우칠 뿐이기 때문입니다(8절). 우리 마음에 불평이 있다는 것은 불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을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평하고 세상을 불평하는 등등 이런 저런 일로 불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우리를 실족케 하는 요소는 '분노'입니다.

성경 시편 37편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 왜 우리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분노하면 결국 행악에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절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화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더 쉽게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절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실족케 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31절을 보십시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길 것이기 때문입니다(40:8).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37:30).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는 자는 행악 자를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으로 보기에 그들의 멸망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께 있다는 진리를 믿기에 행악 자들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한 그는 행악 자들을 향하여 투기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자는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며(3절), 하나님을 기뻐하며(4절), 자기의 길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5절),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며(7절) 또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자는 실족케 하는 요소들인 투기와 불평과 분노를 잘

극복하여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갑니다.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자 힘쓰고 있는,

제임스 목사 나눔

(투기, 불평, 분노를 멀리하면서)

제 38편: “나의 죄로 인하여”

[시편 38편 1-12절]

김준수 목사님의 "마음의 치유"란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다가오는 글이 있어 나눕니다: "우리가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은 우리의 참 모습을 가리기 위한 가면일 뿐이다. 자기 안에 있는 상처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껍질인 것이다. 사람들은 겉으로 자신을 잘 포장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내면의 상처나 열등감도 무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 중심으로 저는 “가면 쓰기”란 제목아래 글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나의 참 모습을 진솔하게 또한 투명 있게 할 때에 나의 이 모습이 대로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주님 안에서의 친구 한 명이라도 없다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가면을 쓰고 또 쓰면서 살아가면서 나의 참 모습조차도 잊어버리고 가면 쓴 자신의 모습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가면 쓴 자신의 모습을 참 모습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더 불쌍한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조차 가면을 쓰고 나아가는 자라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조차 경건의 모양으로만 잘 포장해서 모양새나 신경 쓰면서 거룩한 척, 믿음이 참 좋은 척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간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일까 생각해본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직시할 때에 우리는 마치 양파 껍데기를 벗기듯이 좀 벗겨서

우리 자신의 내면세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도 직시해야 하며 우리 자신의 깊이 숨겨진 죄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시편 38편 3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1절). 그럼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은 징계는 무엇입니까? 저는 한 여섯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 우리 각자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나를 심히 누르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38편 2절을 보십시오: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여기서 ‘누르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묵상한 시편 32편 4절에도 나와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나를 심히 누르”신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환난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3절). 아마도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라는 말씀(38:2)도 화살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양심을 찌르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육신의 고통입니다.

성경 시편 38편 3절과 7절을 보십시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이 두 구절을 보면 다윗은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고 두 번이나 반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죄로 인한 주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입니다(1, 3절). 그 주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육신의 고통이 임하되 그의 뼈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3절). 여기서 다윗의 뼈에 평안함이 없었다는 말은 고통의 극단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왜 우리는 다윗처럼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다윗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많은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육신의 고통이라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는 참 “무거운 짐” 같습니다(4절). 다윗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인 육신의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10절). 여기서 “내 심장이 뛰고”란 말씀은 유쾌한 신앙의 심정이 아니고, 안정하지 못한 당황한 마음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죄를 범한 마음이 어떻게 유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 안정 못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죄로 인하여 당황하는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라는 말씀(10절)은 다윗이 육신적으로 받은 징계 때문에 심한 고초를 당하여 눈이 어두워진 사실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셋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상처”와 “슬픔”입니다.

성경 시편 38편 5-6절을 보십시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요즘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악 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순간에도 기뻐할 수 없고 오히려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므로 말미암아 슬픔과 더불어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처”란 마음의 상처보다 육신의 상처를 말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육신이든 마음이든, 아니면 둘 다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씩어 악취가 나” 올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지 오래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박윤선). 장기간 동안 상처 가운데서 슬퍼한다는 것을 상상해 볼 때에 죄의 결과란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의 비애는, 이 세상의 어떤 불행한 조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그의 죄과로 인한 자기 책벌의 비애이다.” “자기 책벌의 비애”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참으로 우리에게는 유익한 비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유익한 눈물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마음의 불안입니다.

성경 시편 37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매 마음이 불안하여 심음하나이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로 인하여 심령의 불안을 느낍니다. 불신자들은 이러한 심령의 불안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에 그 죄로 인하여 마음으로 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고통을 느끼므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고 영혼도 상하게 되면 결국은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다’는 말씀은 시편 6편3절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에 ‘영혼이 심히 떨리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고통을 장기적으로 경험할 때에 오는 결과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여야 하는지 인간의 인내의 한계를 느끼면서 오는 마음의 증상(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안한 마음에서 우리는 신음 혹은 탄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에스겔 2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소문을 인함”입니다(7절).

그 소문이란 재앙을 가리킵니다. 그 재앙으로 말미암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입니다(7절).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여 마음이 불안하기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시38:8).

다섯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환경적으로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38편 11절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입니다. 육신의 고통과 상처 및 슬픔, 마음의 불안 등으로 마음의 짓눌림도 참으로 괴롭고 힘들겠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외면하고 멀리할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왠지 옴이 생각납니다. 육신의 고통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텐데 더 나아가서 그의 아내는 옴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옴2:9)라고 했을 때 옴은 얼마나 고독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일 가까운 한 몸인 아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하고 ...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자신의 육신의 힘, 또한 의지하는 친구들이나 친척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징계하시되 우리가 의지하는 친구, 친척들까지도 끊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원수들로 하여금 나를 공격하게 허락 하십니다.

성경 시편 38편 12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궤계를 도모하오나.” 이것은 다윗의 원수들의 행동입니

다. 다윗의 원수들은 올무와 괴악한 말과 꾀계를 써 가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올무”는 간교하게 다윗을 해하려고 꾸민 음모의 행위이고, “괴악한 말”은 다윗을 멸망시킬 일에 대하여 말함이고, “꾀계”는 다윗을 속이려고 간특한 심사를 말합니다(박윤선). 성경 로마서 1장 24절, 26절, 그리고 28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다름 아닌 ‘내어 버려두셨다’(gave them over)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1:24);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1:26);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1:28).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된 선택을 할 때에 죄악 된 선택의 결과로 그냥 우리가 선택한대로 그렇게 내어 버려두십니다. 그 내어 버려두심 중에 하나는 바로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보호해 주시지 않고 그냥 내어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러한 징계들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8편 9절을 보십시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춰지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되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내면의 고통,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리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진노를 독생자 예수님께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독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공격하여 상처를 입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추수 감사절 지난 다음 날 목양실에서)

제 38편: 인관 관계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시편 38편 11절).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다윗과 압살롬"이라는 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귀한 깨달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을 때 비록 그를 왕궁으로 데리고 왔지만 다윗은 그를 보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삼하14:24, 28). 다시 말하면, 다윗은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기에 그를 자신의 성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한 후에도 그를 만나려 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찾아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압살롬을 멀리했습니다. 용납 받기를 원했던 아들 압살롬, 인격적인 용서를 원했던 압살롬, 아버지의 포용을 원했었지만 다윗은 그를 진정으로 용납하기를 거부했고 비인격적으로 용서했으며 그를 포용하기보다 거절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부자지간의 관계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다만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압살롬의 부자지간의 관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부부 관계를 보십시오. 우리들의 부자 관계나 모녀 관계를 보십시오. 이 관계들만 보아도 우리는 다윗이 압살롬을 멀리 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가족 관계들이 점점 더 멀러지고 있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죄, 용서 받기를 거절하는 죄,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가 멀어지는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시38:3) 우리 마음에 항상 무거운 짐을 질질 끌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4절). 더 나아가서 그 죄의 "악취"(5절)는 결국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로 하여금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11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 관계, 부자, 모녀 관계 등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시편 기자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21절). 다윗은 결국 압살롬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때 다윗은 광야로 도망을 다니면서 세 가지가 회복이 됩니다: 겸손, 기도, 그리고 자애(피탄스). 한 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광야에서 고통 중에 자기다움("다윗다움")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광야에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가까이 오시사 그의 마음에 압살롬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군대 장관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삼하18:5). 그러나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을 때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면서 비탄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33절)

더 이상 늦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멀어진 부부 관계, 부자/모녀 관계, 친척 및 친구 관계 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의 죄악 된 모습을 인지하므로 겸손히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참된 용서를 하므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주님께 사랑의 열매를 겸손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용서의 기쁨과 사랑의 고백의 기쁨을 맛보면서)

제 38편: “주 나의 구원이시여”

[시편 38편 12-22절]

여러분은 최상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느 목사님은 그의 책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최상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사명에 부응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인터넷).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은 흔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 자신이 깨달으면 비로소 세상이 깨달기 시작한 것 같고, 자신이 포기하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물줄기를 따라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슬쩍 끼어든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정 부분 맡겨 주신 사명을 다하고 나면 조용히 사라져야 한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사는 변함없이 도도히 계속 흘러간다. 하지만 조용히 사라지거나 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이걸 다 이루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다면 나는 즉시 “안심하고 죽어도 됩니다”라고 말하겠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이다”(인터넷).

하나님의 큰 역사인 구원의 사역의 커다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어떤 맥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지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개개인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 각자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사명에 부응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인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독특한 사명을 이루는데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주어지는 역경과

어려움, 그리고 사탄의 역사 속에서 오는 유혹과 핍박을 감당하며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경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즉, 사명 완수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고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8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 다윗은 주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고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22절).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자의 삶은 어떠한지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자는 침묵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경 시편 38편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락하시리이다.” 시편 기자 다윗의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그를 해하려고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궤계를 도모할 때에(12절) 다윗은 귀머거리와 병어리가 되었습니다(13절). 즉, 다윗은 자기의 원수들이 권모술수로 자기를 해하려할 때에 귀도 막고 입도 막고 침묵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좀 귀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할 말들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를 둘러싸인 원수들이 “괴악한 일을 말”(12절), 즉 “다윗을 멸망시킬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을 때(박윤선), 다윗은 귀먹은 자 같이 그 말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대적하는 자들의 말들을 다 들으면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귀를 막아야 할 때는 좀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세상의 음성들에 대하여 귀를 막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다윗처럼 병어리 같이 입을 다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할 때는 좀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원수들이 간교하게 자기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를 멸망시키려고 권모술수를 써가며 해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는 입을 열어 어떠한 변호를 하여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14절).

어쩔 때 우리는 입을 열어 변호했다가 문제가 더 커진 경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변명이란 더 문제를 크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한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심각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는데도 그는 자기의 처지를 변명하려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플라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선생님! 왜 변명을 안 하십니까?" 그때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올바른 행위뿐이다"(인터넷).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우리는 간혹 오해로 인해서 비난을 받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풀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실이 꼬이듯이 더 오해가 깊어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가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인내하시면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인터넷).

우리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괴롭고 힘들 때에 좀 침묵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귀를 열어 이런 저런 사람들의 말에 너무 민감하게 들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변명한다고 해서 오해가 풀리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귀먹은 자같이 좀 귀도 막고 병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않고 좀 침묵하는 가운데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 간구해야 합니다. 특히 주님께 간구하므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8편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락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당신 곧, 당신께서 응답하시리이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입니다(박윤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였던 다윗처럼 우리는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자는 입을 열어 내 죄악을 주님께 고합니다.

성경 시편 38편 18절을 보십시오: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참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놀랍습니다. 원수들의 죄악을 보았을 텐데 그들의 죄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기의 죄악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만듭니다. 즉, 원수들의 핍박과 역경,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사람들에게 귀를 열고 이런 저런 비방이나 비난 같을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아파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입을 열어 이런 저런 변명할 필요도 없이 오직 잠잠히 침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대적과 핍박을 원망과 불평 등의 기회로 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회로 삼았던 다윗은 우리로 하여금 귀머거리와 병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죄까지도 쏟아내는 기회로 삼을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38편 16-18절을 보면 우리는 다윗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 첫째 기도 내용은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자존대할까 하였나이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2가지였습니다. (a) 하나는 다윗은 자기가 실패하면, 그의 원수들이 기뻐할 터이니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였고 (b)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실패하면, 그의 원수들이 더욱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크다고 생각할 터이니,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원하였습니다(박윤선). 이 기도는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구하고 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므로 말미암아 그의 원수들이 다윗 자신을 향하여 “망자 존재”, 즉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기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도리어 욕을 끼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간구를 들어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2) 둘째 기도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읽은 18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넘어지게 되었고 나(그)의
근심이 항상 내(자기) 앞에 있”었습니다(17절).

3절 말씀에 비춰서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그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뼈에 평안함이
없”을 정도로(3절)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의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의 손이
(주야로) 다윗을 심히 누르실 때에 결국 다윗은 자기의 죄를 토설(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32:4, 38:2).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입을 열어 충분히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환난을 통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죄를 고백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좀 침묵하고 하나님께는 입을 열어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자는 선을 좇습니다.

성경 시편 38편 20절을 보십시오: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좇는 연고로 나를 대적 하나이다.” 다윗은 그의 원수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선을 좇는 삶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원수들에게도 선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즉, 그들은 다윗을 대적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신앙입니다. 원수들의 대적 가운데서도 선을 좇는 다윗의 삶 ...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사탄의 역사도 그 만큼 커지고 거세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선을 행했을 때 그의 원수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19절). 원수들에게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활발하게 그리고 강하게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래도 선을 좇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원수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그들에게 입을 막고 주님에게만 귀와 입을 열어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더욱더 선을 좇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을 좇는 가운데서 그의 원수들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21-22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주님을 알고, 만나고 날마다 경험하는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가 우리 삶 속에서도 흘러야 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경험하는 우리는 오늘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을 잠잠히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의심의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제 38편: “나의 하나님이어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시편 38편 21-22절]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시선으로 기독교 사랑과 신앙 전파에 노력했던 20세기 위대한 사상가 C. 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The Problem of Pain)란 책을 보면 그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하다면, 왜 피조물들이 이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려면 왜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C. S. 루이스가 던졌던 이 질문을 던져보신 분이 계십니까? 특히 여러분 중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을 그냥 방치하고 계시나요?’라는 질문을 던져보시지 않으셨습니까? C. S. 루이스는 인간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보이는 이 고통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는 고통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기 위해,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통은 개심(reform, repentance)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며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통”을 생각할 때 한 2가지로 구분합니다: 단련의 고통(Suffering of Discipline)과 바르게 함의 고통(Suffering of Correction).

(1) 단련의 고통

단련의 고통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으로서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며 성숙케 하시고자 허락하시는 고통입니다. 그 한 좋은 예는 바로 성경 욥기 서에 나오는 욥이란 인물입니다. 욥이란 사람은 성경 욥기 1장 1절을 보면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사단에게 욥을 이렇게 자랑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1:8; 2:3).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 예수님 외에 욥처럼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만 다 잃어버렸을 뿐만(1:13-17) 아니라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19절). 심지어 그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므로(2:7)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는 고통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8절).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하고 정직한 욥을 쳐서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욥기 4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삼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극심한 고통을 겪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귀로만 들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즉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신앙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2) 징계의 고통

징계의 고통이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결과로 고통의 징벌을 주시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케 하시므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자 주시는 고통입니다. 이 징계의 고통의 좋은 예는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8편에 나오는 다윗이란 인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편 38편 21-22절 말씀 중심으로 시편 38편 전체를 묵상하면서 이 징계의 고통을 겪었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면서까지 훈계하시는(시32:8)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38편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한 2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1) 첫째 질문은, 하나님께 범죄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통은 무엇인가라는 것과 (2) 둘째는, 이 고통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범죄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범죄 한 우리들이 받는 고통을 다윗은 시편 38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 한 후 죄를 자복하지 않고 있을 때 성령의 검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찌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누르십니다. 이 ‘누르다’라는 표현은 시편 32편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주야로 누르신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확실하게는 모르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3절).

다윗은 주님의 살이 자기를 찌르고 주님의 손이 자기를 심히 누르시므로 말미암아 한 3가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1) 그 고통은 바로 육신의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8편 3절과 7절을 보십시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다윗은 주님의 살이 자기를 찌르고 주님의 손이 자기를 심히 누르시므로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건강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는 기력이 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한 고초를 당하여 눈까지도 어두워졌습니다(10절). 한마디로, 다윗은 육신의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으므로 육신의 고통을 겪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C. S. 루이스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실 진대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서도 아직도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2) 그 고통은 바로 마음의 고통입니다.

그는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4절) 마음에 평안함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3절) 마음이 불안하여 심음까지 하였습니다(8절). 그 결과 그는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를 입고(5절) 슬픔 중에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6절).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죄의 결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로 인하여

심령의 불안을 느낍니다. 불신자들은 이러한 심령의 불안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에 그 죄로 인하여 마음으로 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고통을 느끼므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고 마음도 상하게 되면 결국은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8편 8절에서 ‘마음이 불안하다’는 말씀은 시편 6편3절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에 ‘영혼이 심히 떨리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고통을 장기적으로 경험할 때에 오는 결과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여야 하는지 인간의 인내의 한계를 느끼면서 오는 마음의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안한 마음에서 우리는 신음 혹은 탄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윗이 겪었던 마음의 고통은 바로 외로움 또는 고독함 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8편 11절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셨나이다.” 육신의 고통과 상처 및 슬픔, 마음의 불안 등으로 마음의 짓눌림도 참으로 괴롭고 힘들겠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외면하고 멀리할 때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왠지 옴이 생각납니다. 육신의 고통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텐데 더 나아가서 그의 아내는 옴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욘2:9)라고 했을 때 옴은 얼마나 고독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일 가까운 한 몸인 아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하고 ...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자신의 육신의 힘, 또한 의지하는 친구들이나 친척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징계하시되 우리가 의지하는 친구, 친척들까지도 끊으실 때도 있습니다.

(3) 그 고통은 바로 영혼의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8편 12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궤계를 도모하오나.” 이것은 다윗의 원수들의 행동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울무와 괴악한 말과 궤계를 써 가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몄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속여서라도 그를 멸망시키려고 하였다는 말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나 친구들이나 친척들까지도 다 그를 멀리하였는데 그 와중에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와 그의 생명을 찾아 해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이 ... 영적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케 한 후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회개하지 못하게 하며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고 배도하여 믿음에서 떨어져 영원히 멸망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다윗에게 제일 큰 고통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멀리하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멀리하시고 또한 그를 버리실까바 두려워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의 느낌이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고 그를 버리지도, 멀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까이 오셔서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심히 누르셨고 또한 자신의 살로 다윗을 찌르셨습니다(2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까이 계셔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길 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의 죄에서 건져(구원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3가지로 성경 시편 38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침묵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8편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락하시리이다.” 다윗의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다윗을 해하려고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궤계를 도모할 때에 그는 귀머거리와 병어리가 되었습니다(12-13절). 즉, 다윗은 그의 원수들이 간교하게 자기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를 멸망시키려고 권모술수를 써가며 해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입을 열어 어떠한 변호를 하여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14절). 오히려 그는 귀도 막고 입도 막고 침묵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좀 귀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할 말들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를 둘러싸인 원수들이 “괴악한 일을 말”(12절), 즉 “다윗을 멸망시킬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을 때(박윤선), 다윗은 귀먹은 자 같이 그 말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대적하는 자들의 말들을 다 들으면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귀를 막아야 할 때는 좀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세상의 음성들에 대하여 귀를 막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다윗처럼 병어리 같이 입을 다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침묵할 때는 좀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귀먹은 자같이 좀 귀도 막고 병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않고 좀 침묵하는 가운데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 간구해야 합니다. 특히 주님께 간구하므로 나아가갈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8편 15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락하시리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 하면 “당신 곧, 당신께서 응답하시리이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입니다(박윤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였던 다윗처럼 우리는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2)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8편 18절을 보십시오: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참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놀랍습니다. 그는 분명히 원수들의 죄악을 보았을 텐데 그들의 죄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기의 죄악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만듭니다. 즉, 원수들의 핍박과 역경,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사람들에게 귀를 열고 이런 저런 비방이나 비난 같은 것을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아파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입을 열어 이런 저런 변명할 필요도 없이 오직 잠잠히 침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대적과 핍박을 원망과 불평 등의 기회로 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회로 삼았던 다윗은 우리로 하여금 귀머거리와 병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죄까지도 쏟아내는 기회로 삼을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 우리는 선을 좇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8편 20절을 보십시오: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좇는 연고로 나를 대적 하나이다.” 다윗은 그의 원수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 하면서 선을 좇는 삶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원수들에게도 선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즉, 그들은 다윗을 대적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수들의 대적 가운데서도 선을 좇는 다윗의 삶 …,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사탄의 역사도 그 만큼 커지고 거세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선을 행했을 때 그의 원수들의 역사를 오늘 본문 1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원수들에게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활발하게 그리고 강하게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래도 선을 좇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원수들에의 소리에 귀를 막고 그들에게 입을 막고 주님에게만 귀와 입을 열어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간구하는 가운데 나의 죄를 자백하며 더욱더 선을 좇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을 좇는 가운데서 그의 원수들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21-22절).

우리에게 제일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계시고 또한 우리를 버리셨다는 느낌입니다. 그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므로(forsaken) 우리를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forgiven).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특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큰 고통을 통하여서라도 나의 큰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 39편: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편 39편]

“제임스 김씨에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글을 동역자 목사님께서 제 싸이월드 홈페이지 방명록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 이름도 제임스 김이고 또 사망한 사람도 제임스 김이었기 때문입니다. “폭설 속에서 제임스 김씨, 숨진 채 발견”이라는 기사 제목을 동역자 목사님을 통하여 읽게 되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가족과 여행하다가 길을 잘못 찾아들면서 폭설에 묻혀 실종했던 한인 제임스 김씨가 사고발생 12일 만에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 두 자녀(4살과 7개월)를 살리려고 구조 요청하러 자기 가정 식구들을 차 안에 두고 떠났던 남편이자 아버지인 제임스 김씨의 사망 소식은 세계의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한 후 제 자신의 사망소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 자신의 종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제 자신의 종말을 알고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를 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어드릴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39편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의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첫째 고통의 원인은 “악인” 또는 “우매한 자”(1, 8절)였고 (2) 둘째 고통의 원인은 ‘질병’ 때문 이였습니다(10, 11, 13절). 이러한 고통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4절). 즉, 다윗은 고통 중에서 자기 자신의 종말과 남은 기간(“연한”)을 알므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과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자기 생명의 연한이 짧은 것을 실감하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박윤선). 얼마나 인생이 덧없이 신속하게 흘러가는지를 다윗은 고통 중에서 실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39편4절 말씀 중심으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 아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은 인생이 덧없이 신속하게 흘러간다는 사실, 즉 우리 각자의 생명의 연한(기간)이 짧은 것을 실감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 것인지 한 3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고통 중에서 인생이 덧없이 신속하게 흘러간다는 사실, 즉 우리 각자의 생명의 연한(기간)이 짧은 것을 실감하는 가운데 우리는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39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범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우리 사람은 나중에 ‘내 왜가 이렇게 행동했지, 왜 이런 말을 했지’ 하면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즉, 주어 담을 수 없는 이미 우리 입으로 쏟아낸 말은 아무리 나중에 후회해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금하게 행하므로 일을 더 크게 만들고 나서는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하고 말하고 한 번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행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살펴보다 보니까 “전도인의 자세”라는 기사 제목 아래 이런 글이 실려 있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전도인은 전도 현장에 개인 자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고 '주님을 대신'하여 전도하는 것이므로 대리자(代理者)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전도하여야 한다. ... 전도인은 교회와 주님을 대표한 대사(大使)로서 불신자를 만난다는 사명감을 갖고 태도와 언행이 신중하고 칭찬 받을 만하여야

한다”(인터넷). 우리는 이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도자로서 태도와 언행이 신중하고 칭찬 받을 만하여야 합니다. 그럼 왜 다윗은 고통 중에서 언행을 조심했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은 “견디기 어려운 역경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성경 시편 38편12-2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좀 귀머거리와 병어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13절). 즉, 악인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들에게 이런저런 말로 변호 같은 것 하기보다 하나님께 귀를 열어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 간구하자는 도전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악인들 앞에서 침묵하였습니다. 왜 그는 악인들 앞에서 침묵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범치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처사입니까. 고통 중에서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 있을 때에 우리는 좀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지도자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좀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 인간의 입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하는 것 같고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경향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8-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혀 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39편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8, 9절) 또한 악인들의 비방을 들으면서도 침묵한 이유는, “그가 비록 그 악인들의 조롱을 받으나, 어느 정도 그가 받아 마땅한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지금 다윗은 물론 악인들 때문에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보다 자기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로 받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박윤선).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가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벌임을 알았기에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자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입을 열어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덧없이 신속하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고통 중에서 인생이 덧없이 신속하게 흘러간다는 사실, 즉 우리 각자의 생명의 연한(기간)이 짧은 것을 실감하는 가운데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39편 3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발하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우리는 세월이 신속히 흘러가는 것을 실감한다면 좀 더 분주한 생활 가운데서 좀 멈추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덩달아 ‘빨리 빨리’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좀 세상 사람들 보이게 느린 것 같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좀 멈추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번 주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한 중앙아시아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읽어 보니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감속하여(slow down)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부탁한 계기는 그 선교사님이 읽고 있는 John Ortberg란 저자의 책에 적혀 있는 이 글에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두름이란 병의 제일 심각한 사인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감소입니다. ... 사랑과 서두름은 근본적으로 모순됩니다. 사랑은 항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서두르는 사람에게에는 시간이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흘러가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좀 스피드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합니다.

유수같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좀 서두르지 말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좀 뒤돌아보면서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서 언행을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묵상의 결론을 4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 첫째 묵상 결론은,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윗은 오늘 본문 5절 상반 절에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 사람이 보기에는 인생이 “손 넓이만큼”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일생이 “없는 것 같”다는 이 표현은 우리 인간의 일생이 짧다는 사실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박윤선).

(2) 둘째 묵상 결론은, 인생은 무상(nothing)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9편 5절 하반절 보십시오: “...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 이다.” 여기서 “허사”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 의미는 “입김”입니다(박윤선).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다윗은 “각 사람은 허사 뿐이니이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14절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다윗은 우리 인생을 그림자 같이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시39:6).

(3) 셋째 묵상 결론은, 사람은 헛된 일에 분주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9편 6절 하반 절을 보십시오: “...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야고보서를 보면 그 편지의 수신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약4:13).

(4) 마지막 넷째로 다윗의 묵상 결론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9편 7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통 중에서 잠잠히 묵상하던 다윗은 인생의 헛됨을 깊이 깨닫고 탄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헛되고 헛됨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짧은 인생, 잠깐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우리 인생들은 헛된 일에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헛됨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고통 중에서 인생이 덧없이 신속하게 흘러간다는 사실, 즉 우리 각자의 생명의 연한(기간)이 짧은 것을 실감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39편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다윗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었음을 알았기에 악인들로 말미암은 고통이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이던 그는 경허히 그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언행을

조심하여 하나님께 더 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범죄 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왜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지 생각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1절)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을 때 근심이 더 심했습니다(2절). 왜 다윗의 근심은 더 심하였습니까? 왜 침묵하였을 때 그는 더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그 이유는 고통스러운 억울한 심정(“근심”)을 하나님께 아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도 입을 열어 기도하지도 않으면 더 고통스럽기에 다윗은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다윗이 침묵하고 있었을 때 마음이 괴로웠던 이유는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여 자기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뜨거워졌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다윗의 속에서 뜨거워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9편 8-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옵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 고생의 원인이 전적으로 자기 죄 값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사죄 받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확신하였습니다(박윤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13절). 죄 용서 기도를 드렸던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께 잠잠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12절).

세월은 흘러가는 물처럼 쉬지 않고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리 길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짧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왔다가 떠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헛된 일에 분주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과 묵상해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인생임을 알고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언행 조심, 묵상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4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제임스 김”씨의 사망 소식을 나의 사망 소식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제 40편: 우리를 향하신 셀 수도 없는 주님의 생각

[시편 40편 1-10절]

오늘 새벽기도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들춰내셨습니다. 그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므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 말씀이란 지난 주 수요기도회 때 선포한 시편 39편 말씀 중 ‘언행을 조심하라’(1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한 후부터 오늘까지 한 일주일을 돌아볼 때에 입을 조심하지 못하고 말하고 난 후에야 후회한 기억이 납니다. ‘그 때 그 말을 하지 말 것을 …,’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말을 왜 내가 했지?’, ‘그냥 좀 잠잠히 듣고만 있을 것을 …’ 등등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혀를 조심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언행을 조심하라’는 교훈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었다면 대화를 하기 전과 또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말을 삼가하며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절제하였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더욱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신앙인으로서 세움을 받게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냐가 중요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40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셀 수도 없을 정도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시편 139편 17-1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며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셀 수도 없을 정도라는 말씀, 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인지 과연 우리는 그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40편 5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셀 수도 없는 생각을 하시는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신지 한 4가지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향하여 셀 수도 없는 생각을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이십니다.

성경 시편 40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단계를 저는 ‘갓난아기’ 단계 혹은 ‘응아 응아’하는 단계라 생각합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배가 고파서 엄마를 찾느라고 응아 응아 마구 울어대는 것처럼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갓난아기처럼 계속 울어대지 않고 멈출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중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까? 그렇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건만 응답되고 있지 않아 보일 때에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고 낙망하여 사람과 환경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러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4절). 기도 응답이 더딜 때에 이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인지구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박윤선). 우리는 다윗처럼 난관에서 견짐 받기 위하여 견인지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좀 끊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훈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1-8절에서 기도의 비유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막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1절) 주신 말씀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자꾸만 그 원한을 풀어 달라고 귀찮을 정도로 재판관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7-8절).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오래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그에게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은 우리를 향하여 셀 수 없는 생각을 가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그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에 있어서 오래 참으시지를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온갖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표현할까 고민하며 생각하는 중에 그 자녀가 너무 힘든 가운데서 어머니에게 간절히 도움을 부탁할 때에 어찌 그 어머니가 속히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에 있어서 오래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우리를 향하여 셀 수도 없는 생각을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40편 2절을 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 단계를 저는 ‘걸음걸이’하는 단계로서 한 한살부터 두세 살 나아 정도라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기도회 때 묵상한 시편 37편3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걸을 실족케 하는 요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요소들은 다름 아닌 “투기”, “불평” 그리고 ‘분노’입니다. 이 요소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심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적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의 걸음을 실족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신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2절). 즉, 다윗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구원하셔서 그의 걸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즉, 다윗을 반석 위에

세워 놓으셨습니다(2절).

저는 개인적으로 “반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몇몇 성경구절들이 생각나는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시편 61편 2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놀랄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 자기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바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였던 다윗처럼 저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그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저의 놀랐던 마음, 즉 “우고에 싸여 기진맥진해 가고 절망”(박윤선)가운데 있는 마음에 힘을 주시가 저의 걸음으로 하여금 견고케 하시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향한 그의 생각이 셀 수 없을 정도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보다 높은 바위에 우리를 인도하시사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로, 우리를 향하여 셀 수도 없는 생각을 하시는 주님은 우리 입에 새 찬송을 두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 3절을 보십시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단계를 저는 ‘성장하는 단계’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단계는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난관 가운데서 부르짖은 후 기다리고 기다리는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사(1절)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의 걸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2절).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하나님께 드릴 찬송인 새 노래를 두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3절). 여기 “새 노래”는, 구원을 얻은

자가 그 구원의 새 경험으로 인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박윤선). 하나님의 구원의 “새 경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적용됩니까? 우리 삶 속에 부딪히는 난관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여 건져 달라고 부르짖는 가운데 그 때 그 때 순간 마다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과 입술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 찌라도’(단3:18)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아니하실 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행16:25ff) 우리도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찬송가 404장을 제 입에 두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는 측량 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에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를 향하여 셀 수도 없는 생각을 하시는 주님은 우리 귀를 여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40편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여셔서 새 노래를 그를 찬양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귀를 여시사 그의 뜻을 알려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가 뚫린 듯이 그의 영적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칼빈).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란 바로 순종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삼상15:22). 박윤선 박사님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정하신 모든 제물 드리는 제도는, 예물이나 번제물 같은 것을 원하신 까닭이 아니고 그것들을 드리는 자의 순종을 요점으로 생각하신 것뿐이라는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시40:7). 즉, 다윗은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려고 출두하여 그 상전 앞에 대비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뜻을 행하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굳게 결심하였습니다(박윤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 자세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세 ... 다윗의 마음 자세를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8절). 하나님의 율법이 심중에 있는 자는 오직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은 그러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는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셀 수도 없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주님 환난과 역경 중에서 그 주님께 부르짖고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성도는 그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뿐 만 아니라 그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합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취치 아니하였나이다”(9-10절). 우리도 다투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후 모든 회중 앞에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셀 수도 없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회중 앞에서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향하여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생각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 기도한 후)

제 40편: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40편 11-17절]

1975년 63세를 일기로 아름다운 낙엽이 되어 세상을 떠난 독실한 기독교 신자 시인 김현승 선생의 시 중에 <가을의 기도>가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소개합니다: “가을에는 호올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이 시 부분에 대하여 이재철 목사님은 “자신의 생이 낙엽처럼 떨어져 내리는 순간 자신이 철저하게 단독자임을 깨닫는 자만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인터넷). 물론 가을이 지나 겨울을 맞이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인의 시와 그 시에 대한 이재철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이 (또한 우리가) 세상과 철저하게 절연된 존재임을 재확인 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단독자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40편 11-17절을 보면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엎드려 간구하는 시편 기자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간구 내용 중에 특히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저는 이 제목 아래 다윗은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하였는지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한 상황은 절망될 지경 이였습니다.

성경 시편 40편 12절을 보십시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 이다.” 여기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 이다”라는 말씀은 다윗이 절망될 지경에 처해 있음을 말씀해 가리켜 줍니다. 왜 다윗은 절망될 지경에 처했었습니까? 그 첫째 이유는 다윗을 둘러싼 “무수한 재앙” 때문이었고 또 다른 이유는 무수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수한 재앙”, 즉 수많은 악인들이 자기를 둘러싸여서 환난과 고통 중에서 자기의 수많은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죄를 다윗은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고백하였습니다(12절). 흥미롭습니다. 다윗은 많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많은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무수한 재앙 가운데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11절). 그치지 아니하는 무수한 재앙 가운데서도 자기의 무수한 죄를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구원 받을 만한 아무 공로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는 성도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불변의 덕, 곧 진실하심을 의지하였습니다(박윤선).

우리는 좀 철저히 절망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무수한 죄악을 깨닫는 축복을 누리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음을 철저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사라질 정도로 절망될 지경에서 우리는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13절).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떠한 희망입니까? 바로 구원의 희망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한

상황은 해를 당할 지경 이었습니다.

성경 시편 40편 14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다 물러가 옥을 당케 하소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잘 못되길 은근히 바라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해(hurt)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수한 재앙으로 다윗을 둘러싸서(12절) 다윗으로 하여금 “수치와 낭패를 당케”하려고 하였습니다(14절). 이들은 다윗을 향하여 “하하 하는 자”들이었습니다(15절). 그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는 ‘자기를 해하려는 자들로 하여금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고 다 물러가 옥을 당케 하소서’라고 었습니다(14절). 다윗은 그를 멸하려는 자들, 자기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해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15절). 흥미로운 대조는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의 영혼을 찾았지만(14절) 다윗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길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16절). 다윗은 원수들이 자기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고 했을 때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찾는 자들은 다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수한 재앙”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 재앙들로 하여금 우리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자들, 우리를 향하여 “하하”하면 놀려대며 우리로 하여금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려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혹은 누구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환난 날에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즐거움이 되십니다. 그러면 왜 주님만이 환난 날에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즐거움이 되십니까? 그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찾는 자’를 가리켜 또한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16절). 여기서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다”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후대하여 구원하심을 의미합니다(박윤선). 무수한 재앙들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시는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므로 그 주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후대하여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 다윗은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13절).

우리는 우리를 해하려고 찾는 자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를 찾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한 상황은 가난하고 궁핍할 때였습니다.

성경 시편 40편 17절을 보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며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무수한 재앙”(12절)과 무수한 자기의 죄(12절),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자들(14절)과 자기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14절)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었고 또한 궁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때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았던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생각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또한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을 삶 속에서 경험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이시며 “건지시는 자”를 알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그의 과거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을 신앙의 여정에서 수 없이 많이 경험하였던 다윗은 현재 시편 40편을 쓰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 건져주실 줄을 믿고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17절)하면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13절)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있을 때 또한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또한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17절).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과거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되새기면서 그의 도우심과 건지심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과 궁핍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 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구원의 희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를 당할 지경에 놓일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아 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또한 궁핍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져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구원의 희망과 구원의 기쁨,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절망과 해를 당하는 지경에서 그리고 고난과 궁핍한 가운데서 받는 축복이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 있길 기원합니다.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지체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후,

제임스 김 목사 나눔(구원의 희망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 41편: 빈약한 자를 권고하십시오.

[시편 41편]

새해를 맞이한 지 삼일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1월1일 첫째 날에 가족 모임들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제 자신의 사랑하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죄를 고백하여 용서 받으므로 자유의 기쁨 또한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화요일 새벽기도회 때와 오늘 수요일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 말씀을 통하여 죄를 다스리지 못했던 가인의 모습(4장), 죄가 관용한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창6:8),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사람, 주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의 모습(창6:9), 홍수 후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단을 쌓고 예배하였던 노아의 모습(창8:20), 그러나 결국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는 죄를 범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창9:21). 이러한 노아의 대조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아벨의 모습과 가인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죄를 다스리지 못한 노아의 모습 속에서 가인의 모습을 본 후 제 주위에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까운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유난히도 듣게 된 새해 첫 삼일 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죄의 파워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악 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가정 식구들이던 교회 식구들이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 괴롭게 하는 것을 보던지 들으면서 과연 한 사람의 죄악 된 선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나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며 도와야 할지 오늘 본문 시편 41편 말씀으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41편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빈약한 자”는 영어로는 “the helpless”(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 무력한 자)라고 번역돼 있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poor”(가난한) 또는 “weak”(연약한)으로 번역돼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가운데 낮아진 상황, 즉 낮은 지위 가운데 억압 받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존 맥아더). “빈약한 자”의 의미는 “빈핍한 자(출30:15), 병약자(창41:19), 마음이 약한 자(살전5:14)”등을 가리킬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의미를 종합하여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모든 고난당한 자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성경은 이러한 빈약한 자들을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빈약한 자를 동정하여 생각해 주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박윤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빈약한 자를 권고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빈약한 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사항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빈약한 자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빈약한 자에 대하여 악담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1편 5절을 보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이 빈약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에 대하여 악담을 하였는데 그 악담의 내용은 ‘언제 다윗이 죽을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담의 내용은 다윗이 언제 땅위에서 사라질 것인지 그의

죽음을 원하는 악당 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바라보는 악인 원수들의 바람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다고 생각하였던 불신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못박으라’고 그리 외쳤습니다(눅23:21).

셋째로, 우리는 빈약한 자를 향하여 간악한 계획 세워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 시편 41편 6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자기를 사랑하는 듯이 찾아와서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다윗의 정형을 살펴 가지고 거짓을 꾸며 마음속에 간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간악한 계획은 다윗에 대하여 악선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앞에서는 사랑하는 듯 아첨하다가도 밖에 나아가서는 다윗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수 없이 내뱉으면서 그에 대한 악선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빈약한 자를 방문하여 그의 앞에서는 사랑하는 듯 아첨하면서 그의 뒤에서는 그에 대하여 악선전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빈약한 자를 미워하여 그에 대하여 수군 수군거리며 해하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 시편 41편 7절을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수군수군하기가

좋은 기회입니까? 또는 우리가 시기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뒤에서 말할 좋은 기회입니까? 저는 이러한 수군수군은 그 빈약한 자를 또 다시 죽이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므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 사람에 대하여 수군수군하고 다니면 그 고통에 또 다른 고통을 부여하는 일밖에 안됩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는 빈약한 자를 배반하고 대적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 시편 41편 9절을 보십시오: “나의 신뢰하는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서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는 말씀은 발로 차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은 배은망덕의 악행을 가리킵니다(박윤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빈약한 자를 어떻게 권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 3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빈약한 자를 긍휼이 여겨야 합니다.

성경 시편 41편 4절 상반절과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체험한 성도는 다른 성도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동정하면서 그에게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기도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당하여 본지라 다른 이의 고난과 고통을 공감하며 동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주님께 범죄 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고쳐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4절). 과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데 그 자녀를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빈약한 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빈약한 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빈약한 자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신뢰했던 가까운 친구에게도 배반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어느 면으로 보면 다윗은 범죄하므로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범할 때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를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다시 신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서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빈약한 자를 일으켜 줘야 합니다.

성경 시편 41편 10절을 보십시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 우리 주님께서 내리시는 사랑의 징계는 우리를 그저 무조건 무너트리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질 부분들은 철저히 부서트리시면서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시고 세워 나아가심에 있어서 우리를 그 주님의 세우는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마16:18).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빈약한 형제, 자매들을 권고하여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므로 그들을 신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행이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징계를 받으므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에게 가서 또 다른 징계를 내리는 언행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건지심의 축복입니다.

성경 시편 41편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를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빈약한 자를 건져주는 자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은 ‘보호의 축복’입니다.

성경 시편 41편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 하나님께서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며 살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빈약한 자를 보호해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은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41편 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도 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께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은 ‘치유의 은총’입니다.

성경 시편 41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치유의 하나님은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병중에 있을 때에 다 고쳐 주시므로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빈약한 자를 우리는 긍휼이 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신뢰해주며 또한 그를 일으켜 줘야 합니다. 결코 그에 대하여 악담하며 간악한 계획을 세워 악선전 하며 수군수군 하므로 그를 또 한 번 죽이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결코 그를 배반하며 대적하여 더 이상 그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도록 좌절과 절망을 그에게 줘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빈약한 자이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징계를 받아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의 사랑과 은혜, 긍휼하심에 힘입어 우리 또한 빈약한 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축복, 보호의 축복, 치유의 축복 그리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의 사랑으로 빈약한 자를 사랑하기를 기원하면서)

제 42편: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42편]

사탄의 경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그리고 자만심과 같은 물건을 팔기 위해 소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상품 진열대 한 쪽 편에 "세일하지 않음" 이라는 낡아 빠진 꼬리표를 단 물건이 있었습니다. 사탄에게 왜 이 물건은 세일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사탄은 "다른 물건들은 충분한 여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유용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건 없이 나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 일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물건은 "낙심"이라는 것이죠"라고 대답했습니다”(인터넷). 참으로 이 사탄의 무기인 “낙심”은 우리 신앙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심이란 무엇입니까? 낙심은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강준민). 다시 말하면, 낙심이란 기가 꺾인 상태입니다. 낙심을 낙망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낙망이란 소망이 떨어졌음을 뜻합니다. 낙심 대신에 낙담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낙담이란 담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낙담이란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낙심이 꿈을 성취하는 사람의 적이 되는 것은 포기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주위에 참으로 낙심하고 낙담하며 낙망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생각해 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비전이 보이지 않고 참으로 희망찬 새해가 아닌 낙망과 절망케 하는 이런 저런 일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난관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난관에 처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난관에 축복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난관에 축복은 무엇입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한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 난관의 축복은 우리는 난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는 난관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2) 난관의 축복은 우리는 난관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어느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불평은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참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감사할 조건이 없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선물로 받은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3) 난관의 축복은 우리는 난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붙잡다가도 난관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고난이 더욱더 크면 클수록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좇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 난관의 축복은 우리는 난관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벽기도회 시간에 주신 창세기 18장 14절인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모하며 기대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시편 42편에서 난관에 처한 시편 기자를 봅니다. 그는 난관에 처했을 때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이겨 나아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5, 11절).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라!”는 제목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 한 2가지로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낙망하지 않고 갈망합니다.

성경 시편 42편을 보면 “낙망”이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5, 6, 11절). 왜 시편 기자는 낙망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낙심할 만한 역경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그 낙심할 만한 역경이란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므로 난관에 봉착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 난관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을 바로 시편 기자의 원수들의 압제였습니다(9절). 그리고 그 압제란 다름 아닌 시편 기자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였습니다(3, 9절). 결국 시편 기자는 이러한 원수들의 지속적인 비방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였을 뿐만 아니라(3절)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으셨다는 생각까지 하였습니다(9절).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충분히 낙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므로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가 오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다가 지쳐 낙망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그 구원의 손길이 더딘 가운데 오히려 원수들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3절)라는 비방이나 조롱을 지속적으로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충분히 낙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낙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낙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패턴을 경계해야 합니다: 범죄 → 하나님의 징계 → 고난 → 낙망 → 불신.

우리는 낙망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시편 42편에서 가르쳐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2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뵈옵고.” 시편 기자는 낙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였는데 그의 갈망은 어떻게 표현되었나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 하니이다”(1절). 이러한 갈급함은 시편 기자가 낙망한 가운데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인간의 철저한 무기력함과 무가치한 존재를 깊이 인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충만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갈망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나우웬).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시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5, 11절)라고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과거에 종교적 지도자 격으로 활동한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상심하였습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그는 현재에 하나님께서 떠나신 듯한 고난에 처하고 보니,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남들까지 주님께로 인도하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마음이 더욱더 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역경 속에서 낙망한 가운데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이때에 시편 기자는 주님을 기억하였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다.” 낙심될 때에 낙심을 기르지 말고, 즉시 그것의 방비책을 취함이 지혜입니다(박윤선). 그 방비책은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웬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란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일들, 그렇게도 잊어 버리려고 애쓰는 상처 입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꼭꼭 마음 깊은 속에 숨겨 두고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보이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이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 자신에게서도 잊어진 듯 하겠지만 결국은 또 다른 고통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각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다시금 그 기억들을 눌러서라도 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할수록 상처만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상처와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직면하는 용기 있는 자만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닫힌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만 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도 마음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악 된 본능입니다. '진정한 치유의 과정은 나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다시금 기억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끊임없이 연결하는 것입니다'(나우웬).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되 주님의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끊임없이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8절을 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차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케 할 줄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고 말씀하신 가르침을 순종하였습니다(눅18:1). 그럼 그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 시편 기자는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했습니다[(시42:9)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2) 시편 기자는 자기 원수의 비방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습니다(10절).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괴로움이 오래가면 갈수록 우리는 낙망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5, 11절). 우리는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일을 기억하기보다 주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의 십자가의 고통에 우리의 고통을 끊임없이 연결하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의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누려야 합니다(빌1:29). 그러므로 우리는 낙망하지 않고 불안하여 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그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 말씀을 내 영혼에게 선포하며 나아가므로 낙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움을 받기를 기원하면서,

쉽게 낙망했던 제임스 목사 나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제 42편: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시편 42편 5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문을 갖는 것 중 하나는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입니다. 특히 우리는 악인은 형통한데 왜 우리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들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낙망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입니다. 특히 이 질문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 주위에 비신자들이 우리에게 던질 때 우리는 충분히 낙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질문을 우리를 괴롭히고 업신여기며 핍박하는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에게 던질 때 우리는 불안해하며 충분히 낙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3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낙망하였고 그는 불안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기자가 그의 대적들과 원수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을 때(9절) 그들이 시편 기자를 비방하여(10절) 종일 그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3, 10절). 그 때 시편 기자는 낙망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다(2절).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다(1절).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로 하여금 낙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면서(6절)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8절). 그리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5, 11, 시 43:5).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의 낙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갈망 속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편 기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케 하셨습니다(5, 11; 43:5). 이 얼마나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어진 우리의 고통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점이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의 인내에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원수의 말인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를 경계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그 말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과연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의문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불안해하며 낙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망할지라도 우리는 이 낙망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낙망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낙망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소망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어느 한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준비한 후)

제 43편: “나의 극락의 하나님”

[시편 43편]

찰스 스윈돌 목사님에 의하면 기쁨을 빼앗는 요인 중 오늘날 가장 심각한 것이 셋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근심, 둘째는 스트레스, 셋째는 두려움. 이들은 모두 엇비슷해 보이지만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근심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터무니없는 염려’입니다. 사건의 결말을 기다리는 동안 근심은 서서히 효력을 드러내는 산(酸)처럼 기쁨을 부식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스트레스는 근심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변화시키거나 조정할 수 없는 상황, 즉 우리 통제 밖에 있는 것에 대해 심하게 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대신 우리는 마음에 동요를 일으킵니다. 지속되는 마음의 동요 속에 스트레스는 가중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두려움은 근심이나 스트레스보다 더 심각합니다. 위험, 불행 또는 고통이 있을 때 느끼는 무서운 불안정감입니다. 근심이나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은 어떤 일을 사실보다 과장시킵니다. 기쁨을 빼앗는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스윈돌).

저와 여러분은 어떨습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이 세 가지 요소인 근심과 스트레스와 두려움들을 이겨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모두 스바냐 3장17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근심과 스트레스, 두려움 같은 것을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안에 근심과 스트레스와 두려움 같은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43편 4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란 “내가 기뻐하는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자기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은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은 그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43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성경 사도행전 12장 1-19절을 보면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 나오게 하신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헤롯왕이 베드로를 철통같이 지키도록 하였었지만 주님의 구원의 능력 앞에서는 그 모든 쇠사슬이나 군사들 및 감옥, 쇠문 등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헤롯왕과 불신자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에서 베드로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행12:11).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교회의 간절하고 지속적이며 함께 기도한 것이 온전한 믿음의 기도와 기대가 아니었을지라도 주님께서서는 그의 주권적인 뜻인 베드로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후 내세울게 뭐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기도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인데 우리가 내세울 공로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들로써 찬송가 474장 찬양의 후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참으로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 그리고 최악 된 일이 많은 세상인데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기가 쉽지 않고 또한 쉬는 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참 죽을 일 쌓인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평안히 쉴 수있는 것은 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기도로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고소하는지 1절에서 한 두 문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구는 “경건치 아니한 나라”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자비한 나라”로서 존 칼빈에 의하면 이것은 “이방적인 불신앙으로 통하여 다윗을 핍박한 사울과 그 정권을 가리킨 듯하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박윤선). 두 번째 문구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입니다. 시편 기자는 무가내하한 악인인 간사하고 불의한 자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악인들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경건치 아니하였던 자들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을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주님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저런 삶 속에 예기치 못한 어려운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사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자기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은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은 그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43편 2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어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편 기자는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악인들의 압제와 핍박으로 인해 고통 중에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자기를 버리셨는지 자신의 솔직한 느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 어찌하여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간절함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 “어찌하여”, 즉 “왜”(why?)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지 않았는가라는 느낌 가운데 “왜”라는 질문은 우리 또한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의 “어찌하여”라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원망에서 나온 기도라기보다 “벌써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것과 같은 신념에서 나온 것”입니다(박윤선).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힘”이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힘” 그리고 영어로는 “strength”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 “마우즈”는 실상 “피난처”를 의미합니다(박윤선). 시편 기자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2절). 그는 비록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고통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난처가 되심을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피하여 주시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시편 기자처럼 “어찌하여”, 즉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역경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을 때에 우리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왜?”라는 질문식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의 영혼이 낙망하며 불안하였습니다(5절). 그 때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힘으로 다시금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이미 목상한 시편 18편 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이 없어 철저히 무기력함을 깨달아 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므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다시금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는 신앙인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주님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였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자기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은 이유는 주님은 그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43편 3절을 보십시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그의 원수들의 간사하고 불의한 행동으로 인하여 낙망하고 불안하고 있었을 때에 그 마음의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의 빛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그 어두움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낙망하며 불안해하는 가운데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 어두움에 익숙해 져 가면서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바랄 볼 수 있는 힘(혹은 믿음)조차도 상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그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두움 속에서 빠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김없이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이행의 신실성을 가리킵니다(박윤선). 곧, 시편 기자는 어두운 고통의 터널 안에서 빛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였는데 특히 그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는 빛 되시며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자기를 주님의 성산과 장막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3절).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는 거하길 원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므로 결국은 “깊음 속 가운데” (3절) 물고기 안에 있었던 요나 선지자는 다시금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9절).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어서 새 힘을 주시므로 오늘도 우리를 약속의 땅이 저 높을 곳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극락의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낙망하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힘(피난처)과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해야 합니다.

“나의 극락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나의 구원자, 나의 힘,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 43편: 낙망과 불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시편 43편 5절).**

사람이 낙망하며 불안해하는 이유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낙망하며 불안해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면 자녀들은 낙망, 아니 절망하며 그 속에서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시편 43편에서 시편 기자가 낙망하며 불안해하였던 이유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어 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2절). “간사하고 불의한 자”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었던 시편 기자(1절), 그는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2절). 그러한 고난과 슬픔 속에서 그의 힘이 되신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계시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었기에 그는 낙망하고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더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낙망하고 불안해하였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3절). 시편 기자는 그의

원수들의 간사하고 불의한 행동으로 인하여 낙망하고 불안하고 있었을 때에 그 마음의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의 빛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길 원했습니다(4절). 그리고 그는 그 극락의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낙망하며 불안해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견지심이 더딜 때에 우리는 낙망하며 불안해합니다. 특히 “나의 힘이 되신”(2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경건치 아니하고 간사하고 불의한(1절) 원수의 압제(2절)에게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고 계시다는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절망까지 하며 마음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자신의 영혼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5절). 낙망하며 불안해하는 영혼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더 이상 낙망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낙망하고 불안해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낙망과 불안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낙망과 절망 속에서 불안 속에 허덕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자로 세움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제 44편: 주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

[시편 44편 1-8절]

이스라엘의 행정수도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하얀 건물 안 벽에 세 줄의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 세 줄의 글은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하라”라고 합니다. 이 세 마디의 말 속에서 저는 시편 기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는 계속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종 시편 기자는 현재의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과거를 기억하며 뒤돌아보면서 미래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도 과거를 기억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 44편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르매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는 과거의 하나님께서 자기 열조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기의 귀로 들었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옛날”의 일은 바로 놀라운 구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 5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오늘 본문 시편 44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 신명기 말씀처럼 옛날 그의 열조의 날에 있었던 출애굽 당시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애굽에서의 출애굽보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편 44편 1-8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이란 제목을 걸고 과거에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한 3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가나안 족속을 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번성케 하시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4편 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 인솔아래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을 식목에 비유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을 식목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은 나무로 비유하면서 그 나무를 잘 가꾸어서 번성하게 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양육하시고 왕성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란 나무를 심기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자라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라는 잡초들을 뿌리째 뽑아버리시고 그 곳에 이스라엘이란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도록 가꾸시는 가운데 많은 열매, 즉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사무엘하 7장10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 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는 “그 농부”(1절), 가지인 우리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듯이(5절),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을 심으시고 번성케 하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를 뽑으시며 또한 심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를 뽑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독초”와 같은 쓴 뿌리(신29:18)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범하게 만듦으로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성경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도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어도 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 쓴 뿌리를 뽑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게 하시사 그 안에서 세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6-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둘째로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왜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연고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4편 3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을 때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팔”) 그리고 무기, 군대 (“칼”)로 이긴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습니다(3절). 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사야 5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고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스라엘이 의로운 까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 뜻대로 이스라엘에게 무조건적 호의를 가지신 까닭이었습니다(박윤선). 성경 신명기 7장7-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 하셨나니.”

마지막 셋째로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자의 어떻게 행하는가?’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과거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자는 한 3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1) 그는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4편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시편 기자는 주님만이 자신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시편 기자처럼 과거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간구해야 합니다.

(2) 그는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4편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시편 기자는 과거의 주님을 의지하여 구원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6절). 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 자기 자신의 활이나 칼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아는 신앙... 그는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44편 7절 말씀이 이 질문을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3) 종일 주님을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4편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6절) 겸손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를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박윤선).

저는 “주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아주 먼 옛날”이란 복음성가가 생각났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유희성 형제와 성남신 자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지성 아기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지성 아기를 제 과거의 첫째 아기였던 주영이를 기억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제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주영이를 그 이름 의미 그대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 그때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지성 아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먼 옛날”이란 복음성가 가사를 지성 아기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아주 먼 옛날, 지성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성이를 향한 계획이 있었단다. 하나님께서 지성이를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단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지성이를 창조하였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성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시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성이를 사랑하고 계시단다. 그러므로 나는 지성이에게 고백한다: 사랑한다 지성아. 축복한다 지성아. 너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린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제 첫째 아기인 주영이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지성 아기에게도 그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사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호성 형제와 남신 자매, 그리고 지성 아기를 생각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한 후)

제 44편: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시편 44편 9-26절]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부여하여 새로운 목표를 정한 후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힘쓰고 있을 때 예기치 않는 어려운 일들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인디언들에게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디언들은 1월을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은 1월을 새로운 출발의 의미보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달로 여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다뉴브 강을 헤엄쳐 건너는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강 중심의 소용돌이 지역인데 수많은 선수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경기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소용돌이 지점에서는 아무리 수영을 잘 하는 사람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빨려든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기진맥진하여 경기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련한 선수들은 소용돌이를 잘 극복해낸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즉, 프로들은 소용돌이에 잠시 몸을 그대로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센 물결이 사람의 몸을 한껏 빨아들었다가 수면 위로 되돌려놓는다고 합니다. 잠시 가만히 있는 것이 소용돌이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올해도 인생의 소용돌이를 만날 것입니다. 이미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삶의 제 자리로 옮겨놓으실 것입니다.

성경 구약 다니엘서를 보면 인생의 소용돌이를 만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에도 굴복하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극력히 타는 풀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이들은 비록 풀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담대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습니다(단3:18).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다 맡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의 인생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44편 9-26절을 보면 우리는 시편 기자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인생의 소용돌이를 만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 하였나이다”(시44:17).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인생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입니다.

성경 시편 44편 17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기자와 그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모든 일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한다면 환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원인은 주님께서 시편 기자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9절). 여기서 “버려”라는 말은 미워하여 내버림을 가리킵니다(칼빈). 즉,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자기와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여 내어버리셨기 때문에 자기와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사실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과정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이유는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였습니다(3절). 그 하나님께서 왜 지금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절하시고 버리시겠습니까? 이것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시편 기자 자신의 느낌을 적은 것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시편 44편 9절서부터 현실에 당면한 개인적 고난과 민족적 환난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그 환난의 원인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여 내버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리신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박윤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그의 권능으로 구원하셨었는데 어찌하여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두시는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시편기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리셨다고 생각한 이유가 한 2가지 있습니다.

(1) 전쟁에서의 패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4편 10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로 더불어 싸우다가 패배하여 돌아섰고 따라서 그들은 탈취를 당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즉,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니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정복당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압박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4편 11-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압박을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a)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힐 양처럼 어떤 사람들은 살륙 당했다는 것(11절)(박윤선), (b)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여 원수들의 무가치하게 포로가 되어 외국으로 이끌려간 것(11절 후반 절-12절)(박윤선), 그리고 (c) 포로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들에게 비방을 받고 능욕을 당하였다는 것. 오늘 본문 시편 44편 13-1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 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을 당케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함이요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연고니이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패전 국가는 승전 국가 앞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는 법입니다(박윤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가 되어 외국으로 끌려가서 온갖 비방과 능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둘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지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입니다.

성경 시편 44편 17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잊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언약 또한 어기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온갖 비방과 능욕, 고난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들은 주님을 잊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과 맺은 약속 (언약) 또한 어기지 않았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모든 고난이 와도 변하지 않는 신앙은 귀하다. 약한 신자들은 핍박이 올 때에 불의와 타협하고 죄를 범할지언정 고난은 면하려 한다. 그러나 충성된 자들은 그런 때에도 굳게 서서 동요치 않는다”(박윤선).

구체적으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3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4편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시편 기자는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유복한 영적 생활을 하였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혹 평안한 환경에 처한 자들이 행복된 것 같으나, 그들의 영적 생활은 해이해지는 법이다”(박윤선). 그러나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풍요로운 영적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순결이 얼마나 경건한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 절개가 깨끗하였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폄대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20-21절). 그는 마음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경건이 순결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2)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4편2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위하여’ 애매하게 핍박 자들의 수중에서 고난당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겨서 주님의 진리에서 탈선했을 것이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지도 않고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10절을 보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1:29). 오늘 본문 시편 44편의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고난이 자기들에게 임하였지만 주님을 잊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3)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4편 23-24절을 보십시오: “주여 개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 기도 내용을 보면 꼭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과 더불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고난 중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는지, 잊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고난 상태를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구푸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25절)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26절).

우리 주위에 예기치 않는 인생의 소용돌이에서 고생하며 힘들어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그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임하였을 찌라도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언약을 어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리(말씀)에서 탈선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그의 구원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시사 온갖 고난과 능욕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인생의 소용돌이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제 45편: 필객의 붓과 같은 혀

[시편 45편]

“인간의 모든 지체 가운데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지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 치 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혀를 제어하기 위해 자연적인 방어 장치 두 개를 주셨습니다. 바로 치아와 입술입니다. 만일 나쁜 말이나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는 이빨로 혀를 깨물어야 합니다. 또한 혀가 치아를 뚫고 나올 때에는 입술을 다물어야 합니다. 꼭 다물어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어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세 치 혀로 인해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술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입술로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이 독설을 내뱉는다면 그것은 전도의 문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혀에 숨어 있는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세워야 할 덕입니다”(인터넷).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사50:4).

오늘 성경 시편 45편의 시편 기자는 자기의 혀를 가리켜 “필객의 붓과 같”다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에서 넘치는 “좋은 말”로 인하여 왕에 대하여 시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절).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그 왕의 위대한 모습에 취하여 자기의 준비된 입술을 기묘하게 사용하여 그 왕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세 가지로 묵상하면서 왕을 향한 우리의 자세 또한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의 첫 번째 고백은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우십니다’입니다.

성경 시편 45편 2절을 보십시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필객의 붓과 같은 혀로 왕을 칭송함에 있어서 묘사하기를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용모보다 그 덕행이 우수함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용모보다 덕행이 우수한 왕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2절). 이것은, 왕의 지혜로운 통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로써 지모가 있는 왕으로써 백성을 옳게 다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찬송가 87장 1절과 후렴이 생각납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웃은 참 아름다와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되도다 시온성 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님.” 저는 제 입술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어떻게 들어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할 때 저는 헨리 나우웬의 “공홀”이란 책에서 본 “하향성의 삶”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다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하향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들 좀 더 나은 삶, 좀 더 많은 월급, 좀 더 명예로운 지위를 얻으려고 아등바등한데 우리는 예수님의 하향성의 삶을 이 땅에 재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낮은 곳, 추한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우웬은 하나님의 공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공홀은 상향성의 삶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정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공홀은 직접 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들어가 거기에 자리 잡는 것이다. … (하나님의) … 공홀은 세상에서 가장 잊혀진 곳으로 계속 다가가시는 분의 공홀이며, 아직도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 이상 편안히 쉬실 수 없는 분의

금흠이다”(나우웬).

우리는 성경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세상 적 아름다움을 추구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아름다움은 “상향성의 삶”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삶은 “하향성의 삶”이셨기 때문입니다(나우웬).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향성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들어내는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시45:2).

시편 기자의 두 번째 고백은 ‘왕은 승리자이십니다’입니다.

성경 시편 45편 4절을 보십시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하는 왕을 봅니다. 그 전쟁 목적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진실과 겸손한 의”)입니다(4절). 이것을 위하여 시편 기자는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라고 축원하고 있습니다(4절). 이 축원은 그가 왕을 승리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 영영히 복을 받고 있는 왕은 군마를 타고 전쟁에 출전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오른손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연출하시는 것입니다(박윤선). 그래서 시편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영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5절). 무적의 장군으로 묘사된 왕은 전쟁에 나가서 왕의 원수의 영통을 뚫습니다. 이 승리의 왕은

바로 만군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승리자이십니다 (계19:11-21) (박윤선).

성경 신명기 20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란 말씀이 있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15:57). 우리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서는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냐는 질문을 던져 봐야 합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55-56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의 쏘는 죄를 이기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삶의 비결은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31절). 우리는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해야 합니다(9:27).

시편 기자의 세 번째 고백은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입니다.

성경 시편 45편 7절을 보십시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승리하신 주님은 그의 왕국을 건설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왕국이 영영한 것은

주님의 왕권은 “공평”이기 때문입니다(6절). 하나님의 왕국(나라)가 공평한 이유는 왕이신 주님께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7절). 그러기에 그분의 왕국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11장 1-5절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리스도 중심된 일꾼을 세워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는 주님처럼 공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미가 6장 8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 45편에 나오는 왕처럼 정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주님이시며 승리자이시며 또한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 신자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우리는 이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주님만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5편 10절을 보십시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기서 시편기자는 왕후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후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수 있는 신자를 비유하는 것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 신자의 태도는 자기 백성과 아버지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곧, 그는 이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주님만 사모해야 합니다(박윤선).

(2) 우리는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5편 11절을 보십시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자를 아름답게 보시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신자는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경배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발견하십니다. 신자의 아름다움은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순종합니다. 그는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예배의 삶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적 자손을 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여기서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는 말씀은 비유로서 그 뜻은 “신자는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영적 자손들을 본다”는 말씀입니다(박윤선). 우리 신자들의 책임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 전파하라는 뜻에 순종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다 될 것입니다(계5:10)(박윤선).

(3)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5편 15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왕궁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여기서 “왕의 딸”도 우리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써 시편 기자는 우리 신자들이 왕궁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아 왕궁에서 “모든 영화”를 누릴 것을 말합니다(13-15절).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왕궁에 들어가는 소망 가운데서 하향성의 삶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구 싶은 마음으로,

제임스 목사 나눔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길 기원하면서)

제 45편: 필객의 붓과 같은 혀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시편 45편 1절).

저희 집 거실 벽에는 큰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 큰 액자 안에는 붓글씨로 쓴 한문 네 글자가 적혀 있는데 그 네 글자는 바로 ‘기도만능’입니다. 물론 저희 부부는 한문을 모릅니다. 그 한문의 의미가 “기도만능”이란 사실도 어느 어르신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붓글씨로 쓴 “기도만능”이란 글은 저희 부부가 결혼 선물로 저희 아버님의 친구 목사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그 아버님 친구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선박 선교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젠가 그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을 때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것을 말씀해 주신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 때 그 선교사님께서서는 차를 운전할 때 “D”에다 놓으면 앞으로 가는 것이고 “R”에다가 놓으면 뒤로 가면 되는 것이며 또한 “P”에 다가놓으면 차를 주차하듯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앞으로 가면 되고 뒤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뒤로 가면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멈추어 서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서면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라고 명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라고 하시면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라 하면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됴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멈추어 서서 잠잠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선교사님께서서 정성껏 써주신 “기도만능”이란 붓글씨를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볼 때 분명히 그 선교사님께서서는 기도 만능이란 사실을 믿고 계시고 또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기에

저희 부부에게 그 귀한 글을 써 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45편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기도 만능”이라고 써 주신 선교사님의 붓글씨가 생각난 것은 그 글도 중요하지만 그 글을 쓴 분의 기도 만능에 대한 확신과 또한 기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붓글씨 자체보다 그 붓글씨를 쓰신 선교사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필객의 붓과 같은 우리 혀도 중요하지만 그 혀를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혀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사랑이 넘치면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혀를 통하여 나올 것이지만 만일 우리 마음에 미움이 싹터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 혀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미움의 소리일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 미움이 있어도 혀로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거짓을 말할 수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혀로도 미움의 소리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필객의 붓과 같은 내 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혀의 소유자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한 2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필객의 붓과 같은 혀의 소유자의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성경 시편 45편 1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라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이면 좋은 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좋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좋은”이란 영문 단어 “noble”를 생각할 때 잠언 31장10절부터 나오는 “현숙한 여인”(A wife of noble character)이 생각났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26절)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현숙한 여인은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애(사랑)를 느끼고 경험하고 있기에 그녀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면(시34:8) 우리는 우리의 혀로 좋은 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선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아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이 태평하고 좋은 일만 생길 때 “좋으신 하나님”이란 복음성가를 찬양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몰아닥칠 때 그 찬양이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끊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상황을 초월하여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간에 시편 기자처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23:6)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는 믿음 가운데(롬8:28)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은 좋은 말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필객의 붓과 같은 혀의 소유자의 마음은 ‘은혜의 마음’입니다.

성경 시편 45편 2절을 보십시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왕이나 우리 성도들의 입술은 은혜스러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선 다른 이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전15:10)임을 알고 있고 그 은혜로 충만해 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골4:6).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마15:11)고 말씀하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18절)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 또한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마음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그리고 넓게 알아가는 자들로서 은혜의 마음에서 은혜스러운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흘러 나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로서 우리는 좋은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을 통하여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필객의 붓과 같은 우리 혀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은혜가 나타나길 기원합니다.

혀보다 내 마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하길 원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마음으로 깨달아 입술로 전파하길 기원하면서)

제 46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기대 속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영성 생활의 토대이다”(시몬 와일). 헨리 나우웬은 그의 책 “고독의 영성”에서 “기대의 어머니는 인내”라고 말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롭게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울음과 애통이 정화를 위한 준비물이 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는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인내가 우리 기대들을 자라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속명은 소명으로, 상처는 더 깊은 이해를 위한 부르심으로, 슬픔은 기쁨의 발상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환경이나 상황들은 우리를 단련시킴에 있어도 용광로와 같은 도구입니다. 그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빛어지는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인내”입니다. 마이클 몰리노스란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한 영혼의 정화는 인내를 낳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사랑과 자비 같은 최고의 성품들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자아를 전멸시키고 정화시킵니다. 세상의 것을 가져다가 천상의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내버려두실 때만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때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기치 않는 일들이 마치 바다에 폭풍처럼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사업, 교회에 몰아닥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 시편 46편 말씀 중심으로 한 두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풍랑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46편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셀라).” 이것은, 세계의 기초까지 흔들리는 가장 두려운 현상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이렇게까지 흔들리게 하는 두려운 현상이 우리 삶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의 기초까지 흔들리게 하는 가장 두려운 일들은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은 외부에서 강력한 도전이 닥쳐 올 때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힘센 도전이 엄습할 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란 밖으로부터 오는 도전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도전입니다. 그 도전이란 다름 아닌 외로움입니다. 혼자 된 느낌입니다. 모두로부터 끊어진 나, 이야기할 상대도 없고 하늘도 없고 땅도 없는, 내버려진 홀로의 존재입니다. 외로움, 혼자 버려진 채로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사람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 두려움의 최고봉이라고,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인터넷).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홀로 되었다는 느낌...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 잠재된 무의식적인 두려움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1)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고 주저하게 만들어 결국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2) 두려움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거절당하기를 두려워해서 가면을 쓰고 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가장하고 실제 감정을 부정합니다. (3) 두려움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방해합니다. 행복한 동시에 두려울 수는 없습니다. (4) 두려움은 우리의 성공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일어날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두려워하는 일이 발생할 것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실패를 준비합니다.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게 합니다.

성경 신명기 1장 29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 신명기 1장 30-31절은 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신명기 1장30절을 보십시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2)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신명기 1장 31절을 보십시오: “광야에 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앞서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1-6절에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한 3가지로 이겨 나아간 것을 우리는 이미 목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두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에 한 3가지로 적용하고자 도전했습니다:

(1) 우리는 오히려 안연(담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의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빛, 구원,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담대해야 합니다. 과거의 구원(승리)의 은총을 묵상하면서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므로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2)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십시오. 그의 얼굴을 바라보므로 마음의 평안, 그의 보호하심, 승리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3)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자로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기초까지 흔들리는 가장 두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 말씀처럼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요동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잠잠히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도록 우리는 마음을 분주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결국 마음의 침묵은 입의 침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압바 포에멘(Abba Poemen)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없이 있을 때 그가 침묵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단죄하고 있으면 그는 끊임없이 지껄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야기 하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는 참으로 침묵하고 있다”(인터넷).

우리가 침묵 속에서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46편 10절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한 4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1절, 7절,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11절). 시편 기자는 세상이 다 요동하고 흔들리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피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서 “한 시내”란 “구원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는 말씀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은 기쁨의 장소가 됩니다(박윤선). 곧, 시편 기자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소로 피한 이유는 그곳이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기쁨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7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11절). 성경 신명기 1장4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면 전쟁에서 승리,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패한다는 진리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3)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 우리가 이미 묵상한 시편 18편1절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물맷돌 한 개를 가지고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하신 이는 과연 힘이시다. 죄의 힘이 강하나, 그것보다 강한 힘은 하나님이시다.”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나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또는 무능력함을 느낍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됩니다.

(4)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1절과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1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매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5절).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는 “환난 중에 도움으로 철저히 증험된 분이시다”라고 번역됩니다(박윤선). 우리는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참으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실지로 경험하셨습니다? 검증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환난 중에 도와주시는 …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큰 도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5절). 어두운 밤과 반대되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말씀은 구원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으로써(박윤선)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사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말씀은 “급속히 도와주심을 의미”합니다(박윤선). 그 예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와 있는 앓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 파멸된 사실이, 이른 아침에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일에 착수하기도 전에(비유컨대 이른 아침에) 그 해결된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박윤선).

아비 독수리는 높은 곳에 만들어진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때가 되면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먼저 가시를 물어와 보금자리에 넣고 그 위에서 날개를 너풀거린다고 합니다. 가시에 찔린 새끼 독수리들은 자리를 어지럽히고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아비 독수리를 따라 날개를 펼럭 거리며 날아봅니다. 그러나 날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여지없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비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날개 위에 얹는다고 합니다(인터넷).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힘이 없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아비 독수리라 날개를 펴서 자기를 받아 자신의 날개 위에 얹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오히려 안연(담대)하지 않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새끼 독수리는 보금자리에서 나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야 아비 독수리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물며 아비 독수리가 이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힘,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목사 나눔

(고통 중에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한 후)

제 47편: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시편 47편]

찬송을 흔히 세 가지의 힘으로 말한다고 합니다(인터넷): 첫째로, 찬양은 “위로 올라가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주님 가까이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는 찬송은 위로 올라가는 힘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힘으로서의 찬송을 '신앙의 길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찬양은 “나의 가슴속으로 파고드는 힘”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와 회개와 기쁨과 결심과 용기를 일으켜 주는 찬송은 우리 가슴속으로 파고드는 힘입니다. 우리 속으로 들어와 기쁨과 용기를 주는 찬송은 소망을 향한 길잡이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찬양은 “밖으로 뻗어 가는 힘”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찬송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길잡이' 역할인데 이것이 밖으로 뻗어 가는 힘입니다. 찬송은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우울할 때 마음을 위로해 주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며, 지저분한 생각들을 정돈해 줍니다. 예배시간에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이며 예배의 감격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면 열심히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힘”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 시편 47편에서 한 3가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찬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47편 2절 말씀과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지존하신 여호와와는 엄위하시고
은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2절), “...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임이요 저는
지존하시도다”(9절하). 여기서 지존하신 하나님이란 무슨 말씀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또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더 없이 존귀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극히(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두려움)의 대상이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에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경외심보다
너무 자유분방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므로 말미암아 우리 멋대로, 편안대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낮고 낮은 자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과연 지존하신 하나님께 드러지는 찬양이 과연 이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높이는 (들어내는) 찬양입니까? 웬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며”(출32:6) 노래하며 춤추며(19절) “뛰놀더라”(6절)는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혹시나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마시며
노래하며 춤추는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흥왕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즉, 이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들은 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작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저는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이 생각납니다. 특히 그 찬송가 후렴이 생각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47편 4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셀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기업, 즉 “야곱의 영화”인 가나안(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그 대상이 된 자에게 지극한 사랑입니다(박윤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엡1:3-4).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12절). 이 말씀을 직역하면 우리 선택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박윤선). 우리가 구속을 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5절). 생각나는 찬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404장 1절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용서 하셨네”, (후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47편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큰 임금”이 되신 하나님(2절), 그는 “온 땅에 왕”이신 하나님(7절)께서는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8절) 우리는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6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9절).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되 “지혜의 시”로 찬양해야 합니다(7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 근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 근거하지 못한 감정적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라기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찬양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복음서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시편 47편 말씀 목상을 정리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은 찬송가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의”입니다. 로버트 로우리(1826~1899)란 사람이 작사, 작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작시 원문은 이렇다고 합니다: (1절) '끊임없는 노래 속에서 나의 생명은 흐르도다/ 이땅의 슬픔 위로 새 창조를 환호하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찬송을, 울려나는 음악소리 들노라/ 그 소리 내 영혼 속에서 메아리치리니 이 어찌 찬양하지 않으리!'; (2절) '나의 기쁨과 위안 사라진다 한들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니 어찌하리/ 그가 어둔 밤에 노래 주시니 어두움이 나를 둘러싼들 어찌하리/ 주님의 피난처에 숨어 있으니 폭풍우인들 내 영혼 깊은 곳의 평온을 흔들 수 없도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주시니, 나 어찌 찬양하지 않으리!'. 이 작시 원문을 읽으면서 “끊임없는 노래 속에서 나의 생명이 흐르도다”라는 가사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찬양은 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에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제임스 목사 나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지혜로운 찬양자로 세움을 받기를 기원하면서)

제 48편: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편 48편]

지난 과거를 뒤돌아 볼 때 여러분이 겪었던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직도 마음 깊이 기억하고 있는 그 때 그 순간,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오늘 양로원에 가서 저희 교회 장을수 할머니를 만나서 함께 시간을 같이 보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저희 첫째 아기 주영이에 대해서 잠깐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기의 입장에 서지 못하고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아기를 병중에 더 고생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나중에서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에 대하여 장 할머니와 나누면서 인생은 시작보다 과정과 특히 끝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장 할머니와 나눴었습니다. 과거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현재의 위기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 “내주여 뜻대로”(431장)가 있습니다. 그 찬송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독일 전역이 30년간의 종교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 눈물의 기도를 드리던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핍박받는 신자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독일 전역에 흑사병이 나돌아 1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일은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어느 날 중병을 앓고 있는 한 신자의 가정을 심방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목사님 부부는 처참한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교회와 집이 불에 타 잿더미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은 서로 껴안은 채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안고 울면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내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은뎡과 영혼을 다주께 드리니/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사람의 이름은 벤자민 슈몰크 목사라고 합니다. 그때 올린 기도예 곡이 붙여진 것이 바로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고통과 시련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인터넷).

오늘 성경 시편 48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특히 14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본문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걸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4 가지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책임 또한 한 4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48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은 “큰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2절). 그러시기에 우리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 방식이 큰 것입니다(박윤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방식을 너무나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에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대로 구원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하던지 혹은 낙심하여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의 뜻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신 8:16).

언제가 저는 요셉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구원하시되 한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른 어려운 상황으로 구원해주시다가 결국은 13년이 지난 30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일을 묵상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방식대로 구원하시되 죽을뻔하다가 애굽의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하게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또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고… 고난에서 또 다른 고난으로 구원으로 받는 모습 … 그러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사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는 요셉 한 사람만 구원하시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를 고난에서 고난으로 인도하시다가 구원하시사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까?

우리, 명심하십시오. 우리 광대하신 하나님은 그의 큰 구원의 방식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던 아골 골짜기로 인도하시던 결국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48편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것처럼(2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견곤한 성이 되십니다(3절). 그리고 우리의 견고한 성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23:4).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시며 안위(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피난처”라고 알리셨습니다(48:3). 우리 하나님은 번번이 구원자로 나타나셔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두 번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시는 하나님에게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31:2-3).

셋째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48편 4-5절을 보십시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음이여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이 말씀은 외국의 임금들이 예루살렘에 침입하여 점령하려 했으나

안개처럼 지나가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때 침략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두려워하여 도망하였습니다(박윤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침략자들을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듯이 주님께서서는 열방들의 세력을 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적을 물리치시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신명기 20장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그래서 시편 기자도 자기 자신의 활이나 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적에게서 구원(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시44:6-7)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의 중국 선교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1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로 목사님을 위험한 순간 순간마다 건져주시는 소식을 접할 때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우리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48편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상선벌악의 공의를 어김없이 실행하시사 마침내 참된 신자의 억울함을

값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박윤선). 이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아릴 때에 정의가 총만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값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바로 저희 교회 히스패닉 사역 목사님이신 고메즈 목사님의 아들 경우입니다. 저는 한 2주전 고메즈 목사님에게 아드님 Victor Jr. 형제 고소 사건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차를 운전하다가 상대방이 차 사고를 냈나본데 그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하고도 오히려 고메즈 목사님의 아드님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상대방이 힘이 있는 정치인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사고 났을 때 보고를 작성했던 경찰도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여 차 사고를 낸 정치인의 편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메즈 목사님의 아드님이 관련된 일하는 회사에서도 고메즈 목사님의 아드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고메즈 목사님과 사모님이 참 많이 힘드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고메즈 목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하늘에서 불이 그 정치인과 거짓 보고를 한 경찰과 회사 사람에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2주전에 법정에서 판사는 고메즈 목사님의 아드님의 편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이긴 후 고메즈 목사님의 아드님의 변호사는 두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고메즈 목사님의 아드님이 법정에서 고생하는 동안 일을 못하고 있었으니 그 동안에 벌지 못한 돈을 상대방에서 내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을 고소해서 끝까지 그들이 거짓말한 것 등등을 법정에서 판결하도록 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메즈 목사님 얘기로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 여기서 참 놀라운 신앙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의가 총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억울함을 값아 주신다는 진리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상대방 정치인과 거짓말한 경찰 등을 고소할 수도 있는데 중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느낀 것은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즉 우리는 중단하고 멈출 때는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습니까? 그 이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복수를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총만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정의가 총만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정의가 충만한 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4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극진히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8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47:6).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좁은 감옥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하므로 말미암아 광대하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극진히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2) 우리는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8편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여기서 “생각하였나이다”라는 히브리어 “따맘”은 대망함을 의미합니다. 이 시인은, 환난 중에서 낙심하지 않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여 주님의 은혜를 대망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깨달았습니다(박윤선). 우리는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은혜를 대망해야 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대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3)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8편 11절을 보십시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기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으로 인하여 그의 구원을 경험하므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4) 우리는 후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8편 13절을 보십시오: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시온(예루살렘)에 계시므로 그곳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것을 자세히 보고 후대에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1세대들이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는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 후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므로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 6장6-7절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분은 우리의 원수를 대적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의가 충만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을 극진히 찬송해야 하며 그분의 전에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대망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후대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제 49편: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49편]

짐승이 사람보다 나은 것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치타는 사람보다 빠르고 기린은 사람보다 크고, 몸무게로 따진다면 일곱 사람이 코끼리 한 마리를 당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눈 밝기로는 매나 독수리가 사람의 눈보다 앞서며 냄새 맡는 코는 개가 사람보다 1만 배 이상 발달돼 있다고 합니다. 청각으로 말하자면 사람의 귀는 토끼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속에서 헤엄치기를 한다면 사람은 물개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짐승만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주신 것입니다. 양심은 도덕과 윤리의 기반입니다. 양심은 우리 안에 있어도 늘 하나님 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양심은 가책을 받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다운 사람, 짐승보다 나은 사람은 착한 양심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인터넷).

그러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지 않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도 없는 자입니다. 또한 짐승보다 못한 사람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49편 12절과 20절을 보면 사람이 “짐승 같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은 누구인지, 왜 그 사람이 어리석은지를 생각해보면서 또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15절)라고 확신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며 무슨 책임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

성경은 어떠한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2, 20절). 이 짐승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풍부함을 자랑(자극)합니다(6절). 그래서 이 짐승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항상 살 것 같이 꿈꾸면서 자기의 이름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냅니다(11절).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땅 위에서 이름을 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박윤선). 이렇게 이 세상 번영만을 생각하고 애쓰는 행위는 우매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무엇입니까? 한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됩니다.

- (1)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시편 49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가 죽으매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죽으면서 가지고 갈 수도 없는데 그 재물을 의지하며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어느 면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돈)을 우상화하여서 헛된 인생을 살다가 흠으로 돌아가는 헛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재물은 결국은 타인에게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 같은 사람은 우매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9편 10절을 보십시오: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우리가 이미 목상한 시편 39편 6절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 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결국 성경 말씀처럼 악인의 재물은 우리 의인들이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재물을 위해서 살면서 열심히 모아놓은 것이 결국은 죽을 때에 누가 취할지도 알지 못하니 그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3) 또 한 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7-9절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히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인간을 사망에서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속은 너무나 귀합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썩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많은 재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영국 엘리사벳(Elizabeth) 여왕이 임종 시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로 하여금 일촌의 광음을 더 살게 해 주는 자가 있으면 백만금을 주겠다”(박윤선).

우리는 이러한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을 질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

아삼은 시편 73편22-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삼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었는데(3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의 결국을 깨닫게 된 후(17절) 자기 자신의 우매 무지함과 주님 앞에서 짐승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22절). 그러나 그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었으므로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사(23절) 거의 미끄러질 뻔 하였지만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구속받는 정직한 자

짐승 같은 사람은 멸망하지만 구속받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영접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49편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속받는 정직한 자를 ‘영접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사후에 그 영혼을 그의 나라로 데려가심을 가리킵니다(박윤선). 멸망하는 짐승 같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재물에만 소망을 두지만 우리 성도들은 장차오는 세상인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짐승 같은 자들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9편 5절을 보십시오: “죄악이 나를 따라 에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기서 “죄악”이란 성도의 것이 아니고 그를 박해하는 자들의 악행과 포학을 말합니다(박윤선). 시편기자는 자기를 박해하는 악인들의 악행과 포학 가운데서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재물이나 풍부함으로도 자기들을 죽음에서 건질 수가 없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서 영생하였기 때문입니다(박윤선).

(2) 우리는 옳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불의의 길을 걸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9편 14절을 보십시오: “양 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여기서 “정직한 자”란 ‘옳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자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이 세상의 재물과 풍부함을 의지하면서 자긍하는 불의의 길을 걸어서는 아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옳은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3)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후에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9편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48:14). 지금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일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23:6)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장을수 할머니를 이번 주 화요일에 양로원에 가서 뵈었을 때 더욱신적으로 약해져 계셨지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뵈기를 간절히 기원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것을 최고로 감사히 여기시는 장 할머니는 의롭다하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따님으로써 저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고 계십니다. 제가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과 후렴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을 불렀을 때 함께 따라 부르셨던 장 할머니, 하나님께서 영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 할머니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함께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옳은 길을 걸기를 기원하면서)

제 49편: 재물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시편 49편 6-8절).

저는 어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쓰신 ‘경제적 두려움에서의 자유’(Freedom from Financial Fear)란 책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산 이유는 책 제목이 제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을 쓴 저자가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다 읽은 후 몇 가지 도전되는 점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경제(finance) 문제가 아니라 믿음(faith)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문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 결과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두려움으로 부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도 바치지 않고 있는데 재물이 풍성해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더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그리할 때 우리의 본능은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삼지 아니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시 52:7).

오늘 성경 시편 49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악한 원수들에게 포위”를 당하였는데(5절) 그 악한 원수들은 자기들의 재물을 의지하며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6절).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13절). 이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그 몸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7절).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8절). 자신들이 돈이 많아 그 어떤 것을 지불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8-9절). 또한 이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자기들의 속생각에 자기들의 집은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11절). 그들은 자신들이 죽으면 아무것도 무덤까지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17절).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 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10절). 그들은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만족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했다고 칭찬을 받을지라도 결국은 자기 조상들처럼 죽어 다시는 생명을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18-19절).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며 살았으면 뭐합니까?(20절) 사람들이 아무리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없는데 말입니다(12절). 결국 그들은 죽기로 작정되었으므로(14절) 다 죽을 것이요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할 것인데 말입니다(14절). 그들은 자신들의 무덤이 그들의 영원한 집이 되어 거기서 끝없이 머물게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11절).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습니다(12, 20절).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는 지혜와 명철(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3절).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접하여 자기의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15절). 그러므로 그는 우리 모두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2절).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돈을 모아 점점 부유해지고 그 집안의 명성이 높아갈 때 그런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16절).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깨달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게 구원하시고자 너무 엄청난 속량의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떠한 속량의 값을 치루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갈3:13).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히2:17, 시130:8).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골1:14).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고(롬3:24)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갈4:5). 이렇게 우리는 돈 없이 속량되었습니다(사52:3).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량하시사 우리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시49:1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의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52:7).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시62:10) 오히려 마음을 주님께 받쳐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지혜와 깨달음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제 49편: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시편 49편 12, 20절).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은 어리석은 자입니다(13절).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53:1).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합니다(52:7). 즉,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입니다(49:6). 이러한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세 가지로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왜 어리석은 것인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우리가 죽을 때 그 재물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49편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죽으매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떠나는 이 인생, 우리는 사람이 부해지는 것이나 그 사람의 집이 영광이 더할 때에 두려워하거나(16절)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참고: 시73). 그 이유는 죽을 때 그 사람이 그의 부함과 영광을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49:17). 비록 그가 살아 생전에는 자기 스스로 ‘나는 참 복 받은 자이다’, ‘나는 참 성공한 자이다’라고 축하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지라도(18절) 결국에는 죽을 때 그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이기에(19절) 우리는 재물을 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둘째로,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우리가 죽을 때 그 재물
은 남에게 남겨 두고 떠나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9편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
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 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우리는 악인
의 형통을 부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풍부한 재물을 욕심낼 필요가 없습
니다. 그 이유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잠13:22). 그
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재물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27:24).
재물은 허무한 것입니다(23:5). 정년 그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기에 우리는 헛된 재물에 주목하지 말아야 합니다(5절). 우리는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재물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49편 7-8절을 보십시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
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
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인간을 사망에서 구속할 수는 없습
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속은 너무나 귀합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썩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많은 재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재
물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할 수 없기에 우리는 재물을 의지해서는 아니됩니다.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은 우매 무지합니다(시73:22). 그리고 우매 무지한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합니다(3절). 마음의 소원보다 많은 오만한 악인의 소득(7절)과 더욱 불어나는 그의 재물을 보고(12절)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은 종일 재난을 당하는 자신(14절)과 비교하면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다고 생각합니다(13절). 그 결과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깁니다(마 6:24).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우상화합니다.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랑합니다(딤후 6:10; 딤후 3:2). 죽을 때에 재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 두고 떠나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합니다(시 49:6).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찬송가 141장 1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생명을 속량 받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요나 4장 7절에 나오는 벌레만도 못한 요나와 같은 목사임을 고백하면서)

제 50편: 외식

[시편 50편]

애드린어 고스틱 & 다나 텔포드의 “신실: 세상을 얻는 비즈니스 경쟁력”(The Integrity: Advantage & Works)이란 책을 보면 신실한 사람의 10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 10가지 특징 중에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실수했을 때는 솔직히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징에 대하여 저자들은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는 큰 잘못이 아니다. 정말로 큰 잘못은 그 실수를 덮으려는 행동이다”(인터넷). 그러나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실수를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기는 것이 우리의 최악 된 본능입니다. 그러기에 “외식”이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식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의미는 ‘자기를 감추는 자’ 또는 ‘위선자’입니다. 신약에서는 원래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서 연출하는 배우를 가리킨 것으로서, 후에는 위선자, 외식하는 자를 의미하는 단어 ‘휘포크리테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특히 종교인들에게 상용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짓된 태도를 뜻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면서도 내면으로는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경우가 바로 외식의 적합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외식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웬지 이 외식을 생각할 때 저는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묵상한 다윗의 범죄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의 범한 죄를 은폐하려고 임신한 밧세바에게 우리아를 보내려고 했던 다윗, 그러나 충성된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자 결국은 요압 장군과 짜고 이방인의 칼에 충성된 군인 우리아를 죽인 다윗,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덮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사 다윗의 죄를 들춰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우리 앞 백주에 이일을 행하리라”(삼하12:12).
우리는 은밀히 죄를 범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들춰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시편 50편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 아삽은 성도를 가리켜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나의 성도”,
즉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도들을 자기 앞에
모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 때문
이었습니다(박윤선). 과연 외식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모으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외식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시
50:1-6).**

성경 시편 50편 6절을 보십시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셀라).”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공공연하게 보편적으로
선포하심에 있어서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시편 기자 아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을 다음과 같이 힘 있게
지적하였습니다:

(1)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심판 광경을 온 천하 사람들더러

보라고 합니다(1절).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밀히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들춰내시되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그들 앞에서 들춰내시겠다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으로써 어두움의 일을 책망하지(들춰내지) 않고 우리가 그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들춰내신다는 말씀입니다(엡5:11).

(2)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의 계시하신 말씀으로 하시되(2절), 그것이 불이나 광풍과 같이 두렵다고 합니다(3절).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의 진리(빛)대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의 말씀이 필경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요12:48). 성경 시편 119편13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밀히 죄를 계속 범할 때에 우둔해 집니다. 우리 마음도 강퍅해 집니다.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우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비취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성도들을 먼저 심판하신다고 합니다(4절).

박운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특이한 축복을 받은 것인

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심판이 하나님의 집(교회)에서 먼저 실시된다(벧전4:17).”

둘째로, 하나님은 외식하는 우리의 형식주의를 경계하십니다(시 50:7-15).

성경 시편 50편 7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은 외식하는 이스라엘에게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 곧 형식주의를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형식주의는 그 때 유대인들이 성전에 찾아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줄 알았습니다(박윤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보다 외부적 의식을 거행하는데만 열중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기자 아삽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제사(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4절).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3절).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입술뿐만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삽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합니다(14절하).

신실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몇이나 됩니까? 참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시키지 않도록 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시키지 않도록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꼭 갚아야 합니다.

(3)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합니다(15절).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물을 우리가 받치는 것보다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외식하는 우리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시 50:16-22).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마디로, 경건은 말로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박윤선). 오늘 본문 시편 50편 16절을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이것은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만 하나님의 종교를 전문하고 있음을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박윤선).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무슨 말씀입니까?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뒤로 던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외식이요 죄가

아닙니까?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당을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뒤로 던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뒷전에 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살아갑니까? 그 원인을 칼빈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종교가달의 증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의 결핍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뒤로 던지는 죄악을 범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외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의 7계명과 8계명을 범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여기서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란 말씀은 제 8계명인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 제8계명을 어긴 것이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란 말씀은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제 7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2) 십계명의 9계명을 범하였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꾀사를 지으며.”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9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3)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것은 제 6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어긴 죄입니다. 그 이유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요일3:15).

하나님은 외식하는 외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시며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같이 죄에 대하여 무관심하신 줄 착각하였습니다(시50:21).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계속 지고 있었습니다.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계속 범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시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무관심...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차례로 심판하여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50편 22절에 가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죄를 범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를 생각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형식주의를 경계하시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그들을 건질 자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외식하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의 전에 모으시사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식을 경계하시고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식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외식하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와 또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가 아닌 참된 예배자로 세움 받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목사 나눔

(형식주의를 경계하면서)

제 51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시편 51편]

존 오웬 목사님의 “죄와 유혹”이란 책을 보면 죄는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죄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자극함으로써(갈5:17)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을 행하려는 은밀한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려는 성질을 갖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하여금 죄에 동조해 악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2) 죄는 싸움과 다툼을 야기함으로써(롬7:23; 약4:1; 벰전2:11)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죄의 싸움을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은혜를 거부하는 것, 둘째는 영혼을 공격해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것, 셋째는 감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3) 죄는 영혼을 사로잡음으로써(롬7:23)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죄에 사로잡힌다는 개념은 네 가지 의미를 함축합니다: 첫째, 죄의 권능이 우리를 노예처럼 속박할 정도로 막강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죄가 반복되는 시도와 성공으로 우리를 사로잡힌다는 점입니다. 셋째, 속박된 상태는 매우 비참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넷째, 사로잡힌다는 개념은 특히 신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의 법에 절대로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4) 죄는 점차 광기를 품게 함으로써(전9:3)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탄이 작은 불씨에 풀무질을 해서 격렬한 불길을 일으킵니다. 사탄은 전에 죄를 지은 경력을 이용해 또 다른 죄, 즉 더욱더 큰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인터넷).

왜 우리는 죄를 범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죄를 들춰질 때에도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까? 어찌하여 죄의 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심령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원인은,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심리는 (1) 거짓된 것이며, (2)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는 교만이며, (3)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는 죄악이며, (4)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독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51편 19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두 가지로 목상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 받을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중심에 진실함”입니다.

성경 시편 51편 6절을 보십시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리는 지난 주 수요일에 시편 50편을 목상하면서 “외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의 외식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의 범한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임신한 밋세바에게 보내려고 했던 다윗, 그러나 충성된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자 결국은 요압 장군과 짜고 이방인의 칼에 충성된 군인 우리아를 죽인 다윗,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덮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사 다윗의 죄를 들춰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일을

행하리라”(삼하12:12). 우리는 은밀히 죄를 범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들춰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은밀히 행한 죄를 들춰내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중심에 진실함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1)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3-4절을 보십시오: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 또한 성경 사무엘하 12장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할 때 그의 고백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였습니다. 즉, 다윗은 ‘주님, 당신이 보시기에 제가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쉬웠을까 생각해 볼 때에 저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한 후 하나님께서 들춰내실 때에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죄를 자백하는 게 왠지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아는 십계명 중에 6계명을 어긴 ‘살인죄’, 7계명인 ‘간음죄’, 8계명인 ‘도적질한 죄’, 9계명인 ‘거짓 증거한 죄’, 10계명인 ‘탐심 죄’ …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다윗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삼하12:9). 한 마디로 다윗의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자기 죄악의 정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51편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 존재의 시초부터 죄악에 물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죄악의 뿌리 깊은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6절) 자기 심령의 가장 깊은 데의 진상을 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박윤선).

(2)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죄를 범한 후에 그 죄를 자백하면서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인자요 또한 그의 자비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없이는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2절과 7절을 보십시오: “나의 죄악을 말갈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2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7절).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박윤선). 율법주의적인 회개는 죄 자체보다 죄의 벌을 걱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기도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회개는 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여호와와의 원수로 훼손할 거리를 얻게 하고(삼하12:14) 또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된 사실을 걱정하여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복음적인 회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사용한 용어들을 보면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갈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등등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선언한 벌(삼하12:11-14)을 면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이 더러워진 것을 깨끗케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박윤선).

우리는 중심에 진실함으로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번에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에게 자백했다고 합니다(인터넷): ‘저는 간음죄를 범함으로 인해 7계를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 지난 2개월간을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라고 눈물로 말했다고 합니다. 또 “간음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했던 우리 주님이 저의 죄 또한 용서해 주셨다”며 “비록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성도들의 배신감과 짐을 생각할 때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성경 시편 51편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상한 심령”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심령의 굳은 것과 교만한 것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 밖에는 구원해 주실 이가 없음을 느끼는 심리를 의미합니다’(박윤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14절). 상한 심령의 소유자는 신자가 회개하면서 자기를 아주 몹쓸 것으로 돌려놓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중요성을 도무지 느끼지 않습니다(박윤선). 이제부터는 그에게서 외식이란 것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16절). 그는 하나님께서 종교적 외식가운데 드러지는 예배를 원치 않으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가 범한 회개가 없이 자기의 죄를 숨기면서 습관적으로 드러지는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고 간구하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1) 다윗은 자기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길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다시 또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였기에 그 방법으로 자기의 마음이 새로 창조 되는 길 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즉, 주님을 든든히 믿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박윤선).

(2)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11절을 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과 그 자신이 분리하게 되지 않기를 간구하였습니다(박윤선).

(3) 다윗은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12절을 보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어떠한 회복을 간구하였습니까?

(a) 첫째는,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 이였습니다(12절).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로부터 즐거움 혹은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 할 경우,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회개한 후 하나님께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b) 둘째로 간구하였던 회복은 성김의 회복 이였습니다.

시편 51편 13절을 보십시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회개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박윤선).

(c) 마지막 셋째로, 다윗이 간구하였던 회복은 찬양(예배)의 회복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14-15절을 보십시오: “...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참으로 중요한 회복 중에 하나는 당연히 예배의 회복이며 찬양의 회복입니다.

이번에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의 제7계를 범한 사건을 다룬 한 가지의 글 속에서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대단한 교회건물과 세련된 훈련 프로그램과 대형이벤트들과 훌륭한 인재들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인터넷).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중심에 진실함”과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는 중심에 진실함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구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위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성김의 회복 또한 찬양(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에 진실함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이 세우시는 예배자로 세움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제 52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시편 52편]

"I trust in God's unfailing love for ever and ever"

심리학자 래리 크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갈망한다. 그리고 갈망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관계를 갈망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으면 관계를 회피하는 것 또한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상처 때문에 깊은 관계에 대한 건전한 갈망마저 소멸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관계 속에서의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예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지 않던지 아니면 머뭇머뭇 거리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마음이 좀 괴롭습니다. 이 마음에 있는 괴로움의 원인은 인간의 불완전한 사랑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사랑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웬지 이 무거움과 아픔과 괴로움은 저로 하여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케 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Unfailing love)을 더욱더 의지케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첫째 아기 주영이 때 주셨던 시편63편3절 말씀인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를 묵상하며 붙잡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편 52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였던 월요일에는

예은이에게 주영이의 앨범을 열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목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52편 8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결심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는 신앙인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한 3가지로 목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는 자는 보고 두려워합니다.

성경 시편 52편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우리가 무엇을 보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반드시 벌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이 결핍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 용서(forgiveness of sin)와 죄의 결과(consequence of sin)를 구분하지 못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를 범한 후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우리 죄에 대한 결과를 용서를 받았기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존 오웬 목사님은 그의 책 “죄와 유희”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 죄를 짓더라도 은혜로 언제든지 용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우리는 은혜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심각하게 여기기 않는 것은 옳은 신앙 자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범함에 있어서도 두려운 마음이 결핍돼 있습니다.

저는 죄 용서와 죄의 결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저는 다윗에게서 찾아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 한 후 나단 선지자의 면책을 듣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한 죄의 결과로 밧세바와의 첫째 아기도 죽고 다윗의 집 안에 강간, 살인 사건, 쿠데타 사건 등등 무서운 죄의 결과를 다윗은 겪었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 예는 다윗과 시므이의 관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가면서 시므이가 그를 저주하고 돌 던지고 했을 때에 다윗의 장군 중 하나나 가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삼하16:5-6, 9-10).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시므이가 나와 다윗을 영접했을 때에 다윗은 그를 용서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왕상2:8-9)는 것을 보면 결국 죄 용서와 죄의 결과를 별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시편 52편에 나오는 죄인은 “도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에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때 에돔 사람 도엑에 그것을 보고 사울 왕에게 밀고하여 결국은 사울 왕의 명령대로 도엑은 감히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였습니다(삼상 22:9-18). 이 도엑이란 사람의 죄를 한 3 가지로 생각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도엑과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 받아야 합니다.

(1) 도엑의 죄는 스스로 자랑하는 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엑의 죄는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2편 1절을 보십시오: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 선을 교만하게 자랑해도 악하거든, 악을 ‘자랑’함은 그 얼마나 악합니까? (박윤선) 참으로 예리한 묵상입니다. “선을 교만하게 자랑해도 악하”다는 말씀 말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자신의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니 그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스스로 자랑하는 교만한 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예레미야 9장24절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찌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 인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나의 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자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지 못함을 자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고전1:31). 주님 안에서 자신을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 등을 자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29절).

(2) 도액의 죄는 혀로 범한 죄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2편 2-4절을 보십시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죄인의 간사한 혀를 가리켜 “날카로운 삭도 같”다고 다윗은 말씀하였는데 “삭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칼과 달리 머리털 같이 미세한 것도 깎는 아주 예리한 것이 아닙니까? 악한 혀가 바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난도질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간사를 혀로 거짓을 말하며 모든 상처 입히는 말을 그 입에서 내어 쏩습니다.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3장9-10절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으로(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3) 도엑의 죄는 살인죄였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도엑은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을 함부로 죽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도엑처럼 살인을 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므로 살인죄를 수 없이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죄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회개하면 용서받은 사실로 합리화시켜서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습니다.

성경 시편 52편 7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강포한 자,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면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힘 인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입니다. 그 이유는 돈으로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쫓는 자는 돈으로 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쫓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것입니다. 성경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 아삽은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의 갈등 속에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다가 미끄러질 뻔했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의 결국, 즉, 줄지에 파멸, 전멸, 황폐됨을 보고 자기의 우매 무지함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거미줄을 의지하여 기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욘8:14-15).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인지를 좀 절실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힘을 의지하여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수 없이 많습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주장 등등, 너무나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라도 좀 힘이 빠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하였습니다(고후12:9).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9절).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진대 그는 하나님은 자기의 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시요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사30:15).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는 자는 주님께 영영히 감사합니다.

성경 시편 52편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왜 시편 기자 다윗은 영영히 주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주께 이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9절).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강포한 자, 스스로 악을 자랑하며 날카로운 삭도 같은 혀로 간사를 행하는 악인을 벌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의 성도 앞에서 주님을 영영히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도역이던 사울이던 결국 다윗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하였던 자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취하여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셀라)”(5절). 하나님을 악인을 벌하심에 있어서 두 가지로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 (1) “장막에서 뽑아내며”란 말씀은 악인이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던 자리도 하나님께서 불안전하게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안전하다고 여겼던 “장막”은 악인이 의지하였던 “재물의 풍부함”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벌하심에 있어서 그 재물도 다 없애시므로 말미암아 불안전하게 만드십니다. 성경 학개 1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듯하지 못하며 일군이 샅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 (2) “생존하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극악에 대한 그의 보응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멸망할 것을

의미합니다(박윤선). 그러나 의인은, 즉 하나님을 영영히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습니다(8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즉, 상록수와 같습니다. 마치 상록수가 추운 겨울에도 잎이 변함없이 푸른 나무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역경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맞보며 살기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합니다. 고통이 크고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 또한 크게 또한 깊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말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써 최고의 극심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죄도 없으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독생자 예수님에게 진노하시사 벌하신 성부 하나님, 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힘(The Power)이신 예수님께서서 힘이 없는 자(The Powerless)가 되셔서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심판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영히 주님을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길 간절히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인간의 불완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시작한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제 53편: 어리석은 자들

[시편 53편]

“지혜’란 무엇입니까? 켈 가이어에 의하면 지혜란 히브리 단어로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민감히 듣는 습관을 기쁨으로써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C. S. 루이스는 “피조물로서 인간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그분이 씨를 뿌리시면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광야 같은 인간의 심령에 에덴을 복원하시는 하나님의 시도인 것입니다. 씨를 받는 것은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몫입니다(인터넷). 우리는 찰스 스윈돌의 말처럼 “광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광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입니다. 이 단어는 ‘말하다’라는 뜻인 ‘다바르’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어근에 비춰볼 때,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인터넷). 그러나 웬지 요즘 하나님께서는 제 자신의 미련함을 계속 들춰내고 계십니다. 특히 요즘 에머슨 에서리치 박사의 책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을 통하여 얼마나 성경적으로 부부관계를 세워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미련함을 들어내고 있는 제 자신을 모습을 보면서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저는 제 미련한 것을 거둬 행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시편 53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시편 기자 다윗을 포위하여 박해하였습니다(6절).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은 의인인 다윗을 박해하고 죽이고자 하는 악인들을 가리키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과 시편14편 말씀 중심으로 과연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어리석음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은총이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시편 53편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 "어리석은 자"란 히브리어는 "나발"입니다. 여기서 "나발"이란 다윗 이야기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기도 합니다. 성경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이 다윗에게 악으로 선을 갇았을 때에(21절)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은 (3절) 다윗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기를 청합니다(24절). 그러면서 그녀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25절). 다윗을 선을 악으로 갇았던 어리석은 자, 나발을 생각할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발'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죄악으로 갇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발'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어리석은 자"를 가리켜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아닌 실제적인 무신론자는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롬1:21). 어리석은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딤후1:16),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디도는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딤후1:10). 이러한 자들을 향한 디도의 권면은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입니다. 그 이유는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로만 하나님을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인할 때에 교회는 이런 자들로 인하여 온통 앞드러지기 때문입니다(11절).

둘째로, 어리석은 자들은 선을 행치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시편 53편 1절 하반절과 3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1절하), “...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3절). 어리석은 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찬양할지는 모르겠지만 삶 속에서는 선을 행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을지라도(시편 34:8), 이미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들이기에 선을 행치 아니하는 악행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악행은 "부패"와 "가증한 악"이었습니다(1절). 여기서 부패란 '도덕적 부패', 즉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극악한 죄성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이들의 "가증한 악"은 결국 "더러운 자"(3절)라는 칭함을 다윗에게 받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므로 선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롬8:7). 어리석은 자들은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부패와 가증한 악을 행하기를 일삼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지도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시편 53편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굽어서 살피심'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 중에 하나님을 알려고 찾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4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시편 14편 3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다 치우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길에서 탈선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박윤선). 하나님을 찾을 마음조차도 없고, 하나님만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도 경하며,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 것을 찾으며, 하나님을 찾느라고 하나 열심 없이 찾으며, 계속하여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지 않고(이단) 그리고 적시 적으로 찾는 것(회개해야 할 때에 회개하지 않습니다(박윤선).

마지막 넷째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시편 54편 4절을 보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다윗은 어리석은 자들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참으로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죄악에 마음이 강박케 된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기를 기탄 없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예사로 알기에 그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4절).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버리셨습니다. 5절 후반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네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버리신 고로 그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합니다(5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의 뼈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별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버리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52편 6절을 보십시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아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버리시고 자기의 백성의 포로된 것을 회복시키시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에 다윗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잠깐이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면서,

제임스 목사 나눔

[아버님이 주신 이름 “지원” (지혜 “지”자와 으뜸 “원”자) 답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 54편: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시편 54편]

헨리 나우웬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란 책을 보면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하는 사람”이란 장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 나우웬은 “지탱해 주는 것, 지탱해 주기 그리고 지탱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 구절은 성경 요한복음 16장7, 13절입니다: “...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 여기서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만남(교제)이 (성령님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만남(교제)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만남(교제)이 제자들을 고난 가운데서 지탱해 주었으며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행위”로 가능합니다(나우웬). 즉, 과거를 현실화 하는 것으로 말미암 제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소망하므로 견디고 이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과 그분의 사랑을 기억케 하시므로 말미암아 핍박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붙들어(지탱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이 오늘 여러분이 당면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을 붙들어(지탱해) 주고 있습니까?

기억이란 우리를 과거와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현재를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나우웬). 과거의 구원의 기억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역경 속에서 힘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54편 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여기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탱해주시는 자’ 혹은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란 제목 아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영혼의 삶은 어떠한지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영혼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경 시편 54편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 받아 도망 다니고 있었을 때 십 명 사람들이 다윗에 숨어있는 곳을 사울 왕에게 밀고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삼상 23장 19절과 26장에 나와 있음). 이 시편 53편 말씀의 배경은 시편 52편과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시편 52편 말씀 배경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핍박받아 도망 다니고 있었을 때 에돔 사람 도역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왔더라고 밀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나 시편 52편이나 둘 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핍박 받던 중에 쓴 시로서 밀고를 당하여 위험과 위기에 처했을 때 쓴 시입니다. 이러한 위험과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2절). 그의 결론적인 또는 핵심적인 기도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와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위험한 일을 당하여서도 그 위험 자체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기보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은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으면서 “주의 이름”을 의지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선하신 이름’입니다(6절). 그 선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한다는 것은 자기가 당면한 위험한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웬은 기도에 대하여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빈 마음으로 무력하게 있으면서 모든 것이 은혜이며 아무것도 단지 우리의 고된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 없음을 선언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다윗처럼 주님의 선하신 이름과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위험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여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를 계속하여 지탱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영혼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둡니다.

성경 시편 54편 3절을 보십시오: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셀라).” 여기서 우리는 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외인”, 즉 경건치 않은 악도(악인)들이 다윗을 치며 그의 생명을 찾아 죽이려는 상황에 그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기서 외인이란 다윗을 사울 왕에게 밀고한 십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였다는 말씀은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서 해하려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사울 왕에게 밀고하였던 십 사람들은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를 경외하기보다 육안으로만

보이는 사울 왕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도와 다윗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바 된 신앙인은 코람데오(Coram Deo)의 삶을 삽니다. “코람데오”란 말은 라틴어로 “코람”(앞에서)과 “데오”(하나님)가 합쳐진 말로 “하나님 앞에서”(In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내 눈 앞에 존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 면전의식, 곧 신전의식이야 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담력과 성결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인터넷). 코람데오 신앙을 가졌던 성경 인물 중에 우리는 요셉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언제나 매 순간순간 그의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성경 창세기 39장9절을 보십시오: "이 집에는 나보다 큰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요셉의 "코람 데오" 신앙이었습니다(인터넷). 우리도 코람데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요셉처럼 계속되는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코람데오" 즉, "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신앙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영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합니다.

성경 시편 54편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붙들어주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7절을 보면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나로 목도케 하셨나이다.” 다윗은 현재의 위협과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환난에서 건지신 경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들을 보응하시는 것을 보고 만족하였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이던 십 땅 사람들이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응하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성실하게 다윗의 원수들을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6절).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과거에도 경험하였고 지금 현재에서도 경험할 줄 확신하므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헨리 나우웬은 기억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사건들을 현재로 이끌어 오며 현재 이곳에서 그 사건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의 사건들을 현재 위기 상황으로 이끌어 와서 그 사건들을 기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즉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 2000년 전 갈보리 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성찬식을 통하여 기념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빵과 그가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기억케 하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현재 삶 속에 어떠한 역경과 아픔과 고난도 이겨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하신 주님의 이름과 그의 능력을 의지케 하시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능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영혼을 불드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길 기원하면서)

제 55편: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시편 55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을 점진적으로 지게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근심, 걱정, 슬픔, 고통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용규 목사님의 "내려놓음"이란 책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꼭 붙들고 있으라고 유혹한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꼭 붙들고 있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꼭 붙들고 있으라고 하는 것 중에 '과거의 짐 보따리'도 있고 또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상처와 아픔, 괴로움과 근심, 걱정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벧전5:7).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를 향한 그의 보배로운 생각의 수가 모래보다 많으시기에(시139:17-18) 우리를 사랑하여 권고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모든 영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영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일 일은 내일 영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기 때문입니다(마7:34).

오늘 성경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다윗의 짐은 근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여기서 “근심”이란 히브리 단어는 “수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근심이 수풀이나 가시덤불처럼 복잡하고 착란한 심사 때문에
생기는 고로, 이 글자가 사용된 듯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이 근심한 이유는 무엇
이었습니까?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최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윗은 원수들의 압제와
핍박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근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근심이 지속되는 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 즐거움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심은 건강에 지장을 주어 생명을 단축시키고,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행복의 척도는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이기는 힘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심 없이 사는 가난한 삶이
근심에 파묻혀 사는 부자의 삶보다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화로 널리 알려진

이습도 "안심하면서 먹는 빵 한 조각이 근심하면서 먹는 잔치보다 낫다"고 말하였습니다(인터넷).

(2) 다윗의 짐은 심한 마음 고생 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 4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다윗은 원수들의 압제와 핍박으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팠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험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5절). 그는 자기가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으면 멀리 광야로 날아가서 편히 쉬길 원했습니다(6절). 한마디로, 다윗은 짐이 너무 무거워 현재 상황을 피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고 또한 죄악과 잔해함, 악독과 압박, 궤사를 보므로 말미암아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10-11절). 이 외에도 그의 마음이 심히 아팠던 이유는 친구의 배신 때문 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 12-13절을 보십시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다윗의 마음의 깊은 상처는 함께 하나님의 안에서 다니면서 재미롭게 의논하며 교제하였던(14절)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이 친한 친구는 자기와 화목한 자인 다윗을 치고 그와 맺은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20절). 그 친한 친구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었습니다(21절).

둘째로, 어떻게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겨 버릴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의 짐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 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 다윗은 자기의 무거운 짐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겨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근심이나 자기가 처한 악하고 죄악 된 상황으로 인하여 심히 아파하였던 마음 또한 주님께 기도로 다 맡겨 버렸습니다. 특히 그는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인한 아픈 마음을 다 주님께 기도로 맡겨 버렸습니다. 왜 다윗은 자기의 무거운 짐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겨 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16-17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마음에 근심과 심한 고생, 아픔을 다 주님께 간구로 쏟아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윗은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자신의 무거운 짐, 근심과 심한 마음의 고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습니다(23절).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하므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기도로 다 하나님께 맡겨 버려야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1절);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후렴) (찬송가 484장 1절과 후렴).

마지막 셋째로,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겨 버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가지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 22절을 보십시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묵상한 시편 54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4절). 다윗은 현재의 위협과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환난에서 건지신 경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에서도 다윗은 과거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겨 버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습니다(18절).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겨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므로 마음이 평안합니다.

(2)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며 자기의 악한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는 악인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사(19절)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십니다(23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요동치 아니합니다(21:7).

제가 애창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는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근심에 싸인 날 돌아 보사 내 근심 모두 말으시네...”. 이 찬송가는 엘리사 호프먼 목사가 작사했습니다. 어느 날 아주 큰 시련을 당한 성도가 호프먼 목사를 찾아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심에 싸인 저는 무엇을 해야죠?”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호프먼 목사는 한참 동안 그 성도의 하소연을 다 들어준 다음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의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그 성도는 밝은 얼굴을 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 하겠어요.” 성도가 나간 후 갑자기 영감이 떠오른 호프먼 목사는 펜을 들어 찬송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렇게 해서 363장이 탄생한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작년 10월에 아버님이 계신 북경에 갔다가 공안당과 경찰들이 들이닥친 날 새벽 기도회 때 방안에서 있다가 아버님이 힘차게 부르시는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날 하나님은 아버님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저 또한 무사히 한국으로 나와 나중에 미국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 심한 마음고생으로 허덕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에게 기도로 모든 짐을 다 맡겨 버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평가를 주시며 또한 요동치 않도록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겨 버리십시오.

십자가의 나의 모든 죄의 짐을 걸머지시고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주님께 나의 모든 짐을 기도로 맡겨버리면서)

제 56편: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편 56편]

하나님만의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예수님 마음 가까이”란 글에서 한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1) 자신의 연약함을 숙고하십시오, (2)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가장 작은 일이라도 성취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3)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4)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고, 그것을 얻기 위해 갈 곳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인터넷).

우리가 이미 목상한 시편 31편 14절을 보면 다윗의 “그러하여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사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어도(9절), 슬픔과 탄식 속에 있어도(10절), 욕을 당해도(11절), 자기가 잊어버린바 되어도(12절)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13절) 주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56편을 보면 ‘하나님의 의지한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3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11절).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의지하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첫째로, 언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까?

다윗은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의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6편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왜 다윗은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의 원수(2절)인 블레셋인(표제)의 압제(1절)와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6절). 흥미로운 것은 다윗의 원수의 압제와 핍박은 한 두 번이 아니라 “종일”, 쉬지 않았습니다(1, 2, 5절).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탄의 역사는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종일 유혹하고 압제하고 쓰러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일 유혹하는 사탄의 역사의 예로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한 요셉(창39:6)을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0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탄의 역사는 그의 종들인 다윗의 원수들이 쉬지 않고 다윗을 압제하고 핍박하며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사탄의 종들인 악인들은 우리 의인들을 쉬지 않고 공격하고 괴롭히며 압제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5절 후반 절에서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우리를 향한 사탄과 그의 종들의 생각은 항상 사악하기에 그들은 우리를 쉬지 않고 유혹하며, 공격하며 쓰러트리고 넘어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매일 의지해야 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종일”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며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우리 또한 하나님을 “종일” 또는 쉬지 않고 의지해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쓰러트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쉬지 않고 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사야 41장10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두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둘째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까?

(1)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였습니다. 오늘날 본문 시편 56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없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위해서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요 위기 가운데서도 받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느헤미야 9장 25-3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31절). 우리가 주님의 큰 복을 즐길 때에(25절)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순종치 아니하고 주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뒤에 두고 주님께 범죄합니다(26절).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사랑의 징계로 때리시고 환난을 당하게 허락하십니다(27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크게 긍휼을 발하사 구원해 주십니다(27절). 그러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우리는 악을 행합니다(28절). 그러면 또 주님의 사랑의 징계가 있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여러 번 긍휼을 발하사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28절). 우리 하나님은 여러 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여러 해 동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30절). 이 긍휼의 하나님께 다윗은 간구하였고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면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6편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사 그의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실 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눈물로 간구하였습니다(8절).

(2) 다윗은 찬송하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6편 4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10절).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찬송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미하였던 것입니다(행16:25).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한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63장 1절과 후렴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싸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기도로 아뢰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다윗은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하며 묵상할 때에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이지만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결국은 찬송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55장 2절에서도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려운 상황이라도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며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의 마음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1) 다윗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6편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은 쉬지 않는 원수들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함으로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미 과거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기에 현재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다윗은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역경과 고통을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2)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6편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서약한 것들을 충실히 감당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한 서원을 갚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들을 책임지고 완수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서원 갚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서약은 신중하게 한 것이 되야 할 것이고 또한 이행하기로 결심하였으면 우리는 이행해야 합니다.

어떠한 두려운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 드리는 예배자로 세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서원한 것을 이행할 것을 결심하고 또한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지난 주일 오후 교사 성경공부를 다 마친 후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전화를 받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속으로 구하였습니다. 그 때 성령님께서는 그 주일 영어 예배 설교 때 선포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였고 저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형제에게 나눴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그 때에 그 형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 문제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위하여 전화로나마 기도하였었습니다. 그 때 눈물을 흘리는 그 형제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

주님을 의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맡기면서)

시편 56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시편 56편 4, 10절).

지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2가지 교훈을 받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 두 가지 교훈이란 첫째로 불평하지 말라(시37:1, 7, 8)는 것과 둘째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다시 금 생각해 볼 때 저는 제 자신이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있으면서 작은 일에는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오늘 새벽에도 잠에서 깨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 잠에서 깨서 화장실로 들어간 후 새 하루 새아침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속으로 말할 때도 있지만 잠에서 깬다는 그 자체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잠에서 깨어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자주 저희 집 식구들이 치울 것을 치우지 않을 때 불평을 하곤 합니다. 지난 주에도 “불평하지 말라”(시37:1, 7, 8)는 교훈을 받은 후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집에 가서 제 자녀들에게 불평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새벽기도회 때 시편 56편 4, 10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다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지한다고 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면 나는 그 본능대로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칭찬하셨는데(마25:21) 나도 작은 일에 충성되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리고 순간순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56편 4절과 10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상황은 그가 블레셋 사람들이게 잡힌 때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종일” 삼키려고(1, 2절) “종일” 치며 압제하였을 뿐만 아니라(1절) “종일” 그의 말을 곡해하였습니다(5절). 또한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교만하게 치는 자들로서(2절) 모여 숨어 그의 발자취를 지켜보았습니다(6절). 그 이유는 그들은 다윗의 생명을 노렸기 때문입니다(6절). 그러한 두려움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3절). 의지하되 그는 눈물을 흘리며(8절)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4, 11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4, 11절). 더 나아가서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13절). 그러므로 그는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며(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습니다(4, 11절).

새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송가 1절 가사가 생각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저는 이 가사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나름대로 어려운 일을 접했을 때 제 자신의 믿음이 적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 가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공감되는 가사 부분은 그러기에 의지하는 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더욱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 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요한복음 6장 1-15절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금 의지하며 진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 선포하며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인정케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케 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저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케 하십니다. 그리할 때 저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령님께서서는 저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케 하십니다. 감사하므로 주님의 말씀을 찬송케 하십니다.

<저 개인에게 주신 오병이어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 부르는 찬송은

“나의 모습 나의 소유”입니다>

1.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2.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우리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를 생각할 때 부르는 찬송은 “내 주의 나라와”입니다>

1.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2.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3.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4.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5.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찬양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어려운 일 당할 때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기원하면서)

제 56편: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편 8절 상반절).

제 마음의 병에 고요 있는 눈물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눈물입니다. 아직도 그 흘리는 눈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의미가 있는 눈물입니다. 제 마음에 제일 깊이 적혀 있는 눈물은 첫째 아기 주영이의 눈물 한 방울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안아보았던 주영이가 제 품안에서 편히 잠들었을 때 그녀의 오른쪽 눈가에는 한 방울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55일 동안 수많은 바늘 자국이 있었던 그 아기를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때마다 그 아기의 눈물 한 방울이 제 마음을 몽글하게 하곤 합니다. 제 마음에 두 번째로 깊이 적혀 있는 눈물은 사랑하는 제 아내의 눈물입니다. 우리 주영이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심장의 문제와 피순환이 안 되서 온 몸이 시퍼렇게 되어 위독할 때 그 아기를 보면서 좀 떨어진 곳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고 있었던 아내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때 만큼 저는 아내가 아름답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잊지 못할 아내의 눈물은 주영이의 시신을 화장한 후 뺨가루가 들어있는 조그마한 박스를 들고 아내와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나아갔을 때 갑자기 아내가 배 뒤에서 그 배를 조정하고 있었던 저를 쳐다보면서 “Titanic”이라고 말하면서 줄줄 흘렸던 눈물입니다. 그 슬픈 와중에서도 농담(?)하는 아내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제 마음의 병에 있는 또 하나의 눈물은 저의 할아버님께서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주일 아침 제가 기도를 드린 후 눈을 떴을 때 할아버님 오른쪽 눈가로 흘리셨던 눈물입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셨기에 아무 말씀을 하실 수 없으셨지만 그 흘리셨던 눈물을 잊지 못합니다. 또한

저는 저의 할머니의 눈물을 잊지 못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할머니를 방문했을 때 할머니가 갑자기 우시 갈래 저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죽음이 두려워서서 우시는 거예요?’라고 여쭙보았을 때 할머니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우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리도 감사하세요 라고 여쭙보았더니 할머니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서 여러 명의 주님의 종을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시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서 흘리셨던 그 분의 눈물도 제 마음의 병에 고여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의 병에 고여 있는 눈물만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오늘 새벽기도회 읽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시편 56편 8절 말씀에 제 시선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께 “주님은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현대인의 성경)라고 간구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전에도 여러 번 이 성경구절을 읽었을 텐데 어제 저녁 전까지는 저는 그 성경구절을 그냥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새벽기도회 때 시편 56편 4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시금 8절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이렇게 다시금 묵상하면서 글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의 관심이 제 마음의 병에 고여 있는 눈물보다 주님의 병에 담겨진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아니, 제 마음의 병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이 이미 주님의 병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저보다 훨씬 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 그 눈물을 다 받치길 원합니다. 첫째 아기 주영이가 흘렸던 눈물이나 제 아내가 흘렸던 눈물, 또한 저의 할아버님과 할머니가 흘리셨던 그 눈물의 의미를 어찌 제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충분히 다 알고 계시고 또한 다 이해하시기에 저는 제 마음의 병에 있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모두 다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가 1987년 5월 대학교 때 저희 승리장로교회 대학부 수련회 때 흘렸던 세 가지의 눈물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길 기원합니다: 회개의 눈물, 헌신의 눈물 그리

고 감사의 눈물.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저는 이 세 가지의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길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병에 이 눈물로 채우길 원합니다.

제 57편: 마음을 확정하라!

[시편 57편]

이번 주 월요일 저는 저희 집 막내 딸 예은이랑 함께 집에 있으면서 오전에 어린이들이 보는 TV 방송 중에 “카이유”라는 만화를 잠깐 보았습니다. 그 만화를 보다가 카이유라는 주인공 아이가 아빠랑 함께 나무를 심었는데 바람이 부니까 카이유가 걱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때 카이유 아빠가 카이유에게 와서 도와주는데 심은 나무가 바람에 휘청 휘청하니깐 막대기를 갖다가 나무를 묶어서 심은 나무를 흔들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 장면이 화요일(8일) 어버이 날 새벽기도회 때 생각났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저는 집에서 자녀들에게 심은 나무 옆에 함께 묶여있었던 막대기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하나님께 아이들에게 막대기와 같이 든든히 버팀목이 되어겠다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일까”(저자: 김종윤)이란 책을 읽고 난 후 독자서평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간과하고 지나가는 아버지의 소중함, 미워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자리를 내주어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각하는 소중한 분 ... 무심코 지나간 이런 아버지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내 마음속에 일깨워준 좋은 책이었습니다”, “인생의 버팀목, 아버지(조건중): 살아가면서 가깝지 않으면서도 큰 버팀목으로 지켜주신 분이 아버지다.” 저는 이 독자서평을 읽으면서 많은 아버지들과 아들(또는 딸들)과의 관계에서 미워하면서도 또는 가깝지 않으면서도 아버님은 소중한 분이시며 또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 7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결심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마음을 "정한다"는 뜻으로 사용된 "steadfast"는 확고부동한, 고정된, (신념 등) 불변의, 부동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마음을 정한 것이 아니라 확정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 길 이 방법 밖에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정한 사람의 삶이 행복합니다. 흔들리는 삶과 정한 삶의 차이는 행복함과 불행함의 차이처럼 큼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음을 확실히 정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없는 것이 확정된 마음입니다. ... 우리들의 마음이 한곳으로 고정되고 집중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면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인터넷).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마음을 확정하라!”는 제목 아래 마음이 확정된 성도는 위기와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 3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확정된 성도는 위기와 역경 속에서 피합니다.

성경 시편 57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기자 다윗은 자기에게 임한 재앙으로 인하여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그 재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의 핍박입니다. 오늘 본문 표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으로 인하여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표제에 적혀 있는 “알다스헛”이란 말씨는 “멸망시키지 마소서”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의 대적 자들인 사울과 그의 사람들을 “사자”로 표현한 이유는 그들의 그만큼 잔인모도하게 다윗을 해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이들은 다윗의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습니다(6절).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라고 자기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였습니다(6절). 결국 그는 자기에게 임한 재앙인 사울로 인하여 멸망당할 정도의 생사 갈림길에 놓여있었을 때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였습니다(1절).

그러면 다윗은 어디로 피했습니까? 그는 주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습니다. 주님 날개 그늘 아래 피했다는 말씨는 비유로서 성도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어 보호하는 날개와 같다는 뜻입니다(박윤선). 이러한 비유는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신명기 32장11-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퍼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퍼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절 때 우리가 보금자리에서 너무나 편안히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마치 어미 독수리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 높은 동지에서 새끼를 밀쳐 떨어뜨리듯이 우리를 떨어트리십니다. 그 때에 우리는 마치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는 독수리의 본능이 고개를 들고 나와 필사적인 날개 짓듯이 우리 또한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필사적인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새끼 독수리는

땅을 향해 속절없이 떨어져 내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계속 하강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때 땅에 부딪히기 직전의 순간, 쏜 살같이 날아온 어미 독수리는 자기의 날개위에 새끼를 업어 다시금 동지로 날아오르듯이 이러한 극적인 순간의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둘째로, 마음이 확정한 성도는 위기와 역경 속에서 기도합니다.

성경 시편 57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에게 피한 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입니다:

(1) 다윗이 기도로 의지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2절).

어느 면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지극히 낮은 곳에 처해 있었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부르짖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새끼 독수리가 보금자리에서 떨어져 하강하면서 땅에 닿기 전에 어미 독수리를 보면서 ‘살려 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우리가 재앙의 구렁이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소망이 나에게 없고 오직 주님 밖에 없음을 알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예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다시스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더 나아가서 큰 물고기 안에서 깊은 바다 속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결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욘2:4).

(2) 다윗이 기도로 의지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였습니다(시57:2).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성경 이사야 14장24, 27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라 …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가 경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3) 다윗이 기도로 의지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 3절을 보십시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기의 뜻을 다윗을 위하여 이루시는 주님께 간구하면서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실 줄 확신하였습니까? 바로 “그 인자와 진리”를 하늘에서 보내사 자기를 삼키려는 비방에서 구원해 주실 줄 다윗은 확신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구원 행위를 인격화하여 말하는 시적 표현입니다(박윤선). 우리 주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에 그 분의 뜻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는 구원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마음이 확정한 성도는 위기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 시편 57편 5절과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11절).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7절 후반 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그러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7절). 확정된 마음은 어떠합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한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1) 한번 죽음을 각오합니다. 다윗은, 한번 죽을 것을 각오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마음을 준비하였습니다. (2) 모든 선을 행하려고 준비되었습니다. 미련한 자의 특색은, 마음 준비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목표 없이 늘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준비된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3) 주님을 믿고 안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약속된바, 하나님이 신자와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확정된 신앙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작아지고,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환경에 처해있을 찌라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온 세상에 덮여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은 비록 재앙이 자기에게 미쳤지만 그는 주님께 감사하므로 그를 찬양했습니다(8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크신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3절).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10절)라고 고백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저는 주일 오후 장을수 할머니를 뵈러 양로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장 할머니에게 ‘할머님은 아름답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장 할머니께 말씀드린 이유는 그 분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므로 찬양을 드리시면서(찬송가 40장과 355장) 시편 23편을 외우시고 또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종종 외우시는 장 할머니를 뵈면서 참으로 숨질 때 때도록 주님을 찬양하시는 믿음의 본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오직 소망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께 마음이 확정하여 그분께 피하시면서 그분에게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또한 그분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장 할머니를 뵈 때에 저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의 본을 받아 저 또한 마음이 확정하여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감사하므로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어 자녀들과 성도님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예배자로 세움을 받기를 기원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내가 만민 중에”와 “물이 바다 덮음같이”를 수요기도회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린 후)

제 57편: 내 영혼이 억울할 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시편 57편 6절).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힙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라도 좀 알면 좋겠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여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모아 나에게 대하여 말을 만들어 나를 비방하며 모함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대하여 나쁜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합하여 나를 넘어트리려하며 심지어 그들은 나를 위기에 몰아넣으려고까지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설 곳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나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이렇게 내 영혼이 억울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본문 시편 57편 6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그리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므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주었는데, 사울 왕은 질투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므로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이 시편 57편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영혼이 억울할 때에 어떻게 하였는지 한 5가지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그의 영혼이 억울할 때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성경 시편 57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그의 영혼이 억울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영혼이 주님께로 피하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자기가 당면한 모든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했습니다(1절).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억울할 때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기 때문입니다(61:3). 우리는 인생의 폭풍과 광풍이 몰아닥칠 때에 그 폭풍과 광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속히 피해야 합니다(55:8). 우리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합니다(36:7).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여(62:8) 우리의 영혼이 억울할 때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17:8)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그의 영혼이 억울할 때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성경 시편 57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동굴 안에 숨어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리 간구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육신의 눈으로 자기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다윗은 결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서남북 갇힌 동굴 안에서 자기가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다윗은 낙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동굴 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위하여 이루실 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생각납니다. 동서남북 갇힌 감옥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신앙인은 모든 결과를 떠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상황에 근거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던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만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그의 영혼이 억울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자기에게 보내실 줄을 믿었습니다.

성경 시편 57편 3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사울 왕에게 피하여 굴 안에 숨어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줄 믿었습니다(3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첫째 아기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와 진리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말씀은 시편 63편 3절이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저희 부부는 이 말씀을 월요일 아침에 받고 첫째 아기 주영이를 빨리 죽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주영이 중심으로 모인 가족 식구들이 둥그렇게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 모든 기계를 끄고 호스를 빼낸 후 주영이는 제 품안에서 잠들었습니다. 나중에 주영이를 화장한 후 뿔가루를 뿌리고 다시 육지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굉장하고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 인생의 최대의 위기 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내시사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위기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믿습니다.

넷째로, 다윗은 그의 영혼이 억울할 때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가운데서 노래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57편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접한 재앙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신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줄 믿었습니다(1-3절). 결국 재앙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었던 다윗은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7절, 현대인의 성경).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 질 것과 재앙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경험할 줄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7절). 그 결과 억울했던 다윗의 영혼은 깨어 새벽을 깨웠습니다(8절). 우리의 영혼도 깨어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다윗은 그의 영혼이 억울할 때 하나님이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57편 5절과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흥미롭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굴에 숨어 있는 다윗이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간구하였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특히 그는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면서 재앙들을 만나는 상황에서도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면서(9절)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간구했다는 것은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다윗은 그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3절)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은 그의 영혼이 억울하고 재앙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피신하였을 때 그가 간구한 하나님의 은혜, 그가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뜻, 그가 사모했던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므로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를 궁창에 이르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11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잊을 수가 없는 마음의 추억입니다. 저는 제 셋째 삼촌 목사님의 입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 찬송가 40장(“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을 모든 조문객들과 함께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했던 순간이 생각납니다. 특히 저는 후렴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를 부를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제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는 제 셋째 삼촌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티화나 멕시코에 선교 가서 멕시코 장애인들 앞에서 그 찬양 후렴 가사를 스페인어로 찬양했던 그 때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셋째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 가족 신년 예배 때 암으로 고통당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몸을 일으키셔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셨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암 환자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 식구를 먼저 떠나보내면서 장례식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울 왕을 피하여 굴에 숨어있었으면서도 그 재앙과 같은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되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간구했던 다윗을 생각할 때 도전을 받습니다. 저 또한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나 목회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 기도의 영역이 너무나 한정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의 영역을 넓히시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억울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혀가 날카로운 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시57:4). 왜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3절). 마치 사람 앞에 웅덩이를 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빠지게 하려는 것처럼 별의 별 웅덩이를 파서 형제, 자매로 하여금 빠지게 만들려고까지 합니다(6절). 그러기에 교회에서 더 큰 상처를 받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억울한대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지체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앙들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깊이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확정되고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5절).

제 58편: 판단하시는 하나님 (1)

[시편 58편]

오늘 오후 양로원에 잠깐 들렀다가 교회로 오는 도중에 라디오를 틀어보니 한국방송에서 LA 대형교회 목사님이 부인을 폭행한 사건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목사라는 위치만을 보고 무조건적인 추종만을 추구하는 현재 교인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 교인들 스스로가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좀 놀랐습니다. 또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전도가 막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그 뉴스에서 말한 것처럼 “교인들 스스로가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이미 임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암8:11).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설교 방송들과 수많은 성경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에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기보다 상황이나 감정 같은 것에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로 인하여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한 흥 목사님은 그의 책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해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판단하시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자꾸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라”(인터넷).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그 때 그 때 당면하는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판단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 수요기도회 때 시편 57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은 “마음을 확정하라!”는 말씀 이였습니다. 특히 7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 마음을 확정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당면한 재앙(1절)가운데서도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확정되기까지 다윗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자기의 심정을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6절)라고 털어놓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58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아래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오늘 한 가지만 묵상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에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악인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58편 1-5절을 보면 공의로우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인 악인들을 꾸짖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꾸지람을 한 4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고 계시지 않는지 자아성찰 및 자아 반성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1) 하나님은 “잠잠하지 말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58편 1절을 보십시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웅변이 은이라면 침묵은 금이라고 할 수 있다”(Speech is silver; silence is gold)라는 말도 알리가 있지만 그러나 침묵 중에는 비겁한 침묵, 더 나아가서 악한 침묵도 있습니다. 악한 침묵이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해야 할 옳은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을 가리킵니다(박윤선).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 의를 말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은 악한 침묵입니다. 성경 이사야 56장10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인 목자들을 능히 가리켜 짓지 못하는 “병어리 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의 책임은 “짐승들”(9절)이 오면 찾아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목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 떼들이 이리에게 잡혀 먹고 들판이나 산에서 방황하였습니다(겔34장).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탐욕 속에서 “자기 이만 도모하”였습니다(사56:11). 자기 배만 채우면서 양 떼들은 제대로 말씀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이만 탐낸 이스라엘 목자들은 “병어리 개”였습니다. 이러한 잠잠함은 ‘악한 침묵’입니다.

이 하나님의 꾸지람을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저는 “병어리 개”라는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에 제 마음이 찢립니다. 언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민 교회 잘 알려진 어르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설교를 하십시오’라는 권면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 외에도 저는 몇 분 어르신

목사님들에게서 위로의 설교를 하라는 권면을 들었던 기억 또한 납니다. 요즘은 ‘치유의 설교’가 인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치유, 치유’하는 것을 보니 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지나 우리 설교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면책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설교자들이 그 본문 그대로 우리의 죄를 면책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설교 요즘 강단에서 듣기가 힘듭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목사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병어리 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리나 늑대가 올 때 양 떼를 지키는 개는 당연히 짖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밥만 먹고 배만 불러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개는 병어리 개요 쓸모없는 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양 떼를 죽이는 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침묵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정직히 판단하여 공의를 말해야 합니다(시58:1).

(2) 하나님은 “중심에 악을 행하지 말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58편 2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의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말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고 기름보다 유하여(55:21) 공평히 다스린다고 하면서 악한 이스라엘 관리나 지도자들은 불의를 행하였습니다(박윤선). 한 마디로 이들은 위선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7장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위선자는 자신의 거짓된 마음, 악을 행하는 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선자는 자신의 “들보”를 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들보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시51:6). 결코 우리는 우리의 말과 마음이 불일치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예식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 자신의 본 모습도 잊어버려 착각하며 신앙생활 하는 척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판단하게 하면서 들춰지는 중심의 죄를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른 믿음, 바른 마음, 바른 행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3)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58편 3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여 나면서부터 결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은 어릴 때부터 악행을 쌓아 오면서 종내 회개치 아니하므로 죄악이 관영합니다(박윤선). 그 악행 중에 악인들은 특히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악인들의 죄악 된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길로 나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하므로 결길로 나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4) 하나님은 “소리를 들으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58편 5절을 보십시오: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술을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뱀의 독처럼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독사처럼 악인들은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은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나 인도에 통소와 북 같은 악기로써 뱀을 유인하는 술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통소와 북 같은 소리를 들으면 뱀이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들은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악인들은 “귀머거리 독사” 같습니다(4절).

귀 있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코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므로 각기 제 길을 가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꾸짖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병어리 개”가 아닌가, 중심에 행악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병어리 개”와 ‘귀머거리 독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자문합니다. 중심에 진실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을 귀담아 듣기를 사모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부족한 종의 마음과 귀와 입을 열어 주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 58편: 판단하시는 하나님 (2)

[시편 58편]

지난 주일 저는 저희 교회 영어 예배 때 한 청년의 간증을 찬양으로도 들으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가 그 전 금요일 저녁에 울면서 불렀다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아무리 어두움이 우리 삶에 몰아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제 화요일 저녁 오늘 수요 새벽기도회 때 읽을 말씀인 시편 21편에서 23편 말씀을 읽다가 시편 22편 1-3절에서 시선이 멈추고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신음 속에서 하나님께 밤낮을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멀리하고 돕지 않으시다는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22:3). 이 말씀을 오늘 새벽기도회 때 다시 묵상하면서 저는 사랑하는 그 형제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 형제가 다윗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은 공의로써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시58:11).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악인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1-5절). 악인을 꾸짖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하지 말라고 꾸짖으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악한 침묵을 하지 말라고 우리를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1절).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목사는 “병어리 개”입니다(사56:10). 짚어야 할 때 짚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양 떼가 짐승들에게 잡혀 먹기에 하나님은 악한 침묵을 하는 자를 꾸짖고 계십니다. 또한 악인을 꾸짖으시는 판단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중심에 악을 행하지 말라고 꾸짖고 계십니다(2절). 말과 행함이 다른 위선자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고 계십니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을 행하는 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을 행하면서 곁길로 나아가는 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마치 귀머거리 목사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고 계십니다(5절). 저는 오늘 “판단하시는 하나님 (2)”이란 제목 아래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나머지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십니다(6-9절).

시편 기자 다윗은 악인들의 핍박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악인들을 처치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은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1) 다윗은 악을 행하는 도구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8편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다윗은 자기를 핍박하는 악도들을 가리켜, 비인도적이고 잔인하기가 사자와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사자가 입을 사용하여 먹이를 잡아먹듯이 악한 방법들을 통하여 의인을 공격하고 쓰러트리려고 하였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그 악인들의 악을 행하는 도구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2) 다윗은 악인의 사라짐과 그들이 의도한 계획도 무마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8편 7절과 9절을 보십시오: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 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7절),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9절). 7절 말씀은 비 내린 후에 잠시 흘러내리고 마는 경사지의 계천처럼 악인은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박윤선). 그리고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신다는 말씀은 목적물을 향한 살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꺾인 것처럼, 악인의 흥계도 이루지 못한 채로 끝난다는 말씀입니다(박윤선). 9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는 시장하여, 도중에 가마를 걸고 가시나무를 연료로 하여 밥을 짓는데 그 때 갑자기 강한 회리바람이 불어와서 그 연료를 날려 버리는 것처럼 악인의 간계는 이루지 못한 채 실패되고 마는 것입니다(박윤선). 하나님께서 악인의 계획을 무마시킨 예는 다윗의 이야기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인 압살롬에게 도망 다닐 때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새(삼하16:16)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셨습니다(17:14).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14절).

(3)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을 달팽이 같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8편 8절을 보십시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왜 다윗은 달팽이 같게 해달라는 기도했습니까? 그 이유는 달팽이는 땅에 스스로 밀고 다니는 때마다 제 몸을 소모하고 닳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자기들의 악한 행동을 할 때마다 자신을 더욱 망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박윤선).

마지막 셋째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10-11절).

하나님의 축복을 한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첫째 축복은,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8편 10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함이어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할 때 왜 의인 다윗은 기뻐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결코 악인의 멸망 자체로 인하여 기뻐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기뻐하였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의 의로운 판단을 보았기에 그는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2) 둘째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은 바로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8편 11절을 보십시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판단케 하시도록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들춰지면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도말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장인 어르신 생신인 수요일 밤에)

제 59편: 주님의 힘을 노래하십시오.

[시편 59편]

오늘 저는 욥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익히 알고 있는 듯 한 욥의 이야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탄과 그의 세력이 욥을 칠 때에 과연 욥의 심정은 어떠했었을 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든 물질도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들도 죽고 또한 욥 자신의 생명은 사탄이 어찌할 수가 없었지만 극심한 육신의 고통을 겪었던 욥을 생각할 때에 상상을 할 수도 없지만 왠지 욥의 친구들을 생각할 때에 저는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결국 욥의 말처럼 그들은 욥을 ‘번뇌케 하는 안위 자’(Sorry comforters)(욥16:2)였다는 말씀처럼 제 자신을 볼 때에 좋은 의도로 주위에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로하려고 는 하지만 혹시나 ‘번뇌케 하는 위로 자’였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는 욥 자신은 어떠했었겠는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가 겪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 위로는 커녕 더욱더 욥에게 괴로움을 더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괴로움 속에 있었던 욥은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또한 무지한 가운데서 여러모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만일 욥의 친구였다면 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사탄의 어두운 세력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면서 고통 하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길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극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무능력함이 철저히 계속 들어나는 것을 느끼고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권능)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금년 초에 우리교회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사도행전에 근거하여 4가지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기도해오고 있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 이 네 가지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저는 이 능력을 하나로 묶어서 ‘성령의 힘’(Power of the Holy Spirit)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힘이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힘의 원리(Principle)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 (Power of the Word of God), 둘째로, 성령의 힘의 패턴(Pattern)은 예수님의 사랑의 힘 (Power of love), 마지막 셋째로, 성령의 힘의 파워(Power)는 기도의 힘 (Power of Prayer)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59편 16절과 17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 또한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힘이 무엇이기에 다윗은 주님의 힘을 노래하고자 결심하였는지 오늘 “주님의 힘을 노래하십시오”라는 제목 아래 한 4가지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므로 우리 또한 다윗처럼 어떠한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의 힘을 노래(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힘은 보호의 힘입니다.

성경 시편 59편 9절, 16절 하반절,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9절), “...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16절 하반 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 이다”(17절). 요즘 제가 더욱더 조금이나마 피부 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 수가 없는 참으로 깨지기 쉬운 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쉽게

변질되고, 금방 쓰러지고 자빠지고 낙심하며,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사탄의 세력에 밀리고 저서 결국은 마음의 불신으로 인하여 불순종의 범죄를 짓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이던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상황에 지배를 받아 두려움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9편에 나오는 다윗이 처해있던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사울 왕의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사람들은 다윗의 원수들이요 사악을 행하는 자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었습니다(1-2절). 이들은 다윗에게 달려왔으며(4절) 개처럼 울며 성으로 다녔습니다(6, 14절). 다윗은 자기를 쫓는 원수들을 가리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닌다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 묘사하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피의) 굶주린 개들이 울면서 우리 주위를 두루 다니다가 결국 우리를 발견하고 쫓아온다고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뛰어 그 굶주린 개들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고자 피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개처럼 쫓아오며 달려오는 사울의 사람들에게 도망하여 자기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 피신하였던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유일한 살 길이다. 우리가 주위 사방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끌려 정신이 혼란해질 뿐이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낙심할 것뿐이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기쁘고 행복하다. 그 이유는, 그는 ‘산성’과 같아서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견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위 사방을 바라보면 정신이 혼란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낙심 속에서 영적 침체까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는 오직 자기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의 보호를 사모하여 그 분에게 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보호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찬송가 432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워 낙심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2절),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후렴).

둘째로, 주님의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성경 시편 59편 10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 받는 것을 나로 목도케 하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인자하심(사랑)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더 나아가서 이겨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목상할 때 요나 선지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므로 결국은 물고기 안에 있으면서 깊은 바다 속으로 내려갔지만 그 깊은 바다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깊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라 생각합니다. 깊은 고통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인... 제가 가끔 불렀던 미국 복음성가 중에 “주께 가오니”(Power of Love)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이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주로 언제 경험하는가 생각해 보니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연약할 때 곧 강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9편10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자기를 영접하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여기서 ‘영접하신다’는 말씀은 ‘나에게 때 맞추어 온신다’는 뜻입니다(박윤선). 즉, 다윗은 환난 날에 구원의 하나님이요 다윗을 보호하시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다윗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견뎌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조차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길 인내하므로 모든 역경과 고통을 견디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자 인내하시며 마음 아파하심이 더 크고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고통과 역경 속에서 참고 견디므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대조적인 면입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다윗의 원수들은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지만(15절) 다윗은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16절). 여기서 한 2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첫째 교훈은, 악인은 육의 양식인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지만 결국은 배부름을 얻지 못하지만 의인은 주님의 힘으로 만족한다는 사실입니다. (2) 둘째 교훈은, 악인은 배부름을 얻지 못하여 밤을 새우지만 의인은 그 핍박과 죽음의 공포 상황에서도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잠을 자고 새 하루 새 아침을 주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주께 가오니”라는 미국 복음성가의 나머지 2절과 후렴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의 뜻 이루도록 새롭게 되리라 주의 사랑으로”(2절),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처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후렴).

셋째로, 주님의 힘은 공의의 힘입니다.

성경 시편 59편 11절을 보십시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흠으시고 낮추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자기의 원수들을 얼른 죽이시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그 죄 값으로 인하여 곤고를 당하게만 하시어,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은 반드시 천벌을 받는 사실을 명심케 해 주시기를 기원하였습니다(박윤선). 그러나 웬지 악인은 반드시 천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대답을 시편 50편 21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 악인들은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므로 자기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두려움 없이 계속 더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같이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이신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원수들을 흠으시고 낮추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윗은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59:5). 분명히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원수들의 “보응 받는 것”을 목도케 하셨습니다(10절).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13절).

마지막 넷째로, 주님의 힘은 구원의 힘입니다.

성경 시편 59편 1-2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시편 기자 다윗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원수들인 사울이던 압살롬이던 누구이던 간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줄 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의 (구원의) 힘을 노래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주님께 노래하기로 결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바울과 실라 또한 감옥에서 그 다음 날이면 처형을 당하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찬미할 수가 있었습니까?(행16) 이것은 예수 전도단에서 섬기시는 홍성건 목사님의 주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홍 목사님은 찬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나 실라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경우를 보면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였고 또한 찬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 2가지로 설명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첫째로, 사도 바울이나 실라나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던지 아니면, (2) 그들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예를 들어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믿었었기에 아직도 건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상황은 두 번째 설명은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힘을 믿음으로 찬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원수들이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모여서 옆드려 기다린 후 치려하였는데 이는 그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그의 죄를 인함도 아니었습니다(3절하). 사실 다윗은 허물이 없었으나 그의 원수들은 다윗에게 달려와서 공격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4절).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며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께서 깨사 감찰하시길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억울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억울한) 상황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힘으로 말미암아 찬송가 474장 후렴을

찬양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저는 이 세상은 참으로 근심된 일과 곤고한 일, 죄악과 죽을 일이 쌓인 세상임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474장을 종종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저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보호하심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어떻게 불안해서 살아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힘을 믿으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하므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힘과 사랑의 힘과 공의의 힘 그리고 그의 구원의 힘으로 우리는 숨질 때 되도록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움을 받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목사 나눔

(목요일 새벽에 “주님의 숲”이란 찬양을 들으면서)

제 60편: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시편 60편]

“회복”하면 생각나는 기억은 한 1-2년 전 교회 집사님과 함께 한 부부 가정에 찾아간 일이 생각납니다. 그 때 그 가정부인 자매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회복의 기도를 드렸었는데 기도 후 그 자매가 어떻게 목사님들은 다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의아해 한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저는 그 부부를 방문한 후 교회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았을 때 “왜 나는 그 부부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죄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한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 2년 전 송구영신예배 때 5 R's의 말씀을 선포한 기억이 납니다: Repentance (회개) → Reconciliation (화목) → Restoration (회복) → Reformation (개혁) → Revival (부흥). 진정한 회복을 위해선 먼저 우리는 회개하므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60편 1절 하반 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now restore us!)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 아래 다윗은 왜 회복의 기도를 드렸고, 또한 회복의 기도를 어떻게 드렸으며 마지막으로 회복의 기도를 드린 후 그의 자세는 어떠하였는지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왜 다윗은 회복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로 전쟁에서 일시 패배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시60:1-3)(박윤선). 다윗은 일시적인 전쟁에서의 패배의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흠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1절),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2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3절). 여기서 “포도주”(3절)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비유입니다(박윤선). 즉, 다윗은 에돔의 침략으로 인하여 일시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3절). 그래서 다윗은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1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2절)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으므로 당연히 틈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그 틈을 기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쓰러지고 자빠지고 인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이 신앙이 견고히 서있는 것 같고, 우리 가정, 우리 사업이나 우리의 교회가 견고하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십니다(2절). 그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우리와 우리 가정 및 사업 또한 성기는 교회의 기초를 흔드시면 어떻게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삶에 틈이 많이 보이므로 흔들리고 요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케 할 만한 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_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참된 회복은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다윗은 회복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다윗은 2가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 다윗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0편 5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사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실 줄 다윗은 확신하였습니다. 복음성가 “비전”이 생각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2) 다윗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0편 4절을 보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를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셀라).”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a banner)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를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 주실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는 바로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 승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군대가 강하고 군인 숫자가 많고 무기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므로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싸워 다윗은 승리할 줄

확신하였습니다(8절). 그래서 그는 “내가 뛰놀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6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내다보고 기뻐하였던 다윗, 어떻게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6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다윗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찬송가 400장 4절과 후렴 가사입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빛나네”(4절)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후렴).

마지막 셋째로, 회복의 기도를 드린 후 다윗의 자세는 어떠하였습니까?

한 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0편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자심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1)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0편 9절을 보십시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여기서 “견고한 성”은 에돔의 수도 “페트라”(Petra)를 앞에 두고서 난공의 성임을 말합니다(박윤선). 반석과 같이 견고한 에돔의 성 …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성을 무너트리고 자기와 이스라엘 군사들을 그 성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었던 것입니다.

(2)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면서 과거의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 가운데 다윗과 그의 군대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패배 당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꼭 함께 하여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께 함께 전쟁에 나아가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소용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3)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사람의 구원은 헛됨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 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용감히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나아가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에돔과의 전쟁에서 일시적으로 패배를 경험한 다윗은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회복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감히 행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제임스 목사 나눔

(회복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 61편: “내 마음이 놀릴 때에”

[시편 61편]

요즘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영적 투쟁”(The Christian Warfare)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사랑하는 동역자 한 분과 옴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탄의 세력과 영적 싸움에 대하여 더 알아야겠다는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귀의 전략 중 하나인 마귀는 어느 정도 자연까지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에 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아래 옴을 치기 시작했을 때에 옴의 종들 가운데 하나가 옴에게 와서 그의 소와 나귀를 빼앗겼으며 지키는 자들은 살해당하였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옴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 하나님의 불이 - 즉 번개가 -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 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옴1:16). 여기서 번개를 일으키는 것과 번개로서 파괴시키는 일이 마귀의 영역과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마귀가 무엇보다도 관심 있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인 “정신”을 집중적으로 교활하고 무서운 권세로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마귀는 여러 가지 귀계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정신을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포의 영으로서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말한 사도 베드로가 결국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며 주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마귀가 지극한 공포의 영이 그에게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공포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존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즘 교회에 대하여 이러한 뼈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마취를 당하고 흥미하게 되어 잠에 떨어지고 전혀 그 투쟁(영적 투쟁)을

알지 못합니다.”

항상 덧과 올무를 놓고 있는 마귀, 그는 지금 교회 안에서 성공하고 있는 듯 해 보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기소침, 낙심, 패배감 그리고 완전한 절망감은 일반적으로 마귀의 활동의 결과”라고 말씀하였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기소침하며 낙심하며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감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 시편 61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1편 2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내 마음이 놀릴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린다”라는 말은 “자포위”(self-enveloping)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여러 가지 우고에 싸여서 기진맥진해 갈고 절망되어 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박윤선). 다윗은 원수들(3절)의 핍박으로 인하여 절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을 통하여 과연 우리가 다윗처럼 마귀의 악한 세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놀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싸워 이겨야 하는지 한 네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윗처럼 마음이 놀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경 시편 61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언제가 수요일기도회 때 시편 42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낙망과 절망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회로 삼자고 도전한 기억이 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낙망하며 절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갈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웬지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갈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내 마음이 놀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땅 끝에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너무나 절망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으며 그러므로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느낌 가운데서도 그는 자포자기하면서 절망 가운데 자신을 내어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나 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 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자기보다 “높은 바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할지라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다윗처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도 바다 깊은 속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한 것처럼(욘2:4)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윗처럼 마음이 놀릴 때에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61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셀라).”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서 그 분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놀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 이다”(3절).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 속에서도,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7절 하반 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짓눌려 있는 다윗에게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음이 짓눌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를 받고 있었기에 그는 주님께 간구하면서 그 주님께 피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에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꼭 붙잡고 놓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또한 그 약속대로 신실히 이행하실 줄 믿음으로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박윤선). 우리는 인생의 절망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인자)와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소망에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4절). 순간적인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을 바라봐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다윗처럼 마음이 눌릴 때에 과거의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61편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권이 일시 동안 불의한 압살롬 일파에게 갔다가, 다시 다윗의 손 안에 돌아온 것을 가리킵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다윗은 과거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서 하나님께 구원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였던 것입니다(박윤선). 다윗은 원수로 인하여(3절)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에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기보다 과거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였습

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본능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능은 마음이 놀릴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자기 행위나 공로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는 열왕기상19장에 나오는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에서 엘리야는 천사의 어루만지심과 먹여주심으로 인하여 호렘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호렘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사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있느냐”(9, 13절)라고 물으셨을 때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특심 하오니”(10, 14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대답을 생각해 볼 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자기 행위(혹은 공로)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의 문제 중 하나는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회개한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 또한 기억치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잊지 못하고 거듭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 과거의 삶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과거의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이 짓눌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 때 그 때 고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놀릴 때 지난 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므로 우리 마음의 절망이 소망과 희망으로 변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다윗처럼 마음이 놀릴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61편 7절을 보십시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 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로 장수케 하사 자기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6절). 그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장수의 축복을 간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길 간구하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원수들로 인하여 마음이 놀려 절망가운데 있는 다윗,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피한 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므로 소망하되 순간적인 절망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길 간구하는 모습을 … 우리 또한 다윗처럼 순간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길 간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왕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로서 그 나라에 영원히 거하길 간구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또한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증거 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실 때 우리 또한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계22:20).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놀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게 피하였습니다. 그런 후 다윗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주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라고 결심하였습니다(8절). 우리 또한 다윗처럼 마음이 놀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피한 후 우리는 과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길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찬송가364장)을 찬양한 후,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낙망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기회로 삼길 기원하면서)

제 62편: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시편 62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헨리 나우웬은 그의 책 “마음의 길”(The Way of Heart)란 책에서 침묵에 관하여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 교회의 모든 조직적인 활동을 지도함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을 분주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분주하지 않게 하느냐는 것이다”(나우웬).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이 너무 분주합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 마음이 분주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의 음성을 들을 여유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다른 일들에 마음이 분주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어늘 ...”(사30:15).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62편 1절과 5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1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5절).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십시오”란 제목 아래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첫째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다는 말씨는 사람이 자기의 소욕이나 또는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움직임이 없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함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오늘 본문 시편 62편 8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셀라).” 여기서 “시시로”란 “언제든지”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충성하고 있는 민중을 향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민중에게 “그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씨는 물 쏟듯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뜻입니다(박윤선). 박윤선 박사님은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다는데 대하여 두 가지로 생각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1)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그에게 마음을 전적으로 바쳐 사랑합니다. (2) 둘째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는다는 것은, 모든 난관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안심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분을 전적으로 그리고 언제든지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조용히 나아가 우리 마음을 기도로 쏟아야 합니다.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의 후렴 가사를 보십시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둘째로, 언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다윗은 그의 원수들인 압살롬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핍박하고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 3-4절을 보십시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셀라).” 다윗의 반역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그 왕좌에서 끌어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간계는 입으로는 다윗 왕을 축복하였지만 속으로는 그를 저주하였습니다. 거짓을 즐겨하는 이들은 일제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자기를 반역한 압살롬의 사람들을 가리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 다닐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이 강하고 견고해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다윗이 보기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보였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지 않는 사람의 관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지 않는 보통 사람,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자는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의 사람들과 같은 우리들을 너무나 강하고 힘이 있고 견고한 우리들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관점을 다윗의 관점처럼 그러한 우리들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들로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은 지금 어떠합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접한 삶의 역경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보십니까?

셋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 1절과 5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1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

나는도다”(5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랬던 이유는 하나님만이 자기의 구원이요 소망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람이여” (1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5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2, 6절).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 알파’,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경향이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끊으십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3절 가사처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케 하십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 중 하나는 저의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찬송가 82장(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을 불러달라고 하셨던 기억입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는 특히 1절과 4절 가사 중 이 부분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1절), “...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4절).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산성”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 2절과 6절을 보십시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2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6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 그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잠잠히 의지할 때에 우리는 요동치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요동치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요 구원이여 산성으로 삼지 않는 무지한 자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들입니다(3절).

(2)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도 또한 무엇도 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a)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 9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러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0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였습니다(12절).

(b) **우리는 권력이나 물질을 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 10절을 보십시오: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우리 사람의 본능은 권력이나 재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권력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포학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 11-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다윗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씀입니다(11절). 전쟁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가운데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잠잠히 그를 바라는 자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결국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두 우리의 구원이시요 소망이 되시며 반석과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우리, 사람이나, 권력이나 늘어나는 물질 등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십시오. 그리할 때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강한 압살롬과 같은 문제나 어려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보기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제임스 김 목사 나눔(나의 구원, 나의 소망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제 62편: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시편 62편 8절).

은혜를 받은 후에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이 생각납니다. 저는 지난 2016년도에 인터넷 사역으로 한국에 나아가서 받은 은혜가 총만한 가운데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제 마음이 좀 흔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제 마음이 우울해지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피곤함은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왜 제 마음이 우울해지려다가 다시금 괜찮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오늘 본문 시편 62편 말씀을 읽다가 3절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시편 기자 다윗은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원수들이 일제히 연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의 현 상황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원수들은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짓을 즐겨하는 자들로서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하였기 때문입니다(4절). 즉,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되 담이나 울타리와 같은 보호막을 흔들어 놓고 넘어트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요 전략입니다. 사탄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잠4:23)의 보호막과 같은 담과 울타리를 흔들어 놓고 심지어 넘어트리려고 부지런히 애를 쓰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하여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며 우울케 하며 심지어 절망케까지 하려고 부지런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

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한 2가지로 목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현대인의 성경) “나의 백성들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동시에 깨달아야 합니다: (1) 재산이 늘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10절, 현대인의 성경)과 (2)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1, 2, 5, 6절). 사탄이 우리를 특히 물질의 유혹으로 많이 공격합니다. 특히 우리가 물질적으로 궁핍함 가운데 있을 때에 사탄은 돈으로 우리를 부지런히 유혹합니다. 유혹하되 사탄은 심지어 우리의 재산을 늘어나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유혹하여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게까지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재산이 늘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10절, 현대인의 성경). 오히려 우리는 시편 기자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8절). 의지하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1, 5절). 우리는 오직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2, 6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성경 시편 42편 5, 11절과 43편 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종종 이 말씀을 제 기도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특히 제가 낙심되고 제 속에서 불안해 할 때 저는 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제임스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제임스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할 때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불안해하던 제 영혼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금 소성케 하여주시고 일으켜 주시곤 하십니다. 이와 같이, 저는 제 마음이 흔들릴 때에 시편 기자 다윗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62:5)고 제 자신의 영혼에게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1, 5절). 그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과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2,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잠잠히 바라보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2, 6절). 오히려 우리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사30:15).

마지막 둘째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 8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셀라).” 공동체 안에서 많은 지체들이 자신들의 고민과 고충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고민과 고충을 나눴을 때 그것이 교회 안에서 소문이 나서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상처가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고민과 고충을 끼어 앉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 하는데 서로의 고민과 고충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교회 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새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그 찬송가 후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우리의 심정을 토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권면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8절). 그가 그리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3-4절) 자기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토해냈었기 때문입니다(7절). 그리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들은 말씀의 내용은 2가지였습니다: (1)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11절)와 (2)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다’(12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얻을 것이며(사30:15) 우리의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시63:3).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자들입니다(62:3, 현대인의 성경). 사탄과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일제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3절). 그들은 거짓을 즐겨하는 자들로서 입과 속이 다른(4절) 속임수로(9절)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있습니다(4절). 그들은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신뢰)해야 합니다(8절). 우리는 잠잠히 오직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1, 5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8절).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11-12절).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2, 6절).

제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시편 63편]

오늘 새벽기도회 때 잠언 12장 3절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움직이지 않는 의인의 견고한 뿌리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러한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같은 잠언 12장1절 말씀에서 그 대답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 움직이지 않는 의인의 견고한 뿌리 깊은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책 “영적 투쟁”에서 말하고 있듯이 사탄의 역사 중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모스의 예언처럼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임한 것입니다(암8:11). 그러므로 말미암아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호4:6).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강해질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는 것입니다(잠24:5).

오늘 성경 시편 63편1절을 보면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므로 왕궁에서보다 오히려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고 넓게 알게 되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다윗의

시를 묵상하면서 과연 이러한 고백을 하는 신앙인의 마음은 어떠한지 한 6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63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란 다윗 말대로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 광야에서 목말라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다윗이 왕궁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에서 다윗이 그의 생애 동안 범한 중대한 죄 중에 가장 변명의 여지가 없고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한 죄가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왕궁에서 범한 이 다윗의 죄에 대하여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은 순간적 정욕을 못 이겨 범한 혼외 정사였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왕으로서 저지른 죄가 우리아를 죽인 것이다. 그러나 압살롬을 거절하는 행위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풍성히 받았던 것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지속적으로 결연하게 거부한 죄였다”(피터슨). 피터슨 목사님은 다윗이 압살롬을 왕궁에 데리고 온 후에도 그를 무정하게 대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관심 역시 점점 줄었을 것이고 기도의 삶도 줄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압살롬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멀리하면 할수록 다윗은 하나님과도 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풍부함 속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왕궁’과 같은 삶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는 주위에 아무 것도 없는 “곤핍한 땅”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성경 호세아2장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개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면서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로 징계 하시되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부함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므로 범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징계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거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다윗의 간절함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광야에서는 그의 육체가 밧세바와 같은 여인을 갈망하며 양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궁에서는 자기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요일2:16)을 갈망하며 양모했었던 적이 있었지만 이젠 광야에서는 오직 그의 영혼과 육체가 주님만을 갈망하며 양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시63:1).

둘째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다윗의 영혼은 밤중에 주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63편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하루의 첫 시간이 새벽도 주님을 묵상하기 좋은 시간이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는 밤중도 주님을 묵상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홀로 앉아 주님을 묵상하되 그가 오늘 하루 삶에서 행하신 일을 뒤돌아보며 회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의 만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신앙성장에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침상’에 있는 때는 그 마음을 모든 외부적 사무에서 일단 거두게 된다. 그 때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그의 영혼이 밤중에 주님을 기억하였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바로 다윗은 과거의 주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셨던 사실을 회상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과거에 도와주신 주님께서 지금 현재 유대 광야에 있는 자신을 도와주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7절). 다윗은 과거에도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로 피할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도우심을 밤중에 묵상하면서 오히려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를 그의 날개 그늘로 인도하시사 보호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다윗처럼 밤중에 침상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다윗의 영혼은 만족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63편 5절을 보십시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 분명히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도망하여 유대 광야에 있었기에 왕궁에서처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물이 없고 마른 유대 광야에서 육체적으로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영적으로는 만족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는 광야에서 마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영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을 경험하였기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3절).

과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만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나 다윗처럼 왕궁과 같은 곳에서 생활하면서 육체적으로는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배가 불러 만족함을 누리고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굶주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다윗은 왕궁에서의 육체적 만족감 속에서 결국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 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압살롬에게 배반당하고 쫓겼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유대 광야에서 그는 육체적으로는 굶주리고 궁핍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광야를 성소로 삼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사모하는 가운데 결국 영적으로는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복음성가 “주님과 같이”(There is None Like You)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 받는 자녀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결국 우리는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망하는 영혼을 만족시킬 줄을 믿고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때에 우리 영혼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다윗의 영혼은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63편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왜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를 광야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인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홍성건 목사님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책을 보면 6장은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 찬송의 능력”이란 장이 있습니다. 그 장을 보면 그는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찬양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내용이 믿음의 고백일 때,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할 때에 영어로는 ‘I will praise You’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찬양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찬송할 수 없을 만큼 내 환경이 답답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홍성건). 그 예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를 들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결심하고 찬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나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왕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렇게 유대 광야에서처럼 경험하질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왕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는 자기 아들 암논을 죽이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을 그렇게 왕궁에 데리고 오고도 거리를 두면서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압살롬으로부터 도망 다니면서 그를 죽이려는 아들의 사람들에게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되 “주의 날개 그늘”(7절) 아래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유대 광야에서 경험하였습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광야에 있는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은혜의) 손길을 다윗은 왕궁보다 광야에서 더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갈망이 더 간절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다윗의 영혼은 주님을 가까이 따랐습니다.

성경 시편 63편 8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기서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 신명기 4장4절을 보면 그 대답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즉,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말씀은 주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그의 주님을 향한 다윗의 변하지 않는 헌신(unfailing commitment)을 가리킵니다. 한 마디로,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재헌신(recommitment)을 한 것입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 잠시 주님을 떠나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지만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 나아가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따랐습니다. 왕궁에서는 주님께 붙어있지 못했던 다윗이 광야에서는 주님께 붙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왕궁에서보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변하지 않는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왕궁에서는 변질, 광야에서는 변하지 않는 헌신을 하게 된 것을 보면 ... 다윗은 광야에서 주님의 오른손이 자기를 붙들어주시고 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광야를 성소로 삼아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였었는데(시63:2)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사 그의 권능, 즉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주님께 붙어 떠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제일 연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대적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9-10절).

마지막 여섯째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성경 시편 63편 11절을 보십시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 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다윗은 광야에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기쁨은 왕궁에서 잠시 누렸던 세상적 쾌락하고 전혀 다른 것이 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맛본 기쁨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즐 수도 없는 기쁨 이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주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경험하였기에 즐거워하였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자신의 영혼이 만족함을 경험하였기에 기뻐하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린바 되었던 다윗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은 꼭 환경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왕궁에서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였습니다. 다윗의 즐거움은 오직 주님 때문 이였습니다. 그는 주님 한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한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저녁에 뜻 밖에 영어사역 공동체 가운데 있는 한 형제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 영어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이 주신 “revelation” (계시)이 있다고 말하면서 만나길 원하여 그 다음 날인 화요일 만나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확신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길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알려달라고 하여 저는 그에게 제일 먼저 매 주일 규칙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권면하였습니다. 먼저 예배자로 세워지면서 그 존재 안에서 행함(성김)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권면을 들은 그 형제는 제 의견에 동의하는 듯 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 형제와 주님 안에서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중 저는 그 형제의 확고한 신앙, 즉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앙을 엿보게 되어 마음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6:3).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시63:1).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역경과 어려움,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밤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그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므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한분으로만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O God, You are my God” (‘하나님,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제 63편: 제임스의 노래: 광야에서 부르는 찬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시편 63편 3절).

오늘 이렇게 찬양의 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한국어 사역 찬양 팀에서 이렇게 ‘찬양의 밤’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밤을 위하여 준비하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할 때 저는 오늘 찬양은 “광야에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도시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저는 그들의 마음을 바라볼 때 광야와 같은 메마른 곳에서도 참된 오아시스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애써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광야에서 부르는 찬양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부르는 찬양은 마치 오늘 성경 본문인 시편 63편 3절에 나오는 다윗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 광야를 성소(예배당)으로 삼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의 밤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6개의 찬양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것도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부터 교회를 다녔겠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한국 상계동에 있는 “상현교회”라는 곳에서 저의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 때 아버님이 섬기시던 그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뒤돌아 볼 때 생각나는 찬양은 바로 “돈으로도 못가요”입니다. 3절까지 있는 가사지만 1절 밖에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1절) “돈으로도 못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가요 하나님 나라,” (후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제가 아직도 그 어린 나이에 교회를 다니면서 불렀던 많은 찬양 곡들 중에 이 곡이 잘 생각나는지…. 아마도 “돈”이라는 단어가 가사 1절 제일 처음에 나와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하.

그리고 제가 한국 나이로 12살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한인 타운에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저는 알파벳도 모르고 미국에 와서 다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시험 봐야 한다고 해서 울면서 단어 20개를 외운 기억이 납니다. 사춘기에 들어서서 미국에 와서 그랬는지 미국 삶에 적응이 늦고 문화, 언어 차이 등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좀 힘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저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소이 말하는 방향의 시기를 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사의 자녀였기에 일요일 교회 예배는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때 제가 접하게 된 책들이 바로 김형석 씨와 김동길 씨의 책들이었습니다. 그 분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저는 작은 철학자가 되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과연 어떻게 해야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식의 질문들을 수 없이 제 자신에게 던지면서 그 행복과 목적을 세상에서 찾고자 방황했습니다. 그 때는 제 삶의 암흑기(?)여서 그랬는지 지금 뒤돌아보면 그 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이 장소에서 대학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그 집회도 마지못해 목사 아들이니까 참석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회 둘째 날인가 마지막 날 저녁에 강사 목사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로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감사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를 예수님께 받친 소년처럼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받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했는데 제가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왜 그리 눈물이 많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웬지 머리만 들고 알았던 예수님을 만나니 자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 자신이 의도적으로 알면서 범했던 모든 죄악들이 생각나면서 그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었습니다(회개의 눈물). 그리고 그저 감사했습니다. 저 같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 밖에 안 되는 존재를 부르시사 쓰시겠다고 하시니 그저 감사했습니다(감사의 눈물).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역사하셔서 저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헌신의 눈물). 그 때에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신학교 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의 대학 공부 목적은 “돈”이었는데 그 수련회 후로는 저의 목적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즐겨 부르게 된 찬양이 바로 “나의 모습, 나의 소유”란 곡입니다. 영어로는 “I offer my life”, 즉 ‘나의 삶을 받칩니다’입니다:

- (1절)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 (2절)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 (후렴)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여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 찬양이 그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 제 심비에 더욱더 깊이 적힌 마음의 찬양입니다. 제가 그 후로부터 기타 치는 것을 혼자서 스스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말마다 대학교에서 Los Angeles로 올라와서 친구들을 만나곤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을 예수님께 받치고 나서부터는 이젠 더 이상 주말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먹고 담배피면서 파티 다니고 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양심에 찔림이 있어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책감 속에서도 방황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여기 교회 식탁에 슬리핑백을 깔고 자기에 앞서 교회 밖에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친구들이 지금쯤 어디에 있겠지 등등 생각하면서 외로움 속에서 기타를 스스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때 복음성가 집 책 맨 뒷면에 기타 코드를 어떻게 잡는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D 코드, G 코드, A 코드 등 배우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기타를 치면서 부르기 시작한 찬양이 바로 “좋은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곡은 기타 코드라 제일 간단했거든요. 하하. “좋은신 하나님, 좋은신 하나님, 참 좋은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대학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기독교 동아리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때 제가 Personal manager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Personal manager이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때 당시 비퍼(beeper) 차고 다니면서 연락 오면 제가 그들에게 전화해서 그들이 차가 없으니까 여기 저기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그랬습니다. ㅎㅎㅎ 마켓에도 데려다 주고 교회 기도하러 간다고 하면 데려다 주고 다시 기숙사로 데려주고 ㅎㅎㅎ 그 때 사람들을 돌보다가 몇몇 자매하고는 이성감정까지 들어서 그 감정을 억제하고 섬기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안 사실은 저를 또 짝 사랑했던 자매도 있었던군요. ㅎㅎ 그 때 제가 심리학 공부하면서 그리고 자매들을 섬기면서 마음으로 깊이 배우게 된 단어가 바로 “suppression”(억제)하고 “rejection”(거절)’이란 단어였습니다. ㅎㅎ 그 때 몇 번이고 자매들에게 거절당하면서 배우게 된 영어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Benny Hester란 사람의 “Nobody knows my like you”(하나님, 당신만큼 저는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찬양 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용기내서 자매 사랑에서 이성 감정이 든 자매에게 제가 한 마디 듣고 상처 입어서 기말 시험 기간에 시험공부 접고 혼자 차타고 바닷가에 가면서 창문을 열고 그 노래를 크게 틀고 크게 외쳐

불렀던 때를 ... ㅎㅎㅎ 그 때 이 찬양의 가사 중 특히 후렴이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Nobody knows me like You (하나님, 당신만큼 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You put Your arms around me (당신은 당신의 팔로 저를 감싸셨습니다)
You bring me through (당신은 저를 도와주시사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And there's many times I don't know what to do
(그리고 너무나 많은 때에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Though some know me well (저를 좀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Still nobody knows me like You (그래도 당신만큼 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All of my secrets to You I tell (저의 모든 비밀들을 당신께 말합니다)
You saw each time that I slipped and fell
(당신은 제가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다 보셨습니다)
And all of my faults yes, You know them well
(그리고 당신은 저의 모든 실수들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But You've never turned me away, no, no, no”
(그러나 당신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 때 지금 아내를 하나님께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마음에 있는 찬송가는 저희 결혼식 때 불렀던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1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절)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절)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그 때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저나 아내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잊지 못하는 찬양은 첫째 아기가 죽고 나서 화장을 한 후 뺏가루를 뿌리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은 “My Savior’s love for me”(날 향한 주의 사랑) 혹은 “I Stand Amazed”(예수의 임재 앞에 놀라움으로 서 있네)라는 영어 찬양입니다:

- (1절) I stand amazed in the presence Of Jesus the Nazarene,
And wonder how He could love me, A sinner, condemned, unclean.
(예수의 임재 앞에 놀라움으로 서있네 이 부정한 죄인을 어찌 사랑하시는지!)
- (2절) For me it was in the garden He prayed: “Not My will, but Thine.”
He had no tears for His own griefs, But sweat drops of blood for mine.
(내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갓세마네 기도했네
자신을 위한 선택 없이 날 위해 그 피 흘렸네)
- (3절) In pity angels beheld Him, And came from the world of light
To comfort Him in the sorrows He bore for my soul that night.
(천사들 연민 하던 때에, 세상의 빛으로 우리 슬픔 말기 위해 그 밤에
날 감당했네)
- (4절) He took my sins and my sorrows, He made them His very own;
He bore the burden to Calvary, And suffered and died alone.
(나의 슬픔 나의 죄를 자기에게 감당했네 갈보리 고난당하고 홀로
십자가 지셨네)
- (5절) When with the ransomed in glory His face I at last shall see,
'Twill be my joy through the ages To sing of His love for me.
(영화되어 승리하고, 그를 보게 될 그 날까지 기쁘게 부를 찬양제목
날 향한 주의 사랑)
- (후렴) O how marvelous! O how wonderful! And my song shall ever be:
O how marvelous! O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오 놀라워, 오 놀라워 내 노래 멈출 수 없네
오 놀라워, 오 놀라워 날 향한 내 주의 사랑).

저는 찬양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찬양의 능력이란 한 예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을 때(행 16:25)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것처럼(26절) 저는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사 이 세상에 매인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더 아가서, 바울과 실라 등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결하려다가(27절) 바울을 통하여 주 예수님을 믿어 그와 그의 온 가족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 크게 기뻐하였던 것처럼(31-34절) 오늘 밤 광야에서 부르는 찬양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뤄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제 64편: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라!

[시편 64편]

저는 이번 주 월요일 저녁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전도서 3장 18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첫 반응은 좀 의아해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 ...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곰곰이 묵상하다가 보니 시편 73편22절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잠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시하였던 시편 기자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의 결국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우매 무지한지 주님 앞에 짐승 같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짐승과 같은 사람은 악인의 결과에 대하여 무지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짐승과 같은 사람은 미래 악인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현재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오늘 성경 시편64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짐승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벌하시는 모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특히 9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 아래 한 2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원수의 교활함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후 우리는 다윗의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 마귀의 교활함을 파악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64편 6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여기서 “그들은” 다윗의 원수(1절)인 사울이던지 아니면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죄악을 꾸미다가 결국은 묘책 즉 완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의 생각은 ‘사람의 속뜻과 마음은 교활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참고: “...마음이 깊도다”란 말씀은 ‘마음이 간사/교활하다’라는 의미임](6절). 그러면 과연 다윗의 원수의 교활한 마음은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4 가지로 파악해 보는 가운데 우리 원수 마귀의 교활함을 파악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1) 다윗의 원수는 다윗을 해하려는 “비밀한 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4편 2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말씀은 다윗의 원수가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으며 (1절) 그들은 다윗의 생명을 해하고자 간계를 많이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원수인 그 행악 자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아주 묘책(완전한 계획)이라고 믿었습니다(6절). 이러한 행악 자들의 간교한 묘책에 빠지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빠져 나오지 못합니다. 그 묘책에서 벗어나게 하실 이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박윤선).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나를 숨기소서 ... 나를 행악 자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군중의 무지한 폭동)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2절). 우리가 이미 묵상한 시편2편1-2절을 보면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받은 자인 메시아(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자기의

종들인 ‘열방과 민족들’(1절),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을(2절) 다 모아 “분노”케 하며 “허사를 경영”케 하고(1절) 또한 “서로 꾀하여”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쁨 받은 자인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하물며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마귀는 항상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간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멸망시킬까 …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 다윗의 원수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면서 “비밀히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4편 5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히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여기서 물론 악한 목적이란 다윗의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다윗의 원수들은 비밀히 올무 놓았습니다. “‘올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토끼나 새를 잡기 위해서 밧이나 올무를 놓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다루는 참된 기술은 물론 그것을 숨기는 것입니다. 올무를 놓을 때는 그것을 완전히 위장하고 덮습니다(존스). 다윗의 원수들은 완전히 위장하여 비밀히 올무를 놓을 때에 “누가 보리요”할 정도로 자신들이 은밀히 놓은 올무가 자기들이 보기엔 완전했습니다(5절). 오직 하나님과 마귀만이 알고 있는 이 은밀한 올무, 다윗도 볼 수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귀가 우리 삶 속에 비밀히 놓는 올무의 위험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올무를 어떻게 피할 것인지 배워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보다 “영생”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악한 목적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 얻지 못하도록 비밀히 올무를 우리의 삶 속에 놓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1절).

(3) 다윗의 원수는 악독한 말로 다윗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4편 3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칼 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 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이것은 입술의 악독함을 말합니다. 그리도 악독한 말은 화살 같이 남을 쏘아 죽입니다. 곧, 악독한 말은 남의 명예를 훼손하여 매장시킵니다(박윤선). 다윗의 원수들은 칼과 화살 같이 날카로운 독한 혀를 악용하여 독한 말로 다윗을 찌르고 쏘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혀라는 것이 이렇게 악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혀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약3:8). 악인의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악인의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입니다.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비밀한 가운데서 다윗에게 올무 놓고자 의논하면서 칼과 화살 같은 자신의 악독한 혀를 다윗에게 겨누고 있었습니다.

(4) 다윗의 원수는 숨은 곳에서 갑자기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4편 4절을 보십시오: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다윗의 원수들은 모든 것을 비밀히 하다가 결국 다윗을 해하려고 숨어 있다가 갑자기 공격을 하되 두려움 없이 공격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결백한 다윗을 숨은 곳에서 갑자기 공격하였습니다. 요즘 이라크 전쟁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숨은 곳에서 스나이퍼들이 미국 군인들에게 총을 쏘서 죽이고 있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폭탄도 몰래 길바닥에 숨겨놓고 터트려서 미국 군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를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방비 상태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영적투쟁”이란 책에서 “교활함은 마귀의 큰 특성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참고: 창3:1).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네 가지로 다윗의 원수의 교활한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을 헤아려는 비밀한 꾀를 부리고 비밀히 울무 놓기를 하고 악독한 말로 다윗을 겨냥하면서 결국은 숨은 곳에서 갑자기 다윗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교활한 마음을 파악하였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까?

(1) 나의 근심을 하나님께 기도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4편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 우리는 가시덤불 같이 착란한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아야 합니다(박윤선).

(2)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4편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마귀의 교활함을 우리가 이겨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겨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숨겨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2절). 다윗을 숨겨주시는 하나님, 다윗의 원수들은 “비밀한 꾀”(2절)와 “비밀히 울무 놓기”(5절) 등 모든 것을 은밀히 행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은밀히 숨어서 울무 놓고 하는 다윗의 원수들의 악행 속에서 다윗은 ‘주님, 저를 행악자의 비밀한 꾀나 비밀히 울무 놓기에서 숨겨주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2, 5절).

둘째로, 우리가 우리의 원수인 마귀의 교활함을 파악한 후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64편 9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하나님의 행하심이란 한마디로 우리의 원수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홀연히 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7-8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는 방법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박윤선). 예를 들어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해하려고 숨은 곳에서 …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곤 하였지만(3절) 하나님은 다윗을 쏘는 다윗의 원수들을 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연히 다윗의 원수들은 상하게 되어(7절) 엎드러졌습니다(8절). 또한 다윗의 원수들은 칼 같고 활 같은 악독한 혀로 다윗을 겨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독한 혀로 다윗을 해하게 놓아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들을 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신 결과는 무엇 이었습니까?

(1)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신 것을 본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박윤선).

오늘 본문 시편 64편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리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리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2) 의인은 한층 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4편 10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리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신 것도 의인들에게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더 좋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원수를 갚아 주신 기회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마귀는 참으로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비밀히 꾀(음모)를 꾸미고 비밀히 올무를 놓고 악독한 혀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숨어 있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등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해하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누가 자신의 능력으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그의 종들을 벌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 앞에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매 무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을 벌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적 싸움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영적 투쟁을 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 믿으면서)

제 65편: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사람은 왜 만족을 모르는가?”(저자: 로리 애슈너어와 미치 메이어슨)란 책은 무언가를 성취해도 늘 무언가가 불만족스럽고 불안한 사람들, 기쁜 일이 생겨도 애써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강박관념에 스스로 사로잡히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분석서입니다. 10년 넘게 심리 상담을 해온 지은이들은 이러한 상태를 '만성 불만족 증후군'이라 부르고, 이와 관련된 일곱 가지 심리 증상을 분석하고 그 치유법을 이야기 합니다. 지은이들은 이러한 불만족 증상이 많은 실패를 겪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갖고 싶은 것을 손에 넣은 사람들일수록 심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행복해야 할 순간에 오히려 우울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은이들은 만족이 결코 성취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며, 조금씩 쌓여서 자기 자신을 얹매이게 만드는 불만족이 더 큰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만성 불만족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 성공을 해도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기뻐해야 할 순간에 오히려 그 일을 또다시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한다.
- 자신이 특별하고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그런 자신까지 의심한다.
- 자신의 노력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 속이 상하지만 막상 칭찬을 받으면 불편하다.

- 앞장서기보다는 늘 누군가를 도와주는 역할에 만족한다. 자신보다 능력 없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잘되는 것을 보면 씁쓸한 기분이 든다.
- 그저 그런 성공으로는 충분치 않다. 평범하다는 것은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다.
- 남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성과 가족, 혹은 일에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자신을 탓한다.
- 항상 자신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한다.
- 남에게 손을 뻗치는 것을 싫어한다.
- 늘 애를 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일 만족하고 계시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물질이 많고 소득이 풍부하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전도사 솔로몬 왕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의 눈이 원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누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2:10-11). 이 세상에서 솔로몬 왕처럼 다 누리본 사람이 어디있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솔로몬 왕이 다 누리보았지만 결국은 ‘헛되고 헛되도다’하는 고백을 생각해 볼 때에 결국은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할 수 없음을 솔로몬처럼 우리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시편 65편 4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은 “교회”를 상징하고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라는 말씀은 ‘신령한 은혜’로 만족한다는 말씀입니다(박윤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정한 후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 신령한 은혜로 만족해야 하는지 한 3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합니다
(시65:1-4).

성경 시편 65편 2절을 보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실 때도 있습니다. 즉, 응답 받는 기도에 대한 세 가지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1) 우리의 죄악입니다.

성경 이사야 59장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2)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성경 잠언 28장 9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3) 우리의 교만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떠한 기도를 들으십니까?

(1) 우리 주님은 찬양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65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우리가 6월달 구역 성경공부인 “기도의 능력”에서 배운 것처럼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이 중에서 찬양의 기도란 기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알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 좋은 예로 저는 시편 18편1-2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기자 다윗은 주님 앞에서 잠잠히(“기다리오며”) 머물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긴장하여 고대”하였습니다(박윤선). 특히 그는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는가 하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5절).

(2)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감사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65편 2절을 보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다윗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말씀하였던 것처럼 “모든 육체”인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옵니다(박윤선).

(3) 주님은 자백(회개)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65편 3절을 보십시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죄의 확신 성경구절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전쟁의 승리를 주심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합니다
(시65:5-8).

성경 시편 65편 5-8절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에서 구원 받은 일을 영두해 두고 전쟁의 승리를 주신 은혜로 인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박윤선). 압살롬의 핍박과 난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므로 찬양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로부터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좇아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5절). 여기서 “엄위하신 일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경이로운 일들 곧, 초자연적 행사들을” 통하여 다윗을 전(과거)에도 구원 하셨고 현재에도 구원해 주실 줄 확신하였습니다(박윤선).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다윗이 의지하고 믿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힘이었습니다(6절). 다윗은 연약해져서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에게 쫓기면서 오히려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가 의지하였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흰화까지 진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7절).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에게는 즐거움이 있었고 반대로 하나님의 종 다윗을 대적하였던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8절).

성경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면 “...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였습니다(시60:12). 승리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매 다윗의 전투적인 삶 속에서 그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였으며 또한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그는 만족하였고 또한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용감히 행해야 합니다. 물론 계속 되는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시달리고 괴롭고 또한 불안하며 낙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되 특히 그 구원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가운데 우리는 승리의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만족을 누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승리의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풍년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합니다(시 65:9-13).

성경 시편 65편 9절을 보십시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곡식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고자 자연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늘 문이 여시사 비를 내리시고 땅을 물로 적셔 주시므로 그 땅을 심히 윤택케 하시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땅으로 하여금 곡식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10절). 하나님은 다윗에게 풍년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증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주로 우리가 죄를 범한 후 회개치 아니할 때에 우리를 탕자처럼 궁핍케 하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스스로 돌이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결국 왕궁에서 범한 죄로 인하여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 서는 다윗을 광야에서 회개케 만드셨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을 왕궁으로 인도하시므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하여금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궁핍할 때에도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의지하던 물질 같은 것이

다 없어지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궁핍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풍부함을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엡1:4).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택함을 받았고 그의 예정하심을 입었고 그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 사함(구속함)을 받았으며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빌4:11-12). 그 자족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 한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1-13절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리 풍부할지라도 주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풍부함은 우리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핍할지라도 주님 한분만으로도 만족 할 수 있다면 그의 궁핍함은 그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기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 승리케 하시는 주님,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서)

제 66편: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시편 66편]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나요? 저는 종종 만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How is your spiritual life?)라고 물어보곤 합니다. 물론 저의 질문에 좀 당황하는 지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주로 대답을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있고 기도 모임에도 참석하고 성경공부도 참석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대답합니다. 그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지체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존재”(being)보다 “행함”(doing)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이 어떠하십니까 물었을 때 주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이런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자신의 행함을 말하지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성장과 더불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식의 대답은 잘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 곧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기보다 우리의 행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지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시편 66편 5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는 제목 아래 한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1)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6편 5절을 보십시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크고 기이한 일들 중 우리고 빼 놓을 수 없는 일은 바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사 육지 되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보로 강을 통과한 것입니다(6절).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 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심이 엄위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5절). 즉, 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하심이 “크고 기이하시도다”(계15:3)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크고 기이한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권능)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돌보주셨는지를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MacArthur). 그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돌봄)을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였을 때 그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시66:6). 또 다른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기이한 일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셀라)”(7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섭리하셔서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치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박윤선).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치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열방을 감찰하시고 계십니다(참고: 11:4-5).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66:7). 우리 인생이 무엇이 관대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처리하시며 감찰하시고 또한 돌봐주시는지 우리는 그의 크고 기이한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410장 1절).

(2)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6편 9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처리하시는 가운데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아끼시사 보전하시고 살려두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족치 않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을 단련함같이 단련하시므로 그들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하셨습니다(10절). 어떻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1-12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물에 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허리에 어려운 짐도 두시므로 말미암아 단련하셨던 주님, 왜 주님은 이러한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격을 빚어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11:4-5, 7b)(WBC).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신 후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에게 끌어내시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66:12).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단련시켜 주시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비록 잠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119:71). 즉,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격을 빚어 주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6편 1-2절과 8절을 보십시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1-2절); “만민들이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8절). 여기서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2절)란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네 영광을 삼으라”는 뜻입니다(박윤선, *Aben Ezra*, 칼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엄위하신 일과 세상을 다스리시고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가운데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셀라)”(3-4절).

(2)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6편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갠으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서원을 갠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언제 시편 기자는 이러한 결심을 하였습니까? “내 환난 때”입니다(14절).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찬송을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감사와 찬송이 그의 죄 때문에 더럽혀 하나님께 열납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번제 드리되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15절).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되 다윗이 살진 것으로 수소와 염소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인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받쳐야 합니다.

(3)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6편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이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다 와서 들으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모든 그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일은 무엇보다 귀하다. 그것은 그 받은 은혜 그것을 인해서 보다, 그런 은혜 받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진 관계를 인하여 그러하다. 그러므로 그는 침묵할 수 없고 또 침묵해서는 안된다.” 시편 기자 다윗도 시편 39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발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든 이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4)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6편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한 것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마음에는 죄악을 품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줄 알았습니다(시66:18).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19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그에게 거두지도 아니하셨습니다(20절).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행하신 크고 기이한 일을 묵상하십시오. 그가 우리의 영생(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행하신 크고 기이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처리하시며 감찰하시며 돌봐주시는 등 그의 은혜에 깊이 잠기십시오. 그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단련하시되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또한 우리를 빛으시사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장차 오실 재림의 예수님, 그가 오셔서 행하실 크고 기이한 일을 믿음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홀연히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며 경배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모든 이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사도 요한처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계22:20).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찬송가 40장 4절),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제 67편: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시편 67편]

오늘 우리는 슬픈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사람들에게 인질로 잡혀있었던 한국 분당 샘물교회 23 형제, 자매들 중에 인솔하였던 배형규 목사님이 피살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CNN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배 목사님의 시신이 천 같은 것에 두루마리처럼 싸워져서 트럭 차에 실려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야후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피살된 배형규 목사, 생일날에 비극적 죽음”이란 제목 아래 이러한 기사가 실려져 있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인 탈레반에 의해 살해된 배형규(42) 목사가 자신의 생일날 참혹하게 죽음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배 목사의 생년월일은 1965년 7월 25일. 마흔 둘의 나이가 된 날 멀리 타국에서 무장 세력들에 의해 머리와 가슴, 배 등에 10발의 총격을 당해 숨졌다. 경기도 분당 청년 샘물교회의 담임목사로 이 교회 부목사를 겸하고 있는 배 목사는 제주도 출신으로 아내와 현재 초등학생인 딸 한 명을 두고 있다”(인터넷).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인의 부인이 되시는 사모님과 초등학생 딸, 또한 그 목사님의 온 가족 식구들, 친지들, 샘물교회 성도님들, 친구들 …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고 배 목사님의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 번 제 자신 스스로가 설교했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다음 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하였다는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실제로 고 배 목사님이나 지금 텔레반 사람들에게 잡혀있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인 남은 22명의 한국인들, 그들은 어느 면으로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실제적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사도행전 16장의 사도 바울과 실라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만일 제가 지금 그 분들처럼 인질로 잡혀 있다면 과연 그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특히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C. S. Lewis는 찬송에 대하여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가장 겸손하고, 균형 잡힌 정신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은 항상 찬송하는 반면, 불평이 많은 사람은 가장 적게 찬송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균형 잡힌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찬양은 하여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3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시18:3; 시96:4). 둘째로, 찬양은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사43:21; 엡1:13-14). 셋째로,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시69:30-31; 시147:11).

오늘 성경 시편67편3절과 5절 동일한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라는 제목 아래 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한 세 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움 받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67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취사(셀라).”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그 첫 번째 기도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하였습니다(박윤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만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2절).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어제 새벽기도회 때 이사야59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1-2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를 “너의 죄악”/”너희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죄의 목록이 이사야 59장 3절부터 쪽 나옵니다. 저는 그 죄악 된 목록 중에 한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3가지는 “허망한 것을 의뢰”하는 것(4절), “죄악의 사상”(7절), 그리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는 것(8절)입니다. 이렇게 이사야59장 3절부터 나와 있는 죄악의 목록 중에 이렇게 3가지만 생각해봐도 참으로 인간의 죄악 됨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인지 그 죄악 목록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 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 그러나 이사야 59장 16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종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시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인지 결코 우리의 행함으로나 공로로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엡2:8-9).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찬송가410장1절).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한 판단 때문에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67편 4절을 보십시오: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셀라).” 시편 기자는 모든 민족이(2절) 주님을 찬송함에 있어서 기쁘고 즐겁게 노래해야 할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1절) 또한 오늘 본문 4절에서 그 두 번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또한 치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선벌악의 일을 하시지 않으신다면, 선을 따르는 의인들(성도들)의 생활이 무의미하고 즐겁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공평히 그 일을 하시며 통치하시니, 그들의 생활이 기쁘지 않으랴.” 상선벌악의 일을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의 공평한 판단으로 악인들을 벌하시므로 결국 선을 따르는 의인들(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참으로 죄악 된 이 세상은 법정에서도 불공평한 판단으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죄를 범하고도 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의 재판장들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조차 공평한 판단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절대 진리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란 헬라어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치'를 의미합니다”(인터넷).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

진리에 대한 결핍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무지한 가운데서 우리 또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치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공평한 판단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판단을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공평한 판단으로 상선벌악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96편 13절을 보면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실함으로 백성들 판단하심에 있어서 그는 일어나셔서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94:2)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의인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58:11)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인들)은 하나님의 공평한 판단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67편 6절을 보십시오: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받은 풍년의 축복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소산”이라는 단어에 의미에는 어쩌면 ‘증가/증진/확대’ 혹은 ‘생산’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선적으로 농업의 생산력에 사용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단어는 신의 축복으로 인하여 땅이 소산(열매)을 낸다는 개념을 지닌 단어일 것입니다 (WBC).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들로 하여금 축복하여 주셔서 소산(열매)을 맺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풍년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풍년의 복 이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공평한 판단으로 악인을 심판하시므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라고

기원하였습니다(3, 5절). 찬송하되 우리는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송해야 합니다(7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복’, ‘인복’, 그리고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복중에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복은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혹은 그런 후) 인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붙여주시길 기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복종의 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의 선택하심을 받고, 그의 예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양자 삼은바 됨) 또한 구속 (죄 사함)을 이미 받았습니다(4-7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고 배형규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 403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할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케 하시길 기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양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제 68편: 의인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시편 68편 1-18절]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에서 고 심성민 형제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은 아들을 먼저 보낸 고 심성민 형제의 아버지인 심진표씨가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진 이었습니다. "성민아 부디 좋은 곳으로 가라. 잘 가서 많은 어렵고 불쌍한 사람 도와라.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도 잘 살거다"분당서울대병원 영안실에 차려진 故 심성민씨(29)의 빈소에 유족들과 함께 도착한 아버지 심진표씨(62)는 빈소에 걸린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자 믿기지 않던 아들의 죽음을 실감한 듯 연신 영정사진을 쓸어내리며 10여분동안 오열해 보는 이들의 눈시울 붉혔다"고 합니다(인터넷). 참으로 이 세상은 “근심된 일”, “곤고한 일”, “죄악 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죽을 일 쌓”인 세상입니다(찬송가 474장). 이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도 “참 기쁘고 즐겁구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우리는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돌이켜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30편 1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오늘 성경 시편68편3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찌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왜 의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 이유 다섯 가지를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의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악인을 패망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68편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흠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물려감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 즉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흠으시며, 몰아내시며 결국은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흠으시며, 몰아내시며 또한 망하게 하시되 “연기”가 바람에 순식간에 없어지듯이 주님을 미워하는 악인들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하게 됩니다. 마치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므로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즉,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경험하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새벽기도회 때 아프가니스탄에 인질로 사로잡혀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해 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므로 기독교를 악평하는 자들을 잠잠케 하시고 구원받은 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선포되길 기원하였습니다. 악인들을 망하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서 시편 기자 또한 그렇게 기도를 하였기에 저 또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일어나사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흠으시고 몰아내시며 결국은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할 때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의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의인을 형통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68편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5절). 그 하나님께서는 가족 없이 지내는 외로운 자들, 즉 “고독한 자”들을 “따뜻한 가정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박윤선). 상선벌악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써 그를 “거역하는 자” 또는 배교자들(반역자들)의 거처로 하여금 “메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박윤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의인들, 고독 속에서 허덕이는 심령들, 특히 수금된 자들로 하여금 형통케 하십니다. 그 형통함을 누리는 고독한 자는 하나님의 따뜻한 구원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새벽기도회 때 묵상한 성경 예레미야 22장21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잘못된 습관, 즉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는 죄악 된 습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는가 생각해 볼 때 한국 성경에는 “평안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NASB 성경을 보면 “in your prosperity”, 즉, 내가 형통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은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않을 때나 항상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영적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본문 시편 68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도(시68:4)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므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6절). 그리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의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곤핍할 때에 견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68편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흠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을 곤핍할 때에 견고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주의 산업”, 즉 가나안 땅에도 흠족한 비를 내려주시사 곤핍할 때, 즉 가물어서 곡초들과 과수들이 살 수 없게 될 때에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가나안 땅을 다시 좋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박윤선). 다윗은 하나님께로 이끌어 신앙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권능을 회상케 하였습니다(7절ff., 박윤선). 그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백성(10절)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서 주님의 은택, 즉 주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곤핍할 때에도 자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았던 시편 기자는 (34:8)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는 곤핍할 때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롬8:28).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곤핍할 때에도 믿음으로 복음성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곤핍함을 돌이켜 풍성케 해 주실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형통할 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곤핍할 때에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돌이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곤핍할 때에도 맛보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합니다.

넷째로, 의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68편 14절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흠으실 때에는 살몬에 눈이 날림 같도다.” 다윗은 오늘 본문 11-14절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역사와 가나안 땅 정복에 관련하여 그의 능력의 말씀, 필승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행진하였고 그들의 부녀들은 노래한 것입니다(11절)(박윤선). 특히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를 보면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였습니다(12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을 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부녀자들도 능히 적병을 쫓아내고 전리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박윤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나 광야에 있었던 것은 ‘양 우리’와 같은 더러운 곳에 있음과 같았으나, 그런 고난 받는 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영적 생활은 은이나 금처럼 빛나게 되었습니다(박윤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열왕들을 흠으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죽음과의 싸움 싸움에서 종종 패하여 자빠지고 쓰러지므로 낙심과 죄책감과 괴로움에 처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영적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승리)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고전15:57). 그 감사와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의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68편 1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다윗은 오늘 본문 15-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게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성전의 소재지로 정하시고 은혜 베푸셨던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박윤선). 그 은혜 가운데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산의 산”처럼(15절) “높은 산”(16절), “시내 산”(17절)에 거하시는 하나님, 즉 “높은 곳”(18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 거하는 다윗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성경 하박국 3장17-1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안 주고에 근거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십니다. 찬송가 82장 1절 가사가 생각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성경 스바냐 3장1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슬픈 세상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며 의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곤핍할 때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슬픔을 돌이켜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제 68편: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1)

[시편 68편 19-35절]

지금 미국 헌팅톤, 유타 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광산 1,500 feet에 밑에 갇혀 있는 6명의 광부를 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10명 중 4명은 피해서 살아 나왔지만 남은 6명의 생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을지 모르는 이 광부들을 살리려고 구출(rescue) 미션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6명의 광부들을 만일 살아 있다면 지금 외부에서 구출 미션이 잘 되서 그들을 그 깊은 곳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그 곳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가 하루 속히 자기들을 구원해 주길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가 생각납니다. 성경 요나서 2장에 가서 보면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바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생각납니다. 그러한 극심한 위기의 상황에서 한 요나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욘2:9).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철저히 깨달아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많이 느낍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변화할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는 저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68편 35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찌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아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한 가지만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입니다.

성경 시편 68편 19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시편 기자 다윗이 말하고 있는 “우리 짐”(our burden)이란 무엇입니까? 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우리 짐이란 “원수”(1절) 또는 “악인”(2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짐을 가리킵니다.

그 주어진 짐 중에는 물론 핍박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구체적인 묘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금된 것을 말합니다(6절). 우리에게도 이러한 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원수 사탄으로 인하여 수 없는 공격과 유혹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시달리고 피곤하며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수금하였던 것처럼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수 없이 공격하여 마음으로 감옥살이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예로 주님의 말씀이 서로 용서하라는 명령을 불순종케 만들므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감옥생활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까?

(2) 우리 짐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독”입니다(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 또는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5절). 제 생각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실제로 고아와 과부들이 많이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광야에서나 특히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남자들 중 어느 정도의 숫자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영적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악인)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서 외로움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시다는 느낌을 들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3) 우리 짐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산업 곤핍을 가리킵니다(9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 가운데 들어갔던 가나안 땅의 곤핍함을 가리킵니다. 즉, 가나안 땅이 가물어서 곡초들과 과수들이 살 수 없게 되었을 때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이러한 산업 곤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풍족한 땅이라고 믿었던 가나안 땅에서의 곤핍함으로

인하여 과거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최악 된 생각 속에 있었으면 더욱더 그 짐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 풍족한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재미 교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국인 한국을 떠나 풍족한 나라 미국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곤핍함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마치 가나안 땅이 곤핍하여 농사도 안 되고 그런 것처럼 미국에 와서 사업도 시도해 보고 하는데 잘 안 되서 재정적으로 곤핍해지면 그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4) 우리 짐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난입니다(10절).

오늘 본문 시편 68편 10절을 보면 다윗은 “... 하나님이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 가물어서 곡초들과 과수들이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하게 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 합니까? 풍족한 땅에서의 가난 ...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풍족한 가나안 땅과 같은 미국에서의 가난 ... 물론 여기서는 물질적으로 가난을 생각하는 것이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풍족한 땅에서의 영적으로 가난해 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풍부해지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영적으로는 가난해 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대신 져 주셨는데 어떻게 짐을 져주셨습니까?
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 (1) 원수 또는 악인으로 인한 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금됨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통케 하시므로 대신 짐을

저주셨습니다(6절).

(2)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독의 무거운 짐을 “고아의 아버지”로서 또한 “과부의 재판장”으로서 그들을 “따뜻한 가정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므로 대신 짐을 저주셨습니다(5-6절)(박윤선).

(3) 하나님께서서는 가나안 땅이 곤핍할 때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다시 좋아하도록 하시므로 우리의 짐을 저주셨습니다(9절, 박윤선).

(4)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은택을 베풀어 주시므로 그들의 짐을 저주셨습니다(10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불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55:22). 어떠한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짐들을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짐을 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무거움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제 68편: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2)

[시편 68편 19-35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야 가야 합니다. 오늘 새벽기도회 때 묵상한 성경 에스겔 16장14-15, 26, 28-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 음욕이 차지 아니하며 ...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이 여겨 ...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화려함을 믿고 자기들의 명성을 인하여 음행하되 애굽(26절), 블레셋(27절), 앗수르(28절) 그리고 갈대아(29절) 사람들과 음행하면서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축복(화려함과 명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남용하여 영적 간음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마치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축복을 바알에게 받치면서 영적 간음을 범하였던 것처럼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 간음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을 마치 음란한 여인처럼 비유하였는데 그들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었습니다(34절). 과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된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요? 우리 사람은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는 별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죄악 된 본능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간음을 행하지만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전3:11).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오직 영원한 것을 추구할 때만이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 된 순간적인 세상 것들을 아무리 추구해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엿보면서 자신에게 더욱더 실망하되 절망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정도로 제가 절망할 때에서야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소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지난 주 수요일에 오늘도 이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남은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68편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 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은 또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19, 20절).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원수로부터 건지십니다. 이 원수에 대해서 다윗은 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우리의 원수는 또한 주님의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8편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원수의 머리 ….” 여기서 다윗은 “그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곧 주님의 원수들이란 말입니다.

(2) 우리의 원수는 죄악 된 행동을 항상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8편 21절을 보십시오: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 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3) 우리의 원수의 목적은 우리의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8:20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원수들의 목적은 바로 “사망”입니다. 다윗은 이 원수들로부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건져주시사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20절) 또한 우리의 원수들을 “쳐서 깨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21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이 산중에 숨고 바다 밑에 숨어 있을지라도 찾아내시어 벌하십니다(22절, 박윤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들을 파멸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23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수들을 멸하시므로 승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의 행하심,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은 예언하였습니다(24절).

그러므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할 바는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26절).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망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3-4절). 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십니다.**

성경 시편 68편 3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19, 20절). 그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1) 은혜의 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욱 강화시켜 주시길 간구하는 것을 보면(28절)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원수인 우리 자신과 세상과 죄와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영적 싸움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2) 현신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우리가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받쳐서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3) 승리의 확신의 힘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흠으셨도다.”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가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4) 찬양의 힘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땅의 열방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셀라).”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미함으로 나타난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자녀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딤후1:7).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 후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려야 합니다(34절).

저는 가끔 이 메일로 QT를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눕니다. 나눔 가운데서 이번

주에는 어느 집사님께서도 중국 여행 가운데 받으신 은혜를 저하고 나누고자 이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제 생각엔 “힘빼기”라 생각됩니다. 마치 바닷가에 빠져있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처럼 누군가의 구원을 절실히 필요한 자가 살려고 발버둥치기보다 구하려는 사람의 옆에 왔을 때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야 하듯이 이 집사님은 ‘힘빼기’를 이번 중국 여행을 통해서 배우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좀 힘을 빼야합니다.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제 69편: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

[시편 69편]

지난주일 오전에 목양실에 있는데 저희 집 막내 예은이가 제 앞 의자에 앉아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저에게 고개를 돌려 “Do you know I feel?”(내 기분이 어떤지 압니까?)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딸 예은이의 느낌을 끌어내고 공감하고자 ‘잘 모르겠는데 지금 너의 기분이 어떨한데?’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은이가 하는 말, “Happy”(기쁘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기쁘냐?’(Why?)고 물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을 예은이에게 던졌을 때에는 저에게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13일 동안 집을 떠나 한국과 몽골에 갔다가 ‘아빠가 다시 돌아와서 기쁘다’라고 할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딸 예은이께서 뜻 밖에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다름 아닌 ‘a perm’(파마)였습니다. 좋았다가 말았습니다 ㅎㅎㅎ. 한국과 몽골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토요일 오후 공항에 아내와 마중 나왔던 예은이는 그 날 파마를 했었는데 주일 아침 교회 오니까 고모나 할머니 등 사람들이 다 예은이의 파마한 것을 보고 칭찬해서인지 예은이가 그날 오전 기분이 좋았던 것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대답을 듣고 속으로 많이 웃으면서도 그래도 사랑하는 딸이 기쁘다고 하니 저 또한 기뻐합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기뻐하면 우리 또한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기쁘면 자신들도 기쁘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학교 때 한 후배가 성적표가 잘 나오지 않아 걱정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그 후배에게 ‘공부하는 것을 즐기라(enjoy)’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배가 하는 말, ‘우리 부모님에게 그 말을 해 보라’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후배는 공부해서 성적표를 잘 받아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는 모습은 엿보였지만 왠지 그것이 자신의 기쁨인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기쁨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 대학 후배처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며 기쁨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한 우리의 행함(action)보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는지 우리의 존재(being)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69편 31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30절).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아래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지 한 네 가지로 묵상하며 성경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는 주님을 찾는 자입니다.

성경 시편 69편 6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여기서 ‘주님을 찾는 자’와 ‘주님을 바라는 자’란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을 바라는 자, 즉 주님께 소망을 둔 자는 주님을 찾습니다. 왜 다윗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를

간절히 찾았습니까? 그 이유는 그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2절). 다윗이 깊은 수렁에 빠진 이유는 바로 그를 무고히 미워하는 자가 그의 머리털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4절). 다시 말하면, 다윗이 깊은 수렁에 빠진 이유는 그를 무고히 미워하는 강한 원수들이 다윗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깊은 수렁에 빠진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그가 극심한 곤고한 처지에 빠져있을 때에 그를 더 괴롭게 하였던 것은 그의 형제들조차 다윗을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외로웠습니다. 다윗은 “공홀히 여길 자”와 “안위할 자”를 바라고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20절). 우리도 다윗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를 공홀이 여기고 위로할 자를 찾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 우리를 공홀이 여기고 위로할 자를 허락지 않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옴처럼 우리를 위로하러 오는 친구들조차 우리를 번뇌케 하는 안위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욘16:2).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우리를 공홀이 여기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 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형제들에게도 외면을 당하여 공홀이 여기는 자나 안위 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시69:13). 다시 말하면, 다윗은 깊은 수렁에 빠져있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였습니다(1절). 그 구원의 기도를 드리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3절). 그는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피곤하여 목이 마르고 하나님을 바람으로 눈이 쇠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5절). 다윗은 비록 지금 그의 원수들에게 까닭 없이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기 자신이 무죄하다고 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난은 그에게 유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자복한 후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를 구하였습니다(13절). 이 기도는 시편57편 3절에도 나와있습니다: “제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찌라(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구원 행위를 인격화하여 말하는 시적 표현입니다(박윤선). 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미워하는 강한 원수들이 자기 머리털보다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다름 아닌 다윗처럼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 때 우리는 실망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중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하되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간절히 바래야 합니다(16, 17절).

둘째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성경 시편 69편 32절을 보십시오: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기서 “온유한 자”란 히브리 원어로 “아나웜”으로 그 의미는 “고난 받는 자들”이란 뜻입니다(박윤선).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고난 받는 자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자들입니다. 겸손해지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하여 겸손해 지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10절). 이것은 오직 영적으로 고요히 자기 자신을 ‘경계’하며, 낮추며, 기도하는 것으로” ‘금식’하며 ‘굽은 배’웃을 입은 것입니다(박윤선). 즉, 영적 비애로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외부적 표현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구원에 대한 신념 또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므로 말미암아(29-30절) 온유한 자들의 마음이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32절, 참고: 시138:7).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소성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10:17).

온유한 자, 신앙 때문에 고난 받는 자,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겸손해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로 내게 배우라 …”(마11:29).

셋째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는 궁핍한 자입니다.

성경 시편 69편 3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가난하고 슬픈 자라고 하였습니다(29절). 이것은, 다윗이 외부적으로만 비참한 자리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특히 그의 심령이 낮아져서 주님만 의지하게 된 사실을 가리킵니다(박윤선). 그는 큰 고난으로 인하여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므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18절). 큰 고난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해 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하시길 간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기 때문입니다(73:28).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5:3).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상태에서 견디어 가는 자로서 영적 수난자는 (1) 첫째로, 자기의 할 수 없는 처지와 하나님 밖에 도와 줄 자가 없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2)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들과 반대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오만한 자들의 박해를 받는 자들입니다. (3) 셋째로, 죄를 인하여 상심하며 회개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영적 수난자가 복이 있음은 천국이 저희 것, 즉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궁핍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궁핍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의 “궁핍이 여기는 자”와 “안위할 자”로 삼습니다(시69:20).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받으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경 시편 69편 36절을 보십시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30절). 그리고 그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합니다(30절). 다윗은 자기 당면한 고난과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확신하였기에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34-3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신 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시는 자들은 그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더럽혀지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겔36:21).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 더럽힌 하나님의 큰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십니다(23절).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큰 이름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과연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합니까? 바로 주님을 찾는 자들, 온유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1.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후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케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행함보다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면서)

시편 69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시편 69편 30-31절).**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인간관계에서 상처와 아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인간관계에서 많은 근심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인관관계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데 왜 그가 나를 미워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관계라 생각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되 그 상대방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중심으로 그룹이 형성돼서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근심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는 위로 받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를 멀리할 때에 우리는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가족 식구들까지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를 멀리할 때 우리는 더욱 낙망할 뿐만 아니라 식구들에게까지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은 마치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진 듯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절망에 빠지게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시편 69편의 저자인 다윗이 당하고 있었던 고난은 마치 “깊은 수렁이”와 “깊은 물”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그의 머리털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4절). 또한 그의 강한 원수들이 다윗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4절). 이러한 극심한 곤고한 처지에 빠져있을 때에 그를 더 괴롭게 하였던 것은 그의 형제들조차 다윗을 외면하였기 때문입니다(8절). 다윗은 외로웠습니다. 그는 자기를 긍휼히 여길 자와 위로할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20절).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찬송을 하였습니다(30절).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을 믿었습니다(31절). 어떻게 그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찬송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한 4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69편 13-14, 16-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며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막강한 세력의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있으면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고통 중에서 충분히 허덕일 수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의 본능은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으려고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를 사랑해주는 우리 가족 식구 형제들이나 또한 사랑하는 친한 친구들을 찾아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찾아갔던 그들조차도

낮선 사람들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외로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많은 근심을 동정해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음을 알게 될 때(20절) 우리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때에서야 우리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좀 뼈저리게 깨닫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몸부림치며 부르짖습니다. 그 때에 우리가 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서는 나를 반기신다’는 사실입니다(13절). 아무도 우리를 반겨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를 항상 반겨주신다는 사실을 좀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앞으로도 어떠한 고난(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구하되 우리는 머리털보다 많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과 많은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1절). 분명히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14절).

둘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 자복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69편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므로 내 죄를 주께 숨길 수 없습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막강한 세력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가 보았자 우리는 충분히 위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서 불평과 원망 등을 쏟아낼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의 불만과 불평 등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손가락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향하기보다 우리 자신에게 향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인하여 우리의 어두운 죄가 들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였던 것이 “나의 우매함”임을 깨닫게 됩니다(5절). 결코 지혜로운 자는 그리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를 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겨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의 숨겨진 죄까지도 들춰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이 그림지 않으십니까?

셋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히 우리 속에 불타올라야 합니다.

성경 시편 69편 9절을 보십시오: “주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내 속에 불타오르므로 주께 던지는 모옥이 나에게 돌아옵니다”(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는 열심히 우리 속에 불타오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 심지어 식구들까지도 생각할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그 와중에서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생각하며 더 나아가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이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우리를 반겨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내게 됩니다(고후11:2).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는

그의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들에게 비방과 조롱을 받되 주님을 위하여 받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7, 10, 12절). 그래서 수치가 자기 얼굴에 덮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7절). 그 뿐만 아니라 다윗의 원수들과 그를 미워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윗뿐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을 욕하고 수치를 주었습니다(6절). 그들은 다윗이 믿고 섬기는 주님을 비방한 것입니다(9절). 그 때에 다윗의 마음은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열심히 불타올랐습니다(9절).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많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욕하고 조롱하며 주님의 교회를 욕하고 비방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으므로 환난을 당할 때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열심히 우리 속에 더욱더 불타올라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의 신앙만 지킬 뿐 아니라 그 신앙 따라서 주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더욱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새 찬송가 383장).

마지막 넷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선 우리는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 시편 69편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다윗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 시편 63편 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 유다 광야에서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므로 그 고난 중에서도 유다 광야를 성소로 삼고(2절)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3절). 어떻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반기시며 많은 사랑과 구원의 진리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13절)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경험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36절) 감사하므로 하나님을 구원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행16:25). 저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시63:3)을 조금이나마 깊게 경험하므로 하나님을 찬양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첫째 아기 주영이가 제 품에서 잠든 후 화장을 하여 그녀의 뺨가루를 물에 뿌리면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My Savior’s Love”란 노래(또는 “I Stand Amazed“)를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하셨습니다:

- (1절) I stand amazed in the presence Of Jesus the Nazarene,
 And wonder how He could love me, A sinner, condemned, unclean.
 (예수의 임재앞에 놀라움으로 서있네 이 부정한 죄인을 어찌 사랑 하시는지!)
- (2절) For me it was in the garden He prayed: “Not My will, but Thine.”
 He had no tears for His own griefs, But sweat drops of blood for mine.
 (내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갓세마네 기도했네
 자신을 위한 선택 없이 날 위해 그 피 흘렸네)
- (3절) In pity angels beheld Him, And came from the world of light
 To comfort Him in the sorrows He bore for my soul that night.
 (천사들 연민 하던 때에, 세상의 빛으로 우리 슬픔 말기 위해 그 밤에 날
 감당했네)
- (4절) He took my sins and my sorrows, He made them His very own;
 He bore the burden to Calvary, And suffered and died alone.
 (나의 슬픔 나의 죄를 자기에게 감당했네 갈보리 고난당하고 홀로 십자가

지셨네)

(5절) When with the ransomed in glory His face I at last shall see,

'Twill be my joy through the ages To sing of His love for me.

(영화되어 승리하고, 그를 보게 될 그 날까지 기쁘게 부를 찬양제목 날 향한 주의 사랑)

(후렴) O how marvelous! O how wonderful! And my song shall ever be:

O how marvelous! O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오 놀라워, 오 놀라워 내 노래 멈출 수 없네 오 놀라워,

오 놀라워 날 향한 내 주의 사랑)

나의 구원자의 사랑을 감사하므로 찬양 드리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주영이와 나의 생명보다 나으므로 제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70편: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70편]

우리가 시편 1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How long?”(어느 때까지니이까)라는 말씀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 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1절),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도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궁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2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딜 때에 우리는 불안해하며 두려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시편 기자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22:19).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멀리 계시 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에게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70:1).

오늘 성경 시편70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70편에서 “속히”라는 단어가 1절에 두 번, 5절에 한 번 또한 5절 후반 절에는 “여호와여 지체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제목 아래 한 두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0편 5절을 보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 이 말씀은 다윗이 물질에 있어서 빈핍함보다 특히 악도들의 박해 하에 있을 가리킵니다(박윤선). 그러면 다윗을 박 해하였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 그들은 “내 영혼을 찾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0편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안을 당케 하시며 ….” 다윗의 박해자들은 다윗의 생명을 노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 다윗을 공격해오며 박해하였습니다.

(2) 그들은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0편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옥을 받게 하소서.”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상함을 기뻐하였습니다.

(3) 그들은 “아하, 아하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0편 3절을 보십시오: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여기서 “아하, 아하”하는 자들이란 다윗의 원수들로서 다윗을 경멸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경멸하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으므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자기 자신을 묘사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성경 시편 109편 4절을 보십시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즉 그의 영혼을 찾는 자들, 다윗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또한 다윗을 향하여 “아하, 아하 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그의 대적들을 다윗의 영혼을 찾았지만 다윗은 그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둘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청하였던 도움은 무엇입니까?

(1) 다윗은 하나님께 그를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건져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0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은 그의 박해자들로부터 고난을 오랫동안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박윤선).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 그의 건지심을 “속히”(2x) 원했습니다. 그는 “...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5절). 오랫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건지심(구원)이었습니다.

(2) 다윗은 하나님께 그를 박해하는 자들을 물러가 욕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0편 2-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안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다윗을 박해하였던 자들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려는 자들 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케 하시고 물러가 욕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면, 그들과 및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성도들의 신앙은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원수들의 실패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3) 다윗은 하나님께 주님을 찾는 자 혹은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0편 4절을 보십시오: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기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은혜를 후히 주신다는 의미입니다(박윤선).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 즉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후히 베풀어 주십니다.

제이 아담스 교수님의 “크리스천 카운슬링”을 오랜만에 다시 읽다가 위기 상담에 대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몇 학자들이 중국어로 ‘위기’는 두 가지 특성들을 포함한다는 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위험’ 또 다른 하나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위기로 인해 우리들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개발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나치 독일군이 영국을 침략했을 때 당시 윈스턴 처칠 수상은 윌리엄 템플 목사에게

구국기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템플 목사는 다음과 같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대영제국은 지금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이다. 전쟁은 큰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더 큰 일이다. 만약 우리 국민이 이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함을 믿는다면 전쟁은 결코 큰일은 아니다. 우리는 예배자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인터넷). 그때 그의 연설에 감동받은 영국 국민들은 다 교회로 몰려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영국과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을 종식 시켰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제일 긴급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길 기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 천성으로 속히 부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장을수 할머님을 생각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처럼 ‘수일 내에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주시옵소서’(합3:2)와 사도 요한처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계22:20)라고 긴급한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제 70편: 긴급한 기도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시편 70편 1, 5절).

이번 주 목요일 TV 뉴스를 통해서 미국의 유명한 가수인 마이클 잭슨의 사망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50대의 많지 않은 나이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죽었을까 궁금해서 뉴스를 보니까 “cardiac arrest”(심장마비)로 사망한 것 같다고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 cardiac arrest는 신비하고 공공의 킬러 질병은 미국에서 매년 이십 만에서 삼십만 명을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 심장 전문 의사의 말을 뉴스를 통해 듣다보니까 이 cardiac arrest가 걸렸을 경우 10분 안에 전기 충격을 심장에 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장마비의 증상을 보고 911을 전화해서 앰블런스가 오는 시간이 보통 10분은 더 걸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질병이 걸리면 살가망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저는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제 친구의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 친구를 통하여 들은 이야기는 그 친구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인하여 그 친구의 어머니의 품에서 고통스러워하시다가 앰블런스가 왔지만 늦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친구의 입을 통하여 들으면서 과연 제가 그러한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며 조급할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한 긴급한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가 자문해 봅니다.

오늘 성경 시편 70편 1, 5절을 보면 “속히”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긴급한 요청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매우 긴급한 기도를 다윗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긴급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긴급한 기도 제목은 ‘속히 내게 임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속히 나를 건지소서’였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이러한 긴급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2절). 그들은 다윗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었습니다(2절). 다윗은 그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였고 또한 궁핍해져 있었습니다(5절).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긴급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긴급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5절). 이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을 사모하여 긴급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여호와여 지체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마쳤습니다(5절).

우리는 다윗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구원)을 사모하여 긴급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긴급한 기도의 필요성을 좀 더 깊게 느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그리고 느긋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태만히 행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렘48:10).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긴급한 기도를 드리되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영혼 구원의 중요성과 긴급함을 깨달아 하나님께 긴급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사 긴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길 기원합니다.

속히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긴급한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 간구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너무나 소극적이고 게으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 71편: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

[시편 71편 1-14절]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은 자신의 감옥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본 어게인(Born Again)’이란 책을 썼는데 그는 죄수들 사이에 세 가지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인터넷): 첫째 종류는 희망이 없는 죄수로 자기 머리를 벽에 부딪치며 자신의 몸을 해치는 사람들이고, 둘째는 역시 가망이 없는 죄수들로 자기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움직이지 않았고, 셋째 종류는 감옥에서 나갈 날을 기다리며 기회 있을 때마다 마당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유형입니다. 그들은 감방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마치 내일 나갈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설령 몸은 갇혀있지만 마음은 밖에 나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의 삶은 자유롭습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희망이 넘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비관주의자들은 빛 가운데서도 어둠을 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둠속에서도 빛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서도 어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우리 장래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시편71편1-14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한 세지로 본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1)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편 기자의 상황은 무엇 이었습니까?, (2) 왜 시편기자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라고 결심하였습니까? 그리고 (3) ‘나는 소망을 품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시편 기자의 삶은 어떠하였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시편 기자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4절) 또는 “원수들”(10절)로 인하여 생명에 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들은 시편 기자의 영혼을 엿보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10절). 여기서 “흉악한 자”들이란 단어의 히브리 원어 의미는 ‘누룩에 든 자’를 의미합니다. 흉악한 자란 악인 또는 불의한 자로서 극도로 악하여 악을 멈추거나 회개할 줄 모르고 더욱 더욱 악을 번지게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박윤선). 그러한 자들이 시편 기자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기에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그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14절).

둘째로, 왜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라고 결심하였는지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주님은 그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편 5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절망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이 세상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539장 3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더욱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서 주님 안에서의 소망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2) 주님은 그의 거할 바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편 3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원수들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무시로” 그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그는 반석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가리켜 “바위”(rock)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3절). 여기서 “바위”란 견고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신앙 대상을 가리킵니다(박윤선). 특히 시편 기자는 원수들로 인하여 힘이 빠지고 있을 때에 자기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였습니다. 그가 원수들로 인하여 핍박과 고난 속에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바위가 되시며 반석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주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면 갈수록 소망할 수 없는 중에도 주님 안에서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견고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실 주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위가 되시는 주님께 피하여 붙잡은 약속의 말씀은 바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였습니다(3절). 그러므로 그는

구원을 소망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견고한 바위가 되시는 주님께 피하여
거하였습니다.

(3) 주님은 그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편 5절 하반 절을 보십시오: “...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시편 기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라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나이까지 인도함과 견지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현재 자기가 당면한 고통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실 줄 확신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확신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이 험악한 세상에 앞으로 더 살아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소망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시편 기자의
삶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그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 시편
기자는 주님은 자기의 견고한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7절). 그러기에 그는
자신에게 절망을 주는 원수들로부터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피하되 그는 “무시로”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피하였습니다(3절).

(2)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a) 첫째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2절). 그는 원수들, 악인들이요 불의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에게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로부터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4절). (b) 둘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버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자기가 나이 들어 늙을 때에 힘이 쇠약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c) 시편 기자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그의 원수들로 실패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13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을 엿보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말하면서 자기들 손에 어느 누구도 건질 수 없다고 거짓을 말하였던 그의 원수들에 대하여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13절).

(c) 그는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편 6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6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14절). 시편 기자는 그의 원수들이 악을 더욱 더욱 번지게 할 때에 그는 더욱 더욱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항상 견고한 바위(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피하였던 시편 기자는 그의 보호하심 아래서 항상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송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8절).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만이 소망임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신앙 생활하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 어릴 때부터 의지가 되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라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항상 찬송하십시오. 주님을 항상 소망하는 자는 주님을 항상 찬양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을 소망하므로 그를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움 받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목사 나눔

(수요기도회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소성케 하시므로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제 71편: 아름다운 늙은이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시편 71편 9절).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은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보고 “노인네”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늙은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나니 과연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을 “늙은이”라고 칭해도 되는지 제 짧은 한국어로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의도는 그저 성경에 “늙은 때”라는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 옮겨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람은 “늙은이”란 말에 어르신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제 마음의 어르신들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늙은이는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 또한 아름다운 늙은이가 되고 싶습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늙은이는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경 시편 71편 5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시편 기자는 어려서부터 주님께 교훈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17절). 그러므로 그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였습니다(찬송가342장). 주님은 그에게 있어 견고한 피난처였습니다(7절). 그의 원수, 곧 시편 기자의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10절) “하나님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11절) 하였을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12절)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까? 어릴 때부터 나이가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항상 소망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시편 기자의 삶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많고 심한 고난을”(20절) 당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소망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하시며 우리를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20절). 이렇게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이 들어가는 늙은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늙은이는 후대에 주님의 행하신 일을 전합니다.

성경 시편 71편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그의 후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힘과 능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주 여호와와 능하신 행적을 …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길 원했습니다(16절). 그의 혀는 종일토록 주님의 의를 말씀하였습니다(24절).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나이가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베풀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때문입니다(15절). 시편 기자는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일을 완수하기 이전엔 늙어 백수가 되어서도 자기를 버리지 말아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자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늙은이는 아름답습니다. 어릴 때부터

늙어 백수가 되기까지 소망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 후손들에게 진술하며 전하는 늙은이는 지혜롭습니다. 자신이 평생 행한 일을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간증하는 늙은이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자격이 있습니다(고전15:10).

셋째로, 아름다운 늙은이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경 시편 71편 14절을 보십시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세월 지나 갈수록 주님을 의지하였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들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찬송을 드리되 그는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욱 더욱 찬송했으며(14절) 또한 항상 찬송하였습니다(6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송함이 종일토록” 시편 기자의 입에 가득하였습니다(8절). 그는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였습니다(22절). 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을 수금으로 찬양하였습니다(22절). 그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님께서 구속하신 자신의 영혼이 즐거워하였습니다(23절).

우리도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송가403장 1절). 우리 영혼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찬송가40장 후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464장 4절과 후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병원에 계신 교회 집사님을 방문하고 온 후)

제 71편: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소서'

[시편 71편 15-24절]

한 이주 전 노회를 참석하였을 때 느낀 점 중 하나는 목회자로서 끝이 아름다워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목회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신앙으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말씀 인격화 되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할 때 목회자의 끝도 더욱더 아름답고 후배 목회자들에게 존경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니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성숙해가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생각할 때 욕기 8장 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비록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나중이 심히 창대에 지길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71편 2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길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더욱 창대하게 되기 위해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지 한 세 가지로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더욱 창대하게 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71편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자기의 의지로 삼고 살았습니다(5절). 그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라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나이까지 인도함과 견지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바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6절). 주님께 붙들린바 된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가 당면한 고통과 위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진 에이게츠(Gene A. Getz)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3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본보기”, “직접적인 가르침”, 그리고 “격려”. 그러나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불안을 일으키고 불안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은 “부모의 과잉보호, 과잉 허용, 과잉 구속과 과잉 신중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는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합니다. 가르치되 신명기6장4-9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5절)는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6절)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7절).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주님을 자기의 의지로 삼고 그에게 붙들린바 된 자는 주님께서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더욱 창대하게 되기 위해서 많고 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성장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71편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교훈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선 시련이 필요합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고 넓고 크게 체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편 20절을 보면 시편 기자도 나이가 늙어 자기의 삶을 뒤돌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려고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많고 심한 고난 속에서 그는 주님께서 자기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 것을 경험하였고 또한 현재 당면한 절망 속에서도 동일하신 주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의와 구원”을 경험하였으므로 자기의 입을 열어 종일 전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15, 24절). 또한 그는 이렇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16절).

우리는 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낙망과 절망 속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낙망과 절망 속에서 항상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14절).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5절). 특히 우리의 소망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살리시며 또한 “다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20절).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21절).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끌어 올리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경험할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더욱 창대하게 되기 위해서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주님의 힘을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71편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확실히 노인인 것이

드러납니다(박윤선). 뿐만 아니라 9절을 보면 그는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가 노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기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2x)라고 기도하였습니다(18절). 왜 그는 그렇게 기도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그는 주님의 힘을 후대에 전하길 원하였기 때문입니다(18절). 이것은 시편 기자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쇠약한 때에라도 주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려는 욕망을 강하게 가진 것을 보여줍니다(박윤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늙은이의 모습입니까?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이 쇠약해졌고 더욱더 쇠약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주님의 힘을 전하겠다고 헌신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늙은이의 모습입니까. 시편 기자는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노인 때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특히 그는 “주님의 대사를 행하”신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19절). 우리 하나님은 그의 큰일들을 우리 삶 속에 행하시되 “성실”(22절)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참으로 지극히 작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드러내시므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22-23절).

오늘 새벽기도회 때 생일을 맞이한 저희 집 첫째 아들 Dillon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생일 카드를 쓰고 싶어 기도회 후 카드에 마음을 실어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후에 Dillon을 학교에서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차 안에서 그에게 생일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생일 카드를 받은 Dillon의 반응은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후 그는 카드가 개인적인 것이에게 여동생 예리로부터 카드를 가리고 혼자

읽었습니다. 그 때 예리의 반응은 ‘어떻게 아빠가 heart(심장) 모양을 카드에 그려서 전달했나’고 하면서 질문했습니다. 또한 막내 딸 예은이는 저에게 ‘오빠 생일 선물은 어디있냐’고 물었습니다. Dillon 생일을 축하하면서 생일 카드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 Dillon에게’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회복의 사랑과 치유의 사랑에 감사하다’는 말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Dillon”이란 이름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faithful and truthful)하길 아빠와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Dillon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주님을 사랑하며 그를 의지하면서 그에게 붙들린바 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장차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늙어 백수가 되어서도 주님의 힘을 후대에 전하는 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의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더욱 창대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더욱 창대하게 하소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사랑하는 귀한 아들 Dillon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제 72편: 이상적 왕

[시편 72편]

대통령의 여섯 가지 유형별이 있다고 합니다: ‘선비형’ ‘관리자형’ ‘CEO형’ ‘정치꾼형’ ‘도박사형’ ‘이벤트형’. 이 가운데 이상적인 대통령의 이미지는 ‘선비형’ ‘관리자형’ ‘CEO형’이고, 현실 속 대통령 이미지는 ‘정치꾼형’ ‘도박사형’ ‘이벤트형’이라고 합니다. 각형의 대표적 인물과 대표 이미지를 보면 “선비형”에는 정도전, 김구, 링컨 (교과서, 모범, 서생, 본받을 만함, 부담스러움), “관리자형”에는 고건, 황희 (국무총리형, 능력, 행정가, 주어진 일을 잘 해결, 정승), “CEO형”에는 진대제, 문국현, 손학규, 이명박 (여성성, 지방자치단체장, 민주적, 2%부족, 합리적 보수), “정치꾼형”: 대원군, 박정희. 히틀러 (현실적, 친하면 독, 무조건 추종, 선동, 독재), “도박사형”에는 김영삼 (월간조선이 보는) 노무현 (사기꾼, 승부사, 내용 없음, 단무지, 가볍고 경박), 그리고 “이벤트형”에는 (우리당 지지자가 보는) 이명박, (강남 사람이 보는) 노무현 (속기 쉬움, 다단계판매, 망상, 시끄러움, 밀고 나가기)라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대통령은 국민 스스로 인정한 가장 현실적인 대통령”입니다(인터넷).

저는 오늘 성경 시편 72편 말씀 중심으로 “이상적 왕”이란 제목 아래 이상적 왕은 어떠한지 한 2가지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다가 온 만큼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박고 이상적인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이상적 왕은 주님의 판단력으로 판단합니다.

성경 시편 72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시편 기자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의를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2절). 여기서 “주의 의”란 하나님의 표준에 부합하는 옳은 행실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즉,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표준에 부합하여 공의롭게 주님의 백성을 판단하기를 기원했습니다(2절).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표준에 부합하여 공의롭게 주님의 백성을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3절). 현대 말로 한다면 이상적 대통령은 하나님의 말씀 표준에 부합하는 의로운 정치를 하므로 말미암아 시민들에게 평안을 준다는 말입니다. 한 나라에 시민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에 대통령이 (또한 다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표준에 부합하는 의로운 정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질서를 가져오는 정치는, 신본주의의 것이다. 곧, 하나님이 주신 진리에 의거한 정치이다”(박윤선).

그러면 하나님의 표준에 부합하여 공의롭게 주님의 백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72편 4절에 그 답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 (1) 하나님의 표준에 부합하여 공의롭게 주님의 백성을 판단하는 이상적 왕은 가난한 자를 신원하여 주고 궁핍한 자들의 자손들을 구원해 줍니다.

오늘 본문 시편 72편 12-1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솔로몬 왕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주님의 판단력으로 주님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는 이상적 왕은 궁핍하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줍니다(박윤선). 그러므로 그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자유와 평강을 줍니다. 그러나 악한 왕 또는 악한 지도자는 악한 정치를 하므로 결국 인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스탈린이 그랬고 또한 히틀러도 그랬습니다.

(2) 하나님의 표준에 부합하여 공의롭게 판단하는 이상적 왕은 주님의 백성을 압박하는 자들을 꺾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72편 4절을 보십시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상적 왕은 궁핍하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들을 압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므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주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조차 주님이 선택하신 이상적 왕에게 겸손히 경의를 표현합니다(9절).

둘째로, 이상적 왕은 주님의 의로운 판단력으로 판단하므로 주님의 백성에게 만족을 줍니다.

어떠한 만족을 줍니까?

(1) 이상적 왕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므로 만족을 줍니다.

오늘 본문 시편 72편 4절을 보십시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주님의 공의로운 판단력으로 주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므로 결국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상적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족합니다. 왜 이상적 왕은 주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십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상적 왕에게 아주 귀하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2) 이상적 왕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므로 만족을 줍니다.

오늘 본문 시편 72편 3절과 7절을 보십시오: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3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7절). 여기서 “평강”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 의미는 두 가지 입니다(칼빈): “평강”(peace)과 “번영”(prosperity).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상적 왕으로 인하여 평강과 번영의 축복을 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상적 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강과 더불어 “흥왕”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16절).

이러한 만족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상적 왕에게 반응합니까?

(1)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2편 5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이상적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주님의 의로운 판단력으로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기에 그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2) 주님의 백성들은 이상적 왕을 섬깁니다.

오늘 본문 시편 72편 11절을 보십시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물론 주님의 백성들만 이상적 왕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의로 판단하는 이상적 왕에게 함께 하시사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므로(8절) 말미암아 온 민족이 이상적 왕을 섬기게 됩니다. 섬기되 이상적 왕에게 다스림을 받는 왕들이 이상적 왕에게 예물을 드립니다(10절).

(3) 주님의 백성들이 이상적 왕을 위하여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2편 15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상적 왕을 계속 축복해 주시길 위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특히 그의 장수(“생존하여”)와 더불어 그에게 평강과 형통의 복을 위하여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백성들은 평강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백성들은 이상적 왕을 종일 찬송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계속 이상적 왕을 축복하였습니다.

(4) 주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2편 18-19절을 보십시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찌어다.” 결국 주님의 백성들은 이상적 왕을 찬송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상적 왕을 세우사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의로운 판단력으로 주님의 백성을 판단하며 다스리는 이상적 왕을 둔 백성들은 어떠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그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상적 왕을 섬기는 백성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열방이 다 그 이상적 왕을 복되도다 말합니다. 그 이상적 왕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상적 왕이 되십니다. 그가 그의 공의로우신 판단으로 판단하시므로 악인은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한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그만이 우리를 만족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에게 기도하며 또한 그를 영원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이상적인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제 73편: 마음이 정결한 자 (1)

[시편 73편]

작년 10월에 새 차를 사서 잘 관리하고자 제 아이들보고 뒷좌석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별 문제 없이 차를 깨끗하게 잘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주전, 제 첫째 아이인 Dillon이가 제 차 뒷좌석에서 ‘우왁’하고 그만 토를 왕창해 버렸습니다. 그 전날 밤부터 속이 안 좋아서 잠을 못자더니 결국 제 차 안에서 토를 해 버린 것입니다. 그 때 제 첫째 딸 예리는 냄새가 지독하다고 자기 코를 손으로 틀어막았으면 막내 예은이도 냄새가 난다고 자신의 불쾌한 심정을 약간 토해냈습니다. 하하. 그 때 감사하게도 정유소가 근처에 있어서 그리로 가서Dillon의 뺏속에서 나온 냄새나는 음식물들을 다 치우고 물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저는 제 아이들에게 생각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자 대화를 하였습니다.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음식 자체는 더러운 것이 아니지만 속 안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냄새가 나고 더럽다는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생각, 거짓말, 질투와 시기 및 죄악 된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자 시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된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너무나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고자 하는 죄악된 것들이 우리 주위엔 너무나 많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나는 것들 등등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여 더럽히고자 하는 죄악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죄악 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지켜 나아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 청결한 복된 자들이 되어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 아삽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절). 그러나 아삽은 거의 실족할 뻔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2절). 왜 그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의 정결을 지키려는 우리에게 오는 시험 중에 우리를 실족케 하는 요소는 과연 무엇입니까? 한 3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므로 말미암아 실족할 뻔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73편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다." 시편 기자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시할 뻔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삽의 '질시'(시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여서 힘든 생활을 해야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별 고생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도 나이 많은 성도님은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이 성도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 사탄은 우리 마음 깊은 속에서 질시 혹은 시기를 생기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형통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인은 의인과 달리 고통과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5절). 또한 악인은 몸이 건강합니다(4-5절). 그리고 악인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하는 것입니다(12절). 이 얼마나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런 사람도 저렇게 고통, 고난 없이 몸도 건강하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항상 힘든 고통과 고난을 격을 때로 겪으면서 몸은 쇠태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충분히 우리 자신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삼은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뻔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73편 6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아삼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만함 또한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은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행동의 교만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의 강포를 가리킵니다. 6절을 보면 "강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며"라고 아삼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의 모든 행동과 표현은 남을 압제하며 착취하는 포학뿐이라는 뜻입니다(박윤선).

(2) 마음의 교만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의 눈이 높아짐을 가리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살찐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지나며."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높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상상력이 한계가 없어져서 욕심가운데 재물을 쌓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재물을 취하는 고로 예산보다 많은 수입도 생기게 됩니다(박윤선).

(3) 입의 교만입니다.

이것은 입의 죄를 범함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8-9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란 말씀은 자기가 하늘처럼 높은 듯이 자긍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라는 말씀은 가는 곳마다 악담을 위주 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셋째로, 아삼은 악인을 좇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실족할 뻔했습니다.

성경 시편 73편 10-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아삼은 악인들의 악한 생각, 그 교만한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모방하는 당파가 생겨 악인을 좇는 무리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았을 때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악인들을 모방하는 이들은 배교하여 그들이 믿어 오던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를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무관심하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아삼에게 있어서 힘든 도전입니까? 악인을 좇는 배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았을 때 분명히 아삼은 조금이나마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때에 악인에 대한 아삼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하도다"(12절).

이러한 악인의 형통, 즉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 것입니까? 힘 빠지실 것입니까? 화를 낼 것입니까? 그들을 욕할 것입니까? 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아삼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정히 한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시편 73편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정히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2) 그는 자신의 곤고한 삶을 한탄하였습니다.

시편 73편 14절을 보십시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결국 의인의 마음에 불평을 일으킨 요소는 악인들은 흥(형통)하는 반면에 의인 자신은 곤고에 빠졌던 것입니다(박윤선). 이러한 생각, 곧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곤고’를 보았던 아삼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는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복잡성’을 해결하여 보려고 애썼습니다(박윤선).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결국 아삼의 마음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습니다(16절).

제 73편: 마음이 정결한 자 (2)

[시편 73편]

이러한 곤란 가운데서 아삽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시73:17). 그리할 때 그는 3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아삽은 악인의 결국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시편 73편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파멸(18절), "황폐"(19절), "전멸"(19절) 그리고 "멸시"(20절)입니다. 18-20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즐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갠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악인의 과거의 행동은 잠깐입니다. 그들은 멀지 않아 '파멸'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주무시듯이 그들의 악행을 오래 참으시다, 때가 이르면 "깨신" 뜻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둘째로, 아삽은 의인의 결국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73편 24절을 보십시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 의인의 결국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8:18).

셋째로, 아삼은 자신의 우매 무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시편 73편 22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찢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과거에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시(시기)하던 아삼, 그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산란하며 심장을 찢르는 고통스러운 불평을 품었었기에(21절)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17절)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깨달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짐승”같이 어리석었던 자라고 자책하며 회개하였습니다(22절).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으로 악인의 결국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 아삼은 23-28절에서 한 세 가지로 아름다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첫째 고백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였습니다.

성경 시편 73편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악인의 형통함과 교만함과 악인을 좇는 백성들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 하였던 아삼은 그 와중에서도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므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24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아삼에게 성소에서 악인의 결국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의인의 결국, 곧 내세에서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고백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였습니다.

성경 시편 73편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삼은 자기의 몸과 마음이 어떤 고난에 처하든지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셋째 고백은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였습니다.

성경 시편 73편 25절을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을 접한 마음이 정결한 성도는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여 교만한 가운데서 죄를 범하며 재물을 탐하고 고난과 고통을 피하여 욕심가운데서 자기 배만 채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성도는 악인의 결국과 의인을 결국을 알아 이 세상에서 아무 것도 원치 않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송가 102장이 생각납니다.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네 ….

1.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 이 전에 즐기던 세상일도 주 사랑하는 말 뺏지 못해
 3.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 (후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마음이 정결한 아삼을 거의 실족케 하였듯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악인의 형통과

교만과 악인을 쫓는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를 실족케 만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아삽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악인의 결국과 의인의 결국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삽처럼 우리의 우매 무지함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또한 아삽처럼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라고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싶은,

제임스 목사 나눔

(아삽의 고백이 나의 고백임을 고백하면서)

제 74편: 주님여, 기억하옵소서!

[시편 74편]

500자리의 숫자를 한 번 듣고 기억해 기억력 부문에서 세계 기네스 기록(1998년)을 보유하고 있는 예루살렘 출신의 에란 카츠씨는 두뇌 능력 계발 전문가로 모토로라· IBM · 마이크로소프트 · 코카콜라 등 유명 다국적 기업과 기관에서 1000회 가까이 워크숍을 진행하며 세계적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저서 ‘천재가 된 제롬’(황금가지) 출간을 했다고 하는데 그 책을 보면 그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두뇌 계발 법을 연구하면서 유대인 두뇌 계발법의 큰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상력’과 ‘불편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상력은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 상상할 때에 두뇌를 녹슬지 않게 하므로 기억력 감퇴를 막을 수 있고 기억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카츠씨가 말하는 “불편함”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의 주장은 공부나 일을 할 때 불편한 자세로 하면 더 잘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편안한 상태에 익숙해지면 두뇌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의 말로는 유대인들이 즐기는 테크닉 중 하나는 일어서서, 또는 몸을 앞으로 움직이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몸을 흔들면 두뇌에 산소가 공급되고, 몸의 움직임이 두뇌를 자극합니다. 걸어가는 동안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처럼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배움의 고통을 참지 못하면 무식함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결국 카츠의 말대로 사람들은 유대인이 똑똑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그건 유전 또는 혈통 때문이 아니라 홀로코스트 같은 슬픈 역사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유대인들이 스스로 발전시켜온 두뇌 계발법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서 불편함이나

고통은 우리의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오늘 성경 시편 74편을 보면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원수요 주님의 대적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므로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21절).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1절)라는 한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여, 기억하옵소서!’라는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2, 18, 20절).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주님여, 기억하옵소서!”라는 제목 아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하였던 기도 제목들을 한 3가지로 요약해서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억력이 고통 중에 우리의 기억력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시편 기자의 기도 제목은 ‘주님의 회종을 기억하옵소서!’였습니다.

성경 시편 74편 2절을 보십시오: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종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시편 기자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가 치시는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발하시나이까”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1절).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주님의 회중인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2절).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고 계셨던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두셨던 것입니까? 성경 이사야 49장15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15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시편74편 1-2절에서 한 2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요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4편 1절을 보십시오: “...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목자가 양을 잊을 리가 없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2)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사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4편 2절을 보십시오: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 주고 사시사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길어지는 고통과 역경, 고난 중에서 주님의 구원이 더디다고 생각하여 그가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의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영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경 시편139편17-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찌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수없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기억치
아니하시고 잊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시편 기자의 기도 제목은 ‘주님의 원수를
기억하옵소서!’였습니다.**

성경 시편 74편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길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며
주님을 비방하는 원수들 또한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18, 22절). 즉,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이며 주님의 원수들을 잊지 마시고 심판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로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이요 주님의 원수들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3절). 주님의 원수들, 주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주님의 성소에서 무례히
 떠들며(4절, 박윤선) 그 성전을 훼파하였습니다(3절). 더 나아가서 주님의 원수들은 마치
 도끼로 삼림을 마구 쪼개듯이 잔인무도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훼파하였습니다(5-6절,
 박윤선).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기까지
 했습니다(7절). 8절을 보십시오: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주님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 모든 예배 장소를
 다 불살랐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우리의 원수들이요 주님의 원수들입니까? 이들은
 주님을 대적하며 또한 주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아덴 도시에서 많은 우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분노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죄악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황폐되어가고 있음을 보이십니까? 우리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불붙듯 일어나야 합니다.

(2) 우리는 우는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박윤선).

우리는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
더럽혀지고 황폐해져가는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조금이나마 직시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3) 우리는 교회가 황폐해지는 마당에서 영적 고독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박윤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폐허를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가신 듯한 고독을 느꼈습니다(3절, 박윤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랴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훼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9-11절). 그는 주님의
원수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소가 황폐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것과
더불어 표적이나 선지자도 없는 영적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대적이 언제까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능욕하며 주님의 전을 황폐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만 계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흰화가 항상 상달하나이다”(23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 주님의 원수들을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그의 심판이 더딘어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의 때에 우리의 원수들, 주님의 대적들을 꼭 심판하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이사야13장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마지막 셋째로, 시편 기자의 기도제목은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였습니다.

성경 시편 74편 20절을 보십시오: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2-17절을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현재의 고난과 흑암 속에서 과거의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붙잡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의 시대 가운데 살아갔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현재의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사 그가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여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21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89편 28절을 보십시오: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변치 않으신 사랑으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과 예기치 않은 역경들로 인하여 암흑 속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또한 저는 성경 이사야 55장 11절 말씀도 붙잡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가 사랑하여 택하고 그의 소유로 삼으신 우리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원수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때에 그들을 꼭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므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기억이 고통 속에서 나의 기억이 되길 기원하면서)

제 75편: 재판장이신 하나님

[시편 75편]

어제 화요일 아침 CNN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한 소방관이 이번 Southern California 산불을 가리켜 ‘이 세상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았다’고 고백한 글을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산불이 심하기에 그 소방관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오늘 현재 한 16군데서 불이 나서 약 100만 명이 집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샌디에고만 집이 불타서 현재까지 약 1 billion 달러(약1조원)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어제 노회 목사님들 모임이 저희 교회 있어서 몇 분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중 한 분은 Santa Clarita에서 사시는데 집에서 피난하여 in-laws 집에 가 계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노회 목사님의 성도님 한분은 집에서 피신하고 있다가 자기 집이 어떻게 되었나 나중에 보러 갔더니 집 뒤떨인지 거의 집 앞에서 소방관들이 불을 꺼줘서 집이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아내 사촌동생도 San Diego에서 피신하여 처제 집에 와 있습니다. 어제 NBC 뉴스를 보니까 불이 얼마나 강렬하게 타올랐는지 어느 한 집 앞에 놓여 있는 자동차의 강철 한 부분이 녹아 내려 나중에 불이 다 지나간 후 그 녹은 철이 말라서 아주 납작하게 칼 모양같이 된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 한 소방관처럼 이 세상의 종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한 소방관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에는 어떠한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29-30절을 보면 “룻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세상의 멸망과 불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심판에 관하여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사 온 세상의 재판장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하라!’였고 둘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오늘 본문 시편75편7절 말씀에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정한 기약”(an appointed time)에 “정의로 판단”(judge with equity)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2절). 오늘 이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을 한 두 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낮추십니까? 성경은 오만한 자들과 행악자들(the boastful and the wicked)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5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 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이 오만한 자들과 행악 자들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교만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5절). 이 교만한 자들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6절).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 하는 때에 사람들은 “자긍”(boastful)한다는 말하였습니다(딤후3:2). 말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기보다 자기 자신을 들어냅니다(렘9:23-24).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롬12:3) 제 입술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면서(잠27:2)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과연 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성경 잠언8장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만하고 교만하고 행악하는 죄인들에게 진노를 쏟으십니다. 그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시75:8).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의 잔을 교만한 악인들에게 다 쏟아내시며 또한 “악인의 뿔”, 즉 악인의 권세를 다 베시므로 말미암아(10절) 결국 “소멸”(melt)시키십니다(3절).

둘째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십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들, 즉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약4:10) 성경 야고보서4장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낮추는 자, 겸손한 자는 어떠합니까?

(1)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5편 1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 시편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이유는 “주의 이름이 가까”왔기 때문입니다(1절). 즉,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므로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란 구원을 가리키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은 결국 악인을 멸망, 의인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하였습니다.

(2) 겸손한 자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5편 9절을 보십시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시편 기자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사 교만한 악인을 멸하시고 겸손한 의인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였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다고 결심 및 헌신을 하였습니다.

(3) 겸손한 자는 주님의 기사를 전파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5편 1절 하반 절을 보십시오: “...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교만한 자들에게 그의 진노를 쏟으시사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기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기사를 전파하는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75편 3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 주님은 겸손한 자들을 세워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주님께서 무너트리시지만 겸손한 자는 주님께서 세워주시되 견고히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재판장의 임재 가운데 심판의 날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손한

백성들을 요동치 않게 하십니다.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2:7-8).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히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를 위하여 낮아지시되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 받고 싶어 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기사를 전파하길 기원하면서)

제 76편: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시편 76편]

계시(revelation)란 무엇입니까? 계시란 “숨겨져 있는 것을 (커튼을 열어 보여 주듯이) 나타내 보여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시(divine revelation)”에만 한정되어 사용되며, 특히 진리이신 하나님의 “자기계시(self-revelation)”적 성격이 강조됩니다. 하나님께 서는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Credo ut intelligam)”라고 말했습니다.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즉 “일반계시(general revelation)”와 “특별계시 (special revelation)”가 있습니다. 일반계시란 자연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보편 적으로 전달되는 계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연계시(natural revelation)”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존재와 원리를 반영합니다. 특별계시란 초자연적 방식을 통해서 제한된 사람들 에게 전달되는 계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초자연적 계시(super-natural revelation)”라고도 합니다. 특별계시는 자연계시보다 더 직접적이고 분명하며 자연계시를 보완해 주고 혹은 강조적으로 반복하며 바르게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특별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왜냐하면 일반계시의 원리에 의해서는 죄인에게 오로지 심판과 멸망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인터넷).

오늘 새벽기도회 때 읽은 말씀 중 갈라디아서 1장 11-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른 복음”(6절)을 좇는 그들에게 자기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7절)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1절). 다시 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12절).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시편 76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바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적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그 계시된 하나님을 한 4가지로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76편 7절을 보십시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곧 주님의 원수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원수들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십니다(3절). 다시 말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6절). 폭풍을 꾸짖으시매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한 날을 정하시사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악인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진노하시사 악인을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노를 금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10절).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노를 당신의 허리에 띠신다는 말씀입니다(박윤선). 하나님께서 사람의 노(wrath)를 허리에 띠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분노 또한 사용하시사 그의 영광을 들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사람의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의 분노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분노를 허락하시사 사용하셔서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시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분노도 사용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쏟아내시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멸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10절). 악인의 분노까지도 사용하시사 자신의 진노를 악인에게 쏟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자신의 영광을 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노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외할 자”이십니다(7절). 시편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경외할 이”(One to be feare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1절). 그분은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신 하나님이십니다(12절).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은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39편 1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시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셀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우리를 꾸짖으심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38:1).

둘째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76편 9절을 보십시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셀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8절) 악인들에게 진노를 쏟으시사 그들을 멸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되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겸손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온유한 자’란 말은, 환난과 핍박 아래서 마음을 낮추며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의뢰하게 된 신자들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이렇게 마음을 낮추며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의뢰하게 된 겸손한 신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자들로 묘사하고 있는지 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1절). 하나님을 알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겸손한 자들은 주님의 처소에 거하는 자들입니다(2절).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들 또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3)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7절). 그리고 (4) 겸손한 자들은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입니다(10절).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한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하시되 겸손한 자들을 대적하며 핍박하는 교만한 자들, 즉 “마음이 강한 자”들(5절)을 물리치시고 멸망시키시므로 하나님은 겸손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75편).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약4:6).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바로 ‘구원’입니다. 겸손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에 대해 존 칼빈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죄하게 압제를 당하는 자를 내버려 두시기가 불가능하니,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기가 불능함과 같다”(칼빈).

셋째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76편 4절을 보십시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여기서 “영화로움”이란 히브리 원어 의미는 “빛으로 두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위력의 현현을 상징합니다(단2:22; 딤펢6:16)(박윤선). 이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약탈을 일삼는 열방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얻으시므로 그의 택한 백성들 앞에서 존귀롭게 나타나십니다(박윤선). 이 승리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강한 자”들이나 “장사”(the warriors)들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5절).

그러므로 시편기자는 이 존귀하신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찌로다”(11절). 약탈을 일삼는 이방 나라를 물리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기자는 사방에 있는 모든 이웃들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존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 정성 것 우리의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에게 쏟으셔야 할 진노를 독생자 예수님에게 쏟으시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76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에게 진노를 쏟으시므로 멸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므로 그의 영광과 존귀를 들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그 이름은 이스라엘 크시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1절).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신7:6-8) 출애굽 시대 때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사 그의 영광을 들어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나라(앗수르)를 멸하시사 그의 크신 이름을 온 세상에 들어내셨습니다. 가장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시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은 또는 지극히 작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므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구원(건져)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10절).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7, 11, 12절). 셋째로,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9절). 넷째로, 주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 헌신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11절).

오늘 양로원을 향해서 가는 중에 예은이가 교회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면서 할머니 한 분만 보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라고 물었더니 예은이의 하는 말 ‘다른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시니까 말을 할 줄 아는 할머니만 보러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은이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 말 못하시는 할머니가 슬퍼하실 꺼야. 그리고 비록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머니와 만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박 권사님은 치매로 아무 기억이 없으셔도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딸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잘 모를지라도 저는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망은 “... 이제는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입니다(13:12).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을 알므로 나를 알고 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길 원하면서)

제 77편: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시편 77편]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해 표어를 “기도에 전혀 힘쓰라!”라고 정했습니다. 이 표어는 바로 사도행전1장14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존 칼빈은 기도에 대하여 이러한 5가지 전제를 말하였습니다: (1) 하나님의 부드러운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관하여서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명하셨습니다. (2) 중보자이신 예수님입니다.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의 화해의 일과 중보 기도의 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기도는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거룩케 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3)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며 빚어져야 하며 또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4)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이 전제를 설명해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5)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믿음은 진정한 기도의 기초요 필요한 조건입니다. ‘믿음은 기도로 강화되고 기도는 믿음으로 영향 분을 공급 받습니다’(인터넷).

오늘 성경 시편 77편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는 제목 아래 시편 기자의 기도에 대해서 한 2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묵상하고 하는 것은 시편 기자가 언제 자신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입니다.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할 때에 자신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성경 시편 77편 2절을 보십시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당하는 환난 날에 깊은 고통에 빠져있었을 때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기 전까지는 자신의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만이 그의 영혼이 위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 시편 기자의 영혼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었습니까?

(1) 시편 기자의 심령은 상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7편 3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셀라).” 자신의 심령이 상해 있었다는 말씀은 시편 기자의

영혼이 불안하며 근심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시편 기자의 영혼은 불안하며 근심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전날에게 그에게 하신 것과 같지 않고, 그 얼굴을 가리우신 듯이 혹은 노하신 듯이 생각되었기 때문에(박윤선) 자기의 영혼을 불안하며 근심하여 상해 있었습니다.

(2) 시편 기자는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7편 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시편 기자는 너무나 괴로워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는 고난이 끝나지 않은 이유를 알지 못하여 고심하며 묵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박윤선). 끝나지 않는 고난 속에서 고심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여 말할 수 없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시편 기자처럼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심령이 상해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의 위로의 말이나 행동도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예 그러한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의 위로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받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둘째로, 시편 기자는 자기가 연약할 때 자신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성경 시편 77편 10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시편 기자의 연약함은 그의 생각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셀라)(7-9절)”. 시편 기자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연약해져서 결국 그의 생각 속에서 이런 저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신앙적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7-8절). 과연 시편 기자의 생각대로 그를 향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중단될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잊으실 수 있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모든 의문은 하나님의 신격에도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버리실 수도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잊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고 시편 기자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우리도 고통과 고난이 길어지면 질수록 영육 간에 연약해져서 시편 기자처럼 연약한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실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계속 보고만 계실 것인가?, 설마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겠지…’ 등등. 이러한 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은 시편 기자처럼 자신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니까? 제 개인적 생각은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심신이 너무나 약해져 있으면 입을 열어 우리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제가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는 바로 “누군가 널 위하여”였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후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위로 받은 또 다른 복음성가는 “주 만 바라볼지라”입니다: (1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 {후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 만 바라볼지라.”

마지막으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의 음성으로 부르짖을 수 있었는가 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77편 11절을 보십시오: “곧 여호와와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 이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할 때 그리고 자기가 연약할 때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5-6절). 그는 자기의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할 때 그리고 자기가 연약할 때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회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위안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자 애썼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본문 11절에 와서 시편 기자는 자기가 회고하였던 옛적의 하나님의 기사,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찬송하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앞날 일은 하나님께 일임하였습니다(박윤선). 그는 주님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님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므로 말미암아(12절) 하나님께 자기의 음성으로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13-20절). 그가 묵상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13절) 이시요 그의 능력을 알리시는 하나님(14절)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15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사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목상하였습니다(16-20절).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음성으로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상한 심령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할 때 과거의 우리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들을 깊이 목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1절). 그리고 그의 때에 그의 뜻을 따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복음 성가 “너는 내 아들이라”를 부르고 싶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해 주시기 전까지는 위로 받기를 거절하면서)

제 77편: 나의 연약함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시편 77편 10절).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특히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피부 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특히 그 역경과 고난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역경과 고난일수록 그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시편 77편10절에서 시편 기자 아삽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은 한 4가지로 표출하였습니다(1-9절).

첫째로, 아삽은 불안하여 근심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77편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 이 세상엔 참으로 곤고한 일과 근심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찬송가474장). 또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시43:2).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나의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았지만(시77:2)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서였는지 그는 불안하여 근심했습니다. 불안해하는 마음과 근심에 쌓인 마음은 참으로 연약한 마음입니다.

둘째로, 아삼은 심령이 상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77편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내 심령이 상하도다(셀라).” 아삼은 환난 날에 불안과 근심 속에서 결국 심령이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또한 너무나 괴로워 말할 수 없었습니다(4절). 우리 사람은 너무나 괴로우면 잠도 잘 수가 없고 또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회하면서 힘들었을 때 한 3주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음식이 앞에 있어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도 경험한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나 요즘 마음이 괴로워’라고 말한다면 아직도 그렇게 괴로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떠한 괴로움은 진정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괴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듭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까지 침묵하게 만듭니다. 괴로움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은 연약한 심령입니다.

셋째로, 아삼은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77편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삼은 위로 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괴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안과 근심 속에서 잠 못 이루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아삼은 위로 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그의 심령은 상해 있었습니다. 옴기 생각납니다.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옴, 그를 위로 하고자 찾아온 친구들, 그러나 옴은 그들을 가리켜 “번뇌케 하는 안위자”라고 말하였습니다(옴16:2). 사람이 너무나 괴롭고 극심한 고통 중에 있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가 우리 삶 속에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다고 믿기에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넷째로, 아삽은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77편 7-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셀라).” 아삽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으므로 그의 마음과 심령은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서 아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의심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아삽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불 확신은 마음이 연약해져 있음을 알려줍니다. 연약해 진 마음은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다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결국 불안과 근심, 상한 심령과 위로 받기를 거부하는 마음에는 불신이 싹을 틀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옛적 기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77편 11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곧 여호와와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 너무 힘들고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되새겨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 제 품에서 죽은 첫째 아기 주영이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때만큼 저에게 고통스러웠던 적이 아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마음에 고통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만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념합니다. 현재의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그 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연약해졌던 제 마음과 심령이 다시금 소성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금 힘을 얻게 됩니다. 기억하고 기념할 때 저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진술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77편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진술해야 합니다. 가끔 어르신들이 저보고 왜 아직까지 첫째 아기 주영이에 대해서 말을 하냐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끔 주영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도 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주영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영”이름 그대로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그 주님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저나 제 아내는 이겨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영이 때 저희 부부 삶 속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나누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나눌 때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주님의 모든 일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77편 12절을 보십시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아삽은 환난 날에 연약함 가운데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면서 과거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현재 환난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실제로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당면한 고통스러운 환경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현재에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면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행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까지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묵상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깊은 묵상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묵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행사)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연약해 지는 우리의 육신, 불안과 걱정 속에서 허덕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도 늘어가고 또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시달리기도 합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할 때 의심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 받기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옛적 기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또한 진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제임스 목사 나눔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더욱더 철저히 깨닫길 기원하면서)

제 77편: 내가 연약할 때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와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시편 77편 10-12절)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여러모로 강해지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강해지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강해지고 또한 사회적으로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남들 앞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몰아치는 폭풍과 같은 역경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장한 청년인들 암 말기 선고를 담당 의사에게 받았다고 하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77편 10절을 보면 시편 기자 아삽은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아삽은 결국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약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77편 7-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은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는데 아삽은 연약한 가운데서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끝이 없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삽은 연약한 가운데서 “그 인자하심이 길이다하였는가”라는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삽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아삽은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조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인간이 그의 연약함 속에서 하였던 생각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등을 의심하였던 아삽, 왜 그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에게 닥친 환난 때문이었습니다(2절). 아삽은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으며 하나님의 기도 응답 없이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2절). 환난 가운데서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하여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하는 연약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특히 시편 22편 1-2절 말씀을 보면 그는 밤낮 하나님께 마음의 신음 소리를 기도로 아뢰도 응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었습니다(22:1). 다윗이나 아삽은 환난 날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영영히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극심한 고통 중에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기에 그 고통 중에 아삽은 혹시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연약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77:7). 또한 그는 불안하여 근심하여 심령이 상하였습니다(3절). 그리고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으므로 말미암아 너무나 괴로워하였습니다(4절). 그는 자기에게 임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었을 때 아삽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곧

여호와와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11-12절). 그는 현재의 난관을 과거의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며 깊이 생각하므로 이겨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중에 바른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 아삽은 과거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자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묵상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아삽은 시편 78편 34-35절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또한 하나님의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습니다(35절). 아삽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아삽처럼 고통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 깨닫게 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함이 우리의 힘이 됨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교회 대학부 수련회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제임스 목사 나눔

(오병이어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는 마음으로)

제 78편: “자손에게 알게 하라”

[시편 78편 1-22절]

“유대인 3차원 영재교육의 비밀: 마음은 비둘기, 머리는 뱀 같은 아이로 키워라”라는 기사를 보면 우리가 경쟁사회에서 승리하려면 마음(EQ)은 착하고 머리(IQ)는 똑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마10:16). 이것을 유대인들은 “마음(EQ)은 순결하지만 머리(IQ)는 세상 지혜를 능가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자녀가 세 살이 되면 어려운 율법을 즐기치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법을 배우면 사람이 매사에 까다로워져서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1등 민족이 된 비밀입니다. 이 기사를 쓴 저자는 “유대인의 교육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한국인도 유대인 못지않게 자녀 교육에 집착하는데 왜 우수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지 않는가”라는 궁금증을 갖고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에 주목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유대인들의 영재 교육 3차 단계를 보면 “제1차원 영재교육: 지식 위주의 지능개발, 일반 학교 교육에서 실시하는 IQ교육 포함; 제2차원 영재교육: 슈르드(shrewd), 영리함, 현명함을 개발; 제3차원 영재교육: 지혜(wisdom) 개발”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의 영재교육을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정리하면 지식, 슈르드, 지혜의 순서가 됩니다. 교육의 목표는 당연히 3차원의 지혜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나 한국의 현실은 늘 1차원 단계에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유대인의 영재교육은 가장 높은 3차원 지혜를 가르치고 다음 슈르드 교육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칩니다. 즉 인성교육을 성경으로 하는 과정에서 지혜와 슈르드를 개발한다는

것입니다(인터넷).

흥미로운 유대인의 3차원 영재 교육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녀 영재교육에 있어서 제1차원 영재교육인 지식 위주의 지능개발을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먼저 제3차원 영재교육인 지혜 개발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종교생활을 통해 지혜교육을 받고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혜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구약의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와 같은 일종의 유대문학과 탈무드, 율법 등에 집약돼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내용과 형식을 삶 속에 구조화(structurization)해서 지혜가 그들의 독특한 수직문화에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합니다. 여기서 수직문화란 인간의 내면적 정신세계를 이루는 역사, 철학, 사상, 전통, 고전 및 종교에 의한 문화입니다. 이에 비해 수평문화는 인간의 외면적 형이하학의 물질, 권력, 명예, 유행 및 현대 학문과 현대 과학 등을 말합니다. 수직문화가 변하지 않는 영혼을 위한 가치라면, 수평문화는 항상 변하는 육(肉)을 위한 것입니다. 수직문화가 인생의 의미를 찾는 깊이 있는 문화라면, 수평 문화는 인생의 재미를 찾는 표면문화입니다. 수직문화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굳건히 하여 내면적 자신감을 키우는 그릇으로 만듭니다. 수직문화가 컴퓨터의 하드웨어라면 현대 학문이나 과학은 소프트웨어라 하겠습니다. 지혜가 커야 지식도 그 안에서 제대로 쓰여집니다(인터넷).

오늘 성경 시편 78편 4-5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후대에 전하리로다”고 결심하면서(4절)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5절). 그래서 저는 오늘 “자손에게 알게 하라”는 제목 아래 과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손에게 무엇을 알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알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성경 시편 78편 4절과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그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4절), “...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7절).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였던 하나님의 행사는 “홍해를 건넌 사건에서부터 시작하여 광야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었습니다(12-22절) (박윤선). 오늘 본문 12절부터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애굽 땅에서 “기이한 일”(wonders)들을 자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 앞에서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이한 일”들이란 무엇입니까? 그 일이란 홍해 바다를 갈라 물로 하여금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신 일(13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신 일(14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사 물을 내시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을 흡족히 마시우게 하신 일(15-16, 20절), 그리고 광야에서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 양식인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신 일(23절ff) 등등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그 대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와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행하신 기사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결심하고 실행으로 옮겼던 것처럼(77:11) 우리도 하나님의 “옛적 기사”, 그가 우리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로 결심하고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알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성경 시편 78편 5절과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시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5절),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7절).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를 정하시고 명하시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5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은 또 그들의 자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7절)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도”는 좁게 해석하면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가리키고 좀 더 넓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법도”란 단어 외에도 오늘 본문 5절 상반 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증거”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사실을 대대로 증거하는 의미에서 증거입니다(박윤선). 그 자기 계시 중에 하나는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나 문제는 오늘 본문 시편 78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이 말씀의 배경은 에브라임 자손들이 본래 싸움을 잘하는데도 (창49:24)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 때에 패배한 것(삿1:29)을 가리켜 한 말씀입니다(박윤선). 이 에브라임 자손들의 패배 원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불순종과 불신앙 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열조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악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 자를 배반”한 죄(시78:17),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 가운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한 죄’(18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죄(19-20절).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매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습니다(19-20절). 한분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조들과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찌니라”(신6:6-9).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알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78편 7절을 보십시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 시대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박윤선). 그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열조처럼 하나님의 기사를 망각하고 그의 계명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범하지 말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 생각하면 시편 기자의 결론은 불신앙이 아닌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의 결론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며 그의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며 그의 계명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박윤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를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사26:4).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의뢰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뒹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저의 삼촌인 고 김창혁 목사님이 암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월요일 오전에 찾아보았을 때 목사님과 이런 저런 대화하면서 좀 많이 웃었습니다. 그 대화중에 물론 사모님과 목사님의 두 자녀들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대화중에 특히 목사님은 두 아드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맏아들이 아들을 낳으면 “승경”,

딸을 나면 “예손”을 생각하시더군요. 둘째 아들의 경우는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아들은 “승예”인가 그렇고 딸을 낳으면 “예방”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왜 목사님께서 후손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지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겸손”이요 둘째로는 “예방”(방지)입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맏아들이 자녀를 낳으면 “겸손”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으신 것 같고 둘째 아들의 자녀들 이름은 “예방”을(방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름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생각하여 지은 이름들을 생각할 때 저는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요 또한 예방하는 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는 겸손히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역사(기인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결코 소망을 자기 자신이나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계명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입술로 또한 삶으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치며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딜런, 예리, 예은이를 생각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가르치는데 헌신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 78편: 정함이 없는 마음

[시편 78편 23-41절]

이번 주 월요일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었습니다. MRI와 CT 촬영을 하셨는데 MRI를 찍으실 때는 MRI를 찍는 의사와 기술자(technician)가 있는 방문이 열려 있어서 제가 잠깐 모니터로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좀 있어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이 건강한지 아니면 어딘가 병이 있는지 진단하기 위하여 MRI와 CT 촬영하신 어머니를 생각해 볼 때 몸이 의학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진단할 수가 있지만 과연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할 때 저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7-8절을 보면 사도 야고보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건강하지 못한 마음은 두 마음과 정함이 없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란 분열된 마음으로써 흐트러진 마음이요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진실이 아닌 것들로 가득하여 끊임없는 번덕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해 냅니다. 이러한 마음은 온전하거나 건강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 마음은 약해서 삶의 온갖 스트레스들을 이겨낼 수 없고, 건강하고 활기 찬 생활보다는 무의미와 무기력한 삶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병든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78편 37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정함이 없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하였다’라는 뜻입니다(8절). 곧, 정함이 없는 마음은 불성실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불성실한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도 않고 또한 성실할 수도 없습니다(37절). 이 정함이 없는 마음을 저는 한 가지로 목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진단하는 계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진단된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정결케 되며 또한 정함이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정함이 없는 마음은 욕심을 따릅니다.

성경 시편 78편 30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열조를 거울로 삼아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는 가운데 그는 그들의 열조의 범한 죄 중에 탐욕 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가 출애굽 당시에 탐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78편 19-20절을 보십시오: “그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매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스라엘 열조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들을 향하여 맹렬히 노하셨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23-24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노 가운데 형벌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늘 문을 여시사 만나를 비 같이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물을 충족히 주셨습니다(25절). 주시되 그의 권능 속에서(26절)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므로 말미암아(27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배불렀습니다(29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욕대로 만나를 주셨습니다(2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30절).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범죄하고 있어도 범죄하였으니, 그야말로 무가내하한 자들 인고로 이번에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민11:33-35, 시78:31)(박윤선).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란 결국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욕심입니다. 지난 주에 교회 일로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희대의 소망”(저자: 이희대)이란 책을 보고 암에 관련된 책이라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저자 자신이 암전문의 의사이면서 암으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쓴 책이래서 더 관심을 갖고 책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암 4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5기를 경험한 저자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암 세포에 관한 저자의 글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자에 의하면 암 세포란 성장과 죽음을 반복해야 하는 세포의 유전자에 변이가 생겨 결코 죽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나는 세포라는 합니다. 암 세포가 무서운 것은 끊임없이 자라나기 위해서 다른 세포들의 영양분을 혼자서 차지한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암 세포란 끊임없이 여기 저기 옮겨 다니면서 고칼로리 영양분을 낚아채서 독식하며 성장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자에 의하면 암세포의 본질은 탐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탐욕이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 매일 매일 순간순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는 마음을 끊임없이 비워야 합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만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물로 주신 영생(롬6:23)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롬8:38-39)으로 인하여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암 세포와 같은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해서는 아니 됩니다.

둘째로, 정함이 없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 시편 78편 32절을 보십시오: “그런 찌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사 만사를 풍족히 은혜로 내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은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끝없는 욕심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3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범죄하여 하나님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32절). 결국 그들은 욕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은 것입니다. 그 죄는 바로 “불신”입니다. 시편 기자는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규명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22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서부터 광야까지의 여러 가지 기사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맹렬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습니다(21절). 그 결과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습니다(33절). 그 때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습니다(34-35절).

성경 요한복음 20장 30-3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 외에도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는가 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아니하면 자기가 행한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10:38, 14:11).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하신 누가복음24장25절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참으로 우리는 미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더디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롬14:23).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10:17). 그 결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히5:12). 우리는 더 이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13절). 오히려 우리는 장성한 자들이 되어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되야 합니다(14절).

셋째로, 정함이 없는 마음은 거짓을 말합니다.

성경 시편 78편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34절) 그것은 아첨에 불과한 회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 없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발라맞추는 아첨이었습니다. 그들의 회개가 하나님께 아첨이 되고 만 이유를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전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까닭이며, 둘째로, 외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보려는 것뿐이고, 중심의 진실함에서 죄악을 원통히 여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향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사29:13).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 하였으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습니다(시78:37).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8편 38절과 39절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발하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하며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육체(인생)뿐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진노를 돌이키사사 그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의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재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40-41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망각하고 수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슬프시게 하였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14장5절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구속 받은 자들, 즉 상징적인 숫자인 십사만 사천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속 받은 자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말씀은 “정직한 언행”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성경 잠언 6장16-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거짓된 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혀를 버려야 합니다. 구속 받은 우리들은 거짓말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는 진실된 마음과 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진노를 돌이키시지만(시78:38)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으며(40절) 하나님께서는 그 분을 “다” 발하지 아니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탐욕을 다 발하여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억제하신 반면에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탐욕을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23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32절)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지만(37절)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성실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정함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향하여 정함이 있는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웬지 죄를 좇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좇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정함이 있는 마음으로 성길 것입니다. 탐욕대신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것이며 하나님의 기사를 믿으며 그의 구원을 의지할 것이며 또한 진실 된 마음과 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함이 없는 마음의 소유자인,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 같은 죄인을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78편: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시편 78편 42-72절]

우리는 지난 주 시편 78편 23-41절 말씀 중심으로 “정함이 없는 마음”이란 제목 아래 한 세 가지로 정함이 없는 마음에 대하여 묵상했었습니다. 정함이 없는 마음, 즉 불성실한 마음은 첫째로 욕심을 따르며 둘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며 의심하며 또한 셋째로 정함이 없는 불성실한 마음은 거짓을 말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회개조차도 아침에 불구한 이스라엘 열조들의 회개는 결국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 하나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있었던 것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생각나는 말씀은 성경 예레미야 17장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이 부패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흘리신 그의 보혈로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우리 안에 정함이 없는 마음을 봅니다. 과연 이러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단련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기도회 때 시편 26편 2절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단련할 수 있을까를 한 3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지적인 면에서 우리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주의 진리”(3절)를 알아 가는데 힘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감정적인 면에서 우리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8절)이 우리 마음에 동기부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로, 의지적인

면에서 우리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시편 기자 다윗처럼 “완전함에 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11절). 다시 말하면, 저는 정직히 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78편 마지막 절인 7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란 제목 아래 과연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한 3 가지로 목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성경 시편 78편 68절과 7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분명하십니다. 선택하신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68절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오직…”으로 시작을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But”(그러나)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러나”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67절 말씀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싫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는 택하지 아니하셨지만 다윗은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70절).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하지 않으심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분명한 선택과 선택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롬9:13). 성경 로마서 9장은 특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절부터 보면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즉,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라고 말하였던(21절)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감히 피조물이 조물주의 주권을 도전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속에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에브라임 지파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오늘 본문 67-68절 말씀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우리 안에 뭔가 선택 받을 만한 것들이 있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선택하시어 우리를 그의 양으로 삼으셨습니다.

둘째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선택하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성경 시편 78편 42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열조들은 불성실하게도 자기들을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사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대적에게서 구속해 주신 사건을 오늘 본문 43절 이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설명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들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속에서 있었을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사(43-41절) 결국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52절)을 애굽에서 구속해 내셨습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무슨 뜻입니까? 구속이란 말은 값을 치르고 사 드린다는 말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 가듯이 하나님께서 비싼 값을 치르시고 죄인들을 마귀 시장에서 사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구속이란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마귀의 노예 시장에서 사셨다는 말입니다.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는데 그 양의 피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가리킵니다. 이 구속의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 이사야 43장4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 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 주고 산 바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이 된 것입니다.

셋째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지도하십니다.

성경 시편 78편 72절을 보십시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오늘 본문 5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조들을 애굽에서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되 안전히 인도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53절).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54절)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땅에 열방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분배하시고 그 땅에 거하게 해 주셨습니다(55절). 그러나 이스라엘 열조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56-58절을 보십시오: “그럴찌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 같이 배반하고 궤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 같이 빗가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으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시고 인도해 주셨지만(72절) 그들은 “그럴찌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고 배반하였습니다(56절). 배반하되 “속이는 활 같이 빗”가서 산당을 짓고 조각한 우상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57-58절). 결국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59절) “인간에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60절) “자기 영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과 칼에 붙이셨지만(60-61절)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70절)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72절) 이끄시고 기르시고 지도하셨습니다(71-72절).

우리가 묵상한 시편 78편 23-41절 말씀에서 생각한 것처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 가운데(18절)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였어도(19-20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늘 문을 여시사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셨습니다(23-24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한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함이 없는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기르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성실한 하나님의 마음과 정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성실하십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정함이 없는 마음 혹은 불성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선택해주시고, 구속해 주시며 또한 인도해 주시니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즐거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성실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목사 나눔

(불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 79편: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어”

[시편 79편]

저는 성경 시편34편8절 중심으로 시편 34편을 묵상하였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맛보는 하나님의 선하심, 즉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영육간의 구원’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건지심’입니다[(4절) “...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17절) “...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 “...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구속입니다[(22절)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성경 시편 79편을 보면 하나님께 피하여 간구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 중에 특히 9절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어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어”라는 제목 아래 시편 기자가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 제목 3가지를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편 기자의 기도 제목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어 우리를

도우소서!’입니다.

성경 시편 79편 9절을 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 왜 시편 기자는 구원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간구를 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핍박 자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받는 환난에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며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 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주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고 예루살렘 성을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습니다(1절).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안에 있는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을 죽이고 매장하였습니다(2절). 그러므로 그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면에 물 같이 흘렸습니다(3절).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웃에게 비방거리와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4절). 이러한 때에 시편 기자는 구원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도움을 하나님께 청하되 그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도와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9절). 이것은, 자기들에게 의가 없음을 알고, 다만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거룩한 위신을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원함입니다(박윤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면서도 자기 이름이던 자기 영광을 위해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뤄지길 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무기력함(helplessness)을 느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help)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조차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신앙생활 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깊이 깨달아 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욥을 보시길 바랍니다. 욥은 그의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나 …”(욥6:13). 욥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도움을 수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시편 46편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무기력한 중에서 도움을 청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둘째로, 시편 기자의 기도 제목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건시소서!’입니다.

성경 시편 79편 9절을 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님의 성도들의 죽음,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도와주시길 간구하였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여기서 “어느 때까지니이까”(How long?)이란 시편 기자의 기도는 우리가 이미 시편 13편에서 목상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궁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1-2절). 이러한 기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들이 인내하며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속한

건지심을 원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9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신속한 건지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이러한 멸망의 위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사 그들의 대적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방들에게 쏟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6절).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까? 10절에서 그 대답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1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디냐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진노를 열방들에게 내리시길 간구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심을 열방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실재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였던 열국들은 주님을 “훼방”(the reproach)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열방들에게 그의 진노를 쏟으시길 간구하면서 그들에게 포로가 되어 갇힌 자들의 탄식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사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11절).

이 얼마나 놀라운 간구입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그의 크신 능력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문제보다 하나님을 위한 관심이 더욱 컸습니다(박윤선). 비록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주소서’라고 간구하였지만(9절) 그는 불신자 이방인들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비방하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10절). 우리는 이러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셋째로, 시편 기자의 기도 제목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입니다.

성경 시편 79편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환난과 재앙이 죄의 결과임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9절하). 그는 죄를 사하여 주시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해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8절). 성경 출애굽기20장5절에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삼사 대까지 이르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손들의 그 조상이 범한 죄와 같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였습니다. 심히 천하게 된 상황에서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속히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결국 시편 기자가 필요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구원)은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죄 사함 이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환난과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고서는 환난과 재앙에서의 도우심과 건지심은 의미가 별로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편 기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난과 고통 그리고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에 물론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의 구원을 간구해야겠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혹여나 이 모든 일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 (나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13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건짐을 받고 죄 사함까지 받는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은 감사와 찬양인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시편 기자의 이 3가지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 기도 응답을 받으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로 세움 받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80편: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80편]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대한 소식은 이미 여러분들도 다 들어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미디어에서는 그의 당선 소식을 전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쭉 방송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생일이 제 아내와 같은 12월 19일입니다. 그리고 12월 19일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결혼기념일이라고도 합니다. 왜 자기 생일날에 결혼했는가 하면 결혼기념일을 잊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아내의 생일인 12월 19일에 약혼한 이유는 선물을 하나만 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말입니다 (일석이조)… ㅎㅎㅎ 이명박씨가 대통령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좀 있다가 이 메일로 매일 오는 ‘고도원의 편지’를 받아 보았는데 그 글 제목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그 글을 좀 나눈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리더는 단지 효율적으로 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리더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다. 리더는 목표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리더는 자기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게리 맥킨토시, 새뮤얼 리마의 《리더십의 그림자》 중에서]

“리더는 명암(明暗)의 칼 끝 위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항상 날카로운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는 방법입니다. 리더가 올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 국민과 역사 앞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아마 이 글은 이명박 의원이 대통령 당선된 것을 알고 이 메일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말을 뉴스를 통해 들어 보니까 한 세 가지를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로, 경제를 살리는 것, 둘째는, 분열된 사회를 화합하는 것, 그리고 셋째로, 겸손히 국민들을 섬기겠다는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책임입니다. 과연 그가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오랫동안 분열된 사회를 화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 특히 그 또한 교회 장로님으로써 한국 나라를 이끌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먼저 기도로 후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고국 한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지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빛을 비취소서’입니다.

성경 시편 80편 1절, 3절, 7절,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취소서”(1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취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3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취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7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취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19절).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반복하여 “빛을 비취소서”, 즉 “주의 얼굴을 비취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이유는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캄캄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때란 다시 말하면, 극도로 비참한 처지에

빠진 상황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여기서 말하는 극도로 비참한 처지에 빠진 상황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 상황이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4절) 이스라엘 이웃에 있는 강한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서로 먹으려고 경쟁하는 상황(6절)을 가리킵니다. 한 마디로, 주님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게 된 상황을 가리킵니다(16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면책을 받아 망하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주님의 진노를 샀고 또한 그 진노 가운데 주님께 징계를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이러한 캄캄한 때에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시고 계시다고 느꼈기에 ‘주님의 얼굴을 비취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동문회 모임이 있어서 선배 목사님 교회에 갔다가 다른 선배 목사님의 설교 CD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CD를 차 안에서 들으면서 주신 은혜가 있어 나눕니다. 그 은혜는 다름 아닌 ‘기독교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한 예로 그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숨바꼭질’입니다. 만일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하고 숨바꼭질을 하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찾기 쉽도록 숨는다고 합니다. 만일 아이들이 전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꼭꼭 숨어버리면 그 부모님은 좀 이상합니다. ㅎㅎㅎ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숨던지 아니면 아이들이 못 찾을 때 힌트를 줍니다. 우리의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실 때에 결코 우리 하나님은 꼭꼭 숨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찾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너무나 모든 것이 어두컴컴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주님여,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취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이 성탄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 하면서 특히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저 천국에는 결코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 곳에는 해나 달의 비침도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 등이 되어 천국을 환히 비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두컴컴한 상황을 처하게 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주님여, 우리에게 빛을 비취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돌이키소서’입니다.

성경 시편 80편 3절, 7절, 그리고 19절을 다시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말씀은 포로 되어 타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인 듯합니다(박윤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이웃에 있는 강한 나라들에게 큰 수치를 당하여 결국 그 중에 한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잡혀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이키소서’, 즉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석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3절). 특히 시편 기자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옮겨주셨던 사실과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황금시대를 회상하면서 그는 다시 그러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박윤선)(8-11절). 여기 8-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시되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 가나안 땅에 편안하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10-1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증대케 하여 주시고 강토를 확대하여 주시되 특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 국토를 확대케 하여주신 이스라엘의 황금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12-13절에서 쇠퇴하여진 사실을 시편 기자는 말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렇게 된 것임을 그는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시편 기자는, 자책과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박윤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쇠퇴해졌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돌이키소서’ 즉,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이 전에 우리는 우리 죄를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한 2-3년 전 송구영신예배 때 저는 5 “R’s”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Repentance (회개), Restoration (회복), Reconciliation (화목), Reformation (개혁), 그리고 Revival (부흥).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러지는 회개 기도가 없이는 참된 회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회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참된 회복과 화목과 개혁과 부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면책(16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면책을 받을 때에 우리는 경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되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힘 있게 하소서’(17절)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Revive us)(NASB)(18절)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셋째 기도 제목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성경 시편 80편 2절, 3절, 7절 그리고 19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2x), “...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극도에 비참한 아주 캄캄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빛을 비취소서’, ‘우리에게 돌이키소서’라고 간구하면서 그의 최종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였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였습니다: “...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2절).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했습니까? 그 이유는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에 비참한 아주 캄캄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들이 힘이 쇠잔하여 갔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쇠잔하여 가는 상황에서 점점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아 가고 있었기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구원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서 쇠잔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금시대를 회상하면서 다시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힘 있게 하여 주시길 기원’하였습니다 (15절).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힘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좀 힘이 빠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을 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그가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신앙 생활하려고 하면 교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아니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우리 힘을 빼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구원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아내 생일날에)

제 81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시편 81편]

어제 새해 첫날밤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식구 5명이 다들 저희 부부 침대에 벽을 기대고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앉아서 저와 아내와 딜런은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예리는 자기 동생 예은이에게 무슨 공주(princess)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읽다가 ‘우리 이젠 예배드리자’ 하니까 예은이가 아쉬운지 힘들게 책을 내려놓게 한 후 예리가 딜런의 성경책 첫 장을 읽고 제가 짧게 그 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책에 대해서 권면한 후 기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은이가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대 밖으로 제 앞에 세운 후 함께 기도하겠느냐고 물으니까 예은이는 “No”라고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은이에게 ‘그럼 너는 너가 읽던 책을 가지고 너 방으로 가라’고 말하니까 예은이는 좋아서 밝게 웃으면서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ㅎㅎㅎ 사실 예은이는 우리가 다 모여 책을 읽기 전에 오빠 책을 몰래 오빠 책장에서 가지고 와서 혼자 저희 부부 침대에 앉아서 ‘하나님’ 하면서 혼자 말하면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은이는 그 읽던 공주 책을 그렇게 더 읽고 싶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 예은이는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아내하고 통화하면서 알게 된 것은 딜런와 예리는 아직 잠을 자고 있는데 예은이는 일찍 일어나서 그 책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ㅎㅎㅎ 얼마나 그 책을 보고 싶었으면... 하하.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예은이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함께 예배를 드리길 원하였지만 예은이가 원하는 것은 그 공주 책을 더 읽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가정 예배기도 시간에는 저희 부부와 딜런, 예리만 함께 하였고 예은이는 자기 방에서 공주 책하고 함께 하였습니다. 그 책을 언니 예리가 읽어주는

것을 좋아하는 예은이의 모습을 보고 일부러 예배 시간도 늦춰서 가정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은이에게는 아마도 공주 책 읽은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하.

이 한 사건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들인 우리와의 관계에서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실 텐데 우리는 마치 예은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데로 행동할 때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성숙한 신앙이란 마치 철이 든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편81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란 제목 아래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3가지로 목상하고자 합니다. 바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3가지를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찬송”입니다.

성경 시편 81편 1절을 보십시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찌어다.” 시편 기자는 유다의 어떤 절기를 지키는 일에 관하여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4절, 박윤선). 그 찬송의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가리켜 시편 기자는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절).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받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이 찬송하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겸하여 자기 자신의 영적 생활에 힘을 얻는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에 힘을 공급 해 줍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찬송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 후반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기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서로 신앙 사상의 단합과 경건의 공적 고백과 영적 생명의 장성을 위하는 것입니다(칼빈, 박윤선). (1)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성도들의 “서로 신앙 사상의 단합”이라는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서로 재확인 하는 것입니다. (2)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목적은 “경건의 공적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는 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3) 셋째 목적은 바로 ‘영적 성장’(spiritual growth)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공적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찬송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듣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데 목적이 우선이 된다면 이러한 ‘나-중심적인 찬송’은 결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주님의 한 몸임을 공적으로 고백할 수가 없으며 또한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찬송”을 바로 드려야 합니다. 바로 드리되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1절), 악기들을 동원하여(2절), 주님의 날에(3절) 우리 능력되시는 하나님께 높이 노래해야 합니다(1절).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올레”요 또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4절).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성경 시편 81편 7절을 보십시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므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셀라).” 이 말씀은 특히 전혀 기도에 힘쓰고자 하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회상하며 자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케 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라는 권면의 말입니다. 그 권면의 구체적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10절).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라는 말씀입니다(박윤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갈망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위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10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채움을 받기 위해선 우리는 비워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을 비워야 합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어떠한 죄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나와있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기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심 및 헌신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원치 않을 때가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11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성경 시편 81편 8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8절),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박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죄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버려두심이고, 그 둘째는, 적극적으로 그 죄인이 고난 혹은 멸망을 받게 하심입니다(박윤선). 이 두 가지 방법 중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방법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박한 마음대로 그냥 내어 버려두시면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되 그들의 원수들에게 맡기셨습니다(1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시편 기자는 한 두 가지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제어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14절).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시던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들의 원수들을 향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밀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셔도다.” 이 약속은 물질적 축복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 배부르게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 풍족한 땅에서 더 풍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외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초대 교회 120 성도들이 모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전혀 기도에 힘쓰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 81편 14절과 16절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사 우리에게 향하시던 징벌의 손길을 우리의 원수들에게 향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풍족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제 설날 가족 식구들이 저희 형 집에서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고모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한 해가 되기를 힘쓰길 원합니다. 비록 셋째 삼촌인 김창혁 목사님께서 암으로 고통 중에 계시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 후 다 통성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금식 기도 릴레이를하기로 결정하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 다들 헤어지기 전에

김창혁 목사님께서 방에서 침대에 누워계시다가 거실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우리 식구 친척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과 후렴을 부르셨습니다. 비록 고통 중에 계시지만 하나님께 그 영혼이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새해2008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님과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처럼 이 땅에 이뤄지길 기원하면서,

제임스 목사 나눔

(새해 첫 수요기도회 후)

제 82편: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시편 82편]

어제 화요일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하고의 미국 정치에 대해서 대화를 좀 했습니다. 대화의 시작은 현 미국 이민법(Immigration Law)에 대한 아내의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저희 부부는 현재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에 돌입한 후보들의 이민 정책 외에도 그들의 가치관 및 현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는 낙태(Abortion)나 동성결혼 등등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어제 New Hampshire Primary 선거에 민주당에서 힐러리 상원의원이 오바마 상원의원을 2%차로 이긴 소식을 접한 저희 부부는 과연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자 성경적인 기준 속에서 성경 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미국을 잘 다스려 주길 기원하는 마음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후 오늘 오전에 “미주복음신문”(2007년12월23일)을 읽게 되었는데 기사 중 “한국교회,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기사를 보고 읽어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지도자 되길” 바라고 있음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투표일인 12월19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출석하는 소망교회는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를 드린 뒤 8시30분부터 당선 감사예배를 드렸고 여러 교회에서 새로 뽑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각 교회 투표마감 후 수요예배표정”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문구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여기 미국도 앞으로 누가 대통령에 당선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공의로 이 미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성경 시편 82편 8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밤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재판장들과 치리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 혹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한 2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재판장과 치리 자들은 불공평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82편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낮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셀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한 2-3일 전 한국 경기도 이천 냉동 창고 화재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야후 뉴스를 보니까 “일단 경기 이천의 냉동물류창고는 운영사인 (주)코리아 2000의 법인명으로 153억 원의 기업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었기에 최고 보상액으로 153억 원이지만 화재보험 특약 등으로 실제 15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망한 40명과 다른 피해자들은 “0”원을 받는다는 뉴스였습니다. 사망한 사람들의 유가족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해 볼 때 상상이 안 됩니다. 또 다른 예는 근래 미국 뉴스를 접하면서 가끔 들려오는 뉴스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서 몇 년을 살다가 DNA 시험으로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죄임이 밝혀져 풀려나는 일이 종종 들립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그저 1-2년 감옥에서 살다가 무죄로 풀려난 것이 아니라

10-20년 넘도록 감옥에서 살아가 풀려난 소식을 접하면서 ‘참 저 사람들, 얼마나 억울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재판하는 재판장들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1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장들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악인의 낮을 보아 공의로운 행정을 굽혔기 때문입니다(2절, 박윤선). 이렇게 악인을 낮을 보아 불공평한 판단을 내리는 이스라엘 재판장들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5절). 무지하고 무감각한 악한 재판장들, 불공평하게 판단하는 원인은 그들이 “흑암 중에 왕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신16:19). 재판장이 뇌물을 받고 굽게 판단하는 것, 이것인 옛날 구약 때의 일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이러한 죄가 얼마나 많이 저질로 지고 있습니까?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뇌물로 인하여 분별력을 상실하여 판단을 굽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은 “탐관오리(貪官汚吏)”란 말을 아시죠? 사전적으로 보면 ‘백성의 재물을 탐내 빼앗고,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진주민란의 원인이 된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백낙신이 있었고, 동학 혁명의 계기를 제공한 고부군수 조병갑이 대표적인 탐관오리였다. 백성의 혈세를 빨아먹고 고통에 빠트리는 탐관오리는 역사소설에서도 단골손님이었다. 임꺽정 전에 서도 그랬고, 전우치전에서도 그랬고, 춘향전에서도 그랬다. 그 중에서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는 탐관오리의 대명사였다”고 합니다. 이런 탐관오리들을 경계하고자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율기(律記)편에서 수령(목민관)이 지켜야 할 생활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마음가짐을 언제나 청렴결백하게 하는 것이요, 셋째는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넷째는 사치하지 말고 생활을 검소하게 하라는 것이요,

다섯째는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인데, 지방에 부임할 때는 가족들을 데려가지 말고 형제나 친척이 방문했을 때는 오래 머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섯째는 모든 물자를 절약하고 아껴서 백성들에게 즐겨 베푸는 것 또한 수령이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였다. …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도 탐관오리는 비일비재했다. 진급과 승진을 위해 상납을 하고 또 아래로부터 상납을 받고, 선출 직 관직을 얻기 위해 공천헌금을 갖다 바치고 당선되기 위해 온갖 부정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또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과상자로 돈을 나르고 차떼기로 바치기도 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온갖 뇌물과 상납을 받고 권력을 남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확보하기도 하였다”(인터넷).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관오리(貪官汚吏)들이 다스리는 때에는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고 또 동요 된다. 그러므로 인류 사회의 질서 확립을 위한 기본 요소는, 옳은 종교의 산물인 공의이다”(인터넷). 탐관오리들로 인하여 미국 재판 시스템이 불공평한 판단을 재판장들이 내리므로 말미암아 억울한 사람들이 감옥 가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으며 또한 사회에 와글와글한 탐관오리들로 인하여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고 또 동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공의로 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공평한 재판장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2편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 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 같이 엎더지리로다.” 여기서 “신들”이나 “지존자의 아들들”이란 이스라엘 재판장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그렇게 칭한 이유는 통치자의 직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대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지 않고 불공평하게 판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재판장들과 치리 자들은 공평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82편 3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 짜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공의로 우신 하나님께서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실 것이니(1절) ‘너희 이스라엘 재판장들이여 공의를 베풀
찌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공의를 베풀어야 합니까?

(1)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재판장들은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합니다(3절). 이스라엘 재판장들은 억울하게 눌린 자들인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들을 돌봐 공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경건(종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1:27).

(2)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야 합니다(4절). 힘이
없고 연약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그들이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역경을 당할
때에 공평한 재판장은 그들을 악인들에 손에서 건져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악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의로운 재판장의 책임입니다.

성경 잠언 31장 9절을 보십시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재판장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공의로
재판하고 연약한 자들을 신원해 줘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이스라엘 재판장들은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대리인들으로써 충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공의로운 삶과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이뤄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공의롭고 정직한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공의와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롭고 진실한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인터넷).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길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의 공의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믿는 재판장들은 공평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궁핍한 자, 연약한 자들을 신원해 줘야 하며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의로 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공의로 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단을 기원하면서)

제 83편: “주 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편 83편]

어제 화요일 새벽기도회 때 출애굽기 3장7-8절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 두 구절 말씀 속에 나오는 여섯 개 동사를 중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여섯 개 동사란 바로 “보고”(seen), “듣고”(heard), “알고”(concerned), “내려와서”(come down), “건져내고”(bring them up) 그리고 “인도하여”라는 동사들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보았는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고 장을수 할머니의 고통을 보셨고 그녀의 부르짖음인 ‘하나님, 저 천국 데려가 주세요’을 들으시고 그녀의 고통을 알고 계셨고 내려오시사 그녀를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건져 내시고 그녀는 진정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타나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시편 83편 18절을 보면 시편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 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주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리시는지 한 두 가지로 묵상하며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를 보호해주시므로 주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년 송구영신예배 때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론의 축도 말씀(신6:22-26)으로 저희 교회 모든 식구들을 한 3가지로 축복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되 죄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로부터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지켜 주시길 축복 기도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시편121편3-8절 말씀을 붙잡자고 권면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십니까? 그 대답을 오늘 본문 시편 83편 3절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숨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 숨긴 자”란 영어 성경 NIV를 보면 “those you cherish”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는 주님의 소중히 가슴 속에 간직한 자(마음에 품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품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보배로운 소유(His treasured possession)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신7:6).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가 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주의 숨긴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3편 12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목장”이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악인들은 하나님의 양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을 침략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목장으로 가리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들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그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요10:15). 그는 생명을 걸고 그의 양들인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양들입니다. 그가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세상 중에서 주님만이 지존 자이심을 알리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둘째로, 주님은 악인을 멸하시므로 주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양들이자 주님이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 멸하려고 하였던 악인들은 주님의 백성들을 치려하였고 또한 간계를 꾀하여 그들을 치려고 서로 모여서 의논하였습니다(3절). 이들은 함께 모여 의논한 것은 무엇 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83편 4절을 보십시오: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 악인들은 함께 모여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다시는 그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고 의논했을 때 “일심으로” 의논하였습니다(5절). 언젠가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서 열방과 세상의 군왕들이 예수님을 대적함에 있어서 서로 원수 되었던 처지에 있었던 헤롯과 빌라도도 서로 합심하여 친구가 되어 합동작전을 폈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3편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들의 원수들도 합심하여 합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모여 의논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였던 악인들을 일심으로 모여 의논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 언약하였습니다(5절). 곧 이들은 연합전선을 폈던 것입니다. 그 연합전선을 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은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 인과 모압과 하갈 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며 앗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습니다(6-8절).

이러한 때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멸망시키신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그 때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에게 하시사(9절) 그들을 패망시켜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10-11절). 예를 들어 9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사사 시대 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미디안 대군을 파멸시킨 사건과 드보라의 지시에 의하며 바락이 기손에서 그의 원수 시스라와 야빈을 대파한 사건들(박윤선)을 기억하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패망시켜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에 대한 시편 기자의 간구 내용을 좀 더 분석해서 보면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1) 첫째 기도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케 하소서’입니다: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케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16-17절).

여기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케 해달라는 기도는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멸하려던 악인들의 계획이 실패하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박윤선). 그리고 그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게 되길 간구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는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2) 둘째 기도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로 하여금 멸망케 하소서’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개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13-15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 것도 아닌 악인들을 주님의 광풍으로, 주의 폭풍으로 쫓으시길 원하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그의 광풍으로 ‘후~’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므로 온 세계의 주님만이 지존 자이심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공의로우심을 들어내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님만이 지존 자이심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온 세계의 지존자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가 되십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오시사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온 세계에 알리시는 것 외에도 그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온 세계에 알리십니다.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저 높은 천성을 향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장을 수 성도님처럼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 천성에 입성해야 할 것입니다.

고 장을 수 할머님을 생각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찬송가 40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숨질 때 되도록 부르고 싶은 마음으로)

제 84편: 축복의 사람

[시편 84편]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여러 별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직한 아브라함’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10대 시절, 어느 가게의 점원으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손님이 와서 돈을 치르고 갔는데 링컨은 나중에야 10센트를 거슬러 주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10센트 때문에 밤새도록 괴로워하다가 휴일인 다음 날 3마일 떨어진 곳까지 손님을 찾아가 10센트를 돌려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정직한 모습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내가 왜 칭찬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것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 이상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변호사가 되고 나서 먼저 한 일은 돈 때문에 소송을 못하고 있는 억울한 사람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소송 첫날 그는 “10대 시절 맹세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인터넷).

참으로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축복의 통로라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자유를 누리는 축복을 누린 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의 양가 부모님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사 저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가 부모님을 통하여 저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저 또한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 시편84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84편을 보면 “복이 있나이다”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4, 5, 12절).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과연 “축복의 사람”이란

누구인지 한 세 가지로 목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 다 축복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축복의 사람은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입니다.

성경 시편 84편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셀라).” 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러 온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박윤선). 그는 성전에 가기를 심히 사모하였습니다(1-4절). 왜 그는 주님의 성전을 그리 사모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시편 기자는 주님의 성전을 심히 사모하였습니다. 그 사모함 속에서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고백하였습니다(1절). 박윤선 박사님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건물이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사실이 성립시킨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신4:7),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므로 그곳이 그리 사랑스럽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84편 2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궁정을 너무나도 사모하여 신체까지 쇠약 해졌습니다. 그가 그리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였던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심히 갈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3절)께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 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3절). 여기서 시편 기자는 마치 자기 집을 사모하는 참새가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는데 자기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말미암아 서글픈 자신의 신세를 아프게 한탄하면서 주님의 성전으로 갈 수 있기를 애원하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박윤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 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10절). 여기서 주님의 궁정에서 거주한다 함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생활을 가리킵니다(박윤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가지면서 하루 사는 것이 악한 생활을 하면서 사는 천 날보다 낫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사모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함께 모여, 합심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집인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의 맛을 보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는 복 있는 자처럼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항상 주를 찬송해야 합니다(4절). 아직 기억이 납니다. 2003년 교회갱신목회자협의회(교갱협) 수련회 때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마태복음16장18절 약속의 말씀을 받고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를 부르면서 승리장로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기억이 납니다. 특히 1절을 부르면서 마음이 몽글하여 울음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리고 3절인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를 부르면서 다시 승리장로교회로 돌아와 충성하길 결심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저 천성을 생각할 때 어찌 그 곳에 거하기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처럼 진정한 새 예루살렘 성전인 저 천성을 향하여 이미 순례를 떠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는 것입니다(히11:13).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16절).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고전13:12).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것을 생각하며 위에 것을 찾아야 합니다(골3:1-2). 그러한 자가 참으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둘째로, 축복의 사람은 주님께 힘을 얻는 자입니다.

성경 시편 84편 5절을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축복의 사람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그 전에 올라가고 싶은 강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기도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18:1)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주님의 힘을 얻기를 사모하였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그가 주시는 힘을 얻기를 사모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이 시온의 성전에 올라 갈 수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왜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6절에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옛날 외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 가보려는 경영과 노력에는 ‘눈물 골짜기’ 같은 고통과 난관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통과하면 그 끝에 ‘많은 샘의 곳’, 곧 심령의 안위와 희열에 봉착한다. 그리고 거기서 ‘이른 비’ 같은 천래의 은사를 받으며 하나님을 뵈옵는 일을 영적으로 체험한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어 귀를 기울이소서(셀라)”(8절).

제가 좋아하는 복음 성가 중에 “축복의 사람”(혹은 “주께 힘을 얻고”)란 찬양이

있습니다. 그 곡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성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 질 거예요”. 이 찬양은 시편84편 말씀에 근거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힘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듣거나 부를 때에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낙망 했다가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특히 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위에 것을 생각하고 그 곳에 계신 신앙의 선배님들을 생각할 때 더욱더 저 천국이 마음에 그리워집니다. 아마도 그러한 마음을 가리켜 “시온의 대로가 있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점점 더 천국화 되어가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시온의 대로, 그 대로를 주님과 함께 걷어가는 그 발걸음은 힘이 있고 소망에 가득 찬 발걸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축복의 사람은 주님께 의지하는 자입니다.

성경 시편 84편 12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떠한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의지하였습니까?

(1) 시편 기자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9절).

시온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여정에 많은 눈물 골짜기 같은 고통과 난관들이 있기에 시편 기자는 더욱더 교회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7:10).

(2) 시편 기자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의지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되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의지하였습니다.

찬송가 342장 1절과 후렴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깨닫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는 그 연약함과 무기력함 철저히 깨닫는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수요일 저녁에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올라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이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이십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은 높아질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제 85편: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시편 85편]

“당신의 구원을 이뤄 가라”는 글을 보면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 신실 하라는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나쁜 습관을 후회하는 데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합니다. 그들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 말하지만, 실제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뤄 가는 일에 결코 착수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순간마다 당신의 구원 속으로 더욱 충만히 들어갈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2)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쏟아 내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계획을 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속히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 작은 것은 큰 것이 됩니다. (3)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행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불편해지든 간에,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모두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낙담하지 않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인터넷).

어제 저녁에 읽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 3장 강해 설교 집 책의 내용이 기억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저 우리를 우리 현실에 주어진 고통을 그냥 좋아지겠지 하면서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에 낙담이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85편 7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제목 아래 과연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한 4가지 과정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분노를 돌이키십니다.

성경 시편 85편 3-4절을 보십시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 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10절). 마땅히 죄의 결과인 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징벌을 내리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의 분노를 우리에게서 돌이켜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7절)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모든 진노를 돌이켜주시고 그쳐 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3-4절).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노하시지 않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5절). 시편 기자가 시편30편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노역은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샀을 때 우리는 그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모든 분노를 돌이켜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하되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85:9). 그러한 경외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의 모든 진노를 우리에게서 돌이키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십니다.

성경 시편 85편 2절을 보십시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 이다(셀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진노를 돌이키신 후 그 다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1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둘째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과거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2절) 지금도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고 기뻐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7절).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25:11).

우리의 죄가 비록 클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큼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말씀해 주십니다(85:8).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심해야 합니다(8절).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망령된 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8절).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시 죄에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복된 자에 대하여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32편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정죄치 아니하시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복된 자들은 마음에 간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성경 시편 85편 6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심에 있어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해주시고 부흥케 해주십니다. 죄를 지은 심령은 회개한 후 그 심령이 다시 회복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억눌린 심령이 회개한 후 하나님의 죄 사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소성케 되며 부흥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묘사했는지 1절 하반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야곱의 포로 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기서 “야곱의 포로”란 것은, 바벨론이나 혹은 그 밖에 다른 나라에게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다시 살려주시길 간구하였다는 것은 바로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 하게 해주시길 간구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시편 기자는 “회복”(restoration)을 간구한

것입니다[“... 야곱의 포로 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1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어 우리를 돌이키시고 ...”(4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6절하). 첫째는 물론 회복(구원)을 받았기에 기뻐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십니다(6절, 박윤선). 웨스트민스터 성경 소요리문답 제 1문이 생각납니다: 문 1: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사 선택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호6:2).

마지막 넷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경 시편 85편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앞에서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축복만 풍성히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84:11). 성경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엡1:3).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속 곧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4-5절). 이러한 영적 축복들을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셨습니다(6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시139). 둘째로,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롬8:32). 셋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시84:11; 85:12).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진노를 그의 독생자 예수님께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쏟으셔야 했었던 그 모든 진노를 우리에게 돌이키시사 오히려 예수님께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일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영적 축복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엡1:3).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 한 후,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항상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제 86편: 주의 종에게 힘을 주소서!

[시편 86편]

저희 교회 심방 목사님이셨고 저의 삼촌이 되시는 고 김창혁 목사님의 모든 장례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마쳤습니다. 이젠 목사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남겨준 목사님의 추억은 우리 마음이 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추억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종을 통하여 주셨던 교훈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헨리 나우웬이 말하는 기억하기 사역 중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기억하며 또한 오늘 새벽기도회 때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11장 4절 말씀인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우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와 연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암이란 탐욕입니다’라는 영동세브란스 암 소장 이희대 형제님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암으로 인하여 읽게 하신 그 책의 “암이란 탐욕입니다’라는 글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오늘 새벽기도회 때 묵상케 하셨습니다. 이희대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우리 안에 암 세포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암 세포보다 좋은 (건강한) 세포가 많기 때문에 암 환자들처럼 고생을 하고 있지 않고 또한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게 된 것은 영적으로 암 세포를 “탐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좋은 (건강한) 세포는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자족)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영적 건강함은 불신자들처럼 탐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건강 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으로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 1년에 한 번씩 종합 건강 진단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매일 순간순간 영적 건강 진단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미흡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성경 시편 86편 16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소서!”라는 제목 아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힘인지 한 3가지로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성경 시편 86편 1절, 6절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1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6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 이다”(7절). 다윗은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곤고하고 궁핍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당면한 환난을 다윗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았사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14절). 다윗의 원수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은 의인인 다윗의 생명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다윗의 생명을 노렸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다윗을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17절).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2절)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였습니다(3, 15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되 그는 종일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3절). 또한 그는 주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보전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며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2절). 한 마디로 말한다면, 다윗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2절).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기도 응답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그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가 크시기 때문이었습니다(13절).

이번 고 김창혁 목사님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긍휼이 여기시고 그 영혼을 영원히 보존하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구원”이라 말할 때 물론 병에서 치유 받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첫째 아기 주영이가 잠들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되 주영이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주셨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전혀 기도해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욱더 많이 체험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길 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성경 시편 86편 5절, 13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5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13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니”(15절).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기도의 확신이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의 하나님은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와 진실히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었기에 다윗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선하사 인자하심이 후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5절).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후하신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확신하였던 기도 응답은 바로 사죄의 확신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하사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잘못했다는 죄책감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인하여 더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랑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용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의 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이 사랑의 힘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11절). 우리는 일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 주님의 계명 중 하나는 바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찬양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6편 9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9절), “주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12절). 다윗은 하나님의 후하신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 응답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12절). 더 나아가서, 다윗은 모든 열방들도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9절). 그는 모든 열방들도 마땅히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9절). 그러면 다윗이 전심으로 찬양을 드렸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1) 다윗이 전심으로 찬양을 드렸던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89편 10절을 보십시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크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기에 다윗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 다윗이 전심으로 찬양을 드렸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89편 8절을 보십시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행사와 같이 행하는 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3) 다윗이 전심으로 찬양을 드렸던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89편 17절을 보십시오: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오늘 고 김창혁 목사님의 장례 예배와 하관 예배를 드리면서 고인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생전에 찬양하였던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인처럼 우리 또한 숨질 때 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광대하시며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기도의 힘, 사랑의 힘 그리고 찬양의 힘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86편 4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을 우러러 봐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를 찬양한 후,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기도의 힘, 사랑의 힘, 찬양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 87편: 참된 교회

[시편 87편]

A. W. 토저 목사님의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란 책은 믿음의 위선을 경고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참 신앙 회복서입니다. 저자는 한쪽으로 경도된 신앙, 체형은 있지만 신학이 없는 신앙, 죽은 정통만 간직한 채 하나님 만난 뜨거운 감격이 없는 신앙 등이 현대 교회의 몰량주의에 의해 왜곡된 '가짜 신앙'이라고 비판하고, 들플신앙, 진정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참 신앙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섯 가지로 토저 목사님의 책 목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1장), (2)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면류관 복음을 믿는다(2장), (3)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에 우선순위를 둔다(3장), (4)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한다(4장), (5) 그리고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다(5장). 반면에 왜곡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본문들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다른 본문들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목록에서 한 여덟 가지로 기록하였습니다: (1) 가짜는 인스턴트이다(7장), (2)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한다(8장), (3) 가짜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한다(9장), (4) 가짜는 행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려 한다(10장), (5) 가짜는 신조를 무시한다(11장), (6) 가짜는 신학을 경시한다(12장), (7) 가짜는 감정을 등한히 여긴다(13장) 그리고 (8) 가짜는 영적 균형감이 없다(14장)(인터넷).

우리는 성경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우리 믿는 성도는 영을 구별해야 합니다. 영에는 우리 믿는 성도를 옳게 바르게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곧 하나님께로서 온 성령과 우리 믿는 성도를 미혹시켜서 타락하게 하는 거짓 영인 악령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된 교회, 거짓된 교인, 그리고 참된 선지자, 참된 교회, 참된 교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미혹의 영인 악령에게 꾀를 받아서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받는 교회는 거짓된 교회요,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받는 교인은 거짓된 교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온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대로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은 참된 선지자요, 참된 선지자의 교훈을 받는 교회는 참된 교회요, 참된 선지자의 교훈을 받는 교인은 참된 교인입니다(인터넷).

저는 오늘 성경 시편 87편 말씀 중심으로 과연 참된 교회는 어떠한가 한 4가지로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교회는 견고한 기초가 있습니다.

성경 시편 87편 1절을 보십시오: “그 기초가 성산에 있음이여.” 이 말씀은 참된 교회의 영적 기초가 견고함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즉, 참된 교회는 견고합니다. 어떻게 참된 교회가 견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반석 위에”(마16:18)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석”이란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입니다. 즉,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란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란 바른 신앙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기서 “반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모퉁이 돌”이란 표현은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크로고니아이오스인데 아크로는 '높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데 세워진 반석"을 가리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건물들은 모퉁이 돌로써 건축이 시작되고 이 돌의 향방에 따라 건축물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의 건물이 서야 하며 모든 교회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향방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전하는 말씀의 터 위에, 말씀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석 위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지어져 가며,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집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에 이 성전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며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인터넷).

그럼 왜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성경 시편 87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신 이유는 그가 그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초석)이 되시는 교회,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며 그 말씀의 터에 세워지는 견고한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성경 시편 87편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셀라).” 왜 참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까? 그 이유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성”(The city of God)이기 때문입니다(3절). 다시 말하면,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자체가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영광의 주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시는 까닭입니다(박윤선). 그 영광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참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구절은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The City of God)이란 책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어거스틴이 살았던 때는 서로마제국이 무너지던 때였다. 서로마제국의 몰락은 그의 유명한 저서 "하나님의 도성"을 집필하게 하였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인 "가장 위대한 세상의 도시는 몰락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히 거하리라"는 이 책을 집필한 의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인터넷). 로마는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으며, 마침내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으며, 그 나라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로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로마가 야만족(고트족)들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야만족들에게 멸망될 수 있는가?" 에 대한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어거스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는 깊이 묵상한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 나라인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므로 로마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며, 이 나라는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인터넷).

우리 교회는 영광의 주님께서 견고히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사 기뻐하시고 또한 신실하게 약속하신 말씀 마태복음16장 18절대로 세워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승리장로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a radiant church)로 세워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엡5:27).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26절).

셋째로, 참된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성경 시편 87편 5절을 보십시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 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기서 “지존 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는 말씀은 지존 자이신 주님께서 시온, 즉, 그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마태복음16장18절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주님의 몸 된 참된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지존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심에 있어서 이방인들도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다 함께 시온 백성이 될 것입니다(4절)(박윤선).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그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가 선택하신 모든 나라의 백성들로서 다민족이요 우주적입니다. 결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선입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포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민족과 민족끼리 주님 안에서 벽이 있고 다민족과 다양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는 견고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나 오늘 본문 시편87편5절 말씀이나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를 기초가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이 들어나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참된 교회는 천국 시민의 공동체입니다.

성경 시편 87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셀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란 말씀은 모든 민족들이 천국에 입적함, 곧,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들어가는 신약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박윤선). 이 예언에 속한 민족들 중에는 라합, 곧 애굽과 바벨론, 블레셋, 두로와 구스도 포함돼 있습니다(4절).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어도 불구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도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을 시편 기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4절).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자들,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다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으로 여겨 주신다는 말씀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그 모든 천국 시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7절).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빌립보서 3장 20-21절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결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 합니다.

과연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된 교회는 견고한

기초(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천국 시민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가짜 교회는 흔들리는 기초 또는 모래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는 인간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가짜 교회는 사람이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짜 교회는 세상 시민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어 할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승리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임스 목사 나눔

(‘주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친히 세우소서’)

제 88편: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시편 88편]

이번 주 월요일 (2월25일) 고 정상우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정명선 사모님이 누워계셨던 병원에 갔었습니다. 맡아드님과 맡며느리가 있길래 잠깐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냐고 물은 후 사모님의 이마에 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잘 해 아리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사모님의 의식을 되찾아 주셔서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은총을 간구하였습니다. 흐느끼는 아드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그런 후 저는 병원에서 나와 저희 박 권사님이 계시는 양로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날 25일이 제가 알기론 박 권사님의 90세 생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찾아보았을 때 눈을 뜨시고 조용히 누워계시는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고 저 혼자 잠깐 이런 저런 말 한 후 권사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생신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 드렸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찬송가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찬양하였습니다. 웬지 그 찬송을 부르면 권사님께서 눈을 서서히 감으시고 잠이 드시곤 하십니다. 그래서 잠드시는 모습 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저녁에 집에 있는데 형수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시면서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줄 알지만 저희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셔서 그저 전화로나마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프실까 생각해 볼 때 저는 다시금 55일 만에 제 품에서 잠든 첫째 아기 주영이 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호흡기 등 모든 것을 다 빼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주영이 때 제 마음이 어떡했는지를 생각하면서 형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 사모님께서도 오늘 새벽에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분의 오른쪽 눈가에 흐르던 눈물을 보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저 세상,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죽을 일이 쌓인 세상입니다. 참으로 찬송가 474장 가사처럼 이 세상은 근심된 일, 곤고한 일 그리고 죄악 된 일이 많은 세상임을 더욱더 피부 적으로 느낍니다. 과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성경 시편 88편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시편 88편 2절 하반절에 적혀있는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란 말씀 그래도 제목을 삼고 한 두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왜 시편 기자는 주님께 부르짖었는가?’이며 ‘둘째는, 시편 기자가 간절히 찾았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답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자로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왜 시편 기자는 주님께 부르짖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시편 기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한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시편 기자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그는 곤란이 가득하였었습니다.

성경 시편 88편 3절, 9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3절),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9절), 그리고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유는 그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곤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곤란을 “우울과 고통”이었습니다(박윤선). “고통”이란 “고통스러운 질병”[표제에 나와 있는 “마할랏르인눗”라는 말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이란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우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3절). 그 이유 중 하나는 시편 기자는 젊었을 때부터 곤란을 당하여서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많이 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15절). 그리고 그러한 곤란 중에서 시편 기자는 기도를 매일 주님께 드린 결과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9절)(박윤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474장 2절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 질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109:4). 우리는 곤란이 가득할 때 그저 하나님께 기도드릴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곤란이 점점 더 가득해져 갈 때에 시편 기자처럼 더욱더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둘째로, 시편 기자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그는 극도로 외로웠 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극도로 외로웠습니까? 한 2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 그는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8편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해오면서 종종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특히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 극도로 외로움을 느낀 것입니다. 이러한 극도로 외로움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2) 주님께서 시편 기자가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8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8절),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18절). 시편 기자는 주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과 더불어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과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나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도로 외로움을 느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던지 또는 앞으로 놓이게 된다면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외로움을

세상으로부터 떠나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로, 시편 기자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경 시편 88편 3절 하반절, 4절, 5절, 6절, 10절,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왔사오니”(3절하),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4절), “사망자 중에 던 지운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치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5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데 두셨사오며”(6절),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흘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셀라)”(10절), 그리고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15절). 실제적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던 분들을 접하면서 제 자신의 무기력함을 경험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피부 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느낌은 저 뿐만 아니라 병중에 계셨던 그 분들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시편 기자도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4절).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과 같다고 고백하였을까 생각해 볼 때에 그 답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찾게 됩니다. 즉, 그는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치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주님께서(도) 나를 더 이상 기억치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를 더 이상 돌보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기에 더욱더 힘이 없게 되고 낙망하며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자로 세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생사의 갈림길에 앞으로 놓여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겿세마네 동산에서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 또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시편 기자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그는 주님의 진노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경 시편 88편 7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셀라)”(7절),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16절). 주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저는 지난 주 사랑하는 막내 딸 예은이를 징계하였던 일이 생각납니다. 제가 예은이를 징계한 이유는 잘못된 줄 알면서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랑하는 딸의 눈물과 콧물을 보면서도 매로 징계를 하였습니다. 매우 두려워하는 예은이, 엉엉 우는 예은이를 보면서도 매를 들고 그 아이를 징계하였습니다. 물론 주님의 진노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웬지 주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며 괴로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어제 화요일 저녁에 어떻게 예은이랑 대화하다가 예은이가 아빠와의 약속을 어기고 또 한 남자 아이를 때렸다고 고백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예은이는 지난주처럼 자기가 알고 스스로 침대에 서서 차렷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니 두려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앉으라고 말한 후 대화를 하였습니다. 왜 때렸냐고 하니까 자기를 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때렸냐고 물으니까 등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맞은 아이의 반응을 물어보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은이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남을 때리는 것을 잘못이라고 가르친 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리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은이는 하나님께 “I am so sorry …”(미안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 아이를 포옹하고 아빠가 예은이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을 때 그의 징계로 말미암아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나의 죄로 인하여 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가 곤란한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생사의 갈림길에까지 놓여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으로 믿고 기도에 전혀 힘쓰십시오.

마지막 둘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기도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간절히 찾았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어떠한 하나님에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한 2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편 기자가 간절히 찾았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이였습니다.

성경 시편 88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여기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어”이란 표현은 하나님에게 대한 이런 칭호는,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여러 차례 체험한 자의 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박윤선). 시편 기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기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였기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시편 기자가 간절히 찾았던 하나님은 바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 이였습니다.

성경 시편 88편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오직”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외에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가 구원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주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귀를 우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2절).

그 하나님께 오늘 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어떠한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다. 우리의 기도예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께 간구 한 후,

제임스 김 목사 나눔(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 89편: 유복한 자

[시편 89편 1-18절]

참으로 “유복한 가정”이란 어떠한 가정입니까? 물론 사전적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유복한 가정이란 물질이 풍족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복한 기독교인 가정이란 물질이 풍족한 가정인지요? 성경 시편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와 더불어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정은 유복한 가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정은 유복한 가정입니다.

요즘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지식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함을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 주 새벽기도회 때 사사기 2장 7절과 10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후세대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7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10절).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세대 사람이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기에 결국은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11절ff).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가정, 후손들이 다 유복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89편 15절을 보면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운 소리”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접수하게 된 자들은 참으로 유복한(복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유복한 자”란 제목 아래 유복한 자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한 다섯 가지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구원의 소식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구원의 경험하며 살아가는 유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유복한 자가 바라보며 의지하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89편 1절 상반절, 2절 상반절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1절 상반절),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2절 상반절), 그리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14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찬양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인자하게 행하시기를 영원히 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어떻게 인자하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나의 택한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종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에베소서1장4절에서 비취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해야 합니다(시89:14, 박윤선).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여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요3:16). 우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5:8)란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또한 지금도 하는 자들로서 주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유복한 자가 바라보며 의지하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89편 1절 하반절, 2절 하반절, 5절,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1절 하반절),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2절 하반절),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5절), 그리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돌렸나이다”(8절). 시편 기자가 의지하였던 성실하신 하나님은 그가 영원한 사랑 안에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대하여, 언약 이행을 성실되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박윤선). 비록 그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할지라도 성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실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동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런 동요가 없는 하늘에서

견고히 이행되기 때문입니다(박윤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 가운데 선택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에게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셀라)(4절). 이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 곧 사무엘하7장16절을 염두 해 둔 말씀입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언약은, 실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날, 세계적 구원 축복을 예언한 것입니다(사55:3-5)(박윤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뤄 나아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변동함이 없는 성실하심으로, 즉 그의 완전한 신실함으로 (사25: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한 지금도 구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주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해야 합니다(시89:1). 즉, 우리는 주님의 성실을 찬양해야 합니다(5절). 찬송가 447장 “오 신실하신 주”가 생각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후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셋째로, 유복한 자가 바라보며 의지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89편 12절을 보십시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남북의 모든 지경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볼산(유다에 있는 산)과 헬몬산(수리아 지경에 있는 산)도 다 함께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느 한 지역도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박윤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홍해도 육지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9-10절).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는 바다까지도 주장하시사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11절). 그가 의지하였던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건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연까지 주관하시면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자연까지도 움직이시고 섭리하시면서 그의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그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송가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생각납니다: (1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찻네”, (후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넷째로, 유복한 자가 바라보며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89편 6절, 8절 상반절, 10절,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6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8절 상 반절), “주께서 라합을 살륙 당한 자 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흠으셨나 이다”(10절), 그리고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 이다”(13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능히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실 수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그의 능력의 오른팔로 주의 원수들을 흠으시고(10절)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구원의 능력을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17절). 이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저희의 자랑할 만한 힘의 원천이란 뜻입니다(박윤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힘의 영광이시기에 우리는 유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는 바로 유복한 자들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유복한 자가 바라보며 의지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89편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왕은 거룩하신 주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방패”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사 그들의 대적들에게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악인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 할 때에 우리를 사랑의 매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심에 있어서도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써 우리에게 그리고 악인들에게도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유복한 자입니다.

오늘 새벽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운 소리”, 즉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형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만 있다면 ...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유복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죄 짐 맡은 우리 구주”를 찬양한 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기도한 후 승리장로교회 목양실에서)

제 89편: 나를 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89편 19-52절]

여러분들도 이 소식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한 전 야구 선수가 모녀 네 명을 살인하고 자기도 자살한 소식 말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잔인한 죄악성이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이 전 야구 선수는 자살하기 전 죽인 세 자매의 어머니에게 돈을 빼었는지 그 돈으로 여기 저기 빚진 사람들에게 돈을 갚았다고 합니다. 결국 재정 압박으로 인한 살인이었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요즘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전체가 경제적으로 매우 안 좋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그 결과 재정 압박으로 인한 이런 저런 죄악 된 일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며 낙망과 절망 속에서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자포자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근심된 일과 곤고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죄악 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인 세상입니다(찬송가474장).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좌절감과 낙망 그리고 절망까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 정상우 목사님(충현선교교회 원로 목사님) 부부가 좋아하시던 성경구절 시편18편1절이 생각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국어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지만 원어인 히브리어나 영문 성경을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웬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80편 2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나를 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아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한 2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나를 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돕는 힘을 더하십니다.

성경 시편 89편 1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성실하게 행하시되 다윗(“능력 있는 자”)에게 돕는 힘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다윗에게 그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어(20절)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사 그와 함께 하시사 그를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힘 있게 하셨습니다(21절). 그러므로 다윗은 힘을 얻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26절). 그는 구원의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원수로 하여금 자기에게서 강탈치 못하게 하셨으며 악한 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곤고케 못하게 하셨습니다(22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들을 그의 앞에서 박멸하셨습니다(23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 드시고(24절) 또한 그의 세력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25절).

우리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4:16).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신지를 제일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히4:15).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사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힘 있게 하십니다.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특히 복음성가 “너는 내 아들이라” 가사처럼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 하시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 노래 가사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돕는 힘을 더 하시길 원하십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사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를 힘이 있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나를 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십니다.

성경 시편 89편 28절을 보십시오: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시편89편 1-18절 말씀 중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자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맹세하시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여 네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맹세를 지켜 나아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세우시며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언약을 견고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2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하시되 그의 사랑(인자함)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시겠다고(27절)고 약속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영원히 지키시며 (28절) 또한 다윗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29절). 그러나

만일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30-32절).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오늘 본문 33-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 죄를 범하면 징벌은 하시지만 아주 내어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내어 버리실 수 없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하심으로 한번 맹세 하셨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35절).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어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는 곤고와 치욕에서 구출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38-51절)(박윤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곤고와 치욕이 하나님의 진노(38, 46절)를 알고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서 언제까지 스스로 (얼굴을) 숨기실 것인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46절). 주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셔서(42절)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방케 하셨습니다(50절).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47-48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자기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49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에도, 현재,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그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다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은 다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원하며 성실한 사랑(인자하심)을 의지 하여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를 힘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곤고한 때에라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 찌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곤고함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돕는 힘을 더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의 영원한 사랑(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체험)한 심령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를 찬양 한 후,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시므로 나에게 돕는 힘을 더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90편: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시편 90편]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제8복음>, <가스등> 등으로 유명해졌는데, 그녀가 출연한 영화는 그녀의 연기 때문에 언제나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원래 스웨덴 출신으로서 유럽을 풍미하다가 더 크게 명성을 떨치려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 할리우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영화에 출연해 두 번이나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만한 명배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배우가 성공의 정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리우드여! 실버스크린이여 ... 이렇게 황량한가, 이렇게 허무한가...” 그녀는 남편과 딸을 버리고 유명한 영화감독과 결혼했다가 얼마 못 가 파경을 맞이합니다. 그 후에도 여러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딸이 계부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녀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었습니다. 종국에는 암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목표는 있지만,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는 갖고 있지만, 목적이 없습니다. 목표는 방향을 이야기한다면 목적은 의미를 묻습니다. ‘왜 사는가’하는 것은 목적을 위한 질문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묻는 것은 목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와 목적을 혼동한 채, 그것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헤매다가 한 번 밖에 없는 소중한 생애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인터넷).

목표를 이뤘지만 허무함을 경험한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여배우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성경적 인물은 바로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입니다.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지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인지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전도서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를 헛된 것이며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에서 만이 인간은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도 헛되고(1:12-6:9), 쾌락과 물질도 헛되며(2:1-11), 물질생활도 헛되고(12-23절), 압제도 허무하며(4:1-3), 모든 수고도 헛되며(4-12절), 정치도 헛된 것입니다(13-16절). 전도서의 저자는 사색이나 관념으로 이러한 생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교훈 삼아 이야기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원하고 진정한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인터넷).

우리는 이 헛되고 헛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질문의 대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시편90편12절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란 기도는 두 가지 기도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3-10절을 보면 인생이 왜 허무한지 한 3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인생은 다시 흠으로 돌아가기에 허무합니다.

성경 시편 90편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 “필경은 흠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 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3:19). 흠으로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전도서 3장 19-21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 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흠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흠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자의 말처럼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흠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흠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기에 인생은 허무합니다.

(2) 인생은 잠깐이기에 허무합니다.

성경 시편 90편 4-6절을 보십시오: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신속히 왔다가 신속히 가는 세월과 인생, 허무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홍수에 휩쓸려 일시에 몰사하는 것처럼 인생들의 생명은 얼른 얼른 죽고 맙니다. 인생은 마치 잠깐 동안 잠들었다가 깨어남과 같습니다. 사람이 잘 때에는 무의식중에 지나가므로, 깨어 있을 때보다 시간이 얼른 지나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잘 때에는 꿈이 많음과 같이, 인생의 일생에는 꿈과 같은 공허한 경영이 많습니다(박윤선). 시편 기자의 말대로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는 것과 같이 인생도 마찬가지로 허무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4:14). 특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비취볼 때(시90:2) 하나님의 영원성 인생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인생은 짧고 짧습니다. 잠깐이요 또 잠깐일 수밖에 없는 인생 허무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3) 인생은 일평생 수고와 슬픔뿐이기에 허무합니다.

성경 시편 90편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년 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 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년 수가 칠십, 강건하면 팔십, 신속히 날아가는 한 평생 동안 수고와 슬픔뿐이기에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 왕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전2:22-23).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인 인생,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 찬 인생, 밤에도 쉬지 못하고 수고하지만 결국 이것도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 왕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2).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왜 인생이 허무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3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흠으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 너무나 신속히 가는 짧은 인생, 그리고 일평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기에 우리는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인생을 가치 있게 지내야 할 것을 가르치소서’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을 허비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우리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90편 11절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선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처럼 “지혜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12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잠1:7).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찌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성경은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지혜의 마음을 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 우리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선 주님의 인자로 만족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90편 14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일평생 동안 수고하며 슬픔 가운데 허무하게 인생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은 바로 주님의 인자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할 때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이 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3) 우리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90편 16절을 보십시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우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고케 하신 날수대로 (화를 당한 년 수대로) 기쁘게 해 주시길 간구하면서 그러기 위해선 주님의 행사와 주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15절). 수고와 슬픔이 많은 한 평생,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이 수고와 슬픔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 인생은 참으로 보람되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4) 우리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90편 17절을 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어제 화요일 새벽 기도회 때 사무엘하9장1절 말씀 중심으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두 발이 다 절뚝인 므비보셋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총”(3절)에 대해서 묵상했었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였던 다윗, 그는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에게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7절)고 말씀하면서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그의 할아버지인 “사울의 밭을 다” 도로 주었고(7절) 또 므비보셋으로 하여금 왕자 중 하나처럼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7, 10, 11, 13절). 그리고 사울의 사환인 시바에게 그와 더불어 그의 아들들 열 다섯 명, 그리고 종들이 십 명을 다 므비보셋을 섬기게 하였습니다(10절). 그 때 므비보셋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관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8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모든 영적 축복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에 그저 우리는 감사, 감사 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부르는 것입니다: (1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인터넷에서 찾은 한 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시냇물은 흘러 흘러 어디로 가나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는 아름다움을 과시 하다가 한잎 두잎 소리 없이 떨어질 때는 허무함뿐이구나 눈부신 아름다움을 뽐낼 때도 순간 뿐이고 우리의 인생도 젊음을 과시 하는 것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외롭고 쓸쓸한 낙엽이 되어지는 해와 같이 늦가을을 맞게 되니 허무함뿐이로다 삶이 힘들다고 아우성치던 때도 모두 다 지나가 버리고 지는 낙엽 바라보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가다리는 처량한 모습

속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구나 아름다운 단풍의 빛깔처럼 삶의 여운이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는구나 아 이 땅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나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단풍의 빛깔 되어 추억으로 물들어 우리의 가슴을 시리게 하는구나”(인터넷). 우리는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딱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워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인자로 만족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철저히 느끼면서 값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이 세우시는 승리장로교회 목양 실에서)

제 91편: “나의 피난처”

[시편 91편]

지난 주 TV 뉴스에서 노숙자(Homeless)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남가주 지역 한 도시에 노숙자들이 지낼 수 있도록 시가 예산을 세우고 도와주다가 여기저기서 더 많은 노숙자들이 몰려오므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어 결국은 그 한 지역을 철거하는 장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때 한 기자가 노숙자 한 두 여자들을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주로 그 기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니까 잘 모르겠다는 식의 대답 가운데 그리 걱정하는 모습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노숙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성경 출애굽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났습니다.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들, 그들은 광야에서 집이 없이 캠프를 치면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하였습니다. 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했던 것은 바로 “장막”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막이란 생활 중심지였습니다. 즉,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잠시 머물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쳐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은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장막(성막)내부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지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고, 성소에는 향로와 떡 상, 금 촛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장막을 중심 하여 이스라엘 12지파는 세 지파씩 나뉘어 동서남북에 캠프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장막에서는 레위 지파가 수종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이 하나님의 장막이 진행하면 함께 진행하였고, 어느 곳에 머물면 그들도 머물렀습니다(인터넷).

시편 기자는 시편84편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왜 이렇게 시편 기자는 주님의 궁전을 사모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장막이나 궁전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91편 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나의 피난처”란 제목 아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은혜를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성경 시편 91편 3절을 보십시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어디)로부터 건져주시는지 한 2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무”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무”란 새나 짐승을 잡는 데 쓰이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기만적 수단으로 해하는 것 인만큼 마음이 단순한 신자들이 거기에 걸리기가 쉽습니다(박윤선). 그러면 어떻게 사단은 마음이 단순한 신자들을 자기의 올무에 빠지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거짓입니다. 즉, 거짓의 아버지인 사단은 거짓말을 하여 마음이 단순한 신자들로 하여금 미혹하여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믿는 우리들을 미혹하여 올무에 빠지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바로 우리 신자들의 “파멸”입니다(6절하).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진실한(4절) 하나님은 이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또한 계속 건져주고 계십니다.

(2)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극한 염병”에서 건져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병’이란 것은, 전염되며 퍼지는 것을 그 특색으로 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참조하며 훼방하며 돌아다니는 독한 혀를 비유하기도” 합니다(박윤선). 이 “염병”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도 나옵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과 ….” 그리고 5절을 보면 “너는 밤에 놀렘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극한 염병”이란 우선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병(disease)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는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을 거짓말로 미혹하여 우리를 파멸시키고자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참조하며 훼방하는 그의 독한 혀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박윤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무와 극한 염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멸과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올무에서 그리고 극한 염병에서 건져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존 자”이시요 또한

“전능하신 자”(1절)이심을 알고 있습니다(14절). 그리고 그는 이 지존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울무”와 극한 열병”에서 건지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그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에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환난에서 그와 함께하여 저를 건져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둘째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 시편 91편 11절을 보십시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신앙인들은(9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처가 안전하도록 하여 주십니다(9, 10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피난처로 삼았던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를 안전하도록 하여주셨습니까? 10-11절을 보십시오: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간구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되 화와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화와 재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 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7절과 열왕기하 6장 16절 등을 보면 보호하는 천사가 한 사람에게 하나씩 있다는 사상을 가르치지 않고, 한 사람을 위하여 많은 천사들의 활동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비록 성도를 해하려는 악의 세력 많으나, 그를 보호하는 세력은 그보다 큼니다(박윤선). 이렇게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은 천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12절) 사자와 독사와 같은 험악한 동물들에게서도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13절). 여기서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뱀”같은 험악한 동물들은 “무지하고 악독한 원수들을 비유합니다(박윤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악독한 원수들에게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지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2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2절).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실함”이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십니다(4절). 성경 시편18편 2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기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마지막 셋째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성경 시편 91편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무엇으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장수함”으로입니다. 성경에 장수함에 대한 약속의 말씀 중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은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장수의 축복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책임은 여기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시편91편에서 알려주는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인 장수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며 (시91:14) 그를 의뢰하며(2절)

그에게 피하여(2, 9절) 간구하는 것입니다(15절). 그리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므로(15절)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장수함보다 영원한 천성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더 사모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만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날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의뢰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면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구원과 보호와 만족케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내 영혼이 주님의 영원한 장막을 사모하면서)

제 92편: 심히 깊으신 주님의 생각

[시편 92편]

오늘 제 아내가 저희 집 막둥이 예은이 생일을 유치원에서 축하한다고 하여 한인타운 떡집에서 무지개 떡을 주문하러 갔다고 합니다. 예은이의 말로는 이번 주 금요일 유치원에서 자기 생일 축하 때 무지개 떡과 함께 자기는 한복을 입고 간다고 아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하. 그래서 오늘 떡을 주문한 후 아내가 방과 후 학교인 교회로 아이들을 데리러 갔는데 예은이가 자기 친구에게 엄마를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애가 내 엄마야”. ㅎㅎㅎ 이 말을 듣고 한 쪽으로 웃었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래도 자기 엄마라고 자기 유치원 친구에게 소개하는 예은이를 생각할 때 엄마를 친구처럼 여기는 것인지... ㅎㅎㅎ 예은이와 예리 그리고 딜런을 생각할 때 참으로 이 아빠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이들을 생각할 때 어제 밤 잠들기 전에 읽었던 성경 욥기 1장을 말씀이 생각납니다. 특히 5절 말씀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욥이란 인물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1절)였는데 그가 그의 자녀들인 아들 일곱과 딸 셋(2절)을 위하여 혹시나 그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여 아들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인 후 그 다음 날 아침 에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5절).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로서 욥은 자녀들의 마음까지도 신경을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이지만 영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다면 욥은 그의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욕?)했을까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욕기서를 계속 읽다 보니 “curse”(저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욕기2장9절을 보면 사단이 욕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였을 때(2:7) 고생하는 남편을 보고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curse)하고 죽으라”(9절)고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순전하고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미워하는 욕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또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경계하며 또한 마음과 생각에서의 영적 싸움을 부지런히 해야 할 것을 도전 받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롬12:2).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을 생각하므로 우리 생각도 주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92편 5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여기서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란 말씀 중심으로 “심히 깊으신 주님의 생각”이란 제목 아래 그의 깊으신 생각을 한 두 가지로 묵상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알고 그 주님의 생각을 믿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생각을 생각하여 우리 마음을 지키고 계속 변화하는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악인을 향하신 심히 깊으신 주님의 생각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악인을 향하신 심히 깊으신 주님의 생각은 한 마디로 멸망입니다. 비록 악인은 풀 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합니다(7절). 이 말씀은 악인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알려 주고 있습니다:

(1) 우리가 현실 삶 속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악인은 흥왕하데 신속하게 흥왕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악인을 풀과 비교하면서 "생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고도 들이지 않고 간교함 속에서 신속하게 성공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악인들은 그 간교한 수단에 의하여 수고도 들이지 않고 얼른 성공하는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실상 그것이 축복을 받는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박윤선).

(2) 악인의 형통은 마치 들풀의 무성함과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악인들이 그들의 흥왕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풀과 같은 악인의 형통, 그것이 바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악인의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3) 악인의 신속한 형통은 결국 영원히 멸망당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돼지를 도살장에 끌고 가기 위해 잘 먹여서 살을 찌우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의 목적은 영원한 멸망을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D. L. 무디 목사님은 이 구절에 나오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악인은 필경 풀처럼 연료가 되기 위하여 생장한다."

언젠가 시편 73편을 묵상하면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형통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은

걸로 보기엔 악인이 “풀 같이 성장하고” 또한 “다 흥왕할지라도”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잠20:21). 우리는 악인의 신속한 성공이나 흥왕을 부러워하며 질시할 필요가 없습니다(시73:3).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악인이 성공을 신속히 하는 것처럼 그들의 멸망 또한 신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73편 18-20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악인의 멸망 또한 성공처럼 아니 성공보다 더 신속하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졸지에 황폐되고 꿈 깨듯이 순식간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2편 9절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흠어 지리이다.” 악인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로서 패망할 것이며 다 흠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이 성공하고 흥왕 하는 것을 보고 질시하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악인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면서 일시 동안은 이기는 것 같아도 우리는 장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사 멸망하실 것(11절, 박윤선)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주님의 깊은 생각에 대해 이러한 아주 지극히 작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잠시나마 성장하고 흥왕하게 하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뜻)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의 잠시 형통이나 성장 및 흥왕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잠언13장2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 말씀에 비취 볼 때에 악인의 성장이나 흥왕(예: 악인의 재물)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신 뜻입니다. 이 주님의 깊은 신 뜻을 우리가 알 때 악인의 성장이나 흥왕이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질시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악인의 흥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악인의 흥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시험은 악인의 흥왕(형통)을 보고 의인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신 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마지막 둘째로, 의인을 향하신 심히 깊으신 주님의 생각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악인은 흥왕 하는데(시92:7) 의인은 그의 원수들인 행악 자들로 인하여(11절) 박해를 받아 고난을 당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러한 억울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종종 의아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깊으신 생각(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깊으신 생각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시편 92편에서 한 3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 주님의 깊으신 생각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그의 크신 행사, 곧 큰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한 실천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2편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크신 행사는 바로 ‘구원’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중에서 악인을 멸하시므로 우리 의인을 건져(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깊으신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므로 그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구원자이심,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2) 주님의 깊으신 생각은 그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을 찬양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2편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구원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기쁨)(시51:12)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감사하므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시편 92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줄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3) 주님의 깊으신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정에서 흥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2편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 이여 우리 하나님의 공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실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박윤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공정인 천국에서 영원히 흥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비록 이 땅에서 잠시 흥왕하지만 의인은 천국에서 영원히 흥왕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에서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할 것입니다(12절). 즉,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의 공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들어내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열매 없음과 달리 의인은 “늪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입니다(14절). 즉, 의인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며 생명력이 풍성할 것입니다(박윤선).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깊은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2편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 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여기서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라는 말씀은 유다의 풍속에 귀한 손님에게는 기름을 부으므로 귀하게 대접한 것을 생각할 때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귀빈처럼 접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박윤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궁정인 천국에 영접하셔서 귀빈처럼 대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깊은 생각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항상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 찌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139:17-18).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수 없으신 깊은 생각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의 궁정에서 영원히 흥왕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 한 후 수요일 밤에,

제임스 목사 나눔(주님의 심히 깊은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가길 기원하면서)

시편 92편: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찬양하십시다.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는 종이이다” (시편 92편 1절).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그의 책 “The Church Awakening”에서 예배에 헌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에 헌신(commitment)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쟁(war)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의 본질(essence)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배의 표현(express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찬송가를 불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복음성가를 불러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예배 때 드럼을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용하지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의 다른 점들이 결국에는 의견 충돌이 되어 교회 안에서 서로 전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각자가 선호(preference)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뿐이다 고 스윈돌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본질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헌신을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에 계속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행2:42). 저는 개인적으로 스윈돌 목사님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특히 저는 그 분이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표현을 구분 것이 좀 새롭게 다가오면서 예배의 표현은 예배의 본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나와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자들로(요4:23) 세움 받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므로 우리

자신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칼빈).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 자들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92편에 나오는 “안식일의 찬송 시”를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함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함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주님께서 그의 행하신 일로 시편 기자를 기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4절).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습니다(4절).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생각할 때 기쁨과 감사하므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5절). 특히 그는 하나님의 매우 깊은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5절). 결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깨달을 수 없는 (6절) 주님의 깊은 생각을 시편 기자는 깨닫게 되었기에 그는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깨달은 주님의 매우 깊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는 악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신다는 것(9-11절)과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번성케 하신다는 것(12-14절)입니다. 즉, 주님의 매우 깊은 생각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원수들”(9절)인 “악인들”(7절)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악인들은 간교한 수단에 의하여 수고도 들이지 않고 열른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 그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참된 성공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들의 형통은 마치 들풀의 무성함과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그들이 흥왕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고 있는 악인의 형통은 결국 영원히 멸망당할 것입니다(7절). 이 세상에서의 악인들의 형통은 영원한 멸망을 위한 것뿐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주님의 원수들은 반드시 패망할 것입니다(9절). 하나님께서는 행악 자들을 보응하실 것입니다(11절). 그러나 의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하심을 얻은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장케 하시며 번성케 하시사 결실케 하실 것입니다(12-13절). 결실케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케 하실 것입니다(1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시고 우리들의 바위가 되시고 또한 그 분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케 하실 것입니다(15절).

매우 깊으신 주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조금씩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께서 제 삶 속에 행하신 큰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으로)

제 92편: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시편 92편 7절).**

한 장로님이 천국 가시기 몇 주 전 저에게 던지신 질문은 '왜 악인은 형통하는데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가?'였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길 좋아하시는 이 장로님의 질문, 어쩌면 80이 넘는 평생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셨나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그럴지 않으셨더라도 확실한 사실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가까이 와서는 이 문제로 인하여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은혜의 말씀을 여러 번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시편 92편 7절은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알려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3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1) 우리가 현실 삶 속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악인은 흥왕하데 신속하게 흥왕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악인을 풀과 비교하면서 "생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고도 들이지 않고 간교함 속에서 신속하게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 뒤뜰 잔디가 죽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내와 제가 약도 뿌려보고 물도 뿌려보고 씨를 사서 뿌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빨리 자라나서 푸른 녹색의 잔디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이 악인의 형통은 풀처럼 신속한 것을 시편기자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악인의 형통은 마치 들풀의 무성함과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악인들이 그들의 흥왕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풀과 같은 악인의 형통, 그것이 바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악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3) 악인의 신속한 형통은 결국 영원히 멸망당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돼지를 도살장에 끌고 가기 위해 잘 먹여서 살을 찌우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의 목적은 영원한 멸망을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D. L. 무디 목사님은 이 구절에 나오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악인은 필경 풀처럼 연료가 되기 위하여 성장한다."

우리는 오늘도 삶 속에서 악인의 형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비교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될 위험이 충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어떻게 보는지 오늘 시편 92편 7절 말씀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11절에서 "내 원수의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 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보응하심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들의 결말은 영원한 멸망임을 알고 믿을 때에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에 대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74편 말씀으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92편 7절 말씀으로 더욱더 확언 시켜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목사 나눔

(토요새벽기도회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 한 후)

제 93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시편 93편]

우리 하나님은 자연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계십니다(시 8:1, 3,6). 즉,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며,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3, 6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시고 운영하셔서 역사를 이어가시는(121:1-6), 즉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103:19). 그러면 성도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 경우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통치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주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하고 동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합니까? 성경 시편 23편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며 순종하면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길은 평생 계속되어야 하고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103편22절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와 의지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인터넷).

오늘 성경 말씀 시편 93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란 제목 아래 하나님의 통치의 3 면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첫 번째 면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성경 시편 93편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 여기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입으신 “권위”란 우주의 통치자로서의 영광과 위엄을 말합니다(박윤선). 우리의 책임은 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질문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권위적인 말씀을 듣고 복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어떻게 들어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들어내기 위해선 하나님의 권위적인 말씀에 복종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정에서 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들어내기 위해선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파만하고 순종하려는 노력이 없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남용하는 권위주의적 목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권위적인 말씀 아래 복종하지 않고 말로만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제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권위주의적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이 세상에서 들어내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중 특히 예수님의 두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두 번째 면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 시편 93편 1절 하반절과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높이 계신 여호와와 능력은 많은 물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여기서 “능력”이란 “그 창조하신 세상을 유지하시기 위한 자연적, 또는 초자연적 권능”입니다(박윤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는 무한한 권능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연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창1:1, 히11:3), 그리고 그 창조하신 천지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골1:17)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영적 세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의 거룩한 천사들을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단4:35) 사탄과 악한 영까지도 다스리십니다(욘1:12). 그래서 시편 기자는 “높이 계신 여호와와 능력은 많은 물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시93:4).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성경 고린도후서12장9절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고전1:27).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 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시93:1).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통치하시니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 또한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1, 2절).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치하시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세 번째 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성경 시편 93편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되 그의 권위와 그의 능력으로 통치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므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그의 권위는 거룩한 권위입니다. 그의 능력 또한 거룩한 능력입니다. 결국 성삼위 일체 하나님은 그의 권위와 능력을 통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들어내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 대답을 성경 베드로전서1장16절 말씀에서 찾아봅시다: “거룩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거룩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서 살면서 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한 가운데 성령님의 성화 역사를 더욱더 사모하며 우리의 책임인 진리의 말씀 순종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미국 복음성가 중 “Ruler over my soul”(내 영혼을 다스리소서)란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제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다스려 주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제 가정을 다스려 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승리장로교회를 통치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거룩하심이 들어나길 기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피조물,

제임스 목사 나눔(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제 94편: 보수하시는 하나님

[시편 94편]

지난 주 토요일 에스라 9장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한 후 “하나님, 기가 막히시죠?”란 제목을 걸고 그 성경 말씀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기가 막혀 앉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에스라를 생각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목사로서 창피할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나 별 차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더 으뜸이 되었던 것처럼 저 또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앞서가는 자신의 죄를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데,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하는 생각 속에서 오늘 본문 시편94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94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며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며 빛을 비취소서.” 여기서 “보수”란 말씀은 한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형벌” 또는 의인에게는 “징벌”. 오늘 본문 말씀 시편94편 중심으로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아래 보수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리고 의인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보수하시는지 생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보수하시는 하나님은 악인을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94편 2절을 보십시오: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우리 보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도록 끝까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3절). 그분께서는 분명히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보수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상당한 형벌을 악인에게 내리시는 것입니까?

(1) 그 첫째 이유는 악인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2절).

교만하기에 악인은 지껄이며 오만한 말을 하며 죄악을 행하면서 다 자긍합니다(4절). 즉, 교만한 악인은 악당을 넘치게 토하면서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을 절제 없이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같은 것까지 기탄없이 하기 때문에(박윤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만한 악인에게 상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상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그 둘째 이유는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며 불쌍한 자들을 살해하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오늘 본문 시편 94편 5-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곤고케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악인들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합니다(21절).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는 “과부”, “나그네” 그리고 “고아”를 죽이며 살해하는 잔인함을

보입니다(6절).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행을 행하면서 악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업신여깁니다(박윤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악한 죄를 범하고 있으시는 것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께서는 신경도 안 쓰신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고 계십니다(1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 울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8-9절). 우준한 자들, 무지한 자들인 악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귀를 지으신 자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보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악인들을 끊으실 것입니다(23절).

둘째로, 우리 보수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94편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의 공의대로 일이 바른 길로 돌아서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악인들의 박해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악인들의 박해는 징계와 교훈의 의의를 가졌습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악인의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박해를 받는 성도는 행복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악인들의 핍박을 하나님의 징계와 교훈을 받는 기회로 삼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공의로 우신 보수하시는 하나님은 정직하셔서 우리를 징벌하시데 지식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의 박해를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하면서 그 징벌 가운데서 교훈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12절).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한 3가지 축복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악인의 박해를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하면서 그 징벌 가운데서 교훈을 받는 자에게는 주님의 법도를 배우는 축복이 있습니다(12절).

우리는 악인의 박해로 인한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법도를 배우기에 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악인의 박해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으로 통하여 우리가 그릇 행하던 대서 돌이켜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바른 길을 가게 될 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2) 악인의 박해를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하면서 그 징벌 가운데서 교훈을 받는 자에게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4편 13절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이 구절의 뜻은 징계의 환난을 받는 자는, 그 환난이 떠나는(그 박해자가 망하게 되는) 때까지 평안한 마음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그 환난을 받는 동안 심령에 화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박윤선). 어떻게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환난 중에 주님의 법도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법도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다스리고 지배하시사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3) 악인의 박해를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하면서 그 징벌 가운데서 교훈을
받는 자가 환난 중에서 누리는 축복은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4편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 거의 미끄러질 뻔 할
때, 그 극적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예로 우리는 시편73편에서 이미 아삽의 경험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의인의 고난,
그리고 악인의 형통 ...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질시하여 거의 미끄러질 뻔
하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붙들어 주셨습니다(73:23). 그러므로 아삽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므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73:25, 28).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94:19).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저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사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해주십니다. 그
영혼에 평안과 즐거움을 누렸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22절).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징벌로 받아들이므로 말미암아 그 징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축복을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 주중에 한 두 분 목사님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 목사님의 공통점은 지금 사역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이란 시험에 든 성도님들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한 분 목사님은 저에게 이러한 사실을 나누셨습니다: 지금 시험에 든 성도님이 한 두 가정에 전화를 해서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나아가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시험에 든 성도님의 전화를 받은 한 자매님이 ‘당신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그 경고를 한 여성도님은 아버지가 목회자로서 자기 아버지가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을 겪는 것도 보았지만 주님의 종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또한 보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 목사님을 통하여 듣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흥미롭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은 주님께서서는 그의 종을 사랑하시고 그의 교회를 사랑하시사 보호하시고 지켜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믿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마음이 힘들어서 전화가 온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저 바라는 마음은 보수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시험 든 지체들로 하여금 징벌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돌아와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길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든 성도님들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목사님들도 그러한 고통 속에서 보수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길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인에게 상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악인의 핍박을 받은 의인에게는 그 핍박 또는 징벌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법도를 배우는 축복이요, 환난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신 축복이요 또한 주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통한 축복을 누리길 기원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보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기억하면서)

제95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

[시편 95편]

여러분은 “마음의 안식”을 어떻게 얻고 계십니까? 지난 주 수요기도회 때 묵상한 시편 94편 말씀 중 19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저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사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영혼을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 속에서) 시편 기자처럼 ‘주님의 법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법도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9-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는 “안식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심 같이 우리도 우리 일을 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써야 합니다(11절).

오늘 성경 시편 95편 11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란 제목 아래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하는 일 두 가지는 무엇인지 교훈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시편 95편 1-2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다윗은 다 같이 함께 (“오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즐거이 부르자”(2x)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다 함께 나아가 찬양을 즐거이 드리자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1)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1절).

즉, 우리가 하나님께 다 함께 나아가 마땅히 감사하므로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는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란 복음성가가 생각났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줄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줄으신 나의 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건지심)을 받으면서 광야의 생활을 하는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므로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갈증까지도 해결해 주시므로 건져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자를 생각하지도 못하거나 그를 즐거워할 줄 모르는 이유는, 아직도 자기의 처지가 비참한 줄 모르기 때문이다.”

(2)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 함께 나아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는 “크신” 하나님”(2x)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5편 3절을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우리가 종종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크신 주께” 기억하시죠? 그 곡 가사를 보면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와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문제가 커 보일 때 고통과 상처가 크게 느껴질 때 크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고통과 역경으로 인하여 내가 작아지므로 깨달게 될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 함께 나아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5편 4-5절을 보십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복음성가 “크신 주께”랑 같이 연이어서 부르는 복음성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기억하시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땅의
깊은 곳과 높은 곳, 곧, 인간의 손이 관계할 수 없는 곳들도 창조하시고 관할하시며,
천지나 바다도 그리하셨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박윤선).

우리는 다 함께 모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려야 하며 또한
주님을 향하여 찬양을 즐기며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히, 즐기며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경 시편 95편 6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크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7절)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입니다(7절 상).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7절 하). 우리는 결코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아니 됩니다(8절).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열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아니 됩니다(9절).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여 옥토의
밭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굽혀”
“무릎을 꿇고”(6절) 하나님을 경배하자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치도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저 입술로만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난 것입니다(사29:13).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 열조들은 광야에서 사십 년을 하나님을 근심케 하였습니다(시95:10). 그들은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요 마음이 미혹되어(10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계명을 순종합니다. 결코 진정한 경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배자는 부지런히 묵은 땅을 기경하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를 알기에 마음이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경배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안식을 누리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안식처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영원한 안식을 부분적으로나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경배해야 하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제임스 목사 나눔(숨질 때 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길 기원하면서)

제 96편: 진정한 경배자

[시편 96편]

저희 교회 3대 목표 중 첫 번째 목표는 “진정한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승리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예배-증인들”로 세움을 받는 것이 우리 교회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적 진술은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므로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앞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함을 전파한다”입니다(고전 14:25). 이 목적 진술은 고린도전서 14장 25절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앞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저는 오늘 본문 시편 96편 말씀 중심으로 “진정한 경배자”란 제목 아래 과연 진정한 경배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 4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경배자로 더욱더 세움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경배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경 시편 96편 7절을 보십시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성경 시편 90편을 보면 어떻게 허무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한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란 (1)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2)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것, (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리고 (4)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주의 행사)에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선 아니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6편 8절 상반절에서도 시편기자는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로 명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1)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므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6편 1절, 2절, 4절을 보십시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1절),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2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여”(4절).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11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 구원” 때문입니다(2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새 노래로 날마다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2) 우리는 하나님의 행적을 선포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6편 3절을 보십시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 그의 책 “은혜의 각성”에서 ‘교회 안에

이단 중 이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행함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의 행사에 초점을 맞추면 주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행적을 선포하면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진정한 경배자는 하나님께 받칩니다.

성경 시편 96편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찌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보로 갑니다’라는 말을 듣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는 보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받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경배 자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받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입술로는 주님을 경배하는데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성경 이사야 1장 11-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받쳐지지 않으면서 드러지는 무수한 예물은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예물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예물)을 받쳐도 주님의 전을 떠나 세상에 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즉, 마음에 헌신이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12:1).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2절)하여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경배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진정한 경배자는 거룩되이 삽니다.

성경 시편 96편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에서 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받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와 삶을 구분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 예배와 주중의 삶과 구분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는 주일 하루, 한 시간만이 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후 우리의 전체 삶 속에 드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러져야 할 그 삶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경배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그리고 그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들어낼 수 있습니다(6절). 또한 우리 경배자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어두운 세상에 나타낼 때 하나님 외에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임을 들어낼 수 있습니다(5절).

마지막 넷째로, 진정한 경배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성경 시편 96편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진정한 경배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경외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신보다 경외해야 합니다(4절).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요(4절), 창조주 하나님(5절),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으신 하나님(6절), 그는 모든 세계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10절)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공평히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10절). 그러므로 그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13절)을 경배하는 자는 그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경히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 찌어다 ...”(전5:1).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1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조급하게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2절). 하나님께 서원하였으면 더디 하지 말고 갓아야 합니다(4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경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온 맘과 정성, 예물을 바치며, 거룩한 삶을 살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경배자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진정한 경배자로 세움 받기를 기원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제 97편: “여호와께서 통치 하시나니”

[시편 97편]

지난 주 수요일 기도회 때 묵상한 시편 96편 말씀 중 10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찌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찌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며 또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97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통치 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통치 하시나니”란 제목 아래 여호와께서 통치 하시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3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통치 하시나니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97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통치 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찌어다.” 여호와의 통치는, 곧 여호와께서 이 땅에 찾아 오셔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박윤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한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할 이유는 바로 주님의 판단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주님의 판단은 의로운 판단이요 공평은 판단입니다(2절). 그 판단으로 주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벌하시사 그의 의로움과 공의를 들어내십니다. 그 결과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궁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합니다(7절). 그리고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는 악인에게는 심판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기에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 죄악 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롭고 공의로운 판단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하사 선택한 백성들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통치 하시나니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97편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시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와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7절). 만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서 악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악을 특히 우리 성도는 미워해야 합니까? 우리는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궁하는” 악을 범해서 아니 됩니다(7절). 이러한 죄악을 우리는 특히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는 주님의 의롭고 공평한 판단으로 판단하여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그러한 경배자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들어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11절). 우리는 정직하므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빛을 들어낼 수 있습니다(11절).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악을 미워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전”과 “구원”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신앙인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기에 그는 주님의 진실하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96:13). 그러한 판단력 속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또한 선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정직하며 진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참된 경배자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 된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셋째로, 여호와께서 통치 하시나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97편 12절을 보십시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쁨에 감사할찌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통치 하시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으며 또한 주님의 판단으로 판단하여 악을 미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닦아가므로 감사하였고 또한 함께 감사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감사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사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화의 역사를 이루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을 보다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107:1).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의 선하심을 맛보며 그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 하시나니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통치 하시나니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악을 미워하며 선을 즐거워하는 자로 세움을 받는 과정에서)

제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시편 98편]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찬양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경험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제 한 네 분 집사님들과 저녁 식사 후 후식을 먹으며 커피숍에 갔었는데 한 분 집사님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쭙더니 그 분은 노래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커피숍에서 찬송가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 진짜 부르실지 생각했는데 ... ㅎㅎ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읽은 말씀 중 시편 68편 35절 하반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힘과 능을 주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케 하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힘과 능을 주시는 은혜도 경험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시편 98편 1-9절 말씀 중심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제목 아래 왜 우리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해야 하는지, 또한 누가 그리고 어떻게 찬송해 하는지를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8편 1절을

보십시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기서 “기이한 일”이란 최종적으로 “구원”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인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박윤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리고 신적 방편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박윤선). 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박윤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2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땅 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셨습니다(3절).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때문입니다. 그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누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해야 합니까?

“온 땅”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8편 4절을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찌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찌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의

성실함 가운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 가운데 선택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땅 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실현되었습니다(3절)(박윤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민족들 외에도 모든 만물까지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거기 총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찌어다 여호와 앞에 서 큰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찌어다”(7-8절). “바다와 거기 총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 그리고 “큰 물”과 “산악”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운동의 결과가 하나님께 선택 받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새로워질 것이기에 만물도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처럼 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되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피조물도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즐거이 찬양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어떻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해야 합니까?

(1) 우리는 즐거이 여호와께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8편 4절, 6절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찌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찌어다”(4절),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찌어다”(6절), “여호와 앞에서 큰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찌어다”(8절). 우리가 모든 만물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할 때 우리는 즐거이 찬송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속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으므로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즐거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2) 우리는 악기를 동원해서 여호와께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8편 5-6절을 보십시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찌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찌어다.” 수금과 나팔과 호각,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즐거이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금년 초에 고 장을수 할머니의 장례식과 고 김창혁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하여 그 분들이 살아생전에 좋아하시고 즐겨 부르셨던 찬송가 40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을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그 분들은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셨던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 감격하여 눈물도 흘리시는 모습도 본 기억이 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시작하셔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시편23편을 외우시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이 땅에서의 그분들의 마지막 모습은 참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분들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 한 후,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제 99편: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

[시편 99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126:5-6).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생하며 역경을 이겨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므로 구원의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망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신앙인들은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낙망하고 절망할 때에라도 우리의 소망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어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정을, 직장과 사업을, 교회를, 사회를 등등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도 않으시고 또한 포기하실 수도 없으시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서는 꿈을 꿀 수 있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하며 또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우리 승리장로교회를 생각하며 이 시편126편 말씀을 받았습니다. 즉, 저는 승리장로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어떠한 낙망과 절망의 상태까지 갈지라도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된 꿈을 가진 지도자 (기도온의 300명 군사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파송하는 꿈을 계속 꾸고 싶습니다. 찬송가 542장 1절과 후렴이 생각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후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꿈을 꾸는 자로서 저는 오늘 성경 시편 99편 1-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 시편 93편과 97편에서도 이미 묵상했었지만 오늘 본문 시편99편에서도 승리장로교회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란 제목 아래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한 3가지로 교훈을 받은 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에는 떨림과 찬송 및 경배가 있습니다.

성경 시편 99편 1절, 3절, 5절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찌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찌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찌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땅은 요동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3x)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승리장로교회를 개척하시면서 (1) 주님을 모시는 교회, (2) 주님을 닮는 교회 그리고 (3) 주님을 높이는(자랑하는) 교회라는 상대 목표를 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높이는(자랑하는) 교회”란 오늘 본문에 비취 생각해 볼 때 주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찬송하며 경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조물주이신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찬송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피조물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롬1:25).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경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함을 거부하는 이 죄악 된 세상은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거부하는 종교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집단의 지도자를 신격화하여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며 숭배하는 죄악이 교회 안에서도 행해져서는 아니 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그에 마땅히 찬송과 경배를 올려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99편 4절을 보십시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의가 바로 힘이라는 귀한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박윤선). 이 원리는 교회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의 힘(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곧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이 시대의 교회가 능력이 없고 무능력하게 세상에

비취지고 있는 이유는 공의를 사랑하지 않고 공평을 견고히 세우지 못하고 공과 의를 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어그러진 세상에 살면서 공과 의를 행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힘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 상실 원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지 않고 그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미가 7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요구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교회가 되어 합시다. 특히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며 행하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교회를 통하여 공평을 견고히 세워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는 기도합니다.

성경 시편 99편 6절을 보십시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구약의 교회를 대표할 만한 모범적 인물 세 사람인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소개하면서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 사역의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박윤선). 그 원칙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모세, 아론, 사무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던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 이었습니다(출17:11; 민16:43; 삼상7:8, 9; 9:12)(박윤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 7-8절에서 시편 기자는 기도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9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공정한 판단과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9편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며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징계하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기에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역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을 통하여 이뤄집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되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우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기도자로 세우시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에는 떨림과 찬송 및 경배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는 기도합니다. 이러한
승리장로교회가 되길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승리장로교회가 되길 기원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예배와 사랑과 기도가 있는 교회를 꿈꾸면서)

제 100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시편 100편]

지난 주일 영어 예배 때 사도행전 15장 22-35절 말씀 중심으로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남 속에서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자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런 후 어제 화요일 새벽기도회 끝난 후 교회 전도사님 부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또한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제가 그 분들을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 전도사님의 사모님께서 “Coram Deo”(하나님 앞에서)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눌 때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입니까? 코람데오(Coram Deo)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사상으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인터넷).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시편100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한 3가지로 본문에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므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시편 100편 4절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찌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주님의 전에 들어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 이유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5절). 우리가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의 덕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박윤선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일시 동안만 사랑하시다가 중도에 변역하심이 없으시다. 성도의 생활에도 여러 가지 굴곡이 있다. 그 진로가 흑시는 곤고하고 흑시는 평이하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합동하여 그에게 유익을 주나니 모두가 주님의 인자하신 권고이다. 그가 성실히 우리를 돌보심이 대대에 미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므로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주님의 전에 올라 올 때 감사하므로 올라오십니까? 웬지 사탄은 주일 교회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우리들을 유혹하여 예배당을 밟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종종 부부 싸움으로 인하여 예배당도 밟지 못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주일 예배당에 감사하므로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하여 복잡한 마음으로 올라올 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주님의 전에 올라 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므로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경배 드리십시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시편 100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찌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맞이한 이 시대는(암8:11) 귀가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마치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말씀)을 잊어버리므로 말미암아 양 떼들도 길 잃은 양들처럼 영적으로 굶주려 영적 영양실조에서 사탄의 유혹에 이리저리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호6:3).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16:15)라고 질문하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다”(16절)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 찌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또한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심을 알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또한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써(3절) 마땅히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므로 주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시편 100편 1-2절을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 찌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 찌어다.”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까? 한 3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2)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에(습3:17)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3)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꿈속에서 고 김창혁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나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옆에는 나무 가지가 뿌러지는 물로 인하여 하나씩 하나 씩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후 아버님 중심으로 친척 식구들이 모여서 찬양을 한 네 곡하려고 하는 가운데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를 함께 찬양하다가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이 찬송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목사님과 먼저 천국에 가신 성도님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주님 오라 하시면 영광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4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뵈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후렴)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저 숨질 때 되도록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므로, 또한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 101편: 이상적인 왕과 이상적인 그의 백성

[시편 101편]

이번 주 TV 뉴스에서 미국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사님 중 James Dobson 목사님이 나와 좀 유심이 보았습니다. 그 분이 뉴스에 나와서 미국 대통령 후보 중 민주당 후보인 오바마 상원의원에 대하여 이런 저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 중 오바마 의원이 “confused theology”(혼동된 신학)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Dobson 목사님이 또 다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존 메케인 의원을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Dobson 목사님은 두 후보 다 뽑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목사님이 성경적 관점으로 두 기독교인 대통령 후보를 볼 때에 두 후보다 성경에 비취 볼 때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2004년 3월13일 토요일 새벽기도회 후 고국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식을 접한 후 저는 사무엘상 15장 23절 "... 왕이 여호와와 말씀의 버릇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란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고국에 대통령의 탄핵을 성경적 관점으로 조금 보았습니다. '버림받은 사울 왕'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난과 위기 가운데 버림받았던 사울 왕이 있었지만 같은 시기에 세움을 받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도 있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위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버림을 받을 때에 온 백성에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질문을 던져 볼 때 그 유명한 사무엘상 15장22절 말씀이

생각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대통령)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원”한다는 말로 그 말씀묵상을 마쳤습니다. 그런 후 이렇게 4년이 지난 후 우리는 한국 고국에 장로님이 대통령이 된지 얼마도 되지 않아서 소고기 재협상이라는 구호아래 엄청난 촛불시위를 뉴스로 접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이번 일을 접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글을 읽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어느 한 그리스도인을 만났는데 그 분의 관점에서 이 대통령이 교만하지 않았었나 라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시는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각자 나름대로 고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현 대통령, 또한 11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대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들을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저는 오늘 성경 시편101편1-8절 말씀 중심으로 과연 이상적인 왕은 어떠한 자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상적인 백성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지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상적인 왕은 어떠한 왕인가’ 입니다. 이상적인 왕은 완전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길에 주의하여 행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1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상적인 왕의 완전한 마음, 흠이 없는 마음(blameless heart)(NIV) 또는 정직한 마음(integrity of my heart)(NASB)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첫째로, 이상적인 왕의 마음은 인자와 공의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성경 시편 101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왕으로 한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통치함에 있어서 인자와 공의는

필수적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동전의 앞과 뒤처럼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만일 인자나 또는 공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의가 없는 인자는 나약에 흐르고, 인자가 없는 공의는 횡포에 떨어집니다(박윤선). 시편 기자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둘째로, 이상적인 왕의 완전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경 시편 101편 3절을 보십시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 이다.” 여기서 “비루한 것”이란 말은 “배교의 악”을 말합니다. 권세 잡은 자는 교만해지기 쉬우므로 진리에서 떠나 타락하는 일이 있습니다(박윤선). 그러나 다윗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배교의 악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는 배교 자체를 멀리하고 멀리하였습니다. 그는 사랑할 것은 사랑하고 미워할 것은 미워했습니다. 즉, 그는 인자와 공의를 사랑하고 배교의 악은 미워하였습니다.

셋째로, 이상적인 왕의 완전한 마음은 사특한 마음을 멀리합니다.

성경 시편 101편 4절을 보십시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사특한 마음”이란 간사한 마음, 안과 밖이 다른 생활을 말합니다(박윤선). 즉, 사특한 마음이란 위선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선, 즉 사특한 마음을 멀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왕은 간신을 식별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박윤선). 이상적인 왕은 간사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결코 안과 밖이 다른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위선을 경멸하여 멀리하는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처럼 이상적인 왕을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이상적인 대통령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적인 대통령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공의만 행한다고 하면 결국 횡포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상적인 대통령은 백성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공의를 행합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나약에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균형을 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대통령은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있게 조화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잘 통치하십니다. 이상적인 대통령은 겸손히 백성들을 섬깁니다. 결코 권세 잡았다고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결코 이상적인 대통령은 교만한 가운데서 악행을 범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대통령은 위선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간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위정자들을 결코 가까이 곁에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상적인 왕의 이상적인 백성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입니다. 한 마디로 이상적인 백성 또한 완전한 길에 행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1편 6절 하반 절 말씀을 보십시오: “...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여기서 완전한 길에 행한다는 말씀은 한 5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상적인 백성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성경 시편 101편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이웃을 그욕이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 여기서 “그 이웃을 그욕이 허는 자”란 “은밀한 악선전으로 남을 해하는 자”입니다(박윤선). 정부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으면 이들은 충신들을 해하는 간신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이상적인 왕은 멸한다고 오늘 시편 기자 다윗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상적인 백성이란 남을 해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상적인 백성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성경 시편 101편 5절을 보십시오: “...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 지 아니하리로다.” 이상적인 왕은 결코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일 교만한 자가 나라 일에 관참하면, 안하무인의 심리를 가지고 민중을 학대하며, 고위에만 앉으려고 하다가 필경 반역을 도모할 것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이상적인 왕에게는 이상적인 백성, 즉 겸손한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이상적인 백성은 충성된 자들입니다.

성경 시편 101편 6절을 보십시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이상적인 왕은 백성들을 두루 살피면서 그 땅에 충성된 자를 자기의 일꾼으로 삼아 수종들 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상적인 왕에게는 간사한 사람들이 아닌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들이 이상적인 왕을 수종해야 합니다.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고전 4:2). 이러한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이상적인 대통령 곁에 있을 때 나라는 태평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로, 이상적인 백성은 진실 된 자들입니다.

성경 시편 101편 7절을 보십시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 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공의로운 왕 앞에 거짓말 하는 자가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실한 자만 설 수가 있습니다. 간사한 입술로 거짓을 내 뱉는 자들은 결코 이상적인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사특해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에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이상적인 백성은 죄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성경 시편 101편 8절을 보십시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와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상적인 왕은 공의롭기에 죄악을 행하는 자를 결코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십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왕에게는 이상적인 백성, 즉 죄악을 행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적인 대통령에게는 이상적인 백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적인 백성들은 완전한 길에 행합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며 충성되고 진실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이상적인 백성들은 죄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접한 또 다른 뉴스는 짐바웨이란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재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대방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손을 자르고 때리며 여인들을 강간하며 죽이기도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이상적인 대통령은 존재할까 의문이 듭니다. 다윗이 말한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완전한 길에 주의하는 대통령이 과연 이 세상에 있는지 ... 이러한 안타까운 이 세상의 현실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 왕부터 해서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모두 다 죄를 범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조차도 범죄하였으니까요. 완전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불완전한 왕들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자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그에게는 사특한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 천국

백성 시민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며, 충성되며, 진실하며 죄악을 멀리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왕이신 완전하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 천국 백성들, 예수님처럼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들로 더욱더 세워지길 기원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천국 백성답게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시편 101편: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시편 101편 2절).**

사람들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 식구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주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못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도 잘 못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도 잘 모르는 우리 마음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행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실은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듯 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까지도 받고 더 나아가서 존경까지도 받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칭찬을 받을 때에는 그들은 양심이 가책을 느끼며 또한 마음으로 괴로워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이켜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들 앞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고자 애씁니다. 그러한 삶이 지속되다 보니 결국에 가서 그들은 사람들 보기에 바른 신앙생활을 흉내 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마15:8). 과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입니까? 마음입니까 아니면 행실입니까?

오늘 성경 시편 101편 2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며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 제목을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그리 적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이 말씀 묵상을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마음”과 “완전한 길”이란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마음”과 “완전한 길”로 걷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죄 없으신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마음과 완전한 길을 걸으셨던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마음과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본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완전한 마음”과 “완전한 길”이란 ‘흠이 없는 마음’(a blameless heart)과 ‘흠이 없는 삶’(a blameless life)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온전히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는 흠이 없는 마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실보다 마음을 우선시에 해야 하는 이유는 마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행실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흠이 없는 마음을 추구하므로 그 흠이 없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흠이 없는 행실이 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흠이 없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첫째로, 흠이 없는 마음은 사악한 마음을 멀리합니다.

성경 시편 101편 4절을 보십시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사악한 마음”이란 간사한 마음, 안과 밖이 다른 생활을 말합니다(박윤선). 즉, 사악한 마음이란 위선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선, 즉 사악한 마음을 멀리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거짓을 행하는 자를 멀리하였습니다(7절). 그는 거짓말하는 자를 자기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였습니다(7절). 그러므로 다윗은 악한 일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악인을 멸하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에서 다 끊고자 했습니다(8절).

흠이 없는 완전한 마음을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악한 마음을 멀리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간사한 마음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선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과 밖이 다른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악한 마음과 거짓된 마음을 멀리하므로 위선과 악한 일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 된 마음으로 선한 일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마음을 추구하는 우리는 진실 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흠이 없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 시편 101편 5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 왕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왕으로서 눈이 높고 교만한 자를

용납하였다면 그 교만한 자가 나라 일에 관참하면, 안하무인의 심리를 가지고 민중을 학대하며, 고위에만 앉으려고 하다가 필경 반역을 도모할 것입니다(박윤선). 그러한 교만한 자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입니다. 즉, 교만한 자는 “은밀한 악선전으로 남을 해하는 자”입니다(박윤선). 이러한 교만한 간신들을 다윗 왕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멀하였습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마음을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한 마음을 결코 용납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교만한 자를 용납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코 우리 이웃을 은근히 헐뜯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들을 용납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을 해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마음을 추구하는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우리 이웃의 일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합니다(빌2:3-4).

셋째로, 흠이 없는 마음은 충성된 마음입니다.

성경 시편 101편 6절을 보십시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피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다윗 왕은 자기 백성들을 두루 살피면서 그 땅에 사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배교자들의 행위(the deeds of faithless men)를 미워하였습니다(3절). 그리고 그는 충성된 자들(the faithful)을 가까이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일꾼들로 삼아 수종들게 하였습니다(6절). 그 이유는 그에게는 간사한 사람들이나 교만한 사람들이 아닌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 왕은 완전한 길로 행하는 충성된 일꾼들로 하여금 자기를 수종들게 하였습니다(6절).

흠이 없는 완전한 마음을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교자의 행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성된 자의 행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 마음이 충성된 마음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입니다(고전4:2).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합니다(눅16:10). 그리할 때 우리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10절). 우리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계2:10).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걷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움 받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흠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인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102편: 빈궁한 자의 기도

[시편 102편]

지난 주일 1구역 성경공부 때 “영적 전쟁” 3과 “내면의 유혹에 직면할 때”를 공부하는 중 한 분이 마태복음5장3절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교훈을 나누셨습니다. 내면의 유혹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그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희 히스패닉 사역 목사님이신 고메즈 목사님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선교지에서 있을 수 있는 지도자의 내면의 유혹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내면의 유혹이란 교만과 욕심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 내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떠한 것들로 차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아니면 미움과 시기로? 겸손으로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고 있습니까? 등등... 저는 오늘 본문 시편102편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영적 궁핍함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좀 굵주려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채우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02편 17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빈궁한 자의 기도”란 제목 아래 한 2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빈궁한 자”란 누구이며 둘째로, “빈궁한 자”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빈궁한 자”란 누구입니까?

빈궁한 자란 “고난을 당한 성도”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우리가 이미 목상한 시편 41편을 보면 “빈약한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1절). 거기서 빈약한 자란 “빈핍한 자(출30:15), 병약자(창41:19), 마음이 약한 자(삼하13:4)”등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이 모든 의미를 종합하여 생각해 볼 때 “빈약한 자”란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모든 고난당한 자를 가리킵니다(칼빈).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고난당하는 자를 “빈약한 자”, 영어로는 “the helpless”(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 무력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poor”(가난한) 또는 “weak”(연약한)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가운데 낮아진 상황, 즉 낮은 지위 가운데 억압 받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14절에서 이러한 빈약한 자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마음이 약한 자들”(the timid)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the weak)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빈약한 자”가 오늘 본문 시편102편 17절에 나오는 “빈궁한 자”와 비슷합니다. 즉, 빈약한 자나 빈궁한 자는 다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고난당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빈궁한 자인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과연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에 이 빈궁한 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 시편은 누가 지었는지 알기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이 저자는 바벨론 포로 중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갈망하며 이 시편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즉, 시편 기자가 말하는 빈궁한 자의 고난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당하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 인하여 빈궁한 자는 몸도 쇠잔해 갔었고(3절) 또한 마음도 풀같이 쇠잔하여졌습니다(4절). 또한 빈궁한 자는 심히 고독한 처지에 있었습니다(6-9절). 6절에

나오는 “당아새”와 “부영이”는 고독을 상징합니다. 즉, 성도는 고독을 종종 당합니다(7절)(박윤선). 이러한 고독과 근심이 심한 틈을 타서 원수들은 빈궁한 자인 시편 기자는 덮쳤습니다. 이것은 설상가상 격의 고난입니다(박윤선). 이러한 고난 중에 있었던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빈궁한 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고난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다 쇠잔하여졌고 고독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설상가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하여 더욱더 고통을 당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러한 고통을 여러분이 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기도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빈궁한 자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빈궁한 자”의 기도는 어떠하였습니까?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첫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빈궁한 자의 기도 자세’입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 자세는 한 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소망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념”입니다.

(a) 이 신념의 원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에 근거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2편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 계신 줄을 알게 되는 때에는, 만사가 해결될 것을 확신함에 이릅니다(박윤선). 그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대로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신다(“주의 기념 명칭”)는 확신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b) 이 신념의 원인은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13절).

즉, 빈궁한 자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옴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을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정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을 안 이유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전에는 귀한 줄 모르던 “시온” 곧, 교회를 이제 애모하여 그곳의 돌과 티끌까지 동경함을 그가 본 까닭입니다(14절)(박윤선).

우리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에 또한 그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우리를 건져줄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시온” 즉 그의 교회를 건설하시고 그 영광중에 나타나시고 또한 나타나실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하감하시사(19절) “같은 자의 탄식을 들으시”므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20절).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21절).

(2) 둘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빈궁한 자의 기도 내용’입니다.

(a) 빈궁한 자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자기의 삶을 연장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2편 23-24절을 보십시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축케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년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시편 기자가 말한 비참한 고난의 상황이란 시편 기자는 육신이나 마음이나 여러모로 쇠잔한 가운데 있었기에 빈궁한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쇠약한 심신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일찍 죽음을 면케 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3-11절, 박윤선).

(b) 빈궁한 자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주님의 자손이 항상 있고 주님 앞에 굳게 서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2편 28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빈궁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쇠약한 심신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일찍 죽음을 면케 해 주시길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 된 교회도 영원히 존속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이 빈궁한 자인 시편 기자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겿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신 예수님(막14:33), 마음이 심히 고민하신 예수님 (34절),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릴 줄 알고 계셨던 예수님(27절), 그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36절). 그분께서는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서 그의 부르짖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였습니다(15:34).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으신 예수님,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천국 백성들로서 이 광야의 여정에 예수님처럼 빈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빈궁한 기도 자가 되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수요기도회 때 찬송가 360장을 부른 후)

제 103편: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103편]

저는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성경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책임은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03편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십시오”란 제목 아래 한 5가지 하나님의 은택을 묵상하면서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택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3편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 최소한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의 거룩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들춰지고 양심에

찢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죄책감에 너무 시달려 허덕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죄책감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끝없이 실망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존감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등 평가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균형 잃은 자아성찰 및 자아반성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는 것은 귀한 은혜지만, 그 깨달은 죄로 인하여 그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 10절과 12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를 따라 갚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노하시지만(8, 9절) 우리에게 급히 노하시어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8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롬2:4).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즉각 징벌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기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노하시되 그것을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시103:9).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11절) 풍부하시기 때문입니다(8절). 그러므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과를 따라 갚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과를 너무 가까이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과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철저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과를 동이 서에게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철저히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욱 깊이 깨달아야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성경 시편 86편 5절을 보면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성건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극심한 상황에 처해있어도, 죄악의 악순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용서하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즐겨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하게 행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103:14). 즉, 그는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14절). 오늘 본문 시편 103편 15-16절을 보십시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풀과 같은 인생, 들의 꽃과 같은 인생, 바람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인생, 참으로 연약한 인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체질을 아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13절). 그러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즐겨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를 너무나 즐겨 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택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3편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 요즘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생로병사”란 말처럼 사람은 태어나서 늙다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드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병이 들 때 하나님께 우리의 병을 치유해 달라고 간구하곤 합니다. 어느 누가 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시편 147편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시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후 우리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본적인 문제란 다름 아니 죄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예: 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병이 걸리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한 예로 성경 역대하 21장 18-19절에 나오는 여호람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여 회개치 아니하고 있을 때 그 회개치 아니 한 죄의 결과로 질병과 또한 그에 따른 상처와 고통 속에서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한 예는 마태복음9장1-8절에 나와 있는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사하여주신 후[(2절하) “...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6-7절) “...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성경 시편 107편 20절을 보십시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8장8절을 보면 우리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주시길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디”(8절). 우리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만 해결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육신의 병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택은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3편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 여기서 “파멸”(pit)이란 단어를 보면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바로 요나입니다. 그 이유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인 ‘일어나 가라 그리고 외치라’는 말씀(욘1:2)에 불순종하므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되 바다 깊은 곳, 즉 ‘구덩이’(pit)(2:6)까지 내려갔습니다. 옴바로 내려갔고(1:3), 배에 내려갔고(3절), 배 밑층으로 내려갔으며(5절) 더 나아가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2:6). 요나는 불순종하므로 결국 ‘구덩이’(the pit)까지 내려갔습니다(6절). 그러나 요나는 그 깊은 구덩이(파멸) 속에서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사 그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6절). 이 요나를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요나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구덩이와 같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신바 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파멸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속해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옴의 친구 엘리후가 옴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취려 하심이니라”(욘33:3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과 같은 구덩이(파멸)에서 끌어 돌이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취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택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3편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 볼 정도로 받은 풍성한 은혜를 의미합니다(박윤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베풀어주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시험하시사 우리를 단련시키신 후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시편66편10, 12절 하반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 주께서 우리를 끌어 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 셴나이다.”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담글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단련이 필요합니다. 그 단련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과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죄에 대한 깊은 인식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5장20절을 보십시오: “...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죄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죄를 아는 자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셨고 또한 지금도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에 거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면 살아가는 신앙인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시편 103편 20-21절을 보십시오: “능력이 있어 여호와와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20절). 하나님을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21절).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택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3편 5절을 보십시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영적 은혜를 풍부히 내려 주사 그 심령으로 즐겁게 하고 힘 있게 하시므로 속히 노쇠해지지 않게 함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 중 하나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계3:15). 왜 우리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가리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17절).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간절히 필요한 목마르고 굶주린 영혼이 없는 자아 착각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난한 심령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하지 않는 영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영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리고 목마른 영혼,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성경 시편 107편4-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러한 굶주리고 목마른 상황에서 그는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6절).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 응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9절). 사모하는 영혼,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시편 기자는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 찌로다”(8절). 그러면 왜 주님께서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5절). 여기서 왜 다윗은 그의 청춘을 “독수리”에 비교했습니까? “독수리”는 노쇠하므로 죽는 것이 아니고, 너무 오래 삶으로, 그 부리가 너무 길어져서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먹지 못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독수리는 불로의 상징입니다. 성도는 그 신앙의 힘 때문에 육신도 장수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박윤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 이사야 40장 29-31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 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 치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 다윗처럼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시103:1-2, 22).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새벽 기도회 후)

제 104편: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104편]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한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경 시편 77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 중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으며 또한 주장하고 계십니다(시104). 위대하고 강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1절)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셨고(2절) 또한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습니다(5절).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지으시되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습니다(24절).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란 질문이 나옵니다. 그 답은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 13조를

보면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도 만물을 버리거나 포기하시거나 우연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시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 가운데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에 계천이 흐르게 하사 산짐승들과 새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시며(10-11절) 공중의 새들에게도 그 가에 깃들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12절). 그 결과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합니다(13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축을 위하여 풀을 자라나게 해주시며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 할 수 있도록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을 나게 하십니다(14절).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 있게 하는 양식을 주십니다(15절).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 주시므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채소, 곡물, 실과, 기름 같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이 식료품들을 보는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그것들이 조물주의 솜씨로 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박윤선). 하나님께서는 달과 해를 경영하시며 밤과 낮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19-20절) 또한 삼림의 모든 짐승도 주관하고 계십니다(21-22절). 바다와 그 밑의 모든 동물, 즉 대소 생물들을 그의 지혜가운데 지으신 하나님(24-25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특히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사 피조물들에게 주신즉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해주십니다(28절).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할 지며 하나님은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십니다(31절).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을 보면서 이렇게 결심하였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목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33-35절). 시편 기자는 평생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찬양하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기이하시고 크신 권능의 움직임을 알고서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송가 40장 1-2절을 찬양합니다: (1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찻네, (2절) “숲 속이나 험한 산골짜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숨씨 노래하도다”, (후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마음속에 그리어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혼이 평생토록 찬양하기로 결심하였던 시편 기자는 죄인과 악인이 땅에서 소멸되어 다시는 있지 못하게 하여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35절). 그는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길 원하면서 또한 이 세상의 저주가 되돌려 주길 기원했습니다(MacArthur). 즉, 시편 기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였습니다. 찬송가 40장 4절을 찬양합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그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길 원했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마음속에 그리어 보면서 옛 것은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혜롭게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강하신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제 105편: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십시오.

[시편 105편]

헨리 나우웬의 책 중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역자로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임무는 과거의 상한 기억들에 접근하고 그런 기억들이 두려움 없이 빛 속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위대한 사명은 인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상처가 하나님이 직접 겪는 고통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작은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겪으시는 엄청난 고통에 대한 이야기와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치유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이 더 큰 고통의 한 부분이며, 우리의 슬픔이 더 큰 슬픔의 한 부분이며, 우리의 경험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눅24: 26)고 하신 그리스도의 더 큰 경험의 한 부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인터벳).

과연 이러한 치유의 사역을 감당해야 함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헨리 나우웬의 이 글 내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두 단어가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과 “기념”이란 단어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헨리 나우웬에 의하면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들을 현재로 이끌어 오며 현재 이곳에서 그 사건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브레바드 차일드(Brevard S. Child)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는 행위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존재하지 않던 세대를 위해 과거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사람들은 구원의 위대한 행위를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하나님의 계시 영역에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통해 그 간격이 없어지며 제외되던 사람들이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나누게 됩니다”(나우웬). 우리는 이러한 기억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므로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사건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저 천성을 향하여 일어나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05편 5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임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행사’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마 하신 약속(8-11절)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한 3가지로 오늘 본문 12절부터 44절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 약속을 받을 당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며 살고 있었을 때(시105:12-13)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14-15절).

성경 시편 105편 14-1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고 있었던

소수의 이스라엘 우리들을 그 가나안 땅 군왕들로 하여금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래를 보호해 주셨던 성경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17절을 보면 기근이 들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래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래가 아리따운 여인이므로 죽임을 당할까봐 누이라고 말하게 하므로 결국 애굽 왕 바로가 사래를 자기 궁으로 들였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므로 아브람으로 하여금 아내 사래를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20장 3-7절에도 나옵니다. 그 때도 아브라함은 그랄이란 곳에서 아내 사래를 또 누이라 말하므로 그랄 왕이 사래를 취하였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남의 아내를 택하므로 죽으리라고 하시므로 결국 사래로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소수의 무리인 야곱과 그의 자녀들 및 후손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며 살아가고 있었을 때 야곱의 아들 중 하나 인 요셉을 앞서 애굽으로 보내신 후 가나안 땅에 기근을 임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뢰하던 양식을 다 끊으셨습니다(시105:16-17).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그의 자녀들 및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게 계속 살아가게 하시지 않으시고 기근을 임하게 하시사 그들로 하여금 궁핍케 하셨는지 ...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오묘한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섭리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15장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고 그들은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시고(시105:16) 또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사(17절) 결국 요셉은 애굽 총리로(20-21절),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야곱과 자녀들 및 후손들은 다 애굽으로 내려와 살게 하시면서(23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셨습니다(24절).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유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소수의 무리인 야곱의 자녀들과 후손들(한 70명)을(12절) 애굽에서 고난 속에서 크게 번성케 하신 하나님 ... 성경 신명기 10장 22절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칠십 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 같이 많이 하게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무수한 별들처럼(창15:5)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애굽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기근을 통하여 소수의 이스라엘(야곱)과 그의 자녀, 후손들을 궁핍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애굽으로 다 내려오게 하신 후 노예의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 크게 번성케 하시사 그들의 대적인 애굽보다 더 강하게 하신 하나님(24절),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의 섭리 가운데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애굽에서 크게 번성케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후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시사(시105:26-43) 결국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4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크게 번성케 하시사 애굽보다 더 강하게 하셨을 때(24절)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25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란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사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므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은금을 가지고”(37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39절) 또한 메추라기란 양식으로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케 하셨습니다(40-4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즐거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습니다(43절).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오늘 본문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좃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마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한 세 가지로 목상하면서 저는 이러한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승리 장로교회에게 주신 약속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지켜 주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진정한 가나안 땅, 저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가운데 지금 이 광야에서 나그네 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하고 계시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들을 하늘의 고난 속에서 별처럼 수 없이 많이 하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고난들을 통하여 우리가 의뢰하는 모든 것들을 끊으시사 궁핍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저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향해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과 같은 사단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여 광야를 걷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1절a), 그의 구원의 행적을 노래하며 전파하면서(1-2절) 하나님께 그의 얼굴과 능력을 구하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3-4절)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찬송가543장)을 수요기도회 때 찬양한 후,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기를 기원하면서)

제 106편: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

[시편 106편]

기억 상실증(Amnesia)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어 $\alpha\mu\eta\sigma\iota\alpha$ 로부터 온 말으로, 간단히 기억에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억 상실증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기질적인 요인과 기능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기질적(organic) 요인의 기억 상실증은 외상성 기억 상실증(Traumatic amnesia) 이라고 하며,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분에(일반적으로 뇌의 해마)에 이상이 생겨서 기억에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사고나 질병, 혹은 마약으로 뇌에 손상이 갔을 때 발생합니다. 기능적(functional)인 요인의 기억 상실증은 해리성 기억 상실증(Dissociative amnesia), 이라고 합니다. 기능적인 요인들은 방어기전(defense mechanism)와 같은 심리적인 요소들입니다. 기억 상실에는 “부분 기억 상실”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 상실은 크게 장기 기억 상실과 단기 기억 상실로 보통 나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장기 기억 상실”이란 옛날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기억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부분만을 기억 못할 경우 부분 기억 상실증, 전체를 기억 못할 경우를 완전 기억 상실증이라고 합니다. 그와 반면에 “단기 기억 상실”은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기 기억 상실은 가장 흔한 기억 상실 증입니다. 바로 전에 말했던 것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amnesia를 건망증이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의 건망증은 자주 깜빡깜빡 잊는 정도지만, 이 경우에는 퍼펙트(perfect)하게 잊어버린다는 것이 차이라고 합니다(인터넷).

저는 기억 상실 증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망증, 즉 자주 깜빡깜빡하는 것은 단기 기억 상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 단기 기억 상실도 웬지 장기 기억 상실에 비하면 괜찮습니다. 특히 장기 기억 상실에서도 과거 일부분만 기억 못하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전체를 기억 못하는 “완전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오늘 본문 시편106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되 완전히 망각한다면 (영적 완전 기억 상실) 그 결과는 어떠하였을까 생각할 때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한 가지 소망은 분명히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 한 가지 소망이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 하소서(시106:4).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란 제목 아래 한 2가지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치 아니한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치 아니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3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주님의 많은 인자를 기억치 아니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106편 7절을 보십시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치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인자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궁핍이 여기시사 모세를 보내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기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인자를 잊어버리고 홍해에서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홍해 가에 머물 때에 애굽군이 쫓아온다는 보도를 듣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출14:11). 이것은 곧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함과 같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박윤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시106:8). 즉,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꾸짖으시사 마르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셨습니다(9절). 그리고 그들을 쫓던 애굽 군대는 물이 덮으매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죽었습니다(11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습니다(10절).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큰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8절).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12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많은 인자(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굽과 같은 사탄의 왕국에서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4절)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성경 시편 106편 13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미구에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일시동안의 음식물의 결핍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하나님의 행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기보다 조금히 음식물을 탐하여

모세를 원망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박윤선).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들이 그렇게 범죄하였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샘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의 고기로 공급하셨습니다(박윤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습니다(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키는 죄(민16장)를 범하였고 더 나아가서 호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극히 가증한 죄를 범하였습니다(시106:19, 출32장).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죄를 범하였습니다(박윤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최악 된 세상은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췌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롬1:23). 문제는 이러한 죄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과 바꾸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오늘 본문 시편 106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명예의 욕심이던 물질의 욕심이던지 간에 이러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행사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사람의 행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4절)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성경 시편 106편 21절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큰 일”(21절)을 행하셨고 그의 큰 능력을 나타내시므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22절)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였고(불신앙) (24절) 원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으며(불순종) (25절) 더 나아가서 이방신 바알브올을 숭배하였습니다(28절). 또한 그들은 므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였으며(33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방인들을 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35절) 그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36절). 그 우상에게 자녀의 피를 흘려 제사까지 하였습니다(37-38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더러워졌으며 음탕하였습니다(39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23, 29, 32, 40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의 손에 붙이시매”(4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압박을 받으므로(42절)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44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건지셨으나 그들은 “끼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습니다(43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통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이 여기사사 그 고통과 역경에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고통과 역경이 없이 평안하게 지낼 때 그 당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너무나 빨리(속히)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고통과 역경은 쉽게 잊어버리지 못하면서도 그 고통과 역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속히 잊어버립니다. 즉, 우리가 당한 고통과 역경은 잘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 고통과 역경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행사, 그 은혜는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 받은 후 평안히 잘 지내고

있을 때 구원자 하나님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4절)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맺은 “그의 언약”입니다.

성경 시편 106편 45절을 보십시오: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45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46절). 즉,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시적 징벌에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박윤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많은 인자하심과 그의 (큰) 행사를 잊어 버렸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셨으며 또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성실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성실한 그의 언약 백성에게 성실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대답을 디모데후서 2장13절에서 찾아봅시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항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성실하신 이유는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실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그의 신격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비록 엄마가 그녀의 젖 먹는 아기를 혹시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많은 인자(사랑)를 기억치 아니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역사들을 속히 망각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수 없이 많은 데 그러한 배은망덕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4절)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오: 주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 (4절). 비록 우리가 영적 기억 상실 증에 걸려서 하나님의 많은 인자(사랑)와 그의 행사를 기억치(망각) 아니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구원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가410장),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인생의 종착점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기원하면서)

제 106편: 큰 죄 가운데서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시편 106편 6-12절]

성경 구절 중 적어도 머리로는 알고 있는 말씀 중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로마서 5장 20절 하반 절 말씀입니다: “...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의 죄를 들춰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의 크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06편 6-1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해 볼 때에 한 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큰 죄 가운데서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편 106편 6-12절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큰 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6편 6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탄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조와 함께 범한 악한 죄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열조와 함께 범한 악한 죄는 주님의 기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6편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행하신 기사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예 관심도 갖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당시에 유대인들은 과거 애굽 시대 때에 자기 조상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기사)를 망각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7절). 우리는 어떨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별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난 날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들을 속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우리의 큰 죄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열조와 함께 범한 악한 죄는 주님의 많은 인자를 기억치 않은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6편 7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치 아니하고 ….”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시대 때 자기 열조들의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사(역사)를 망각하였기에 하나님의 ‘많은 사랑’ 또한 망각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얼마나 자주 과거의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크고 많은 사랑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오늘 성경 말씀에서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열조(조상)과 함께 범한 악한 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6편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이 쫓아온 것을 보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출14:11).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원망함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6편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큰 권능을 알게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큰 은혜입니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왜 하나님께서는 큰 죄를 범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였습니다(8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구원자이시다’ 가 아닙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큰 은혜를 구원을 통하여 자신의 “큰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애굽 군인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꾸짖으시사 마르게 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 지남 같게 하셨습니다(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 하셨습니다(10절). 왜 그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의 구원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애굽 군대의

멀망에서도 나타났습니다(11절).

거룩하신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이에 저희가 그 말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범한 큰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2) 둘째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의 큰 죄 가운데서도 크신 은혜로 큰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토요일 새 생명 축제와 새 신자 환영회에 앞서)

제 107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세요.

[시편 107편]

이 허무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의 인자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시90:1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전3:11).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많은 인자를 기억치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시106:7).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시편107편 43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세요”란 제목 아래 과여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합니다(43절).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주의해야 할 “이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입니다(8, 15, 21, 31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박윤선).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할 때 구원해 주셨습니다(4-9절).

성경 시편 107편 4-5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면서 주리고 목마름으로 피곤하여 지쳐있었을 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 중에서 건져 주셨습니다(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중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습니다(7절).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 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셨으며 또한 그들의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9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리고 목마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기피하고 도시 한 복판에서 생활하기를 좋아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 도시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풍부함을 추구하는데 분주합니다. 그리고 세상적 풍족함도 얻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풍부함이 광야에서의 궁핍함도 결코 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광야에서는 궁핍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모하는 영혼과 주린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에서 풍부함보다 광야에서 궁핍함이 더 귀합니다.

우리의 궁핍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 그리고 주린 영혼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우왕좌왕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바른 길로 인도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구원해 주셨습니다(10-16절).

성경 시편 107편 10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습니까? 그 이유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11절). 그 죄악은, 아주 강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죄를 범하는 자들은, 죽음보다 무서운 포로가 되는 형벌을 받을 만합니다(렘22:10)(박윤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앞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시107:12). 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13절).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 중에서 구원 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엷은 줄을 끊으셨습니다(13-14절).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 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15절)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16절).

우리 주위엔 포로 생활 혹은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등 걸린 사람들은 어느 면으로 보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 자를 멸시하므로 말미암아 결국 포로 또는 노예 생활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에게 돕는 자를 끊으십니다. 그러므로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중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사슬을 끊어 없애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병자 같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을 때 구원해 주셨습니다(17-22절).

성경 시편 107편 18절을 보십시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여기서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였다는 말씀은 그들이 병들어서 음식물도 먹지 못함을 가리킵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사망의 문에 가까웠을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원인은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17절). 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19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셨습니다(20절).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을 가지시고 명령하사 중병자 같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찌로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아골의 문[“아골 골짜기”,

호2:15], 즉 고통의 문, (2) 사망의 문(시107:18), 그리고 (3) 소망의 문(호2:15).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근심된 일이, 곤고한 일이, 죄악 된 일이 그리고 참으로 죽을 일이 쌓인 세상(찬송가 474장)에 살아가면서 고통의 문과 사망의 문까지 통과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분명히 통과할 문은 바로 소망의 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천국 문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찬송가403장).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풍랑 중에 향해 하는 자와 같이 위태할 때 구원해 주셨습니다(시107:23-32).

창조주 하나님께서 광풍을 통하여 바다 물결을 일으키사(25절) 위험에 빠져 그 영혼이 녹은 자처럼 환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셨고(26절) 또한 그들로 하여금 지각을 혼돈케 하사 취한 자 같이 비틀 거리게 만드셨습니다(27절). 그 때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셨습니다(28-29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저희를 소원의 항구(their desired haven)로 인도해 주셨습니다(30절). 찬송가 462장 가사가 생각납니다: (1절)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둔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어 향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2절)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어 향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3절)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녘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후렴) “나 두렵 없네 두렵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흥흥한 바다를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1-3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 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 찌로다.”

바다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바다 깊은 곳에서는 진주조개가 아름다운 진주알을 만들어 내듯이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풍랑을 통하여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종종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떨릴 때에 우리는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사 우리 마음에 평온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찬송가464장, 1절과 후렴).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사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셨습니다(38절).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에서 높이 드셨고 그 가족을 양 무리 같게 하시므로(41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게 하셨습니다(42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기이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 삶 속에 풍랑이 몰아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찬송가474장 후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찬송가404장 1절과 후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편 107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있나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시편 107편 43절).

여러분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있나요? 어떻게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기 위해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일에 주의” 합니다(시107:43).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기이한 일에 주의할 때(8, 15, 21, 31절)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주님의 기이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님의 기이한 일은 우리를 고통으로 낮추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7편 1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11절).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하시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하십니다(10절). 이때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바로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라도 겸손해 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고통을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의 기이한 일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기이한 일은 우리에게 돕는 자가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7편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저희가 앞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에 누구에겐가 도움을 청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의 고통이 극심하면 할수록 우리는 간절히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것이 주님의 기이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자를 없게 하시되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다는 사실(욘6:13)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다는 사실(사30:7)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121:1-2). 이 주님의 기이한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기이한 일은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7편 20절을 보십시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돕는 자가 없게 하시므로 오직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광야에서 우리 마음에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호2:14). 그 말씀은 우리를 고치시는 말씀입니다(시107:20).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는 말씀이요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먼저 우리의 내적 사랑은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이한 일이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넷째로, 주님의 기이한 일은 우리 인생의 광풍을 평정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7편 29절을 보십시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광풍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욘1:4). 그리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점점 흉용하게 하시므로(11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만드십니다(10절). 그 때에 우리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바다에 우리 자신을 던지게 되면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치게 됩니다(15절).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광풍을 평정케 하십니다(시107:29). 하나님께서는 풍량이 거센 바다와 같은 우리 마음을 잔잔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이한 일이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섯째로, 주님의 기이한 일은 우리가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를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7편 6, 13, 19, 28절을 보십시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6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13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19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28절). 주님의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 사람만 치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 사람도 우리의 고통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주님의 기이한 일이건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사 우리를 광야에서 또한 우리를 흑암과 곤고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예수 그 이름의 뜻)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이한 일이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섯째로, 주님의 기이한 일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7편 7절을 보십시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같은 사단의 왕국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사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주시사 진정한 가나안 땅이요 약속의 땅인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를 하나님의 양떼들로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거만(참고: 요10)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많은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뿐만 아니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시107:4). 그 때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23:4)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구부러진 길로 행하지 않고 바른 길로 행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이한 일이요 우리는 이 주님의 기이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곱째로, 주님의 기이한 일은 우리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7편 9절을 보십시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궁핍하게 하십니다. 궁핍케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주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린 영혼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을 사모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케 하십니다(참고: 신명기 8:2-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밖에 사모할 이가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시73:25).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한 분 만으로 만족(자족)하며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이한 일이요 우리는 이 주님의 기이한 일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덟째로, 주님의 기이한 일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7편 14절을 보십시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진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참고:

요8:32). 자유케 하시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사람을 먼저 죄에서 자유케 하시사 우리의 외면의 사람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죄사슬에 매여 있는 고통보다 죄의 사슬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임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때에 우리는 육신의 죄사슬에 매여 고통을 당하면서도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우리가 육신의 죄사슬에 매여 고통을 당하는지 그 원인조차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죄사슬에 매여 고통을 당하므로 말미암아 의의 종노릇하는 것과 죄의 종노릇하는 것의 큰 차이를 깨닫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할 때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약1:5).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시107:43).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한 육체의 매인 죄사슬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홉째로, 주님의 기이한 일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것
입니다.**

성경 시편 107편 30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느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주시되 친히 주님께서 우리의 사공이 되시사 우리를 저 천국의 항구로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앞길 멀고 험해 보일지라도 우리 모두 사공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저 천국의 항구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열째로, 주님의 기이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것
입니다.

성경 시편 107편 8, 15, 21, 31, 3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8절),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15절),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21절),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31절),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찌로다”(32절).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같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십니다. 우리를 고통으로 낮추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송가 330장 “고통의 명예 벗으려고” 3절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교만한 맘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우리에게 돕는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1절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사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3절 가사와 후렴이 생각났습니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맘에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우리 인생의 광풍을 평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송가 46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둔 바다” 3절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녘에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우리가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를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송가 474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3절 가사와 후렴이 생각났습니다: “이 세상에 최악 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를 바른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송가 442장 “” 4절 가사와 후렴이 생각났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함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함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함소서.” 우리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송가 102장 3절 가사와 후렴이 생각났습니다: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복음서가 “나 자유 얻었네” 1절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 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시금 찬송가 46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둔 바다” 후렴이 생각났습니다: “나 두렵 없네 두렵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흥흥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주님의 기이한 일을 주으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갈 때 우리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2.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숨씨 노래하도다
3.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4.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후렴 >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108편: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

금년 우리 승리장로교회 표어는 “전혀 기도에 힘쓰라”입니다. 이 금년 표어를 생각할 때 과연 우리 승리장로교회가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평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적으로 평가한다면 오는 금-토요일 모이는 한 달에 한번 1박 2일 기도 모임에 참석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는 수요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하는 숫자, 토요 새벽기도회 때 참석하여 기도하는 숫자, 등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이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숫자로도 평가해 볼 수 있겠지만 질적으로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 자신이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온 교회 식구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우리들의 새벽기도회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내용을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새벽기도회냐 하면 하루의 첫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받치고자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는 심령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참으로 금년 한해 표어 되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피곤하고 자꾸만 졸릴 수 있는 새벽에 깨어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받치고자 주님의 전에 나아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꼭 새벽기도회를 해야 하는가라는 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러한 자는 참으로 ‘새벽을 깨우는 기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을 깨우는 기도 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새벽을 깨우는 기도 자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 시편 108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오늘 본문을 보면 새벽을 깨우는 기도 자 다윗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의 위대함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경험하였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구원(건지심)의 은총을 통하여 경험하였고(6절) 주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을 때 들으므로 경험하였습니다(7절).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와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보배로운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의 한 1주일 삶을 뒤돌아 볼 때 이러 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살아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볼 때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의 거룩하신 말씀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 그 때 삶 속에 하나님께 저를 건져주시고 또한 그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저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 자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건지심(구원)과 그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으므로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의 말씀을 들으므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둘째로, 새벽을 깨우는 기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경 시편 108편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낮춥니다. 결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치켜세우며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결코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기도는 결코 진정한 기도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 자 다윗은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길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주님만이 높이 들리시며 그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길 기원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기도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심령으로 찬양하는 가운데(1절)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길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길 기도하였습니다(5절).

마지막 셋째로, 새벽을 깨우는 기도 자는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 시편 108편 6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적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과거의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인자하심을 경험하였던 다윗은 현재에도 대적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는 사람의 구원은 헛됨을 알았습니다(12절). 그러므로 그는 오직 인자하고 진실(신실)하신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면(11절) 대적과 싸워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하되 사람의 구원은 헛된 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구원해 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실히 믿고(11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우리의 대적과 싸워 승리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기도 자에게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그 두 가지란 첫째로 마음의 안정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8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 자, 그는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안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안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시편 112편 7절 하

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기도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기도하기에 마음에 정함(안정)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벽을 깨우는 기도 자에게는 용감히 행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108편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기도한 후에 용감히 행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군대와 함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그리고 용감히 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군대와 함께 나아갈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11절).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군대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또한 그들을 이끌어 “견고한 성”으로 인도할 줄 믿었습니다(10절). 그러므로 다윗은 담대히 그리고 용감히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쓰십시오. 시편 기자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가 되도록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오. 또한 시편 기자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기도하십시오(5절). 하나님께 기도해(건져)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안정(정함)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용감히 행하십시오.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는 기도 자가 되고 싶은,

제임스 목사 나눔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길 기원하면서)

제 109편: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

하나님께서서는 어떠한 자를 사용하실까요? 어제 YMCA에서 운동하면서 MP3로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in Charlotte 총장님의 강의를 들던 중 하나님이 쓰셨던 모세에 대하여 하신 말씀 중 마음에 다가왔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모세의 120년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눠 어떻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준비시키셨는지를 깨닫게 해 주며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1) 모세가 애굽에 40년 있었을 때 그는 자기가 뭔가가 된 줄 생각했습니다(He thought he was SOMETHING), (2) 모세가 미디안에 40년 있었을 때 그는 자기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He began to understand that he was NOTHING) 그리고 (3)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아무 것도 아닌 자를 쓰시는 줄 깨달았습니다(Now he knows that God uses NOTHING). 저는 이 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1) 과 (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내 자신이 SOMETHING인 것 같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사 제가 아무 것도 아님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SOMETHING이란 것은 저로 하여금 욕심을 내게 만들고 또한 교만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낮추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홀로 그분 앞에 잠잠히 있게 하시고 또한 기도 하는 가운데 그의 말씀으로 제 마음의 죄를 들춰내시고 또한 회개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드럽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위로와 힘을 받습니다(호2:14). 성경 마가복음9장2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 기도 외에

…”(only by prayer).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 내시 못한다는 교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욕심과 교만 등 죄악 된 것들을 비우기 위해선 기도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09편 4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은 다윗은 그의 원수들을 사랑하였지만 그의 원수들은 다윗을 대적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어떻게 대적하였습니까? 그들은 악한 말로 다윗을 대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꾀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해하는 독한 악담을 하였고(“악한 입”) 또한 허황한 말로서 다윗을 해하고자 하였습니다(“꾀사한 입”). 더 나아가서, 이들은 아무런 허물이 없는 다윗을 억지로 죄 있다고 하여 압제하였습니다(‘무고히 공격함’)(박윤선). 다윗의 원수들은 악으로 다윗의 선을 갚았으며 미워함으로 다윗의 사랑을 갚았습니다(5절).

참으로 혀라 유익한 면도 있지만 동시에 무서운 면도 있습니다. 혀의 유익한 면은 물론 복음을 전하고 선한 말을 하며 남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혀의 무서운 면은 우리의 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상처 입히기도 하며 또한 모함하며 비방하며 거짓말과 헛소문을 퍼트려 그 한 사람을 매장할 수 있기까지도 합니다. 얼마 전 CNN 인터넷 뉴스에 미주리 주에서 발생했던 13살 여자아이 자살 사건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미주리 주에 사는 소녀 메이건 마이어(13)는 미국 ‘온라인 관계 맺기’ 사이트인 Myspace에서 조시 에반스(16)라는 소년을 만났는데 이 소년은 메이건에게 “섹시하다”는 쪽지를 보내 유혹하므로 결국 그녀는 조시에게 폭 빠졌다고 합니다. 서로 쪽지를 계속 주고받다가 조시는 갑자기 떠난다고 말했고, 메이건은 돌아오라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시는 “너가 없다면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될 거야”라는 쪽지를 보냈고 메이건은 20분 뒤 스스로 목을 매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메이건의 부모는 얼마 뒤 조시가 실은 로리드루(49)라는 같은 동네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인터넷). 이 사건은 자살한 여자아이의 한 친구의 엄마가 남자아이로 위장하고 'My Space'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자애와 사귀다가 나중에 폭언 내지는 악담으로 깊은 상처를 줬고 그로 인해 결국 여자아이가 자살한 사건입니다. 인터넷에 횡행하고 있는 악성 루머나 악플의 위험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약3:8).

다윗의 원수들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로 다윗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며 또한 저주하기를 웃 입듯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시109:17-18). 그들은 남을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주하기를 기뻐하며 좋아하였습니다. 왜 다윗의 원수들은 이렇게 다윗을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습니까? 그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연고니이다”(16절). 다윗의 원수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전혀 긍휼히 여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였습니다. 대적하되 혀로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말씀을 NIV에서는 “I am a man of prayer”, 즉,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NASB에서는 “But I am in prayer”, 즉 ‘그러나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즉, 다윗은 그의 원수들이 악한 혀로 자기를 저주하며 해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나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나는 기도로라”입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기도라는 뜻입니다. 곧, 그의 생활이 기도 화했다는 뜻입니다(박윤선). 그러면 다윗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박윤선):

(1) 다윗은 그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6-20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악인들로 하여금 그의 원수들을 제어하시길 기도했습니다(6절). 그들은 정죄 받아 마땅하며 또한 그들의 기도는 진정한 회개기도가 아니라 일시적인 아첨에 불과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보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7절). 오늘 본문 8-16절의 기도는 다윗이 하나님께 그의 원수들인 극악 자가 패가망신의 벌을 받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박윤선). 그리고 17-20절의 기도는 자기를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그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길 구하는 기도입니다(20절).

(2)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21-31절).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구원의 기도는 자기의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긍휼이 여기시사 구원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22-25절). 그는 자기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한다고 말하였고(22절) 또한 석양 그림자 같이 쇠하였고 (23절) 기도를 하느라 수척해 졌다고도 진술하였습니다(24절).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움과 더불어 구원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26절). 다윗은 구원해 주시되 원수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알게 하여주시길 기도했습니다(27절). 그리고 그는 구원이 확신이 있었습니다(28절).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인 자기의 우편에 서시사 그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해도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28절). 그리고 그는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는 그의 원수들(18절)로 하여금 “자기 수치를 겉옷 같이 입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29절).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30절).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및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다투처럼 기도하십시오. 다투처럼 우리의 대적들이 악한 말로 우리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나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징계하실 것이며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합니다”,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제 110편: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시편 110편]

지난 주일 4구역 성경공부에 참여하여 “영적 전쟁” 제6과 “여호와께 속한 전쟁”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공부하면서 “마음 열기” 부분에서 우리 각자가 직면한 가장 큰 싸움터는 어디인지를 나눴습니다. 그 큰 싸움터가 가정임을, 또한 직장임을,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내면임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각자에게 ‘과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제대로 무장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이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허리띠인 진리, 방패인 믿음, 흉배인 의, 투구인 구원, 신발인 평안의 복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잘 싸우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싸우고 계십니까? 평안의 복음을 경험하며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주일 구역 성경공부를 한 후 그 다음 날 월요일 제 자신의 큰 싸움터인 자기 내면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월요일 밤 늦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제 자신을 뒤돌아보았을 때 제가 설교한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 그리고 주일 영어 예배 때에 선포한 “둔하여진 마음”(막6:52)과 주일 한국어 예배 때 선포한 말씀인 “구원을 위하는 것”(행27:27-44)이란 말씀 내용 부분이 생각나면서 제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포한 말씀 내용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루 온 종일 그 말씀을 거역하며 제 마음대로 죄악 된 생각을 하며 하루를 살아온 제 자신을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마음이 무겁고 제 자신에게 실망을 또 했습니다. 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가치함, 그리고 죄악 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옛 사람과 싸워 패배한 내면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 후 화요일 새벽 기도회 때 월요일 날 제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대해 나눈 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일 한국어 예배 때 선포한 말씀 중 빌립보서4장6-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요일에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시편110편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저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란 말씀을 한국 서현교회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청년 부 담당 목사님께서 서현 청년들을 가리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란 말하였을 때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때 저는 그 의미도 잘 모르면서 참 좋은 문구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오늘 시편110편을 묵상하다가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란 말씀을 보고 과연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어떠한 자들을 가리키는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로 세움을 받아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은 주님께 즐거이 헌신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란 주님의 권능의 날, 즉 주님의 전쟁의 날에 대장 되신 주 예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혹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사 천국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계시는 주님께(1절) 즐거이 헌신한 이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은 “새벽이슬”이라는 단어에 함축돼 있듯이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인터넷).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교회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한 수많은 주님의 청년들은 주님의 영적 군대를 의미합니다(박윤선). 이 주님의 영적 군대인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들입니다(딤후2:3-4). 즉, 이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군사로 모집하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군대에 모집하셨습니다. 우리는 대장 되신 주님께 즐거이 헌신한 새벽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대에 모집된 주님의 영적 군사들로서 주님의 좋은 군사들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은혜로 알고(빌1:29) 주님의 고난에 힘써 참여해야 합니다(3:10).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를 모집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 군대장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그에게 충성하며 그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장되신 예수님께 헌신하고 그의 말씀 순종에 헌신해야 합니다.

둘째로,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은 거룩한 인격을 지닌 자들입니다.

새벽이슬은 먼지 묻지 않은 신선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란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영롱한 이슬의 맑음처럼 순수함을 가진 주의 청년들을

가리킵니다(인터넷). 이 순수함을 가진 주의 청년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3절). 다시 말하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주님의 전쟁의 날에 주님의 거룩한 영적 군사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적 군사들이 주님의 전쟁에 나아가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전쟁은 어떠한 전쟁입니까? 바로 거룩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영적 군사들로서 “이슬 같이” 빛나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과 싸우면서 주님의 거룩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들춰내고 책망해야 합니다(엡5:11, 13). 결코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들로서 어두움의 일에 참여해서는 아니 됩니다(11절). 그리하므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영적 군사들로서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므로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은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군사들로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는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 힘을 공급받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거룩한 영적 전쟁함에 있어서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 전쟁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임을 명심하고 있습니다(엡6:12). 그러므로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영적 군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혹은 완전 무장)를 입어야 합니다. 특히 악한 영들과 싸움에 있어서 그들은 유일한 무기인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날카롭게 하며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므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벧전4:7). 결코 세상의 유혹과 재리와 욕심으로 하여금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마13:22).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상태에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인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
합니다. 곧,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적인 삶을 우리가 다 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군사들)로서 영적 전쟁에서 전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공급받는 새
힘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선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마치 이슬이 방중에
고요히 내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서 들으므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선 결코 쇠약해져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의와 죄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선 주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거인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선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17장15절을 보면 “여호와 닛시(The Lord is our Banner)”란 말씀이
나옵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여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11절). 해가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여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였습니까(15절). 전쟁을 승리케 한 힘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인터넷).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영적 싸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고 있는 큰
싸움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는 기도의 손을 내려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로서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좋은
군사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영적
군사들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과 싸워 주님의 거룩하심을 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 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닛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즉 우리의 싸움터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를 수요 기도회 때 승리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한 후)

제 111편: “좋은 시각”

[시편 111편]

어제 밤 성경 요한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 읽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런 후 저는 계속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가룟 유다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2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저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가 생각의 영역에서 영적 싸움을 하지도 못하고 결국 사탄에게 미혹되어 예수님을 파는 생각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 자라나도록 놓아두었다가 결국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파는 행동의 영역까지 오게 되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원인을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께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성경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을 때(3절)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5절)고 마리아에게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가룟 유다가 그리 말한 이유는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한 마디로 돈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 께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도적이었습니다(6절).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보듯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즉, 돈을 사랑하는 가룟 유다에게 마귀를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장성하여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13:27) 결국 가룟 유다는 은 삼십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마26:15, 26:46-50).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가룟 유다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므로 말미암아(딤펴전6:10)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도 무방비 상태로 그 생각을 받아들여 미혹되므로 생각의 죄가 장성하여 죄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저는 쓴 뿌리의 나무가 자라나 결국 썩은 열매 맺는 가룟 유다의 삶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생각 싸움에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저에게 나쁜 생각, 죄악 된 생각을 넣을 때에 저는 선한 생각으로 싸워 이겨야 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제임스 페커의 “하나님의 인도”란 책을 보면 깨달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보다도 깨달음입니다(페커). 더 나아가서 지혜는 깨달은 것을 신중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합니다(페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지각”(good understanding)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시111:10). 저는 오늘 본문 시편111편 중 10절 말씀 중심으로 “좋은 지각”이란 제목 아래 과연 좋은 지각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과연 좋은 지각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을 오늘 본문

시편111편10절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우리가 좋은 지각을 얻기 위해선 “그 계명”,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10절).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잠8:13). 물론 저는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의 인도”란 책을 읽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패커는 “경외는 두려움과 무관하다. 경외는 공경 심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경외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 우러러봄과 동시에 능동적인 행동으로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태도를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여 악을 미워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 질문의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로 찾게 되었습니다. 이 3가지 성경적 원리를 배워서 실천하므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므로 말미암아 좋은 지각에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 주님의 행사를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1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행사”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시고(4절)

또한 광야에서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해 주시고(5절)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일(6절)들을 가리킵니다. 이 “여호와와 의 행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을 가리킵니다(9절). 왜 시편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즐거워하는 자는 연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의 행사를 더 알아가므로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가 영원할 것(3절)을 믿기 위해서입니다(박윤선).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행사를 자세히 연구(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믿음과 확신이라면 바로 구원의 확신과 믿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현재에 우리가 당면한 역경과 어려움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연구 중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원의 역사를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에게서, 보디발과 그의 아내로부터, 또한 감옥에서 등 건져내시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의 생명을 다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앞서 보내셨습니다(창45: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시고 약 400년 후 모세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해주셨습니다. 이 요셉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정한 요셉이 되시는 예수님을 삶과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사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처럼 억울하게 이런 저런 위기를 맞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구원해 주시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실 줄 믿을 수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믿음과 확신을 위하여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세히 그리고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음 속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 주님의 행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편 4절을 보십시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케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 하시도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케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5절) 세우시므로(9절) 결국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시길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행하신 구원의 행사들,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삶 속에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을 겪을 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케 하시므로 말미암아 현재의 역경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는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40장4절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이미 착한 일인 구원을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전에 올라가 영원토록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 주님의 행사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1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주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크신 역사는 바로 “구속”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실 때 마직 열 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양피를 바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 주시고 사시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 1장18-1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1절)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 (시51:12)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시고(111:2) 존귀하며 엄위하신(3절) 이 구원의 역사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므로 말미암아 좋은 지각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가 40장 후렴),

제임스 목사 나눔

(나의 평생 동안 주님께서 행하신 크신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제 111편: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분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시편 111편 1, 10절).

승리장로교회 설립 34주년을 기념하여 말씀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 하나님께서는 감사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였습니다(엡 1:3-14). 저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창세 전에 선택하여 주셨으며,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를 속량(죄사함)해 주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저는 인치시고 보증해주셨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후 우리 모두는 복음성가 “다 표현 못해도”를 하나님께 찬양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교회 목양실 의자에 앉아 인터넷 유튜브에서 그 복음성가를 찾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노래와 바이올린 연주). 특히 그 노래를 어린 자매가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들었을 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런 후 저는 오늘 말씀 집회 준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 설교를 위하여 오늘 새벽기도회 때 읽어야 할 성경 시편 119편 말씀을 읽기 시작하다가 뒤로 돌아가 이미 이번 주 새벽기도회 때 묵상한 시편 111편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편 111편 말씀을 읽고 읽다가 1절 하반절과 10절 하반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1편 1절과 10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기 때문입니다(2절).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들을 즐거워하므로 그 일들을 연구하였습니다(2절). 특히 그는 과거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연구하였는데 그 큰일들은 한 3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시므로 결국에는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일입니다.

성경 시편 111편 4절을 보십시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기억한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큰 하나님의 기적들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하였습니다(2절). 이 하나님의 기적을 연구하였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십니다’ (4절)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들을 즐거워하므로 그 일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기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진정한 모세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애굽과 같은 사탄의 왕국에서 건져주신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던 사탄의 왕국에서 자유케 하시사 건져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번째 재앙처럼 유월절 어린양이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므로 우리를 사탄의 왕국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기적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4절).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 일입니다.

성경 시편 111편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여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먹여 주신 일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였습니다(신8:2).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을 기억하였습니다(3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 같이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시78:24)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고 영원히 기억하십니다’였습니다(111:5, 9).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행하신 큰일들을 즐거워하며 그 일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우리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요6:48).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맺으신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9절).

셋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일입니다.

성경 시편 111편 6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못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준 기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민족의 땅”(6절, 현대인의 성경)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6절). 능력을 보여주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사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습니다(수18:1).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들을 멸하사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행13:19). 진정한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두 이름의 뜻은 동일함 -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진정한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속량)과 구원(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이 되셨습니다(신10:9).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더 나은 분향”(히11:16)인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시111:7-8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은 신실하며 공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와 의로 행하신 것이니 영원히 확실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7-8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큰일들을 연구하였을 때 시편 기자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11편 3절을 보십시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기서 “그(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속량”입니다(9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음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엄위하십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3절). 그리고 그는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였습니다(1, 10절).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여 연구하므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사탄의 왕국에서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제 112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

[시편 112편]

저는 오늘 저희 집 두 딸인 예리와 예은이와 수요기도회에 참석하고자 함께 차를 타고 교회에 왔습니다. 오면서 차 안에서 예리가 예은이에게 책을 읽어주었는데 그 책 내용 중 ‘둔한 토기 엄마, 더 둔한 토기 아빠, 그리고 제일 둔한 토기 어린 아이’란 말을 예리를 통해서 듣고 제가 농담 삼아 아이들에게 왠지 우리 가정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예리는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듣고도 아빠의 농담으로 들었는지 계속 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몇 초 지나자 예은이가 ‘그럼 우리 집에 제일 어린아이는 나니까 내가 제일 둔한 거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예은이가 섭섭해 하는 것 같아 수습하고자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똑똑한 것(smart)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effort)이 중요하다.’ 저는 이 대화 속에서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교훈은 영적으로 둔해져 있지 않기 위해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헌신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통하여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좇는 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주 수요일 시편 111편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좋은 지각”에 대하여 묵상했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지각을 얻기 위해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10절)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요(10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의 행사를 연구하며, 기억하며 또한 즐거워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므로 좋은 지각을 얻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12편 1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므로 동일한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은 자손까지 복을 받습니다.

성경 시편 112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이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손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데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자녀 농사 부모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부모로써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그 경외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므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믿을 수 없는 재산을 넘겨주지 말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넘겨주어야 합니다(박윤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정직자”가 되어 합니다(2절).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사 이 땅에서 강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강성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 하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은 재물의 풍부함입니다.

성경 시편 112편 3절을 보십시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여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말로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부자란 어떠한 자입니까? 진정한 부자는, 그 재산의 양이 많지는 못하되 하나님을 기쁨으로 소유한고로 항상 만족을 느끼고 남을 구제합니다. 만일 재산이 많아도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한 자는 탐심과 허욕과 인생의 노예들이지 부자는 결코 아닙니다(박윤선).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입니다(4절). 곧 그는 남을 구제하며 생활을 하며 지냅니다(박윤선). 어떻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재물이 풍부해질 수 있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의”를 경하여 소유했기 때문입니다(3절, 박윤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보시고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의가 영원히 있습니다(3,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에 부요한 재물을 복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 시편 112편 4절을 보십시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골1:13).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두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요17:14).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는 가운데서도 어두움(“흑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두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빛이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곧, 그는 곤고한 생활, 예컨대 질병, 환난 같은 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박윤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가 흑암 중에 거할 때에 그에게 빛을 비취 주시사 건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흑암 중에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은 잘됩니다.

성경 시편 112편 5절을 보십시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입니다(5절). 오늘 본문9절을 보십시오: “저가 재물을 흠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 꾸입니다. 즉, 그는 섬기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잘됩니다. 성경 잠언 11장24-2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흠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 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 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흠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을 구제하는 의가 계속하는 동안 그의 부요도 요동치 않게 하십니다(박윤선). 이렇게 잘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그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 지키는 계명 중 하나는 바로 모든 일들을 공의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 미가 6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모든 일을 공의로 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되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잘되는 의인의 행동을 시기하는 악인은 한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합니다. 악인의 소욕은 멸망합니다(시112:10).

다섯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은 견고함입니다.

성경 시편 112편 8절을 보십시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의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마음이 견고하여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까?(7절)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뢰하므로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입니다(7절). 그러한 가운데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박윤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요일4:18). 그 이유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의 계명을 지키므로 마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인의 아무런 “흉한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므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자손까지 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잘됩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므로 복을 받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말씀 순종의 기쁨을 사모하면서)

제 113편: “여호와와 종들이 찬양하라”

[시편 113편 말씀]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인터넷 글을 보니까 찬양이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자가 진단법'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싶다면 요즘 자신의 입에 자주 맴도는 노래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된다. 외롭다면 외로움에 관한 내용이 흐를 것이고 절망하고 있다면 비관적이고 슬픈 노래가 입에서 흐를 것이다.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찬양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곧바로 지금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와 같은 찬양을 하고 있다면 위로와 치유를 필요로 하는 상태일 것이다. 우리의 입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자기 입의 노래를 바꾸면 자신의 상태도 바뀐다는 사실이다. 만약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꾸길 원한다면 입술의 찬양을 바꾸면 된다. 하나님은 노래를 좋아하시기에 우리 입술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실 것이다”(인터넷). 입술의 찬양을 바꾸므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꾼다는 말에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지 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없이는 마음이 괴롭고 아픈 가운데서 찬송가 40장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입술로는 억지로라도 부를 수 있겠지만 그 찬송을 하나님께 찬양하므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 있듯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만 변할 뿐 아니라 상황도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13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여호와와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와 종들”이란 하나님을 위하여 미천한 자리에 처하는 자들입니다(박윤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박윤선). 우리는 미천한 자리에서 “이제부터 영원히 여호와와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2절). 즉, 시간적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와 더불어 온 세계가 겸손히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3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미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까? 한 2가지 이유를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113편 4-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생각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알기에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아가는 신앙인은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합당한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드리는 찬양을

가리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늘 위에 높이신 하나님의 영광, 높이신 보좌 위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4-5절). 과연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어떻게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고(특별 계시)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자연 계시)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은 성경 시편111편에서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크신 행사를 연구하며(2절) 묵상하며 기억하므로(4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며 즐거워하므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아가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113편 6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모든 낮은 자들을 살피시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시편 말씀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여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33:13-15);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53:2). 이렇게 하나님께 스스로 낮추셔서 굽어 살피시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113:7), 그리고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9절)들입니다. 즉, 높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사 살피시는 사람들은 “빈천한 자들과 무가내하한 자들”(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가련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살피십니다(박윤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피시며 이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며”(raises)(7절),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lifts)(7절)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십니다 (seats)(8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비천한 자들을 체휼하시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체휼”하시는 하나님을 목상할 때 성경 히브리서4장1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롬8:26).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26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빌립보서 2장6-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추시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2:9-11).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스스로 낮추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가 40장)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찬양하길 기원하면서)

제 114편: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

[시편 114편]

여러분들은 교회의 참된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5가지 원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 5가지를 우리 승리장로교회가 실천하므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원리란 (1) 기도하는 교회, (2) 성령 충만한 교회, (3)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 (4) 주님께서 믿는 자를 더하시는 교회, (5)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14편 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와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유다”를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한 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곳에 모여 제사를 드리며,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와 기도를 드렸던 곳입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큰 절기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의 성소”는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소는 교회를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편 114편 2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 인지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라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는 구원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성경 시편 114편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언 다른 민족”, 즉 야만 민족(박윤선)인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내셨던 사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의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신명기 7장7-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뤄집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선택하심으로 그들의 열조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입니다. 실제로 “교회”란 헬라어 단어인 ‘ekklesia’(에클레시아)란 말은 “ek”(out of) + “kaleo”(call) 이란 합성어입니다. 즉, 교회란 ‘부름을 받아 나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고자 애굽과 같은 사탄의 왕국에서 교회를 구원해 주셨습니다(엡1:4-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즉,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장차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구원을 소망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성경 시편 114편 2절을 보십시오: “유다는 여호와와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우리가 이미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의 성소”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임재 하시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느끼고 체험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껴야 합니다. 또한 교회란 위기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애굽에서 해방된 유대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사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박윤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였고 또한 광야에서는 성막에 임재 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4절, 박윤선).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1, 2절)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14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1:23).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3장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어두운 세상에 보이기 위해선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믿음,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의 능력을 여러 번 나타내셨습니다.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8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셨으며 또한 약 40년 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까이 와서 요단강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3, 5절). 하나님의 권능 앞에선 바다도 갈라져 육지 같이 되었고 반석에서도 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선 자연계도 진동한 것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7절).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 로마서1장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 받은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공동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는 승리장로교회가 되길 기도 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성경적인 공동체를 꿈꾸면서)

제 115편: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시편 115편]

저는 오늘 새벽기도회 때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넓이, 그리고 많이 깨달아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10절).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고 큰 은혜 가운데 저는 구속 곧 죄 사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죄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그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지금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오늘 성경 시편 115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을 받되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에게 선택을 받고 예정함을 입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 받아 영생을 얻었으니 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참으로 ‘나는

축복받은 자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복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참 하나님을 복을 받은 자요 지금도 복을 받는 자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시편 기자는 이러한 축복기도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14절). 이 시편 기자의 축복기도를 생각할 때 저는 저희 교회 김 집사님의 첫 손주 딸 Joey가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Joey”라는 이름의 뜻이 “God increases”(하나님이 번창케 하신다)라고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들은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드린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한다는 축복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다 포함)의 인수가 증가되길 축복하는 기도입니다(박윤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사실과 및 하나님께서 땅을 인간에게 주시어 번식하라고 하신 사실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창의 축복기도를 드린 것입니다(박윤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이러한 더욱 번창케 하시는 복을 받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번창케 하시는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성경 시편 115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성경 사무엘상15장12절을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갈멜에 이르러 기념비를 세웁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는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업적을 스스로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으로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겼었던 겸손한 사울이 왕이 되어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런 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 기념비를 세워 자신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115편에서 시편 기자의 “여호와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란 기도 제목의 중요성을 좀더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1절).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한 마디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는 것을 거부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not to us)를 말을 두 번이 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길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길 원했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입니다(1절). 델리치라는 학자는 오늘 본문 시편115편은 이방 원수들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원하는 이스라엘 기도라고 하였습니다(박윤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원수들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인자하심”)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진실(“진실하심”)이 행하시므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원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길 기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4-8절)이 승리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여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2절).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나타내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원수들의 손에게 건져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시길 하나님께 기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수도 있지만 또한 폐하도록 돕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폐하도록 돕지 않으시는 이유 중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시편 기자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승리와 폐함은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찬송가 28장). 결코 그는 주님의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시는 축복을 받는 자의 마음엔 오직 주님의 인자와 진실을 의지하여 간구하기에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기도 응답”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대로 꼭 응답 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가운데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더욱 번창케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번창케 하시는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입니다.

성경 시편 115편 9-1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
시로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여기서 3번이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3번이나 권면하고 있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9-11절).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9-11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3번 반복해서 권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인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를 3번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과 고통 속에서, 힘들고 지쳐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달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5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6절),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로
못내는(7절) 우상을 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8절). 그 한 예로 역대하 16장 7절부터 보면
아사 왕 당시에 구스 사람과 룬 사람의 큰 군대와 전쟁할 때 아사 왕은 아람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9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가운데 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의 해를
막아주십니다(박윤선). 성경 시편121편5-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낮에 해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며 또한 모든 환난의 해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변창케 하시는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성경 시편 115편 13절을 보십시오: “대소 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전쟁에서도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길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변창케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성경 신명기6장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1절).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6장2절을 보십시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케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녀들과 자손들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삼가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신명기6장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러한 번창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더욱더 의지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제임스 목사 나눔

(하나님께서서 번창케 하시는 승리장로교회를 기원하면서)

제 116편: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오늘 저희 집 막내 딸 예은이와 함께 수요기도회에 참석하고자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갑자기 차에 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예은이가 ‘I want to grow up, Daddy’[아빠, 나 (빨리) 자라나고 싶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은이에게 왜 빨리 자라나고 싶은지 물어보았더니 그 다섯 살 꼬마 아이가 ‘예쁜 아기를 갖고 싶어서요’라고 말하였습니다. ㅎㅎ 그래서 제가 예은이에게 나중에 예은이가 커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남자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말해주면서 그러한 남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런 후 저는 예은이에게 이 아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의 엄마를 나의 삶 속에 보내주셔서 결혼하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은이에게 아이 넷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엄마와 아빠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은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얘기 듣고 있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 자기가 지금 기도하였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고 물었더니 남자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은이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남자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냐고 하니깐 “예수님을 사랑하는”이란 말을 빼먹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ㅎㅎ 이 외에도 예은이와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예은이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예은이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저는 예은이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번 미 대통령 선거와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투표에 부친 Proposition들 중 8번과 4번을 유심히 보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의 필요성을 좀 더 느꼈습니다. 비록 현재 Proposition 8인 전통 결혼을 찬성하는 것(동성연애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통과 되었지만 이미 벌써 여기 저기 변호사들과 civil right 단체에서 법정에 고소를 하는 등 앞으로 문제가 계속 심각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여 불신자들에게 antihomosexual(반동성연애), judgmental(비판적) 그리고 hypocrisy(위선)란 인상을 주고 있으니 이것도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는 무엇이 아닌가를 더욱더 알려져 있으니 이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도 더욱더 기도해야 함을 느낍니다(딤후2: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뒤돌아 볼 때에 왠지 아직도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못 느끼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 “16세기의 종교 개혁자 칼빈의 경우, 기도의 필요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도의 필요성은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 대체로 다음 여섯 가지로 요약”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불 일듯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로,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넷째로,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명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섯째로,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끝으로,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인터넷). 이 여섯 가지 요약을 생각할 때 저는 특히 네 번째 요약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더 열심히 묵상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저는 공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을 주시므로 말미암아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시편 116편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결심합니다. 왜 그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결심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1절),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2절).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가 “큰 곤란”(10절)과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3절) 그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가 “사망의 줄”과 “음부의 고통” 속에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3-4절)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사 구원해 주셨습니다(6절).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에 평안함도 주셨습니다(7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후대하셨고(7절) 또한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12절).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12절).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모든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엡3:20)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결심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가기 때문에(5절)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환난과 고통과 슬픔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환난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우리는 좀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합니다(6절).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열린 자들”, 곧 마음을 열어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지혜를 의뢰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박윤선). 환난과 고통과 슬픔 중에서 자기의 지혜를 의뢰하는 자는 분명히 사람의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인 줄 알기에 오직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에게 간구합니다(11절). 우리는 환난과 고통과 슬픔으로 인하여 좀 낮아져야 합니다(6절). 시편 기자는 “내가 낮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6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환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져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아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해야 합니까?(12절)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시편 기자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6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제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1절). 순서가 사랑 고백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이미 시편18편1절에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오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시여)(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사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6편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인하여 평생에 주님 앞에 행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을 자리에게 건져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삶, 그 삶을 하나님께
받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려고 하였습니다(박윤선).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14:21).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랑 합니다’라고 고백하였다면 우리를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6편 13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13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리이다”(17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에 합당한 반응은 감사하므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뜨거운 감사가 없는 자는, 앞으로 은혜를 더 받지 못합니다(박윤선). 앞으로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주시는 구원의 은총(영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므로 그 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므로 보답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6편 14절과 18-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14절), “내가 여호와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찌라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와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18-19절). 시편 기자는 서원 이행을 결심하면서 전에 그가 죽은 자리에게 구원 받은 사실을 추억하였습니다(15절)(박윤선). 15절을 보십시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사망 문제를 중대히 취급하셔서 특별한 귀한 목적이 없이는 그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박윤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사 문제를 매우 중대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에라도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구원을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를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셨을 때 우리는 그 분께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환난과 슬픔 중에 있을 때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므로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습니다.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찬송가482장)을 찬양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수요기도회 후)

제 116편: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12절]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배려 가운데 저는 지난 두 달 동안 안식 월을 잘 보냈습니다. 한 5주 정도는 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싸이월드 인터넷 홈페이지 사역 개념으로 한국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귀한 만남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만남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눈물 또한 엿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아픔과 상처,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가운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막연한 믿음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리저리 치이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도 소망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었고, 과거에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었으며, 현재에 부부의 갈등 및 불화와 자녀 양육의 고충 및 직장에서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젊은이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말미암아 근심 가운데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고충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 만나는 몇 몇 사람들에게 나뉘었지만 웬지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만나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자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사역을 감당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 누가복음 6장 21절 하반 절에서 우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는 자는 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21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는 자를 위로해 주실 것이요(24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는 자들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23절).

이렇게 한국에서 한 5주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다가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 좀 있다가 장인 어른신 댁에 한 1주일 가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기에 그저 저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장인 어른신 옆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경을 읽어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번 추석 때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가족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다가 장인 어른신이 폐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 김 집사님은 암 수술을 하신 후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또 다른 김 집사님의 여동생 분도 암 수술을 하신 후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저희 교회 부목사님의 어머니도 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병과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이 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 대답을 오늘 성경 시편 116편 2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그는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왜 그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결심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1, 2절).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이번에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교회 장로님, 그리고 부인은 권사님으로서 교회에 참 신실하게 섬기시며 봉사하시는 부부입니다. 그 분들의 아드님을 통해서 지금 장로님은 암이 재발하며 고생하고 계시고 또한 부인되시는

권사님은 뇌종양 수술을 받으신 후 고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보였습니다. 첫 번째 찾아보였을 때는 저는 권사님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할 때 그 권사님은 계속 “아멘, 아멘” 하시더군요. 제가 헤어질 때 미국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렸기에 저는 오는 날 토요일 다시 그 장로님/권사님 댁에 찾아갔었습니다. 그 날에는 두 부부가 다 함께 계셔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눈 후 제가 “좋은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권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려고 할 때 장로님은 제 다리를 잡으시면서 앉아서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그랗게 셋이서 앉아서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때에도 그 권사님은 “아멘, 아멘”라고 힘차게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3절), “큰 곤란”(10절)을 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만난 환난과 슬픔, 큰 곤란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의 줄”과 “음부의 고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3절).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실 것 같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4절). 그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4절).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6절) 그의 영혼에 평안함도 주셨습니다(7절).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찬송가 470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1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후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후대하셨고(7절) 또한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12절).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12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엡3:20)의 그 모든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풍성한 은혜를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기도의 맛을 본 자들은 시편 기자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결심하면서
 기도에 헌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 속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환난과 고통과 슬픔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우리는
 환난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우리는 좀 “어리석은 자”가 돼야 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열린 자들”, 곧 마음을 열어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지혜를 의뢰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박윤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해서라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의 본능은 웬지 좀처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잘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환난과 고통과 슬픔 중에서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뢰하므로 자꾸만 사람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통과 슬픔 중에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인 줄 알기에(11절) 오직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5절). 또한 우리는 환난과 고통과 슬픔으로 인하여 좀 낮아져야 합니다(6절).

우리는 환난과 고통 및 슬픔을 통하여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져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낮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6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환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져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난 수요일 추석 때 장인 어르신과 장모님과 함께 가족 의사 선생님을 만난 후 장인 어르신 댁으로 돌아와 다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장인 어르신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는 장인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찬양하였으며 또한 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등등 “평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장인 어르신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주위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큰 곤란과 환난,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2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1절).

부족한 자의 부족한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안식 월 후 첫 주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기도에 헌신하면서)

제 117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시편 117편]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성경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뭣처럼 보고 듣는 것이 죄악 된 세상의 음란한 행실(7절)과 불법한 행실로 인하여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9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건지시고(구원해 주시고) 악인은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2) 우리는 굳센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3:17). 거짓 선생들(2:1)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14절) 또한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18절)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되어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3) 이 죄악 된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죄악 된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고통이 작아지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파한 후 오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 청년 한 명이 자기의 친구를 총으로 여러 번 쏘서 죽인 후 시체를 L. A. 다저스 야구장 가는 고속도로 110번 근처

어디엔가 버린 후 나중에 도박을 하다가 용의자는 잡혔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멀쩡하게 생긴 젊은 한국 청년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다시금 오늘 새벽기도회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죄악 된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법의 행실이 난무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죄악 된 일들을 보고 듣고 접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게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셔서 우리는 예비하신 처소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시는지 기대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3장12-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므로 숨질 때 되도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고 이루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17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이 저를 칭송 할찌어다.” 왜 시편 기자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2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2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11월을 감사 계절이라고 종종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추수감사절인 Thanksgiving이 있는 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매달이 감사의 달이요 매일, 매 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접할 때 감사하지 못할 때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접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크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크고”란 히브리 원어로 “가발”로서 “많아짐”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이 의미가 흥미로운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사랑)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증대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사랑과 대조적입니까? 인간의 사랑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감소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증대하니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증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월 지나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향하신 증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또한 느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39편 17-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면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저런 생각과 고민으로 가득하면서 마음에 놀리고 걱정, 염려 등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수 없이 많으신 생각들을 기억하므로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므로 찬양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많아지는)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서 멈추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 영혼,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진적으로 더욱더 증대해져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증대하지 아니하고 감소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바로 찬양하는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바로 찬양하는 자라면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증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빛을 점진적으로 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고 최진실 씨가 자살했을 때 이런 저런 뉴스들 가운데 “최진실”이란 이름 대신 “최가식”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쓴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가식”이란 무엇입니까? 인터넷 사전을 보니 “말이나 행동을 마치 올바른 것처럼 꾸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의 이름을 “최진실”에서 “최가식”이란 식으로 여겼는지 또한 그러한 글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말과 비난 등을 괴로워하면서 견디지 못한 두 아이의 엄마의 자살 사건은 금년 한해 아마 연예계 소식 중에 top news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한 어르신 권사님의 권면을 잊지 못합니다. 저의 할머니와 함께 어느 노인 아파트에 갔었을 때 그 때 만나 뵈었던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저희 할머니의 부축을 받으시면서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시고 있었습니다. 그 때 저의 할머니가 그 분에게 제가 목사가 될 것라고 말씀드리셨는데 그 말을 들은 그 어르신 권사님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시면서 ‘진실하십시오’라고 딱 한 마디 하셨습니다. 그 분의 그 말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나면 얼마나 진실하지 못한 목회자가 많았으면 그 분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동시에 드는 생각은 제 자신이 진실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7편에서 시편 기자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실하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할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 나아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7편 1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1절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사(예를 들어 바울을 통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이방인 신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중 하나는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을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11절).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즉, 우리는 믿음(faith)으로 신실한(faithful)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서가 “우리에게 향하신”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1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2x)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다(2x).”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크신 인자하심과 영원한 진실하심을 찬양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실하기 원합니다.’)

제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18편]

금년 한 해를 뒤돌아 볼 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잘 기억나는 상황은 바로 참석하였던 장례 예배가 생각납니다. 금년 들어서서 여섯 번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특히 두 번 장례식은 입관예배, 하관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경험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때 두 예배 다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좀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 장을수 할머님이나 고 김창혁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므로 찬양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18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우리는 시편 기자가 자기가 고통 중에 기도할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 해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아마도 시편 기자는 다윗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므로(18절) 고난과 고통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7절) 열방들이(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하므로 고난과 고통 외에도 죽음에 대한 공포(두려움)까지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0, 11, 12절을 보면 “에워쌌으니”(10절), “에워싸고 에워쌌으나”(11절) 그리고 “나를 에워쌌으나”(12절)란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수인 열방들의 포위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죽음에는 불이지 아니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18절). 이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난관 속에 있었을 때 아무데도 나갈 길이 없어 곤란하였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그를 광활한 곳, 즉 “한정 없는 넓은 땅”(박윤선, Delitzsch)에 세우셨습니다(5절). 영어 성경에는 “set me in a large place”(NASB) 또는 “set me free”(NIV)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사 그를 에워싼 열방들 중에서 건지시사 넓은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기도 응답을 또 다른 말로 다윗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22절). 이것은, 다윗이 그 초년에 많은 권력자들(“건축자”들)에게서 박해를 받았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버린바 된 그를 필경 왕으로(“집 모퉁이의 머릿돌”) 세우셨다는 말입니다(칼빈, 박윤선). 결국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하나님께 심한 징계를 받으므로 고통과 고난과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시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때 우리는 어려움과 역경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사랑)을 의심하곤 합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왜 내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어디에 계신가 라는 생각 속에 인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동서남북 다 막힌 것 같고 문제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나 껍껍 길이 막힌 기분이 들었을 때가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좀 더 깊이 그리고 확실하게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과연 다윗은 어떻게 하였길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였습니까? 그것은 다윗에게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과 전쟁에서의 승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6-16절).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요일4:18). 다윗은 두려운 포위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의지하여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충분히 그는 겁먹는 가운데 용기를 잃고 낙심하면서 전쟁에서의 패할까 봐 두려워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 8-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이사야 30장15절을 보면 “...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할 때 저는 마음에 힘을 얻고 두려움 보다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엔 담대함과 용기와 전쟁에서의 승리의 확신도 있었습니다. 포위된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은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까? 그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에(시118:6, 7)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의 오른손으로(15, 16절)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실 줄 믿었습니다(7, 13절).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고백하면서(14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19-21, 28절). 오늘 본문 118편 21절과 2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 하리이다” (21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28절). 그리고 그는 자기를 살려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를 믿음으로 선포 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17절).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구원의 행사를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29절). 우리 모두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감사 계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제임스 목사 나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제 119편: 도(말씀)를 행하는 자

[시편 119편 1-8절]

성경 시편 119편 1-8절 말씀의 핵심은 도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므로 행위가 완전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1절). 과연 이러한 복된 사람은 어떻게 행합니까? 한 2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불의를 행지 아니합니다.

성경 시편119편 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불의를 행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판단을 배워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옳음(right)과 잘못됨(wrong), 선(good)과 악(evil)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의로운 판단력이 있는 자는 불의를 행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의로운 판단력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악)을 선택하게 될 것이며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6절).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성경 시편 119편 1절을 보십시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와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의로운 판단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의로운 판단력으로 옳은 길(선)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코 의로운 판단을 배우는 자는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의로운 판단을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의로운 판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을 성경적 분별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의로운 판단으로 선을 택하고 악을 미워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정직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는 결코 의로운 길을 선택하지 불의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로운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판단력으로 선을 택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도(말씀)를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말씀)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약1:22). 우리는 이것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4절). 결코 우리는 불의를 행함에 있어서 부지런해서는 아니 됩니다(3절).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2절).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2절).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말씀)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2절).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6절). 그리고 그는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7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정직의 위기 가운데서도 정직한 마음을 추구하면서)

제 119편: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시편 119편 9-16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마음으로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7:25).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곧 인간의 부패성(죄악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 잠언 20장9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그리고 욥기 15장14-1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관대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 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참 우리 사람들은 부패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관대 깨끗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119편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끗한(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한 4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깨끗한(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9절을 보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우리 자신을 깨끗케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진리를 순종하므로 가능하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므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벧전1:22)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시편 119편 9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가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 의미로서 ‘삼가다’, 즉 ‘하지 말라’(Don’t)는 명령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신명기4장23절을 들 수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또 다른 내포된 의미는 능동적인 것으로서 ‘지키다, 하라’(Do)는 명령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창세기18장 19절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3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1) 우리는 주님의 법도를 목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5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를 목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하고 또 목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목상한다는 것은 그저 성경을 읽는데서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상이란 그 읽은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상이란 그 읽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되풀이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148절).

(2) 우리는 주님의 도(말씀)에 주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주의 도에 주의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므로 하나님의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걸어가신 길이 주님의 길과 어떠한지 비교해 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주님의 길과 다르다면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3) 우리는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우리 사람들은 재물을 너무 좋아합니다. 시편 기자는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그리스도인은 그 순종의 기쁨 속에서 자신의 행실을 깨끗케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끗한(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 왜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깨끗한 길이길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생각해 보지만 우리는 또 쓰러지고 자빠져 죄를 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 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 간구합니다.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였습니다(10절).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고자 하는 죄악 된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옛 습관이 존재하고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된 본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계명에서 떠날 때가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에서 떠나 타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21절).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10절).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12절). 우리 인간의 무지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주님의 율례를 깨달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가르침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34절).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케 하기 위하여 주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주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주님의 계명을 순종치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깨끗한(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뒤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7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입니다(시119:11).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 있습니까? 한 2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 위해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4절과 16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14절),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맛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님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14절). 우리가 주님의 율례를 즐거워 할 때(16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 위해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 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하게 되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여 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기로 시편 기자처럼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비에 적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56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최고의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가 깨끗한(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13절을 보십시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선포한 말씀 그대로 먼저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추구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39:1-3, 40:9).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깨끗한(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9절).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10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깨끗이 씻겨야 하리”)

제 119편: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하여”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편 119편 11절).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뉴스에서는 “Christmas Massacre”(크리스마스 대학살)이라는 제목아래 코비나(Covina)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크게 보도하였습니다. 한 45살 된 이혼한 남자가 크리스마스 이브 밤 11시 30분경에 전 부인의 부모님 댁인가에 Santa Claus 복장을 하고 가서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을 난사하고 집에 불을 질러서 9명이 죽는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 나중에 자기도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 끔찍한 범죄 사건을 듣고 저는 이혼의 충격이 이러한 결과까지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충동 등등 이러한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이 뉴스 외에도 TV를 통해 듣는 많은 뉴스들은 범죄에 관한 것을 보면 마음에 죄악된 것들로 차 있으면 범죄를 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추하고 죄악된 것들로 차고 있으면 하나님께 범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진적으로 채워지면 주님께 범죄 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결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범치 아니하는데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오는 성경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그는 주님께 죄를 범치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두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수 있는 것입니까? 한 5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12절을 보십시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그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결핍돼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배우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그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였으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그리고 규칙 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묵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음성)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선 묵상한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13절을 보십시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시편 기자는 그의 입술로 주님의 모든 규례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깨달음을 주위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말씀은 나눌 때 우리 마음에 더 남습니다. 묵상한 말씀을 적어보고 또한 나누는 가운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채워집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즐거워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맛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103절)을 조금이나마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꿀 맛을 맛보게 되면 될 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될 것이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16절을 보십시오: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므로 그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즐거움이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 심비에 적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 인격화 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점진적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신자는 주님께 죄를 범치 아니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덩달아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정에서 죄가 범란한 때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도 동일한 죄들을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 단체들 안에서 온갖 죄들이 범해지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죄들이 범해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을 나누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치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주님께 죄를 범치 아니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제 119편: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하여”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편 119편 11절).

양심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주님께 범죄 하기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죄를 범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죄책감 가운데 좌절과 낙망의 늪에서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왜 원치 않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왜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로마서7장13-25절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17, 20절)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길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25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모습 말입니다(15, 19절).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25절).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 책임이란 다름 아닌 주님께 죄를 범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문맥인 시편119편9-16절에서 우리가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선 한 4가지를 실천해 옮겨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10절). 그 이유는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갈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10절). 그러므로 그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12절).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가끔 설교하고 가르친 말씀이 저에게 돌아와 제 양심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것은 제가 제 자신을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 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영적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에 제 마음과 삶을 반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자신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다른 이들을 가르쳐야 함을 주님께서는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가르침을 겸손히 받는 자가 되길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갖고 싶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님의 도에 주의하였습니다(15절). 우리가 하나님께 그 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 QT(말씀 묵상)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 된 생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입의 모든 규례를 그의 입술로 선포했습니다(13절).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데서 끝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좇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비에 적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56절).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모는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다(14절)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말씀의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16절).

우리가 주님께 죄를 범치 아니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므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님께 죄를 범하고 싶지 않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새벽기도회 첫째 날인 월요일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119편: 영적 연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편 119편 11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시편 119편 56절).

오늘 아침 새벽기도회를 나오면서 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전에도 교회 차를 타고 새벽기도회에 나오다가 휘발유가 없어서 차가 서는 바람에 불안함 속에서 고생을 좀 했는데 오늘은 제 차를 타고 오는데 휘발유 측정하는 바늘이 거의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 2번 고속도로를 내려서 Arco gas station까지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Arco gas station에 도착하여 휘발유를 넣은 다음엔 마음껏 accelerate를 밟고 속도를 내어 교회까지 무사히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일을 생각하면서 저는 새벽기도회 때 시편 119편 11절과 56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습니다(11절). 그는 하나님께 죄를 범치 않으려고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시편기자의 "소유"(possession)였습니다(56절).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영적 연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범케 하는 유혹이 그에게 왔어도 마치 차의 accelerate를 밟아서 속도를 내는 것처럼 그는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유혹으로부터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말씀의 속도를 내지 못하는가 자아성찰해 볼 때에 영적 연료를 때에 따라 채우고 있지(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마치 제가 제 차를 한 1주일 동안 타고 다니지 않았으므로 제 차 연료 탱크에 휘발유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모르고 차를 탄 것처럼 쫓기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제 영적 연료를 얼마나 썼는지도 모르고 이러지러 바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아성찰해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의 영적 연료인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공급받으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제 것으로 만들어 저의 소유가 될 때에는 저의 영적 탱크에 연료가 가득 차므로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서 속도를 내어 빠져 나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저의 영적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영적 연료가 있어도 과연 어떤 연료가 있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차의 휘발유를 넣을 때에 저는 거의 매번 Regular Unleaded를 넣습니다. 그 이유는 제 차에 넣을 수 있는 휘발유 중 제일 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장거리 운전을 하여 장인어른 덕인 애리조나에 갔을 때에는 Premium Unleaded를 넣은 기억이 납니다. Regular Unleaded보다 좀 더 좋은 휘발유이기에 장거리 운전에 좋다고 아내가 얘기해 줘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Premium Unleaded보다 더 좋은 휘발유는 Super Unleaded 입니다. 이 휘발유는 갠런 당 비싸기 때문에 저는 거의 넣어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저의 영적 연료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싼 Regular Unleaded는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는 영적 상태를 가리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information) 정도로 우리 머리에 들어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좀 더 좋은 휘발유인 Premium Unleaded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서 조금 적용을 해 보려고 하지만 자주 쓰러지는 영적 상태를 가리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휘발유인 Super Unleaded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므로 우리 자신이 변화(transformation) 받는 것을 가리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 열매를 맺는 삶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시편기자의 영적 연료는 마치 Super Unleaded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가운데 자기의 소유로 만들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말씀이 자기를 소생케 하는 경험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차의 휘발유가 거의 밑바닥인 것을 보고 마음이 불안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라고 자기 영혼에게 말했던 것이 기도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42:5, 11, 43:5). 영적 연료가 부족하면 영혼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낙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영적 연료를 자주 점검하면서 바늘이 밑바닥을 가리키지 않도록 신호가 오면 연료를 채워야 할 것을 교훈 받았습니다. 신호가 오기 전에 항상 영적 연료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채워놓으면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영적 휘발유"을 제 영적 연료 탱크에 채워 넣으면 유혹이 몰려와도 속도를 내어 빠져 나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마치 차를 사용하려며 정기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연료 탱크에 휘발유를 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연료를 제일 좋은 것으로 제 자신의 영적 연료 탱크에 항상 채워 넣어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 몰려와도 말씀의 속도를 내어 요셉처럼 '도망'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제 자신의 영적 연료 탱크를 점검해 보면서 묵상하고, 선포하고, 기도한 후 이렇게 다시 한 번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을 적어내려 가면서 말씀 순종 가운데 제 영적 연료 탱크에 제일 좋은 "영적 휘발유"로 채워 넣고자 노력합니다.

영적 연료를 공급받은 이 아침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장거리 신앙 여행 중에서도 영적 연료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도를 내길 기원하면서)

제 119편: 인생의 목적

[시편 119편 17-24절]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사회 과학자들에 의해서 7,948명(48개 대학교)을 대상으로 2년간 미국의 정신 건강 국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당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응답자들 중에 16%는 “돈벌이”라고 대답한 반면에 78%가 ‘나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 조사의 결론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소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인터넷). 과연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문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 1]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고린도전서 10:31, 로마서 11:36 시편 73:24-26, 요한복음 17:22-24).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시편 119편 17절 하반절을 보면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7-24절 말씀 중심으로 한 3가지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18절을 보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내 눈을 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그 말씀의 기이함을 살피려 한 것입니다(박운선). 우리는 이 땅에 객입니다(19절).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객된 자들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빌3:20).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거하면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안이 열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시119:19).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긍휼이 여기시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므로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선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상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20절을 보십시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자신의 마음이 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기에 마음이 상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우리의 대답이 “예”가 돼야 하는데 그럴지 못한 듯싶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있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함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상할 정도로 사모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교만하여 주님의 계명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21절).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떠나 살아가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꾸짖고 계십니다(21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겸손히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재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나그네 된 세상에서 객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23절). 우리는 원수의 핍박 가운데서도(22절 - “훼방과 멸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상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마음에 상함이 있을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한 마음으로 더욱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맛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24절을 보십시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객이 된 세상에서 우리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모할 자는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73:25). 이 땅에서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밖에 없습니다(신8:3). 우리를 객 된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인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목자 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과 모사가 되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그 말씀의 즐거움을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드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18절).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상함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20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직 말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길
기원하면서)

시편 119편: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시편 119편 25-32절]

어떤 목사님이 성도의 가정을 심방했습니다. 분명 인기척이 있는 듯 한데 아무리 노크를 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시하나 싶어 서운하게 생각한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메모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심방을 받았던 그 성도도 같은 방법으로 목사님께 쪽지를 건넸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본 목사님은 그만 껄껄 웃고 말았습니다. 그 성경구절은 바로 창세기 3장 10절이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인터넷). 이 한 예화를 읽고 웃으면서 한 가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아닌 말씀 적용입니다. 어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한 목사님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최대 문제는 이론은 넘치는데 적용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지식은 넘쳐나는데, 교회마다 성경공부 시간은 넘쳐나는데, 기독교 서점에 가도 얼마나 좋은 신앙 서적이 많은데 문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글을 읽으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적용해야 할 것을 도전받았습니다. 그러면 말씀 적용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의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 목상이라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 바로 '적용'입니다"(인터넷).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19편 25-32절 말씀 중심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란 제목 아래 한 3가지 교훈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과 한 가지 헌신을 도전받길 원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감에 있어서 첫 번째 기도제목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27절을 보십시오: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목상하리이다.” 이 시대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때 저는 성경 마가복음 4장12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 왜 이 시대는 깨닫지 못하는 시대입니까? 그 이유는 이 시대가 악을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욥기 28장28절 하반 절을 보십시오: “...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좀더 자세하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약1:27).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벧후2:8)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을 세속화되는 것으로부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이사야 44장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었던 오늘 본문 시편 119편에 나오는 시편기자는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길 원했습니다(시119:27). 그는 불법의 길을 많이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는 상황에 있었을 때(벧후2:8) 그 불법의 길을 걷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또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시119:26). 시편 기자는 자기의 난관 많은 앞길을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26절). 기도응답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깨달길 원했던 시편기자는 세상의 불법의 길을 걷기보다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달아 알아 그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기사를 목상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27절). 그는 주님의 말씀의 아름다움(“기사”)을 목념하며 음미하고자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달길 원했습니다(박윤선).

주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들으며 목상하는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구절 한절 한절의 단 맛을 보는 한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기자가 시편 119편10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감에 있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28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놀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편 기자의 이 두 번째 기도는 어느 상황에서 드러졌습니까? 그는 자기의 영혼이 놀림을 인하여 녹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환난과 곤고로 인하여 시달리고 있었을 때(박윤선), 또한 그의 영혼이 고난으로 슬퍼하고 있었을 때(칼빈) 주님의 말씀대로 세움을 받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환난과 곤고로 시달리고 그의 힘이 물처럼 다 쏟아져 없어졌을 때 그 연약해진 심령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무거움은 마치 양초가 녹아져 낭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녹여 허비하게 만듭니다. 회개하는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눈물로 그 마음이 녹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개하는 영혼조차도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녹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부어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기도 상황을 25절에서 우리는 좀 더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이 세상의 모든 무가치한 것들로 인하여 그 영혼에 소망이 사라져 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과연 시편 기자는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였습니다(25절). 이 얼마나 말씀의 단 맛을 아는 시편기자의 기도입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쓴 맛들 밖에 없음을 알았던 시편기자, 환난과 곤고로 인한 시달림과 이 세상의 모든 무가치한 것들로 인하여 그의 영혼에 소망이 사라져 갈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연약해지고 소망을 잃은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하며 힘있게 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침체되고 낙망한 영혼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히4:12).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다가 지쳐 쓰러질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18절인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마음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잠언 24장16절 상반 절 말씀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 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바라기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더욱더 세움을 받는 새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모든 것이 무가치한 이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환난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물처럼 녹아내려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경험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길 기원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감에 있어서 한 가지 적용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리이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씀에 헌신을 하였습니까?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시편 기자는 성실한 길을 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불성실한 길들이 그의 앞에 많이 놓여 있었을지라도 그 길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29절).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내리면 살아가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의 길 아니면 거짓의 길.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길과 거짓의 길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진리로 여기며 거짓의 길을 선택하여 걷고 있으면서도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와 거짓의 길을 분별하면서도 거짓의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단 맛을 본 시편기자, 그 말씀으로 세움을 받는 경험을 한 시편기자는 성실한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그 길을 자신의 삶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30절). 우리는 시편기자처럼 성실한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걷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2)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에 밀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3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실한 길을 택하여 걸으면 되는데 거짓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합니다(29-30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를 당치 않고자 주님의 말씀에 밀접했던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에 굳게 애착하였습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붙어있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거짓을 멀리 할 수 있습니다.

(3) 시편 기자는 주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 것을 헌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3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 가리이다.” 시편 기자는 거짓된 길이 아닌 성실한 길을 택하여 걸었으며 또한 주님의 말씀에 밀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넓히실 줄 확신하였기에 주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라는 말은 ‘초점을 맞추어 직선의 움직임을 만들되 그 움직임을 상대적으로 신속하며 열성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그 말씀으로 향하는 달려가는 자는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더욱더 넓혀 주실 것입니다(예: 왕상 4:29). 시편 기자가 주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시119:32).

우리는 주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실한 길을 선택하는데 헌신해야 하며 주님의 말씀에 밀접 하는데 힘써야 하며 또한 주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 나가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면서)

제 119편: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33-40절]

어제 저녁 CBS 9시 뉴스에 Hermosa beach에 사는 한 사람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학교들을 위하여 돕고자 참여자들과 함께 3.36 miles이 되는 모래사장을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왔다 갔다 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통 운동장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사람들이 뛰는 것도 힘들 텐데 모래사장에서 뛰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고(작년에는 참여자들이 83.04 miles을 뛰어 세계 기록을 세웠고 수천만 달러를 사람들이 기증했다고 함) 그 목적을 이루고자 저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웬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경주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고 알고 있듯이 신앙의 경주는 100미터 달리기나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일진데 우리가 그 장거리 마라톤을 끈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19편 33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즉, 그는 주님의 계명(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헌신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한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35절을 보십시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기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주님의 계명의 길에서 즐거움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33절) 자기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므로 말미암아(34절) 전심으로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므로(34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렸다는 것입니다(35절). 이 즐거움을 누릴 때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 막둥이 예은이를 보면 나머지 저희 네 식구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은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어제는 summer school을 다녀와서 저희 부부에게 자기 학교를 옮겨도 되냐고 묻더군요. 그 이유는 지금 summer school을 다니는 학교가 자기 볼 때에는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다니는 학교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자기가 들고 있는 cooking class(요리 과목)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말로는 선생님도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예은이의 모습을 보니 참 보기 좋고 저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 막둥이 예은이를 보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문 대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 부분에게 너무나 많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듯 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경주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케 되어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37절과 40절을 보십시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있고(25절) 또한 우리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을 때(28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부흥케 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영혼이 낙심하여 쓰러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금 저를 일으켜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마치 오뚝이처럼 쓰러졌다가도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오병이어의 말씀인 요한복음 6장 1-15절 말씀을 묵상케 하시사 다시금 제 영혼에 소망을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에(딤후2:13) 저에게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실행하신다(민23:19)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사 이끌어 오셨습니다. 제 영혼이 낙망하여 불안할 때(시42:5, 11; 43:5) 하나님께서는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히4:12)으로 저의 영혼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며 소망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38절을 보십시오: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했습니다. 주님을 경외케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시편 기자는 자기의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길 원했습니다(36절).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자기의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길 원했습니다(37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길 원했습니다.

저는 한길을 끝까지 걷고 싶습니다. 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끝까지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마26:41)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를 수 없이 경험합니다.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기자가 말한 탐욕과 허탄한 것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안목의 정욕 속에서(요일2:16)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고 저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허탄한 것을 제 눈이 바라보면서 그것을 원하는 제 마음의 탐욕을 보게 될 때에 제 자신에게 실망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러한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범하고 또 범하는가 생각해 볼 때 저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저는 악을 미워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8절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제목은 저의 간절히 기도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므로 저 또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저로 하여금 의로운 길을 끝까지 걸어감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탐욕과 허탄한 것과 모든 죄악된 것들로 부터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제가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걸어오게 하신 의로운 길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잠16:31). 특히 저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딤후4:7).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즐거움을 더욱더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경험을 더욱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멀리하여 오직 주님의 길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시편 119편: 자유롭게 행보하라!

[시편 119편 41-48절]

찰스 스펔전 목사님은 최고의 자유(the highest form of liberty)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The highest for of liberty is always laboring to know the mind of God and to be conformed to it”(최고의 자유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최고의 자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19편 45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시편 기자는 ‘나는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자유롭게 행보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자유롭게 행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 2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자유롭게 행보하기 위해선 주님의 법도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45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시편 기자는 주님의 법도를 구하였습니다. 여기서 “법도”란 ‘언약의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야 할 방향, 규칙, 또는 원리/원칙적 교훈’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성경적 원리를 구하고 또한 지켜 행할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적 원리와 비성경적 원리를 구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때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원리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는 부족함 속에서 오는 혼동이라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앞서다보니 성경적 원리와 비성경적 원리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행보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자유롭게 행보하기 위해선 주님의 계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47-48절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목상하리이다.” 주님의 계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4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므로 목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에 목상하며 또한 목상하기에 즐거운 것입니다. 한 마디로,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목상하기를

즐거워합니다.

(2) 주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42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훼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의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41절)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훼방하는 자들(39절) 앞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뢰합니다.

(3) 주님의 계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43절을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가운데 그 말씀을 자기의 입에 가까이 두기를 원했습니다. 즉, 그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의 입술과 마음이 지배를 받길 원했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 마음은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4) 주님의 계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4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주님의 계명의 길을 끝까지 걷기 위해선(33절) 주님의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켜야 합니다(44절). 진정으로 자유롭게 행보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계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유롭게 행보하는 비결입니다. 그 계명을 사랑하여 지키며 순종하는 자는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요14:21).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계명을 순종하므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행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순종하므로 참된 자유를 누리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인)

제 119편: 스스로 위로하라!

[시편 119편 49-56절]

오늘 미주 기독교 신문에 PCUSA 교단에 소속된 큰 한인 교회가 분열된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PCA 교단에서도 이미 큰 교회였던 한인 교회가 갈라져서 한 교회 건물에서 둘로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PCUSA 대형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상처 받을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회가 치유 받는 곳이라기보다 오히려 상처 받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더욱더 사랑의 불타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 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의 불타는 위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오래 전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랑하는 저희 교회 영어사역 전도사님의 사임으로 말미암아 아픔과 눈물 속에서 제 자신이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 받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 지금 오늘 본문에 비추어 뒤돌아 볼 대에 "어떻게 하면 목회자가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영적 자력'을 키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가 스스로 위로하지 못하면 주님이 맡겨 주신 양떼들을 위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엔 사람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면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 받기를 거부(refused to be comforted)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 아픔과 괴로움이 커서 우리 자신이 견디지 못할 때에 우리는 자포자기할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스스로 더 낙심하며 더

실망하여 더 아프게 하면서까지 괴로움과 상처 속에서 거하기를 자연스럽게 여기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기자는 "곤란 중"(시119:50)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위로하였"습니다(52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시편 119편 49-5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시편 기자처럼 스스로 위로하는 영적 자력을 키울 것인지 그 해답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스스로 위로하는 영적 자력을 키우기 위해서 꼭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교만한 자로 하여금 우리 영혼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기자는 교만한 자가 자기를 "심히 조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51절). 그 교만한 자의 악한 의도 혹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은 시편 기자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51절). 이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계략입니까. 마치 악한 사람이 물고기를 어항에서 끄집어내어 죽이려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말씀의 어항에서 끄집어내고 죽이려고 교만한 자를 사용하여 우리를 심하게 조롱합니다. 그 교만한 자의 심한 조롱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시편 14장 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특히 우리는 시편기자처럼 곤란 중에 있을 때 어리석게도 교만한 자의 조롱처럼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 고통 중에서 건져 주시지 않는 것인가?', '왜 내가 이러한 아픔과 상처를 입어야 하는가?' 라고 말하는 경향을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면서 사람과 환경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그러면 에서 우리는 곤란 중에 우리의 교만함이 들어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그의 도우시는 손길을 거부하며 우리가 당연한 고통과 환경으로 하여금 우리 영혼을 지배하도록 방관합니다. 결국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는 경향을 우리의 곤란

중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곤란 당시에는 보지 못하고 멍하게 하루하루를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동역자의
사임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멍하게 아픔과 눈물 속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말씀으로 하여금 제 마음을 주장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는 멍하게 하루하루 약 3주를 보냈습니다. 결국 사탄은 고통과 아픔,
괴로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잊게 하므로 말미암아 영적 치매 증세를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 자기 자신을 더욱더 낙심케 하며 슬프게 합니다.
우리는 결코 사탄으로 하여금 교만한 자의 조롱을 사용하여 우리의 영혼에게 말하는 것을
경계하며 막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영적 자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스스로 위로하는 영적 자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첫째로 꼭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119:49,
52, 55).

시편 기자는 주님의 "옛 규례"를 기억하므로 스스로 위로하였습니다(52절). 여기서
"옛 규례"란 오래전부터 참된 것으로 드러나 있고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즉, 시편 기자는 그의 과거의 삶 속에서부터 참된 것으로
드러났고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승리장로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을 곤란 중에 기억하면서 약 1년 5개월 동안 주님께서 신실하게
주님의 몸 된 교회인 승리장로교회를 이모저모로 세우셨던 증거들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성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혼에 참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말씀(주님의 약속의 말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시119:50).

우리는 너무나 앞만 바라보면 분주하게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목표와 성공 등등을 추구하면 열심히 달려가다가 시편 기자처럼 곤란이나 역경을 당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곤란을 통하여 나보러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아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셨는지 발자취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구나.' 우리는 너무나 앞만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분주하게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곤란은 유익한 것이라 생각합니다(71절). 뒤를 돌아보는 시간, 그러나 과거의 아픈 상처나 안 좋은 추억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발자취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밤"(55절)에, 우리의 마음이 어둡게 하는 고통과 아픈 일들이 계속 몰려 올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며 붙잡아야 합니다.

(2) 둘째로 스스로 위로하는 영적 자력을 키우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49절을 보면 시편기자는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그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있죠? 그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곤란 중에

잊어버릴 때가 많은 뿐입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께 간구하면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지금 그에겐 그 약속의 말씀만이 주님께서 그로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극심한 곤란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의 빛이 더욱더 소망 차게 발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극심한 어둠 속에서 빛이 더욱더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시편 기자처럼 큰 고통과 아픔 중에서 엎드려 주님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데 소망이 없음을 극심한 곤란과 고통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고 알게 되었기에 오직 소망은 주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뿐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 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는 외로운 영혼을 고독의 동산에서 소망의 말씀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소생시키며 부흥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3) 마지막 셋째로 꼭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법도(계명)를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극심한 곤란 중에 있더라고 주님의 법도를 떠나지 말고 오히려 그 법도를 더욱더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계락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기도로 영적 파워를 얻어 말씀 실천에 앞장서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법(도)를 지켰습니다(55, 56절). 더 나아가서, 그는 주님의 법도를 지킨 것이 가지의 소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56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듣고 배우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시편 기자는 곤란 중에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편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성에 이끌려 주님의 계명대로 실천하며 살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곤란과 고통,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특히 주님의 몸이라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고통과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곤란"을 유익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기자처럼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영적 자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기자처럼 스스로 위로하는 영적 자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나바처럼 진정한 위로자의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스스로 위로하는 영적 자력을 키우는 "곤란"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목사 나눔

(다시금 사랑의 불타는 위로자로 세워주시는 주님께 수요기도회 때 간구를 드린 후)

제 119편: 나로 소망이 있게 하신 주님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시편 119편 49-50절).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Happy New Year” 하십시오. 진심으로 우리 승리장로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새해에는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새해 한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에 세계적으로 어떠한 일이 계속 지속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에게겐 새해가 그리 희망찬 새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새해를 맞이하여 이 한해를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겐 새해가 희망찬 새해라기보다 낙망과 절망의 새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소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새해 이런저런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 삶에서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119편49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편 기자만 소망 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개개인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승리장로교회적으로 붙잡는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16장18절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시편119편5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저 또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승리장로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그 약속의 말씀은 제 낙심되고 좌절된 영혼도 다시 소성케 하십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새해에 우리 승리교회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비록 새해가 경제적으로 온 세계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한 해로 뉴스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 승리 식구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므로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곤란과 역경이 이 새해에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므로 스스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52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소성케 하며 부흥케 하는 역사가 금년에 더욱더 충만히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롬12:12)]

제 119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시편 119편 49-56절]

어제 저희 교회 말씀 집회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감사 목사님을 통하여 저를 책망하셨고, 깨달음을 주셨으며 또한 권면하셨습니다. 권면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믿음이 총만한 착한 사람 바나바처럼 지도자를 세우는 비전을 품고 계속해서 나아가길 권면하셨습니다(행11:25-26). 권면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또한 힘을 주셔서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이 저(또한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에 이끌림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더욱더 수고하되 한 영혼, 영혼의 가능성을 보고 가능성 있는 지도자를 발굴하여 주님이 그들을 세우는 사역에 겸손히 동참하길 원합니다. 지도자들을 세우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과 죄악과 이 세상과 사단과 죽음과 싸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세우는 사역에 전심전력하길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시편 119편 49-56절 말씀 중심으로 한 4 가지로 생각하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망”으로 삼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 49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곤란 중에” 있었습니다(50절). 교만한 자들이 그를 심히 조롱하였습니다(51절). 조롱한 목적은 시편 기자로 하여금 주님의 법을 떠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51절). 그리고 시편 기자는 주님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인하여(53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통 중에서 그는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되 그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49절).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잊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곤란 중에 있었을 때 주님의 옛 규례를 자기 스스로 기억하였습니다(5절). 그리고 그는 밤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켰습니다(55절).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49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곤란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또한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위로’로 삼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 50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곤란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의 옛 규례를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습니다(52절).

여기서 "옛 규례"란 오래전부터 참된 것으로 드러나 있고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즉, 시편기자는 그의 과거의 삶 속에서부터 참된 것으로 드러났고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성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혼에 참된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영적 자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소망”으로 삼아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49절). 그리고 그는 “나의 소망”이 되신 신실하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고통 중에 있는 그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50절) 우리는 우리의 위안이 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76절).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노래”로 삼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 54절을 보십시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곤란 중에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노래”로 삼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리되 그는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노래로 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는 나그네에게 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집이 있어도 그것은 임시적일 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영원한 집인 천성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노래로 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예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노래를 기도로 삼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합3장). 마치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므로(행16:25)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감옥에서 건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간수의 영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노래로 삼아 하나님께 간구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유’로 만듭니다.

성경 시편 119편 56절을 보십시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곤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소망과 위로와 노래로 삼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기회로 삼되 그는 자신의 삶의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 심비에 깊이 적어 내려가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제 인생의 최대 위기였던 첫째 아기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시편 63편 3절 말씀을 제 마음에 깊이 적으셨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저의 첫째 아기 주영이의 55일의 삶보다 나으므로 제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굉장하고 놀라운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제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금 묵상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제 마음 심비에 그 말씀을 깊이깊이 적어 내려가고 계십니다. “나의 소유”가 된 시편 63편 3절과 요한복음 6장 1-15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저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유”와 ‘나의 위로’와 “나의 노래” 그리고 ‘나의 소유’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승리의 찬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들을 세워 이 세상에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승리장로교회 설립 기념 말씀 집회를 준비하면서 시편 119편을 통하여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119편: 나의 소유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 이다"(시편 119장 56절).

새해를 맞이하여 승리장로교회 한국어 예배 시간 때에 입례 송으로 복음 성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2절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란 말을 생각하면 물질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소유"란 말의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의 소유"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법도를 아는 것이 자기의 소유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법도를 지킨 것이 자기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편 기자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 즉 말씀 인격화 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문맥 49절에서 51절에 근거하여 시편 기자의 말씀 인격화 된 삶을 조명해 본다면 한 3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시편 기자는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 4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왜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로 소망이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49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로마서 4장 1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Against all hope) 바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인 “네 후손이 이같이이라”는 말씀(18절)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21절). 즉, 약속에 이끌림을 받는 삶(the promised word-driven life)이야 말로 말씀 인격화 되는 삶을 사는 비결이요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되는 비결입니다.

둘째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삼았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 5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의 위로를 거절 할 수밖에 없는 곤란 중에서 주님의 위로만을 구하려고 고독의 자리에서 몸 부리 치며 눈물로 통곡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십니다. 저에겐 요한복음 6장1-15절 말씀인 오병이어의 약속의 말씀이 제일 큰 위로가 됩니다. 쓰러지고 자빠져 낙심하여 어느 누구도 일으켜 세워주지 못할 때, 또한 어느 누구의 위로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오병이어의 약속의 말씀이 저를 살리시고(시119:50) 일으켜 주시므로 말미암아 오늘 날까지 오뚝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 살았던 이유는 그 말씀이 그를 살리는 부흥(revival)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이 나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 5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가 그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시편 기자는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원리를 생각할 때에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려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을 때에(요 6:66)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67절)고 말씀하시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68절).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믿기가 힘들어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맛보지 못하므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보다 순간적인 사단의 가짜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과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조차 영생의 말씀보다 '이생의 말'을 선포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주었고 곤란 중에 위로와 더불어 그를 소생케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 인격화 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나의 소유"가 되어 그 삶을 주님께 받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받치는 것이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다 받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위로를 받으면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즉, 우리는 약속이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다가 주일 주님의 전에 올라와 말씀 인격화 된 우리의 삶과 더불어 안에서부터 밖으로 표현되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우리의 귀(말씀 경청)를 주님께 그 모습 그 대로 바쳐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주님께 늘 바치며 목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제임스 목사 나눔

(말씀 인격화 되는 삶을 추구하면서)

시편 119편: 네 발을 돌이키라!

[시편 119편 57-64절]

아담 클락(Adam Clark)은 경건 생활의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결심은 시작을 잘하게 하고, 기도는 경건을 계속하게 하고, 반성은 실수를 교정시킨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경건 생활에 있어서 반성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영적 거울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들춰지는 죄들을 인정하며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은 경건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중 시편 119편 59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네 발을 돌이키라!”는 제목 아래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발을 돌이킬 것인지 두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5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의 행위를 생각하였습니다. 생각하는 가운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7가지 점검 목록(check list)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 (1)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57절) 지키는데 게을리 하고 있지 않는가?(60절)
- (2)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58절)
- (3) 주님의 법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61절)

- (4)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62절)
- (5)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가?(63절)
- (6)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을 친구로 삼고 있는가?(63절)
- (7) 주님의 인자하심에 충만한가?(64절)

이 점검 목록들의 질문들을 우리 각자 자신들에게 던져보면서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자아성찰 가운데 자아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증거로 우리의 발을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5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약속한 후(57절),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58절). 그리고 나서 그는 지체지 않고 주님의 계명을 신속히 지켰습니다(60절). 즉, 시편 기자는 결심하고 기도한 후 신속히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행위를 자세히 살펴본 후 결심하고 기도한 신속히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신속히 행할 때에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혹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61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비에 더 깊이 적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루 일과를 밤중에 뒤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62절) 주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 나아가야 합니다(64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자들을 친구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63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행위를 부지런히 비춰보는데 헌신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배운 말씀을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로 세움 받길 기원하면서)

시편 119편: 마음에 지방을 제거하라!

“저희 마음은 살찌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시편 119편 70절).

과연 심장에도 지방이 끼어 비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분당서울대병원 내과 임수내과 교수에 의하면 복부에 지방이 쌓여 비만이 생기듯 심장에도 지방이 끼어 비만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 비만'이 있으면 신체 전체적으로는 비만이 아니라도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인터넷). 문제는 심장근육이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므로 직접적으로 심장지방을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심장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상체중을 유지하고, 염분이나 포화지방 섭취를 되도록 삼가고, 신선한 채소와 잡곡, 콩류 등 섬유소를 많이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인터넷).

오늘 성경 시편 119편 70절을 보면 ‘심장 비만’에 걸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마음이 지방으로 덮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이요 거짓을 지어 시편 기자를 치려 하는 자들입니다(69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적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음에 지방으로 덮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마음에 지방이 생겨 교만하고 거짓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지방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주님의 법도를 즐거워하지 않고(70절) 또한 주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69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마음에 지방이 생겨 교만하고 거짓된 이유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11절). 우리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있지 않기에 우리 마음에 지방이 생기는 것입니다(56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떠나(10절) 주님께 범죄 하는 것입니다(11절).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탐욕으로 향하는 것입니다(36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지방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에 지방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에게서 유익한 고난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괴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75절). 그 이유는 우리는 유익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릇 행한 것을 깨닫고(67절) 주님의 율례를 배우므로(71절)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67절).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워해야 합니다(70절).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해야 합니다(97절).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고 명철해야 합니다(98-99절). 그래야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여 거짓은 버리고 진리를 택하여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비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지방이 없어지고 오히려 우리 마음에 영적 근육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영적 근육이 생길 때 교만함과 거짓됨 등 모든 죄악들을 뿌리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대적 자들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마음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하나님께 범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 지방을 제거하는데 헌신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마음에 영적 근육을 강화하길 기원하면서)

제 119편: 고난의 유익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다”(시편 119편 71-72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도 심히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뉴스를 인터넷 CNN 뉴스를 통해서 접해 들었습니다. 34살 난 아버지가 자기의 8살 난 딸과 9살 난 딸의 친구 여자 아이를 칼로 각각 20번과 11번 찔러서 죽인 사건이 시카고에 좀 떨어진 소도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것은 이 아버지란 자라 딸의 양 눈까지도 칼로 찔렀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악 중의 악이 아닌가 생각하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노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인간인가?', '과연 아빠의 자격이 있는가?'

자동차 운전하려면 운전 면허증을 따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되는 일에는 자격증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공부하는 것도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자기의 딸의 머리를 때려 거실에서 죽도록 이틀을 놓아두었다는 엄마, 결국 예쁜 딸아이의 목까지 잘려서 버려진 사건을 뉴스로 접한 기억이 오늘 이 밤에 또 납니다. 과연 우리 부모들은 부모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면 우리 남자들은 남편과 아버지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하다'란 헬라어 의미는 'narrow', 즉 '좁다'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즉, 우리 남편 또는 아버지들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즉 십자가의 길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아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고의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고난의 아픔과 고통 외에 고난의 유익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난의 유익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에 믿음으로 고난의 통로를 인내하면서 견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시편 119편 65-72절 말씀 중심으로 "고난의 유익"이란 제목 아래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고난의 유익은 나의 그릇 행함을 깨우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6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우리는 고난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릇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그릇행할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때에 우리는 영적 장님과 귀머거리가 되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우왕좌왕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 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마치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을 양치기 소년이 막대기로 쳐서 바른 길로 걷게 하듯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고난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시사 비뚤어가는 우리를 바른 길로 걷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 "(사53:6). 우리는 미련한 양이래서 제 길가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좁은 길이 아닌 세상의 넓은 길을 말입니다. 그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릇 행함을 깨우쳐 줍니다.

마지막 둘째로, 고난의 유익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6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여섯 가지로 고난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을 믿게 합니다.

성경 시편 110편 6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릇 행함을 깨우쳐 주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U-turn을 만들게 하므로 주님의 계명만이 참된 길임을 믿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 둘 중의 하나의 길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좁은 길 아니면 세상의
넓은 길.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좇던지 아니면 사탄의 또는 세상의
말을 좇던지 둘 중의 하나의 선택을 매일 순간 순간하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사랑의
징계로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주님의 길, 주님의 계명을 믿고 그 계명의 길을
걷게 합니다.

(2) 고난은 우리에게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 시편 119편 6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명철, 즉 선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무지한 가운데서 그릇된 길을 걷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분별력 상실이란 영적 상태는
확신(conviction)이 아니 혼동(confusion)을 가지고 옵니다. 결국 주님의 계명의 길을

일관성(consistent)있게 걷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길, 혼동의 길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무지함과 선한 분별력의 상실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결국은 선한 영적 분별력과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시므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십니다.

(3)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6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고난을 통하여 맛보는 주님의 선하심(34:8) 중 제일 큰 유익 혹은 축복은 고난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롬8:28) 좋으신(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제일 힘들고 괴롭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극심한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밝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극심한 고난 중에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4)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자의 거짓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성경 시편 119편 6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교만한 자의 거짓이 우리 귀에 너무나 분명하게 잘 들려서 그 교만한 자의 거짓된 길을 걸을 때가 수 없이 많습니다. 세상의 교만한 자들의 거짓, 너무나 진리같이 생각되어 그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릇된 길을 선택하는 혼동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지금 그 거짓된 길을 분주하게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교만한 자들이 보여주는 거짓된 성공과 명예와 물질 만능주의의 길 ... 그러나 고난을 당한 후에는 그 모든 교만한 자의 거짓된 길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 참된 길, 주님의 길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이 얼마나 세상의 길의 결국과 다릅니까? 영적 매력을 느끼십니까? 우리의 가는 좁은 길의 climax가 죽음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영적 매력을 느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력을 느끼십니까? 이러한 진리는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에 이러한 진리를 사수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 이 진리를 심고 계십니다. 그 심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교만한 자의 거짓을 미워하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5) 고난은 마음에 살찐 지방(fat)을 제거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70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저희 마음은 살찐 지방 같으나 ...". 요즘 미국에서는 비만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빼겠다고 다이어트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살찐 지방"을 제거하고자 수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살찐 지방"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참하면서 "마음에 살찐 지방"은 제거하는데 노력은커녕 마음에 살찐 지방을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살찐 지방"이 붙어있으면 얼마나 이런 저런 불편함과 더불어 결국 이런 저런 성인병까지 걸립니까? 그러나 마음의 살찐 지방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최악된 결과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최악된 결과를 가볍게 여기며 누리는 더 큰 죄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에서 고난이란 것은 마음에 살찐 지방을 제거하는데 필수적인 또는 최고의 약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마음에 살찐 지방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6)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해 줍니다.

성경 시편 119편 72절을 보십시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 고난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신8:3)을 알려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많고 다양한
고난들을 접하면서 결국 그 고난 중에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가치란 것은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영원한 말씀과 이 땅에서의 우리
인간의 생명 연수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재물보다 이러한
말씀의 소중함 또는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사회적으로 어지러운 세상, 점점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세상,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좁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전보다 또한 현재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유익들을 고난당하는 그 때 그
때마다 경험하는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고난이 올지라도 오히려 고난의
유익 혹은 고난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고난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기자가
65절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심을 경험하며 그의
선하심을 맛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God is so good)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유익을 누릴 줄 아는 고난의 사람이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목사 나눔

(수요기도회 때 이 말씀을 선포한 후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서)

제 119편: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라!

[시편 119편 73-80절]

기다림이란 미덕입니다. 특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입니다. 소망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구원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19편 74절을 보면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인인 시편 기자의 모습을 봅니다: “주를 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라!”는 제목 아래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한 2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알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7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 우리는 주님의 판단이 의로우심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교만한 자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만한 자들은 시편 기자를 무고히 엮드러뜨렸습니다(78절). 그리할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74, 79절) 주님의 법을 순종하였습니다(77, 80절). 그러므로 그는 주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의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78절),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80절).

(2)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심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은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기자는 교만한 자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온전하신 뜻을 성실하게 이뤄 나아가실 줄 믿었습니다(75절).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훈련시키시되 특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한 5가지 기도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76절을 보십시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시편 기자는 괴로움 가운데서 어느 누구의 위로보다 주님의 위로를 원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자기의 위한(“나의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보다 나은 주님의 인자하심(시63:3)을 우리의 위안으로 삼고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2)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77절을 보십시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우리는 괴로울 때 시편 기자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의 위안”으로 삼고 또한 주님의 법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므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우리는 주님의 공의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78절을 보십시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앞드러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목상하리이다.” 시편 기자의 고난의 원인은 바로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78절). 그들은 무고히 시편 기자를 앞드러뜨렸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한 괴롭힘 가운데서 오히려 시편 기자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배우길 원했으며(73절) 또한 그 말씀을 목상했습니다(78절). 그리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던 시편 기자는 주님의 공의를 구하였습니다. 곧, 그는 교만한 자들로 수치를 당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4) 우리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79절을 보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시편 기자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님의 경외하는 신앙의 동지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고난 때에 이 얼마나 서로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러한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동지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사 그러한 신앙의 동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우리는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 함께 난관을 잘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5) 우리는 주님의 완전케 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80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괴로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자기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케 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고난과 괴로움을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온전케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고통과 괴로운 상황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온전케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되 우리는 알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판단이 의로우심을 알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그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을 알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긍휼과 공의와 공급하심 그리고 주님의 완전케 하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진리를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 인내하길 기원하면서)

시편 119편: '주님, 언제나 저를 위로하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81-88절]

여러분은 인내의 한계를 느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하나요?'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임한 고통과 역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까지인가요?"(How long?)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그분의 구원을 사모하였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다"(82절)[(현대인의 성경) "내가 '주는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겠습니까?'하고 주의 약속의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내 눈이 피로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주님, 언제나 저를 위로하시겠습니까?'란 제목 아래 '인내의 한계'(Limitation of Endurance)와 '인내의 도전'(Challenge of Endurance)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내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시편 119편 81-82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현대인의 성경)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다가 지쳤으나 그래도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는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겠습니까?’ 하고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내 눈이 피로해졌습니다”]. 시편 기자는 피곤하였습니다. 그는 지치고 피로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시편 기자는 원수들의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84절). 그를 핍박하였던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85절). 그리고 그들은 “이유 없이” 시편 기자를 핍박하되(86절) 그들은 시편 기자를 해하려고 웅덩이(함정)를 팠습니다(85절). 즉, 그들은 시편 기자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편 기자를 “거의 멸하였”습니다(87절). 즉, 그들은 시편 기자를 “거의 죽이다시피 했”습니다(87절,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였고(81절)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바랬지만(82절)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곤하고(지치고)(81절) 또한 피곤(피로)하였습니다(82절).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가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더욱더 나빠질 때에 우리는 영육 간에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참으로 위험한 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리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도 없으신 것 같고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참고 참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지친 상태에서 낙심하고 심지어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교만한 원수들이 우리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시42:10)라고 계속해서 비방 할 때 우리는 충분히 낙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교만한 원수들을 벌하실까?’(84절, 현대인의 성경)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충분히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려도 기도 응답은 없어 우리의 영혼이 불안하고 낙심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주님, 언제나 저를 위로하시겠습니까?’라고 부르짖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인내의 도전입니다.

둘째로, 인내의 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다가 지쳤을 때(81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위로는 더디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우리의 눈이 피로해졌을 때(82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내가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83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이유 없이 핍박하고 우리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딜 때(84-86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지어 그들이 “나를 거의 죽이다시피 했”을 때(87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인내의 도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다가 지쳐도 “그래도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81절,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주의 계명은 신뢰할 만”하기 때문입니다(86절, 현대인의 성경). 또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82절, 현대인의 성경) 피곤해져도 “그래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83절). 교만한 우리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우리를 핍박해서 우리를 거의 죽이다시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의 교훈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87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할 때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다시 살아나게(소성계) 될 것입니다(88절). 그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법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88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고 오래 참으심은 결코 무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모든 시간은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가장 귀하게 사용됩니다(박윤선). 비록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안위와 도움이 더디어 보이므로 ‘주님, 언제 저를 위로하시겠습니까?’, ‘주님, 언제나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까?’, ‘주님 언제 저를 건져(구원해)주실 것입니까?’라는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주님의 신실한 계명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그 말씀을 버리자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인내해야 합니다. 비록 인내의 한계를 느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갈망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위로의 성령님께서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인내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 더욱더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것(딤후1:16)을 기억하면서]

제 119편: “나의 즐거움”

[시편 119편 89-96절]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특히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시편 119편 9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나의 즐거움”이란 제목 아래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해야 하며 또한 즐거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즐거워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나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의 즐거움은 “주의 법”이었습니다(92절). 그는 그의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법을 즐거워했습니다(92절). 그러므로 그는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93절).

둘째로, 우리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 시편 기자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위해선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95절을 보십시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시편 기자는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볼 때 주님의 법을 부지런히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심이”기 때문입니다(93절).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합니다. 위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부지런히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2) 시편 기자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위해선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94절을 보십시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시편 기자가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위해선 그 법을 찾았으며 그 주님의 법도를 찾은 이유는 바로 주님의 구원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신자는 그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둡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을 잊지 않고 찾습니다(93-94절). 고난 중에 소망은 주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주님의 말씀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난에서 건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의 법을 생각하고 찾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기자가 주님의 법을 생각하고 찾은 결과는 한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시편 기자는 주님의 법을 생각하고 찾으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계명이 심히 넓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9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는 고난 중에 주님의 법을 생각하고 찾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자신의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란 것은 주님의 심히 넓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넓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8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주님의 법을 생각하고 찾으므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넓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찾으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찾은 후,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말씀 묵상을 즐거워하면서)

제 119편: 명철한 자

[시편 119편 97-104절]

오늘 '미주복음신문에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있어 나눕니다. 미주지역 전역에 3천여 개의 한인교회의 담임목사 3천 338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한 결과 이중 응답한 333명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민목회의 어려움에 대해 제일 큰 어려움을 '목회자와 교인간의 갈등'(21.35%)을 꼽았다고 합니다. 왜 목회자와 교인간의 갈등이 저 같은 목회자들의 제일 큰 어려움인가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우리 목회자들이 대인관계 기술이나 문제 혹은 갈등 해결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에 비춰서 생각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명철하지 못해서 이런 갈등이 목회의 큰 어려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철"(understanding 혹은 insight)이란 "relates to intelligent knowledge of the reason"(이성의 지능적인 지식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한 성경 사전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명철"이란 "wise dealing and use of good practical common sense"(지혜로운 거래와 좋은 실용적인 상식을 사용하는 것)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호4:6).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제사장"들, 즉 현대 말로 한다면 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세상 지식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목회를 하나님의 말씀 원리대로 하기보다 세상 적 원리와 방법이 혼합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 즉 명철의 결핍 때문입니다. 좋은 실천적인 상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목회자들, 그 결과 중 하나가 목회자들과 교인들과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줄 깨달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철함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을 아는 것과 (2)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줄 깨달는 것. 이러한 지식과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철함을 지닌 목회자로 또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명철한 자"는 누구인가, 혹은 명철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명철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99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므로 자기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갔고 또한 주님의 행하심도 알아갔습니다. 이 두 가지 묵상의 열매를 맛본 시편 기자는 자기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었습니다(98절).

우리가 매일 매일 살아가면서 원수 사탄의 유혹을 수시로 접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물론 그 지혜는 빼놓아진 지혜이기 하지만서도 그는 우리보다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또한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는 그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돌려 트러 우리에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계락에 빠져 그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비뚤어트리도록 놓아두면 아니 됩니다. 이 지적 싸움 혹은 마인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인드를 마치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하듯이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케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어 그와 싸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명철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97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였던 시편 기자, 그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절대 지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매우("어찌 그리")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측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말씀은 주님을 사랑했음을 말해주며 그러기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철했던 시편 기자는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했었고 또한 그 주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더욱더 경험하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알고 있던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많은 설교와 성경공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또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 말로 안다고 자칭하는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은 과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아 반성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명철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0절을 보십시오: "주의 법도를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다." 이것은 의지적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적으로만 또한 감정적으로만 대한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헌신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씀을 지키려고 헌신했는지 한
3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는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우리는 매일 매일 결정을 내리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은 우리의 신앙에 이끌림을 받아 내린 결정인가하면 너무나
많은 때에는 불신앙과 사탄에 유혹에 이끌림을 받아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마치 우리 앞에 하나의 진리의 길과 아흔 아홉 개의 사탄의 유혹의 길
혹은 거짓된 길이 놓여 있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너무나 사탄의 유혹의 길들, 거짓된
길들이 우리 육안에 잘 보입니다. 너무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아흔 아홉 개의 사탄의 유혹의 길 혹은 거짓된 길"입니다.
통계학적으로도 하나의 진리의 길보다 아흔 아홉 개 사탄의 거짓된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때에 사탄의 거짓된
길들에 발을 한발자국 내려놓고 죄책감 속에서 허덕이며 혼동 상태에서 헤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기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악한 길"에 발을 내려
놓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자신의 발을 금하였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능력 소유자 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철한 자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그는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얼마나 수없이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까? 감정 표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적절한 면들이 얼마나 수 없이 많습니까? 물고기가 어항(물)을 떠나 살 수 없다는 상식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 살 수 없다는 영원한 진리는 무시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말씀과 우리의 하루하루 삶과 분리된 영적 상태에서 우리는 오늘도 숨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자아 성찰해야 합니다. 시편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102절). 인생의 종착점에 내릴 때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3) 그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4절을 보십시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시편 기자,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했던 시편 기자는 그 생각과 마음에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지, 정, 의)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에 흠뻑 젖어(몰두되어)(saturated)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즉,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이 침투할 수 없는 진리를 사랑하는 신앙인,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신앙인 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에 헌신을 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 103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단 맛을 아는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하여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데 헌신한 시편 기자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던 신앙인 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명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시편 기자처럼 명철한 자가 되어 말씀을 지키는 자의 생활의 행복함을 늘 경험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우둔한 자로 하여금 명철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길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어리석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뻑 젖길 기원하면서)

제 119편: 끝까지 행하십시오!

[시편 119편 105-112절]

저는 오늘 새벽기도회 때 전도서 7장8절을 묵상했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의 끝입니다. 그 이유는 일의 시작이 아무리 거창하고 아름다웠을지라도 끝을 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좀 끝장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 합니다. 시작만 거창하게 하고 끝장을 보지 못한다면 그 시작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19편 11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행하십시오!”라는 제목 아래 주님의 계명을 끝까지 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다섯 가지로 마음을 기울여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끝까지 행하기 위해선 그 계명을 지키기로 맹세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6절을 보십시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맹세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에 있어서는 맹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요6:68).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과 같은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시119:105).

둘째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끝까지 행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7절을 보십시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언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는 “고난이 막심”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막심한 고난이라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0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 시편 기자는 악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생명의 위경에 있었습니다(109절). 이러한 생명의 위경에 있는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107절). 그는 믿음대로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의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108절). 그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만큼 그의 심령에 기쁨이 있어서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끝까지 행하기 위해선 주님의 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9절을 보십시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생명이 위험할 때에라도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는 생사의 갈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경에 지배를 받아 우리의 믿음을 저 버리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길을 걸으면서 등불을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넷째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끝까지 행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업을 삼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111절을 보십시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 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기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즐거움은 주님의 말씀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음에 신적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즐거움을 충만히 누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끝까지 행하기 위해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1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행하기 위해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막심한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지배를 받아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행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기업을 삼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계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말씀의 지배를 받아 이끌림을 받길 기원하면서)

제 119편: 사랑과 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합시다!

[시편 119편 113-120절]

성경은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를 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분명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가 어쩔 때는 "아니오"가 될 수 있고 또한 "아니오"가 어쩔 때는 "예"가 될 수도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예"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예"는 해놓고 행동은 "아니오"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의 불순종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말씀대로 "아니오"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젠 "예"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죄를 범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얀색과 검은색 보다 회색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말씀 순종의 삶은 사랑하며 세상의 죄악을 미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왕상18:21). 지금 우리는 뭔가 분명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할 것은 사랑하고 미워할 것은 미워하는 분명한 사랑과 미움의 대상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의 시편기자는 사랑과 미움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했고 "주의 법"은 사랑했습니다(113절).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이러한 분명한 선을 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을 굽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회색지대'에서의 삶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회색지대에서의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 이 세상에서 문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색깔이 분명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우상이면 우상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기자의 분명한 사랑의 대상과 미움의 대상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사랑과 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시편기자의 사랑의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13-120절을 보면 우리는 시편 기자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 주님이 사랑의 대상이었기에 주님의 말씀 또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지 한 4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그는 주님의 말씀에 항상 주의합니다.

오늘 본문 1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중요시 여겼습니다.

(2)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 1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기키리로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중요시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킵니다.

(3) 그는 주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다보면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주님을 우리의 "은신처"와 "방패"로 삼아(114절) 그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뒀야 합니다(116절).

(4) 그는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바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16-117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중요시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과 위험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은신처와 방패가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바래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116절)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117절).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바 되면 그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기자의 미움의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미움의 대상은 "두 마음 품은 자"였습니다(113절). "두 마음 품은 자"는 누구입니까? 성경 야고보서 1장 6-8절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의심하는 자'를 가리켜 두 마음을 품은 자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닌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얼마나 의심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습니다(8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두 마음을 품음을 미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13절 문맥 속에서의 "두 마음 품는 자"는 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1) 두 마음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요 주님의 말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자들, 즉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다 멸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18절). 이들은 궤사를 일삼는 자들로서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2) 두 마음 품는 자들은 행악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15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너희 행악자여 …." 주님의 말씀을 떠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당연히 행악을 일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행악 자들을 미워합니다.

(3) 두 마음 품는 자들은 악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119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끼같이 버리시니 …." 주님이 사랑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을 미움의 대상으로 분명히 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사 선택한 우리의 "찌끼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사1:25).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까? 악인들은 찌끼같이 버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찌끼를 지니고 있는 우리는 온전히 청결케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랑과 미움의 대상을 혼동하여 찌끼 같은 인생을 살며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잡 물"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대상과 미움의 대상을 섞어서 회색지대에서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뜨거우면 뜨겁던지 차가우면 차가되어야지 우리는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과 미움의 대상을 선택하여 분명한 선을 긋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찌끼 같은 인생을 온전히 정결케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사랑과 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신앙생활을 다짐하면서)

제119편: “지금은 여호와와 일하실 때입니다”

[시편 119편 121-128절]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은혜를 지키는 때요 받은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때라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 받은 은혜를 잘 지키면서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더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19편 126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와 일하실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지금은 어떠한 때입니까? (2)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지금은 어떠한 때입니까?

한 2가지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지금은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는 때입니다(126절).

지금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과 의를 행하는 자를 압박하는 때입니다(121절). 다시 말하면, 주님의 종(125절)을 교만한 자들이 압박하는 때입니다(122절).

(2) 지금은 여호와와 일하실 때입니다(126절).

여기서 “여호와와 일”이란 두 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a) 첫째로, “여호와와 일”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박윤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어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과 의를 행하는 성도들을 압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b) 둘째로, “여호와와 일”이란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23절을 보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교만한 압박자들이 주님의 법도를 폐하는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피곤한 때’입니다. 물론 압박 자체로도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주님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이 때야 말로 주님의 구원과 말씀을 사모하며 구하는 기도의 때입니다.

둘째로, 과연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법을 폐하는 이 때,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과 의를 행하는 우리를 압박하며 교만한 자들이 주님의 종들을 압박하는 이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1)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2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니이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때에 주님의 계명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이 때,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므로 압박을 받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계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므로 오는 이 세상의 핍박과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에서 멀리 떠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지키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2) 우리는 범사에 주님의 법도(계명)를 바르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2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이 때, 그 계명을 바르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른 계명에서 어긋나는 모든 거짓된 행위를 미워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계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때에 범사에 주님의 계명을 바르게 여겨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여기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여기면서)

제 119편: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

[시편 119편 129-136절]

한 길을 신실하게 끝까지 걷는다는 것,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 길을 계속 끝까지 신실하게 걷기보다 이런 저런 인생의 미혹의 길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걸음에는 좀 견고함이 필요합니다. 좀 묵묵히 한 길을 걷는 견고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음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행보를 더욱더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넓은 길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19편 133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란 제목 아래 한 2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왜 우리는 우리의 행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야 합니까?, (2)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행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왜 우리는 우리의 행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야 합니까?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1)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언제 죄악이 우리를 주장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죄를 범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여기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희 여기므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현상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도 봅니다. 이러한 현상의 결과를 바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그 말씀에 주장을 받기보다 우리의 옛 본능인 죄악으로 하여금 주장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악으로 우리를 주장케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므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주장케 해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더욱더 사랑하므로 그 계명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2) 우리가 우리의 행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압박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34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므로 우리에게 오는 압박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지 안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압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므로 하나님께 범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에게 몰아닥치는 압박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보를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압박에서 건져주심도 물론 구원이지만 압박으로 인해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행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29-136절에서 한 3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우리의 행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둔한 자가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0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달게 하나이다.” 여기서 “우둔한 자”(the simple)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로서 일편단심 하나님만 공경하려는 신자를 가리킵니다(마11:25; 시27:4)(박윤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unfolding) 깨달음(understanding)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행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울 수 있습니다.

(2) 우리는 우리의 행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입을 크게 열고 헐떡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3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므로 입을 열고

혈떡였나이다.” 이것은 사람이 공기를 호흡하지 않으면 죽겠기 때문에 호흡하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면 죽을 줄 알고 사모하였습니다(박윤선).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입을 열고 좀 혈떡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먹지 않고는 죽는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좀 생존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3) 우리가 우리의 행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기이한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29절을 보십시오: “주의 증거가 기이하므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증거의 기이함을 경험하고 있었기에 주님의 계명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의 행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려고 힘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게을리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주님의 말씀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135절).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지키는 자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136절).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므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132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의 압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둔한 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일편단심 주님만 공경하는 마음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을 크게 열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천성을 향한 나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 나아가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길 기원하면서)

제119편: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을 때

[시편 119편 137-144절]

우리에게 환난과 우환이 미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성경 시편 119편 143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환난과 우환이 미쳤을 때 어떻게 하였기에 그는 주님의 계명을 자신의 즐거움이 되었는지 한 3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받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시편 기자처럼 환난과 우환 가운데서도 주님의 계명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환난과 우환이 우리에게 미칠 때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13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환난과 우환 속에서 우리는 정직하기보다 거짓말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 그 당시 환난과 우환을 거짓말로 빠져 나아가기가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환난과 우환이 미칠 때 정직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 자체가 주님의 의로우심에 덧 입혀져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의로우심 속에서 정직함이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법은 진리입니다(142절).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격화 되어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코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 정직을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둘째로, 환난과 우환이 미칠 때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138절을 보십시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환난과 우환 속에서 정직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성실한 것은 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난과 우환 속에서 성실함이란 인내 또는 견딜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성실하였습니다. 비록 그의 대적들로 인하여(139절) 환난과 우환 속에 있었을지라도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에 성신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139절).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말씀의 “지극히 성실”함(138절)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맛보고 있었기에 그 성실함 속에서 허락된 인생의 환난과 우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견고히 신뢰하였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견고히 신뢰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환난과 우환 속에서 더욱더 그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환난과 우환이 미칠 때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140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는 심히 정미한 주님의 말씀(very pure word of God)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심히 정미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마치 용광로에서 금을 녹이므로 정금을 생산하듯이 인생의 환난과 우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심히 정미한 말씀으로 정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까? 환난과 우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미해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우리의 마음과 인격 ... 그러기에 우리 또한 시편 기자처럼 환난과 우환 속에서도 주님의 계명을 우리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밀어 닥치는 환난과 우환 속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롭고 성실한 말씀을 우리는 성실히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심히 정미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144절).

환난과 우환이 미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즐거움으로 더욱더 삼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정직과 성실과 사랑을 추구하면서)

제 119편: 주님께 부르짖으라!

[시편 119편 145-152절]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 가운데 기도생활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영적 거인이 있다면 아마 그는 죠지 물러일 것입니다. 그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믿음은 모든 신자들의 믿음과 같다. 바로 주님의 길로 걸으며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다. 내 믿음은 결코 특별한 믿음이 아니다”(인터넷).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므로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던 기도의 사람 죠지 물러처럼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19편 145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라!”란 제목 아래 기도에 대하여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 방법)

성경 시편 119편 145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위험이 많을수록 염려와 걱정보다 신앙과

기도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박윤선). 시편 기자가 당면한 위험한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150절을 보십시오: “악을 좇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다.” 시편 기자가 당면한 상황은 주님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악을 좇는 무리들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였기에 주님의 법을 싫어하는 악인들이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왜 악인들은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시편 기자에게 가까이 온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시편 기자로 하여금 주님의 법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믿고(151절)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였습니다(148절). 그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149절). 부르짖되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149절).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악인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되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 내용)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 내용은 오늘 성경 시편 119편 1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한 마디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 주시길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법을 멀리하는 악인들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45절 하반절과 14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145절하), “...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146절하).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신자가 환난에서 구원

받으려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함에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 시간)

성경 시편 119편 147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새벽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벽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로 긴급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만큼 그는 주님의 구원(146절)과 주님의 말씀(147절)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되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151절).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모든 계명이 진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151절).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기초가 되는 주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 안에서 새벽기도회 때 말씀 묵상과 기도를 더욱더 즐기길 기원하면서)

제 119편: '오 주여,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편 119편 153-160절]

여러분에게 과거를 회상하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면 괴로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즐거워하기보다 괴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좋은 추억보다 안 좋은 추억을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추억이 많은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고 싶지 않기에 꼭 꼭 마음속에 눌러 놓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또 안 좋은 일이 현재 삶 속에 생기면 과거의 많은 안 좋은 추억들도 되살아 더 괴로워하며 낙망하곤 합니다. 이러한 괴로움과 낙망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오래된 죄책감, 해묵은 원망들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모습을 보면서 더 낙망하고 절망까지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낙망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19편 154절 하반 절, 156절 하반절과 159절 하반 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오 주여, 나를 소성케 하소서!’란 제목 아래 낙망을 경계하는 것에 대하여 한 2가지로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53-160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낙망케 합니까?

그것은 2가지 입니다.

(1) 우리로 낙망케 하는 것은 “나의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53절을 보십시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 이다.” 시편 기자에게 임한 고난은 “악인”들과(155절) 그를 핍박하는 자들과 그의 대적들(157절)로 말미암은 고난 이였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구하지 않는 이 악인들(155절),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 궤사한 자들로(158절)로 인하여 시편 기자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주님의 율례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므로 지키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그러한 고난으로 인하여 낙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주님께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세 번이나 간구하였습니다(154, 156, 159절).

(2) 우리로 하여금 낙망케 하는 것은 “나의 원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54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억울하게 자기에게 임했을 때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를 악인들이 압제하므로 자기의 원한을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있을 때 낙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낙망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로, 어떻게 우리는 낙망을 이겨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낙망을 이겨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핍박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2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고난으로 하여금 자기 영혼을 낙망케 하도록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병행하던지.

시편 기자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병행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나를 건지소서”(153절), “나를 소성케 하소서”(154, 156, 159절). 그는 고난 가운데서 낙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구원과 소성케 하심(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으며(153절) 주님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157절). 그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154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156절)라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낙망하지 않기 위해선 주님의 말씀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낙망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억울한 원한으로 인하여 낙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소성케(부흥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낙망에서 오히려 주님을 소망케 하며 갈망케 하시므로 우리의 낙망에서부터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악인들이나 핍박 자들에게로부터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낙망과 절망 속에서 오히려 소망되신 주님을 갈망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나의 소망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제 119편: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라!

[시편 119편 161-168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해야 합니다(요14:21).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되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마5:19). 오늘 성경 시편 119편 166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라!”는 제목 아래 한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3) 하나님의 계명을 행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61-168절에서 3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61절을 보십시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무고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자기를 핍박하는 방백들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의 말씀만을 경외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심이 있을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계명을 향한 경외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6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되 탈취 물을 얻은 것처럼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되 우리는 탈취 물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마치 사람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자격도 없는데 얻은 탈취물로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그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야 합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기 위해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63절을 보십시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기 위해선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선 우리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거짓이라도 용납해서는 아니 됩니다. 거짓이 작다고 하여 용납한다는 것은 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작은 거짓조차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행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성경 시편 119편 16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바란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지만 인간의 책임인 말씀 순종이 없이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책임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64절을 보십시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규례로 인하여 하루에 일곱 번씩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행한 또 다른 결과는 마음에 큰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165절을 보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마음에 큰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행하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가 되길 기원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말씀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길 기원하면서)

제 119편: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119편 169-176절]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 되십니다(신 10:21, 렘17:14).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지으신 목적은 “나(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입니다(사43:21). 오늘 성경 시편 119편 175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여기서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서 살게 하시면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란 제목 아래 과연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3가지로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라는 우리의 영혼이 살므로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선 우리는 기도하는 영혼이 되어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169절 상반절과 17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169절상),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170절상). 시편 기자는 그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173, 175절). 여기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한 도움은 내적으로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169절)였고 외적으로는 건지심(170절) 또는 “주의 구원”(174절)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영혼이 되어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17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므로 그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림을 받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대로(170절) 도움을 받고(173, 175절) 건짐을 받을 줄(170절) 확신하였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171절).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169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174절).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선 우리는 잃은 양 같은 영혼이 되어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176절을 보십시오: “잃은 양 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 이다.” 여기서 잃은 양 같은 영혼이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영혼을 가리킵니다. 놀라운 것은 시편 기자는 주님의 계명을 잊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176절) 잃은 양같이 유리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아도 죄를 범한다기보다는 말씀을 잊지 않았기에 그 말씀으로 자신을 항상 비춰보므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선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잊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살펴보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달아 죄인임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인정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겸손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선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선 우리는 잃은 양 같은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므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찬송가
495장 1절과 후렴),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기도하는 사람, 말씀으로 부지런히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제 120편: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

[시편 120편]

요즘 저와 제 아내는 저희 집 막내 딸 예은이 때문에 종종 웃곤 합니다. 얼마 전 교회에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저희 집 막내 딸 예은이에게 “인내”가 뭐냐고 하길래 저는 인내는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때 제 옆 좌석에 앉아 있었던 제 아내가 예은이에게 인내는 ‘waiting nicely’(예쁘게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때 예은이는 장난치는 듯 ‘waiting nicely’가 뭐냐고 하길래 제가 아예 그 문장을 spelling해서 “w” “a” “i” “t” “i” “n” “g” “n” “i” “c” “e” “i” “y”라고 불러주니까 예은이는 “O” “M” “G”라고 간략하게 답변하더군요. ㅎㅎㅎ 여기서 “O.M.G”란 “oh my gosh”란 뜻입니다. ㅎㅎㅎ 그 때 저는 아내랑 참 많이 웃었습니다. 지금도 그 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이렇게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주 추수감사절 연휴 때 장인, 장모님 댁 갔다가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거의 다 와서 딜런과 예리는 자고 있을 때 예은이가 저희 부부끼리만 얘기하니까 자기도 끼어 달라고 예은이가 자꾸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때 예은이가 저희 부부에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데 알아 맞춰 보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R”로 시작한다고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 때 제 아내가 예은이가 원하는 것이 먹는 것이냐고 하니깐 예은이는 아니라고 하면서 마시는 것(drinking) 이라고 말하더군요. 그 때 저는 속으로 “R”로 시작하는 마실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아이가 더 어릴 때 “물”을 “마누”(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음)라고 한 것을 보면 지금 물을 마시고 싶은가 보다 생각하여 “R”로 시작하지 않는 줄 알면서도 “water”이라고 답하니깐 예은이가 “You are right”, 즉 제가 맞다고 exciting하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 때 저희 부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은이가 종종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는가 하면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men’(눅2:14)라고 외우면서 또한 저희 부부에게 자랑하곤 합니다. 아마 유년주일학교에서 크리스마스이브 때 할 연극에 대사를 외우는가 봅니다. 한국 성경누가복음2장14절에 있는 구절 같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예은이게 요즘 종종 이렇게 말해 줍니다: ‘Let us make a happy family’(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힘쓰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선 찡찡거리고, 울고, 화내고 등등 하면 아니 될 것임을 예은이에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교회를 만들도록 힘쓰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시편 120편 7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찌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당연히 시편 기자처럼 화평을 원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5:9).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화평을 원하며 또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약4:1). 이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때 그 공동체 안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3:16).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 하지 말라”(14절).

오늘 본문 시편 120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하면서(6절) 그들 가운데서 화평을 원했지만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은 다투기를 좋아 하며 거짓말로 남을 해하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5절, 박윤선). 그러므로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꾀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120:1-2). 우리 또한 시편 기자처럼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6절)의 거짓된 입술과 꾀사한 혀로 인하여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에게서 건져달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의 거짓된 입술과 꾀사한 혀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거짓된 입술과 꾀사한 혀에서” 건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2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화평을 미워하는 죄악 된 정욕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입술(혀)을 제어하고 우리 안에 있는 화평을 미워하는 죄악 된 정욕을 회개하며 그 정욕에서 우리 자신을 건져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화평을 원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거짓된 입술과 꾀사한 혀”입니다(2절).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서는 아니 됩니다(약3:10).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혀를 조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처럼 거짓된 입술과 꾀사한 혀를 놀려 교회의 화평을 깬다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꾀사한 혀여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으로 네게 더 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숲불이리로다”(120:3-4). 성경은 주님께서서는 화를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장사의 날카로운 살이 갑자기 날아와서 몸에 꽂힘 같이 돌연적이고, 치명적인 환난이 그런 거짓된 혀의 소유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박윤선). 그리고 성경은 주님께서서는 로뎀나무 숲불처럼 꺼지지 않는 불이 몸에 닿는 듯한 화를 거짓된 혀의 소유자에게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처럼 거짓된 입술과 꾀사한 혀를 놀려 교회의 화평을 깨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화평을 원하는 자들이 되어 합니다. 즉, 우리는 화평을 사랑하는 자들, 또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싸우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혹 어나 우리 안에 다투고 싸우고자 하는 정욕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정욕에서 건져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님처럼(엡2:14) 화평을 전하며(17절) 화평(화목)케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고후5:18). 그러므로 교회의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잘 지켜 나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화평을 원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계절에)

제 121편: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

이번 주 월요일 신학교 동문 모임 때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 부부와 그들의 네 자녀와 함께 식사한 후 선교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아이들이 남자만 네 아이이다 보니 선교사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보고 있는 동안 사모님께서 중국 선교 보를 하는데 참 독특하게도 사모님은 창녀 사역에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시는 모습을 사진으로나마 보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한 10시간 버스 타고 2시간 걸어 들어가서 외지인 산골 골짜기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목사님은 은혜를 받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렇게 선교 보고를 잠깐 하신 후 사모님은 우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마지막엔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고 말하시면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 부부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로 선교보고 하면서 마지막에 기도 부탁 외에 재정 후원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교사님 부부는 오히려 우리를 돕고 싶다고 하면서 여기에 자기들이 있는 동안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나 작은 교회 목사님 부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인데 오히려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자세라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자세 가운데서도 우리는 가끔 혹은 종종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시편 121편1-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생각 하였던 시편 기자의 결론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였습니다. 여기서 “산들”이란 산 같이 큰 세상 세력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의 큰 세력에게 도움을 얻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한 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구원자시요 도움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박윤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누구를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혹시 시편 기자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또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의 무력함(helplessness)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도움을 청하지 않으려는 죄악 된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 그 분이 만드신 “산들”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진정한 도움을 이 세상의 “산들”에게서 받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결국은 그 산들까지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경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후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과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시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십니다.

성경 시편 121편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 이 말씀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박윤선).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할 때(사53:6)가 많은 연약한 자들인데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계시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한국 청소년들의 탈선 이유가 궁금해서 한 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와서 나눕니다. 삼성 서울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홍성도·김지혜 교수 팀은
서울시내 중고생 431명(남 224명·여 207명)을 대상으로 비행행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남학생은 ‘불안감과 부정적 정서’가, 여학생은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비행행동의 주원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홍 교수팀은 “남녀별로 비행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다른 이유는 남학생의 경우, 불안감 등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인 비행행동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및
사고가 비행행동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이
조사 결과를 읽으면서 청소년 남녀의 탈선 원인이 ‘부정적 정서(남)와 부정적 자기
평가(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를 좇는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서 탈선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원인 중 하나를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 아삽이 거의 실족할 뻔 하였던 원인인
‘의인의 고난 그러나 악인의 형통’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서 탈선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예”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대답을 성경
빌립보서1장29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므로 받고 누릴
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알게 해주셔서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 시편121편3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실족치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1) 하나님께서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3절 하반절과 4절을 보십시오: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요즘 계속 제 아들 딜런이 밤마다 악몽 때문에 잠자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딜런에게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제 아내를 지난 주일과 월요일 밤에 딜런에게 꿈에서 고릴라를 보았다고 하기에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그 고릴라를 죽이고 딜런이는 죽이지 않는 작은 풍선에 약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들고 자라고 하니까 아이가 아마 주일 밤에는 잘 잤나 봅니다. 저희 부부가 딜런이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여도 악몽을 꾸는 아이 옆에서 계속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어떻게 졸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을 지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더딜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난관에 처한 성도를 도우시는 것은, 그의 정하신 때에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래 참기를 배워야 합니다.

(2)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해로운 것들로부터
막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5-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어제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제 우편에서 제 그늘이 되신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햇빛이 사막에서 계속 저에게 쬐인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그늘이 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햇빛이 짙짙 재는 한 여름에 너무나 더워서 큰 나무 밑 그늘진 곳을 사모하며 그 그늘 아래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하여 시달려 지쳐 있을 때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여 그에게 나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낮에 해와 밤에 달 같은 해로운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몰아닥치는 이 세상의 해로운 것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모든 위험들로부터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시편23편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3)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며 또한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 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면 환난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주시되 여러 종류의 환난을 겪게 허락하셨다가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좀 흥미로운 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서 탈선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지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더욱더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중에 좀 놀랜 것은 한국에서 보내온 책들 중 프리셉트라는 사역에서 보내온 12월호 목상 집 책에 제 말씀목상(QT) 글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무심코 한번 목상 집을 펴 보다가 어디서 많이 본 글인 것 같아 좀 자세히 보니까 제 이름과 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ㅎㅎㅎ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한국에 어느 교회 한 자매가 프리셉트 사역 편집부에 있는데 제 말씀목상 글을 너무나 잘 요약해서 그 목상 책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목상 내용은 호세아 2장14절 중심으로 목상한 말씀목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에 있어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부드럽게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그 것은 징계라기보다 하나님의 축복, 즉 고난(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나눈 말씀 목상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역경, 모든 종류의 환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리에서 탈선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사 그 기도를 응답하시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 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러한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의 어려운 삶과 상황 가운데서도 있길 기원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찬송가 349장),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121편: 누가 내 영혼을 지키시는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시편 121편 7절).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시121:5).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나의 책임은 없는가?"입니다. 어제 있었던 차에 휘발유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차 안에 휘발유가 거의 없으면서 정유소를 가지 않고 목적지인 교회까지 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말이 되는 가란 생각을 해 봅니다. 분명히 차는 교회가 가기 전에 전처럼 (전에는 새벽기도 나오다가 교회차가 휘발유가 없어서 길가에서 섰었음) 길가에 멈추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무모하게 우리 인간의 책임을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21편 7절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연료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여, 내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간구한다면 과연 우리는 악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 범죄 치 아니한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의 소유'(119:56)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므로 범죄 치 아니해야 하는 것(11절)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은 영적 연료를 우리의 영적 연료 탱크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마치 차에 싸인이 들어와 휘발유가 거의 떨어진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 연료가 떨어진 것을 깨달아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말미암아(호세아 2:14) 영적 연료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지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악령의 세력에 무방비 상태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백향목처럼 견고히 서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비춰져 있을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영적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므로 영혼이 시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계속 운전하고 몰아야 하는 쫓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교를 수 없이 들으면서도 영적 연료가 공급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지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힘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 연료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므로 우리 소유로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길 간구하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영적 연료를 항상 충분히 저장해 놓는 지혜로운 신앙 경주가가 되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영혼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영적 연료 정화 작업을 통하여 영적 연료 탱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힘쓰는
이야침에)

제 122편: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합니다.

[시편 122편]

필립 안시란 분이 쓴 책들 중 “Church: Why Bother?”(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 필립 안시는 교회 내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근본 토대, 곧 하나님의 화목케 하시는 사랑은 세상의 모든 민족, 인종, 계급, 나이, 성을 초월한다. 공동체가 먼저다. 우리를 갈라놓는 갈등과 문제는 나중이다.” 교회란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란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하나가 같아서 공동체로 뭉쳤을 때 교회란 과연 얼마나 아름다워지는가!”(안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분열이 아닌 성령의 하나 됨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박윤선). 즉,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기를 기원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형통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2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에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성경 시편 122편 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여호와와 그의 집” 즉,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자는 친구들의 초청에 기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그 첫 번째 이유는 “전에 훼파되었던 그것이 이제 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윤선).

훼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중수되었을 때 다윗은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타락했던 교회가 회개하고 아름답게 회복될 때에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박윤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아닙니까? 타락했던 교회에 참된 개혁으로 인하여 교회가 정결케 되고 새로워지는 것 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역사 가운데 더욱더 신령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잘 준비된 깨끗한 신부와 같은 교회가 되어갈 때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 둘째로 시편 기자가 여호와와 그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2편 4절을 보십시오: “지파들 곧 여호와와 그의 지파들이 여호와와 그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느2:18) 중수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에 기쁨으로 올라가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예루살렘 도시에 인구가 많았고(시122:3) 또한 의로운

정치가 실행되고 있었으므로(5절) 다윗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박윤선).

이것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깨끗케 하시며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올라가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함께 하시므로 참된 부흥의 역사로 인한 교회 성장과 성경적인 바른 교회 정치가 실행될 때에 우리는 감사하므로 주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를 맛보는 자들만이 기쁨으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기쁨을 맛보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의 평강과 형통을 구합니다.

성경 시편 122편 6-8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찌어다 내가 내 형제와 봉우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찌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로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축복하였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예루살렘의 “평강과 형통이었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의 평화와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를 가리킵니다. 즉,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의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평강의 복을 구하는 가운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도 사모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축복해야 합니다. 교회를 축복하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로서 교회의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건설하시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특징은 바로 평안입니다(박윤선). 교회 안에는 영적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뿐만 아니라 교회 지체들끼리도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하시므로 형통해야 합니다.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를 보면 1-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2절)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3절)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흠이 없고 깨끗한 교회로 변화되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를 목격할 때 주님의 전에 기쁨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서로의 형제, 자매 관계에서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형제, 자매들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9절). 하나님의 평강의 복과 형통의 복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새 하루 새 아침 주님의 신실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 123편: 주만 바라볼지라

[시편 123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억눌리는 우리의 마음, 참으로 무겁고 괴로운 마음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무겁고 괴로운 마음을 다 쏟아낼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회개케 하십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케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괴롭고 힘든 상황들은 주님을 바라보면 간구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23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봅니다. 시편 기자가 접하고 있었던 괴로운 상황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조소와 멸시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4절). 여기서 “평안한 자”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하여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태연 무사하게 지내는 자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심이 없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이러한 “평안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의 조소와 멸시를 받으므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괴로운 상황에서 그는 주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러한 괴로운 상황에서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아 저와

여러분도 괴로운 상황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괴로운 상황들을 잘 이겨 나아갈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123편 1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곤고한 일과 괴로운 일들을 끝없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들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접하는 많은 역경들과 난관들 가운데서 두루 돌아보아도 도움 받을 데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합니다(121:1-2). 그 이유는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기 때문입니다(2절). 결코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을 바라보며 도움 받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만이 참된 구원인 줄 알고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십시오(박윤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요나 2장 4절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 자신이 요나처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의 징계를 받는 가운데 저의 영혼이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낙망하였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 요나 2장 4절은 저로 하여금 요나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3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가 당면한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그의 시선을 그 괴롭고 힘든 상황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시편기자처럼 이

시간을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보이지만 우리의 영의 눈은 우리를 그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평안한 자”,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며 힘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종의 자세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 시편 123편 2절을 보십시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 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과연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바라봄과 같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시편 기자의 주님을 바라보는 행동을 하나의 천직과 같이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박윤선). “천직”이란 무슨 뜻입니까? 천직이란 하늘이 내린 이 땅에서의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인터넷).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 땅에서의 사명으로 알고 교만한 자들의 조소와 멸시를 받는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때 종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 것입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종의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괴로운 상황에서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여 그 분을 바라볼 때 주님의 구원이 더디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원망할 줄도 모릅니다(박윤선). 그리고 설상 주님이 나 같은 종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면 계속 주님을 섬깁니다. 종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감히 종이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토를 달면서 이런 저런 불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의 자세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은혜의 필수과목으로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심령이 “평안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의 조소와 멸시로 인하여 넘쳐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의 능력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깊은 늪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더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가십시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 시편 123편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십시오: “...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과 은혜)을 베풀어주시기 전까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라고 쓰여 있는데 영어 NASB 성경에는 “Until He shall be gracious to us”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2장 25절에 나오는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곱의 각오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I will no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까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기도는 성도의 무기이다. 그는 기도으로써 모든 난관을 정복해 나아간다. 기도에 의하여 환경이 변할 수도 있지만, 혹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도자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능히 모든 난관을 견디어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진다”(박윤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므로 내게 주어진 괴로운 상황이 변하던지 아니면 기도자인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아 그 상황을 이겨 나아갈 수 있게 되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난처한 때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한 4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박윤선): (1) 우리는 그 난처한 자리를 만나게 된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우리가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도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4) 나중엔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복음성가 중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노래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1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 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2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닦아 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 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후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취 주시고 너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겸손히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의지하여 그 분께 부르짖으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괴로운 상황에서 건져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도우사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토하여 간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124편: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시편 124편]

여러분은 과거를 뒤돌아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납니까? 종종 우리는 과거를 뒤돌아 볼 때 ‘그래도 그 때가 좋았는데 …’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움은 특히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더 한 것 같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과거를 뒤돌아보며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과연 과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까요? 만일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할 수 있으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던 풍성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현재 우리 삶 속에 당연한 역경들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힘든 환경에 헤어 나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서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옆드려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연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건져 주시길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히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사 우리를 속히 건져 주시사 그의 영광을 들어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후에 한 번쯤 이러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즉, ‘만일 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만일

하나님께서 그 때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등등.

오늘 성경 시편 124편 1-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 하셨다면...'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압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계셔서 구원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사람들은 위태한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며 배은망덕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박윤선). 왜 이러한 배은망덕한 습성은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너무나 속히 잊어버리는 감사치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문제는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신실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또 다른 역경과 어려움이 몰아닥치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보다 그저 그 힘든 환경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시편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위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즉,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2절)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24편 3-5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 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 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3절), ‘우리를 엄몰하였을 것이며’(4절), “우리 영혼을 잠갠 것이”라(4-5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다 극도의 환난에서 아주 할 수 없이 된 처지를 보여” 줍니다(박윤선). 즉, 시편 기자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의 환난에서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계셔서 그들을 도우사 건져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참된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 편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구원(건지심)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편에 계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편에 항상 계신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찌로다.” 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지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7절). 그는 잔인한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사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사43:1; 요일2:2).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죄에서 해방).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4편 8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이름에 있도다.” 우리 편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원수 마귀와 그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7절)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자유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숨질 때 되도록, 아니 영원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찬송가40장)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찬송가404장)을 찬양하셨던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님들을 기억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우리 편에 계시는 임마누엘이시며 에벤에셀이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제 125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시편 125편]

언젠가 저는 성경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인 지를 묵상했었습니다. 아무 일한 것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7-8절을 보십시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한 마디로,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공공연하게 내놓고 범한 모든 패역한 죄[“불법”(7절)],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행위로서 연약하여 짓는 모든 죄[“죄”(7절)], 그리고 인생의 정도를 좇지 아니하는 모든 윤리적인 죄악[“죄”(8절)](박윤선)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치워버린 바 되었으며[“사하심을 받고”(7절) 또한 가리운바 되었고(7절)]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도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도말하셨습니다[죄를 인정치 아니함](8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치워버린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가리운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은 자가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자의 특징 중 하나는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송가 342장 후렴 가사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 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독립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자라나면 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특히 행복한 자들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적은지를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자들은 인생의 어두울 때 그리고 위태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시편 125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즉,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시온산처럼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산”이란 “부동과 안식의 표상”입니다(박윤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이렇게 산처럼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근심된 일과 곤고한 일과 죽을 일이 쌓인 이 최악 된 세상에서 산처럼 요동치 아니하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뢰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예루살렘은, 지리상으로 많은 산악들로 포위되어 있다고 합니다(박윤선). 이렇게 많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뢰하는 자들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마치 산들이 그 부동의 태세로 예루살렘을 원근에서 둘러싸고 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뢰하는 자들을 견고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5편 3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악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의인(성도)을 괴롭게 하시므로 그들을 경성시키십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도 악한 자들로 인한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경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그러한 괴로움을 허락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갈 때에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접하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한 2가지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4-5절에서 그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오늘 본문 시편 125편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여기서 “선인”이나 “마음이 정직한 자”란 말씀은,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를 힘쓰는 자, 곧, 성도”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즉,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를 힘써야 함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 신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 의뢰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의를 힘쓰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선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기도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기도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과연 그러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므로 하나님께 선을 행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은 마음이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힘쓰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정직한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을 행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로마서 8장28절 말씀을 굳건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을 행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둘째 기도 제목은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에게는 평강이 있을찌어다.”

여기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는 배도 자”를 가리킵니다 (박윤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배도 자들은 끝까지 회개치 않는 불신자(“죄악을 짓는 자”)들과 같이 취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멸망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뢰하여 간구하는 가운데 마음이 정직한 선한 사람에게는 선을 행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또한 그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는 배도 자들은 회개치 아니하는 죄악을 짓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요즘 경기 불황으로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진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여기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힘쓰고 살아왔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을 행하여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을 의뢰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가운데)

제 126편: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시편 126편]

지난 주 금요일 새벽 4시20분 경 저는 꿈에서 너무 크게 웃다가 깨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고 김창혁 목사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농담하며 즐거운 대화를 하다가 크게 웃다가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지 이렇게 약 1년이 되어서 꿈속에서라도 목사님을 보니 기뻐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결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목사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시 목사님을 볼 수 있다는 소망은 저에겐 없습니다. 오직 저도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저는 천국에서 목사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소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부활시키셔서 제 앞에 보내신다면, 그래서 제가 다시 목사님을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로 인하여 놀라고 또 놀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생시인가 꿈인가 저는 제 자신을 꼬집어 볼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꿈꾸는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시편126편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마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믿기지 않는 일이 과거에 일어났었길래 그는 마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과거에 일어났던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일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시편 기자나 포로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특히 포로 생활 가운데 슬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여 간구하는 가운데(5-6절) 기도의 응답이 더듬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망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들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얼마나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때 지난날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달 1월 미국 첫 흑인 대통령인 **Barak Obama**의 취임식을 보면서 여러 흑인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들과 또한 많은 흑인 시민들은 꿈꾸는 것 같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옛날엔 흑인들이 백인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노예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감히 어느 누가 (흑인이던 백인이던) 흑인이 대통령이 될 줄 꿈을 꾸었겠습니까? 흑인 노예 시대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제 생각엔 아무도 감히 흑인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꿈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달 **Obama** 대통령 취임식 때 많은 흑인들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1963년 링컨 기념일인 8월28일에 25만 명의 군중이 워싱턴DC 링컨기념관 앞에 모였을 때 한 연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가 이루어 졌다고 믿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킹 목사님은 24만명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가 꾸고 있었던 꿈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이전 노예의 자녀들과 노예 주인의 자녀들이 형제애로 한 식탁에 앉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앨라배마의 인종주의자들이 물러가고 거기서 나의 어린 아들과 딸이 백인의 아들딸들과 형제와 자매로 손에 손을 잡고 살아갈 것이라는 꿈입니다”(인터넷). 지금 이 미국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킹 목사님의 꿈이 이루어 진 것을 물론이요 이전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을 볼 때 이것은 특히 흑인들에게 믿기지 않는 꿈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이젠 우리도 동양인으로써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자녀 시대에 동양인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26편에서 시편 기자는 꿈꾸는 것만 같았던 그 일, 즉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온 그 일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2-3절). 그는 꿈꾸는 것 같았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 때 가득했던 웃음과 기쁨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때, 즉 하나님께서 큰 일(“대사”)을 행하셨을 때(3절),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 속에서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때 열방 중에서 이방인들도 “여호와께서 저희를(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던 것(2절)을 시편 기자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아직까지 이방에 남아 있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은 동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박윤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4절). 여기서 “남방 시내들 같이”란 말씀은 그 시내들이 강우기에 이르러서 넘쳐흐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포로들이 전부 귀국하게 되기를 시편 기자는 기원한 것입니다(박윤선). 이러한 기도 가운데 시편 기자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5-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기자는 아직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비록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남아 있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올 줄 확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분명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날이 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만 같은 일 일지라 할지라도 그의 뜻 가운데서 현실화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돌이켜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새벽 미명에 주님의 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전에)

제 127편: 주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시면 헛됩니다.

[시편 127편]

성경 시편 90편에 적혀 있는 모세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년 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 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80 인생,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저는 더불어 전도서 말씀 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1:2)라는 말씀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 헛되고 헛된 일만 하다가 마치고에는 너무나 신속히 가는 삶입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또 다시 던져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의 가르침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참된 의미 있는 삶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함을 인정하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밖에서 하는 모든 일이나 수고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밖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실 때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왕입니다(대하2:1-5:1). 그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그리도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성전 건축의 경험이 있는 솔로몬이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라는 말씀은 의미심장한 고백(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여 주님께 헌당할 때 주로 목회자나 건축 위원회 등 성도님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만큼 성전 건축은 참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다시피 얼마나 많은 교회가 교회 건축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지난 주 금요일 뉴스를 듣다 보니까 어느 한 대형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교회 인근 저소득층을 위한 2개의 아파트는 철거를 위한 법적인 절차가 모두 끝난 상태에서 그 2개의 아파트에서 사는 저소득층 세입자들과 한인 타운 노동 연대 등 여섯 단체들이 기자 회견을 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기자 회견에서 그 교회가 그 2개의 저소득층 아파트를 허물고 교회 주차장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그 아파트 세입자들이 주거권을 잃고 있다며 아파트 철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은 외부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지만 교회 건축에 있어서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들이 더 심각합니다. 그러기에 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에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집”이란 “성전”을 가리킵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 왕의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한 개인과 단체의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붙잡는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18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세우는 자”들로써 주님의 도구입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건축가들이 연장을 사용하듯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 나아가실 때 우리는 그저 그의 연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저 복종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예”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는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지혜롭게 잘 통치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잘 다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전을 7년 만에 완성하고 궁전을 13년 만에 완성하는 큰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큰 건축 사업을 하는 데는 국제적인 외교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목재석재를 수입해 왔었습니다. 이방과의 접촉은 결국 그로 하여금 이방 종교의 수입을 허락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나친 국민 노동의 동원과 세금 징수로 국민과 부하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습니다(인터넷). 그 결과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1절). 이 말씀은 국가의 흥망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의미입니다(박윤선).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건설하시기도 또한 파괴, 파멸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렘1:11). 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다가 솔로몬 왕의 범죄로 인하여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찢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파수꾼이 되셔서 그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만이 교회와 나라가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사람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시127:1).

오늘 본문 시편 127편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일찌기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솔로몬 왕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밤낮으로 고통스럽게 수고하여 사업을 하고 일을 할지라도 진정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는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밤 낮 수고함에 있어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수고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근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근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을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은 한 세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박윤선 박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첫째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육체적 수면을 주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2) 둘째 해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식하는 심령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 셋째 해석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영하는 일을 되게 하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해석이 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우시는 자들에게 육체적 수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들의 경영하는 일을 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자녀의 축복도 주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아직도 8쌍둥이 출산으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나디아 솔먼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8 쌍둥이 외에도 이미 체외수정으로 낳은 6명의 자녀가 더 있고, 작년 1월 이혼한 싱글 맘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젠 14명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서 팔겠다고 2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뉴스는 그녀가 없어 살고 있는 부모님의 집도 차업을 당할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덟 쌍둥이를 낳았다고 하여 다들 놀랐지만 그 쌍둥이들의 생모에 대해서 뉴스를 통하여 알아 가면 갈수록 또 한 번 놀라는 것입니다. 싱글 맘에다가 이미 체외수정이란 방법으로 아이를 여섯이나 낳았는데 또 이렇게 여덟 쌍둥이를 낳은 이유가 아기를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것을 가리켜 자녀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시127:3).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시는 가정 부부에게 자녀들을 은혜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자녀들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4절). 젊은 부모가 낳은 자녀들은 부모가 늙을 때에 절정기를 맞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약해지기 시작할 때에 자연스럽게 부모를 도와 가정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잘 키운 자녀들은 요긴한 화살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장성한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허무는 대적들로부터 가정을 지킵니다. 건강한 자녀들이 많은 집은 외부의 적에 의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한 자녀들이 많은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자녀들은 화살 통에 가득 꽂힌 화살처럼 부모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러한 부모는 화살을 충분히 가진 장수처럼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인터넷). 또한 이러한 부모는 그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입니다(5절).

오늘 성경 시편127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우리 육신의 가정이나 영적인 가정인 교회나 또는 국가는 주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워주시되 가정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상급으로 주셔야지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나라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요,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미국과 고국 한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승리장로교회 사역에 동참하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 중심된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 나아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제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시편 128편]

우리는 지난 주 수요기도회 때 시편 127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세우시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1절).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2절).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2절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즉,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수고는 분명히 축복을 거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127편과 128편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수고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오늘 본문 시편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수고할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시편128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수고는 축복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한 3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산업에 축복을 주십니다.

성경 시편 128편 2절을 보십시오: “네가 네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지난 주 목요일 새벽기도회 때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 이요(7절) 또한 “부족함이 없는 땅”(9절)임을 기억하여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만 부족함이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12-13절) 마음이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14절). 교만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며 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아니할 것이기에 모세는 그들에게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14절)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염려였습니다.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배불리 먹고 풍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구원의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해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 나서 지금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까봐 염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봐서 ... (17절).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18절)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는 재물을 얻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풍족함을 누릴 때 우리는 더욱더 진정한 풍족한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해야 합니다. 결코 풍족함을 누릴 때 이 세상이 우리 집인 줄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시는 복(16절)을 지혜롭게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물질의 축복이나 산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시편 112편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여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받는 복중에 하나는 바로 재물의 풍부함입니다. 성경 시편 112편 3절을 보십시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여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말로 진정한 부자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그 재산의 양이 많지는 못하되 하나님을 기쁘게 소유하고로 항상 만족을 느끼고 남을 구제합니다. 만일 재산이 많아도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한 자는 탐심과 허욕과 인색의 노예들이지 부자는 결코 아닙니다(박윤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128:1) 또한 부지런히, 열심히 수고(2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산업에 축복을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가정에 축복을 주십니다.

성경 시편 128편 3절을 보십시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가정에 주시는 축복은 바로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아내란 남편에게 의지하면서 부녀의 본분이라 할 수 있는, 유순함과 조용함으로써 남모르게 집 안에서 수고하는 아내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말씀은 자녀를 많이 생산하고 또 선히 양육함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이러한 아내는 참으로 유복

유덕한 현처입니다(잠 31:10-31)(박윤선).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아내를 축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아내”는 “어진 여인”(12:4)이요 “슬기로운 아내”(19:14)요 “현숙한 여인”(31:10)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아내로 삼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전도서 9장 9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찌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녀들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 3절에서는 “네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크고 아름답고 힘차게 자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을 때 기쁨을 누리면서 단란한 가정생활을 함을 생각하게 만듭니다(박윤선).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정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찬송가 305장 3절을 마음으로 또한 감사하므로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축복을 주십니다.

성경 시편 128편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찌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길 축복 하였는데 여기서 “시온”이란 교회를 비유합니다(박윤선).

시온이라는 단체(교회)에 임한 축복 때문에 그 개인 신자에게 복이 미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이 속한 교회가 하나님께 먼저 축복을 받음으로 신자들도 축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들로서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박윤선). 즉,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형통의 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복 받을 때 우리도 복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되 그들의 산업과 가정에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축복해주심으로 그들의 산업과 가정에도 축복을 주십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므로 저나 여러분이 “네 자식의 자식을” 보길 원합니다(6절).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교회와 가정이 산업이 축복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무력무력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길 기원합니다.

경제적 불황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요즘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수고해야 합니다(127편).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수고해야 합니다(128편).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업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 그리고 교회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헛된 수고 하지 않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 129편: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시편 129편]

지난 주 여러분도 다 뉴스를 접하신 줄 압니다. 레돈도 비치 지역에서 교회를 담임하며 섬기던 목사님 한 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의 손에 하반신에 칼에 찔려 결국 숨지는 사고 소식 ... 그 뉴스를 신문으로 접한 후 인터넷 신문을 좀 더 찾아보면서 안 그래도 목회로 인해 많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계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자식의 칼에 맞아 죽으셨다는 소식은 참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참 괴로운 일과 곤고한 일, 근심된 일, 참으로 죽을 일이 쌓인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기 전 금요일 새벽기도회 때 신명기 3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또한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죽음을 앞에 두고 말씀한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특히 신명기 31장 6절 하반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는 말하였습니다. 그런 후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젃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20절).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사 그의 얼굴을 숨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17, 21절). 그들이 이방인 나라에게 삼킴을 당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17절). 그 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17절)고 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우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과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이방 나라들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29편 말씀의 배경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방인 나라 강적들에게서 박해를 받아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건설 초기부터 이스라엘은 주위 이방인 나라들에게 박해를 받아 왔고 심지어 지금도 이스라엘은 주위 나라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선민 박해의 역사”라고 합니다(박윤선). 이러한 선민 박해의 역사 속에 있었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시편 129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원수 이방인 나라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역사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구약 당시에는 애굽부터 시작해서(모세 시대), 모압, 에돔, 미디안, 블레셋, 앗수르, 바벨론, 로마 등등 이러한 이방인 나라들의 침략과 핍(압)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핵무기도 보유한 나라로서 강국이라고 하지만 주위에 팔레스타인들과 레바논과 시리아, 이집트, 이란 등등과의 갈등 속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시편 129편 1절과 2절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하였으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 즉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언제든지 원수들의 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64AD)(첫 번째 박해). 사도 시대였던 64년 여름, 로마제국의 수도 로마 시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대 화재가 발생했는데 6일 동안 강력한 불길은 14개 구역으로 나누어진 도시 중 10개 구역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황제 네로가 로마를 자신의 뜻대로 다시 건설하기 위해 로마 시에 불을 지른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게 되었고 그런 소문은 퍼져가며 확대되어서 후에는 로마가 불타고 있는 동안 네로 황제가 수금을 타며 노래했다는 소문으로까지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민들의 분노는 네로를 향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네로는 자신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희생양을 찾았는데 그 대상이 기독교인들 이었던 것입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시를 불 질렀다고 알리고 그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이 당시 네로의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의 박해 모습을 타키티우스는 아래와 같이 비교적 상술하고 있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 을 죽이기 전에 시민들을 위한 오락에 이용하였다. 신자들 중 일부는 털옷을 덮어 씌워 개들이 찢어 죽이게 하였다. 또 다른 자들은 십자가형에 처하였다. 또 다른 이들은 불을 질러서 밤에 등불처럼 밝히게 하였다. 네로는 자기의 청원을 열어 이러한 쇼를 연출하였고 그는 마치 전차 경주처럼 옷을 입고 그 전차를 타고 돌아다님으로써 원형 경기장에서 스페타클을 연출하였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이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느끼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반인들의 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잔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죽어갔기 때문이다"(인터넷). 이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들 박해 외에도 교회를 역사를 보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인들 핍박(81-96 AD)(두 번째 박해)과 더불어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284-305)의 박해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인들 박해를 가리켜 최악의 박해였다고 합니다. 이때가 교회들은 무너지고, 성경이 불태워졌으며, 모든 기독교인의 권리가 정지되었었고 또한 기독교인은 이교신에 대한 희생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인터넷).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 기자 시대 때에 초대 교회 시대 때나 지금이나 또한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원수들에게 핍박을 당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29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폐허로 만들고 거기에 밭 갈 듯이, 여지없이 박해한 것을 가리킵니다(박윤선). 로벌츠에 의하면, 팔레스틴에서는 박해를 받는 자가 박해자들을 가리켜 “저들이 내게 밭 갈았다”라고 함이 보통으로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박윤선). 이것은 한 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핍박을 당하므로 극도로 비참한 데까지 떨어졌다는 말씀입니다(박윤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극도로 비참한 데까지 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는 가운데 사용하는 줄들을 끊으시므로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124:7) 하나님께서는 그 올무와 같은 줄들을 끊으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129:2). 즉,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이스라엘을 여러 번 괴롭게 하였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결국 실패케 하시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오늘 본문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전에 올라올 때 세상에서의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한 경험과 더불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올라와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되새겼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원하였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찌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찌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129:5-6).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그들의 원수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케 하시길 원하였고 또한 벌 받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붕의 풀과 같을찌어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6절). 지붕의 풀은 뿌리가 깊지 못하므로 잠깐 동안 자라다가 말라 버립니다(박윤선).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이 그렇게 되길 하나님께 기원하였습니다. 그는 잠깐 동안 있다가 속히 말라 버리는 풀처럼 없어지길 하나님께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들, 즉 하나님의 원수들을 아무도 축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8절).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권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성경 디모데후서3장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많은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승리의 확신 속에서 영적 싸움에 임하여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찬가를 부르길
기원하면서)

제 130편: 기다림

[시편 130편]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깨닫게 해주시는 부족함 중에 하나는 바로 “조급함”입니다. 어쩔 때 제 자신을 보면 마음이 조급하다보니 언행으로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도 입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치게 될 때도 경험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묵상케 하신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4절입니다. 즉, 말세에 고통 하는 때(1절)에 사람들이 “조급하”다(rash)는 말씀입니다. 왜 조급해 잡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빠지는 것과 거의 동시에 우리가 인내하기를 포기할 때 우리는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멋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급함은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게 되고 그의 뜻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잘못된 계획과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조급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 적이고 육적인 계획과 행동방침을 택하게 됩니다. 그 한 예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포기하고 조급함에 사로잡히므로 말미암아 결국 사라는 자기 남편인 아브람에게 그녀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과 동침할 것을 권면했습니다(창16:1-2). 그 권면을 받아들인 아브람은 하갈과 동침하므로 결국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닙니다. 이삭이 바로 약속의 씨입니다. 조급함은 이렇게 믿음과 인내의 포기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인터넷). 그래서 기다림이란 미덕이란 말이 있는가 봅니다. 기다림이란 우리가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시편 62편 1,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 나는 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시요 소망이 되시며 반석과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잠잠히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사30:15).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가운데 그의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히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30편 6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그의 기다림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다림을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림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때 그는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그의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은 누구입니까? 파수꾼들은 성안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성벽 위에서 혹여나 적군들이 침입하지 않을까 노심조차 밤새도록 보초를 서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수꾼들은 적군의 침입 여부를 보려고 잠도 못자고 파수하므로 말미암아 성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파수꾼들이 제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침”입니다. 그들은 밤이 밝기를 고대합니다(박윤선). 이러한 간절한 기대감으로 시편 기자는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욱더 간절한 기다림으로 시편 기자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노래하며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시편 기자가 그리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0편 5절을 보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기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그 계시하신 말씀대로 사죄하시고 구원해 주셨었습니다(박윤선).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범죄하므로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그의 범죄로 인하여 놓여 있었던 “깊은 데”란 사람이 물속에 빠진 것 같이 되고, 질식 상태가 될 정도의 극심한 환난을 의미합니다(박윤선).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깊은 데로 들어가되 큰 고기 안에 갇혀 바다 밑 깊은 물속에 들어가 있어도 요나나 시편 기자는 간절히 사모하므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0편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시편 기자는 만일 주님께서 자기의 과거부터 현재에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시면(박윤선) 주님 앞에 설자가 아무도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쥘 때 주여 누가 서리이까”(3절).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또한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기록하고 계시다면 감히 기록하신 주님 앞에 설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히 기록하신 주님 앞에 범죄 한 자로서 설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믿고(4절)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4절)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의 죄를 사해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지겠습니까?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깊은 침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죄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도말하였고 다 지웠다. 이젠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이 얼마나 자유와

해방 가운데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한 후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편 기자는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놓여 있었던 고통스러운 상황, 즉 깊은 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주셨다는 증거로 자기를 건져 주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7-8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찌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 사함과 더불어 구원의 은총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에서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 시편 기자처럼 깊은 데 놓여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마치 물속에 빠져서 점점 깊이 가라앉는 것과 같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내가 그 깊은 데 놓여 있는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죄 사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이 놓여 있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과 구원의 기쁨을 사모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제 131편: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케 하는 방법

[시편 131편]

초등학교 때 배운 노래가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풍당 풍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 저는 왜 돌을 던져야 하는지 모르면서 열심히 배운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동요가 생각났던 이유는 오늘 읽은 시편131편1-3절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영혼이 잔잔할 때 그 고요함과 평온함을 깨는 '돌'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돌"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사람들의 비판, 힘든 인관 관계, 경제적 문제, 스트레스 등등 수 없는 종류의 "돌"들이 우리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파괴적인 "돌"은 우리 자신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파괴하는 "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돌"은 다름 아닌 "교만"입니다(1절). 또 다른 말로 다윗은 '내 눈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높은 사람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는 사람입니다(1절). 자기 주제를 망각하고 주제 넘는 일을 생각하며 그 일에 힘을 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으로부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눈을 높이 들어 자꾸만 두 달란트나 혹은 다섯 달란트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며 시기하는 가운데 그들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언젠가 교회에 온 크리스천 신문을 읽으면서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잠시 순간적으로나마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 여기저기에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을 글이나 사진으로 보면서 제 자신의 영혼이 고요함과 평온함이 깨지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본문 시편 131편 말씀처럼 눈을 높이 들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즉, 마음에 교만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랬기에 비교하면서 제 자신의 진정한 모습보다 더 크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주제를 망각케 하며 더 크게 보이게 하는 이 "교만", 특히 경쟁의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망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조치한 방법은 신문을 더 이상 읽지 않았고 또한 그 목사님들을 축복하자고 제 영혼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눈높이 교실"에 들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말아야 합니다(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확실히 알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우리 할일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미치지 못할 자리나 성공이나 일에 관하여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이 모습 이대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롬12:3).

우리는 "교만"과 싸우는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시131:3). 그리할 때 우리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젖 떤 아이'와 같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히브리인 엄마들이 젖을 떤 시기가 아기가 태어난 후 한 2-3년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둘째 딸인 예은(1살)이나 첫째 딸인 예리(3살) 사이에 아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은이를 생각하면서 젖 떤 아이의 중심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을

때의 얼굴 모습이 참 고요하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2절). 그 때에 예은이는 아빠도 필요 없고 맘마(음식)도 필요 없고 장난감도 필요 없다고 손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직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입니다. 그 엄마의 품에 안겨서 고요히 잠이 든 예은이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좀 더 저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다윗은 교만함을 멀리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되 '젓 떼 아이의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일 예배 당에 올라가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 사랑의 품에 안겨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젓 떼 아이처럼 겸손한지 자아성찰을 해야 합니다. 교만함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보좌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그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혼이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항상 그리워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금요 새벽기도회 때 시편 131편 말씀으로 나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며 '젓 떼 아이의 중심'을 사모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 131편: 젓 떼 아이와 같은 중심

[시편 131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삼상16:7). 이 사실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으로 보냈을 때의 성경 이야기입니다(16장).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왕을 찾는 가운데 이새의 여덟 아들 중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6절). 그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7절).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외모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질문의 대답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중심에서 찾습니다(행13:22).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중심은 한 마디로 ‘젓 떼 아이와 같은 중심’이었습니다(시131:2).

오늘 성경 시편 131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 하고 평온케 하기를 젓 떼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젓 떼 아이와 같도다.” “내 중심이 젓 떼 아이와 같도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들의 성장 단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장 단계를 한 다섯

단계로 봅니다(주석). (1) 제일 첫째 성장 단계는 “suckling”, 즉 “젓먹이”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태어나서부터 30일 정도까지를 가리킵니다. (2) 두 번째 성장 단계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젓 떼 아이”(weaned one)입니다. 이 단계는 한 달에서 한 5년까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 아이들은 한 3-4살 되어서야 젓을 떼었다고 합니다. (3) 세 번째 성장 단계는 “toddler”, 즉 “아장아장 걷는 아이”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한 5살에서 20살까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4) 네 번째 성장 단계는 사춘기(puberty)입니다. 이 단계는 히브리어로 “elem or almah”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성숙한 젊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마 이 단계는 20살 이상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5) 그 다음 단계는 아마 어른(adulthood)과 늙어가는(old) 단계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자기의 중심이 젓 떼 아이와 같다고 말씀한 것을 이 성장 단계에 비취 생각해 볼 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젓 떼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더 이상 젓을 달라고 울며 보채지 않고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엄마의 얼굴을 보며 만족해하는 젓 떼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기의 중심을 젓 떼 아이에게 비교한 것입니다. 즉, 다윗이 자기의 중심을 젓 떼 아이에 비교한 이유는 마치 젓 떼 아이가 젓을 더 찾아 울지 않고, 그저 그 어머니를 소유한 사실로 인하여 만족한 것처럼(박윤선) 시편 기자 다윗의 마음은 그저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심정 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성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는 곡 가사를 보면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주님 한 분 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 찬양은 성경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근거해서 쓰인 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의 중심이 젓 떼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한분으로만 만족하였습니다. 우리의 중심도 이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심이 다윗처럼 젓 떼 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때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더 이상 하나님 한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것들을 쳐다 볼 때가 많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성경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에서 나오는 ‘질투의 눈’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어 성경에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영어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NIV)을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질투의 눈으로 계속 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 즉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6절) 뛰놀며 찬화하여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7절)고 하므로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8절)라고 말한 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9절). 이러한 최악 된 질투의 눈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과연 이러한 최악 된 질투심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그 비결을 저는 성경 시편73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시편 기자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들의 결말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여 이 땅에 사모할 자 주님 밖에 없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세상 적이요 정욕 적이요 마귀적인 질투심을 극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투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사울과 같은 최악 된 질투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고후12:9).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131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젓 떼 아이와 같은 중심은 교만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즉, 젓 떼 아이와

같은 중심은 겸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다윗은 그의 눈을 높는데 두지 않았습니다. 즉, 다윗은 세상 영광을 높이 탐하지 않았습니다(박윤선).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그는 제일 높으신 주님에게 시선을 멈추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높으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보다 그 무엇이 높겠습니까. 다윗은 교만한 자들처럼 세상에 높아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훨씬 높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박윤선). 그러기에 그는 “큰 일”과 자기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관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윗은 교만하게 자기의 사명이 아닌, 어떤 큰일을 허욕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박윤선). 우리도 다윗처럼 이 세상에 헛된 욕심에 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헛된 영광을 구해서는 아니 됩니다. 즉, 우리는 허영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중심에는 ‘고요함과 평온함’이 있습니다. 즉, 젓 떼 아이와 같은 중심은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기에 그 심정에는 고요함과 평온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요함과 평온함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야망과 기타 뜨거운 격동을 진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서 획득한 생활입니다(박윤선). 이러한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므로 말미암아 마음에 교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불만과 기타 격동된 심리를 진정시켰습니다(박윤선). 그는 세상 욕심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므로 말미암아 마음에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찌어다”(3절). 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23:1). 우리 모두 젓 떼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결코 욕심에 이끌려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마음에 교만하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케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젓 떼 아이와 같은 중심을 추구하면서)

제 131편: 젓 떼 아이와 같은 영혼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젓 떼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젓 떼 아이와 같도다”(시편
131편 2절).**

아시아의 대재앙이라는 지진과 해일로 사망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 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젠 전염병까지 돈다고 합니다. 실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만간 또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고들 합니다. 자연의 힘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어제는 뉴스를 통하여 아주 큰 파도가 호텔 수영장을 덮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파도로 말미암아 죽은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큰 파도 전에 작은 파도들로 말미암아 모래사장에 널려져 있었던 물고기를 줍다가 큰 파도에 휩쓸려 죽은 아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파도"란 말을 들으면 오래 전에 어느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비록 바다 물가 위에 파도는 칠지 모르지만 그 바다 밑에서는 진주조개가 진주알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말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파도가 거세게 칠지 모르지만 바다 밑은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이번에 큰 파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어느 여자는 바다 밑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많은 또한 여러 종류의 "파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파도들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또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아직 잘 배우지 못하는 것은 파도치는 바다 밑처럼 영혼의 잠잠함 혹은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1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요한 영혼, 잠잠한 영혼, 또는 평온한 영혼을 가리켜 '젓 떼 아이와 같은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젓 떼 아이와 같은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기를 한 2-3년 후에 젓을 떼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양하겠지만 한 1년만 되면 젓을 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집 막내 예은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은이가 1살이 되어서(미국나이로) 젓 떼 후의 모습을 말입니다. 특히 저는 예은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자신의 고개를 엄마의 어깨에 숙이고 잠잠히 있는 모습을 되새겨 봅니다. 그와 같이 젓 떼 아이와 같은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는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고요하고 평온할까 상상해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품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들리는 자장가를 들으면서 천천히 잠이 드는 제 영혼은 어떠할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한 팔로 저를 얹으시고 또 다른 팔로는 저의 등을 부드럽게 쓰 담아 주시면서 제 영혼의 그의 목소리가 들릴 때에 저의 모습은 어떠할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는 너무나 분주함 속에서 영혼에 고요함과 평온함을 잃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말들도 많고, 세상의 말들도 많으며 특히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말들이 우리의 영혼에 파도를 일으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은 진주조개가 진주알을 만들어 내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잠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할진데 우리의 영혼은 젓 떼 아이와 같지 않고 너무나 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지 않는 청소년처럼 자기 멋대로 세상 풍파에 도전하려다가 그 풍파에 휩쓸려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젓 떼 아이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서 걷는 신앙의 길은 어떠한 풍파 속에서라도 우리의 영혼이 고요하며 평온할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70장)

평강의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행복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제임스 목사 나눔

(이 아침에 주님의 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 132편: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시편 132편]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중 하는 바로 “언약”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관계를 주도하시고 규정하십니다. 이 ‘언약’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약 296번 사용되었는데 구약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트’라고 발음 되는데 그것은 '서약', '계약', '또개놓은 짐승의 조각 사이를 통과함으로써 만들어진 맹약, 동맹, 연맹' 을 의미합니다(인터넷).

오늘 성경 시편 132편 말씀을 보면 2절과 11절에 “맹세”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맹세” 단어는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고(2절) 두 번째 “맹세” 단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것입니다(11절). 흥미로운 점은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하였다는 말씀에는 “성실히”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다는 말씀에는 “성실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성실히 지켜 나가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우리와 맺은 언약에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을 꼭 성실히 지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2편 11절을 보면 시편 기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찌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돌찌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맹세하신 약속인 다윗의 소생으로 하여금 왕권을 계속 이어가게 해 주신다는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내 언약”)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12절). 여기서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다윗의 책임이 포함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과 다윗의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했던 간절한 소원과 그 소원을 아시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시편 132편 1절에서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간절한 소원, 즉 하나님의 성전을 향했던 그의 간절한 소원을 기억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1-5절)(박윤선). 그러한 가운데 솔로몬은 다윗의 간절한 소원 기도를 아시고 그에게 성실히 맹세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변치 아니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11절). 한 마디로, 시편 기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 언약에 대하여 오늘 본문 시편 132편 2절과 11절을 보면 다윗이나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맹세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맹세를 보십시오: “저가 여호와께 맹세 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2절). 솔로몬은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1절). 특히 그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하여 서원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2절). 다윗의 맹세와 서원은 “여호와와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5절)는 자기가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자기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3절) 자기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자기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4절). 즉, 다윗의 맹세와

서원은 하나님의 장막인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돌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평안히 자지도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고 서원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를 모시고자 성전도 짓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찾으므로(6절) 말미암아 신앙의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 경배하고(7, 8절) 또한 제사장들더러 의로워지라고 외치면서 주의 성도들에겐 즐거이 외치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9절)(박윤선). 시편 기자 솔로몬은 이러한 아버지 다윗의 맹세와 서원한 것을 성취하고자 애쓰며 힘썼던 다윗의 주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69:9)을 근거로 하나님께 선포하며 나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132:10). 이것은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인 “다윗의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인 자기 자신의 얼굴을 물리치지 말아달라는 소원기도입니다(10절). 이 소원은 솔로몬의 사리사욕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근거하여 기원한 것입니다(박윤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것은 무엇이였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32편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 하실찌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 찌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고 이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은 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히 왕위를 주시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성경 시편 132편 12절을 보십시오: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찌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네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근거한 약속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는 말씀을 말합니다. 물론 이 약속에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택하시고 영원히 거기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시편 132편 13-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다.”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국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시온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시편 132편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물질적 축복을 풍성히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을 인하여 즐거워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시편 132편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영적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박윤선).

다섯째로, 다윗에게 뿔 곧 그리스도가 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시편 132편 17-18절을 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뿔”이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면 “등”이란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계시를 말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시길 원하였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1)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아버지인 다윗이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의지하여 기도하였고(2절), (2)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11절).

우리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실하게 이뤄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불성실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가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변치 아니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약속의 말씀을 이뤄 나아가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변치 아니하시는 신격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제 133편: 교회의 연합

[시편 133편]

“잘하는 게 있음에도 욕 얻어먹는 교회”라는 글 제목으로 기사를 쓴 안희환 목사님 (참사랑교회)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많은 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중에 몇 가지를 말하였습니다(인터넷). 그 예로 헌혈을 드셨는데 한국종교사회윤리연구소가 1998~2001년까지 종교별 헌혈 현황을 비교하였는데 개신교회 헌혈이 81.79%에 달했다고 합니다. 가톨릭 원불교 불교의 경우 각각 10.54%, 0.55%, 0.86%에 그쳤음을 볼 때 개신교의 헌혈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둘째로, 장기 기증 혹은 골수 기증이라고 합니다. 골수 기증의 경우 2000~2002년 6월의 기록을 살펴보면 역시 개신교의 비율이 3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셋째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이고 넷째로는 노숙자 지원 단체 운영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교회에 대한 평가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그 부분이 상당히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칭찬의 소리보다는 비난의 소리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를 안희환 목사님은 한 여섯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나눈다면 타락한 성직자들의 추한 모습과 교회의 분열상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많이 알려진 큰 교회의 목회자들이 공금 횡령이나 간음죄를 범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한 대형 교회는 자주 사분오열된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추한 모습들을 세상에 들어내므로 말미암아 이젠 안티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직적으로 단체를 결정하고 각 사이트별로 침입하여 개신교

흥집 내기에 열중하고 있는 안티 기독교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반기독교 시민연합이라는 단체는 회비를 걷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기독교 박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욱더 추해질 것입니다. 그리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더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을 발해야 하며 또한 교회는 더욱더 교회의 아름다움을 추한 세상에 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33편 1절을 보십시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지난 주 고난 주간 새벽기도회 때 묵상한 말씀 중 이사야53장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신 예수님, 고운 모양도 없으시고 풍채도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의 현 주소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는 듯 해 보입니다. 왜 그럴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교회는 아무 흠모할 만한 다시 말하면 꿀릴 만한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자신을 바라볼 때 과연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은 있습니까? 저는 ‘아니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교회는 매력을 잃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나 우리가 보기에 매력을 느낄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보기에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십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은 아름다우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빌2:8).

다시 말하면, 순종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입니다. 곧, 우리의 아름다움이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에 있다며 교회의 선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 대답을 로마서 8장 28절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찾아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선행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그리고 충만히 맛보아야 합니다(시34:8). 그리할 때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로서 선행을 행함으로 교회의 선행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good works)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성경 시편 133편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지으면서 주님 안에서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적인 형제들의 혈연에 의하여 뭉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박윤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곧, 주님의 교회의 연합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 화목하며 교회의 연합(통일성)을 지켜 나아갈 때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의 연합된 모습을 보면 이렇게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며 손가락질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에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므로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갈 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그의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통일”)가 되게 하셨습니다(엡1:10). 그러므로 교회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엡4:3).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야 가야 합니다(5:16).

오늘 성경 시편 133편 2-3절 상반절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하여 동거함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두 가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1) 다윗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기까지 내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절).

이 말씀은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은 “향기롭고 윤택미있고 번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었을 때, 수염에 흘러서 옷기까지 내림같이, 형제 사랑은 하나님이 부어 주셔서 퍼지는 사랑입니다(박윤선). 성경 로마서5장5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퍼지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2)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함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3절).

존 맥아더 목사님에 의하면 헬몬 산은 9,200 feet로 팔레스틴 북부에 있는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 꼭대기에 있는 눈이 증발하여 올라갔다 남쪽으로 내려와 유다에 이슬을 준다고 합니다(박윤선). 유다에 있어서 이슬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곡초가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함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고 한 이유는 마치 이슬이 높은 곳이 헬몬산에서 내려 퍼지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입니다(3절하).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영생”의 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뜻입니다(박윤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1절). 주님의 교회의 선함과 아름다움은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형제, 자매에게 퍼지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성(통일성)을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성령의 하나 됨을 사랑으로 지켜 나아가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추구하면서)

제 134편: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34편]

지난 주 목요일 저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God’s sufficient grace)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성경 고린도후서 12장9 절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네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육체에 가시”(a thorn in my flesh)를 자기에게서 떠나기 위하여 주님께 세 번 간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을 깨닫게 되므로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 간구하였지만 그 기도 응답을 받지는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을 받은 바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족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 이유는 지난 주 목요일 저의 장인 어르신께서 수술을 받지 못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고백하시면서 섬기시고 계시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오히려 감사하시면서 크게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장인 어르신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크게 기뻐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터인데 라는 생각 속에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복음서가 “좋으신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족한 은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다음 날 처형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오히려 찬미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족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34편 1절과 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송축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찬양”을 가리키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가 한 3개가 있습니다. 이 3 단어는 각각 다른 관점과 맥락 속에서 찬양의 의미를 조명하고 있습니다(인터넷).

(1) 첫 번째 단어는 “힐렐”(hillel)입니다.

찬양을 뜻하는 구약어 중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로써 기본적인 의미는 ‘자랑하다, 칭찬하다’입니다. 이 동사는 사람을 칭찬하는 경우(창12:15, 삼하14:25;잠12:8)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에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이에 해당하는 신약의 그리스어 동사 아이네오(aineo)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었습니다. 찬양사역은 하나님을 자랑하여 높이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그 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그것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표현됩니다. 그리고 찬양에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에 부딪히면서 이러나는 감탄과 흥분, 감격, 자랑스러움, 환희 등이 수반됩니다.

(2) 두 번째 단어는 “호다”(hodah)입니다.

종종 ‘감사하다’고 번역되지만, 그 기본적인 의미는 ‘고백하다’입니다. 이것이

해당하는 신약의 그리스어 동사 호몰로게오(homologeō) 역시 ‘고백하다’를 뜻합니다. 호다의 의미는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었거나 좋은 일을 해주었을 때 보이는 반응인 ‘감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호다와 그 명사형 토다(생모)는 시편50편 14,15절과 역대하 20장 21절에서처럼 종종 환난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즉 호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환난 너머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고, 상황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찬양사역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케 하는 사역입니다.

(3) 세 번째 단어는 “베렉”(berek)으로서 오늘 본문 시편 134편 1, 2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주어와 목적어에 따라 세 가지로 번역됩니다. (a) 하나님이 사람을 ‘베렉’할 때에는 ‘복을 주시다’로 번역되고, (b) 사람이 사람을 ‘베렉’할 때에는 ‘축복하다’가 되며, (c)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베렉’할 때에는 ‘송축하다’로 번역됩니다. 여기서 송축이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 혹은 증언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한 ‘호다’가 찬양이 두 내용, 즉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 중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베렉’은 하나님의 행위, 특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에 대한 증언입니다. 또한 ‘호다’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여 고백하는 것인 반면, ‘베렉’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긴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긴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여호와와 모든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1절). 여기서 ‘여호와와 종들’이란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섬기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제사장들)은 주님의 성소에서 밤에도 섬기고 있었던 주님의 신실한 종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러한 신실한 주님의 모든 종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을 받아 주님의 성소에서 신실하게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송축하되 그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절). 이 권면의 말씀은 마음을 들어서 또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송축(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박윤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찌어다.” 시편 기자는 밤에도 주님의 성소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권면하면서 또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길 기원하였는데 여기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그의 모든 종들에게 복을 주실 만한 힘이 무안하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박윤선). 이 복을 주실 만한 힘이 무안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모든 종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찬양 예배 자가 되길 기원하면서)

제 135편: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편 135편]

지난 주 수요기도회 때 우리는 시편 134편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움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 지난 주 금-토요일, 5월 달 1박2일 기도회 때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말씀 부흥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그 크신 역사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며 또한 앞으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35편 중 1-3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4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4번이나 반복에서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3절).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이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함이 기쁜 일이다(“아름다우니”)라는 것입니다(3절).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4절부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한 4가지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박윤선). 저는 오늘 이 4가지 이유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4가지 이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135편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라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신 이유가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같이 마음이 강퍽하고 죄를 범하기를 즐겨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신 것입니까?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선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을 “자기를 위하여”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신명기 7장 6-8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his treasured possession)라는 말은 “보배로운 백성”이란 말씀입니다(신26:18).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셨습니다(신26:18).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135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데서 다 행하셨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5절)께서는 자연계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움직이시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6절) 자연계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주관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한 보배로운 백성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자 자연계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성경 누가복음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허랑방탕하여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허비한 탕자가 거하고 있었던 나라에 크게 흥년이 들게 하시므로(14절) 말미암아 탕자를 궁핍게하시사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우박이나 흑암 등 재앙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에게서 건져 내신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움직이시므로 말미암아 그의 선택된 백성들인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곡식에 풍작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풍족함 속에서 지내게도

하시지만 가뭄을 통하여 궁핍한 가운데도 거하게 하십니다. 아합 왕이 범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사 다시 비를 내리시게 하신 일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움직이시사 우리에게 필요한 우비도 그의 때에 내려주시고 또한 비를 거두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자연 은총(또는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135편 12절을 보십시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두개로 나눕니다: 일반 은총(또는 자연 은총)과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 모든 인류에게 부여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써 악인에게도 비와 내려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성도에게만 부여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5편 8-14절에서 시편 기자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행적들을 적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기적적으로 내리신 10가지 재앙들(9절) 그 중에 가장 큰 것인 열 번째 재앙인 애굽의 처음 난 것, 사람이던 짐승을 치신 것(8절)으로 시작하여 10-11절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신 일들, 그리고 12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14절에 와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대토록 전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증표이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 은총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과거의 삶 속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전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우리가 당면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상과 달리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135편 15-17절을 보십시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여기서 시편 기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로써 또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 구원의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거짓된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숨 쉬지도 못하는 이 죽은 신들은 다 거짓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18절). 우상을 섬기는 것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섬기는 자들에게는 괴로움만 줍니다(박윤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보배로운 백성들로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영원한 기쁨, 즉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되신 구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5편 1-3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4번이나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인 19-20절을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이 또 다시 4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기자는 시작을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4번이나 권면하더니 끝날 때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4번이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자연 은총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므로 말미암아 그가 참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찌어다 할렐루야”(21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 후,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찬송하길 기원하면서)

제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

지난 주 토요일 새벽기도회 때 ‘영적 필터’(spiritual filter)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하게 된 원인은 교회 정수기를 고치러 오신 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 정수기의 문제가 바로 필터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가 문제가 있으므로 마시는 물이 잘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영적 필터에 문제가 있으므로 제대로 표출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생각은 성경 에베소서 5장 15-21절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적 필터”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껴 주님의 뜻을 이해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드려야 함을 배웠는데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한 3가지로 표출됨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찬양/예배”와 “감사”와 “복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하므로 피차 복종한다는 것입니다(19-21절). 과연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주 수요일기도회 때 우리는 시편 135편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135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권면하였는데 오늘 본문 시편 136편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면서 반복적으로 26번이나 각 구절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계시며 또한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한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1-3절).

성경 시편 136편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모든 신과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 즉 우리 하나님은 신들 중에 참된 신이시며 또한 주들 중에 참된 주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과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그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기사 때문입니다(4-9절).

성경 시편 136편 4절을 보십시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지난 주 수요기도회 때 시편 135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하는 두 번째 구체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 은총 때문(6-7절)이라고 배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5절)께서는 자연계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움직이시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6절) 자연계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계시되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한 보배로운 백성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자연계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연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4-9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지으신 큰 기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1-3절)이라고 말하면서 여기 4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큰 기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큰 기사”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에 “큰 기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으며(5절), “땅을 물 위에 퍼”시고(6절), “큰 빛들을 지으”셨으며(7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으며(8절) 또한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9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큰 기사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전지 만물을 통하여 자신의 위대하심과 크심(광대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지으신 천지를 통하여 그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보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복음성가 “크신 주께”라는 찬양이 생각납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와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후렴)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크신 주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시사 그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10-22절).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시편 136편 10절부터 22절까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사 광야에서 큰 기사들(4절)을 행하시므로 결국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12절) 애굽의 장자를 치시므로(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일(11절), 홍해를 가르시사(13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육지처럼 통과케 하시고(14절)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바다에서 얹드려 돌인 신 일(15절), 그들을 광야로 통과케 하신 후(16절) 큰 왕들과(17절) 유명한 왕들(18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일(20절)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일(21-22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자기를 위하여 특별한 소유, 즉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은(135:4) 그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사 애굽과 같은 사탄의 왕국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인도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23-26절).**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섭리 가운데 그가 사랑하사 선택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등 그의 백성들 삶 속에서 역사하시사 자신의 영광을 들어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23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비천한 데” 처하게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비천한 데”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가리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비천한 데 처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죄의 결과로 비천한데 처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천한 데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대적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24절). 죄를 범하였을 때 바벨론을 사용하시사 사랑하는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중엔 바벨론을 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지시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신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25절).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 앞에서 그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 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26절).

신앙의 척도를 알기 위해선 과연 그 형제, 자매의 입술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는지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는 성도들은 참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직분이 있더라도 성도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낸다면 미성숙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기사인 천지창조와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 두셨다가도 다시 건져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시편 136편: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시편 136편 1절).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특히 오늘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 때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비록 금년 한 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있었고 아직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으십니까? 만일 “예” 혹은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힘들 일을 겪고 있다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금년 한해를 뒤돌아 볼 때 저는 금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그의 선하심을 나타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이런 저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나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All the times! (항상요!)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은 길어야 칠, 팔십년입니다. 물론 그 정도까지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칠, 팔십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엡1:4).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2:8).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롬6:23).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안다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금년 한 해를 뒤돌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 표어인 “말씀 묵상의 해”, 한 해 동안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략하게 한 3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말씀으로 저에게 믿음을 더하시므로 힘을 더하셨습니다.

(2) 하나님께서서는 말씀으로 인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특히 시편 말씀을 통하여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기도케 하시므로 말미암아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3) 하나님께서서는 말씀으로 최고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므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 영혼을 소성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묵상케 하시므로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금년 한 해를 뒤돌아 볼 때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 경배를 드리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136:1).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제 137편: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시편 137편]

2009년 5월 14일,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라는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교계인사 300여명, 한국교회 자성 촉구 비상선언”이란 제목아래 기사가 쓰여 있어서 좀 읽어 보았습니다(인터넷). <목회자의 복음적 책무와 자정(自淨)을 위한 선언>라는 제목 아래 한 8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첫째, 복음적 가치에 충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둘째, 교회가 분열과 대립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 셋째, 목회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반성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견지할 것이다, 넷째, 교회가 성장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교회 간 양극화를 초래한 일은 바로잡아야 할 과제로 인식한다, 다섯째, 세상의 학위와 명예보다 영성의 권위자가 되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 여섯째, 개인의 경건성과 사회적으로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노력한다, 일곱째, 복음적 바탕위에 깨끗한 교회의 정치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여덟째,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에 힘쓸 것이다’. 저는 이 여덟 가지 비상 선언문을 읽으면서 참 귀한 선언문이다 생각되었습니다. 이 선언문대로만 우리 교회들이 살아간다면 교회는 교회답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는 8개 선언문들 중 제일 첫째 선언문이 핵심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즉, 우리 교회가 복음적 가치에 충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 ... 이 첫 번째 선언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글은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종교 개혁자들이 순교로써 이룩한 개혁주의의 전통을 이어갈 것을 천명한다.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병원이며,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이다. 그런데 복음의 가치보다 세속적 성공에

치중하지는 않았는지,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 윤리적 삶을 지향했는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하여 깊은 자기 성찰을 하며, 뼈아픈 회개를 통하여, 앞으로 복음적 가치에 따라 충실하게 살고자 다짐한다”(인터넷). 참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선언문 내용입니다. 특히 교회는 복음적 가치보다 세속적 성공에 치중하고 있음을 회개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그리스도인)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울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37편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있으면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바벨론이 멸망시킨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왜 그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우리가 지난 주 수요기도회 때 시편136편을 묵상하면서 특히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천한 데”, 즉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였었는데 오늘 본문 시편137편에 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쓴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서러웠겠는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2-3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자들이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고 명했을 때 그 명령을 거부하려고 자기의 거문고를 버드나무에 걸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기자는 거룩한 노래를 이방인의 오락용으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박윤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억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노래를 오락용으로 부르기를 강압적으로 요구를 받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꼬”(4절). 이러한

한탄 가운데서 그는 바벨론에서 포로생활 가운데 고독함을 느끼면서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는데 그 눈물을 저는 한 2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시편 기자가 흘렀던 눈물은 회개 기도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울음은, 회개의 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성도는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통회할 것입니다(박윤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지난 주 수요일 제 자신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마음에 감사와 평안함과 기쁨 등이 제 마음에 있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는 마음에 무거움과 근심과 걱정 등으로 차 있는 제 자신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들춰내셨고 죄를 자백하게 하시면서 죄와 단절된 삶을 살도록 도전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다음 날 목요일 아침 새벽기도회 후 어제 수요일 기도회 전에 먹다가 남았던 Kentucky Fried Chicken(KFC) 빵 한 조각을 손에 들고 기도할 때 제 눈가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일 기도회 때 설교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또한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특히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회개 가운데 교회에 참된 회복과 화목과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시편 기자가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흘렀던 눈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며 흘렸던 기도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마음에는 오직 구원자가 하나님 밖에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이 죄를 범하므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시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자신들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욘2:9)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했던 것처럼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밖에 없음을 알고 그 분께 구원을 간절히 구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생각할 때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더럽고 추한 죄에서 건져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 거듭나길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137편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찌로다.” 시편 기자는 비록 지금은 이방인 나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욱 즐거워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예루살렘을 자신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하나님 중심된 경건한 삶을 보여줍니다. 비록 이방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사모하였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마치 집을 떠난 자녀가 그의 부모님과 집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된 것처럼 시편 기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었기에 다시 예루살렘이 재건되어 전처럼 번창하길 간절히 기원하였습니다(칼빈).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기도가 되어 합니다. 즉, 우리는 폐허가 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재건해 주시사 초대교회 때처럼 번창하길 기원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가 그 때 만큼 교회의 전성기 언제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시대, 믿는 자들이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러한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초대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현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참된 번창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현 시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처럼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16세기 종교개혁 때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참된 종교 개혁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교회가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기에 그의 몸 된 교회 또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웨스트민스터 성경 소요리 문답 문 1.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의 대답, 곧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는 그의 교회 또한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먼저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고 울어야 합니다. 교회가 죄를 범하므로 황폐한 모습을 영의 눈으로 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없이는 주님께서 교회를 건지시고 세우시는 역사의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주님의 교회를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길 원한다면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 주님의 교회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주님께서 그의 몸 된 교회를 재건하시는 것, 세우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는 거기서 극락의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시온의 노래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 즐거워하는 자의 삶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 137편 7-9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자 원수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심판, 벌)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면서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 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7절). 물론 에돔 자손을 바벨론은 아닙니다. 오히려 에돔 자손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칠 때에 에돔은 기뻐하였습니다(욘10-16).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본래 형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숙적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박윤선). 그러면 에서 오늘 본문 7-9절에 나오는 에돔이나 바벨론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였고 압제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여 울었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황폐케 한 바벨론을 비유한 에돔 자손을 쳐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교회의 원수인 사단과 그의 악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기도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악인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균형을 잃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특히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동전은 앞뒤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즉 교회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의 백성들, 교회의 원수들을 심판(벌)하시므로 그의 백성들(교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구원과 더불어 교회의 원수의 멸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원수에게 벌을 내리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의 몸 된 승리장로교회를 생각할 때 2가지가 생각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18절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과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입니다. 2003년도 교회갱신목회자협의회(교갱협)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면 눈물을 흘리며 승리장로교회를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때 승리장로교회를 생각하며 그리움과 사랑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 생각이 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승리장로교회,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교회,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며 또한 그 고백한 대로 살어드리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이 세우시는 승리장로교회를 주님께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나 자신과 세상과 죄악과 사단과 죽음과 싸워 승리하는 참된 승리장로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승리장로교회를 생각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주님이 세우시는 승리장로교회 목양실에서)

제 137편: 최고의 기쁨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시편 137편 6절).

저는 헨리 나우웬의 책을 다시 손에 쥐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마음에 다가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Self-rejection"(자기 거절)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마음에 다가오는 이유는 아마도 저는 '자기 부인'(self-denial)과 '자기 거절'을 혼동하는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때에 자기 거절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상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이 겸손인 줄 착각하고 자기를 거절하는 신앙생활을 하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충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저에게 이 단어는 충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을 모른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때에 우리는 자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오히려 최악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웬지 모르게 상당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아는 건강하지 못하고 오히려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크리스천의 자기 사랑'이란 책 제목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책은

우리에게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아 기형아'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강하지 못한 자아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위선의 능력(?)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선적인 삶의 죄책감에서부터 다양한 죄책감들에 병들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대하는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겸손인줄 알고 착각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한 자녀들일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삶일까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오늘 성경 시편 137편 6절 말씀을 통하여 받는 도전은 시편 기자는 자기의 최고의 기쁨보다 주님을 더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가 건강한 자아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의 기쁨(God's chief joy)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쁨보다 더 기뻐하였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음 성가 하나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고백하는 찬양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쁨보다 더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을 아는 자라 생각합니다. 그 기쁨과 사랑에 충만한 자는 자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을 건강한 자아로 사랑할 줄 아는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 138편: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유

[시편 138편]

저는 지난주일 로마서 6장15-23절 중심으로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의의 종)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그 묵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배웠습니다(17절).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아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의의 종이 맺는 열매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저는 한 2가지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와 “순종”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138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결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왜 다윗은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입니다(2절). 다윗이 체험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사랑)과 성실하심(신실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다윗이 경험하였던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크게 하신 것입니다(박윤선). 여기서 주님께서 그의 말씀을 크게 하셨다는 말은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고 있었으므로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겠다고 결심합니다(1절).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다고 결심한 이유, 즉 그가 경험하였던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던 이유는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그에게 힘을 주시어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138편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과거의 삶을 뒤돌아 볼 때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오도록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어 우리에게 힘주시고 강하게 하시므로 오늘까지 오게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뒤돌아 볼 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내게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86:16). 다윗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다윗은 주님께 힘을 달라고 간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18편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함보다, 먼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무엇보다 심령에 은혜를 받아야 한다(빌4:23). ... ‘영혼을 ... 강하게 하셨’다 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심령에 힘을 주셨다는 말이다”(박윤선). 우리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냥 방관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E. M. 바운즈는 그의 책 ‘기도의 본질들’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치 기도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 응답이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것처럼 응답된 기도는 감사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For as prayer brings the answer, so the answer brings forth gratitude and praise. As prayer sets God to work, so answered prayer sets thanksgiving to work”) (바운즈). 복음 성가 “축복의 사람” 가사가 생각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 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 우리가 연약하며 무기력함을 느낄 때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을 주실 것이며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힘을 공급받으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이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던 이유는 열왕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138편 4-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왜 이방인 나라 왕들도 다윗처럼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에게서 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을 통하여 이방인 나라 왕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과연 다윗을 통하여 이방인 나라 왕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시므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열방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취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사60:1-3).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을 보고 열방의 왕들도 주님의 빛으로, 그분의 광명으로 나아옵니다. 주님께서서는 다윗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므로 말미암아 열방의 왕들도 그 영광을 보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의 크신 영광을 이 어두운 세상에 나타내시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케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이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던 이유는 주님께서서는 겸비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138편 6-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찌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감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특별한 사랑으로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과연 우리는 낮은 자들인가, 즉 겸손한 자들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신 예수님 때문에 교만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사랑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다윗이 환난 중에 있었을 때 더 특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었던 다윗을 소성케 하신 것입니다. 성경 시편 71편 20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의 원수들인 교만한 자들을 치시사(심판하시사) 다윗을 그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구원)주셨습니다(138:7). 우리는 환난 중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냥 내어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그의 약속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소성케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그의 말씀으로 강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며 결국은 우리의 원수인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비록 지금 환경이 자기가 환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도 다윗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다윗이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던 이유는 주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138편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찌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은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를 보면 “관계된 것”(His purpose)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완전케 하시리라’(The Lord will complete for me). 그러면 과연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완전케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다시 말한다면, 한글 성경에서 말하는 “내게 관계된 것,” 즉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사무엘하 7장 약속입니다. 즉,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며 평안을 주며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며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하고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어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25절).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과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즉 진정한 이스라엘의 건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완전케 하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성경 로마서8장30절을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하시고 의롭다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20-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리고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낮은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바울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1:6).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그에게 힘을 주시사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시138:3). 또 다른 구체적인 이유들은 열왕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기 때문에(4-5절), 주님께서는 경비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6-7절) 그리고 주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8절)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살아가면서)

제 138편: 내 영혼을 강하게 하소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시편 138편 3절).

어제 한 형제가 저희 집에 찾아 왔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다니는 교회에서 상처를 좀 입어서 저희 집에 찾아왔다고 아내가 얘기해 주어서 알았습니다. 한 20개 교회 운동 대회가 있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코치가 다음 기회를 보자고 했나봅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는 이 메일을 통해서 자기를 빼고 다른 교회 운동 잘하는 사람을 끌어 들인 것을 알고 이 형제가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어제 금요일 자기 교회 모임도 안가고 저희 집에 온 것입니다. 이 형제가 간 후 저는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교회에서 받은 이 형제의 상처, 우리 승리교회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영어사역에서 섬기면서 행사나 프로그램(program)보다 사람(people)을 중요시 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영어 사역 팀 지도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받은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세워주는 팀이 되어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이 형제처럼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입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3편 4절과 7절에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3절)하였기에 영혼이 상처를 입고 피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한 곳에 거하였으므로(3절) 시편기자의 영혼은 상하게 되었고 피곤해 했습니다. 그러면 저의 영혼을 상하게 하며 피곤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 가능한 요소는 '눈높이 교실'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31편1절 말씀처럼 눈이 높아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주제를 알고 인정하는 가운데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섬기면 되는데 저는 자꾸만 다른 은사 받은 목사님들을 바라보려는 유혹이 저의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 저는 교회로 오는 크리스천 신문들을 보고 싶지 않아 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는 결코 건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건강한 자아가 중요한 것처럼 건강한 영혼이 우리 신앙생활엔 필수입니다. 그러한 건강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강하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시편 138편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 시편 기자는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되 전심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주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6절). "주의 인자하심"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에 6절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어제 저는 집에 가서 저희 집 망내 예은이와 좀 길을 걸었습니다. 예은이가 겨우 1살이 지났기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걸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을 잡기 위해선 제가 허리를 구부려야 했습니다. 허리도 좀 아팠지만 이 아빠의 손을 잡고 걷기를 좋아하는 예은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했었습니다. 여기서 딸을 향한 아빠인 저의 마음을 한 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시데 낮은 자인 저를 하감하시며 동행하신다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의) 성실하심"(2절)이란 말씀을 7절 말씀과 연관하여 묵상해보았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이 나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예를 들면, 어제 예은이의 손을 잡고 있다가 아이의 걸은 운동을 시키려고 손을 아이의 손에서 몇 번이고 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예은이는 넘어졌고 그녀는 울면서 이 아빠에게 손을 쪽 펴 내밀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넘어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주의 손을 펴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구원해 주신 주님, 현재에도 구원해 주시고 계시며 또한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십니다.

성경 시편 138편 2절 하반절과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위에 높게 하셨음이니라"(2절), "...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4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분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시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높여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다윗이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그를 소성케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119:50),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십니다.

성경 시편 138편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기도응답을 통하여 담대해졌고 또한 그의 영혼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는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1절),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하여(2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2, 4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7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 줄 믿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8절). 다윗은 기도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 행동, 습관, 프로그램, 행사, 숫자, 등등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외적인 것들에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138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십니다. '주여, 내 영혼을 강하게 하소서!'

교회 말씀 집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나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새벽기도회와 지도자 성경공부 시간을 통하여 영혼의 힘을 공급 받은 후)

제 139편: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월요일 저녁, 잠들기 전, 저는 아이들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이들 셋 다 책을 읽고 있는데 유난히 막내 예은이가 소리를 내면서 침대에 누워 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예리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착하다고 얘기해 주면서 열심히 책 읽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리는 이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고 책을 주목하여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다음 저는 막둥이 예은이에게 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착하다고 얘기해 주면서 열심히 책 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은이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제 방으로 와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예은이가 물병을 입에 물고 제 방으로 오더니 제 침대 옆 탁상에 놓여 있는 기독교 책 하나를 보더니 이 책 읽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은이에게 가끔 읽는다고 말하고 그러나 지금 이 아빠는 성경책을 읽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은이가 기독교 책을 펴 보더니 줄이 거 있는 것을 보고 왜 책에서 줄을 그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그렇게 줄을 긋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들고 있었던 제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여기에다가도 아빠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줄을 긋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은이는 기독교 책을 가리키면서 이 책은 줄을 거도 되지만 성경책을 줄이면 안 된다고 제 성경책을 가리키면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그렇다고 성경책에 낙서하면 안 된다는 것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생각하다가 이 아빠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말한 뒤 제가 읽고 있었던 성경 이사야 8장17절을 읽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구절에 줄이 거 있었기 때문입니다: “I will wait for the Lord, who is hiding his face from the house of Jacob. I will put my trust in him”(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낮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예은이가 읽더니 “the Lord”(주님)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줄을 거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ㅎㅎ 그래서 제가 예은이에게 그 성경구절 영문에 쓰여 있듯이 ‘너는 주님을 trust(신뢰)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은이가 “yes”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trust(신뢰) 하십니까? 만일 “예”라고 대답하였다면 ‘왜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139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배우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39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한 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행동과 존재를 아시고 계십니다(1-4절).

성경 시편 139편 1-4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앉고 일어섬과 자기의 생각도 알고 계시며(2절) 자기의 모든 행위도 익히 알고 계시며(3절) 또한 자기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4절). 한 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언행이나 심사나 동정의 일체를 다 아실 수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14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였기 때문입니다(14절).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심이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어제 성경책 욥기서를 읽다가 욥기 7장 17-20절 상반절 말씀에서 잠시 머물러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하고 너무나 연관이 되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욥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님께서 크게 여기사 우리에게 매우 큰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시는지, 그리고 순간이라도 우리를 주목하심에 있어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는지, 그는 주님을 가리켜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앓고 일어섬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며,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신기하고 오묘하게 만드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사 우리의 모든 행동과 존재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5-12절).

성경 시편 139편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편재하심(God’s omnipresence)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므로 동시에 어디든 계실 수 있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피할 수 없습니다(렘23:23,24, 암9:2). 우리는 하나님의 감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나 우리를 포위하신고로 우리는 그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고로 우리는 그 분의 관하에서 이탈할 수도 없습니다(5절, 박윤선). 이것은 다윗은 조금이나마 이 사실을 체험 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6절). 그는 편재하신 하나님에게서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음을 하늘에 있을지라도, 음부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하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8-12절). 그래서 그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7절).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사29:15).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13절) 어두운데서 죄악을 범하면서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화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편재하심 속에서 숨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편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참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예를 들어 시편121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실족치 않게 하십니다(3절).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17-18절).

성경 시편 139편 17-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찌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를 제일 잘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를 제일 사랑하셔서 모든 관심과 주목을 자기에게 해 주고 계시는 가운데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의 수가 모래보다 많은 것에 대하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잠에서 깰 때에도 편재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향하신 생각이 수다함을 깨닫는 다윗의 마음은 어찌했겠습니까? 모든 관심과 초점(주목)이 다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보배로운 사랑에 다윗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14절). 그러한 감사 속에서 다윗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제일 사랑하시사 다윗의 원수들, 곧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과 더불어 그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므로 자시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편재하심과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일 잘 아시고 또한 제일 사랑하고 계시는 줄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므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139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부족하나마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기에 저 같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들이 모래사장의 모래알들처럼 셀 수가 없다는 이 사실, 생각만 해도 힘이 되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인데 왜 하나님은 저 같은 자에게 셀 수 없는 생각으로 생각해 주시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제일 잘 아시고,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에게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23-24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전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하시사 우리의 뜻을 아옵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전지하시고 편재하시며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속에 아무 악한 행위도 없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를 감찰하시고 제일 잘 아시며 또한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 같은 죄인에게 최고의 관심을 두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제140편: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는 하나님

[시편 140편]

지난 주 금요일 “미주 뉴스앤조이”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한인교회 분쟁 해결 위해 ‘기독교 변호사들’ 나섰다”라는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 읽어 보았습니다(인터넷). 내용을 보니까 남가주 한인 기독교 변호사들 한 4분과 한 분 목회자 분이 모여 '한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세워 교회 분쟁 해결과 예방 교육이란 두 가지 역할을 강담하고자 세워졌다고 합니다. 즉,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가 중재를 요청했을 경우, 법정까지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중재하거나 협상하도록 돕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갈등 예방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이 단체의 목적입니다. 이 위원회에 한 분인 법률 인으로 20~30년간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해온 서모 변호사(LA 모 교회 장로)는 한 특강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LA 지역 법원에 있는 판사 한 명이 '왜 유독 한국 사람들만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으로 들고 오냐'며 아주 역정을 내더라. ... 소송에 들어가면 사실 확인 작업을 하는 데만 최소한 2만 불 이상 소요된다. 성도들이 바친 귀한 헌금을 왜 그런데 쓰나.”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 대학교 후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그 후배는 변호사로서 1년에 한 번씩인가 다른 변호사들하고 인도에 가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억울한 일들을 변호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형제를 생각할 때 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성경은 힘이 없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이것은 참된 종교요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아삽도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시82:3).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과 곤란한 자들, 빈궁한 자들을 위하여 판단하며 공의를 베푸는 삶,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성김의 사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하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40편 12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한 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여 주시사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 기도 내용을 한 2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건지심(구원)과 보호하심입니다(1-5절). 오늘 본문 시편 140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악인들에게서, 강포한 자들에게서(1절) 건져주시고 그들에게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였던 이유는 자기의 원수들이 너무 악하여 중심에 다윗을 해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해하고자 꾀하고 또한 다윗과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2절) 마치 독사처럼 다윗을 향하여 독을 뱉어 죽이고자 하였습니다(3절).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4절).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윗의 걸음을 밀쳐 넘어트리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넘어트리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그를 떠나 배도의 길을 걷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의 악한 종들과 매일 모여 우리를 해하고자 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40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셀라).” 이렇게 사탄은 그의 교만한 종들을 통하여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해하려고 올무와 그물을 쳐서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며 그 함정에 빠져 하나님께 범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탄의 함정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벧전4:7).

**마지막 둘째로, 다윗은 자기의 원수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
다.**

그 간구 내용은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MacArthur):

(1)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방해하시길 기도드렸습니다
(시140:6-8).

오늘 본문 시편 140편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셀라).” 다윗은 악인들이 매일 모여서 자기를 해하기를 꾀하는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신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0편 6-7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다윗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 하였으므로(예: 아히도벨의 모략을 물리치시고 후세의 모략을 압살롬으로 듣게 하시므로 다윗을 보호 해주시고 결국은 구원해 주심)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에게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의 원수들을 방해 해 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

(2)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벌하시길 기도 드렸습니다(9-11절).

오늘 본문 시편 140편 9-11절을 보십시오: “나를 에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벌하심에 있어서 재앙을 내리시사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다시는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게 패망케 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대(방해)하여 주시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꾀수를 방해하시사 스스로 멸망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다가 DNA 시험 결과로 풀려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돈도 없어 변호사도 살 수 없어서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몇 십 년을 살다가 풀려나는 사람들을 뉴스를 통해서 볼 때 저들의 감옥에서의 세월을 어떻게 다시 돌려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지금도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요즘 법정에는 진리보다 거짓을 진리로 포장하여 만들어가는 최악 된 풍토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실수로 죄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가 하면 특히 변호사들은
수많은 돈을 받아 누리면서 죄인들조차도 무형의를 주장하여 형벌을 면하게 하는 참 최악 된
풍토가 법조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 140편에 나오는 다윗처럼 고난 하는 자들,
궁핍한 자들을 신원하여 주시며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의 구원의 은총과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벌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악인 심판을 통한 의인 구원을 경험하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과 악인의 심판을 기원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말씀과 기도로 승리!)

제 141편: 그러나 주님, 내 눈은 주님께 향합니다.

[시편 141편]

여러분은 삶 속에 난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해도 일 해나가지가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 주 새벽기도회 때 묵상한 시편 62편 1, 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소망)이 그에게서(저로 좇아) 나는도다.” 어떻게 난관을 당했을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잠잠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사30:15). 왜 우리는 난관 속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여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오직 주님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시62:1, 5).

오늘 성경 시편 141편 7, 9, 10절을 보면 우리는 시편 기자 다윗은 그의 원수들인 악인들로 말미암아 난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당하고 있었던 난관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동무들도 원수들에게 유린을 당하고 있었습니다(7절, 박윤선). 다윗의 원수 악인들은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와 함정, 그물을 놓아(9-10절)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7절). 이러한 난관의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한 5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눈은 오직 주님께 향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141편 8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한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성경에는 8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But)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난관의 상황에서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대하는 관망을 말합니다(박윤선). 성도가 고난 중에서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행동 그것이 벌써 기적이니, 어찌 그 믿는 데로 되지 않겠습니까(박윤선).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낙심치 않고 어떠한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 눈이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분히 견져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으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이 다윗의 눈이 주님께 향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 우리가 난관을 당했을 때, 역경과 곤란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코 출애굽 당시 홍해 바다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 홍해 바다와 뒤에 쫓아온 애굽 군대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원망하며 불평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시121:1.2).

둘째로, 다윗의 손은 하나님께 드러졌습니다.

성경 시편 141편 2절을 보십시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난관을 당했을 때 그의 눈은 주님께 향하였고 그의 손은 주님께 드러졌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손이 주님께 드러졌다는 말씀은

다윗은 난관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심령을 받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박윤선). 그의 심령을 받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속히”라는 단어를 볼 때 그의 기도는 긴급한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은 한 마디로 하나님의 긴급한 구원을 사모하여 드러진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영혼을 빈궁한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8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하여(9절) 그리고 악인을 심판해 주시길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라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10절). 이러한 긴급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은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께 받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되 그는 “항상” 기도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5절). 그리고 그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저녁 제사 같이 희생 재물처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박윤선).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는 저녁 제사와 같은 기도는 무엇일까요? 성경 시편 51편 17절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는 저녁 제사와 같은 기도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러지는 기도입니다. 죄를 깨닫고 자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러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드러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셋째로, 다윗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았습니다.

성경 시편 141편 4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수를 먹지 말게 하소서.” 우리 사람은 난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눈을 주님께 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의 영적 저항력이 없어져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가 쉬웁니다. 결국 우리의 눈과 손이 주님께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취약해져 우리 마음이 악한 일(죄악 된 일)에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간은, 곤난한 때에 신앙의 절개를 변하여 악도들과 동화되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때에 우리는 결심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죽을지라도 그런 자들의 행위에 동참하지 말 것이다.”

둘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즉 난관 속에서 영적으로 더 단련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지 아니면 영적으로 취약해져 하나님께 죄를 범하던지 말입니다. 고난의 통로를 통하여 영적으로 강해져 세상과 죄악과 더욱더 분리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던지 아니면 고난의 통로에서 영적으로 약해져 세상과 죄악과 짝지어 살면서 행악 자들과 동화되어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던지 둘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웬지 적어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난관과 역경 속에서 취약해져 악한 일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자신의 눈을 주님께 향하였고 그의 손은 하나님께 드러졌으며 또한 그의 마음은 악한 일에 기울어 죄를 범치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결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악인이 먹는 음식이 “진수”처럼 먹음직해 보일지라도 그의 눈은 오직 주님께 향하여 있었기에 안목의 정욕의 유혹에 그의 마음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손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가운데 깨끗함과 정결함을 추구하였기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악행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난관 속에서 유혹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멈추어 집중하며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에 헌신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로, 다윗은 그의 입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성경 시편 141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는 곤고할 때,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말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통과 역경 속에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 할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취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실제로 사탄의 역사를 보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기도케 하지 못하게 만들며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죄악 된 일에 기울게 만듭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탄은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케 만듭니다. 그 한 예로 욥기 2장 9절에 나오는 욥의 아내의 말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을 들은 욥은 그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10절). 욥은 자기가 당면한 난관 속에서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닳듯처럼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면서 마음을 잘 지켜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결심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닳듯처럼 우리의 말이 사람들이 들을만하게 달아야 합니다(시141:6). 달게 말한다는 말씀은 상대방을 유쾌하게 해주는 말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인하여 상대방은 은혜를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섯째로, 닳트의 머리는 의인의 책망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시편 141편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의인이 나를 칠찌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찌라도 머리의 기름 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찌라 ….” 다윗은 난관 속에서도 의인의 책망을 거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책망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난관 속에서 의인의 책망을 은혜로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 주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책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면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 마음이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난관 속에서 의인의 책망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책망을 은혜로 여겼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 비밀을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과 지혜. 첫째로, 겸손이라 함은 난관과 고통, 역경을 통해서 다윗의 눈이 주님께 향하여 고정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다윗은 의인의 책망을 거절하지 않고 은혜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다윗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잠언 기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잠9:8).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느끼며 경험합니다. 거만한 자에게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할지라도 듣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간접적으로 책망을 해도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워합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에게는 책망을 하기를 기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에게는 간접적으로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책망을 해도 듣고 고치도록 노력하겠다 하면서 감사해 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책망을 듣는 그 처음 순간에는 속으로 기분이 상했을지라도 나중에 진심으로 감사해 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지혜 있는 자에게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합니다(8절). 다윗에게는 이러한 겸손과 지혜가 있었기에 난관 속에서 의인의 위로가 아닌 책망도 그의 머리로 거절치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겸손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난관과 역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찌라도 우리의 눈은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손을 주님께 올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 악한 일에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책망을 받을지라도 거절하지 말고 은혜로 여기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눈을 향하시고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어져 그 분의 말씀을 나의 입술로 전파하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전파한 말씀이 다시 내게 돌아와 면책함을 경험하면서)

제 142편: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시편 142편]

여러분, 요즘 고통 거리들이 혹시 많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은 가시덤불처럼 이런 저런 고통거리들로 이리 저리 엉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 속에서 이런 저런 병이 걸려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가시덤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일들이 엉키고 엉켜서 참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도 들곤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가?’ 참으로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가?’ 질문을 던져 볼 때 저는 그 원인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원인은 ‘세상과 염려와 재리의 대한 유혹’ 때문입니다(인터넷).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범하므로 이런 저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엉키고 엉켜서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그 엉킨 것들을 풀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시편 142편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가시덤불처럼 이런 저런 고통거리들이 엉키고 엉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서 “내 원통함”이란 히브리어 원어로 “시아크”인데 그 단어의 뜻은 “덤불”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이 “덤불”이란 말은 다윗의 삶에는 고통거리들이 한

돌이 아니어서 가시덤불처럼 얽혔으므로 질시할 지경에 놓여 있었음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왜 다윗은 이렇게 질시할 지경에 놓여있을 정도로 고통 거리들이 한 돌이 아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는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6절, 박윤선). 핍박을 받던 사울은 다윗의 행하는 길에서 그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 놓기까지 하였습니다(3절).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의 생명을 끊으려고 찾고 있었고(삼상18-24장),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22:1). 보기에는 다윗의 상황이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MacArthur).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다윗의 아주 절박한 상황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즉, 다윗은 사울의 핍박으로 인하여 심히 비천해지고 약한데 놓여 있었습니다(6절, 박윤선). 이러한 다윗의 심히 비천하고 연약한 상태는 외부적으로는 그는 현재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굴에 있었습니다(7절).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다윗의 심령이 속에서 상해있었고 또한 원통함이 있었습니다(2, 3절).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다윗은 전적으로 버림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다윗은 아무리 주위를 돌아보아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면서 신경을 써 주는 사람들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참 처량한 신세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주위에 모든 것을 차단하시는 듯 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도로 쏟아 내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그가 처한 비천한 자리에서도 낙심치 않고, 도리어 소망 중에서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정을 기도로 다 쏟아냈습니다(박윤선). 3절을 보십시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는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 기도로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자신의 심령이 속에서 상해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원통함이 있었기 때문에(2절) 마음에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심정을 마음에 하나님께 쏟아 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윗의 기도에 대하여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다윗의 기도 내용을 한 3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에게 적용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성경 시편 142편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그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곧, 그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분깃”이라는 신념으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자기 우편을 둘러봐도 자기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자들도 없었을 때(4절)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상해있고 우리 안에 원통함이 있을 때 여기 저기 주위에 사람들에게 쏟아내어도 과연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의 피난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사람들을 피난처로 삼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연약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주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만 믿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믿고 인정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의 분깃”이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므로, 그를 소유한 자만이 진정한 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윤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찬송가 82장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애통함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성경 시편 142편 6절을 보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심히 비천한 상태에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 왕에게서 건져주시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 왕과 그의 무리들은 자기보다 훨씬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심히 연약해져 있었기에 다윗은 자기의 심히 연약한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종종 고통과 역경 가운데 주위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속에서 저는 복음성가 “약할 때 강함주시네”라는 찬양이 생각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이런 저런 일들로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할 때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한 속사람의 모습을 엿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심히 연약해 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심히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여 그 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다윗의 기도는 주님께서 그를 후대하실 줄 확신하는 기

도였습니다.

성경 시편 142편 7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은 비록 지금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지만 그 감옥과 같은 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내실 줄 믿었습니다. 한 마디로, 그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구원의 확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서 거지시사 의인들로 하여금 그를 두르게 하실 줄 믿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은 우편을 보아도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자기를 돌아보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5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기도로 피하는 가운데 7절에 와서는 그를 돌아보는 의인들이 있을 것을 확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다윗은 후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116편7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 주님의 후대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 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습니다. 좌악 된 일도 많고 죽을 일도 많습니다(찬송가474장).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이런 저런 고통스러운 일들로 엉키고 엉켜서 우리의 심령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애통함을 어느 누구에게도 쏟아낼 때도 없는 외로움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처럼 우리의 심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쏟아내야 합니다. 쏟아내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그 피난처와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 길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장인 어르신 첫 번째 수술 가운데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렸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제 143편: 참담한 마음

[시편 143편]

제 사촌 동생 중에 어릴 때 어둡고 캄캄한 방을 참 무서워했던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형제가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방을 무서워했던 이유는 자라나면서 자기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부모님의 징계로 아마 아버지인가 자기를 어두운 방에다 집어넣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중학생 때에 저희 교회 수련회 때 어느 기도원 쪽으로 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기도원 산에서 그 형제를 어두운 곳에 홀로 뒀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형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마 징계로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때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방이나 장소를 무서워했던 이 사촌 동생이 저는 오늘 성경 시편 143편을 묵상하면서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시편 143편 4절에서 시편 기자 다윗이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담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야후 인터넷 사전을 보니까 “국어사전”에 (a) 몹시 암담하다, (b) 참혹하다”라고 적혀 있고 “한자사전”에는 “(a) 어둡침침하고 쓸쓸함”, “(b) 참혹하고 암담함” 또는 “(c) (일이나 상태가) 비참하고 막막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기의 마음이 “참담하다”라고 말하였을 때 그 히브리어 원어 의미는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인 큰 재앙(재난)이 임하므로 말미암아 소름끼칠 정도로 마음이 두려워하였다’는 뜻이 내포돼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큰 재난을 만나 그의 인생에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서 그의 심령이 속에서 상하였고 마음이 참담하였을 때 오늘 본문 시편 143편을 쓴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43편 4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다윗의 상태는 한 마디로 ‘상한 심령’ 또는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 수요일 묵상한 시편 142편 3절에서도 다윗은 ‘내 심령이 속에서 상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 시편 143편 4절에서도 다윗은 그의 심령이 속에서 상해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음이 참담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는 심령이 속에서 상해있었습니까? 왜 그의 마음이 참담해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엮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다윗의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참담하였던 이유는 그의 원수가 그를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원수는 아마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 70인경의 어떤 사본들에는, 이 시편 표제에 “그 아들 압살롬이 그를 잡으려고 따라올 때”란 문구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지난 주 수요일 묵상한 시편 142편에서 다윗을 핍박하였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던 반면에 오늘 본문 시편 143편 에서 다윗을 핍박하며 그의 생명을 노렸던 사람은 그의 아들 압살롬 이었다고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다윗의 인생은 왕이 되기 전이나 이렇게 왕이 되고나서도 자기의 심령을 상하게 하며 마음을 참담케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다른 점은 사울 왕에게 핍박을 당할 때에는 다윗이 어떠한 죄를 하나님께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로서 사울 왕에게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닌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에게 받았던 핍박은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43편이 일곱 회개 시편들(6, 32, 38, 51, 102, 130, 143) 중 최종편입니다(박윤선).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핍박이, 그러므로 자기의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마음이 참담한 원인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절망적 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의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라고 생각할 때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핍박하는 원수가 자기의

핏줄이라니,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다윗의 입장에 서보려고 상상해 볼 때는 자식에게 쫓겨 도망가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만큼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는 이미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고 있었습니까(3절).

이러한 절망적이고 괴로운 참으로 참담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한 2가지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신 행사를 기억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143편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우리가 시편을 매주 수요일마다 계속 묵상해 오면서 종종 시편 기자의 기도의 패턴(pattern of prayer)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과거의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기자의 기도 습관이라고나 할까요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베풀어 주신 은총들을 되새겨 보는 기도 습관을 조금씩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을 묵상하기 전에는 주로 과거를 뒤돌아보는 습관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런 저런 과거의 힘든 상황들과 안 좋은 추억들 등 사람의 썩은 냄새가 나는 죄악 된 기억들과 제 자신의 하지 못함과 죄를 범한 행함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았는데 시편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초점을 바꾸고 계십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과거를 뒤돌아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때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낙심됐을 때 어떻게 저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게 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초점을 맞추어 저로 하여금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케 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편 143편 5절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핍박으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그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했을 때 분명히 시편142편 말씀의 배경인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의 핍박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두 사건이 얼마나 비슷합니까? 우리가 지난 주 수요일 묵상한 시편 142편이나 오늘 본문인 시편 143편이나 다윗의 심령은 속에서 상해 있었고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반복되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좋은 예로 저는 요한복음21장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15, 16, 17절) 물어보실 때 그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을 때하고 너무 흡사하였습니다. 어떻게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을 때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두 상황 다 “(숯)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눅22:55). 분명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시고 그 위에 생선을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육지에 내린 제자들 중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과거의 불 가운데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자신의 죄가 기억이 났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상황을 재현하시므로 베드로의 죄책감에서 건져주시사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섭리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현재 삶 속에 고통과 역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에 속에서 상하고 마음이 참담할 때 과거의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과거에 지금 현재 상황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며 묵상하는

가운데 현재의 상황 속에서 기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합니다. 과거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해 주셔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현재 우리가 당면한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과거의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묵상하므로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다윗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143편 6절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셀라).” 다윗은 그의 원수의 핍박 가운데 그의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절망적이고 괴로운 참담한 마음 가운데 그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여 그에게 손을 펴고 간구하였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길 기대하였습니다(7절). 그만큼 절박한 상황 이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을 오늘 본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에 대해 한 4가지로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 (1) 다윗은 자신의 불성실함(unfaithfulness)과 불의(unrighteousness)를 바라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실(Your faithfulness)와 주님의 의(Your righteousness)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3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그의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마음이 참담할 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데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진실)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 수요일 시편 142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자고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143편에서도 다윗의 기도를 볼 때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신실(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습관이 돼야 할 것임을 교훈 받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본능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인지도 모르고 불평과 원망하기가 쉽지만 우리는 그러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성실함과 불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진실)하심과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2)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그렇게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마음이 참담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3편 8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이니이다.”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마음이 속에서 참담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간구하는 가운데 그는 아침에 자기로 하여금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왜 그는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을까요? 다윗이 주님을 의뢰하여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이유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은 주님의 뜻을 배워 그 주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였기 때문입니다(10절). 그래서 그는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8절)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을 때 그 징계로 인한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마음이 참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야할 길을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U-turn해서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릇행하여 하나님께 범죄 하였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진실(신실)하심과 그의 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과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3)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3편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다윗은 그의 원수들의 핍박 속에서 심령이 상하였고 마음이 참담하였을 때 그는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 묵상한 시편 142편에서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도 주위에 어느 누구도 그에게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피하지 않고(142:4) 오직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5절) 피하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 시편 143편에서도 그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피하여 숨어 그의 원수들에게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3편 11절에 다윗의 구원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다윗이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킬 때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4)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를 심판해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3편 12절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을 다 끊으시고 멸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주님의 종이지만 다윗의 원수들은 주님의 종이 아니기에 선택받은 주님의 종을 주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기억하시고 보시사 자기는 구원해주시고 악인은 멸해 주시길 간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주님 인자하심 따라 주의 선택받은 종은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종이 아닌 선택받지 못한 우리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사랑)과 공의가 들어나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과 심판 혹은 심판을 통한 구원으로 인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될지라도 시편 기자 다윗처럼 과거의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제 143편: 우리 삶 속에 재현되는 상황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시편 143편 5절).

우리 삶 속에 왜 비슷한 상황들이 재현되는 것일까요? 전에 분명히 비슷한 상황을 접한 것 같은데 왜 또 그러한 비슷한 상황을 지금 또 우리는 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우리는 정신이 없어 그 순간에는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전에 접했다고 생각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정신을 차리고 그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잠잠히 생각하다 보면 과거에도 우리 자신이 그러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저 우연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 비슷한 상황을 재현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비슷한 상황을 재현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므로 사모하게 하십니다.

성경 시편 143편 5절을 보면 다윗은 압살롬의 핍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그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했을 때 다윗은 분명히 시편142편 말씀의 배경인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의 핍박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두 사건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았을 때인 시편 142편이나 오늘 본문인 시편 143편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 범죄 한 후 압살롬에게 핍박을 받을 때나 다윗의 심령은 속에서 상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42:3, 143:4).

왜 이렇게 비슷한 상황들이 다윗의 삶 속에 재현되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왕에게 핍박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묵상)케 하시므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오늘 본문 시편 143편의 배경인 압살롬의 핍박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펴서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였습니다(6절). 그는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7절).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비슷한 상황을 재현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므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3편과 시편 142편과 다윗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점이란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시142편)에는 다윗이 죄를 범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찌르므로 말미암아 여인들의 환호로 인한 사울 왕이 시기하므로 받은 핍박 이였습니다. 그와 반면에 오늘 본문 시편143편은 다윗이 밋세바를 범하고 그 범죄를 덮으려는 시도 가운데 밋세바의 남편인 충성된 군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인 죄로 인하여 받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핍박 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143편8,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뜻을 행하길 원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범한 죄에서 돌이켜 이제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다윗을 볼 때 저는 요한복음 21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15, 16, 17절) 물어보셨습니다. 그 때 그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을 때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어떻게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을 때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나 두 상황 다 “(숫)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누가복음 22장 55절에 저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분명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숫불을 피시고 그 위에 생선을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육지에 내린 제자들 중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과거의 불 가운데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자신의 죄가 기억이 났었을 것입니다(요21:9). 결국 예수님은 과거의 상황을 재현하시므로 베드로의 죄책감에서 건져주시길 원하셨고 또한 그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명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섭리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때에 잠시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만일 과거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적을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실 때 우리 과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묵상하십시오. 그러한 가운데 현재의 상황을 놓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과거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묵상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 담대히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혹여나 성령님께서 들춰내시는 회개치 않은 죄가 기억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백하며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뜻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헌신하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재현하시는 상황들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시사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과거의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비슷한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게 하는 상황에 이끌림을 받기보다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길 기원하면서)

제 143편: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
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이니
이다"(시편 143편 8절).**

시편 기자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시133:1).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됨(엡4:3)을 지키기 위해선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 해야 합니다(약1:19).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의 평안과 화목을 위하여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시편 143편 8절에서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가 아침에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 원하였던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8절). 즉, 시편 기자는 주님의 뜻을 배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 (10절).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아침에 주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 아침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을 경손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인자한 말씀은 시편 141편 5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 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 과연 어떻게 사람들의 책망을 은혜로 여길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사람들의 책망을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하는 감정 속에서 함부로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입을 조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책망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고 말하기를 속히 하곤 합니다. 왜 그럴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아침에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한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보다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신앙인은 사람의 책망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끝없는 사랑을 느낍니다. 사람의 책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의 죄를 더욱더 철저히 들춰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성실함을 들춰내시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 신실한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람의 책망 속에 미움을 느끼기보다(미움이 아니라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끊임이 없는 신실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책망조차도 은혜로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교회가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선 주님의 인자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생각들을 말로 표현할 때에도 우리의 영의 귀는 주님께서 들려주신 인자한 말씀에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 자세는 겸손히 주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주님의 인자한 말씀이 사람들의 말 가운데서라도 나의 죄를 더욱더 분명하게 들춰낸다하여도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책망 외에도 원수의 저주까지도 은혜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죄를 범하여 왕궁에서 도망하여 광야를 향하는 가운데 베냐민 지파 시므온이란 사람의 저주조차도 겸허히 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광야에서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거짓된 말이나 수군수군이나 비방이나 정죄까지도 겸허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말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뚜렷하게 듣고 심비에 적어 말씀 인격화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찬송가500장)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의 다양한 말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음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 144편: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44편]

과연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가 ‘복’, ‘복’, ‘복’ 말하는데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자녀의 복이나 물질의 복 등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중의 복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73편 28절의 근거한 말씀입니다. 즉, 시편 기자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시하여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의 결말(17-20절)과 의인의 결말(24절),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자기 자신이 “우매무지”하고 주님 앞에서 짐승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22절) 그의 고백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였습니다(28절). 달리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지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 복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알고 누리며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성경 시편 144편 15절을 보면 성경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박윤선). 왜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한 마디로 정리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였었기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한 3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묘사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겸손히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므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자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그가 신뢰하고 그러므로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하나님을 ‘승리의 하나님’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144편 1절을 보십시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시의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므로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기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기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자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70인역(LXX)이나 월겟역(Vulgate), 그리고 에디오피아역이나 아라비다역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에 관하여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손과 손가락을 훈련시키시사 “손의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삼상17:40)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가되(45절) 마주 가까이 오는 골리앗에게 빨리 달리며(48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치므로 돌이 그 이마에 박혀(49절) 골리앗을 이긴 것(50절)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 시편144편1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때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과 손가락을 훈련시키시사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지므로 골리앗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성경 사무엘상 17장47절이 적합한 대답이라 생각합니다: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손과 손가락을 가르치시사 돌과 물매로 베틀채 같은 골리앗의 창자루와 육백 세겔인 창날을 가지고 나온(7절) 신장 여섯 규빗 한 뺨인 가드 사람 골리앗(4절)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볼 때 물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자궁할까봐(삿7:2) 그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 중 목동이 다윗의 손과 손가락을 통하여 골리앗과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라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을 생각할 때 다윗의 손과 손가락을 가르치시사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승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그가 신뢰하고 그러므로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144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 외에도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체험들이 많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들을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2절). 그 고백의 첫 부분에 바로 “여호와는 나의 인자(사랑)시요”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요새가 되어주셨고 산성이 되어주셨으며,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므로 ‘하나님은 나의 인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을 때

이렇게 반응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관대 저를 생각 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3-4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다윗처럼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님께서 알아주시며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자신이 마치 지나가는 그림자 같이 참으로 보잘 것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지함 가운데서 저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석절 말씀을 시편 8편 4절과 18편 1-2절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 시편이 유사한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시편 18편 1-2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144편3-4절 말씀은 시편8편4절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 하시나이까.” 이 유사한 점들을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이 관대 주님께서는 나를 이리도 사랑하시는가?’라는 질문이 듭니다. 왜 주님은 우리 같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지, 우리의 반석, 요새, 피할 바위, 방패, 산성,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깨달지 못하겠다는 고백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윗이 시편18편1절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그가 신뢰하고 그러므로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하나님을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144편 5-11절을 보면 우리는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한 마디로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박윤선). 우리가 이미 목상한 시편 142편이나 143편만을 보아도 다윗의 원수들은 사울 왕과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피를 많이 흘린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144편에서는 골리앗도 다윗의 원수였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특히 오늘 본문에서 그의 원수에 대해서 8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은 꾀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꾀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그는 그의 원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물론 입은 꾀사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 원수의 손에 대해서 “이방인의 손”이요 또한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의 거짓의 오른손은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기의 손(“나의 손”)과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거짓의 오른손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가르치시는 다윗의 손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본문 5-7절에서 어떠한 하나님에게 구원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the heavenly warrior who comes to fight on earth on behalf of David against God’s enemies”(하늘의 용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MacArthur). 그래서 그는 5-7절에서 아주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하늘의 용사이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MacArthur). 그 하나님에게 간구하기를 “대적을 흠으시며 주의 (화)살을 발하사 저희를 파하소서”(6절)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 기도를 다윗은 하늘의 용사(Heavenly Warrior)이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 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가 구원해 주실 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기도와 찬미는 같이 가는가 봅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하였을 때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다’(욘2:9)라는 진리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분의 때에 그리고 그 분의 뜻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받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44편의 저자인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의 복에 대하여 12-14절에서 한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복은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2)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13-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

(3)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복은 평화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를 침로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귀한 복을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The Giver of Gifts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길 원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승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에 평안함을
누리면서)

제 시편 144편: 주님, 인간이 무엇인데 그를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간이 무엇인데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한 번의 입김에 불과하고 그 사는 날이 지나가는 그림자같습니다” (시편 144편 3-4절, 현대인의 성경).

지난 주 금요일 제가 섬기고 있는 승리장로교회 설립 34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말씀 집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에베소서 1장 3-14절 중심으로 “구원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들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후 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에 묵상했던 시편 8편 4절 상반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관대 이처럼 사랑해주시는지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관 대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요.’ 그런 후 저는 어젯밤 묵상한 시편 144편을 오늘 새벽기도회 선포한 후 이렇게 다시금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3절 하반절인 “인간이 무엇인데 그를 생각하십니까?”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 아무리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루 동안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 무수히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썄요. 많이 생각해야 하루에 천 번 이상은 생각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설마 만 번까지 서로 생각하는 부부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많이 서로를 생각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온 종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어떻게 서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꿈에 상대방 배우자가 나타난다 하여도 밤새 배우자만 꿈을 꾸는 것도 아닌 것을 감한할 때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서로를 생각하는 것은 제안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제안 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121:4). 또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사40:28) 우리를 향한 그 분의 생각은 영원합니다.

성경 시편 139편 17-18절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보배로운 생각의 수가 모래보다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래를 셀 수가 있습니까? 아예 우리는 그 모래의 수를 세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모래의 수를 다 셀 수가 없기에 우리는 그 모래의 수를 세려고 시도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은 무수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도 무수한 생각을 “한 번 입김에 불과하고 그 사는 날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144:4). 햇빛이 지면 그림자는 없어지고 한 번 입김은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일진대, 우리의 날이 풀과 같을진대(103:15) 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도 무수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므로 그 날엔 우리의 생각도 소멸합니다(146:4). 그러나 입김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소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의 입김과 같고 그림자 같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를 무수히 생각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의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인간이 무엇인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엇이 관대 저를 생각하십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 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새찬송가 143장 1절),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말인가 웬 은혜가 그 사랑 크셔라”(2절)]

제 145편: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시편 145편]

저는 복음성가 “축복의 사람”을 즐겨 부릅니다. 그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특별히 이 후렴 부분에서 제 마음의 축복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분들이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기원하곤 합니다. 이 분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분들의 헌신은 참 향기로운 기도임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부르곤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제 자신과 더불어 우리 승리장로교회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무엇을 하던지 간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교회 삼대 목적 중 하나입니다. 즉, 주님을 모시고, 닦고 높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 삼대 목적을 정하시고 주님의 몸 된 승리장로교회를 섬기시는 가운데 이렇게 은퇴하시고 나서서도 선교지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시편 145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을 높이겠다고 헌신하는 다윗,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찬양)하겠다고 헌신하는 다윗, 과연 그는 어떠한 주님을 높이하고자 한 것입니까?

첫째로,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145편 1절을 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도 복음서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아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13절). 그리고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며(13절) 위엄과 영광이 있습니다(11, 12절). 우리는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위엄과 영광이 있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합니다(11, 12절). 이 주님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였던 다윗은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행하신 기사를 목상하는데 헌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목상하리이다.” 지난 주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때 저희 교회 교육 목사님과 그의 친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교역자로서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우리는 잠시 좀 멈추고 우리 각자의 삶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의 손길을 목상해야 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목상할 때 우리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이 말씀에 비춰서 생각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실 진데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의 능력을 경험했던 추억을 되새기며 목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들을 우리가 목상할 때 왕 되신 주님께서 현재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더욱더 확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주님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145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여러분도 복음성가 “주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도다”를 아실 것입니다. 그 복음성가를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앞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후렴)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위에 계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지난 주 금요일 새벽기도회 때 이사야41장10절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렵고 놀랄만한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하고 힘없는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사(13절) 다시 힘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5편 14절에서도 다윗은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환난과 핍박으로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8`-1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데도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18절). 그리고 우리가 그 분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간구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우리를 구원해(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사랑을 경험[우리를 붙들어 주심(14절),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심(18-19절)]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다 보호”해 주십니다(20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며(praise)

또한 선포(proclamation)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 4,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다윗은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행하신 구원의 큰 기사들을 생각할 때 광대하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며 주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의 크신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므로 우리는 크신 주님께 큰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리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다윗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145편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목상하는 가운데 그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왕이시며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사랑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큰 구원의 기사들을 행하셨는지 목상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히 그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심을 보고 경험하였습니다(9절). 또한 그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심(16절)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17절). 그는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기념하는데 헌신하였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사랑으로 그의 백성(자녀)들을 사랑하시사 선대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현재 그 은혜를 기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밖에 없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에서 이렇게 (재)헌신하고 있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찌로다.”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을 마땅히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존귀와 능력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가 환난과 핍박으로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선대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행하신 주님의 기사를 묵상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신 주님께 감사하므로 나아가 큰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내 자신의 불순종과 위선과 거만함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면을 보면서)

제 145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시편 145편 3절).

지금 한국 청소년 축구 대표 팀이 브라질과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축구 팬들은 박주영 선수가 나이지리아 시합 때처럼 골을 넣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박주영 선수는 골 셀로모니(ceremony)로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TV 뉴스에서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인 축구 선수로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혹은 TV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박주영 선수처럼 유명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크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시편기자 다윗은 크신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크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념했습니다.

성경 시편 145편 7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 다윗은 광대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념했습니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므로 우리는 크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작게 여기든지 혹은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되새겨 보면서 그 크신 은혜를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면 또한 기념해야 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크신 하나님께 "크게 찬양"드렸습니다.

성경 시편 145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
"크게 찬양"한다는 것은 주님의 큰 행사 또는 주님의 크신 능한 일을 "크게 칭송"한다는 말입니다(4절). 그러므로 주님을 "크게 찬양"하기 위해선 우리는 다윗처럼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5절)을 목상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주님의 "기사"를 목상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대하심(9절)과 긍휼(9절)을 목상해야 합니다. 그의 선대하심이 없었다면 또한 그의 큰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목상해야 합니다(17절). "넘어진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14절)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셨기에(16절) 우리는 크신 주님을 크게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전도단의 홍성건 목사님은 찬양(praise)과 경배(worship)를 구분하였는데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삶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삶을 뒤돌아보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영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만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크신 주님을 크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먼저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크신 주님을 크게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모르는 무지함 가운데서 올려지는 큰 목소리의 찬양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귀를 아프게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행하신 큰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 감격하여 올려지는 큰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크게 "선포"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145편 6절을 보십시오: "...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입술로만 크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진정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족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크게 선포하는 듯 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는 너무나 '작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의심 속에서 가두어 두고 불안과 걱정, 근심 속에서 우리 주위에 비신자들에게 너무나 작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저 사람의 하나님은 저렇게 작은가?'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크게 외치지만 우리의 이웃 사랑은 너무나 작지 않습니까? 만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크심처럼 크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러할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은 크신 하나님이 아닌 싸우고, 분리하며, 질투, 시기 등등의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결코 그분을 축소해서 '작은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가리우면 아니 됩니다.

이 말씀묵상을 적는 동안 한국 청소년 축구 대표 팀이 브라질에게 졌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것처럼 박주영 선수의 골 셀로모니도 없었습니다. 야후 인터넷 뉴스에 단 리플 중에 이런 글들이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여 왜 진건가요? 울 나라 기독교 대표팀인데 감독부터 선수까지 전부 기독교인들이던데...브라질에 비해서 기도빨이 딸린건가요?", "국가대표팀이 진게 아니라 예수쟁이 대표 팀이 졌다.. 힘내라." "예수쟁이 대표 팀이 졌다"라는 말, 여러분은 이 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쟁이"들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크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축구처럼 골을 넣는 것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므로 크신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또한 크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므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크게 "선포"하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합니다.

크신 주님께 크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 같이 심히 작은 자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크신 역사를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146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시편 146편]

여러분은 배반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도 믿었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어제 새벽기도회 때 예레미야 11장 15절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많이 행음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며 섬겼던 유다 백성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무마하려고 했던 것인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는 제사에 필요한 고기들을 받쳤던 유다 백성들, 이렇게 악을 행하며 기뻐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또한 과연 나의 가정은, 그리고 과연 영적인 가정인 승리장로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혹시 나는 유다 백성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마음은 멀리 있어서 영적 간음죄인 우상을 섬기면서 예배에 필요한 헌금을 가지고 주일 주님의 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 하나님의 음성은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11장9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우상숭배의 죄를 가리켜 “반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셨을 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않고 등을 돌리면서 우상들을 좇아 영적 간음죄를

범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배신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묵상 중에 드는 생각은 ‘과연 우리 인간들을 믿을만한가? 과연 우리 사람들은 의지할 만한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연 나는 (상대방에게) 믿을 만 한 사람인가?’ 저는 제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 시편들” 다섯 중에 제일 첫째입니다(146, 147, 148, 149, 150편)(박윤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시편146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1-2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할렐루야” 즉 “너희는 찬송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되 그는 우리가 다 함께 그리고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다 함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은 믿을바 되지 못하여도 하나님만은 영원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찌니.” 한 마디로, 그는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는 우리에게 “방백들”, 즉 “사람들이 보기에 유력한 자들”(박윤선)이나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은 도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3절). 그래서 시편 기자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4절). 죽으면 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 죽으면서 우리 사람들의 계획들도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한 인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사람을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간 신뢰는, 하나님 신뢰의 길을 차단시키는 악한 사상이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남들로 하여금 하나님 신뢰의

행위에 나아가게 하려고, 먼저 인간 신뢰의 죄악을 금지시킨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행위는 진정한 우리의 도울 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권면처럼 먼저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신뢰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의뢰하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5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움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우리의 도움을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참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146편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 사람이 또 다른 피조물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조물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피조물보다 당연히 조물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조물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조물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참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자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환난 날에 도우실 수 있습니다. 흠으로 왔다가 흠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은 저와 여러분을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요 전능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도움을 삼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146편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우리가 종종 의지하는 사람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간사합니다. 우리는 거짓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실행하심에 있어서 영원히 진실하십니다(박윤선). 비록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서 책임에 불성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미쁘시사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에 그는 영원히 진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도움을 삼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146편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십니다(7절).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박을 당할 때에 공의로 판단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므로 (9절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7절).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즉,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7절).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붙드십니다(7, 9절). 즉,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8절). “소경”이란 육신적으로 소경도 있지만 또한 영적으로도 소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소경의 눈을 여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보이지 않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보이지 않음도 치유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8절). 여기서 “비굴한 자”들이란 비천해진 자들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즉, 우리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천해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비천해질 때에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객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9절). 우리가 이 나그네 된 세상에서 객처럼 살아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보호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움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사람들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한다면 어느 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도움을 삼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기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아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 (찬송가 349장 1절)]

제 147편: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시편 147편]

오늘 성경 시편 147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왜 그는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아름다우며 또한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여기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요 곧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주님께서는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것일까요? 한 5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한 자들을 치유해

주시므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경 시편 147편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흠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한 자들을 치유하신다는 말씀은 이 시의 배경을 알며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지은 시로써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과 성전 및 조국 재건 때에 지은 시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한 자들을 치유하신다는 말씀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은 별들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그리고 그 별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실 수 있으시며(4절)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5절)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흠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시는 것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으신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흠어진 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흠어진 자들을 모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3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으셨고 또한 그들의 상심과 상처를 고치시며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6: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16장18절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심에 있어서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한 자들을 치유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일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므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경 시편 147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낮아졌습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께 매를 맞고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셨습니다. 언젠가 새벽기도회 때 묵상한 이사야41장10절과 1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므로 그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먼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케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므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경 시편 147편 8-9절을 보십시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주실진대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땅을 위하여 비를 내려 주시기도 하시며 또한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공급해 주시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핍해 지는 이유는 중 하나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그 중에 하나는 청지기 자세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풍성한 것들을 지혜롭게 잘 관리를 못해서 궁핍해 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사람이 음식 문제로 염려할 것이 없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박윤선). 우리가 익히 들은 산상수훈 말씀 중 마태복음 6장30절 하반 절부터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여 불신자들처럼 먹고 사는데 계속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공동체로서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메시지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 시편 147편 13절을 보십시오: “자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뢰하는 자들의 국토를 안전히 수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박윤선). 교회에 적용해보면 교회를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그를 의뢰하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시편146편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객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묵상한 시편145편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객을 보호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시사 보호해 주십니다. 그 결과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립니다(147:14).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로 보내시므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경 시편 147편 18-19절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교회인 우리들에게 말씀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16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17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15절)라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16절)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인하여 바른 신앙고백을 할 때 그 교회는 반석위에 견고히 세워져 갑니다. 이러한 견고히 세우시는 역사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합니다(시147: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므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 어떻게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까? 첫째로, 주님께서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한 자들을 치유해 주시므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2-3절). 둘째로,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므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6절). 셋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므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8-9절). 넷째로,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보호해 주십니다(13절). 마지막 다섯째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로 보내시므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18-19절).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찬송가 248장)]

제 147편: 하나님께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시편 147편 1절).

오늘 토요일 새벽기도회 때 찬송가 204장("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면서 후렴에 가서 영어를 보니까 "This is my story ..."란 문구가 나와서 잠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야기'(my story)... 약 50년 나의 이야기 가운데 간증은 무엇입니까? 특히 승리장로교회 25 생일을 맞이하기에 앞서 25년 승리장로교회 이야기는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용서의 주님, 징계하시는 주님 등등 그 주님을 크게 찬양하는 승리장로교회 25주년 기념 예배가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본문 말씀인 시편 147편 1-3절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특히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고(good), 아름답고(pleasant), 그리고 마땅하다 (fitting)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는지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승리장로교회 25주년 후부터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 세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한 이유는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147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 작년 말부터 우리 승리교회는 계속 주일 예배 때마다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묵상한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사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느2:8, 18) 말미암았던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18절, 즉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승리장로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성취해 나아가심을 경험하면서 그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승리장로교회임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총에 힘입어 하나님의 세우시는 선하신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우리 자신부터 틈을 보이시고 부서트리심으로 세움을 받는 가운데서 우리를 서로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 후부터 우리는 더욱더 이 주님의 세우시는 역사에 다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무너진 개인과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각자의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세우지 못하고는 결코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없을 것이며 우리 가정을 세우지 못하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18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를 모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147편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 후 회개치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흠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성경 신명기 4장27-3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징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국 중에 흠으셔서 그들의 남은 수가 많지 않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끝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가 죄를 범한 후 회개치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으시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흠으실 때에 교회 안에 남은 수가 많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못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먹칠하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 교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기에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의 말씀도 청종치 않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흠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 입었던 무슨 이유가 있었던지 간에 교회를 떠나 흠어져 살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시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흠으시며 모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보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흠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며 싸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147편 3절을 보십시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적으로 상심(brokenhearted), 즉

부서진 마음을 고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신 후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상처(wound)를 치유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적합한 하나님의 치유 사역입니까? 그러나 이 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정한 '상처 입은 치유 자'이시라고 생각합니다(나우웬).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들, 그 상처들을 아직도 천국에 계시면서 지니고 계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며 싸매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치시며 싸매어 주시는 상처 입은 치유 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호세아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게 하시며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께 "오라 우리가 ... 돌아가자"(호6:1)로 말하였건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처를 입히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왜 상처와 아픔을 당하게 하시는지 원망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하면서 멀리 떠나려는 요나와 같은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 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상처를 입는 것을 보고 가만히 계셨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상처 입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며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적합한 고치심과 싸매심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크신 주께 그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크게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시145:3, 7).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며 흠으셨다고 모으시며 또한 상심하고 상처 입은 우리를 고치시며 싸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 후 이 주님의 세 역사인 세우시는 역사, 흠으신 자를 모으시는 역사, 그리고 고치시며 싸매시는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께서 맡겨 주시는 사역에 충실하길 원하면서)

제 147편: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시편 147편 1절).

수요일 저녁 6시, 입관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약 1년 6개월 전 똑 같은 장소에서, 똑 같은 강대상 앞에서 사랑하는 셋째 삼촌 목사님의 입관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예배 후 조문객들이 유가족 식구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저런 생각에 잠들었습니다. 슬피 울며 유가족들과 조문객들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전도서7장 2절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언젠가는 다 우리가 죽음을 맛봐야 할 터인데 산 자로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문객들을 다 인사한 유가족들과 마지막으로 고인의 관 앞에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소망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입관 예배 후 마친 후 수요기도회가 있어 유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참 소망과 기쁨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사랑 고백을 찬양으로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시편147편 말씀을 선포하길 시작했을 때 저는 1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는 말씀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설교를 20절 마지막 절까지 묵상하여 다 준비를 해서 나아갔지만 저는 1절 말씀만

묵상하는데서 멈추고 만 것입니다. 그저 1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만으로도 제 영혼이 풍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절 말씀만 한 3가지로 묵상하였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성도는(시34:8)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하나님”(God is so good)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까라도 소망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그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좋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돌이키시사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아름답습니다.

언젠가 아내가 어느 분의 장례식을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저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작년 저의 셋째 삼촌인 고 김창혁 목사님의 장례식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장례 예배에서는 사람의 영광을 보았다는 아내의 말을 들을 때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죽으면 그 죽음은 주님 안에서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죽음 가운데 장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찬송가40장). 아름다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영의 눈으로 보는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시편27편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와 함께 거하여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을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 사도행전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25절). 찬양은 상황에 이끌림을 받지 않습니다. 찬양은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함이 마땅한 줄 알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암으로 고통가운데 계신 할아버님을 찾아뵈러 갔었을 때 침대에 누워계셨다가 침대에 앉으신 할아버님께서 저에게 찬송가 82장을 불러 달라고 하셔서 부른 기억이 납니다: (1절)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4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그 분을 찬양함이 선하며 아름다우며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금요일, 어제 발인 예배 후 하나님께서 유가족 식구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알게 된 후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돌아왔던 그 순간을 되새기면서)

제 148편: 하늘과 땅 위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48편]

우리는 지난 주 수요일기도회 때 시편 147편 말씀 중심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계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1절).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성도들인 참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1)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한 자들을 치유해 주시며, (2)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3)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4)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그리고 (5)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계시해 주시므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한 것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148편 1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1절), “…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2절). 시편 기자는 하늘이나 땅 위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란(1-6절) “모든 사자”들과 “모든 군대”들을 가리킵니다(2절). 즉, 시편 기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 외에 시편 기자는 “해와 달”과 “광명한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뿐 아니라(3절)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4절). 여기서 “하늘의 하늘”이란 “가장 높은 천계”를

말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란 “구름에 들어 있는 물”을 말합니다(박윤선). 한 마디로, 그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천국이나 구름이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인 사단과 그의 무리들(fallen angels)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 또한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지만 이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자”들이나 “모든 군대”들은 죄가 없는 천사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천사들의 이 찬양함에 열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천사들처럼 되어서 죄 없는 영적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을 생각할 때 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 날이 하루 속히 오길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부분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 광명한 별들 하늘의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물들(구름에 들어 있는 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로서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과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해나 달이나 별들이나 다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그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입으로 찬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주로 피아노와 악기들을 동원해서 입을 열어 목소리를 내어 찬양을 하지만 해와 달이나 별들 등은 우리처럼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우리 이성이나 감정이 있는 인간들과 달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해와 달과 별들 등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찬양을 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6절을 보십시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음이라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폐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하사 그것들을 다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사들이나 해와 달이나 별들 등등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은 다 지으시사 각자 있어야 할 곳에 영영히 세우셨기에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뿐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7-14절). “용들과 바다” (7절),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8절),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들 (9절),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들(10절)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들과(11절),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12절)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인 사람들이나 모든 자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모든 자연물들이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들 등이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땅에 있는 모든 자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음을 받아 이 땅에 거하면서 있는 그 자체가 창조주의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박윤선). 그러면 에서 시편 기자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성 없는 것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박윤선).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막론하고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박윤선). 특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즉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4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저가 그 백성의 별을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찬양할찌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라”(13절).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에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오(찬송가 40장).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구원의 찬양을 영원히 부르기를 소원하면서)

제 149편: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149편]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삶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2007년12월)에 “삶은 아름답습니다(Life is Beautiful)”란 제목 아래 이런 마음의 글을 썼었습니다.

“삶은 아름답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삶은 아름답습니다.
삶은 아름답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있기에 삶은 아름답습니다.
삶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이 있기에 삶은 아름답습니다.
삶은 아름답습니다/ 회복과 변화가 있기에 삶은 아름답습니다.
삶은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볼 수 있기에 삶은
아름답습니다.
삶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삶은 아름답습니다.
삶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에 삶은 아름답습니다.”

이 글이 생각난 이유는 바로 오늘 성경 시편 149편 4절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현재 형처럼 보이지만 영문 성경을 보면 장차 미래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함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임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는 필경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6-9절, 박윤선). 이러한 승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영광”입니다(9절).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광, 이러한 승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6-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 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찌로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 하나님께 존귀 영광의 높은 찬양을 드리게 하시며 또한 우리 손에 두 날을 가진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이것으로 열방 민족들을 보수하시며 벌하시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은 무조건 마지막 때에 이뤄질 예언의 말씀으로만 해석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미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이미 현재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 즉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재림 때에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경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역경과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므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장차 있을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심의 총만함을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된 자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으며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케 하시므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2절)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4절).

이렇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하시는 은총을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총에 화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셨고 또한 앞으로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것인데 그 “이미”(already)와 “아직도”(Not yet)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입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뻐하셔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5절)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께(5, 9절)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1, 2, 3, 5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찌어다”(1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찌어다”(2절),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찌어다”(3절), “성도들은 영광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찌어다”(5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여주신 은총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오는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견져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허락해주시는 영화로운 구원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숨질 때 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2007년 12월경에 “삶을 아름답습니다”란 글을 쓴 후 한 2개월 지난 2008년 2월쯤에 “죽음도 아름답습니다(Even Death is Beautiful)란 글을 써 보았습니다: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슬픔 중에서도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사랑의 눈물이 있기에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순간적인 헤어짐 속에서 영원한 만남의 산 소망이
있기에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에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에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함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에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기에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사 이 추악한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헌신하면서)

제 149편: 하나님, 아름답게 해주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시편 149편 4절).

새해 아침, 새롭게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야 하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잠에서 일찍 깨었습니다. 몸은 피곤하였지만 마음은 더 피곤한 듯 어찌할 바를 몰라 침대에서 뒹굴다가 제 첫째 아들 달린이 아이들 화장실 쓰레기통에 한 100마리 개미가 있다고 하여 침대에서 펄떡 일어나 개미 죽이는 약을 들고 가보니 쓰레기통에 개미는 한 10마리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개미 죽이는 약을 뿌린 후 쓰레기통을 봉지에 담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쓰레기통을 물로 씻어 제 자리에 놓은 후 다시금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고 자꾸만 생각들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든 생각 중 하나는 양로원에 계신 교회 박 권사님을 뵈러 가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사랑하는 권사님을 뵈러 가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찬송가495장)를 부르면서 그제 권사님 앞에 앉아 바라보고 있노라면 눈물 속에서 무겁던 마음도 가벼워지고 힘들어 했던 제 자신을 주님께서 힘주시는 경험을 여러 번 한지라 피곤한 몸을 일으켜 권사님이 누워계신 양로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여 권사님이 계신 방으로 가 보니 산소 호흡기를 끼시고 입술이 좀 많이 붙어 트셔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 염려가 되어 안 그래도 방에 다른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었던 일하는 필리핀 여자 분에게 물어보았더니 모른다고 담당 간호사인가에게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고생하시는 사랑하는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치매로 인하여 아무 기억도

없으시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저의 삶 속에 보내주신 후 추억들을 되 새겨 보았습니다. 그 추억들 중 생각나는 것은 제가 권사님을 찾아뵈었을 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들 중 두 마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승리장로교회는 우리교회예요’와 ‘저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추억을 되살릴 때 승리장로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하셨고 (지금도 하시는) 박 권사님의 사랑에 저 또한 승리장로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저의 할아버님과 할머니도 생각났습니다. 승리장로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하셔서 손자 목사인 저에게 해주셨던 유언과 같은 ‘승리장로교회를 지키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또한 박 권사님께서 저에게 “저 고생 많이 했어요”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을 때 제 자신을 승리장로교회를 위하여 제 자신을 더욱더 헌신하여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 새벽기도회 때 묵상한 시편 149편 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름답게 해주세요’라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저를 이 무거운 마음에서 건져 주시므로 저를 아름답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치매로 아무 기억이 없으신 사랑하는 권사님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기억이 없으실지라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연약한 저 또한 기억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같은 방에 있었던 일하시는 여자 분이 wheel chair에 앉아 계시는 그 한국 할머니에게 무엇인가를 먹이시다가 한국어로 ‘할머니, 뱉어, 뱉어’라는 소리를 뒤로나마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마음에 뱉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담당 간호사하고 대화해서 알게 된 것이지만 박 권사님의 입술이 그렇게 붙어 트셔 있었던 이유는 요즘 위에 호수를 꼽으시고 들어가는 영양분들을 자주 토해 내시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저 또한 제 자신의 마음에 시험을 듣게 하는 생각들을 다 뱉어 버리고 토해 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 된 생각들을 토해내게 해주시사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건져주시사 아름답게 해 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은 시편147편 1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였습니다. 새해 더욱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박 권사님을 만난 후 차 안에 타서 CD를 틀었더니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복음성가 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가사 중 ‘소중한 존재’라는 말이 제일 먼저 제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이 사실에 위로를 받으며 승리장로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해 첫 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16:18)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승리장로교회 목양실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의 글을 두서없이 적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마음이 무거워 홀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곤란 중에 위로”(시119:49-50)가 있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잘 준비하길 기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는 최고로 아름답게 해주실 것입니다.

연약하고 추악한 자를 아름답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아름다운 이들을 생각하면서)

제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오늘 드디어 시편 마지막 편인 150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9월 21일, 수요일,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후 이렇게 4년 9일이 지난 오늘(2009년 9월30일), 시편 150편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한 3-4주 전 토요 새벽기도회 때 기도하다가 여태껏 묵상한 시편 말씀을 주님의 뜻이 계시면 나중에 책으로 낼 수 있을지 몰라 시편 1편부터 요즘 계속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약 4년 동안 시편 말씀을 묵상케 하시므로 말미암아 제가 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금이나마 시편 기자를 닮아가게 해 주셔서 그저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는 시편을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본받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본받는 시편 기자의 기도 중 저는 어제 새벽기도회도 말씀을 전파한 후 개인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복음성가 “좋은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으며 또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를 찬양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와 찬미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저 또한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즐겁고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4년 동안 부족한 중을 통하여 시편 말씀을 1편부터 이렇게 오늘 150편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쉽지 않았을 터인데 이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시편 말씀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편 마지막 편인 시편 150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들인 시편 146편부터 150편 말씀 중 제일 마지막 할렐루야 시편으로서 “할렐루야의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박윤선). 특히 시편150편 마지막 절인 6절에 가서는 할렐루야의 절정에 이르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찌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란 제목 아래 찬양에 대해서 한 4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참고: MacArthur 목사님의 주석에 근거하여 묵상하고자 함).

첫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호흡이 있는 자들은 어디서(Where?)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 시편 150편 1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찌어다.” 시편 기자는 “그 성소에서” 그리고 “그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그 성소”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궁창”은 하늘, 즉 천국을 가리킵니다. 한 마디로 이 말씀은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은 땅과 하늘에서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148:1, 7, MacArthur).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찬송할 만한 장소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박윤선). 우리는 어디에서나(everywhere)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호흡이 있는 자들은 왜(Why?)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1)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때문입니다(Because of what God has done).

오늘 본문 시편 150편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주시며 보호해주시는 것, 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얘기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다타내 그의 능력들, 또한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우리 또한 경험하였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경험할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2)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극히 광대하심 때문입니다(Because of who He is).

오늘 본문 시편 150편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좇아 찬양할찌어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특히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저와 여러분을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사 그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땅히 크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들과 그의 광대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셋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호흡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How?)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 시편 150편 3-5절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찌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찌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찌어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통소, 제금으로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마디로, 찬송할 수 있는 악기들을 다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박윤선).

마지막 넷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Who?)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 시편 150편 6절을 보십시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찌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한 마디로, 찬송할 자들을 다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박윤선). 찬송할 만한 모든 장소를 총동원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찬송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총동원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릴 뿐만 아니라 찬송할 자들을 다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십시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시편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의 즐거움은 아침에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또한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인의 길을 걸으면서 떨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므로 죄를 범하기 않고 자기의 행실을 깨끗케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유’로 삼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는 두려운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울 수 없을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는 자기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긴급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하면서 또한 자기의 소원을 주님께 겸손히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기도에 헌신합니다. 그가 그리하는 이유는 그는 항상 주님께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결심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큰 죄 가운데서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은 평생 기도에 헌신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자기 마음의 소원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시고 겸손히 자의 소원을 들으시사 자기를 건지시사 자기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는 자기의 머리를 드시고 자기의 의를 따라 상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가 그리도 주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셀 수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자기에게 유익되게 하시며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에 그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복 있는 사람은 자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께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극락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극락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자기를 세상의 으뜸으로 삼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는 자기를 향하여 셀 수도 없는 주님의 생각과 자기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길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을 때까지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데 헌신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